

2004 연구보고서 250-2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양 애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이 선 (전문연구원)

김 양 희 (선임연구위원)

권 순 형 (객원연구원)

발 간 사

문화야말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문화자원, 특히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계승되어온 모든 문화적 요소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요소가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남성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가 인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 관점에 의한 민족문화의 표상으로서 인식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성문화유산이란 역사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여성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인식의 변동은, 사회발전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여성을 보는 시각의 변동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및 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향후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큰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문화유산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하면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써 지역활성화의 주요 인자로서 여성역량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원에서는 각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경쟁력을 지닌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현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여성발전 나아가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발굴에 선도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 이배용 선생님을 비롯해 손경년, 이춘아 선생님의 자문에 힘입은 바 큼니다. 또한 각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나누어 정리해주신 권순형, 김성은, 서지영, 박남순, 유현옥, 한림화 선생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의 연구영역 확대라는 점에서, 어려운 가운데 성심껏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2004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야말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리라는,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가 본격화하면서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활용과 달리 지적할 만한 특별함 때문에 반드시 여성문화유산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의 필요성, 여성문화유산이 여성발전에 있어 지니는 의미성 등의 측면에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제 가치들을 되새겨보려는 뜻이 강하다고 하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인식의 변동은 사회발전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여성을 보는 시각의 변동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및 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향후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큰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문화유산이다. 현실적으로 여성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써 지역활성화의 주요 인자로서 여성역량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지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타진 등의 정책적 활용에 앞서 필요한 기본적인 현실 인식을 위한 것이다.

둘째, 이들 무수한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이들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삶이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자 하였다.

셋째, 여성문화유산이 의미있는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보다 정책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재인식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안하되, 현실적으로 일체 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관련부처에 대해서도 성관점을 주문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 현황과 현실적인 유형별 활용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향후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의 역사·문화적 궤적과 의미에 주목케 하는 한편 기존의 문화유산관련 정책에서도 여성의 의미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데 기여코자 함에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관련정책
- 2) 여성문화유산의 유형과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 3) 사례로 본 여성문화유산 활용 현황과 개선점
- 4)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2) 사례연구
- 3) 관계 전문가 합동 워크숍
- 4) 자문회의

3. 연구결과

가.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관련정책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의미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창조해왔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역사 주

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하는 민족문화의 표상, 즉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요컨대 문화유산의 목록과 가치가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된 결과,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여성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 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즉, 여성문화유산이란 역사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로부터 계승·보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계속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며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여성인물이나 무명의 일반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 역시 오늘날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이들 여성문화유산에 있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일부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성문화유산의 가치가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시대적 또는 역사적 의미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지,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기술과 생산물·연행 등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여성들이 역사주체, 문화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의 현황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역내에 산재해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업자원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정책결정자들의 머릿속에는 산업이라는 것을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수립되어 있는 문화유산관련 정책은 ‘문화유산’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보아 유형적인 유물과 유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문화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부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을 살펴 바를 종합해보면, 중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정부 측에서 종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사업은 여성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 여성사의 복원, 여성 역사인물의 발굴 및 선양사업, 생가복원 등은 주로 지역의 여성단체나 학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관심이 제기되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여성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닌 실정이다. 여성정책에서도 여성 문화정책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물며 주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자체가 부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외 기존의 문화유산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한 채 추진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문화유산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재해석을 할 때 여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현대의 가치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여성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책과정 전반에 여성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여성문화유산의 유형과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틀을 준용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각종 요소를 분류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본문의 표 13 참조).

먼저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와 각종 유물을 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생산활동, 교육활동, 종교활동 등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유적지에 포함된다. 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 등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많은 유적지들이 현재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해있어 유산으로서의 본래 면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변형은 되었지만 그 터만으로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적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생산한 문서나 저작물, 예술작품 뿐 아니라 여성상인이 유통시킨 물건, 여성들이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의복이나 장식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그린 예술작품이나 기록물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기록에 있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 왔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구전전통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생산, 확산, 계승해왔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문자기록물 뿐 아니라 구전전통 역시 여성문화유산의 주요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무형의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연행과 의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놀이나 의례는 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연행이 혼합되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놀이가 의례를 동반하거나 의례가 놀이와 함께 이루어져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행위예술 분야가 일상적인 놀이나 의례와는 구분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도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여성문화유산을 각각 구분된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유산은 반드시 지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이 갖는 여러 측면의 함의상, 오히려 비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그러함은 가령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여성문화유산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아직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도 여성관련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여성문화유산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의 시기적 제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별히 상한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하한의 경우는 제한을 두어 일제 강점기까지의 여성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역구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현 행정구역에 기준하여 구분하되, 전국을 크게 6개 권역 즉, 서울·경기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제주권 등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같은 수록범위에 유의하면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 약 500건(본문의 표 14 참조)을 앞서의 여성문화유산 유형에 기반하여 일별하였다(본문 40~59쪽 참조).

다. 사례로 본 여성문화유산 활용상의 개선점

1) 유관순 유적지

■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 체험욕구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창조

본 연구에서의 유관순유적지 사례조사에 의하면, 학생층과 성인층간에는 유적지를 관람하는 동안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눈높이 차이가 유적지 방문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것이며, 감안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동일한 유적지에서 방문객들의 눈높이를 이유로 다른 내용과 전달방법이 동원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구성내용이라든가 관리운용 등에 있어서는 적어도 눈높이 차이를 시사하는 모든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내고, 이를 전달·안내하는 방식 등에서는 눈높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구성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컨텐츠 확충), 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방문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욕구에 결합하는 것도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유적지 형태의 문화유산은 자칫 일방적인 ‘보여주기’로만 호를 우려가 있다. 컨텐츠 확충에 의해 볼거리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함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문제는 방문객과의 교감이 아닌 일방적인 보여주기로는 더 이상 관람객의 호응을 얻기 어려우며, 유적지의 역사·문화적 의미 전달에 그리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관람객 자신의 체험을 유적지내의 볼거리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의미있고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크다.

■ 문화유산해설사의 배치

유관순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을 보면, 유적지나 유물 등에 관해 재미있고도 자세하며 또한 쉬운 설명이나 안내 등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방문객들간의 눈높이 차이가 큰 경우라면 방문객의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나는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은 ‘문화유산해설사’의 배치다.

유관순 유적지의 경우로 보자면, 문화유산해설사는 소수가 배치되어 유적지경내를 동선별로 이동하면서 안내하기보다는 다수를 주요 코스별로 배치하여 안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령 천안시의 여성단체라든가 천안시의 각급 학교 어머니회 등과의 연계에 의해 양성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 역사적·문화적 의미 전달 강화 : 이미지 메이킹

유관순 유적지를 찾은 일반인조사에서 유관순 기념관의 내용으로서 더욱 추가하고 싶은 내용 중에는, ‘3·1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더욱 자세하게’와 같은 의견이 적지 않다. 이는 현재의 유관순기념관 전시내용이란 방문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조차 채 이르지 못할 정도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컨텐츠 확충이란, 사실 역사적·문화적 의미 전달이 강화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가령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더욱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이때 유관순에 한정해서만 내용 확충을 꾀하려 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관순의 생애만 해도 워낙 짧았던 데다, 거사당시 생가가 전소되어 이렇다 할 유물이 확보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유관순의 거사가 지나는 역사적 또는 여성사적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기념관의 내용구성에 있어 보다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3·1운동에 대한 여성사적 이해를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약상이 더욱 풍부하게 유관순 기념관을 채울 필요성이 납득될 것이며, 그로써 유관순의 거사는 단순한 개인적 거사가 아닌 3·1운동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마케팅에 의한 관리운용의 혁신

유적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의 요구와 지향을 가늠케 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부대시설로서 유적지 활용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다. 본 연구에서 유관순 유적지는 화장실이나 매점 또는 식당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그다지 충분치 않아, 유적지 관람 및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적지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조성하더라도, 경내 편의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은 잘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성관점의 반영이 중요하다.

유적지나 인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적지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관리운영 혁신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다려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견되는 대상을 설정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제작은 유적지의 의미를 되풀이하여 각인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순 유적지 경우에도 유관순과 3·1독립운동에 대해 보다 역사·문화적 의미가 담긴 캐릭터나 관련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높다.

■ 여성부의 관심과 지원

현재 유관순 유적지는 천안시 소관으로, 시 재정에 의해 유적지 정비나 관리운영 관련 예산 등이 충당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 특히 여성부 차원에서도 유관순 유적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여성부는 ‘여성사전시관’과 같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니와, 역사·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립이 여성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의제이기 때문이다.

유관순 유적지는 본문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여성역사에서 가변이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따라서 여성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여성역사교육장으로서 유적지가 분명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유관순 유적지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산재한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에서, 해당 지역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기획한다든가 유관순유적지와 연계되는 체험학습코스 개발 지원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역사적 여성인물로서 유관순의 위상에 힘입어, 정부부처 내에서 여성부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화폐발행시 들어갈 인물로서의 추천도 그 한 예다. 이를 통해 유관순을 길이 후세

에 기리게 하는 한편 유적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여성부가 직접적으로 이같은 일들을 담당하기보다는, 관련되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의 역사찾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 하겠다.

여성문화유산해설사 배치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의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유관순 유적지와 같은 여성문화유산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들이 검토될 만 하다.

2) 한산모시

■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의미 형성 및 활용

먼저 한산모시의 역사와 사회경제적 기능, 문화적 의미, 생산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길쌈환경과 기술, 베틀가등의 노동요와 민속놀이, 친잠례 등의 의례 등을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시나 축제를 구성한다면 방문객들이 한산모시를 비롯한 길쌈 전반의 문화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지닌 문화유산 해설사가 함께 해 한산모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설명해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외에 각종 상품 역시 단순히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 데에서 벗어나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특징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대적 대중성을 중심으로 한 패션쇼를 다양한 전통복장을 선보이는 기회로 전환하고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해오던 소품이나 디자인에서 착안해 기념품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자의 의식 변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시 생산자들과 관련 사업 관계자들의 문화유산,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모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를 단순한 경제적 도구로 보는 데에서 벗어나 문화자원으로서 한산모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

이다. 우선적으로는 여성문화유산 전문가들과 서천군 사업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자원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들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당당한 문화유산 생산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도 일깨워 한산모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틈새시장을 겨냥한 밀도 있는 문화경험의 장 마련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가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산모시축제와 같은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 대중적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생산기술은 물론 풍부한 문화를 지닌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기술과 문화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중적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로 진행하기 보다는 문화적 수요를 지닌 특정한 대상층을 상대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자들과 여성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문화적 수요층을 발굴할 전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회는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산모시를 비롯한 길쌈의 의미, 그와 관련된 전통 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 여성주의적 관점 통합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면, 여성문화유산을 조명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설명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온 여성의 역사를 찾아 조명하는 작업은 역사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없이는 그 본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람도 컸던 것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고학력 비취업 여성들의 활동욕구와 창작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낙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일반 여성들이 의욕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참가자들이 일회성 사업의 참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경험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소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장소 제공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 기초조사 및 자료 축적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같은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관련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서적으로 발간하여 관심을 가진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보다 많은 여성관련 유적에 대한 답사코스를 개발하고 실제 답사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일반인들에게 여성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

전문적인 여성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문화해설사로 참여하는 여성들 사이에 여성주의적 시각이란 점에 대하여 입장이 분분한 실정이다. 아직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찾아보는 것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는 인식과 안목을 가진 문화유산해설사를 별도로 양성하거나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들에게 여성과 문화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유적지의 개발과 보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여성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은 정책지원이나 인프라가 미흡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매우 창조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고충이 서울 여성의 역사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여성사 편찬 작업을 포함하여 서울여성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는 기초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하여 사학적인 자료가 구비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문화유적 탐방 코스 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유적지에 대한 발굴·개발과 보존이 필요하다.

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내부역량도 취약하고 외부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한, 말하자면 매우 취약한 조건의 정책환경에서 모색될 만 하다.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차원의 제언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의지나 전문가도 또 여성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외적 취약성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핵심인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관계망을 형성해나가는 속에서, 위협적인 외부환경은 물론 내부적 약점까지 회석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

- 여성문화유산의 잠재력에 주목
- 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및 매체 개발

나) 여성문화유산 핵심집단 형성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결성 : 여성사 전시관(여성부), 민속박물관, 문화재청(문화관광부), 여성관련 연구소, 여성문화단체, 관련 전문가 등
- 여성문화유산 전시회 개최
- 여성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추진

2)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관심 제고

비록 내부적으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도 또 정책결정자의 관심도 부족한 조건이지만, 본격화되는 지방화 및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강화와 같은 외부흐름에 부응하여 지역 여성발전을 가져올 여성정책 역량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사실에 힘입어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모색할 만 하다.

이는 바로 중앙 및 지자체 등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 의지로 가시화하는 것을 뜻하는 바, 이로써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취약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여성부

- 여성문화유산 정책협의체 구성
- 여성문화유산 활용사업 모형 개발
- 문화시설 관계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과정에 성관점 통합
- 여성사 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립

나) 문화관광부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자산 축적 지원
- 문화재청의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능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여성문화자산 발굴·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지원 방안 마련
- 여성정책부서와 문화유산 관계부서간의 협조

3) 여성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기’

지역여성의 역사찾기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남성중심적 사회시스템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을 알고/찾고/가꾸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커 보인다. 본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선 여성문화유산 알기로부터 출발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비롯한 경제적 활용 가치 등의 의미를 찾아 이를 활용하고 후대への 계승을 위한 보존과 가꾸기 등이 검토될 만 하다.

가)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적 자산 축적과 DB화

- 여성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의미 재조명
- 여성문화유산 DB구축

나) 지역여성사탐구 소모임활동 활성화와 여성사학습 프로그램개발

- 지역여성의 역사찾기를 위한 자발적 소모임활동 지원
- 지역의 여성평생학습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사 학습프로그램 개발

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탐방코스 개발과 문화유산관련사이트 탑재

- 테마별·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탐방 코스 개발
- 개발된 여성테마코스의 체험학습자원으로의 활용
- 각종 문화유산 관련 사이트에 여성테마 탑재 요청

라) 여성문화유산의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보존·관리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개방적 활용 유도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4)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호조건인 정책환경이라면,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제안될 만 하다. 가령, 국내외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골목없는 청정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해가는 현실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확산과 함께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 위에 경제적 가치를 아우른 여성문화유산을 갖춘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독특한 문화산업자원으로서 활용 방안에 정책적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인 셈인데, 이 경우 대내외적인 호조건을 보다 극대화시키는 능동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가) 경제·문화적 의미의 통합가치에 기반한 문화자원으로서 산업적 활용 잠재력 발굴

- 여성문화유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의 문화자원화
-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의하는 여성문화유산의 활용

나) 여성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과 축제 개발 방향

- 여성문화유산의 의미에 충실한 상품과 축제 개발
- 생산자 중심의 개발
- 소규모 대안적 개발

목 차

제 1 부 : 여성문화유산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10
3. 연구의 제한점	13
II. 여성문화유산과 관련정책	15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17
2.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의 현황	25
III. 여성문화유산의 현황	45
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47
2.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50
IV. 사례로 본 지역여성문화유산 활용의 현황과 개선점	75
1. 유관순열사 유적지	77
2. 한산모시	108
3. 서울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141

V.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165
1.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 SWOT 분석	167
2.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 모색	170
3.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95
부록	201

제 2 부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I. 서울경기권 여성문화유산	215
II. 충청권 여성문화유산	307
III. 경상권 여성문화유산	375
IV. 전라권 여성문화유산	441
V. 강원권 여성문화유산	489
VI. 제주권 여성문화유산	533

표 목 차

<표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27
<표 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중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정책추진 실적	28
<표 3> 참여정부의 문화비전 중 문화유산 관련	32
<표 4> [비전서울2006]의 문화관광 부문 중 여성관련 정책	34
<표 5> 2003년도 경기도 도정백서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35
<표 6>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36
<표 7>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3~2007)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38
<표 8>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2002-2004)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38
<표 9> 충청남도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39
<표 10> 논개 생가와 관련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코스: 전북 장수군	40
<표 11> 경상북도 [여성발전장기계획](1995~2020)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42
<표 12> [제주시여성정책 2000-2002]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42
<표 13>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49
<표 14>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수록 현황	54
<표 15> 유관순 유적지 방문객 설문조사 응답자	85
<표 16> 유관순 유적지 방문객 설문조사 내용	85
<표 17> 유관순의 이미지(1)	87
<표 18> 유관순의 이미지(2)	88
<표 19> 유관순 유적지 방문 계기(일반인조사)	89
<표 20> 유관순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90
<표 21> 유관순 기념관의 구성내용에 대한 반응	91
<표 22> 유관순 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성내용	91
<표 23> 유관순 유적지 방문 소감	92
<표 24> 타인에게 유관순 유적지 방문 권유의사	93
<표 25> 유관순 유적지 관람 시, 불편사항	94
<표 26> 유관순 유적지 방문 시, 이용한 교통편	95

<표 27> 유관순 유적지 활용을 위한 건의사항	96
<표 28> 유관순 기념관에 추가되기 바라는 내용	98
<표 29> 유관순 유적지 방문 기념, 제작 희망 기념품(학생조사)	100
<표 30> 유관순 유적지 방문 기념, 제작 희망 기념품(일반인조사)	100
<표 31> 한산모시 생산 현황(2003)	119
<표 32> 한산모시축제 주요프로그램	130
<표 33> 한산모시축제 방문 동기	133
<표 34> 한산모시축제 프로그램 평가	133
<표 35>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	142
<표 36>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	17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방향	11
(그림 2) 지역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SWOT 분석	168
(그림 3) 여성문화유산 활용 상품 및 축제의 개발 방향	194

제1부

⋮

여성문화유산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I. 서론	3
II. 여성문화유산과 관련정책	15
III. 여성문화유산의 현황	45
IV. 사례로 본 지역여성문화유산 활용의 현황과 개선점	75
V.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165
참고문헌	195
부록	201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10
3. 연구의 제한점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종묘와 종묘제례악, 수원화성 등에 이어 우리의 판소리가 다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유산’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유산이란, 어원적으로는 문화(culture)와 유산(heritage)이 결합된 문화적인 유산(cultural heritage)을 뜻하는 것¹⁾으로, 말하자면 유산으로 전해지는 문화, 곧 현재 이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인간 삶의 유·무형의 흔적²⁾을 가리킨다.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일견 간단한 듯한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그러나 현실에 있어 때로 혼돈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규정되고 있는 ‘문화재’(cultural properties)와의 개념상 위치규정만 봐도 그렇다. 재화적 가치가 많이 반영된 문화재가 문화유산의 하위개념인 것이 바를 듯한데, 법률적으로는 마치 문화유산이 문화재의 하위개념인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어떻게든 문화재건 혹은 문화유산이건 우리 선조들의 삶의 궤적으로서 당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다시 다음 세대의 삶마저 암시하고 매개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던 터였거니와, 국내적으로도 문화

1) 안승모(1998), “문화유산의 현재적 의미”,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p. 153.

2) 전호태(2004), 『살아있는 우리 역사, 문화유산의 세계』,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p.9. “흔적에는 유형의 물질, 무형의 지식과 습관이 모두 포함되며, 유형의 물질 가운데 이동이 가능한 것, 물건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을 문화유물, 이동이 어려운 것, 자연지형과의 분리가 어려운 것을 문화유적이라고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화재청은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얻어 10월 19일부터 기구의 영문명 표기를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에서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변경하기로 함. 그렇지만 ‘문화유산청’으로 기관이름을 바꾸는 일은 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요하는, 좀더 복잡한 문제라고 함(중앙일보, 2004-10-23, 27면).

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지난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이래라 하겠다. 여기에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진전하면서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경영 수단으로서,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에 의한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에 경쟁적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계기였다.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이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인데, 유형·무형의 여러요소들로서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정문화를 대표하거나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⁴⁾을 가리킨다. 즉 주어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체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등과 관련된 유적, 유물, 건축물 및 역사적 자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과 구전도 포함⁵⁾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자원은 말 그대로 특정지역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지역별로 획일적일 수 없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므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은 단연 중심에 자리⁶⁾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문화야말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리라는,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가 본격화하고 있음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렇듯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화유산이 활용되고 있는 수준은 아직 기대에 현저히 못미친다. 여기에는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관리의 기본개념을 ‘문화재 보존’에 두고 있어⁷⁾, 문화유산 활용이 아직도 경직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화유산이 활용되고 있는

4)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펴낸 ‘문화자원 관리지침(Cultural Resource Management Guidelines;1981)’에 정의된 것으로, 장호수(2002), 『문화재학 개론』, 백산자료원, p.9에서 재인용함.

5) 최성락(1999), “문화유산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p.41.

6) 김병철(1998), “지역활성화와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 『강원포럼』24(1998.10), 강원개발연구원, pp.62-65.

7) 최상락, 앞의 글, p. 40.

주요한 형태로는,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자부심 양양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즉 역사교육장으로의 활용/역사적 인물이나 유적지의 개발과 복원,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축제화 등에 의한 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의 활용/지역특산품의 개발·전승 및 현대화나 모형문화(model culture) 상품 개발, 문예·공연산업 개발 등에 의한 전통문화상품 자원으로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유형에 따라, 활용의 내용과 의미 등을 두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역사교육장으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의 경직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다. 문화·체험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외견상 바람직한 방향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이나 독창성 등에 기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성에 치중하여 문화유산의 의미를 훼손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문화상품자원으로의 활용의 경우도, 무엇보다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크게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을 둘러싼 이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폭 또한 넓어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활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적 상황과 달리 지적할 만한 특별함 때문에 반드시 여성문화유산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의 필요성, 여성문화유산이 여성발전에 있어 지니는 의미성 등의 측면에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제 가치들을 되새겨보려는 뜻이 강하다고 하겠다.

전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역사 속에서의 여성위치라든가 기존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여성관점에서의 재해석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굳이 이같은 사정에 이를 것까지도 없이, 예컨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여성관련성이야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단계에서는 그 존재조차 희미할 정도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여성관련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사실상 없어, 그럴 듯한 추정이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그보다는 적극적인 알리기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 할 필요성

이 오히려 절실하다.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정책의 흐름 위에서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인식의 변동은 사회발전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여성을 보는 시각의 변동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및 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여성발전을 지향하는 여성정책이라면, 이같은 여성인식에 기반하고 이를 보다 확산할 수 있게 하는 정책과제들을 단지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개발해야 마땅할 일이다. 이러한 정책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문화유산이다. 여성문화유산이야말로 지난 시기 여성 삶에 대한 통찰로부터 오늘의 여성 나아가 다음 세대의 여성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 더없이 귀중한 경험을 시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된 최초의 여성발전 종합계획이었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도 실효성있는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문화’에 대한 여성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인식한 그동안의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문화실현’을 정책목표로 하면서 정작 문화적 변화에는 등한한 아이러니러니와, ‘문화적 관점이 없는 양성평등정책’이라는 비판⁸⁾을 초래케 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도 발견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함께 지역에서의 여성역할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

8) 양현미(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학회 제19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464.

치적 의제에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이 근접해 있기 마련이어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서 여성역할이라든가 여성발전에 의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예외없이 내거는 단골 슬로건이다.

지역여성들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얼마 전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여성사의 발간⁹⁾러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여성의 뿌리찾기라고도 할 수 있을 지역여성사 발간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써 지역활성화의 주요 인자로서 여성역량을 재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주요한 의도이겠기 때문이다. 지역차원에서의 여성사 발간사업과 연계되어,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 및 재조명이라든가 여성유적지 발굴, 축제나 문화상품 개발 등 지역의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도들에 있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은, 단지 경제적 가치에만 함몰되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이다. 물론 양 측면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어느 한 측면의 강조가 다른 측면의 소외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문화유산이라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병존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에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지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타진 등의 정책적 활용에 앞서 필요한 기본적인 현실 인식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들 무수한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이들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이 오늘날 사는 여성들의 삶이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자 하였다.

9) 경기도를 비롯해 제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지에서 이미 여성사를 발간한 바 있음.

셋째, 여성문화유산이 의미있는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보다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재인식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언하되, 현실적으로 일체 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관련부처에 대해서도 성관점을 주문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 현황과 현실적인 유형별 활용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향후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의 역사·문화적 궤적과 의미에 주목케 하는 한편 기존의 문화유산관련 정책에서도 여성의 의미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데 기여코자 함에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

2.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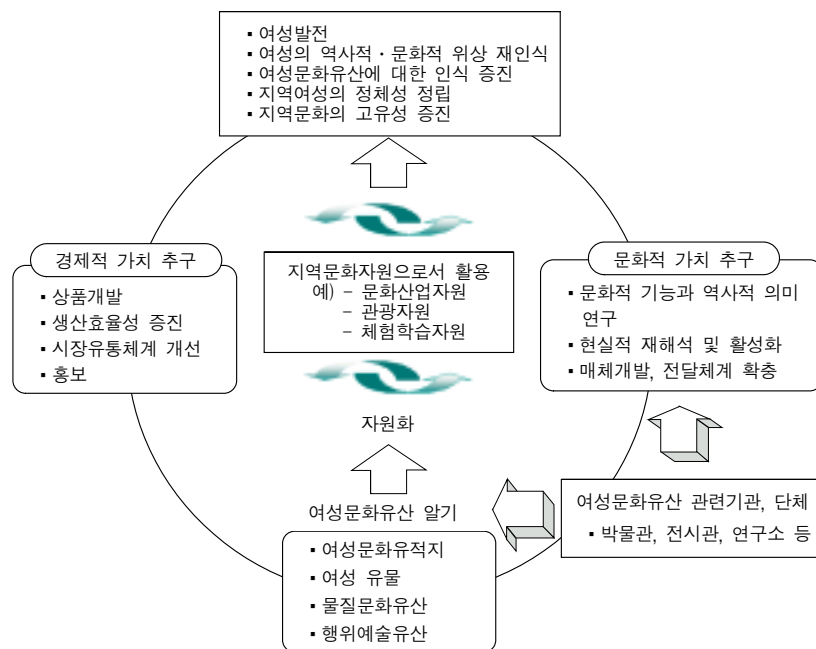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문화유산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연구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문화유산을 파악하되, 이는 기왕의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과의 관련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기존의 제 문화유산 가운데도 재해석에 따라 여성관련성이 밝혀지면 여성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특별히 시도하지는 않았다¹⁰⁾. 말하자면 본 연구의 출발은 여성문화유산의 발굴이 아닌 ‘여성문화유산 알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단지 알고 있을 뿐인 여성문화유산은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현상에 지나지 않아, 어떠한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여성문화유산이 지역의 여성발전 나아가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마다 역사적·

10) 기존 문화유산에 대한 재해석이나 여성관련 유적 및 유물의 발굴 등에 의해 새롭게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해 내는 것과 같은 작업은 기본적으로 학계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귀중한 의미를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이 실재함에도, 이를 차별적이고 경쟁력있는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주요 활용 유형을 고려,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하여 동 여성문화유산 활용의 실재를 통해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이 경우 반드시 유의하고자 한 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통합적 추구이다.

이처럼 여성문화유산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의미있는 활용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체성 정립 및 지역문화의 고유성 증진에 기여하는 외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풍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상의 본 연구 방향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 1) 연구방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이상의 연구목적과 방향 하에 수행하고자 한 본 연구의 내용과 이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의미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여성발전의 측면에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여성문화유산의 유형과 각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분류해볼 수 있도록 유형 및 체계를 검토하며, 이에 따라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하여 알려져 있는 여성문화유산의 면면을 알아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진에서 개발한 여성문화유산 유형에 따라, 각 권역별 여성문화유산의 현황은 가급적 해당 지역별 여성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집필의뢰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1차로 집필된 원고는, 해당 집필진 및 연구진 그리고 문화유산 관계전문가들과의 합동 워크숍에서 기술수위라든가 여성문화유산 유형구분 등 논점에 대한 조정을 통해, 추가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집필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지역에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의 예이다. 현재의 문화유산 주요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등도 살펴본다. 사례연구는 사례에 따라 각기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되, 설문조사와 관계자 심층면접 등이 활용되었다.

넷째, 여성문화유산의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이다. 여성문화유산이 지역은 물론 여성발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문화자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상의 연구내용과 사례연구결과 등에 바탕하여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본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집필자 및 기타 여성문화유산 관계전문가들의 참가에 의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논의 결과

에 기초하였다.

이밖에도 본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연구단계에 따라 필요 시 자문회의나 관계 전문가협의회 등이 이루어졌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번째로는 각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지적이자, 한편으로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정의에 관계되기도 한다. 즉, 여성문화유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여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그렇다면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여성문화유산이라 특칭하여 활용 현황을 살필만한 까닭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행해진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정의에서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취하지 않은 탓이겠거니와,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연구의 필요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문화유산에서 ‘여성’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의 필요성이 본 연구로부터 외면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왕의 여성관련 문화유산조차 이미 알려져 있는 ‘의미’를 미처 찾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의미전달(활용)되는 점, 더욱 심하게는 더러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의 출발배경이었음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역시 사례연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제한점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사례연구 결과에 기반한 제언이 지닐 수 밖에 없는 제한적 측면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주요 활용유형의 예로서 선정한 것도 전적으로 연구진의 임의에 의한 것으로, 이같은 사례연구결과로써 해당 유형별 문화유산 활용의 제 문제점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로부터 유추된 활용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일반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14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이같은 제한점에 유의하여, 앞으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문화유산보다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같은 분명하고 대안적인 논거에 의해 여성문화유산을 정비한다거나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의미있는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기대해 봄 직하다.

Ⅱ



여성문화유산과 관련 정책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17
2.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의 현황	25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가. 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윗세대로부터의 교육과 동료들 간의 교류 등을 통해, 즉 문화화(culturalization)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고와 행동의 틀을 형성한다. 그 결과 문화는 해당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승되어 공동체의 생명력과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유산은 특정 집단이 쌓아온 문화적 요소 가운데, 그 집단이 역사적 실체임을 표상하는 핵심상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집단의 성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일부로 자신들을 위치시키며, 동시대인들 간에 일종의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또한 자신들이 선조로부터 독특한 문화를 계승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 문화의 생명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의 문화유산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일종의 제도로 공식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다. 당시 민족국가를 문화적 정통성과 역사적 실체를 지닌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Andersen 1991)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적 요소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규정, 공표하고 이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여 여타의 물품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당시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자산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 인정받았으며, 파괴와 약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특히 2차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자 그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 1946년 UNESCO 창설 당시부터 야만적 전쟁으로 파괴되는 인류 발전역사의 성취결과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1954년 최초의 문화유산 관

런 협약인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s)이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온 자산으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겨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이전까지 자산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에 접근한 결과,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장소, 박물관 소장품 등 유형의 유산에는 일차적 중요성이 부여된 반면, 무형의 유산은 간과되었으며 유형의 유산에 있어서도 물질적 측면만이 부각된 반면, 유산이 지니는 의미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여 후세에서는 오직 보존과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역사적 가치의 대상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천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에 따라 그 목록과 가치가 계속 재구성되어 왔다. 문화유산으로서 한결같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는 유물이나 유적지들이 한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대상으로 무시되거나 심지어 극복의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가 정치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시되는 경우도 많다.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는 대신 사회적 구성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신흥 독립국가가 출현하면서 한층 본격화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민지배시기와 거리를 두면서 민족적 역사성과 정체성의 위대한 상징이 될 수 있는 유산을 구성하여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며 그 결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산과는 거리를 둔 유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모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와 역사적 과제에 따라 선택되고 가꾸어나가야 할 대상이며 그 목록과 형태, 의미 역시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유적과 유물에 집중되어 있던 경향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언어나 의례, 축제, 구술 전통 등 무형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¹¹⁾ 물질적 측면에 가려져 있던 문화의 의미론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탈국가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민족국가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요소를 취사선택하고 국가적 단일성을 앞세워 지배집단의 문화를 표상하는 유물이나 유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각광을 받는 반면, 지역적, 민족적, 계급적,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독특한 전통은 유산으로서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이제까지 별다른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있는 주변적 집단의 문화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개념의 변화는 나아가 문화유산 보존방식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 관심사로 등장한 이후 줄곧 문화유산은 있는 그대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외부의 일방적인 관심과 자원 투입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보호제도로는 보존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유물이나 유적지와 달리 무형의 유산의 경우에는 보호 중심의 접근이 생명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구성원들의 삶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정한 실용성을 지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만이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다.

이제 문화유산은 민족국가의 단일성을 표상하는 지배집단 중심적인 정적인 상징 차원을 넘어 국가 내의 다양한 집단의 독특한 삶을 표상하는 역동적인 상징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UNESCO 등에서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문화적 다양성을 발굴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생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 특히 2001년에는 인류의 구술 및 무형유산 결작에 관한 선언문(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 공포된 바 있다.

나.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선조로부터 계승되어온 모든 문화적 요소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요소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민족국가 발달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줄곧 문화유산은 민족의 단일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상징되어 왔으며 지배집단 중심적 관점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유산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대상 가운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만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면, 대부분의 요소들은 유산의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중심부에서 배제된 주변지역이나 소수민족, 피지배계급의 관점은 유산의 정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들이 만들어온 독특한 문화는 주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대전통(great tradition)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소전통(little tradition) 정도로 간주되는 정도였으며 심지어 민족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치부되기도 했다.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 역시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하는 민족문화의 표상, 즉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요컨대 문화유산의 목록과 가치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된 결과,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화, 지방화 추세 속에서 국가 내외부의 다양한 세력이 문화유산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국가담론, 남성지배담론에 기초한 문화유산의 구성

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역사적 가치로 충만한 문화유산의 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주변지역과 소수민족이 온전한 문화의 생산자로 자격을 부여받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적 상징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와 위상 역시 재조명되고 있으며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 역사주체 · 문화생산자로서의 여성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창조해왔으나, 역사 구성에 있어 여성은 남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물론 모든 시기에 있어 여성의 존재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며 기껏해야 남성에게 부수적인 존재, 남성중심의 질서에 봉사하는 소극적 존재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줄곧 여성의 존재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효와 정절을 지키는 여성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여성을 다룬 사료 중 80%가 남성의 계보나 결혼, 교혼 및 애정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절을 지킨 아내나 충신, 공신의 아내, 효성스러운 딸, 많은 남아를 낳은 어머니 등 가족관계의 일원으로 그려진 것만 보아도 분명히 나타난다(이화여대 1972: 52-54). 역사 속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던 여성의 존재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항일운동기 독립운동, 사회활동, 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이 밝혀진 것을 비롯해, 고대국가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사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역사의 장에서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다양한 실적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여성사 연구를 통해 특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여성인물

의 활약상이었다.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열사 등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온 여성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민족국가의 존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 역사의 주요한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의 많은 여성들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역사의 과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여성사 연구에서는 여성인물의 존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기존의 풍토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광범위한 역사의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물을 발굴해내는데 주력했다. 또한 남성중심적 역사 구성에서 주변적인 위치만을 부여받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폄하되어왔던 여성인물, 예를 들어 허난설헌, 명성황후, 나혜석, 최승희 등을 재평가하여 여성인물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확산되어 최근 들어서는 새 화폐 도안에 여성인물을 새기는 문제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역사적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물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은 중요한 실재를 전개한 적극적인 존재였으며, 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물은 여성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우선 이들의 삶의 궤적과 관련된 각종 요소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전에 무시되었던 수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표출한 문학이나 서예, 그림, 무용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인물의 위상과 활동을 표상하는 각종 요소를 문화유산으로 발굴해내는 것 이외에도 여성인물의 존재를 고려함으로써 물성적 관점에서 규정된 문화유산의 피상성을 극복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재구성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최근에 서울의 경복궁, 종묘, 창덕궁 등의 주요 문화유산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다.

역사적 장에서 활동해온 여성인물을 통해 역사의 주체이자 문화의 생산자

로서 여성의 위상은 분명해지고 이들과 관련된 공간이나 생산물 등의 각종 상징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여성인물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층의 특수한 개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장에 있었으면서도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했던 일반 여성들 역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상징을 생산해온 만큼, 역사적 존재로서 이들의 존재와 역할을 표상하고 이들의 삶을 전해주는 상징을 발굴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던 여성국극은 여성의 역사적 위상과 삶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를 누렸던 여성국극은 배우 전원이 여성이고 주요 관객 또한 여성인 명실상부한 여성의 장르로서 당시 신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여성을 둘러싼 각종 제한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공적인 장소에서의 문화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공적인 무대의 주역으로 섰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남성 역할을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성이 절대적인 자연의 질서라기보다 문화적 형성물이며 따라서 가부장제 이외에 대안적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극의 내용을 보면 남녀간의 사랑이 주를 이루는데, soap opera처럼 남성지배적 질서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표출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역사상 일반 여성들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아직 발굴도 되지 않은 채 관심에서 멀어져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요소들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의 관련성이 분명히 인식되지 않은 채 물성적인 문화유산에 머물러 있다. 이에

역사 속에서 일반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의 관련성, 여성의 삶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여성문화유산의 의미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유산이 단지 과거로부터 계승, 보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계속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여성역사인물이나 무명의 일반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 역시 오늘날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해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사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역사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 여성이 생산해온 각종 문화가 문화유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의 소설가 브론테 자매나 허난설헌처럼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해온 인물들, 이러한 움직임과 직접 관련된 요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조혜정 1996).

그런데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많은 부분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유산의 의미는 다면적이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가부장제 질서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신사임당의 경우에도 그 자신이 뛰어난 문필가였을 뿐 아니라 신사임당의 생가인 오죽헌은 조선시대 당시 모거제가 행해진 바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가부장제 질서에 저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허난설헌의 저술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분명히 드러

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특정한 요소가 지니는 가치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일본의 실크 직조의 경우, 과거 일본여성들에게는 남편의 통제 하에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자 빈곤과 고통의 상징이었으나, 현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Creighton, 1995: 463-478).

여성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 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일부임이 분명하지만, 여성문화유산의 가치가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지,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기술과 생산물, 연행 등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여성들이 역사주체, 문화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의 현황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고유의 독창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유·무

형의 문화재와 독특한 전통, 특산물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보면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화자원을 매개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효과를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서 찾는다면, 사회문화적 효과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창출하며,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귀속의식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철, 1998). 특히 문화유산산업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21세기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윤태범, 1998), 이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업자원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산업이라는 것을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수립되어 있는 문화유산관련 정책은 ‘문화유산’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보아 유형적인 유물과 유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문화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중앙의 여성부와 문화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수집은 부처 및 자치단체의 담당자와의 전화 및 면담조사, 정책계획자료집 검토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가. 여성부

이제까지 여성정책에서 문화관련 정책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일로서, 아직 정책의 내용도 빈곤하고 그나마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여성부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동계획의 일부로 포함된 여성사전시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관련 내용

<표 1>에서 보듯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를 정책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후자와 관련한 세부정책 사업을 보면 지역의 생활문화 복원 작업 지원,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 지원, 『여성사전시관』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활문화 복원 작업 지원 ·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 지원 · 『여성사전시관』운영
---------------------	--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성패여부는 매해년도 충실한 사업이행에 달려있으므로, 이들 정책과제가 어떻게 연도별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여성부의 자료¹²⁾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2>다.

28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12) 여성부(200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3년도 시행실적 및 2004년도 시행계획]

<표 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중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정책추진 실적

전체계획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활문화 복원작업 지원 ○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지원 ○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지원 ○ 『여성사전시관』 운영
2003년도 시행결과	<p><여성사전시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획전,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국민 관심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호주제』(7.4~0.31) 개최로 호주제폐지 홍보 - 『개관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03.12.9~'04.02.1) 개최 - 『성평등체험프로그램』운영, 보육교사, 여성단체회원, 학생, 일반인 등 350명 참여 ○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시물 설명문 및 브로셔 등을 영문으로 제작, '다국어자동안내시스템' 설치 ○ 상설전시장 전시내용 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운동관련 대상 확대(53개→176개 단체) 및 활동내용 보완 ○ "여성정책관련 사료체계화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정책사 자료보완 ○ 여성사관련 자료수집으로 아카이브 기본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 이론서, 단체활동사, 여성정책, 사진집 등 단행본 400여권 - VHS, DVD 등 각종 영상물 100여개 <p><생활문화관련사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화운동 프로그램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가정문화육성 및 주5일 근무제 대비 가족단위 문화활동 활성화 ○ 여성선호 생활문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다도, 꽃꽂이, 종이접기 등 관련단체 사업 지원 - 지역 향토문화관련 단체인 지방문화원 등 사업 지원 <p><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여성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생활문화유산 발굴, 공개 전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능 중 여성관련 종목 발굴(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등) ○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행정모니터 중 여성비율 확대('03년도말 현재 31%)

(계 속)

2004년도 시행계획	<p><여성사전시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역사 미래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시관 설립 및 운영관련 법적근거 마련(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 상설전시관 관리운영 및 수정·보완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100여년의 전시내용을 전근대까지 확대 보완 -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독립된 홈페이지 구축 ○ 특별기획전 개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제9회 여성주간 또는 9~10월중 - 주제: 상설전시장의 전시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획 ○ 복합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운영 - 주말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여성사관련 강좌 개설·운영 ○ 여성사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관련자료(단행본, 사진집, 영상물, 기록물 등)수집을 공모·기증·기탁·구입 등의 방법으로 추진 ○ 효과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 활용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홍보 실시 - 국제행사 참석자 유치로 외국인 관람객 확보 <p><생활문화관련사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선호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여성역사인물 발굴 확대 <p><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여성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전시관』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여성관련 전통공예 작품 전시방안 검토 - 여성관련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자 확대 ○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행정모니터 여성비율 확대 추진(1/3이상)
2005년도 이후의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역사 미래관” 박물관 건립 추진 ○ 여성사전시관 관리운영 및 상설전시관 수정·보완 지속적 추진 ○ 문화재행정모니터 여성비율 확대(‘07년까지 40%이상 안정적 확보) ○ 여성사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확대

* 출처: 여성부(200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3년도 시행실적 및 2004년도 시행계획』.

2) 여성사전시관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가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이 중 문화유산 관련 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협의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사전시관』의 경우는 여성부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여성부의 의지와 재량에 따라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사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부가 2002년 12월에 설립한 여성사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여성의 역사를 다루는 전문전시관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설립 당일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여성사전시관은 여성들의 발자취를 담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변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시관은 상설전인 ‘위대한 유산: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와 특별기획전, 대중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역사적 업적을 수집·보존·연구하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실시한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 아카데미,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여성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 등은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04년 7월에 개최한 특별기획전 “근대교육과 여성문화: 여성, 배움을 통해 세상을 그리다”는 근대 시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변천과 그로부터 출발한 여성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체의 지식 생산과 문화형성이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여성사전시관은 좋은 취지로 건립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빈약한 예산과 인력 등으로 단발적인 이벤트 외에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현재 전시관의 전문 인력은 한 명의 학예사에 그치고, 행정 보조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하여 여성사연구자, 전시관련 전문가, 유물관련 전문가, 체험학습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현재 빈약하기 그지없는 아카이브를 충실히 구축하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시의 범위가

근대에서부터인데 고대와 선사시대에까지도 콘텐츠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나. 문화관광부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고, 참여정부는 대선 당시 문화재청의 위상강화나 문화유산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3~2004년에 걸쳐 수립한 중장기계획인 ‘참여정부의 문화비전’(2004~2008)의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 동 계획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제시, 문화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전체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 참여, 분권에 따른 문화행정 혁신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양성평등문화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삶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지정 확대’라는 정책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서는 몇 가지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으나 여성문화유산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성과 관련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관련 정책,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의 현대적 계승 및 재창조’를 위한 궁중생활상 재현 등으로 고궁을 관광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정책 정도이다. 동 계획은 ‘1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이라는 영역아래 ‘우리 고유의 우수한 문화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문화관광축제 등 다양한 잠재적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추진을 통해 한국관광의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2000년도부터 전국에 산재한 박물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¹³⁾’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문화유산탐방, 문화유산교실, 사이버박물관 등의 메뉴

13) <http://www.heritage.go.kr>

<표 3> 참여정부의 문화비전 중 문화유산 관련¹⁴⁾

영역	내용
4. 양성평등 문화 확립	○ 여성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여성의 삶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지정 확대
8.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 비전 및 목표 -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기반 확충 -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의 현대적 계승 및 재창조 - 궁중생활상 재현 등으로 고궁을 관광문화공간으로 육성
1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 비전 및 목표 중 문화유산 관련 - 우리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역사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문화관광축제 등

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시대별 생활사와 각종 유물 등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에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04년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화 사업에는 ‘3)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화’, ‘14)조선의 궁중 여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같이 특별히 여성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9)한국 무속 곳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한국의 전통 장신구’와 같이 여성이 많이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에서는 여성국극 지원, ‘바리공주’나 ‘영원한 사랑 춘향이’와 같은 여성인물을 조명하는 전통연희극 공연을 지원하거나, 이달의 문화인물로 신사임당, 나혜석, 허난설헌, 정부인 안동장씨 등 여성인물을 고려하는 등 여성문화유산에 지엽적으로나마 관심을 보여왔다. 관련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여성문화교실을 개최(2002년)하면서 ‘우리역사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우리 옛 그림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 등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강좌를 포함한 바 있다.

14) 문화관광부(2004) [참여정부의 문화비전]에서 여성문화관련 함의 도출 가능한 것만 발췌하였음.

2004년 문화관광부는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2004.6.4)을 개최하였다. 문화관광부내 여성문화 TF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은 역사 속 여성 예술가의 삶과 예술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관련 문화유적지 및 지역 내 여성문화 자원들을 적극 발굴·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문화 활력의 새로운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사업을 여성문화 체험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고 학교 수학여행 코스와도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프로젝트의 인큐베이팅을 위해 그동안 시인 고정희 추모여행을 통하여 해남 ‘시인의 마을 만들기’를 구상하고 있는 (사)또하나의 문화와 연계하여 해남에서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지원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¹⁵⁾

1)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 <표 4>와 같이 [비전서울2006]에 5개 시책 30개 사업으로 구성된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정비하여 전통과 현재가 조화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방향으로 특히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성장과정에서 훼손되고 잊혀진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복원·활용하여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적 향기를 지닌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한 유물로는 상설전시관 기증유물전시실에서 장도와 가락지, 비녀, 노리개 등의

15)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성정책담당부서와 문화유산담당부서를 접촉하였음에도 관련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곳은 여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려는 시도가 다소 있어도 지방정부의 정책이 부재한 곳도 수록하지 않았다.

<표 4> [비전서울2006]의 문화관광 부문 중 여성관련 정책

영역	내용
1. 시민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1-3.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강구: 일제조사 및 목록화,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 1-6.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 · 서울의 특성 살린 역사박물관 운영 1-7.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려 ·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지원: 꽃신, 채화칠기, 마포나루굿 등 18개 사업 ·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인사동 축제, 남이장군대제, 선사문화 축제 등 28개 1-11. 복촌 가꾸기 사업 · 전통문화시설 유치와 역사문화자원 육성으로 지역문화가치 증대: 복촌거주 전통장인 지원, 매입 한옥을 전시관, 체험관, 전통공방,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활용 1-12. 전통·화합의 문화행사 확대 내실화 · 전통문화축제 등 연례적 개최: 조선조 과거행사, 연등축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등 · 청계천 관련 민속놀이 재현 등 새로운 전통문화 축제 개발
2.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전승	2-1. 문화재 복원 정비 2-2. 역사와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 · 청계천에 얹힌 전통 민속놀이 재현, 무형문화재 전승 발굴 확대 2-3. 문화시설 활용 전통프로그램 운영 ·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고종·명성황후 가례 재현, 궁중복식 전시, 전통예절문화교실 운영), 삼청각(창작 전통극, 규방공예, 전통춤 등 체험 교실 운영) 등
3. 편리한 관광여건 조성	3-2.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전통문화축제 등 3-6.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 조성·활용 · 거점별 문화자원 발굴·연계 및 제반 인프라 구축 ·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 · 서울 문화유산 해설사 집중 육성 등

장신구와 녹원삼, 당의 등 의복, 교지(敎旨; 任氏贈淑夫人者-修撰官 鄭淑夏妻)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 외 영조정순후가례행렬도나 조선여인의 생활 풍습에 대한 시청각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박물관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이나 백자태항아리의 전시에서 남아출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이 인왕산에 올라 지극정성으로 기원한 내용을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를 그대로 보여줄 뿐,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료실에도 여성 관련 서적으로는 유일하게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라는 도록이 비치되어 있을 뿐이며 담당자들도 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

경기도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을 먼저 도정백서를 중심으로 보면 <표 5>와 같다. 여기서 보듯이 경기도는 지역사 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관광 자원 상품화와 홍보 차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운영하여 현재 16개 시·군 35개 관광지에서 31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를 찾기 어렵다. 경기도는 효정신과 문화의 현대

<표 5> 2003년도 경기도 도정백서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제2편. 제4장 제2절 문화·예술·진흥	1. 경기문화 계승·발전과 경기도 정체성 확립	1-1. 경기도사 편찬 가. 경기도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나. 대중적 경기도 지역사 편찬 1-2. 효 정신·문화의 현대적 발전·계 승·효 박물관(효행원) 건립, 문화 상품으로 육성
	2. 역사·문화 유적지 정비·복원	2-1. 문화재 보존·관리 2-2.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2-6.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증액
제2편. 제4장 제3절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2. 관광자원 상품화 및 홍보	2-2.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운영. 16개 시·군 35개 관광지에서 312명의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활동 중
제2편. 제4장 제4절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1. 여성발전인프라 구축 및 사회참여 확대	1-6.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

적 발전 및 계승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에서 사회집단들 사이에 이견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효의 경우 자칫하면 전근대적 해석에 머물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에서는 또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부문에서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여성발전중장기계획¹⁶⁾에는 <표 6>과 같은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수록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역사 속에 가려진 여성인물 발굴 작업을 통하여 지역여성의 자긍심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경기 여성문화유산 발굴 차원에서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홍보;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복원; 여성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학생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지역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의 문화유산 지킴이나 해설사 등을 양성하여 전문 직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관심을 끈다.

<표 6>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영역	내용
정책과제8.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 경기 여성문화유산 발굴 - 도내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홍보 -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복원 - 여성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학생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8.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	○ 여성지역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문화유산 지킴이, 해설사 등으로 여성인력 활용, 전문 직업화 유도

2003년도 도정백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추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사를 조명하는 도정 방침과 맥을 같이 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도에서 출생·성장 또는 생활하였거나 유택이 있는 역사적 여성인물 60여명을 조사 발굴하였다. 2001년도에는 기 조사 발굴

16) 경기도(2003),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

한 인물 중에서 문헌에 많이 실린 인물로 명성황후 등 여성인물 15명을, 2002년에는 일반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고려여성 염경애 등 12명을 집중적으로 발굴 및 책자를 제작하여 여성관련 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초·중등학교 등 1,500여 기관에 배부하였다.

2003년도에는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정한 전통종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가치체계가 현대적 가치체계로 변화되어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의 자의식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변화·발전되어 왔는지 이들의 삶의 발자취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기도 전통종가로 지정된 7개 종가를 위주로 현재 70세 이상의 대화가 가능한 여성을 개별 심층면담과 구술녹취 작업을 통해 기록한 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삶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하는 것이다.¹⁷⁾

3) 강원도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 강원도의 여성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은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사임당상 시상, 신사임당제 등의 행사를 실시해왔고, 강원여성역사인물집을 발굴하는 등 지역내 여성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표 7>은 강원도의 중장기여성발전계획¹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타 지역과 달리 강원도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과정에 여성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보인다. 지역축제를 한다고 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식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성문화 전문가나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17) 경기도(2004), 『2003년 경기도 도정백서』.

18) 강원도(2003) [강원여성발전계획(2003~2007)].

<표 7>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3~2007)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영역	내용
지역문화 발전 및 계승에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역사, 인물 발굴 및 선양, 역사유적의 복원시 여성참여 확대 - 시·군별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연구 방법론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강원여성역사인물집 발굴 - 문화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확대
지역축제 시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준비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의 참여 보장 ○ 시도별 지역축제의 여성참여도 평가, 우수 축제 시상 ○ 지역축제시 여성문화소모임 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여성참여기회 확대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각여성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선양 ○ 자랑스런 강원여성 발굴 및 시상(매년) ○ 신사임당, 허난설헌축제 (민간단체 주관)

4) 충청북도

<표 8>은 충청북도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이다. 내용은 지역여성문화제 개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여성문화제의 시각을 바로잡는 것(00아가씨 선발대회 폐지)을 강조하고 지역 여성상 발굴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주를 이룬다. 행사준비위원회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도청에 문의한 결과, 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일부에서 여성문화유산 관련 활동이 있지만 도 차원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2002-2004)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영역	내용
지역여성문화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존여비를 확대 재생산할 소지가 있는 일부 전통문화와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축제들을 추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성문화제 개최. - 지역문화제 행사시 00아가씨 선발대회 폐지요청 - 지역문화제 행사준비위원회에 여성들이 주도적 참여 - 충청북도여성문화제 개최 - 지역의 (역사적) 주체적 여성상 발굴 및 그 정신을 기리는 사업 (상 제정 등)

5)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제문화제와 한산모시짜기와 같은 여성무형문화재, 유관순열사사적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백제문화제에는 여성과 관련하여 궁녀제가 있는데, 이는 백제 말 비참한 국운과 함께 낙화암에 몸을 던진 궁녀와 백제 여인의 숭고한 정절을 추모하는 제전의식이다. 한산모시짜기와 관련한 정책은 본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다. 유관순열사사적지는 3.1운동의 꽃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유관순열사의 행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관순열사기념관, 호서지방 최대의 만세운동인 아우내만세운동 거사를 알린 봉화탑, 열사초혼묘, 생가가 있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유관순열사관련 사업을 다루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총 사업비의 50%를 제공하고 있다.

<표 9> 충청남도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항목	내용
백제문화제 지원	- 유래: 1955년 부여에서 처음 시작 - 궁녀제
여성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이수자 지원	- 기능보유자 월 500,000원, 기능보유 후보자 월 250,000원 - 도지정: 한산소곡주, 계룡백일주, 청향구기자주, 아산연엽주, 승무, 한산세모시짜기, 춘포짜기, 지승제도,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등 - 국가지정: 판소리 적벽가 전수조교, 한산모시짜기 등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 총 사업비의 50%를 여성에게 제공
유관순열사유적 운영	- 유관순열사사적지 운영, 보수 지원
여성관련 유형문화재 보전 및 정비	- 거룩한말씀의 수녀회(대전시 문화재 지정, 2001) 성당 보수 정비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 여성관련 문화축제프로그램 지원

6)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담당자는 남성인물에 대한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에 대한 발굴은 고려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2002년에 논개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10> 논개 생가와 관련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코스: 전북 장수군

논개는 선조 7년(1575년 9월 3일)에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천품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위태롭자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자진하여 기적에 이름을 올렸다. 나라와 부군(夫君)의 원수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께를 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 순절한 의암 주논개의 충절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00여평의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한 논개생가 복원사업이 2000년 9월 완료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생가지가 있는 지역은 덕유산, 오동제 등 주변경관 이 수려하고 장안산 군립공원과 지지계곡, 동화댐을 연계한 등산코스가 열려있어 논개 생가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손색이 없으며 연중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

시 설 물 : 생가, 기념관, 비각, 논개동상 등

행 사 : 논개 제전행사 음력 9월 3일을 중심으로 3~7일간 거행

7) 전라남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최근 몇년사이에 시행한 사업으로 ‘전남 여성100년사’ 발간과 현재 발간 작업 중인 ‘전남여성 화보집’을 들 수 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기본사업만 진행하는 실정이고 기타 개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주시의 경우 고려 태조 왕건의 장화왕후¹⁹⁾에 대한 발굴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9) 고려 2대왕 해종은 나주 흥룡동에서 당시 왕건이 견훤과 세력을 다투면서 나주에 머물고 있던 동안 나주 호족 오다련의 딸 오씨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태조에 오른 후 태자 무(武)가 7세때 태조는 그가 왕위에 오를 덕이 있음을 알았으나 신하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상자에 자황포(왕이나 귀인이 입는 황적색 도포)를 담아 장화왕후 오씨에게 보냈다. 왕후가 이를 대광 박술희(大匡朴述熙)에게 보이니 그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여론을 조성하고 태조에게 간청하여

한다. 개별사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면 <표 11>과 같이 2000년 도에는 여성예술인 발굴육성 차원에서 여성들의 내방가사를 발굴하여 CD로 기록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경북여성사를 출간하고 같은 이름으로 CD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아울러, 경북여성사발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1부에서는 ‘Herstory?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경북여성사 정립을 위한 발제가 있었고, 2부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두 가지의 주제발표²⁰⁾와 역시 두 가지의 체험마당²¹⁾이 있었다.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목표아래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²²⁾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일환으로 2005년에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 개편시 사이버박물관의 형태로 여성사박물관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북 여성사 출간도 그를 위한 기초사업의 하나이다.

921년(태조4) 드디어 정윤(正胤)에 책봉되었다. 태자 무는 태조를 도와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토벌하여 통일된 고려를 세우는데 주역이 되었고, 943년 태조가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년 4개월간의 짧은 재위기간이었지만 건국초기의 흐트러진 국내정치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써 고려왕조의 기반을 다졌다. 혜종은 34세의 나이로 승하했는데 시호가 혜종이며 송악산(松嶽山) 동쪽 순릉(順陵)에 안장되었다. 나주에는 그의 탄생을 기념하여 흥룡사(興龍寺)를 세우고 그 안에 惠宗祠를 세웠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다만 그와 장화왕후의 전설만이 지금까지 나주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왕건과 오씨가 만났다는 완사천(浣紗泉)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혜종이 태어난 마을은 지금도 왕을 상징하는 ‘용(龍)’자를 써서 흥룡동(興龍洞)이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의 지혜의 여성으로 상징되고 있다.

20) 2004.6.3.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최

발표1: 김정숙, 향해와 표류의 역사: 어머니·아내·딸

발표2: 이윤갑, ‘망각’에서 ‘기억’으로, 깨어나는 여성들

21) 체험마당1: 고혜경, ‘효녀 심청과 만나다: 신화 새롭게 읽기’

체험마당2: 이정옥, ‘여성의 언어, 여성의 목소리: 내방가사·민요 엮보기’

<표 11> 경상북도 [여성발전장기계획](1995~2020)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 여성예술인 발굴 육성
- 내방가사 CD 작업 추진(2000)
○ 여성사박물관 건립(2015-2020)
○ 경북여성사 출간(200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서적) 경북여성사: 경북여성의 삶의 원형을 찾아서
- (CD) 경북여성사: 경북여성의 삶의 원형을 찾아서
- 경북여성사발간기념세미나 개최(2004. 6.3)

9) 제주도

제주도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은 <표 12>와 같이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제주시의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에 이미 제주여성사자료총서를 발간하여 해녀 등 지역 여성의 생활문화를 조명한 바 있고, 지역의 역사인물로 김만덕을 조명하기 위하여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제주여성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다.

<표 12> [제주시여성정책 2000-2002] 중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

항목	내용
제주여성사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생존해있는 여성들의 구술적 자료의 확보 및 증언자료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 해녀 활약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용역 중 ○ 여성의 생활사 중심의 문헌자료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사자료총서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발간 (2001) ○ 여성주간 행사로 여성문화유산답사지 개발

이밖에 여기에서 소개하지 못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도청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시행사업이 없으며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중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여성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측에서 종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사업은 여성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정도이고, 지역 여성사의 복원, 여성 역사인물의 발굴 및 선양사업, 생가복원 등은 주로 지역의 여성단체나 학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관심이 제기되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여성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닌 실정이다. 여성정책에서도 여성문화정책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물며 주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자체가 부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외 기존의 문화유산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한 채 추진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문화유산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재해석을 할 때 여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현대의 가치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여성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책과정 전반에 여성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여성문화유산의 현황

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47
2.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50

Two horizontal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thin with a light gray cross-hatch pattern. The bottom bar is thicker with a darker gray cross-hatch pattern.

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역사를 만들어간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향취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우선 여성과의 관련성 면에서 여성이 직접 생산한 유·무형의 상징과 물질적 차원에서 여성이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점유와 사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한 유산, 그 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여성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한 결과물과 활동은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여기에는 여성인물들의 저작물이나 예술작품, 집단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생산했던 물품이나 여성들이 행했던 연행과 의례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과 행위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기술체계 역시 여성들 사이에서 전수되어 독특한 여성문화의 기초가 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여성들은 점유와 사용을 통해 특정한 공간이나 물질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공간이나 생산도구 등은 물질적 차원에서 여성이 생산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 내지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즉 의미론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생산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외에 여성이 생산하거나 점유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회화나 시 또는 각종 기록물 역시 역사적 장에서 잊혀지기 쉬운 여성의 존재를 일깨우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로서 넓은 의미의 여성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기록물을 생산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은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문화유산은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유형화 틀에 따라 범주화할 수도 있다.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 문화유산(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유물이나 유적지와 같이 물리적 실체를 띠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리키며, 물리적 실체보다는 지식, 기술, 그리고 그에 기초한 활동 등이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은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서는 이러한 틀을 받아들여 문화재 유형을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이나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의미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법적으로는 기념물과 민속자료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광범위하게 보면 유형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틀을 준용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각종 요소를 분류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표 13). 먼저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와 각종 유물을 들 수 있다.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생산활동,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유적지에 포함된다. 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 등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많은 유적지들이 현재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해있어 유산으로서의 본래 면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변형은 되었지만 그 터만으로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적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생산한

<표 13>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문화유산유형		여성문화유산유형
유형문화유산	유적지	여성역사인물 유적지 여성역사인물의 생가나 시집, 묘소, 사당, 정려각 등
		여성 생활유적지 궁궐의 여성공간, 집터나 가옥 등에서의 여성공간
		여성 생산활동 유적지 공동작업장, 여성노동자나 여성자영업자의 작업장
		여성교육·여성운동유적지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유물	여성의 복식 여성이 사용했던 의복, 장신구 등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여성의 예술작품 여성이 제작했거나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 존재와 삶을 보여주는 작품
		여성의 생산도구
무형문화유산 (기능, 기술, 지식)	물질문화	여성 공예문화유산 -길쌈 -바느질, 자수, 매듭
		음식문화유산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세시풍속, 종교의례, 생산관련놀이
		행위예술 음악, 무용, 연극

문서나 저작물, 예술작품 뿐 아니라 여성상인이 유통시킨 물건, 여성들이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의복이나 장식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그린 예술작품이나 기록물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기록에 있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 왔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구전전통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생산, 확산, 계승해왔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문자기록물 뿐 아니라 구전전통 역시 여성문화유산의 주요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연행과 의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놀이나 의례는 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연행이 혼합되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놀이가 의례를 동반하거나 의례가 놀이와 함께 이루어져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행위예술 분야가 일상적인 놀이나 의례와는 구분된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도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여성문화유산을 각각 구분된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앞에서 유형화한 데에 기반하여 일별하되, 구체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본 연구사업이 의도하는 여성문화유산의 수록 범위에 유의하면서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 여성문화유산의 수록 범위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위상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사회·문화·생산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역할과 관련된 유적·유물·건축물·기록물을 비롯하여 역사적 여성인물, 여

성들 사이에서 전해내려온 기술과 생산물, 연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여성문화유산이라 지칭하였을 때, 일견 여성문화유산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도 깊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문화유산의 전 면모를 소상히 파악해내기란 사실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도 성관점에서의 역사 재해석이라든가 여성문화유산의 정의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입장 등 연구의 진전 정도라든가 여성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여하에 따라 여성문화유산의 범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애초 여성문화유산의 가시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각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편의상 몇가지 기준들을 생각할 수는 있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각 지역별로 선정, 기술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정한 채택근거라 할 수 있겠다.

여성문화유산으로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상에 규정된 문화유산인지의 여부일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제2조 ①항)으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같은 구분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유형화하였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여성문화유산 수록범위와 관련하여 오히려 좀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문화재가 국가 또는 시·도 등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호·관리의 필요에 따른 지정여부에 의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는 사실이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되는 지정문화재는, 말하자면 어떤 문화재가 아무리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국가 혹은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으면 문화재자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음²²⁾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단지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문화유산일 뿐인 비지정문화재라 해서

22) 유승훈(2004), 『현장 속의 문화재정책』, 민속원, p.23.

그 역사적 의미가 지정문화재와 크게 다를 바는 없어, 이같은 비지정문화재 가운데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비복원·관리되는 것이 있기도 하며,²³⁾ 국가적 차원에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²⁴⁾

기존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써 신고제와 지도, 조연,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근대가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의 산물인 근대문화유산이 각종의 개발 및 도시화 등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멸실·훼손될 위험이 큼에도 종래의 지정 제도로는 이를 잘 보호하기 어려운 데에 바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의 배경이 있다.²⁵⁾

이로써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거니와, 특히 여성문화유산에 있어서도 이 근대문화유산의 의미는 각별하다 할 만하다. 유사 이래 인류역사의 절반을 지켜왔음에도 종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여성들이 비로소 역사무대에서 가시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 시기가 이른바 근대였다는 것이 이제까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비교적 여성들의 궤적이 풍부하다는 점만으로도 근대문화유산을 가변이 지나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임영진(1999), “전남 유형문화유산의 현황과 계승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pp.77-85.

24) 유승훈, 앞의 글, p.24.

25) http://www.ocp.go.kr/l_registration/index_05.html,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제도의 비교”/경기문화재단(2004), “문화유산, 열어둘 것인가 가둬둘 것인가”, <문화재관 제자 워크숍 자료>, p.58.

이상에서 보자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유산은 반드시 지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이 갖는 여러 측면의 함의상, 오히려 비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그러함은 가령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여성문화유산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아직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도 여성관련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여성문화유산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문화유산의 시기적 제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별히 상한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하한의 경우는 제한을 두어 일제 강점기까지의 여성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역구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현 행정구역에 기준하여 구분하되, 전국을 크게 6개 권역 즉, 서울·경기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제주권 등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현황²⁶⁾

본 연구에서 권역별로 파악해본 여성문화유산의 현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500건 가까운 여성문화유산이 파악되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관리 대상이 되는 여성문화유산은 300여건 남짓이다. 이는 2004년 4월 말 현재 총 8,829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규모²⁷⁾에 비추어보건대 무척이나 적은 비중이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커 보인다.

26)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제2부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각 권역별로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유형별로 개괄한 표만 제시함.

27) 문화재청(200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p. 3(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2,827건/시·도지정문화재 4,073건/문화재자료 1,846건/등록문화재 83건 등 도합 8,829건임.

<표 14>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수록 현황

단위: 건()*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유형		서울 ·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	계
유형문화 유산	유적지	여성인물유적지	30 (25)	16 (10)	25 (22)	7 (4)	9 (6)	10 (-)	97 (67)
		여성생활유적지	19 (18)	3 (3)	3 (3)	2 (2)	4 (4)	4 (3)	35 (33)
		여성 생산활동 유적지	5 (2)	6 (6)	1 (1)	2 (-)	1 (1)	6 (-)	21 (10)
		여성교육 · 운동유적지	26 (3)	2 (1)	3 (-)	5 (2)	1 (-)	3 (-)	40 (6)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12 (3)	7 (3)	4 (4)	3 (3)	7 (4)	6 (1)	39 (18)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15 (10)	10 (4)	3 (3)	6 (5)	3 (1)	6 (1)	43 (24)
	유물	여성의 복식	7 (-)	6 (6)	8 (8)	3 (3)	4 (4)	3 (-)	31 (21)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16 (5)	8 (5)	6 (6)	-	9 (3)	4 (-)	43 (19)
		여성의 예술작품	4 (3)	-	4 (4)	1 (1)	3 (3)	-	12 (11)
		여성의 생산도구	-	2 (2)	-	-	-	10 (-)	12 (2)
무형문화 유산	물질문화	여성 공예문화유산	4 (4)	4 (4)	5 (5)	3 (3)	1 (-)	3 (3)	20 (19)
		음식문화유산	4 (4)	11 (11)	4 (4)	4 (4)	2 (2)	2 (2)	27 (27)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10 (8)	10 (1)	12 (12)	4 (2)	4 (1)	5 (5)	45 (29)
		행위예술	8 (7)	2 (-)	10 (8)	11 (8)	1 (1)	1 (1)	33 (25)
계			160 (92)	87 (56)	88 (80)	51 (37)	49 (30)	63 (16)	498 (311)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가리킴.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같은 수치적 규모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이는 해당지역의 역사적 위치나 역할 등과도 관련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의 보호 아래 놓일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의 발굴정도 등과도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말하자면 애초에 처해진 조건이 다름에서 오는 것일 뿐, 이로써 여성문화유산의 지역간 편차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게다가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수록범위 등을 전제로 하여, 다만 지역별로 파악 가능한 여성문화유산의 대략적인 규모를 살피는 정도에 그치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하는 권역별로 파악한 여성문화유산을 본 연구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라 정리해본 것이다.

1) 서울·경기관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서노 : 몽촌토성 - 신사임당 묘, 집터 - 허난설헌 묘 - 강정일당 묘, 사당 - 태종비 원경왕후 헌릉 - 세조비 정희왕후 광릉 - 성종모 인수대비(소혜왕후) 경릉 - 성종비 윤씨 회묘 - 중종비 문정왕후 태릉 - 소현세자비 민씨빈 강씨 영희원 - 숙종비 인현왕후 명릉 - 숙종비 장희빈 대빈묘 - 정조모 경의왕후(사도세자비 혜경궁 홍씨) 융릉 - 헌종모 조대비(신정왕후) 생가터, 쌍호정 터, 별장 터, 수릉 - 고종비 명성왕후 생가, 탄강구리비, 기념관, 경복궁, 건천궁, 녹산 터, 안국동 감고당 터, 흥릉 - 고종비 순헌귀비와 영희원 - 강완숙 묘 - 나혜석 최초 서양화 개인전 터 - 바우덕이(김암덕) 관련 - 최용신 묘, 기념비 - 사세 충렬문 - 문화 유씨 4정문 -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 - 서흥 김씨 삼강정문 - 남양 홍씨 열녀 정려문 - 나주 정씨 열녀 정려각 - 팔효문 - 회현리 충신, 열녀비 - 원주 원씨 가문 이씨 부인 열녀문 - 허씨 가문 며느리 효행비 	사적 제297호 경기도기념물 제14호 경기도기념물 제90호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사적 제194호 사적 제197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200호 사적 제201호 사적 제357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206호 사적 제193호(수릉) 유형문화재 제46호(생가) 사적 제361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8호 경기도 문화재자료 8호 화성시향토유적 제5호 경기도기념물 제77호 화성시향토유적 제27호 가평군 향토유적 제8호 연천군향토유적 제5호 양평군 향토유적 제3호 양평군향토유적 제9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사동 선사 유적지 - 경복궁 자경전 -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 경복궁 아미산 굴뚝 - 창덕궁 대조전 - 덕수궁 - 창경궁 - 운현궁 - 종묘 정전 - 칠궁 - 정업원 구기비 - 양주 백수현 가옥 - 진접 여경구 가옥 - 화성 정용채 가옥 - 남산 한옥마을 *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 오위장 김춘영 가옥 * 도편수 이승엽 가옥 	사적 제267호 보물 제809호 보물 제810호 보물 제811호 보물 제816호 사적 제124호 사적 제123호 사적 제257호 국보 제227호 사적 제149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호 중요민속자료 제128호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중요민속자료 제124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잠단 터 - 잠실 - 잠원동 잠실리 뽕나무 - 용산전환국 터 - 경성방직공장 	사적 제83호 서울시 지방기념물 제1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명부인회 집회지 * 장충단 - 국채보상부인회 결성지 - 3. 1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 서대문 독립공원 * 수원 옛 자혜병원, 경찰서 터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성지 * 정신여학교 - 조선여자교육협회 * 야학터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화학원터 * 근화여학교터 -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 인사동 태화여자관 내 사무소 * 서대문 회관터 - 토산애용부인회 - 조선여성동우회 사무소 - 근우회 - 초대 여자유학생 환영회 행사장, 경희궁 - 여의사, 여성병원 관련 유적지 - 최초 개업 부인의원 - 승동교회 - 정동교회 - 여성교육관련 유적지 * 관립한성고등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 이화학당 * 배화여학교 * 진명여학교 * 정신여학교 * 태화여자관 * 이화여전 * 조선약학교, 조선약학전문학교 	<p>사적 제271호</p> <p>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 사적 제256호</p>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악재 입구 홍제원 개울터 - 숙정문 - 파주, 여주 지명 유래 - 낙화암 - 행주산성 -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전시관 - 송파동 도미나루터 - 아차산성 - 소요산 요석궁지 - 남한산성 청량당 - 동대문과 단종비 송씨이야기 - 청량리 옛 전차길 	<p>사적 제56호</p> <p>사적 제234호</p> <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p>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사능인보전후불탱화 - 감로탱화 - 지장사대웅전팔상도 - 진관사독성각독성도 - 갈항사지 삼층석탑 - 운적암 또는 운수암 - 칠장사 - 봉선사 - 봉은사, 승과평 - 절두산 천주교성지, 성녀 주리아 묘비 -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 - 삼막사 남녀근석 - 인왕산 선바위 - 엄미리 장승 - 안산 성곡동 잣머리 성황당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3호 보물 제1239호 유형문화재 제120호 문화재자료 제12호 국보 제99호 문화재자료 제25호 경기문화재자료 제24호 서울시민속자료 제3호 서울시민속자료 제4호 안산시향토유적 제1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민속 박물관 -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석주선 박물관 - 이대 박물관 - 숙대 박물관 - 단국대 박물관 - 세종대 박물관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제6~10 - 내훈(여훈) - 인목대비 친필 족자 - 인선왕후 한글편지 - 한중록 - 계축일기 - 인현왕후전 - 정일당유고 - 태교신기 - 규합총서 - 죽서시집 - 유한집 - 변안렬 묘표 - 여산송씨 족보 - 양천 허씨 분재기 - 율곡남매 분재기 	보물 제1144호 유형문화재 제34호 유형문화재 제139호 용산시 향토유적 제36호 보물 제477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예술 작품, 여성 대상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충도 - 단원풍속도첩 - 단원화첩 - 해원전신첩 	보물 제527호 보물 제782호 국보 제135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장 - 매듭장 - 초고장 - 침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 궁중음식 - 계명주 - 삼해주 - 송절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8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현궁 고종 명성후 가례 - 종묘제례 - 종묘 제례악 - 궁중 다례 의식 - 송파 다리밟기 - 강령 탈춤 - 양주 별산대 놀이 - 쌍용 줄다리기 - 서울 새남굿(진오기) - 남이장군 사당제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7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0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민요 - 판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소희 * 성창순 - 가야금산조 및 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숙선 * 이영희 - 승무 - 살풀이춤 -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2) 충청권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정순왕후 생가 - 호연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덕 동춘당 * 회덕 동춘선생고택 - 강완숙 관련 - 김일엽과 수덕사 - 유관순열사 관련 - 임영신 관련 - 무령왕릉 - 관동묘려 - 혜빈 양씨 사당 - 정녕군부인 김씨 묘소 - 은진송씨정려각 - 충비삼월의비 - 덕수이씨 6세 8효 정문 - 연안이씨 열녀각 - 경주김씨 효열각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윤증 고택 - 금성 중전리 고가 - 김세균고가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및 문화관 - 제천 점말 동굴유적 - 단양 금굴 구석기유적 - 단양 구녕굴 구석기유적 - 단양 수양개유적지 -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여성 교육·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우내 삼일운동 사적지 - 대전 호수돈 여학교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낙화암 - 부여 공남지 - 부여 유왕산 - 온달산성 - 온달동굴 - 의림지 - 박달재 	사적 제135호 사적 제264호 천연기념물 제261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군 신천리 남근석비 - 서산 여섯골 순교성지 - 황새바위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본당 - 범주사 선회궁 원당 - 죽령 산신당 - 칠성암 - 연풍성지 - 배티성지 - 감곡성당 	공주시향토문화유적기념물 제1호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33호 충청북도지정 민속자료 제3호 충청북도지정유형문화재 188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제관식 - 금제수식부이식 - 금제경식 - 은제팔찌 - 청주출토 순천김씨 의복 - 청원 구례손씨 묘 출토 유물 	국보 제155호 국보 제157호 국보 제158호 국보 제160호 중요민속자료 제109호 중요민속자료 제116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평조씨 <병자일기> - 호연재 유고 - 권준의 호구단자 - 윤돈 등의 동복 화회입의 - 남양전씨 중증문서 - 무령왕비 지석 - 청주출토 순천김씨 간찰 - 언해태산집요 	유형문화재 제153호 보물 제727호 국보 제163호 중요민속자료 제109호 보물 제1088호
		여성의 예술 작품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생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보부상 유품 - 홍성 보부상 유품 	<p>중요민속자료 제30호</p> <p>중요민속자료 제30호</p>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춘포짜기 - 한산세모시짜기 - 지승제조 - 홍성 땡땡이장 	<p>무형문화재 제25호</p> <p>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호</p> <p>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2호</p> <p>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31호</p>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소곡주 - 계룡 백일주 - 금산 인삼 백주 - 당진 면천 두견주 - 청양 구기자주 - 아산 연엽주 - 송순주 - 연안이씨가 각색편 - 보은 송로주 - 중원 청명주 - 청원 신선주 	<p>무형문화재 제3호</p> <p>무형문화재 제7호</p> <p>무형문화재 제19호</p> <p>무형문화재 제86호</p> <p>무형문화재 제30호</p> <p>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1호</p> <p>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9호</p> <p>무형문화재 제10호</p> <p>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3호</p> <p>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2호</p> <p>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4호</p>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 남산놀이 - 금산 디딜방아 뱅이놀이 - 중원 마수리 농요 - 대전 앓은 곳 - 충남 보령 원산도 산신제 - 충남 보령 장고도 용왕제 - 충남 금산 농바우끄시기 -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 서산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 보령시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p>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5호</p>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창가곡 - 복혜숙 	

3) 경상권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장씨와석계고택 - 남자현지사 생가지 - 최송설당 관련 - 백신애와 문학비 - 신라오릉 - 수로왕비릉 - 망산도.유주암.유주 비각 - 경주황남리고분군 - 양산북정리고분군 -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 이수 및 귀부 - 박제상유적 - 경모당 - 아랑각 - 몽화각 - 어사옥비 - 진주의암사적비 - 송공단 - 열효신씨지려비석 - 쌍절려 - 김천신리영천이씨정려비 - 이씨삼강묘비 - 봉곡동효열비각 - 선산삼강정려 - 무실정려각 - 열녀학생임술증처유인밀양 박씨지려 	경상북도민속자료 제91호 사적 제172호 사적 제74호 진해시기념물 제89호 사적 제40호 사적 제93호 보물 제125호 울산시기념물 제1호 문화재자료 제70호 문화재자료 제26호 문화재자료 제155호 문화재자료 제166호 진주시유형문화재 제353호 부산시기념물 제11호 문화재자료 제183호 문화재자료 제386호 문화재자료 제387호 경주시유형문화재 제223호 문화재자료 제391호 문화재자료 제333호 안동시민속자료 제48호 문화재자료 제240호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이씨 재사 - 오덕동 애은당고택 - 안동의 촌동 초가도토마리집 	유형문화재 제23호 포항시민속자료 제80호 안동시민속자료 제6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 범방동패총	부산시기념물 제44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 김락과 독립운동 - 정칠성과 노동운동 - 강경옥과 소작운동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 영일일월지 - 파사석탑 - 김해신천망월석탑 - 하성	포항시기념물 제120호 문화재자료 제227호 문화재자료 제262호 문화재자료 제92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 경주석장동암각화 - 건들바위(대구입암)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24호 경주시기념물 제98호 대구시기념물 제2호
	유물	여성의 복식	- 경식<천마총> - 청동제초두<천마총> - 상감유리옥부경식 <미추왕릉> - 금제경식 <98호남분> - 광해군내외 및 상궁옷 - 김흠조부부묘 출토유물 - 진주하씨묘 출토유물 - 학성이천기일가묘 출토복식	보물 제619호 보물 제622호 보물 제634호 국보 제194호 중요민속자료 제3호 중요민속자료 제242호 중요민속자료 제229호 중요민속자료 제37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 서애선생모부인곤문기 - 장말손종손가소장고문서 - 충재권벌종손가소장고문서 - 탁영종택문적 - 손소선생분재기 - 점필재문적유품및종가문서	보물 제460-2호 보물 제1005호 보물 제901호 대구시유형문화재 제27호 경주시유형문화재 제14호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09호
		여성 관련 예술 작품	-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병 - 헌종가례도병	보물 제732호 보물 제733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 관련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의정하연부부영정 - 양산지산리부부상 	문화재자료 제278호 문화재자료 제294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포짜기 - 무명짜기 - 청도 삼베짜기 - 명주짜기 - 누비장 	무형문화재 제1호 무형문화재 제16호 무형문화재 제24호 무형문화재 제87호 무형문화재 제107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소주 - 문경 호산춘 - 안동 송화주 - 경주 교동법주 	무형문화재 제12호 무형문화재 제18호 무형문화재 제20호 무형문화재 제86-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늑다리밟기 - 남해선구줄긋기 - 송선전제례 - 동해안 별신굿 - 영해 별신굿놀이 - 한장군놀이 - 충렬사제향 - 예천통명농요 - 수영농청놀이 - 영산줄다리기 - 의령큰줄대기기 - 거창삼베일소리 	무형문화재 제7호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 김해시무형문화재 제1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2-1 무형문화재 제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의령시무형문화재 제20호 거창시무형문화재 제17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명창-김록주 - 판소리명창-김초량 - 가야금병창-장순애(월중선) - 판소리(홍보가)-박목주 - 가야금 병창-박귀희 - 진주포구락 - 진주교방굿거리춤 - 동래고무 - 진주검무 - 승전무 	무형문화재 제19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진주시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시무형문화재 제21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4) 전라권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비 - 박화성문학기념관 - 이난영의 노래비 - 윤형숙의사 묘 - 절열양정씨지려 - 팔열부정각 - 영광정려각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40호</p>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1호 전라남도기념물 제8호 전라남도기념물 제22호</p>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홍기웅가옥 - 영암 최성호가옥 외 	<p>중요민속자료 제151호 중요민속자료 제164호</p>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제사공장 - 종연방직 전남공장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비 - 백청단 은지환 사건 현장 수피아여학교 - 목포정명여중 구 선교사 사택 - 광주이일학교 터 - 광주 YWCA 	<p>광주시기념물 제26호</p> <p>등록문화재 제62호</p>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어머니 산성 - 삼별초 궁녀덤병 - 진도 신비의 바닷길, 뽕할머니이야기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70호 향토유형유산 제4호 국가지정명승 제9호</p>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정유재란열부순절지 - 나주 불회사 석장생 - 나주 운흥사 석장생 - 남원 서천리 당산 - 돌모산 당산 - 아차동 미륵할머니 보호각 	<p>전라남도기념물 제23호 중요민속자료 제11호 중요민속자료 제12호 중요민속자료 제20호 전라북도민속자료 제19호</p>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홍임씨 철릭 -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중요민속자료 제112호 중요민속자료 제115호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81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여성의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씨부인 권선문첩 	보물 제728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샛골나이 - 곡성 돌실나이 - 침선, 침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2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의례음식장 - 진도홍주 - 해남 진양주 - 향토술 송순주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7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5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6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 나주 삼색유산놀이 - 진도 씻김굿 - 강진 선돌감기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영 부녀농요 - 고흥 한적들노래 - 장산도 들노래 - 남도 들노래 - 남도잡가 - 남도판소리 - 남도창 동편제 - 판소리 춘향가 외 - 소리춤꾼 안채봉 - 1인 창무극, 공옥진 - 가극 ‘열세집’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0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4호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호 광주시무형문화재 제9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5) 강원권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죽헌 - 이광노가옥 - 왕녀복란태실비 - 용산리 태실 - 숙정, 숙희공주 태실 - 횡성 육절녀 - 영경묘 - 민충사 - 횡성 김순이 여사묘 	보물 제175호 강원도유형지정문화재 제59호 강원도유형지정문화재 제66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5호 강원도기념물 제43호 강원도문화재자료 제27호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장 안채 -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자료 - 삼척 대리이 너와집 - 양양 이두형가옥 	중요민속자료 제5호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1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 백전리 물레방아 	강원도지정민속자료 제6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희순 의적비 및 묘소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 죽서루 - 경포대 - 청평사 3층석탑 - 태백 구문소 - 삼척 용바위 - 봉산서재 판관대 - 청심대와 기녀청심 	보물 제213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호 강원도문화재자료 제8호 천연기념물 제417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대산 중창권선문 - 감추사 - 삼척 해신당 	국보 제292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내외분옷 -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유물 	중요민속자료 제219호 민속자료 제4호 보물 제1182호 보물 제793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안공주관련유물 - 이씨분재기 - 허난설헌 목판초간본 - 신사임당 시문 - 죽서시집 - 김금원 호동서락기 - 김경춘의 호동서락기발문 - 윤희순 향일의병가등 시문 - 임윤지당 유고 	보물 제1220호 강원유형문화재 제9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24호
		여성의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 초충도병 - 매창매화도 및 옥산국화도첩 - 신사임당 초서병품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2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41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자수보자기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선주-임용순 - 강릉 사천과줄(갈골산자)-최봉석 	전통식품명인 제24호 전통식품명인 제2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 - 영등놀이 - 속초 영등할머니 신앙 - 정선지계춤 물박장단놀이 	무형문화재 제13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

6) 제주권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선과 운주당터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관련유적 - 의녀(義女) 홍윤애 관련 유적 - 조선조의 여성거상 김만덕과 모충사 - 열녀 김천덕 관련 유적 - 고소락의 정려비 및 사당 - 애국여성 강평국의 묘 -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가 김시숙의 묘 - 열녀 오씨지문 - 김씨효부정려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입구·바위그늘 집자리유적 - 온평리 혼인지와 동굴입구 집자리 - 제주의 전통가옥, 초가 - 괭지패총 	<p>제주도기념물 제17호</p> <p>중요민속자료 제68호</p> <p>제주도기념물 제41호</p>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밭 - 모래소금밭 - 돌소금밭 - 해녀작업장, 불턱 - 빨래터(산짓내,공새미, 자구리새미, 열운이갯물의 각 마을 빨래터) - 제주해녀 	
		여성 교육·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여학교터인 제주향청(향사) - 제주해녀항일항쟁의 산실인 하도야학의 본산, 하도초등학교 교정 및 각 마을 야학소터 -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비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척지:함드리 - 버둑할망 돛박수월 - 설문대가 토목공사로 조성된 표선리 당캐 일대 - 김상헌의 『남사록』에 나타난 진성과 여정 - 수산진성 - 장성 	제주도기념물 제39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라도 아기엽개 할망당 - 송당리 본향당 - 칠머리당 - 정난주의 묘역: 천주교순교성지 - 안봉려관스님이 세운 제주관음사와 법화사 - 산방덕이 눈물이 흐르는 산방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옷 - 제주해녀의 전통작업복 - 호상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시 두 편 - 분재기 - 탐라순력도/남환박물 - 남사록 	
		여성의 예술 작품		
		여성의 생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의 물질도구:해녀배 - 제주해녀작업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와 * 망사리 * 종기호미 * 골개기, 호맹이 * 빗창 * 소살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생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 * 눈, 큰눈, 족은눈 * 본, 본조갱이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벌립 및 땡땡이덩굴 공예 - 갓일 - 망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리술 - 오메기술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감놀이 - 칠머리당굿 - 제주도의 불교의식 - 해녀노래 - 땡(땡치)후리는 소리 	제주도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0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IV



사례로 본 지역여성문화유산 활용의 현황과 개선점

1. 유관순열사 유적지	77
2. 한산모시	108
3. 서울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141



여기에서는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개선점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바의 여성문화유산들 가운데 유·무형의 여성문화유산을 각각 1사례씩 선정하되, 유형문화유산에서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개별 유적지 활용의 예 및 유적지간 연계활용의 예 등으로 구분하여 모두 세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같은 사례선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현재 문화유산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형태-학생이나 지역주민의 자부심 양양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즉 역사교육장으로의 활용/역사적 인물이나 유적지의 개발과 복원, 관광코스개발과 지역축제화 등에 의한 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의 활용/지역특산품의 개발·전승 및 현대화나 모형문화상품 개발, 문예·공연산업 개발 등에 의한 전통문화상품 자원으로의 활용-를 고려하였다. 즉, 여성문화유산의 제 유형과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진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1. 유관순열사 유적지²⁸⁾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252번지
- 유적 및 기념물 현황
 - ① 봉화지
 - 유관순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의거 전날, 다음날(1919. 4. 1)의 거사를 각 지에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렸던 곳임.
 - 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제230호(1972)
 - ② 생가지
 - 유관순이 태어나 이화학당에 유학하기까지 자라던 곳으로, 1919년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당시 일제 관헌에 의해 모두 불태워져 빈 집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91년에 복원하였음.

(계 속)

28) 유관순열사 유적지로는 이화학당 및 서대문형무소 등 서울에 소재하는 열사관련 유적지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열사의 생가지를 중심으로 한 천안시 소재의 유적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제230호(1972)
<p>③ 추모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의 애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1972년에 건립한 것으로, 유관순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음. - 도지정문화재 : 기념물 제58호
<p>④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의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아우내 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구미산에 1947년에 세움. - 도지정문화재 : 기념물 제58호
<p>⑤ 초혼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의 유택마저 망실하여, 영혼을 위로하고자 초혼묘와 존영상을 1989년에 봉안함.
<p>⑥ 동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의 애국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1983년 건립함.
<p>⑦ 유관순열사 기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유적지 정비·개발계획에 의해 유관순열사 사우 내에 건립하여, 2003. 4. 1 개관함. - 지상 1층 지하 1층 연건평 193평 규모로, 전시실·영상실·체험공간·뮤지엄샵 등이 갖추어져 있음.

가.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위상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을 가리키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유관순 유적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측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의심할 바 없는 유관순과 3·1독립운동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으로서, 즉 유관순 유적지가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으로 환원함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의미이다. 이하 이와 관련하여 소략해보기로 한다.

■ 여성사로서의 3·1운동과 유관순

유관순과 3·1운동이 우리 역사 속의 기념비적인 인물과 사실이라는 점에 이견이 제기될 이유도 없지만, 특히 한국여성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가 간단치 않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이를 계기로 민중의 민족적 계급적 자각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또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이 정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²⁹⁾에 두어져 왔다. 실로 19세기 중반 이후 외세에 의해 왜곡·굴절되어 오다가 1910년 불법적 한일합병에 의해 마침내 국체가 상실된 이래의 모든 역사에 대한 조선 민중의 유일한 해답³⁰⁾으로서, 3·1운동은 사실 한국 근대사의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3·1운동과 여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성과도 적지 않다. 기왕의 연구들은 3·1운동을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의 분수령적 사건으로, 개화기를 거쳐 형성되어온 여성들의 근대적 의식변환이 ‘민족독립’이라는 당면과제를 매개로 하여 드디어 역사전면에 표출된 획기적 사실이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음은 이같은 견해를 잘 대변해 준다.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은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중’이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존재를 무시한 ‘민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봉건적 요소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역사적 배경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게다. 그러한 역사적 제약 속에서 20세기를 전후한 일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이 단순히 신체적 해방을 절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녀평등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갔다. 이 방향성은 더디고 세심한 가운데 그 흐름이 이어져왔으며, 그 역사성을 담당한 존재로서 여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3·1운동은 여성운동에 있어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략)----- 종래 투쟁하는 사람은 남성 뿐이었던 역사 속에서, 남녀평등에 기반하여 자신의 존재를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서가 아니라 주체자

29) 지수걸(1989),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3·1 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청년사, P. 27.

30) 宮田節子(1960), “3·1運動について”、『朝鮮近代史料 研究集成』第3号, 朝鮮史料研究會, p. 5.

로서 독립운동에 참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더 강고한 의지력과 용기와 노력과 그리고 보다 뜨거운 사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여성의 존재를 억압해온 봉건체제를 타파하는 투쟁이자, 여성자신으로부터의 해방투쟁이었을 것이다.”³¹⁾

“3·1운동이 조선 여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자와 협력하여 활약하기를 시작한 첫 막이었으니, 이 첫 번 시험에서 여자는 병신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남자와 다름없이 사람이었던 것을 자타가 인정하게 되었다.”³²⁾

물론 이같은 평가는 몇가지 전제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가령 3·1운동 이전 시기 여성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근대적 여성 의식’의 실체 등에 관한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사료 재해석의 문제에 사료발굴의 문제를 더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규명되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까지의 우리 역사를 통해 여성들이 3·1운동 때만큼 전계층적 차원에서 당당하게 등장하였던 경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가리워져왔던 여성들이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분수령’적 사실과 같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근대적 여성 의식의 성장’이라고 지칭되는 3·1운동 시기 여성 의식에 대해, 통상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민족적 자각과 여성으로서의 질곡을 거부하는 인간적 자각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여성 의식이란 민족과 성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형성되어야 했고,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형태의 여성교육을 통해 전통적 여성 의식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공적 교육의 기회가 전무하였던 전통사회를 벗어나 개화대상으로서 여성에 주목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개화기의

31) 橋澤裕子(1989), 『朝鮮女性運動と日本』, 新幹社, pp.47-8.

32) 황신덕(1937), “조선부인운동의 사적고찰”, 『한국여성사 근대편』,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1992, 풀빛, p. 38에서 재인용.

구국론적 여성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강점기 초기에 식민통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여성개조책의 일환으로서 질적 제한성을 유지한 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양적 팽창을 이루어나간 식민적 여성교육을 거치면서도 여성들의 의식체계를 관통해온 두축은 바로 민족과 성이었다. 특히 일제의 식민여성교육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민족적 분노와 저항의식을 싹트게 한 계기가 되어, 미구에 전개될 3·1운동의 주력부대를 배태³³⁾하는 격이었다.

3·1운동에의 여성참여를 주도했던 당시의 젊은 ‘여교사·여학생’들은³⁴⁾ 바로 이러한 근대적 여성의식을 상징하는 그룹이었으며, 유관순이야말로 다시 이들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3·1운동 당시 고작 열일곱의 어린 여학생이었으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옥중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민족자존의 자긍심을 끝까지 지켰던 유관순은 교과서나 여러 전기물 또는 기념노래 등을 통해 ‘한국의 잔다르크’, ‘3·1운동의 꽃’으로 또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누나’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에 생생히 살아 있다.³⁵⁾

정리해보면, 전통의 질곡을 벗어나려던 자주적인 움직임이 침략적인 외세에 의해 억압적으로 좌절당해가는 가운데 그나마 근대적 외형의 공적 교육기회 확충으로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해갔으나, 그것은 민족과 성이라는 두가지 모순 속에서의 성장이었고 국체상실이라는 민족적 시련 앞에서 민족모순이 여성의식을 압도할 수 밖에 없었음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3·1운동은 여성들의 이같은 구국의식에 의해 민족사적 의미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여성들 또한 남성과 동등한 사회성원임을 역사상 일찌기 볼 수 없을

33) 김재인·양애경·허현란·유현옥(2000),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 102.

34) 3·1운동 당시 여자피검자 가운데 ‘여교사·여학생’은 약 46.3%를 차지하여, 남성의 경우 ‘교사, 학생’이 11.2%였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25세 미만이 전체 여성피검자 중 66.0%를 차지함으로써 같은 연령층의 남성피검자가 전체 남성 중 32.9%였던 데에 비해 두배나 높은 비율이다(정요섭(1982), 『한국여성운동사』, pp. 59-61).

35) 박충순(2002), “유관순과 3·1운동”, <유관순연구> 창간호, 천안대학교, p. 51.

정도의 규모와 열정으로 국내외는 물론 무엇보다 여성자신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일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또 웅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3·1운동을 상징하는 햇불로 길이 남은 인물이 바로 유관순열사인 것이다. 요컨대 인근의 목천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되어온 유관순 유적지는 비단 3·1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유관순 뿐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여성사적 이해의 측면에서도 더없이 의미있는 여성문화유산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천안의 유관순유적지를 체험학습장으로서 향후의 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성문화유산 유형으로 선정하여,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을 통해 현재의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체험관광 상품성

천안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인물을 배출한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일찍부터 유적지로 조성해오고 있었다. 유관순이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생가지와 매봉교회, 서울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 참여 후 고향에 내려와 아우내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을 조직한 봉화터, 추모각, 초혼묘 등을 조성한 데 이어, 유관순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의해 유관순기념관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일의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으로 생가가 불살라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탓으로 사실 유관순의 흔적을 보여줄 이렇다 할 유물이 많은 것은 아니다. 생가지의 경우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는 중이고, 추모각의 영정은 친일화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세인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유관순이 천안 출생의 걸출한 인물임은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유관순 유적지가 ‘충절의 고장’으로서 천안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하자면 천안시만이 간직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문화자원인 셈이다. 때마침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등,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가속화되

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관순 유적지는 체험관광상품으로서 개발이 용이한 아주 유력한 문화자원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열사 탄신 100주년을 전후하여 지역문화자원의 마케팅 차원에서 ‘유관순 마케팅 전략’³⁶⁾을 수립하고, ‘유관순열사 체험관광상품 개발’³⁷⁾ 등의 노력이 전개된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에, 이제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의 폭이 한층 넓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지역이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경쟁력있는 상품이나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³⁸⁾이다.

유관순 유적지가 천안의 독특한 문화자원으로서 체험관광상품으로서 개발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 유적지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유관순 유적지만의 상품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닐 것이다. 유적지내 사적 및 기념물이나 기념관전시관의 내용에 있어, 또는 유적지의 관리·운영의 면을 고려하더라도 유관순 유적지 단독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기 쉽다. 이 점에서 천안시는 강점을 지닌 도시라 할 만하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장으로서,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것도 이같은 사실에 연유할 정도이다. 실제 유관순 유적지 인근만 해도, 임진왜란에서의 진주성 대첩에 빛나는 김시민장군,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 우리 현대사의 걸출한 정치인 조병옥박사 등 위인들에 관련된 유적지가 가까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유적지를 함께 엮어 가령 ‘나라사랑’을 테마로 한 테마관

36) 김춘식(2001), “지역문화자원의 마케팅 전략-천안의 역사적 인물과 ‘유관순 마케팅’을 중심으로”, 『공공행정연구』 제4권 제2호, pp.1-22.

37) 이웅규(2003), “유관순열사 체험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유관순 연구』 제2호,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소, pp.144-83.

38) 김춘식, 앞의 글, p. 2.

광벨트나 체험학습코스 등이 개발될 직 하다. 요컨대 유관순 유적지가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관순 유적지를 더욱 활용되어야 할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주목하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활용 현황: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유관순열사 유적지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사실 그리 용이하지 않다. 현재 유적지를 관리하는 사적관리소에서 개략적으로 집계하는 방문객 수³⁹⁾ 정도가 그나마 유적지 활용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량지표라 할만 할 뿐, 유적지가 실제 어떤 의미로 활용되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적지의 성격상 역사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은 분명하거니와, 그러나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과연 이같은 기대에 부합하는 소감과 의미전달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결과를 아직 본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계기 및 소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설문한 결과를 통해, 동 유적지가 현재 일반인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⁴⁰⁾

1) 설문조사 개요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방문형태는 대개 수학여행단으로 대변되는 학생들의 단체방문과 일반인들의 가족 또는 친지들과의 개별방문 등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조사는 방문객들의 이같은 속성을 고려하여, 단체방문한 학생조사와 개별방문한 일반인 조사 두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9) 사적관리소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하지는 않지만, 단체 및 개별 방문객을 합쳐서 1일 평균 약 1,000명 정도라고 함.

40) 다만 본문에 제시한 조사결과로서,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객들의 반응 및 소감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가 너무 적고, 인적 속성을 고려한 유의표집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데 근거함. 따라서 자료처리 결과표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통계적 유의성 등에 주목하지는 않음.

학생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천안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유관순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68명⁴¹⁾이며, 일반인조사에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의 유관순유적지 방문객⁴²⁾ 중 모두 47명이 조사에 응답해주었다.

<표 15> 유관순 유적지 방문객 설문조사 응답자

단위: 명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성별		성별		연령층별	
여학생	43	여성	23	10대	16
남학생	25	남성	24	2, 3, 40대	18
				50대이상	13
계	68	계	47	계	47

조사내용은 유관순열사 유적지의 의미, 유적지 방문 소감 및 건의사항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인조사에서 몇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다.

<표 16> 유관순 유적지 방문객 설문조사 내용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일반적 사항	- 성별	- 성별 - 연령 - 직업
유적지 및 유관순의 의미	- 유관순 이미지 - 유관순 인지 계기 - 화폐에 유관순 올리는 데 대한 의견	- 유관순 이미지 - 유적지 방문 계기, 방문시 이용교통편 - 유관순관련 공연물이나 다른 유적지 관람경험 - 화폐에 유관순 올리는데 대한 의견

(계 속)

41) 남녀학생 각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회수한 결과임.

42) 일반인 방문객 설문조사를 위해, 유관순열사 유적지 경내 추모각에 비치된 방문객 명부에 기록을 남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방문객 약 6,700명중, 주소지 및 성명이 정확히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494명에게 설문내용을 우편발송하여 회신한 결과임.

유적지 방문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지의 사적 및 기념물 중, 가장 인상적인 것 - 유관순기념관의 구성내용 및 방식 중, 인상적인 것/마음에 들지 않은 것/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 - 유적지 관람 후의 전반적인 소감 - 유적지 관람 시, 불편사항 - 유적지 방문 기념품으로 제작추천하고 싶은 것 - 타인에게 유적지 방문 권유의사 - 유적지 활용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좌동
-------------	---	----

조사는 7-8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학생조사의 경우 ‘유관순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던 7월 23일에 조사대상학생들을 방문하여 자기기입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으로 실시된 일반인조사는 8.8-8.2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회수된 조사표는 자유응답문항에 대한 유목화와 부호화, 편집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SPSS PC+ 윈도우용 V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성질 및 연구목적에 따라 활용용도에 맞게 재부호화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거나 복수응답처리(Multiple Response)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유적지 방문의 의미

유적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걸음은 곧 방문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유적지를 찾는지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유적지가 방문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관순의 이미지와 방문계기를 살펴보았다.

■ 유관순의 이미지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열사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이미지

는 단연 ‘독립운동가’이다. 학생조사나 일반인조사 어느 경우든 3명 중 1명 이상이 ‘독립운동, 독립심, 독립만세, 만세’ 등의 이미지로 유관순을 떠올리고 있다(표 17). 다음으로는 학생조사의 경우 ‘햇불낭자’, ‘애국심·애국자’ 등이, 일반인조사에서는 ‘3·1운동’, ‘애국심·애국자’ 등이 연상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유관순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지식의 차이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학생조사에 응한 초등학생들과 일반인조사의 2/3정도를 차지한 성인층간에 유관순의 독립운동을 3·1운동이라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인식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조사에서 학생층과 성인층으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유관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많은 ‘독립운동·독립심·만세’ 이미지 외에 초·중·고생층인 10대의 경우 ‘애국심·애국자’같은 추상적 이미지가 강한 데 비해, 20대 이상 성인층의 경우는 ‘3·1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로 떠올리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표 17> 유관순의 이미지(1)

단위: 명(%)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10대	20대 이상	전체
태극기	5(7.7)	2(12.5)	3(10.0)	5(10.9)
독립운동·독립심·독립만세·만세	22(33.8)	5(31.3)	10(33.3)	15(32.6)
햇불낭자*	12(18.5)	-(-)	-(-)	-(-)
애국심·애국자	11(16.9)	6(37.5)	4(13.3)	10(21.7)
3·1운동	5(7.7)	2(12.5)	10(33.3)	12(26.1)
강인함·굳은 의지 등	7(10.8)	-(-)	2(6.7)	2(4.3)
슬프다·불쌍하다 등	2(3.1)	-(-)	-(-)	-(-)
기타	1(1.5)	1(6.3)	1(3.3)	2(4.3)
계	65(100.0)	16(100.0)	30(100.0)	46(100.0)

* 천안시가 자체개발한 유관순 캐릭터

<표 18> 유관순의 이미지(2)

단위: 명(%)

구분	학생조사			일반인조사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태극기	2(4.8)	3(13.0)	5(7.7)	2(8.7)	3(13.0)	5(10.9)
독립운동, 독립만세, 독립심, 만세운동 등	14(33.3)	8(34.8)	22(33.8)	7(30.4)	8(34.8)	15(32.6)
햇불낭자	2(4.8)	10(43.5)	12(18.5)	-(-)	-(-)	-(-)
애국심, 애국자	10(23.8)	1(4.3)	11(16.9)	5(21.7)	5(21.7)	10(21.7)
3·1운동	5(11.9)	-(-)	5(7.7)	7(30.4)	5(21.7)	12(26.1)
강인함, 굳은의지 등	7(16.7)	-(-)	7(10.8)	2(8.7)	-(-)	2(4.3)
슬프다, 불쌍하다	1(2.4)	1(4.3)	2(3.1)	-(-)	-(-)	-(-)
기타	1(2.4)	-(-)	1(1.5)	-(-)	2(8.7)	2(4.3)
계	42(100.0)	23(100.0)	65(100.0)	23(100.0)	23(100.0)	46(100.0)

한편 학생조사에서 유관순이미지는 남녀 초등학생별로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표 18), 특히 남학생 중 거의 반수가 ‘햇불낭자’를 연상한 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가운데 ‘강인함, 굳은 의지’ 등의 적극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일반인조사에서는 남녀간에 지니고 있는 이미지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 유적지 방문 계기

학생조사에서는 유관순열사를 기리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중에 방문하게 된 만큼 방문계기를 굳이 질문하지 않았으나, 일반인조사에서는 유적지를 방문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았다. 방문 계기야말로 유적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데 좋은 방증자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결과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로부터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10대인 학생층과 20대이상인 성인층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표 19). 조사에 응한 10대 연령층 대부분이 ‘여행 또는 연수교육 중

견학차, 소풍차’ 등 단순방문이 많은 데 비해, 20대이상 연령층은 마찬가지로 ‘여행 또는 연수교육 중 견학차, 소풍차’ 방문이 많긴 하지만 ‘자녀교육·숙제 때문에’ 및 ‘역사유적 답사차’ 방문과 같이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유적지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유관순 유적지 방문 계기(일반인조사)

단위: 명(%)

구분	10대	20대이상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길에	1(6.7)	3(10.3)	4(9.1)
자녀교육·숙제때문에	1(6.7)	6(20.7)	7(15.9)
역사유적 답사차	-(-)	6(20.7)	6(13.6)
여행 또는 연수교육 중 견학차·소풍차	9(60.0)	7(24.1)	16(36.4)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어서	-(-)	3(10.3)	3(6.8)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	2(6.9)	2(4.5)
자주 방문함	-(-)	2(6.9)	2(4.5)
열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	2(13.3)	-(-)	2(4.5)
부모의 권유로	2(13.3)	-(-)	2(4.5)
계	15(100.0)	29(100.0)	44(100.0)

3) 유적 및 유물에 대한 반응

■ 가장 인상적인 유적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이 경내의 유적이거나 유물 등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은, 유적지 활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근거려니와, 다른 일면 전술한 바와 같은 눈높이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도 할 만하다. 유적지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유적에 대해, 학생조사에서는 반수 이상이 ‘유관순 기념관’을 꼽은 데 이어 ‘매봉교회’, ‘생가’·‘추모각’ 등 순으로 반응을 보이며, 일반인조사에서는 2/3이상이 역시 ‘유관순기념관’을 들고 있지만 다음으로는 ‘생가’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표 20). 또한 유적지내 유적에 대해 남녀간 반응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일반인조사에 비해, 학생조사에서는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은 비교적 유적 전반에 고른 반응을 보인다.

<표 20> 유관순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단위: 명(%)

구분	학생조사			일반인조사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유관순기념관	27(62.8)	9(36.0)	36(52.9)	14(60.9)	17(70.8)	31(66.0)
추모각	3(7.0)	5(20.0)	8(11.8)	3(13.0)	1(4.2)	4(8.5)
봉화지	2(4.7)	-(-)	2(2.9)	-(-)	-(-)	-(-)
생가	4(9.3)	4(16.0)	8(11.8)	5(21.7)	5(20.8)	10(21.3)
매봉교회	6(14.0)	7(28.0)	13(19.1)	1(4.3)	-(-)	1(2.1)
초혼묘	-(-)	-(-)	-(-)	-(-)	1(4.2)	1(2.1)
기타	1(2.3)	-(-)	1(1.5)	-(-)	-(-)	-(-)
계	43(100.0)	25(100.0)	68(100.0)	23(100.0)	24(100.0)	47(100.0)

■ 유관순 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

학생조사나 일반인조사에서 모두 유적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가 설립한 상설 전시관이다. 기념관을 구성하는 여러 전시내용물 및 유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과 가장 맘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방문객들의 눈높이 차이는 발견된다. 가령 학생조사에서 기념관의 가장 인상적인 구성내용으로 꼽힌 ‘영상관’이 일반인조사에서는 가장 맘에 들지 않은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21).

또한 일반인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응답된 ‘아우내장터 만세운동(디오라마)’에 대한 학생조사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편에 속한다. 이 밖에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고문(벽관체험)’의 경우에도 학생조사에서는 가장 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반인조사에서는 맘에 들지 않기는 오히려 인상적이라는 반응인 편이다.

<표 21> 유관순 기념관의 구성내용에 대한 반응

단위: 명(%)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경성복심법원재판과정(매직비전)	7(17.9)	7(15.2)	경성복심법원재판과정(매직비전)	2(11.1)	1(4.2)
아우내장터만세운동(디오라마)	4(10.3)	16(34.8)	아우내장터만세운동(디오라마)	3(16.7)	2(8.3)
고문(벽관체험)	6(15.4)	11(23.9)	고문(벽관체험)	6(33.3)	2(8.3)
사진	4(10.3)	6(13.0)	사진	1(5.6)	2(8.3)
영상관	11(28.2)	1(2.2)	영상관	2(11.1)	6(25.0)
태극기스탯프	2(5.1)	3(6.5)	태극기스탯프	1(5.6)	5(20.8)
타임캡슐	1(2.6)	2(4.3)	감옥	3(16.7)	-(-)
모자	4(10.3)	-(-)	기념품가게	-(-)	1(4.2)
계	39(100.0)	46(100.0)	계	18(100.0)	24(100.0)

가장 인상적인 구성내용에 관한 일반인조사에서 연령층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도, 학생층인 10대의 응답에서 제일 많이 꼽힌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조사에서 보여진 경향과 그리 다르지 않다(표 22). 요컨대 유적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호응을 받고 있는 ‘유관순 기념관’의 구성내용에 대해 학생조사 와 일반인조사 결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22> 유관순 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성내용

단위: 명(%)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10대	20대 이상	전체
경성복심법원재판과정(매직비전)	7(17.9)	3(18.8)	4(13.3)	7(15.2)
아우내장터만세운동(디오라마)	4(10.3)	5(31.3)	11(36.7)	16(34.8)
고문(벽관체험)	6(15.4)	2(12.5)	9(30.0)	11(23.9)
사진	4(10.3)	2(12.5)	4(13.3)	6(13.0)
영상관	11(28.2)	1(6.3)	-(-)	1(2.2)
태극기스탯프	2(5.1)	2(12.5)	1(3.3)	3(6.5)
타임캡슐	1(2.6)	1(6.3)	1(3.3)	2(4.3)
모자	4(10.3)	-(-)	-(-)	-(-)
계	39(100.0)	16(100.0)	30(100.0)	46(100.0)

4) 유적지 방문 소감 및 불편사항

■ 방문 소감

유적지를 방문하고 난 후의 소감은 유적지 방문이 기대에 부응했는지 또는 유적지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적지 활용의 의미를 가늠케 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학생조사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더 알게 되어 좋았다/좋았다’는 긍정적인 소감을 밝힌 데 비해, 일반인 조사에서는 물론 ‘더 알게 되어 좋았다/좋았다’는 소감이 가장 많긴 하지만 ‘실망했다’는 소감이 다음으로 많아 비교된다(표 23). 특히 ‘실망했다’는 소감은 모두 20대 이상인 성인층으로부터 나온 점이 주목되는데, 실망의 내용으로는 시설부족이나 자료빈약/조명이나 음향효과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조사의 10대 연령층이 밝힌 소감의 내용은 학생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이같은 결과에서 유적지내의 유물이나 유적의 관리 운용에

<표 23> 유관순 유적지 방문 소감

단위: 명(%)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10대	20대 이상	전체
더 알게되어 좋았다/좋았다/잘되어 있다	27(45.0)	8(53.3)	6(22.2)	14(33.3)
애국심 생긴다/애국심본받고 싶다/나라사랑하는 마음 얻을 수 있다	7(11.7)	1(6.7)	2(7.4)	3(7.1)
존경스럽다/대단하다/기특하다	6(10.0)	2(13.3)	3(11.1)	5(11.9)
재미있고 인상깊다	9(15.0)	2(13.3)	-(-)	2(4.8)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3(5.0)	-(-)	2(7.4)	2(4.8)
힘들었다	2(3.3)	1(6.7)	-(-)	1(2.4)
실망했다/아쉽다(시설빈약·방문객적음·단조 롭고 자료빈약·음향미흡 등)	1(1.7)	-(-)	10(37.0)	10(23.8)
불쌍하다/마음이 아팠다/참담하다	3(5.0)	-(-)	2(7.4)	2(4.8)
아이들에게 열사정신이 깃들여지길 바란다	-(-)	-(-)	2(7.4)	2(4.8)
무서웠다	-(-)	1(6.7)	-(-)	1(2.4)
일본의 만행에 화났다	1(1.7)	-(-)	-(-)	-(-)
혼이 깃든 곳 같다	1(1.7)	-(-)	-(-)	-(-)
계	60(100.0)	15(100.0)	27(100.0)	42(100.0)

대한 학생층과 성인층간의 눈높이 차이를 짐작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적지 방문 소감에서 학생층에 비해 일반 성인층의 반응이 다소 비판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적지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유적지 방문 후,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를 봐도 성인층의 반응은 학생층에 비해 더욱 우호적이다(표 24). 학생조사에서 다섯명 중 한명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적지 방문을 ‘권유하고 싶지 않다’(20.6%)고 하며, 일반인조사에서도 ‘권유하고 싶지 않다’(13.3%)는 10대 학생층의 생각은 20대 이상 성인층 방문객 거의 전부가 타인에게도 ‘권유하고 싶다’(96.6%)는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될 만 하다. 물론 특별히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긴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유적지에 대한 소감을 굳이 유적지의 의미와 연결시키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아무래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적지인 때문일 게다.

<표 24> 타인에게 유관순 유적지 방문 권유의사

단위: 명(%)

구분	학생조사	일반인조사		
		10대	20대이상	전체
권유하고 싶다	54(79.4)	13(86.7)	28(96.6)	41(93.2)
권유하고 싶지 않다	14(20.6)	2(13.3)	1(3.4)	3(6.8)
계	68(100.0)	15(100.0)	29(100.0)	44(100.0)

■ 불편사항

방문객들이 유적지 경내를 관람하는 동안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유적지 활용 현황 파악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불편 또는 애로사항을 찾아 시정해나가야만 향후로도 유적지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탓이다.

<표 25>에서 보듯이, 학생조사에서는 ‘식당이나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이라든가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

등이 불편사항으로 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인조사에서는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꼽는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은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림’ 등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25> 유관순 유적지 관람 시, 불편사항

단위: 명(%)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조사*		
		10대	20대 이상	전체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	17(19.8)	7(31.8)	16(31.4)	23(31.5)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	19(22.1)	4(18.2)	3(5.9)	7(9.6)
식당이나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부족	22(25.6)	6(27.3)	13(25.5)	19(26.0)
사적 및 기념물 등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음	15(17.4)	2(9.1)	5(9.8)	7(9.6)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	11(12.8)	3(13.6)	13(25.5)	16(21.9)
인물표사가 너무 무서움	1(1.2)	-(-)	1(2.0)	1(1.4)
기념품이 비싸고 장소가 너무 좁음	1(1.2)	-(-)	-(-)	-(-)
계	86(100.0)	22(100.0)	51(100.0)	73(100.0)

* 복수응답처리한 결과임.

학생조사와 일반인조사간에 불편사항을 두고 나타난 이같은 결과는 일견 조사응답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즉, 단체방문 형태를 취한 학생조사의 경우 아무래도 편의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일 것이며, 일반인조사에서는 대개 개별방문 형태인 만큼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과 같은 불편사항을 실감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 유적지 방문 교통편

학생조사에서 제기된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이라

든가 일반인조사에서 나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과 같은 애로사항도 눈여겨봐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의 성격상 의당 엄숙한 분위기가 장려되긴 하겠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 방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의 엄숙함이라면 재고될 필요성이 분명하며, 개별방문형태가 대부분일 일반인조사라면 접근성을 뜻하는 대중교통편이 역시 중요하기 마련인 탓이다. 실제로 일반인조사에서 유적지 방문시 이용한 교통편으로 단체방문경우로 추정되는 ‘단체버스’를 제외하자면, ‘대중교통’을 든 사람은 단 1명 뿐 거의 모두가 ‘승용차’를 들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표 26).⁴³⁾

<표 26> 유관순 유적지 방문 시, 이용한 교통편

단위: 명(%)

대중교통	승용차(자가용)	단체버스	기타	계
1(2.1)	35(74.5)	8(17.0)	3(6.4)	47(100.0)

5) 유적지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 유적지 전반에 대한 의견

유적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게 건의해준 의견에서도 학생조사와 일반인조사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조사의 경우 응답 학생 중 1/3가량이 ‘자세하고 쉬운 설명과 안내·관찰’을 주문⁴⁴⁾하고 있으며, ‘보다 재미있게·밝게’라거나 ‘유적지 보존·관리·방문’ 등을 건의한 의견도 많다(표 27).

43) 참고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도 유적지를 여러차례 방문하게 되었는데, 처음 한두번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였을 뿐, 나중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서울에서 유적지까지 직행하는 대중교통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44) “설명할 때 재미있게 말하였으면 좋겠다”/“유관순에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쉽게 말해주세요”/“사적 및 기념물에 대해 안내자가 많았으면 좋겠다”/“좀더 쉽게 풀어 만화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등

<표 27> 유관순 유적지 활용을 위한 건의사항

단위: 명(%)

구분	학생조사	일반인조사
보다 재미있게 · 밝게	6(18.2)	-(-)
자세하고 쉬운 설명과 안내 · 관찰	10(30.3)	5(15.6)
정보검색내용을 풍부하게	1(3.3)	-(-)
홍보강화/만화나 책자제작	4(12.1)	14(43.8)
체험식으로 운영	4(12.1)	-(-)
시설 편하게	1(3.0)	1(3.1)
당시 생활상 알려주는 내용 추가	1(3.0)	-(-)
유적지 보존 · 관리 · 방문	6(18.2)	-(-)
일반인대상 행사 개최	-(-)	3(9.4)
음향 · 조명시설 등 보완	-(-)	1(3.1)
교통편 개선	-(-)	2(6.3)
도심에 유적지 있었으면	-(-)	1(3.1)
초 · 중 · 고 교과서에 열사관련내용 게재확대	-(-)	1(3.1)
유적지연계하여 테마관광코스 개발	-(-)	3(9.4)
연수관건립운영	-(-)	1(3.1)
계	33(100.0)	32(100.0)

일반인조사에서는 ‘홍보강화’ 의견이 단연 많고⁴⁵⁾, 다음으로는 ‘자세하고 쉬운 설명과 안내 · 관찰’에 대한 건의가 많다. 이밖에 유적지의 관리운영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강화하는 데 도움될 만한 시설들을 보강해야 한다⁴⁶⁾거나,

45) “유관순열사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별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특히 여자들에게는 본받을만한 그런 존경스러운 유관순 열사를 좀더 알리기 위해 TV 에 나오는 것이 제일 알리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여자중학생)/ “안내판의 영어문장과 철자 등이 틀리거나 매그립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재작성하여야 할 것임. 유관순여사를 소개하는 한 · 영 · 일 · 중국어 책자비치 필요함. 여성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약소국의 독립을 쟁취한 계기를 만들어낸 소녀 영웅으로 부각, 세계의 어린이들이 감동받는 국제적 인물로 형상화하여 나라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함.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케 하는 인물로 부각시켜야 함”(50대 남성, 현직 은퇴)

46) “참배를 하기 전 민족혼을 느낀 후 참석하는 것과 민족혼을 알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뭉클 올라오게 하는 민족혼을 일깨워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초혼묘 앞 스위치를 작동하면 초혼묘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고 가

테마관광코스 개발⁴⁷⁾과 같은 구체적인 제언을 보내온 경우도 있다.

■ 유관순 기념관 구성내용에 대한 추가희망 의견

한편 유적지 방문객의 인적 속성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정작 그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학생 및 성인들간에 다소 다른 반응을 보여준 기념관이 앞으로 더욱 추가해주길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학생 조사와 일반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사실 학생조사와 일반인조사에서 설문한 방식이 달라 양 조사결과를 그대로 견주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 결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설문형태의 차이를 전제하고 제시된 의견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에서 보면, 학생조사의 경우 ‘열사의 활동상을 더 자세하게’라든지 ‘유품 발굴, 전시’ 또는 ‘재미있는 놀이 통한 체험’ 등에 대한 주문이 비교적 많다. 일반인조사의 성인층 응답결과에서도 ‘체험공간의 확충’이나 ‘3·1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 ‘유품발굴, 전시’/‘3·1운동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등이 많이 주문되고 있다. 이는 앞서 유적지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자세하고 쉬운 설명과 안내, 관찰’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사실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또한 유관순 유적지가 ‘볼거리로서의 매력이 없고 관련된 자료도 빈약하며 너무 단조롭고 무거운 분위기라는 약점’을 지녔다는 평가⁴⁸⁾ 등이 여전히 유효하여, 앞으로의 유관순 기념관 운영에 있어 더욱 주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하겠다.

습을 몽클하게 하는 음향시설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초혼묘 가는 길에 추모석에 적혀있는 글들을 야간에도 읽을 수 있도록 조명시설등입니다”(30대 남자, 경찰공무원).

47) “병천이라는 지역에 유관순열사 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애국심 고취, 위대한 여성상을 위해서라도 열사 유적지의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홍보 및 부대시설 확장, 단지 역사교육장을 떠나 체험 애국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전국학생연극제, 만세 한마당 등 살아있는 교육현장, 중고생 애국생활관 입소(사회봉사와 대체할 수 있음) 또는 민곳을 단순히 왔다가 가기에는 테마가 부족하니 유적지와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40대 남자, 회사대표)

48) 김춘식, 앞의 글, P.13.

<표 28> 유관순 기념관에 추가되기 바라는 내용

단위: 명(%)

구분	학생 조사	일반인 조사**		
		10대	20대 이상	전체
유관순열사의 생활모습 관련	2(8.7)	5(21.7)	2(4.4)	7(10.3)
열사의 거사와 관련한 유품발굴, 전시	4(17.4)	4(17.4)	7(15.6)	11(16.2)
열사의 활동상을 더 자세하게	5(21.7)	-(-)	5(11.1)	5(7.4)
3·1운동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1(4.3)	1(4.3)	7(15.6)	8(11.8)
가족에 대해*/3·1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	3(13.0)	3(13.0)	9(20.0)	12(17.6)
디오라마를 더 풍부하게(장면, 인형수 등)/각종 재연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3(13.0)	5(21.7)	5(11.1)	10(14.7)
재미있는 놀이 통한 체험 많게*/체험공간의 확충	4(17.4)	5(21.7)	10(22.2)	15(22.1)
순국관련사항*/기타	1(4.3)	-(-)	-(-)	-(-)
계	23(100.0)	23(100.0)	45(100.0)	68(100.0)

* 설문형태를 자유응답식으로 한 학생조사결과 나온 응답내용

** 일반인조사 시에는 학생조사 결과에 기준하여 응답 보기항목을 제시함. 다만 ‘3·1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는 학생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응답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제시한 것임.

그런데 여기에서 ‘열사의 활동상을 더 자세하게’ 해달라던 학생조사에서의 주문이 일반인조사에서의 학생들에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 마치 학생들의 응답결과가 별로 신빙성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이는 학생이나 성인이나의 차이보다는 학생들끼리의 단체방문과 부모동행한 가족방문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부모나 또는 다른 어른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반인조사에서의 학생들은 아마도 동행한 어른들로부터 관람하는 동안 유관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 활동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주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언급했듯이, 이 조사에서 학생조사와 일반인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시된 의견의 취합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나온 학생들간에 일견 일관되어보이지 않는 결과에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기념관에서 향후 보다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로서 제시된

의견의 면면에 하나하나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 기념품

현재 유적지 경내에서의 기념품 구입은 두 곳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유관순 기념관내의 기념품샵으로, 천안시가 자체개발한 유관순 캐릭터 ‘햇불낭자’를 응용한 여러 기념소품 및 비교적 고가의 기념품등이 판매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유적지 방문차량의 주차장 바로 옆에 자리한 매점으로, 이곳은 딱히 유관순유적지 관련 기념품만을 취급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잡화물품을 비롯해 저가의 관광기념소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기념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품목이나 소재 또는 가격대 등에서 그리 다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적지 방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데에 적합한 기념품도 유적지의 긍정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제작되길 원하는 기념품을 추천토록 하였다.

조사결과, 양쪽 모두 ‘유관순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긴 하지만 여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역시 조금 다른 취향을 보여준다. 학생조사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유관순열사 모형’과 그 다음의 ‘열사동상모형’을 합하면, 오히려 ‘유관순 캐릭터기념품’ 보다 더욱 많은 점이 눈에 띄는데(표 29), 이는 단순 기념품보다는 무언가 유적지 의미가 담긴 기념품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설문에 응한 남학생들 반수이상이 ‘유관순모형(작고 귀여운 모형/햇불낭자)’을 제안한 데 비해, 여학생들은 ‘유관순 캐릭터 기념품’이 제일 많긴 하지만 모형에 대해서는 예의 작고 귀여운 모형보다는 ‘열사동상모형·일군에 대항하는 열사 모형’을 오히려 많이 제안하고 있다. 이는 비록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의 유관순 이미지에 대한 남녀학생의 응답 경향과 연관되어 보이는 재미있는 결과이다. 즉, 남학생들이 유관순이미지로 ‘햇불낭자’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과 관계있어 보이는 것이다.

<표 29> 유관순 유적지 방문 기념, 제작 희망 기념품(학생조사)

단위: 명(%)

구분	여	남	전체
유관순 모형(작고 귀여운 모형/햇불남자)	6(16.7)	8(53.3)	14(27.5)
열사 동상 모형·일군에 대항하는 열사 모형	8(22.2)	-(-)	8(15.7)
유관순 캐릭터 기념품(악세사리/생활소품/학용품 등)	13(36.1)	3(20.0)	16(31.4)
열사 사진	1(2.8)	-(-)	1(2.0)
열사의 태극기 모형	4(11.1)	1(2.8)	5(9.8)
타임캡슐모형	1(2.8)	2(13.3)	3(5.9)
열사 얼굴스탬프	-(-)	1(6.7)	1(2.0)
유관순 그림	1(2.8)	-(-)	1(2.0)
작은 책자	1(2.8)	-(-)	1(2.0)
생가 모형	1(2.8)	-(-)	1(2.0)
계	36(100.0)	15(100.0)	51(100.0)

일반인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유관순 캐릭터 기념품’ 외에 ‘열사의 태극기 모형, 태극기’ 등에 대한 제안이 눈에 띈다(표 30). 유관순이 아우내장터 독립 만세운동을 조직하면서 직접 제작했다는 태극기를 포함하여, 지금의 태극기를 활용한 기념품을 뜻하는 것인데, 이 역시 유관순 이미지조사에서 태극기

<표 30> 유관순 유적지 방문 기념, 제작 희망 기념품(일반인조사)

단위: 명(%)

구분	10대	20대 이상	전체
유관순 모형(작고 귀여운 모형/햇불남자)	2(18.2)	-(-)	2(6.7)
열사 동상 모형·일군에 대항하는 열사 모형	1(9.1)	1(5.3)	2(6.7)
유관순 캐릭터 기념품(악세사리/생활소품/학용품 등)	5(45.5)	7(36.8)	12(40.0)
열사 사진	-(-)	1(5.3)	1(3.3)
열사의 태극기 모형	3(27.3)	4(21.1)	7(23.3)
작은 책자	-(-)	1(5.3)	1(3.3)
초혼묘 모형	-(-)	1(5.3)	1(3.3)
열사새긴 메달·뱃지	-(-)	3(15.8)	3(10.0)
보드게임	-(-)	1(5.3)	1(3.3)
계	11(100.0)	19	30(100.0)

를 떠올렸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응답자 수가 너무 적은 하지만 다른 설문에서와 달리 일반인 조사에서 학생층이나 성인층의 기념품 제안 취향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 유적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유관순 유적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적지 형태의 여성문화유산은 현재 주로 역사교육장으로서 또는 체험학습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게다. 대개 수학여행단으로 상징되는 학생들의 단체방문이라든가 각종 연수교육 형태의 방문에 의한 역사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해서도 유적지의 제 의미가 잘 전달되어 긍정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방문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유적지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음미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개별방문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면, 유적지 활용의 취지는 그만 무색해지고 말 우려가 있다. 이에 사례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유관순 유적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가지 개선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 체험욕구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창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유적지 방문객들은 현장학습에 임하는 학생집단이라든가 자녀교육 및 현장체험을 위한 가족단위 방문 또는 유적답사나 단순견학 등을 위한 개별방문 등의 형태 중 보통 어느 하나에 속하기 마련이다. 또한 인적 속성으로 특징적이기는 학생집단과 성인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유관순유적지 사례조사에 의하면, 학생층과 성인층간에는 유적지를 관람하는 동안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유적 및 유물에 대한 호·불호의 반응이나 기념관의 전시내용 등에 대해서 거의 대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일반성인들은 신통찮아 하고, 또

그 역의 경우도 있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난 후의 소감에서도 학생들과 성인들은 차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밖에 유적지 관람 시의 불편사항이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같은 눈높이 차이가 유적지 방문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것이며, 감안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동일한 유적지에서 방문객들의 눈높이를 이유로 다른 내용과 전달방법이 동원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구성내용이라든가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는 적어도 눈높이 차이를 시사하는 모든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내고, 이를 전달·안내하는 방식 등에서는 눈높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구성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컨텐츠 확충), 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방문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욕구에 결합하는 것도 눈높이에 맞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유적지 형태의 문화유산은 자칫 일방적인 ‘보여주기’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 컨텐츠 확충에 의해 볼거리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함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문제는 방문객과의 교감이 아닌 일방적인 보여주기로는 유적지의 역사·문화적 의미 전달에 그리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점에서 경주의 역사관광에 신라의 달밤을 팔아 관람객 스스로 신라천년의 문화에 젖어보게 하는 경주의 ‘달빛기행’⁴⁹⁾은, 관람객의 체험욕구를 문화자원과 결합한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대단히 훌륭한 본보기다. 말하자면 일방적인 볼거리만으로는 더 이상 관람객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문화재관람 중심의 관광이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관람객 자신의 체험을 유적지내의 볼거리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볼거리를 창출해내는 데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9) “신라의 달밤을 팝니다” 경주역사관광 땀네/“관람서 체험으로” 아이디어 적중(중앙일보, 2004-08-19, 12면). 1995년 민간단체인 신라문화원이 아이디어를 내, 달빛 아래 몇 개의 코스를 만들고 탐돌이 체험과 국악공연을 곁들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는데 2003년에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참가자만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주를 대표하는 테마관광으로 자리잡음. 달빛기행에 대한 반응이 좋아, 보름달이 뜨지 않는 토요일 유적지의 야간조명을 따라 답사하는 별빛기행 프로그램도 개발함.

2) 문화유산해설사의 배치

구성내용이나 전시방법 등에 있어 다양한 눈높이를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써 맞추어나가는 것 외에, 기존의 내용을 방문객의 특성에 맞추어 어떻게 전달하는지의 측면에서도 방문객의 눈높이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문화유산해설사’의 배치다. 문화유산해설사란, ‘문화재 및 지역문화등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설명해 줌으로써 관광객의 문화체험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전직교사·공무원, 퇴역군인, 주부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⁵⁰⁾

유관순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서도 유적지나 유물 등에 관해 재미있고도 자세하며 또한 쉬운 설명이나 안내 등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거니와, 특히 방문객들간의 눈높이 차이가 큰 경우라면 방문객의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나는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는 유관순 유적지를 예로 들자면, 소수가 배치되어 유적지경내를 동선별로 이동하면서 안내하기보다는 다수를 주요 코스별로 배치하여 안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령 천안시의 여성단체라든가 각급 학교 어머니회 등과의 연계에 의해 양성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3) 역사적·문화적 의미 전달 강화 : 이미지 메이킹

흔히 ‘문화유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유관순 유적지와 같은 장소가 의미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동 유적지가 지닌 의미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의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제 스스로는 아무런 재생산의

50) “힘내라, 문화유산해설사”(한겨레, 2004-09-03, 18면). 2001년 문화관광부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각 시·도 지자체를 통해 길러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1,000명이 배출돼 주요 문화유적지에서 활약 중이며, 지역의 단체들이 양성한 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고 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적지에 의식있는 방문객들이 찾아옴으로써 유적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확산되고 의미있는 문화로서 되살아나게 되는 것⁵¹⁾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콘텐츠 확충이란 것도 사실은 역사적·문화적 의미 전달이 강화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가령 유관순 유적지의 예를 보더라도,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더욱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이때 유관순에 한정해서만 내용 확충을 꾀하려 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관순의 생애만 해도 워낙 짧았던 데다, 거사당시 생가가 전소되어 이렇다 할 유물이 확보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유관순의 거사가 지니는 역사적 또는 여성사적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기념관의 내용구성에 있어 보다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3·1운동에 대한 여성사적 이해를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약상이 더욱 풍부하게 유관순 기념관을 채울 필요성이 납득될 것이며, 그로써 유관순의 거사는 단순한 개인적 거사가 아닌 3·1운동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유관순 유적지를 찾은 일반인조사에서 유관순 기념관의 내용으로서 더욱 추가하고 싶은 내용 중에 ‘3·1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더욱 자세하게’와 같은 의견이 적지 않음은, 현재의 유관순기념관 전시내용이란 방문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조차 채 이르지 못할 정도임을 보여주는 실례인 셈이다. 이처럼 역사적·문화적 의미전달의 강화를 통해 더욱 확충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터미널로서의 체험교육관으로 유관순기념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되, 이를 지역기반으로 만들어 체험교육장 그 자체가 방문객을 집객할 수 있는 지역기반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 오미숙(2004), “안으로 보내는 시선, 내나라 여행이 즐겁다”,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7, pp. 12-3.

52) 이남식(2004), “전통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9, pp. 41-3.

4) 마케팅에 의한 관리운용의 혁신

마케팅에 의한 관리운용 혁신의 요체는 결국 ‘고객’이다. 주지하는대로,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규명해내고 이익을 내면서 이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분하며 판매를 촉진시키고 가격을 결정하는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⁵³⁾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적지 활용에서의 마케팅이란 고객인 방문객의 욕구에 의해 활용에 따른 소기의 목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속성상 개별적 수준에서의 욕구를 확인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유적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요구와 지향을 가늠케 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학여행단을 맞이한 다음에는 해당 학생들에게 반드시 방문에 따른 소감이나 건의사항들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되, 현장에서의 설문은 곤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귀교후 인솔교사에 의뢰하는 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유적지를 개별 단위 또는 가족단위로 찾는 방문객이라면 방문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기전에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만 어느 경우든 설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 회수 시 유적지를 기념할 수 있는 소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다.

편리하고 쾌적한 부대시설로서 유적지 활용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유관순 유적지는 엄숙함이나 경건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전체 유적지 구성을 통해 드러나 보이는 것이, 화장실이나 매점 또는 식당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그다지 충분치 않다.⁵⁴⁾ 문제는 이로 인해 충분한 유적지 관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까지 한다⁵⁵⁾는 점이다.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 특히 학생조사에서

53) 김춘식, 앞의 글, p.2.

54) 예산상의 문제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가령 식당같은 경우는 유적지의 의미를 고려하여 당초부터 부대시설로서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함(유관순 유적지 사적관리소장과의 면담)

55) 유관순 유적지의 경우, 식당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인근에도 마땅하게 식사할 곳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음은 이해되는 일이다. 유적지 경내를 반드시 엄숙함으로 채우려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도 따져볼 만 하거니와,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춘다고 해서 유적지의 엄숙한 분위기가 지장받는 것도 아닌 바에야, 유적지내 편의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잘 갖춰놓은 일은 긴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성관점의 반영이 절실하다는 데에 대해 이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람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나 세면대의 수량 차이에 있어 성별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것 등은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바 있는 대책⁵⁶⁾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적지나 인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적지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관리운용 혁신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다려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견되는 대상을 설정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언론이나 잡지 등 각종의 전달매체를 활용,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제작은 유적지의 의미를 되풀이하여 각인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유적지가 예외없이 시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념품이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특정의 유적지마다 당연히 차별화되어야 할 기념품이 형태나 소재 등에서 대동소이한 점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적불명의 정체를 기념품이 활개를 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념품 개발에 더욱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령 유관순 유적지 경우에도 유관순과 3·1독립운동에 대해 보다 역사·문화적 의미가 담긴 캐릭터⁵⁷⁾나 관

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방문객들의 조급한 방문을 초래하는 한 영향이기도 하다고 한다. 즉, 유적지에서 하루 중 가장 빈번한 방문시간대가 대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데, 이는 본 유적지에 식당시설이 없는 관계로 점심식사 전에 빠르게 본 유적지를 관람하고 다른 식사장소로 이동하려 하는 탓이라고 함(유관순 유적지 사적관리소장과의 면담)

56)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관광부 브리핑 제24호, 2003. 11. 7

57) 현재 유관순 캐릭터로는 천안시가 개발한 ‘햇불낭자’가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별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영향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데, 다분히 회화화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함. 가령 학생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남학생들은 거의

런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높다.

5) 여성부의 관심과 지원

현재 유관순 유적지는 천안시 소관으로, 시 재정에 의해 유적지 정비나 관리운영 관련 예산 등이 충당되고 있다. 물론 천안시에서는 나름대로 부대시설 확충이라든가 유관순 기념관의 운영, 영정 제작, 유관순 학교 운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유적지 관련 예산을 계획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특히 여성부 차원에서도 유관순유적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여성부는 ‘여성사전시관’과 같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니와, 역사·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립이 여성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의제이기 때문이다.

유관순 유적지는 본문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여성역사에서 가버이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따라서 여성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여성역사교육장으로서 유적지가 분명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유관순 유적지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산재한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에서, 해당 지역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기획한다든가 유관순유적지와 연계되는 체험학습코스 개발 지원 등도 고려해볼 직하다. 이 밖에도 역사적 여성인물로서 유관순의 위상에 힘입어, 정부부처내에서 여성부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화폐발행시 들어갈 인물로서의 추천도 그 한 예다. 이를 통해 유관순을 길이 후세에 기리게 하는 한편 유적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여성부가 직접적으로 이같은 일들을 담당하기보다는, 관련되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의 역사찾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 하겠다.

모두가 ‘햇불낭자’를 유관순 이미지로 연상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인상적이어서일 수도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화적인 반응이지 않는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음.

이밖에 여성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부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관련정책에의 성관점 반영이라는 점에서 문화관광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에 성인지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한다든가 아예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성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2. 한산모시

길쌈은 베와 모시, 목화, 누에고치 등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시는 까칠까칠한 촉감과 뛰어난 흡수력, 통풍성, 섬세하고 단아한 멋을 지닌 여름철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에 한산의 한 노인이 건지산(乾芝山)에서 모시풀을 발견하여 모시를 짜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저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삼국 이전부터 모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 들어서는 상류층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의복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치를 금하기 위해 모시의 질을 통제할 정도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직조기술도 발달해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에는 모시를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우리 역사상 모시직조가 가장 발달한 것은 고려시대로 이 시기 들어 생산이 한층 활기를 띠고 수요도 급증하였다. 모시는 공물로서, 상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계층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제17대 인종 원년에 개경을 방문한 송나라의 서극은 [고려도경]에서 “농민은 빈부에 관계없이 상인은 근원에 관계없이 그 복장이 모두 흰모시로써 포(袍)를 만들고 오건(烏巾)에 네 가닥 띠를 하는데 오직 포의 치밀하고 거친 정도로써 구별하며 나라의 관원과 귀인이 물러나 사가에서 생활할 때에도 역시 그것을 입는다”고 할 정도였다(서성호1997: 109).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품질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귀족문화에 걸맞게 섬세한 무늬를 짜 넣은 가늘고 치밀한 고급 모시는 중국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서극은 “결백하기가 옥과 같다”고 하였으며 고려에서 보낸 꽃무늬 백색모시의 섬세함에 감탄한 원나라 공주는 이를 저자에 전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하게 하였다(김미자 1990: 180).

이미 이 시기부터 한산은 모시의 고장으로 이름을 얻어 [택리지] 북거총론편에는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원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논”이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였다. 모시풀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계 속)

모시 직조 역시 재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까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시풀이 재배되었지만,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지역이 주요 생산지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의 서천군 일대는 조선 초기부터 저포칠처(苧布七處: 한산, 서천, 비인, 임산, 홍산, 남포, 정산) 또는 저산팔읍(苧産八邑: 한산, 서천, 비인, 임천, 홍산, 남포, 보령, 정산)으로 불릴 만큼 모시 생산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한산모시”는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났다.

오랜기간 여름옷감으로 사랑받던 한산모시의 생산은 1960년대 합성섬유의 보급으로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렇다고 모시 생산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1967년 한산모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로서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생산의 명맥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

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길쌈⁵⁸⁾의 의미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은 평생을 집안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만 역할만을 해왔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은 각종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점은 많은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조명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직조생산은 여성들이 전담해온 대표적 분야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과 삶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 길쌈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

선사시대에 직조가 시작된 이후, 직조는 여성들이 전담하는 분야였으며 삼베와 견직, 모시, 면직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직조생산은 여성들의 손에서 발달되어 왔다.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은 일차적으로 가족원들의 의류재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원들이 추위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있어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였다.

58) 전통의 직조공정으로 삼, 모시, 목화, 누에고치 등을 원료로 베, 모시, 무명, 명주 같은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직물은 중요한 교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여성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가구소비용 이상의 잉여 직물을 판매하여 가구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경우가 있으며⁵⁹⁾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특히 과부의 경우에는 길쌈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으며 조선시대 들어서는 가난한 양반가정에서도 생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일례로 김만중의 모친 윤씨부인은 “공주의 손녀이자 무남독녀로 귀히 생장했건만, 병자호란에 남편을 잃고 아들 형제를 길러내면서 손수 베틀에 앉아 명주를 짜고 아들의 책을 사기 위해 짜던 명주를 중도에 끊어 바꾼”(김용숙 1971; 김성희 2001:73 재인용)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가세를 넓힐 수도 있었다⁶⁰⁾.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미 신라 시대부터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을 거두어 들여 빈민층과 병사들에게 사여했으며 (박남수 1996: 71) 고려시대 들어서는 포상과 빈민구제, 교역용 직물 수요가 증가하여 다른 공물 대신 마포를 납부할 정도로 직물이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서성호 1997: 108; 김성희 2001: 6).

국가 재정에서 여성의 직조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조선시대 들어 더욱 커졌다. 조선전기부터 재정적, 군사적 용도의 면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지불수단으로서 면포의 수요도 증대했다. 특히 종종 10년에는 종래에 미곡만으로 지급하던 녹봉을 증액하여 면직

59) 삼국유사 선유환생조에 망덕사의 중 선유이 저승에서 인간세계로 오는 도중에 만난 한 여자가 “세상에 있을 때... 곱게 짠 베를 침구 사이에 두었으니 그 베를 판 돈으로 경폭(耕幅)을 삼아 주시면 황천에서도 은혜가 되겠다”고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일연 1994; 김성희 2001: 70 재인용).

60) 1872년에 지은 경자록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집안에... 저 물레에 목을 매어 한 필 두 필 내여 파니 한 냥 두 냥 이문일네 이렇저렇 장만하여 논도 사고 밭도 산”(이정옥 1999; 김성희 2001: 74 재인용) 경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능화(1990: 374)도 농가에서 부녀의 길쌈으로 기초를 삼아 점점 업을 불리어 부자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물과 함께 지급하기 위해 호당 2-3필씩 부과하던 호포 이외에 비역자인 보인들에게까지 1정(丁)당 면포 2필씩 부과하면서 직물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길쌈노동으로 충당되었다(정세화 외 1988: 32; 박영애 1990: 50-51).

이처럼 가구 외부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도 직조를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여성들의 직조생산 노동이 아니었다면 국가재정은 확보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직조생산을 통해 시장경제 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물은 쌀, 은과 함께 대표적인 현물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삼베가 화폐대용으로 사용된 것을 비롯해(김미자 1990) 17세기 중엽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이전까지, 심지어 1894년 조세의 금납화가 완전히 실시될 때까지도 직물은 시장교환의 주요 매체였다(박영애 1990:52). 더욱이 18-19세기 전국 1,052개의 향사에서 유통되는 물품 중 40%가 저포, 면포, 명주 등의 직물류일 정도로(김신웅 1984: 64)⁶¹⁾ 조선 후기 상품경제의 발달은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직조생산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의 의복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달을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려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조를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정약용은 [경제유표]에서 “목면을 재배하면 이익이 오곡의 백배”가 되고 “한명의 베 짜는 여인이 남성 농부 세 명보다 많은 일을 하며(一織婦女勝三農夫)” “남자가 45일 걸리는 일을 여자는 한달 만에 해낸다”(김영호 1972: 189-190)고 하며 여성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이능화 역시 길쌈하는 여성이 없었다면 조선의 산업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남성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1) 농업생산물과 가공품류의 비중은 30% 정도였다(김신웅 1984: 64).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여자가 부지런히 일하여 남자에 뒤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나는 고치실과 명주, 베, 모시, 무명 등 어느 하나도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 이로써 보건대 조선 산업사상에 실로 여자는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능화 1990: 368).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건대, 길쌈을 통해 여성들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존재로 인정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직조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삼국시대에는 직조나 염색, 표백, 바느질 등 직물과 관련된 관사가 설치되어 여성들이 하급실무관리로서 직물을 생산해 냈으며⁶²⁾ 고려 시대에도 직조 담당 기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이외에 시장경제 발달 과정에서 직물 유통을 담당하는 여성 대상이 등장하는 등 여성들은 직물생산과 유통분야에서 현저한 활동을 펼쳐왔다⁶⁴⁾.

2) 길쌈을 통한 여성문화의 형성

직조는 특정 계층의 여성들에게 제한된 일이 아니라, 농민계층에서부터 왕비와 여왕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진덕여왕이 스스로 비단을 짜고 무늬를 놓았던 바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이 길쌈을 중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62)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따르면, 여성들이 종사하는 관직은 주로 직조나 염색, 표백, 바느질 등 직물과 관련된 관사에 배속되어 있었다. 조하방(朝霞房) 23인, 염궁(染宮) 11인, 소전(疏典) 6인, 홍전(紅典) 6인, 소방전(蘇芳典) 6인, 찬염전(攢染典) 6인, 표전(漂典) 10인, 침방(針房) 16인, 기전(綺典) 6인 등이 그것으로 조하방은 조하주(朝霞紬) 등의 견직물을 직조하던 기관으로 보이며 소전은 고치실을 켜는 기관, 염궁, 홍전, 소방전, 찬염전은 염색기관, 표전은 표백기관, 침방은 바느질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은 이러한 기관의 하부실무관리로서 직물을 생산했다(정세화 외 1988:33; 박남수 1996: 115).

63) 초기에는 잡직서와 도염부로 조직되었다가 이를 통합한 직염국과 지방기구인 잡직감방으로 개편되었다(김미자 1990).

64) 19세기 말 평안도 정주의 무명장나이 신삼희당은 면직물 판매로 크게 치부하여 집안 살림을 일으켰다(강숙자 1986: 52).

수 있다(김성희 2001: 70-71). 물론 국가체계가 발달하고 계급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왕실과 일부 지배층 여성들은 점차 직조에서 멀어졌으며 시장경제의 발달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조선시대에도 최상층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직조를 하는 양상은 계속되었다. 특히 노비가 없는 대부분의 양반가에서는 자가 소비와 가계 운영을 위해 여성이 직조에 나섰으며 양반가정의 혼자된 여성들이나 가난한 양반가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생계와 자녀 교육을 책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이상 직조를 하지 않던 최상층 여성들도 상징적 차원에서는 길쌈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왕비가 누에치기와 길쌈을 권장하고 양잠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친히 누에치기를 하는 친잠례⁶⁵⁾를 거행하기도 했으며 누에치기 전에 잠신에게 제사드리는 잠제를 잠모(簪母)가 주관하여 치르기도 했다(강숙자 1986: 5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일로서 직조는 보편적 여성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글 읽는 것이 남자의 일인 것처럼 방적은 부인의 직임”(송백헌 1977; 강숙자 1986: 51 재인용)으로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는데, 고구려 대안리 21호분에는 여성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광경이 그려져 있고 덕흥리 고분벽화에는 견우와 직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비롯해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에서는 세오녀가 생산한 직물에 그녀의 정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등 여성들은 흔히 길쌈 하는 모습으로 표상되었다⁶⁶⁾.

65) 친잠례는 조선시대 왕비가 궁궐에 선잠단(先蠶壇)을 쌓고 제를 올리고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주는 의식이다. 기록은 태종 11년(1411년)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실제 친잠례를 갖춘 것은 성종 7년(1476년)왕국 후원에 만들어 놓은 채상단에서 실시한 것이 최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4년 조선조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비의 약식화한 수견례를 끝으로 그 맥이 끊겼다.

66) 이외에 조선 인종과 김종직(1431-1492) 등은 길쌈하는 여성을 다룬 시를 지은 바 있으며 영조는 경직도에서 양잠과 길쌈, 바느질하는 아낙네를 그린 바 있다(이능화 1990: 376- 380; http://www.nonghyup.com/a_allnacf/06_culture/act/at_46.html). 또한 김홍도의 [자리짜기]에서도 자리짜는 남편 옆에서 부인은 물레로 실을 잣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김홍도의 [자리짜기], 그 옆에 여성이 실을 잣고 있다

이처럼 길쌈이 핵심적인 여성의 역할로 받아들여진 만큼, 길쌈 능력을 갖춘 여성만이 엄연한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의 사회화(socialization) 내지 문화화(culturalization) 과정에서는 길쌈 기술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어릴 때부터 여성들은 길쌈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⁶⁷⁾ 길쌈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덕목을 갖추는 것으로 여겨졌고 부지런히 실을 뽑고 길쌈을 하는 여성은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 추앙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고구려 대안리 고분 속 직녀의 당당한 모습처럼 길쌈을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감을 지닐 수 있었다(강영경 연대미상).

물론 국가 체계가 발달하면서 힘든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 대부분을 조세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수취해가는 착취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압력 하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들 특유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우선 아래세대 여성들이 위세대 여성으로부터 길쌈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에서 길쌈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방식이 여성들 사이에 전승될 수 있었으며,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짠 옷감

67) [동국이상국집]에는 “4살로 자못 능히 길쌈과 바느질을 배운” 어린 딸에 애도가 담겨 있다(김성희 2001: 71).

을 넣어주어 딸이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직물을 통해 여성들 간에 세대를 잇는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베틀에서 직조를 하면서 여성들은 삶의 고달픔과 즐거움을 표현해 왔으며⁶⁸⁾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직물에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투영하기도 하고 그 직물이 떠날 때 느낀 큰 박탈감을 글이나 노래로 표현하기도 했다.

베틀노래사례(강원도)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뽕아 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계다가
 짜궁짜궁 짜아내어 가지잎과 뭉거워라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출처: <http://www.seelotus.com/gojeon/gojeon/min-yo-pan-so-ri/be-teul-nolae.htm>)

허난설헌의 [빈녀]

밤늦게까지 베틀에 앉아 쉬지 않으니
 베틀만 빼걱빼걱 차갑게 울어댄다.
 틀에서 또 한 필 짜내긴만
 이번에는 누구의 옷이 되려나?
 (이능화 1990: 372)

이외에도 직조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로서 가내에 국한

68) 물레노래, 베틀노래, 베짜기 노래, 삼삼기 노래 등의 노동요가 전해지고 있다. 그 예는 박미라(1991), p. 42 등 참조

되어 있던 여성의 영역이 집밖으로 확대되고 여성들 간에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왕녀 두사람이 6부내 여인을 나누어 거느리고 7월 보름 이후 매일 일찍부터 밤늦도록 대부(大部)의 뜰에 모여 베짜기를 하여 8월 보름에 가서 그 공을 가렸다(이화여대 1972: 146)는 기록에서 직조를 통한 여성들의 공동체 형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직조가 일반화되면서부터는 황해도와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길쌈 작업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여성들이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한 두레를 형성하기도 했다.

길쌈은 직물 재배에서부터 직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실을 만드는 일은 주위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면직조의 경우에는 물레 찾기를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삼베 직조의 경우에는 짧은 섬유를 잇는 삼삼기 작업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 무릎을 맞붙이고 둥글게 앉아” 일을 했다. 길쌈두레는 연령대도 비슷하고 숙련도도 비슷한 친구들의 일상적 만남의 일부로서 각자 일거리를 가지고 모여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임영진 1997: 69-70). 모시 직조 작업에서는 섬유의 올을 짜는 작업(짜기)과 짧은 섬유를 길게 잇는 작업(삼기)을 여럿이 모여 앉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직조 작업도 여러 명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해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도 했다.

여러 명의 여성이 함께 모여 하면서 일의 지루함을 잊을 수 있으며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단지 공동작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음식도 해 먹고 화투도 치고 윷도 놀고 재미있게 노래도 하고, 누구 제사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잔치라든지 하면 그 집 음식 갖다 놓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놀기도 했다.”(임영진 1997: 71)

산업화 과정에서 길쌈을 하는 여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길쌈 두레는 거의 사라졌으며 여성들의 보편적 일이자 생활의 핵심이었던 직조는 개개인의 전업적 경제행위로 그 의미가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직조를 통한 여성들간의 세

대전승과 공동체 형성, 경험의 교류 등도 더 이상 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길쌈두레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안동이나 서천 등의 주요 길쌈 지역 생산자들 사이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3) 우리문화의 상징으로 활용

여성에 대한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직조를 통해 여성들은 가구경제와 국가재정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여성들간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기술과 지식을 세대로 전승하면서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직조전통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외에도 직조는 대외 문물교류의 중심으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통로이기도 했는데 이 역시 여성생산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찍이 3세기 말 백제의 봉의공녀가 일본으로 건너가 능직을 비롯한 일본 직조의 기원을 연 것을 비롯해 신라의 진덕여왕은 직접 비단을 짜 당태종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모시와 견직물이 대송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아 “회기가 구슬과 같은” 모시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으며, 원나라에서는 고려 여승이 바친 흰모시를 본 제국공주가 모시를 짠 여승의 몸종을 바치도록 요구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화여대 1972: 146; 이능화 1990: 368-380; 김성희 2001: 70, 72).

이처럼 직조는 여성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으로서 뿐 아니라 대외 외교 및 교역 무대에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직물 시장이 수입 직물에 잠식되고 공장제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역사적 위상을 표출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직조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공장제 생산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직조생산은 공장 내에서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으로 변화했으며, 여성은 저임금노동력으로 전락했다(김성희 2001: 77-78).

결국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상기시키고 여성들 간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길쌈은 오직 가난한 여성들의 힘든 노동으

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직조 기술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도 각광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길쌈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축제 등을 개발하면서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길쌈전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환기되고 있어 길쌈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나. 한산모시 활용 현황

1) 경제적 활용

가) 수입원으로서의 한산모시의 가치

모시는 다년생 식물인 모시풀을 원료로 하여 몇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우선 베어낸 모시풀⁶⁹⁾의 겉껍질을 벗겨낸 후 속껍질(태모시)을 물에 적시고 햇볕에 말리기를 네다섯 차례 반복하여 물기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윗니에 걸고 아래 입술로 훑어내 가는 섬유로 잘라낸다(짜기).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가는 섬유가 나오느냐에 따라 모시실의 굵기와 모시의 품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만든 섬유 한 올 한 올을 무릎에 대고 손바닥으로 비벼 길게 이어(삼기) 놓은 것이 모시긋으로 한필의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날실용 모시긋 10개와 씨실용 모시긋 10개, 총 20개의 모시긋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날실용 모시긋을 가지고 날기⁷⁰⁾와 매기⁷¹⁾ 과정을 거쳐 날실을 준비하고 씨실은 꾸리에 감은 후 베틀에서 직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생산자들은 전체 공정을 직접 하기보다는 각각의 공정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모시를 재배하

69) 모시풀은 일년에 세 차례(4월말~5월초, 6월말~7월초, 8월말~9월초) 베는데, 중간에 베는 것의 품질이 좋다.

70) 10개의 모시긋 각각의 실끝을 젖을대 구멍으로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한 후 날틀에 걸어 한필의 길이에 맞추어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수(조직의 치밀함을 재는 단위, 7새-15새 정도)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춘다.

71) 날기가 끝난 날실을 바디에 끼워 한쪽 끝은 도투마리에 매고 다른쪽 끝은 끝개에 말아 고정시킨 후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풋닛가루를 뺏술에 묻혀 고루 먹여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왕겨불로 말려 도투마리에 감는다.

는 농민들은 태모시만을 생산하고, 일단의 생산자들은 태모시를 사다 찢기와 삼기를 해 모시긋으로 만들면 또 다른 생산자들이 그 모시긋을 사다가 날기와 매기 과정을 거쳐 베틀로 짜서 필모시를 만들어 낸다. 이외에 최근에는 샷을 받고 모시매기만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공정별로 전문화된 구조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모시시장은 크게 완성품인 필모시 시장과 원료인 태모시와 모시긋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태모시와 모시긋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며 특별히 질이 높은 모시긋의 경우에는 특정한 필모시 생산자와 대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필모시 대부분은 거간을 통해 한산모시조합의 검사를 거쳐 판매되고 일부는 상점이나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특히, 솜씨가 좋은 생산자들은 개별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직접 거래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품질이 뛰어난 필모시를 찾기 힘들다.

서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군내의 총 95가구에서 3.5ha의 면적에 모시풀을 재배했으며, 찢기와 삼기 과정을 거쳐 모시긋을 생산하는 가구는 398가구로 일년에 17,340개의 모시긋을 생산해냈다. 이외에도 전남 승주와 고흥, 전북 부안과 정읍 등지에서 생산된 태모시와 모시긋도 한산지역으로 들어와 필모시의 원료가 된다. 이러한 모시긋을 가지고 모시를 짜는 가구는 총 186가구로 일년에 4,404필의 필모시가 생산되었으며 총생산액은 11억8천5백만원 정도에 이른다⁷²⁾.

<표 31> 한산모시 생산 현황(2003)

	모시풀 재배	모시긋 (찢기·삼기)	필모시
생산농가	95	398	186
생산량	3.5ha	17,340긋	4,404필
생산액	89,902천원	172,063천원	1,186,070천원

자료: 서천군 문화관광과 모시진흥담당 제공

72) 이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다. 군청 담당자도 모시찌기와 삼기, 모시짜기를 하는 실제 생산자들은 통계수치보다 50% 정도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76년도에는 총 340ha의 재배지에서 3,270톤의 모시풀이 재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년 동안 재배면적이 10%정도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모시 생산자도 크게 줄어들어 “동네 친구 모두가 모시를 하던”(이복구, 65세, 한산면) 때와 비교해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모시를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한산면의 경우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126가구에서 모시짜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24가구에서만 모시짜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서천군 일대에서 모시를 가장 많이 짚던 화양면 월산리만 하더라도 전체 70여 가구 중 60가구 이상이 필모시를 생산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단 5가구만이 모시짜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모시짜기와 삼기 생산자들의 감소 속도는 필모시 생산자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모시풀 재배는 농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모시짜기와 삼기, 짜기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여성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농가별로 한명의 여성이 작업을 하고 2명 이상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 있는 만큼, 서천군 일대에서 모시곳과 필모시를 생산하는 여성은 각각 400명, 200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모시생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의 40대 말 연령층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50대 말~60대의 초기노인들이며 70대 이상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생산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가운데에서도 특히 모시짜기와 삼기는 전적으로 노령층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비교적 젊은 여성들은 모두 모시짜기를 하고 있어 모시생산자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특히 모시짜기와 삼기 생산자들은 머지 않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생산자들이 길쌈을 익힌 배경이나 경험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데, 60대 이상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길쌈을 보고 자라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다가 10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시일을 시작했다. 이에 비해, 40대 여성들은 결혼 이후 30대 들어 일을 배우기 시작해 모시일을 익힌 시기가 윗세대에 비해 현저히 늦어지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 친척들이 길쌈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동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모시일을 하던

윗세대와 달리 돈벌이를 위해 모시짜기를 시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산모시는 그 생산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자가 거의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짜기와 삼기를 담당할 생산자들이 노령화된 채 더 이상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모시의 질을 좌우하는 가는 모시굿 생산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얼마지 않아 모시의 원료가 되는 모시굿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짜기의 경우에도 비교적 늦게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숙련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산모시 생산이 위기에 처하게 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죽은 풀이 산 사람 죽인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에 비해 수입은 농업임금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길쌈은 매우 고된 일로서 특히 모시짜기를 할 때에는 입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삼을 때에는 무릎에 피멍이 들기도 한다. 또한 날마다 하루 종일 베틀에 앉아 짜기를 한 생산자들은 예외없이 허리와 무릎병으로 고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생산수입은 그리 높지 않으며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모시짜기와 삼기 생산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2,5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솜씨로 짜기를 해서 최고의 모시굿을 만들어도 하루 수입은 7,500원 선에 불과하다. 모시짜기와 삼기에 비해 필모시 생산자들의 수입은 다소 높지만, 그래도 하루 15,000원에서 기꺼해야 20,000원 내외의 수입만을 올릴 수 있으며⁷³⁾ 그 마저도 철이 정해져 있어⁷⁴⁾ 수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15-20년전만하더라도 모시수입은 꽤 괜찮은 편이어서 “밤늦게까지 해서 장에 내고 그걸로 쌀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생활도 했었지만”(나상덕, 72세, 한산면) 이제 더 이상 모시수입만으

73) 중간 정도의 품질을 지닌 모시 한필을 짜는데에는 평균 5일이 소요되는데, 한필을 팔아 모시굿 값(굿당 10,000-25,000원 선. 한필에 소요되는 모시굿 총액은 200,000-500,000원 선)을 제하고 남는 돈은 적게는 5만원, 보통 10만원 내외이다. 세모시의 가격은 1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 평균 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여름철 잘 팔릴 때에는 한달에 70-8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연수입은 500만원 정도이다. 일반 생산자들의 수입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

74) 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습도가 낮으면 모시를 잘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생산이 거의 중단된다.

로 생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 무형문화재 후계자로 지정된 생산자도 모시짜기만으로는 수입이 변변하지 않아 품팔이를 할 정도이다.

생산자의 수입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간상인을 통한 유통구조⁷⁵⁾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산모시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의 기억에 따르면 약 10여년전부터 모시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중국산 모시 수입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한산모시의 수요 감소추세는 가속화되어 생산자들의 체감 수입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나) 신기술·신상품 개발

한때 여름철 옷감으로 사랑받던 한산모시는 생산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시풀 생산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모시곳과 필모시 생산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 인력은 더 이상 충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결과, 생산량은 줄어들고 생산기술도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 현재 노령화된 생산자들의 역력이 소진되면 한산모시의 명맥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왔다. 한편으로는 한산모시축제 개최와 한산모시관 건립(이후에 다시 언급할 것임) 등을 통해 한산모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한산모시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작업에 의존하던 모시공정을 기계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필모시 이외에 모시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층을 넓히는데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10여년전부터로 1992년부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에서 모시연구실을 설치하여 모시풀 생산 및 종자 보급, 모시직조, 제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소와 잠사곤충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도 모시 생산 및 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995년에는 한산면 지현리에

75) 한산모시조합에서는 규격만 검사하고 가격은 거간이 결정하는 형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모시옷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전자동 재봉틀과 단추기를 설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업기술센터 모시연구실의 기능은 사라졌으며 모시옷 제조공장 역시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후 한동안 기술과 상품개발사업은 중단되었다가, 2003년부터 서천군 경제진흥과에서 지역특산물인 모시산업 진흥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높은 가격에 비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전통모시의 한계를 넘어 값싸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입으로 짜고 무릎에 비벼 삼는 대신에 기계로 실을 만들어 필모시와 의복, 침구류 이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화 모시 사업으로 현재에는 시범적으로 모시실을 만들어 양말 등의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계로 만든 모시실의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시제품의 색상과 품질도 문제가 있어 향후에도 3년 정도의 시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시험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기계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시풀 생산면적이 현재의 100배 정도로 증가해야 한다. 또한 기계화모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색상도 너무 단순하고 품목도 양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서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모시의 성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니이가타현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한산모시 기계화 직영사업과 한산모시 중근 지원사업, 전통 천연염색 강좌 등도 계획 중이다.

기계화 이외에 모시를 활용한 각종 기념품 개발도 한산모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서천군에서는 매년 공예품 대전을 열어 한지, 고무찰흙, 짚풀 등을 이용한 기념품과 함께 한산모시를 활용한 공예품을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율도 낮고 출품작의 디자인도 다양하지 않아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상품으로 자리 잡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산모시에 특화된 공모전도 아니어서 새로운 모시 상품개발에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천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의복재료로만 사용되던 모시를 식품이나 화장품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해왔다. 한산 일대의 모시품 재배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시잎을 넣어 송편 등을 만들었던 점에 착안해, 냉면이나 국수, 비타민, 약용주, 화장품 등을 개발해 특허출원(2004-34443)까지 마쳤다. 그러나, 아직 식품 인가를 받지 않아 실용화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한산모시의 수요와 생산수입의 감소, 생산자 노령화, 이로 인한 한산모시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중화, 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2003년 작성한 [서천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전통 모시생산의 한계를 넘어 모시산업을 첨단화하고 이 지역을 모시생산 인프라와 판매망,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 등의 종합기능을 가진 모시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시가격 결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모시의 기계적 검사에 의한 표준화 작업, 모시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을 계획 중이며, 모시인력 양성을 위한 모시스쿨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해 한산의 전통모시를 세계시장을 향한 고급 명품브랜드로 키워내려는 포부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가) 문화자원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

한때 서천군 일대에서는 모시길쌈이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최근들어 수입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입원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시생산을 통한 수입증대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산모시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세기 말 들어 세계 각국에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문화유산의 본질은 문화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UNESCO,

ICOMOS 등의 문화유산 개념에서 공인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학계에서도 일반적 상품과 다른 문화적 요소의 특징을 인정하여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특정 요소가 객관적인 양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부여받아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작용할 때 해당 요소는 문화자본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의미를 활용한 관광 등이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 문화자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는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문화적 경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된 것일 뿐이며 문화적 의미가 쇠퇴하면 경제적 가치도 침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Koboldt 1997:55; Throsby 1997: 14-15; 2001).

그런데, 문화유산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심에 따라 보다 풍부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빈약해지기도 한다. 즉,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심하거나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다보면 어느새 문화적 가치가 쇠퇴하기 쉬운 반면, 적절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기존의 가치가 유지, 증진되거나 때로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결국 문화적 의미를 도외시킨 채 형식적인 아름다움만을 지닌 유적지나 빈약한 의미에 기반한 수행(performance) 차원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직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유산만이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산모시의 경우에도 모시생산을 활성화하고 수입증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만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발굴,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산모시는 이미 196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문화재보호는 유·무형의 문화적 요소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한산모시처럼 기술과 지식이 중시되는 무형의 요소에 대해서는 전승자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조를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화유산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서천군에서는 별도의 기제를 통해 한산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증진하고 일반에게 홍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나) 한산모시관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자리 잡은 한산모시관은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산 모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자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시설로 건립되었다. 현재 한산모시관은 모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시 생산도구와 유물을 전시하고 모시 생산공정을 시연하는 일종의 박물관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외에 매년 5월에 열리는 한산모시축제의 개최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산모시관은 중앙의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전통공방, 토속관, 양방가 안채, 민가 2채, 소곡주 제조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왼쪽으로는 모시각과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관이 들어서 있다. 또한 모시관 중앙에는 모시 짜는 여인상이, 모시각 앞으로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 밖에도 모시관 앞쪽으로는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갖추어져 있다.

■ 전수교육관

이 가운데, 모시관의 핵심은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수교육관으로 지하 1층의 제1전시실에는 한국복식사와 모시의 역사, 한산모시의 쓰임새, 한산모시의 우수성, 현대의 모시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판넬을 설치해 모시에 대한 역사기록을 소개하고 여름철 자연섬유, 건강섬유로서 모시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시 일반이나 한산모시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삼국사기, 택리지, 계림유사,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등의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공간에는 모시로 만든 각종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벽면으로는 모시 한복을 입고 있는 모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밖에 전수관 지하에는 모시시연장이 마련되어 1-4명 가량의 여성노인들이 모시생산공정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모시짜기와 삼기작업이 이루어지며 그 옆으로는 개량베틀 3대를 놓고 모시짜기를 하여 공정별로 전문화된 현재의 생산구조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이외에 실제 공정에서는 날기와 매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연되지

않고 있다.

전수관 1층에는 관리 사무실과 제2전시실, 전시 및 판매장이 위치해 있는데, 제2전시실에는 2004년 5월 제15회 한산모시문화제를 맞아 열렸던 모시패션 디자인 공모전 응모작품 포트폴리오와 시상작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모시 교류]라는 명칭으로 일본 소화촌 가라무시 생산자들이 모시관 방문을 기념해 기증한 모시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개량베틀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전시실 중앙으로는 판매용 필모시와 모시옷, 모시 머리핀, 주머니, 핸드폰 거리 등의 기념품 등이 담긴 진열장이 놓여있다. 제2전시실 옆 전시 및 판매장에는 모시로 만든 옷에서부터 보료, 쿠션, 수의 등이 가격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 전통공방과 토속관

양반가옥의 대청마루와 부엌을 본따 만든 전통공방은 원래 모시짜기 시연장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바닥이 차고 바람이 불어 작업이 어려운 까닭에 시연장은 전수교육관 지하로 이전하였고 대신 대청마루에는 태모시를 걸어놓고 모시날기와 매기 도구를 진열해 놓았다. 그런데, 이곳에 진열된 것만으로는 모시 작업공정을 모르는 이들이 날기와 매기작업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더욱이 대청마루 옆에 위치한 부엌에서는 원래 매기 작업이 시연되었지만, 지금은 모시생산과 관계없는 가마니 짜는 기계나 훑대, 망태기, 두레박, 되, 명석, 풍부, 키, 가래, 풍구, 가래 등 농가에서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무차별적으로 쌓여 있어 모시관의 본래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전용된 상태이다.

부엌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 토속관에는 평지보다 낮게 판 곳에 베틀을 놓고 직조를 하는 여인상이 놓여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땅을 파고 그곳에서 작업을 했던 전통적인 모시길쌈 현장을 재현한 것이다. 예전에는 집 한편에 이러한 장소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마루 아래에 베틀이 들어갈 정도로 굴을 파기도 했는데, 일대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움집”이라고 한다. 가습기의 보급으로 방문을 밀봉하고 가습기를 틀어 습도

를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전통 작업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 그만큼 현재의 토속관은 전통적인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어 방문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안채와 민가

토속관 위와 옆으로는 양반가옥의 안채와 민가 두 채가 위치해 있는데, 이 가운데 안채와 민가 한 채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공방이다. 안채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방연옥씨의 공방으로 한 칸의 방에서는 개량 베를 두 대를 놓고 보유자가 모시를 짠다. 마루에는 보유자가 직접 짠 필모시와 이것으로 만든 의류 등이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마루 앞쪽으로는 모시로 만든 브로치나 머리핀 등의 기념품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 한쪽 민가에 자리잡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나상덕씨 역시 방에서 모시를 짜면서 필모시와 완성품 의류를 팔고 있으며 기념품도 갖추어 놓았다. 이외에 또 다른 민가는 모시 양장점으로 방문객들이 필모시를 가져와 옷을 맞춤수도 있고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 모시각과 시비

전수교육관 왼쪽 위편에 자리 잡은 모시각은 한산모시의 원류를 찾기 위해 지어진 사당이지만, 목적에 걸맞지 않게 모시신이 아니라 건지산 산신지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곳은 매년 한산모시축제(또는 한산모시문화제) 개최에 맞춰 모시제를 지내는 것 이외에는 문이 닫혀 있어 방문객들이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그 앞으로는 모시각 시비가 서 있는데, 앞쪽에는 한산모시의 역사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뒤쪽으로는 ‘백저사(白亭詞, 槐陰 申英樂 著)’라는 가사가 새겨져 있다.

■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관

모시각 아래 전수관 왼쪽에 위치한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관에는 충청남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저산팔읍 길쌈놀이 보존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한편은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축제기간 중 이곳에서는 모시 염색작품전 등이 열리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모시 생산공정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함께 모시 의류와 장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길쌈놀이에 사용되는 징이나 장구, 북 등의 악기도 놓여져 있으며, 벽면으로는 저산팔읍 길쌈놀이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특히 여러 차례의 ‘수상경력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길쌈공정에 따라 구성된 놀이 단계별로 부르는 노래도 기록되어 있다.

다) 한산모시축제

매년 5월 초 열리는 한산모시축제는 한산모시관과 함께 일반인들이 한산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1990년 ‘저산문화제’로 출발할 당시에는 서천군이 주관하는 군민 체육행사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차 한산모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으며 특히 1999년 전국 18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한산모시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국제적인 관광행사를 목표로 프로그램도 대폭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육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저산문화제 원년부터 계속 되어온 모시아가씨선발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모시패션쇼와 모시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모시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한산모시축제는 모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산모시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모시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은 자연히 한산모시와 관련되어 있다. 생산자들이 직접 모시길쌈을 시연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짜볼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하는가 하면 한산모시로 만든 의상패션쇼와 한산모시 디자인공모전 결선도 열린다. 모시생산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놀이를 재연한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행사도 있으며 일본의 모

시생산자들의 시연코너도 있다. 이외에 모시축제의 개막을 기념하는 한산모시제도 열리고 있으며, 옷과 가방, 기념품 등의 모시제품 전시-판매코너도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 열린 제15회 축제에서는 모시어린이 선발대회와 우리가족 모시옷 맵시자랑, 모시꽃 만들기, 모시풀벗기기대회, 모시노끈꼬기대회, 기계화모시 특별전시, 모시음식 판매등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다.

<표 32> 한산모시축제 주요프로그램

	제 14회(2003)	제 15회(2004)
한산모시관련 프로그램	한산모시길쌈시연·체험, 한산모시패션쇼, 한산모시 디자인공모전 및 출품작 포트폴리오 전시, 저산팔읍길쌈놀이 시연, 한산모시새벽시장, 한산모시제, 일본 모시관련전시, 소화촌 가라무시 시연	모시어린이 선발대회, 우리가족 모시옷 맵시자랑, 모시꽃 만들기, 모시풀벗기기대회, 모시노끈꼬기대회, 기계화모시 특별전시, 모시음식판매
일반 프로그램	사물놀이, 교향악단 공연, 웰컴 투코리아 홍보대사공연, 신석초 백일장대회, 서림국악원 춤공연, 국악단 공연, 군민화합 연예인쇼, 짚공예경연대회, 도예체험학습장, 서양화·동양화 초대전, 천연염색시연, 서당낭돌탐쌍기, 소곡주 시연, 덕타령 시연, 어린이날 기념공연, 재즈댄스 공연, 자전거타기 대회, 바다고기 사진전시 등	사물놀이, 국악한마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공연, 타악 퍼포먼스, 웰컴투코리아홍보대사 공연, 스포츠댄스, 연예인쇼, 노인건강체조, 군민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체험, 덕타령시연, 짚공예경연대회, 도예학습장, 천연염색시연, 어린이날기념공연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특히 모시옷 패션쇼와 저산팔읍 길쌈놀이는 기간 중 매일 주요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길쌈 시연과 체험 코너 역시 행사장에서 상시로 열리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시옷 패션쇼> 건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유관순 교수가 디자인한 모시옷 패션쇼로 현대 대중적 감각에 맞는 모시옷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산팔읍 길쌈놀이> [삼국사기]에는 유리왕 시기 가배 길쌈경연대회⁷⁶⁾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직조생산지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길쌈과 관련된 공동놀이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1982년 전국 민속경연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충남 지역 대학교수와 국악원장 등은 가배길쌈경연대회를 모티브로 한 저산팔읍 길쌈놀이를 연출했다. 이후 각종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길쌈놀이는 지역의 독특한 공적 연행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1991년에는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길쌈놀이는 서천군과 부여군 일대의 8개 지역 부녀자 120여명이 지역별로 팀을 이루어 길쌈공정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가장 정교하면서도 많은 모시를 짠 지역이 승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승자를 축하하며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놀이는 모시 생산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길쌈놀이라기 보다는 외부전문가가 개발하고 저산팔읍 길쌈놀이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 시연하는 길쌈을 모티브로 한 연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모시길쌈체험> 행사장 곳곳에는 모시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시로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직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길쌈의 전체 공정을 시연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한두명의 생산자들이 해당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산모시축제는 모시에 특화된 축제로서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

76) 유리왕 시기에 두 왕녀가 각각 부내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음력 7월 기망(16일)부터 하루 종일 대부(大部)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하여 한가위 날 그 결과를 심사하여 진편이 이긴 편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때에 춤과 노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며 진편의 여자가 일어나 '회소, 회소'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맑아서 훗날 사람들이 그에 따라 노래를 짓고 '회소곡'이라고 하였다.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놀이와 국악공연 등의 전통공연과 도예 시범과 체험, 짚공예경연대회와 같이 모시와 별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스포츠 댄스나 노인건강체조, 군민노래자랑 등도 여전히 열리고 있어 군민행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 방문객의 평가⁷⁷⁾와 축제의 성격

매년 5월초에 열리는 한산모시축제 방문객은 연간 20-30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여성방문객(57.4%)이 남성(42.6%)에 비해 많아 모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30% 이상이 서천군 주민이며, 대전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잔치 내지 근거리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행사에 머물러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3년부터는 서울 등지에서 축제 사전 홍보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 별 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나 근거리 주민이 중심이 되다 보니 방문객들 중 상당수는 주말을 이용해 여가 선용 차원에서 축제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축제의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모시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의미 보다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만큼 축제가 점차 흥미성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문화적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제한되고 축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77) 조사결과는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2004),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 제15회 한산모시문화제]에서 총 25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원용했다.

<표 33> 한산모시축제 방문 동기

주말 여가 선용	31.9%	지나가다 우연히	7.3%
지역문화체험	20.7%	교통이편해져서	0.9%
사전홍보를 보고	12.1%	모시제품구입	0.4%
자녀교육위해	9.9%	기타	8.2%
건강체험(웰빙)위해	8.6%	합계	100.0%

<표 34> 한산모시축제 프로그램 평가

	흥미성	모시 체험성	교육성
1순위	모시옷패션쇼(25.3%)	모시옷패션쇼(21.3%)	모시길쌈시연, 체험(12.7%)
2순위	전통민속놀이체험(11.8%)	모시제품소품전시(12.4%)	염색시연, 체험(10.4%)
3순위	모시어린이선발대회(8.6%)	모시길쌈시연, 체험(11.1%)	전통민속놀이체험(9.5%)
하위 프로그램	모시폴벚기기대회, 모시노끈꼬기대회, 모시길쌈경연대회, 한일문화염직전시 등	도예체험, 일본소화촌가라무시시연, 소극주담그기체험, 전통짚공예체험, 우리가족 모시옷 맵시자랑, 모시어린이대회 등	기계화모시제품특별전시, 모시폴벚기기대회, 포트폴리오벽면특별전시행 사, 모시노끈꼬기대회, 일본소화촌가라무시시연 등

이러한 경향은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선호에서도 확인되는데, 방문객들 사이에서 흥미를 불러 모으는 것은 모시옷 패션쇼나 모시어린이선발대회 같은 볼거리나 전통민속놀이체험 같은 놀거리로 모시와는 별 관련이 없거나 겨우 피상적 관련성만 있는 정도로 문화유산으로서 모시의 면모를 충분히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다수 방문객들이 흥미를 추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서천군 측에서도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시의 가치보다는 흥미 중심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방문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문화 체험이나 자녀교육 등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해 방문하고 있지만, 흥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산모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없다. 대신 문화적, 교육적 효

과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교육성을 높이 평가한 전통모시의 숨결을 살린 길쌈시연 및 체험, 천연염색시연 및 체험 등 모시생산의 실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통적인 모시생산자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축제의 방향을 흥미 위주에서 문화적 가치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축제 주관 측에서는 이러한 점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조만간 문화적 의미로 충만한 모시축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한산모시축제는 문화유산, 특히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유산으로서 풍부한 의미를 지닌 모시를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모시의 의미와 생산자들의 삶, 그와 관련된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그 결과, 방문객의 입장에서 축제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열리는 전국의 수많은 축제와 비교해 그리 흥미롭지도 않고 교육적, 문화적이지도 못한 또 하나의 축제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단지 축제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한산모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화유산을 비롯한 각종 문화적 요소는 우선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중심으로 한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함께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산모시축제를 통해 모시의 의미가 풍부하게 형성, 전달된다면 모시와 관련된 각종 산업이 발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축제로서는 모시 관련산업의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수부터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들조차 교통비나 식비 이외에는 거의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모시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행사에서는 필모시와 함께 모시로 만든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준비하고 모시포로 만든 음식류도 판매하고 있지만, 방문객 중 25.0% 정도만이 모시관련기념품이나 모시옷, 모시관련 음식을 구매했을 뿐 절반 정도인 49.3%는 어떠한 물건도 구입하지

않을 정도로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⁷⁸⁾. 여기에는 모시제품의 가격이 높은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조차도 머리핀과 브로치 등의 일반적 장신구류에 한정되어 있고 한산모시의 특징과 의미를 살린 독특한 상품이 부재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나. 평가와 개선방안

한산모시는 지역주민들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을 뿐 아니라, 풍부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자원 내지 문화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적 의미를 풍부하게 형성하여 생생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서천군에서 한산모시와 관련해 추진한 사업을 보면 문화상품으로서의 모시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술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경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왔다.

먼저 경제자원으로서 한산모시에 대한 사업은 수요의 감소와 중국모시의 수입으로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한산모시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순 수공업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내지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여름용 옷감이던 한산모시를 대중적 기호품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 실험 내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효과를 예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과정에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할 뿐 아니라 사업 목표와 추진방식 자체에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78) 강진청자문화제나 광주김치축제, 금산인삼축제 등에 비해서도 한산모시축제 방문객의 비구입율이 높은 편이다.

우선 사업 추진 전반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반면 실제로 모시 생산을 담당해온 여성들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쌓여온 모시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통합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술과 노하우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가장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배제한 채 전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중심으로 산업적 재구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개발은 결국 외부의 기술과 인적 자원, 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모시생산을 계속해온 여성생산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모시산업이 내부 자원을 무시한 채 외부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 요인 중 하나는 모시가 경제적 가치와 함께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산업 생산품과 같이 접근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단순 상품으로서 한산모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한편으로는 값싼 중국모시와의 가격경쟁을 뚫기 힘들며⁷⁹⁾,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 전부터 기계화를 통해 모시 제품을 생산해 온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 결국 한산모시산업의 진흥은 여타의 문화유산 내지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한산모시가 지니는 최대의 장점, 즉 실용성과 미적 가치 뿐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서 우러나는 풍부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점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도 한산모시에 관한 사업이 단순한 수입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며, 모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산모시관을 운영하고 한산모시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산모시관을 찾거나 축제를 방문하더라도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 특히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풍부한 의미를 밀도 있게 경험하기는 어렵다.

우선 한산모시관의 전시는 일부 모시제조공정과 모시의류를 중심으로 구

79) 2003년 8월 기준으로 서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산모시를 원료로 한 남방의 가격이 중국산 모시를 원료로 한 것의 6배에 이른다.

성되어 있다. 특히, 모시생산기술은 시연과 문자를 동원한 설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공방에서도 이러한 점은 재확인된다. 이에 비해 모시의 문화적 의미와 생산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전수교육관에 걸려 있는 여러 개의 판넬 내용 중에는 오직 “그 섬세함의 이면에는 한산부인들의 숨씨가 있었다”는 한 구절에서만 생산자의 존재를 어렵듯이 알 수 있을 뿐이다. 한산모시의 의미에 대해서도 역사적 장구함과 여름 옷감으로서의 장점 등 기능적 측면만이 부각될 뿐 생산자들과 지역민들이 모시를 둘러싸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속에서 모시생산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모시에 접근하고 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했던 방문객들에게 한산모시관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한된 수의 방문객만이 한산모시관을 찾고 있을 뿐으로 2/3가량의 방문객들은 일대에서 열리는 모시축제에 왔다가 잠시 들르는 정도이며, 그 외의 기간 중에는 주말에 소수의 방문객이 찾을 뿐이다.

한산모시관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모시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통해 모시산업과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으로는 한산모시축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축제 역시 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모시축제라고는 하지만 모시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시와의 관련성을 내세우는 프로그램 역시 내용적 면에서는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일례로 모시제는 일반적인 산신제일 뿐 모시신이나 모시생산자와의 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인 모시패션쇼나 공모전 등도 오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 내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모시생산의 면모보다는 현대적 대중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시와 함께 해온 생산자들과는 무관하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한산모시관과 마찬가지로 축제에서도 모시생산은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으로서 보다는 공정별로 시연되는 단순한

생산기술로 표상될 뿐이다. 이 외에 축제에서 행해지는 길쌈놀이 역시 생산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창조물로서 모시 생산공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뿐, 모시의 문화적 의미나 모시생산자들의 애환을 내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모시축제라고는 하지만 모시생산과 관련해서는 작업공정을 반복해서 재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외에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모시풀 벗기기, 모시노끈 꼬기, 맵시자랑과 같이 모시와 오직 피상적 관련만을 지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성된 축제에서는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시를 생산해왔고 그 속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애환을 경험했는지, 그것은 역사를 거쳐 어떻게 전해내려 왔는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모시를 주제로 한 축제이면서도 실제 생산현장에서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선 축제가 열리는 5월은 모시철이 아니어서 실제 생산현장은 물론 모시풀도 보기 힘들고, 모시옷을 입고 행사를 치를 수도 없다. 게다가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패션쇼 등은 외부 전문가들이 주관하고 길쌈놀이는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회’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생산자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는 길쌈시연이 전부인 만큼,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아예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모시관에서 시연을 하는 몇 명의 여성노인만이 참가하여 제조공정별 시연도 하면서 몇 가지 기념품도 판매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한산모시축제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은 틀을 유지하는 한 모시 생산자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으로서 모시의 의미를 충분히 표출하고 전달하는 장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관광축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축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한산모시는 국가와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특히 여성생산자들이 계승해

은 유산으로서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는 충분히 발굴되지 못한 상태로 한산모시관이나 한산모시축제 등에서는 모시와 무관한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 조명되지 못한 채 전통 기술의 시연을 반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기술적 측면에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와 상충되는 측면까지도 있다. 움집에서 전통 베틀로 직조를 하기 보다는 비닐로 창을 막고 가습기를 틀고는 개량베틀을 이용하고, 모시매기도 썰겨 대신 가스불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길쌈놀이 역시 길쌈을 통해 여성생산자들이 삶의 애환을 나누던 전통을 되살리기 보다는 1980년대 외부 남성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로 전수되고 있을 뿐이다.

모시의 문화적 의미는 우선적으로 모시와 함께 삶을 살아온 생산자들에게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현재 한산모시관이나 모시축제에서는 이러한 점에 접근하기 힘들다. 모시관과 모시축제를 주관하는 지역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지역 전문가들부터 모시 생산자는 여성들이며, 따라서 여성문화 차원에서 모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 피상적 차원에서 모시의 역사성과 우수함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시관이나 모시축제에서 정작 여성생산자들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모시관이나 축제에 관심도 없다. 단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모시관 내에 자체 작업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외에 몇몇 생산자들이 시연을 하면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작은 기념품을 파는 정도이다. 결국 모시관이나 모시축제에서 생산자들은 모시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자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각종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는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전제로 하며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산모시는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 활용되

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모시산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산모시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는 경시한 채 생산기술의 혁신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상품 개발에만 집중해서는 한산모시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중국모시의 입지만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산모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한산모시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거나 기껏해야 제조 기술 차원에서만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으로서, 특히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풍부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한 가치가 널리 확산될 때에만 한산모시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생산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의미 형성 및 활용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산모시의 역사와 사회경제적 기능, 문화적 의미, 생산자들의 삶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길쌈환경과 기술, 베틀가등의 노동요와 민속놀이, 친잠례 등의 의례 등을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시나 축제를 구성한다면 방문객들이 한산모시를 비롯한 길쌈 전반의 문화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지닌 문화유산 해설사가 함께 해 한산모시의 의미를 설명해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외에 각종 상품 역시 단순히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 데에서 벗어나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특징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대적 대중성을 중심으로 한 패션쇼를 다양한 전통복장을 선보이는 기회로 전환하고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해오던 소품이나 디자인에서 착안해 기념품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자의 의식 변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시 생산자들과 관련 사

업 관계자들의 문화유산,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모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를 단순한 경제적 도구로 보는 데에서 벗어나 문화자원으로서 한산모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여성문화유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자원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당당한 문화유산 생산자라는 점도 일깨우고 한산모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틈새시장을 겨냥한 밀도 있는 문화경험의 장 마련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가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산모시축제와 같은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 대중적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직조기술은 물론 풍부한 문화를 지닌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기술과 문화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중적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로 진행하기 보다는 문화적 수요를 지닌 특정한 대상층을 상대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자들과 여성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한산모시에 관심을 지닌 문화적 수요층을 발굴할 전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된다면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산모시를 비롯한 길쌈의 의미, 그와 관련된 전통 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도 이어질 것이다.

3. 서울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여기서는 최근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실시한 서울여성문화유산관련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서울여성에서는 2004년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표 35>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

주제	내용
1) 서울여성네트워크 세미나: 『역사 속 서울여성 문화의 의의』	<p>목적: 서울에 거주했던 옛 여인들의 삶의 고찰과 여성문화유산의 의의를 조명하고 공유하기 위함</p> <p>1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문화 속의 여성(명절, 축제, 의식주) 2) 여성문화 유산 활용방안 사례발표1: 유럽의 사례 3) 여성문화 유산 활용방안 사례발표2: 허난설헌 축제 <p>2부</p> <p>여성사전시관(여성부 건립) 특별기획전 관람: 근대교육과 여성문화와 관련 “여성, 배움을 통해 세상을 그리다”를 주제로 함.</p>
2) 여성문화유산답사: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	<p>목적: 서울안의 여성문화유산 재발견. 역사와 일상에 묻혀있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역사 속의 여성들을 만나본다</p> <p>(코스1) ‘궁궐여성의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후와 후궁, 궁녀들을 중심으로 발굴 -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왕후나 조선시대의 전문 직업여성이라 할 궁녀를 중심으로 함. ① 칠궁(청와대 내 위치, 왕의 생모 중 후궁 7인의 신위) ② 창경궁(정희왕후, 인순왕후, 소혜왕후): 국상 당한 왕후와 후궁의 거처인 낙선재 ③ 종묘(조선조 왕과 왕비의 신위): 왕보다 왕후의 신주가 더 많음. 예종의 어머니 정희왕후,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등 - 창덕궁 대조전, 경복궁 교태전: 왕비가 내명부를 다스리던 공적 활동 공간 - 경복궁: 홍선대원군이 왕실 최고의 여성을 위해 지은 건물인 자경궁, 명성왕후의 순국 숭모비 등 <p>(코스2) ‘신여성과 독립여성’</p> <p>러시아공사관-정동교회-중명전-유관순기념관-서대문 형무소</p>
3) 여성문화유산 지도 제작 및 테마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 여성문화유산의 위치와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지도 제작, 배포, 전시 - 여성문화해설자원활동가들의 직접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발굴·정리함. 궁궐, 능, 박물관, 교육기관 등 64개 유적지가 표기됨. - 여성문화유산 테마 전시: ‘구중심처에 역사를 세우다’
4) 수다콘서트 통?통!통~ 역사 속의 그녀를 만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통? 어머니와 밥 그리고 여성의 일상적 삶/ 소통!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 삶/역사 속의 그녀와 신나게 어울어지는 삶 - 시민참여 여성문화예술프로젝트 실시: 수다콘서트 공연

일환으로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여성문화유산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백 년 간 견고하게 지켜져 온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적 관습 속에서도, 민족의 혼을 억압받았던 식민시대에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자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인식 하에, 남성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온 기존의 역사 안에서 작고 부수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던 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여성의 힘을 깨닫고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표 35>와 같이 세미나와 여성문화유산 탐방, 여성문화유산지도 제작 및 테마 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 여성의 역사 다시보기 세미나

우선, 서울에 거주했던 옛 여인들의 삶을 고찰하고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명절과 축제, 의식주 등 생활문화 속의 여성을 조명하였으며, 여성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사례로 유럽의 여성중심의 관광개발사례와 강원도 허난설헌축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여성부가 건립한 여성사전시관에서 진행된 근대교육과 여성문화에 대한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나. 여성역사문화유적탐방

1) 궁궐여성의 생활 코스

두 번째로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성문화유산답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서울에 산재한 여성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일상에 묻혀있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여성의 역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답사는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궁궐여성의 생활’, 둘째는 ‘신여성과 독립여성’이라는 하위주제로 이루어 졌다. ‘궁궐여성의 생활’ 코스에서는 희빈 장씨 등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폐가 있는 칠궁, 창경궁, 종묘 등을

답사하였다. 이 답사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왕후와 조선시대의 전문 직업 여성이라 할 수 있는 궁녀들에 초점을 둔 것이다.

칠궁은 조선시대 왕들의 친모이지만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영조가 후궁 출신의 빈인 그의 모친 최숙빈(崔淑嬪)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이후 역대 왕 또는 왕으로 추존된 분의 생모인 후궁의 묘를 옮겨와 합사(合祀)한 것이다. 원래는 1724년(영조원년)에 지어진 육상궁만 있던 터였으나, 1908년(순종2년) 영우궁, 저경궁,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이 옮겨졌고 1929년 덕안궁이 들어오면서 아래와 같이 7명의 신위를 모시게 되어 칠궁이 되었다고 한다. 칠궁 합사는 종묘에 봉사된 법모(法母)와 아울러 사친(私親) 즉 생모에 대한 효(孝)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 <육상궁>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신궁
- <연호궁>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진종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신궁
- <저경궁> 선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신궁
- <대빈궁> 숙종의 후궁이며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의 신궁
- <선희궁>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궁
- <경우궁> 정조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신궁
- <덕안궁> 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귀비 엄씨의 신궁

종묘는 왕보다 왕후의 신주가 더 많은 곳으로, 예종의 어머니 정희왕후,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등의 신주가 있다. 창경궁은 정희왕후, 인순왕후, 소혜왕후 등 국상을 당한 왕후와 후궁의 거처인 낙선재가 있는 곳으로, 성종 15년(1484)에 할머니 정희왕후(세조비), 양모 인순왕후(예종비), 생모 소혜왕후(덕종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세종이 상왕 태종의 거처로 세움) 자리에 창건한 궁이다. 창경궁은 창덕궁보다 격이 낮게 조성되었고 자연 지형에 맞춘 공간배치로 동향을 하고 있다. 창경궁은 상대적으로 내전과 생활 주거공간이 발달된 모습으로 창덕궁의 모자란 공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창경궁에 위치한 주요 유적은 아래와 같다.

홍화문 - 창경궁의 정문, 명정문, 명정전과 함께 광해군 8년(1616)에 재건.
조선중기(17세기)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

옥천교와 금천 - 모든 궁궐의 내(내)를 금천이라 함: 안과 밖을 기르고 부
정함을 씻어낸다는 의미. 성종 14년(1483)에 건립. 현재 유일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 곳.

명정문과 명정전 - 궁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전, 현존하는 법전 중 가
장 오래됨.

문정전(1986년 복원) - 왕이 정사를 보던 편전

송문당 - 왕의 경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관료
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곳. 영조의 어필이 걸려있음.

빈양문 -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인 내전으로 통하는 문.

함인정 - 원래 인양전이 있던 자리에 인조가 인경궁의 함인당을 옮겨 세운
정자.

경춘전 - 왕실여자 전용건물. 인수대비 68세 승하. 제 9대 숙종계비 인현왕
후 승하(35세). 정조(1752-1800, 24년 3개월 재위) 탄생. 효경세자
익종, 신정왕후 조씨부부 헌종 생산.

환경전 - 왕실의 남자가 사용한 건물로 제16대 인조(1595~1649)의 장자 소
현세자 승하(34세). 왕비의 침전인 통명전에 비해 규모가 단출함.

통명전 - 중궁전으로 내전의 큰 행사를 위해 마당에 박석을 깔고 널따란
기단에 월대를 설치. 왕실의 내외명부를 다스리던 곳.

제19대 숙종(1661~1720, 45년 10개월 재위)과 숙빈 최씨 사이에
서 영조 탄생.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 승하. 현판은 순조의 어필.

양화당 - 인조께서 병자호란 이후 환어하여 머문 곳. 제25대 철종비 철인
왕후 김씨 승하.

영춘헌, 집복헌 - 영춘헌은 정조가 거처하고 승하한 곳. 집복헌은 영춘헌
의 담 역할을 하는 집채인 행각 중 서행각에 해당하는 곳으로 영
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사도세자 탄생.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
에서 순조 탄생한 곳.

자경전 터 - 통명전 뒤 빈터에 정조 원년 (1777) 경모궁(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이 건너다보이는 높은 곳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음.

2) 신여성과 독립여성 탐방코스

두 번째 탐방 코스는 ‘신여성과 독립여성’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 공관, 정동교회, 중명전, 유관순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등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수박물관에 속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98년에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건립하였다.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있으며 3·1운동 직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어 숨을 거둔 지하 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사형장, 옥사 7개동, 역사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탐방은 여성역사탐방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유관순열사를 비롯하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지하감옥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 감옥은 일제가 민족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만을 투옥시키기 위해 1916년에 여사(女舍)로 신축한 것이다. 이 곳은 특히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곳으로 일명 ‘유관순굴’이라고 한다. 유관순열사는 1919년 4월 1일에 천안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체포되어 1919년 8월 1일에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조국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3·1운동 1주년인 1920년 3월 1일에 이신애 등 동료 투옥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시위를 벌였다. 그 뒤 일제는 유관순열사를 이곳의 지하 독방으로 격리 투옥시켜 더욱더 잔혹한 고문을 하였고, 그 고문과 영양실조 때문에 1920년 10월 12일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유관순열사이외에도 여기에 머물렀던 여성독립운동가에는 권애라(權愛羅, 1897~1973), 어윤희(魚允姬, 1877.6.30~1961.11.18), 김마리아(金瑪利亞, 1884.6.18~1945.3), 이신애, 윤희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구 러시아 공사관 (사적 제 253호) 탐방도 포함하였다. 현재 공사관 건물의 일부인 탐만 남아있는 이 건물은 한·러 수

호조약이 체결된 1885년에 착공되어 1890년 준공되었다. 이 자리는 원래 경운궁(덕수궁)의 영역이었으며, 탑의 동북쪽 지하실이 경운궁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1895년 고종 비인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 세력에 의하여 시해되자 고종은 1896년 2월 세자와 함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가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이화학당(현 이화여고)과 유관순열사 기념관 역시 주요 탐방지의 일부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유관순 기념관의 2층에는 유관순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화학당은 신여성교육의 장으로서 빨래터 등 당시 학생들과 어울렸던 유관순 열사의 학창시절을 엿볼 수 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수여하였고 1972년에 매봉 기슭에 유관순 열사 추모각을 건립하고 매봉에 봉화탑을 세웠으며, 선열 동상 건립 위원회에서는 유관순 동상을 태평로에 세웠다가 다시 장충단 공원으로 옮겼다.

중명전은 경운궁(덕수궁)궐내에 있던 건물이었으나, 경운궁과 중명전 사이에 돌담길이 생기면서 경운궁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이며, 1906년에는 고종 황제의 황태자인 순종과 그의 비인 윤씨의 가례후 외국 사신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다.

정동교회(사적 제 256호)의 경우에는 1887년에 10월 9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 H.G)에 의하여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다. 이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19세기 교회건물이다. 창설자 아펜젤러는 1885년 4월에 입국하여, 그해 8월에 배재학당을 세워 한국의 근대교육을 창시하고 보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 옆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있어 학생들이 그 교회의 중요회원이 되어 개화운동의 한 중심지를 형성하였다.

다. 여성문화유산 지도 제작 및 테마 전시

세 번째 사업은 2003년 (재)서울여성이 서울시여성자원봉사학교를 통해 배

출한 ‘여성문화유산해설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내 여성문화유산의 위치와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지도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 여성문화유산MAP’를 제작, 배포, 전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즉, 여성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직접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도제작을 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적들이 수록되어 있다.

1) 궁에서 찾아보는 여성문화

가) 경복궁

(1) 교태전

왕의 침전인 강녕전 뒤쪽에 위치한 건물로 왕비의 침전이다. 교태의 의미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남녀가 서로 만나 교통하여 생산을 잘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교태전은 단순히 왕비의 침소 역할이 아니라 왕비가 후궁과 궁녀를 다스리는 공적인 활동을 하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때 재건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철거되어 창덕궁 대조전 재건에 사용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95년에 복원되었다.

(2) 자경전

교태전 동쪽에 위치한 대비를 위한 침전으로 자경(慈慶)이란 이름은 자친(慈親) 즉,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 왕실의 웃어른이 되는 여성에게 경사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종4년에 지어졌으나 몇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의 건물은 고종 25년(1888년)에 재건한 것이다. 왕실의 최고위 인물을 위한 건축물로 해, 산, 구름, 바위, 솔, 거북 등 십장생 문양을 새겨넣은 굴뚝은 조선시대 가장 아름다운 굴뚝으로 손꼽히고, 서쪽담에는 매화, 모란, 국화 등 조선조 여인들의 사랑을 받던 꽃 문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자경전은 추존된 익종(효명세자)의 왕비인 신정화후 조대비가 거처했던 곳으로, 조대비는 고종이 즉위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다.

(3) 명성황후 시해터

간청궁터 동편에 위치한 이곳은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동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의 현장이다. 명성황후 순국 숭모비와 명성황후 조난지지라는 비석이 남아있으며 서구열강과 일본의 세력 속에 정치력을 발휘했던 명성황후에 대해 재인식을 할 수 있는 유적지이다.

나) 창덕궁

(1) 대조전

태종5년에 지은 왕비의 침소로 왕의 침소인 회정당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9칸, 측면 5칸, 총 45칸으로 중앙의 세 칸 뒤편 앞에는 월대가 위치하는데 왕비를 위한 연회 또는 궁궐 내명부의 치리(治理)가 이루어졌다.

월대를 지나 대청마루 좌우로 위치한 9칸 온돌방 중동쪽 온돌방은 왕과 왕비가 동침하는 방이고 다시 아홉 개로 나뉘는 그 방 가운데를 왕과 왕비가 쓰고 주위의 8개의 방에는 궁녀들이 두 명씩 들어가 시중을 들었다.

(2) 낙선재

현종 13년(1874)에 국상을 당한 왕후와 후궁들이 거처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상중에 기거하던 곳이라 단청(丹青)도 하지 않았다. 순종 승하 후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 윤비가 여생을 보냈고,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와 덕혜옹주도 이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다) 창경궁

(1) 통명전

왕비의 침전으로 쓰이던 곳으로 남쪽 정면에 월대를 만들어 정월에 왕비에 게 하례 드리는 의식을 치렀고, 여성들의 공간답게 주위를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명종의 비 인순왕후 심씨가 승하했고, 영조가 정순왕후를 맞이할 때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다.

(2) 경춘전

창경궁의 내전으로 정조와 헌종이 태어난 곳이며 또한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 한씨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승하한 곳이다.

(3) 양화당

병자호란 때 인조가 환궁하면서 이곳에 처음 거처를 하였고, 고종 15년 철종비 철인왕후가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라) 종묘와 칠궁

(1) 종묘

종묘는 조선조 왕과 왕비, 그리고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유교사당이다. 정전에는 태조의 신위를 포함하여 49위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 신위를 포함하여 34위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역대 왕 중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제외되었다.

(2) 칠궁

조선조 7명의 왕 또는 추존왕의 모친을 모신 사당이다. 원래는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를 제사하기 위해 세운 육상궁만이 있었던 곳이다. 그후 1908년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왕 또는 추존왕의 모친을 모신 다섯사당을 이곳으로 옮겨 육궁이라 하였고, 1929년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귀비 엄씨의 사당을 옮겨 오면서 칠궁이라 하였다.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관람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2) 조선시대 왕비의 능

가) 정릉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묘이다. 서울 도성 안 취현방 북

원(현, 정동)에 있다가 1409년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태조는 신덕왕후가 죽자 정성을 다해 능을 조영하고 능 동쪽에 홍천사를 세워 재궁(齋宮)을 삼고 법석(法席)을 마련했으며, 대궐에서 정릉의 아침 재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 서야 수라를 들었다고 한다. 그 뒤 왕자의 난으로 신덕왕후 소생인 방번과 방석 두 왕자가 죽자 자주 정릉에 가서 불공을 들이는 등 정성을 기울였으나 태조가 죽은 후 능역의 광대함 등으로 정릉에 대한 박대가 노골화되고 태종의 뜻대로 도성 밖 현재의 자라로 이장하게 된 것이다.

나) 현 · 인릉

현릉은 조선 3대 태종과 그의 비 원경왕후 민씨의 능이다. 태종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워 정안군(靖案君)으로 봉해졌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난을 주도하여 1400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같은 해 왕위를 이어받았다. 18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많은 치적을 남겼고 1418년에 세종에게 양위(讓位)하고 1422년 수강궁(壽康宮)에서 승하하였다.

원경왕후(1365~1420)는 여흥부원군 민제의 딸로 고려 공민왕 14년(1365)에 태어나 1383년에 가례를 올리고, 태조 즉위년인 1392년에 정녕옹주에 봉해졌다. 태종이 즉위한 후 왕비로 책봉되었고, 세종 등 4왕자와 4공주를 낳았다.

인릉은 조선 제23대 순조와 그의 비 순원왕후 김씨의 능이다.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로 창경궁 집복헌에서 태어났는데 생모는 가순궁(嘉順宮) 수빈 박씨이다. 정조의 원자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일찍 죽자 1800년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열한살의 나이에 즉위하니 대왕대비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하였다. 1834년 경희궁 회상전에서 승하하여 인조의 능인 장릉으로 모셨으나 능지가 불길하다고 하여 1856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순원왕후는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딸로 180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효명세자(익종)의 아들인 손자 헌종이 8세로 즉위하자 수렴청정하였고, 철종 때 다시 수렴청정하였다. 1857년 창덕궁 양심각에서 승하하자 이곳에 합장하였다.

다) 선릉

조선 제9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이다. 성종은 조선의 국가체제를 완비한 왕으로 추존된 덕종과 소혜왕후의 아들이다. 1469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1476년까지 세조비인 정희대비가 수렴청정하였으며 1494년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정현왕후는 영원부원군 윤호의 딸로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폐출되자 이듬해 왕비로 책봉되었고, 1530년 경복궁 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라) 태·강릉

태릉은 조선 제11대 임금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윤씨의 능이다.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고 7일만에 승하하자 중종 1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문정왕후 소생인 명종이 왕위를 계승하자 8년간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창덕궁 소덕당에서 승하하여 시호를 문정이라 하고 능호를 신정릉이라고 하다가 태릉으로 고쳤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원비인 장경왕후의 희릉과 동원이강(同原異岡을) 이루고 있던 중종의 정릉을 풍수상 불길하다 봉은사 곁에 옮기고 자신도 후일 중종의 곁에 묻히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선릉과 함께 있는 정릉이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 물이 들어오자 중종 곁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태릉에 묻히게 되고, 중종의 능은 단릉이 되었다.

강릉은 조선 제13대왕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명종은 중종과 문정왕후의 아들로 1545년(인종1)에 왕위에 올랐는데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고 1567년에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였다. 인순왕후는 청릉부원군 심강의 딸로 명종의 즉위와 함께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선조 즉위시 1년간량 수렴청정하였고 1575년 선조 8년에 창경궁통명전에서 승하하였다.

마) 의릉

조선 20대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능. 경종은 숙종과 희빈장씨의 아

들로 1720년에 즉위하였다. 선의왕후는 숙종44년(1718)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으며 영조 6년에 경희궁 어조당에서 26세에 승하하였다. 시호를 선의, 무덤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여 천장산 경종릉 아래에 장례를 지냈다.

바) 연산군묘(거창군부인 신씨묘)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 태어난 연산군은 비록 왕을 지냈으나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연산군으로 강봉되었고 무덤을 묘라 한다. 왕위에 올랐다 폐위된 후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처음에는 강화도에 장사지냈으나 폐비인 부인 신씨가 상소를 올려 왕자군(王子君)의 예우로서 지금의 자리로 묘를 옮겼다.

연산군 부인 폐비 신씨는 영의정 거창부원군 신승선의 딸로 연산군의 즉위와 함께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연산군과 함께 폐출되어 거창군부인으로 강봉되었고, 정청궁에서 거처하다가 별세하여 연산군 옆에 모셔졌다.

이 묘역은 원래 능성(綾城) 구씨(具氏)의 선영으로 묘역에 들어서면 앞에서부터 연산군의 사위 구문경과 공주의 묘가 있고, 그 뒤로 연산군의 후궁인 궁주 조씨의 묘가 자리하고 맨 뒤로 연산군과 부인 신씨의 묘가 있다. 궁주 조씨의 묘는 사각 호석이 둘러져 있는 것이 특이할 만 하다.

3)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는 여성사

가)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 한 가운데 있는 “소서노”

소서노가 북부 여왕 해부루 서자의 아들인 우태와 혼인하여 낳은 두 아들인 온조와 비류이다. 우태가 죽은 후 소서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북부여에서 쫓겨온 주몽에게 투자하여 고구려의 초대왕이라는 큰 지위를 안겨주었다.

고주몽은 소서노의 공을 높이 치하하는 듯 했으나 막상 고구려를 세워 왕위에 오르고 북부여에 남겨두었던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음으로써 소서노의 공로는 부인된다. 소서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떠나

게 되고 한강 위례성에 새 성을 쌓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장남인 비류는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차남인 온조가 십제의 왕이 되고 이 나라는 백제로 융성하게 된다.

나) 인왕산 국사당 · 치마바위 · 선바위

국사당은 원래 조선 태조 때 남산에 산신을 모신 것을 일제 때 일본인들이 신궁을 지으면서 인왕산으로 옮겨졌다. 무당의 요청이 오면 당을 빌려주기 때문에 1년 내내 굿이 있고, 당주는 신령님을 위해 2년마다 동짓날에 날을 잡아서 ‘마지’라는 제사를 올리는데, 무녀를 초치해서 굿을 한다.

조선 중종의 비 단경왕후는 중종반정으로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나 연산군의 매부인 아버지로 인해 반정공신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중종이 부인을 잊지 못하고 단경왕후가 보고 싶을 때마다 높은 누각에 올라 그녀의 본가가 있는 쪽을 바라본다는 소식을 듣고 단경왕후는 인왕산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궁중에서 자주 입던 분홍치마를 걸어 놓았고, 중종은 바위에 펼쳐진 그 치마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삭히곤 했다고 하여 그 바위가 치마바위라 불리운다. 결국 중종과 단경왕후는 해후하지 못했고, 단경왕후는 영조때 복위되었다.

다) 홍덕이네 밭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후에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 살았던 청나라 심양 남대문 밖에 야관전이라는 들판이 있다. 볼모 왕자를 따라가 모시던 나인으로 홍덕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관전을 오가며 채소를 가꾸어 김치를 담가 세자와 왕자에게 바쳤다. 볼모에서 풀려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이 홍덕이 김치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효종은 낙산 중턱의 채소밭을 홍덕에게 주어 김치를 담가 바치게 했다하여, 낙산에 ‘홍덕이 밭’이라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라) 단종비 정순왕후 이야기

단종이 왕위를 찬탈 당하고 귀양길을 떠나면서 왕비 정순왕후 송씨와 청계천에 있는 다리에서 헤어졌는데 이후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고 하여 이 다리를 영원히 건너가진 다리, 영원한 이별의 다리라는 뜻으로 영도교 혹은 영리교라 부른다.

영도교 앞으로는 정순왕후의 생계를 돕기 위해 부녀자들이 채소와 양식을 바치면서 자연스레 부녀시장이 생겼다. 궁궐에서 쫓겨난 정순왕후는 청룡사 앞 기슭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단종의 죽음을 접하고는 소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 거북바위에 올라 영원(단종 유배지)을 향해 슬피 곡을 하였고 곡 소리가 들리면 산 아래 여인네들도 따라서 동정곡을 하였다고 하여 그 봉우리가 동망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정순왕후는 시녀들과 함께 귀의하여 청룡사의 여승이 되었고 80세까지 살았던 집은 모든 업보를 정화한다는 의미가 담긴 정업원이라 불리었다. 후에 영조가 단종비의 명복을 빌며 정업원 구기라는 비석을 세웠고 청룡사 옆 비각에 보존되어 오고 있다.

마) 도미부인 아랑설화와 송씨 부인 이야기

조선시대 한강의 송파일대에는 도미부인 아랑의 설화가 전해진다. 백제 개루왕은 절세미인으로 널리 알려진 도미부인 아랑을 손아귀에 넣고자 가짜 왕을 보내 아랑의 정조를 시험하나 아랑은 몸종을 본인처럼 단장시켜 왕을 대신 모시게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사실을 안 개루왕이 크게 화가 나 도미의 두 눈을 빼고 송파강에서 작은 배에 띄어 보내고 아랑은 궁궐로 끌고 들어와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랑은 몸을 정결히 하고 왕을 모시겠다는 말로 개루왕을 속이고 궁궐을 탈출하여 송파강가로 가 남편 도미를 그리며 통곡을 하였다.

이때 빈 배 한 척이 떠 내려와 움직이지 않자 그 배를 탔고 아랑이 오르자 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 천성도라고 불리우는 섬에 이르렀다. 이 곳에서 재회한 부부는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

냈다. 지금도 강변에 도미부부가 배를 탄 곳으로 알려진 곳은 ‘도미나루’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잠실동 부군당(잠실동 313-1)은 인조 때 남한산성 남쪽 축성공사를 담당하던 이회장군의 처인 송씨부인의 사당이다. 송씨부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남편을 위해 삼남지방을 돌며 기부금을 받아 축성비를 모금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이회장군은 무고하게 처형을 당하였는데 삼전도에 이르러 이 소식을 들은 송씨부인은 신고 온 쌀을 모두 강물에 버리고 자신도 강물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고 이 때부터 이 곳을 쌀섬여울(米石灘)이라 불렀다.

이 후 안개 낀 날이나 날이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이 쌀섬여울을 지날 때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모습과 곡성이 들렸고 사공들이 이 모습에 홀려 배를 몰다 무동도(현 강남구 삼성동 앞)에 부딪혀 파선하여 익사하곤 하였다. 이에 삼전리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송씨부인의 원혼 때문이라 판단하여 쌀섬여울 100m 동쪽 강변에 부군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부인의 충의를 가상히 여긴 관가에서는 강가 언덕위에 사당(하주당)을 세워 영을 위로하였다.

4) 여성의 생활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

가)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민족의 주요생활상을 의식주, 민간신앙, 관혼상제, 전통놀이 등으로 나누어 복원·전시하고 있다.

나) 떡/부엌 살림 박물관

한국 전통의 떡문화와 부엌 살림살이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식기류, 조리도구, 상과 소반류, 혼례 및 제례용구 등의 부엌살림 기구들과 각종 떡조리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다) 궁중유물전시관

덕수궁 내 석조전 동관에 위치하여 조선와조 궁중의 살림, 음식부터 각종 의례 및 궁권 모습 재현 등 왕실문화와 관련된 각종 유물을 전시하여 왕실내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라) 이화여대부속박물관

이화여대 내에 위치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의 회화, 금속공예, 도자기 전통미술품과 복식자료 등 중요민속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고, 매년 여성관련 특별 기획전을 열고 있다. (2004년은 증축공사 관계로 휴관)

마) 숙명여대박물관

숙명여대 내 숙명르네상스플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여성생활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정영양자수박물관이 설립되어 전세계 복식류와 생활자수품 들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바) 초전섬유컬트박물관

국내외 섬유예술품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전통 보자기와 성보, 전통 자수, 활옷등 한국의 전통섬유예술작품과 세계 각국의 쿨트 및 섬유작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

사) 성신여대 생활과학박물관

설립자인 리숙종학원장의 기증품과 구입유물을 중심으로 천문도, 역대 대표적인 작가의 회화와 민화, 도자기류, 경대, 여성장신구, 과학기기등 전시되어 있다.

아) 용기민속박물관

식생활 용기를 비롯해 주거 생활용과 악기용 용기, 민간 신앙용 용기가 전시되어 있어 서민생활 깊숙이 자리했던 용기 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세종대 박물관

백제탑 양식의 건물에 왕이나 왕후가 입었던 궁중의상과 궁 안에서 쓰던 장롱을 비롯하여 사대부의 의상과 문방구, 서민들이 입던 의상과 민속용구 등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민속에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차) 농업박물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계절별 농가유물 및 그림등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변천상을 엿볼 수 있다.

카) 김치박물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김치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문헌과 고고유물, 김치의 원료를 알 수 있는 서화류·용기류·조리기구·저장용구, 그리고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김치 만드는 과정 등이 전시되어 한국여성의 가정내 역할과 음식문화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타) 화장박물관

화장구, 복식, 장신구, 생활용품을 통해 옛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장신정신을 엿볼 수 있다.

파) 한국자수박물관/박을복자수박물관

실, 바늘, 골무 등 자수관련 용품에서부터 고대복식까지 복식과 자수관련 유물 등이 전시되어 한국 근·현대 자수의 역사를 정리하여 볼 수 있다.

하)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우리나라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복식사와 생활풍속, 전통의례, 장신구에 관한 전시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도에는 근대 이후 여성의 일과 교육, 의식주 등과 관련된 자료

를 전시하여 근대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여성사전시관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부가 2002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5) 근대여성의 교육기관

동학과 개화 사상 등을 통한 인간 평등사상과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등에 힘입어 근대여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단체가 설립되었고, 여성의 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눈에 띄게 된다.

이화여학교	1886년 스크랜튼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설립,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란 교명 하사
정신여학교	1887년 미 선교사 애니 엘러스가 정동에 설립
배화 학당	1898년, 미 선교사 캠블이 고간동(현, 내자동)에 캐롤라이나 학당 설립
진명여학교	1906년, 엄준원이 설립 순헌 엄귀비가 대지 하사
숙명여학교	1906년, 순헌 엄귀비의 지원으로 명신여학교 설립
경기여학교	1908년 관립한성고등여학교 창설
동덕여학교	1908년 조동식이 동원여자의숙 설립
덕성여학교	1920년 차마리사가 근화여학교 설립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 여성문화유산MAP”에는 위의 각 유적지와 박물관들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각각의 사적/유물 번호, 소재지와 전화번호, 입장료, 교통편과 지하철 노선,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재시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문화유산 테마전시는 “수도 서울, 궁궐의 여인들” (2004.7.5~30)이라는 주제로 조선왕조의 여성정치력의 발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비에 관한 내용과 조선시대의 커리어우먼인 궁녀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였다.

라. 서울여성역사찾기 사업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 여성주의적 관점 통합

이번 여성문화유산답사에 참가한 여성들의 연령층은 4~50대가 많았고 간혹 연구 삼아 참석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여성의 시각’이란 점에 관심을 갖고 온 다른 문화유산해설사 등이 있었다. 참가자 중에는 아이를 키워놓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서울시내의 유적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일반 관광보다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는 것과 여성의 시각에서 답사한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에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거나 “그냥 관광 삼아 와서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 훨씬 이해가 잘된다. 이런 의미와 사연을 들으면서 다니니 훨씬 좋다”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참가자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유산해설활동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럽다”라거나 “나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활동욕구를 표현한 이들도 있었다. 반면, “여성의 시각이란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아내는데 기대보다 부족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도 있었다.

행사 후 서울여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⁸⁰⁾ 결과, 80%는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 여성을 주제로 한 답사코스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정도였다. 여성을 주제로 한 답사코스가 더 개발되기를 원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궁궐여성의 생활코스’ 탐방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궁궐에 대한 해설이 주로 건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에 치우친데 비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성해설사가 ‘창경궁’이면 그곳에서 살았던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와 사연,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점이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마치 사극을 보는 듯 궁궐에서 일어났던 왕과 왕비, 후궁, 궁녀들의 이야기를

80) (재)서울여성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임.

들으면서 보니 궁궐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 탐방에서 해설을 맡은 여성문화해설사가 궁궐여성들의 생활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전달력 있게 진행한 것이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신여성과 독립운동가 여성을 만나는 코스의 경우 신여성에 대한 자료나 유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사가 주로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이화학당과 서대문 형무소를 돌아보았는데, 참가자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잔혹한 일제의 만행을 다시금 느꼈고 덕수궁 일대의 옛 건물을 돌아보면서 조선말 국권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설명을 역사관 측의 안내자로부터 들었고, 덕수궁 일대-러시아 공사관, 중명전 등에서도 여성을 조명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여성적 시각을 찾아보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코스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여성문화유산을 조명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설명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온 여성의 역사를 찾아 조명하는 작업은 역사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없이는 그 본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

여성문화유산지도제작에는 여성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는 회원 8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각자가 서울의 구역을 나눠 인터넷과 구청방문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를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구청에 올라있는 유적지에 여성과 관련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차 추린 것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재 남아있는 상태는 어떤지 확인 차 몇 곳을 현장답사를 하였다. 이들은 막상 현장답사를 하면서 ‘사연은 있지만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곳’도 많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여성사에 대한 자료와 서적, 유적발굴이 너무나 전무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여성학이 한국에 들어와 보급된 지 20여년이 흘

렸는데, 전문 사학자, 여성학자들은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여성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 고생했고 화도 났습니다. 저희 같은 자원활동 해설사들은 연구된 여성관련 유적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기초 자료 자체가 부족하니, 아마추어인 저희들이 자료조사 하라, 현장답사 하라, 해설하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발원에서 연구한 현황자료 정도라도 있었다면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한 참가자)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람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고학력 비취업 여성들의 활동욕구와 창작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워낙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일반 여성들이 의욕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참가자들이 일회성 사업의 참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경험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소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장소 제공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3) 기초조사 및 자료 축적

지도에 대한 반응이 좋아 1차 인쇄된 지도는 모두 배포되었고 10월에 다시 제작하였다. 이후에는 지도에다 좀더 이야기를 추가하여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같은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관련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서적으로 발간하여 관심을 가진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마추어인 저희들이 지도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조사나 검증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박사님의 조언을 받긴 했지만요... 앞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핵심 멤버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작업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 차이가 있다보니 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모양이 되어 회원들 간 불평도 있었습니다. 무보수로 현장답사하면서 차비들이고 점심 사먹으며 자기 돈, 시간들이며 하니 좀 힘들었지요.”(한 참가자)

아울러, 보다 많은 여성관련 유적에 대한 답사코스를 개발하고 실제 답사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일반인들에게 여성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여성 관련 자료와 유적 개발, 홍보 이벤트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과거의 여성을 이어주는 다리에 신여성들이 있다고 볼 때, 여성사전시관과 같은 곳에서는 신여성들을 재조명하면서 여성지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의 축적, 문화제와 같은 효과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여성문화유적탐방에서도 궁궐탐방에 비하여 신여성역사유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여성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연구하기 용이하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

앞서도 보았듯이 진행자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적인 여성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문화해설사로 참여하는 여성들 사이에 여성주의적 시각이란 점에 대하여 입장이 분분한 실정이다. 아직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찾아보는 것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

는 인식과 안목을 가진 문화유산해설사를 별도로 양성하거나 기존의 문화유산 해설사들에게 여성과 문화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유적지의 개발과 보존

이번 탐방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들은 기껏 찾아가서 눈을 씻고 보아도 “관련 유적지가 사료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주변의 난개발로 인하여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적지에 대한 발굴·개발과 보존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여성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은 정책지원이나 인프라가 미흡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매우 창조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모두 5회에 걸친 답사에 총 125명이라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관심이 높음을 암시한다. 『(재)서울여성』의 홍보 전략⁸¹⁾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원을 제공한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여성은 올 12월 여성문화유산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던 두 가지 주제 즉, 신여성과 궁궐여성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년에는 새로운 활동가 발굴·양성을 위하여 신규 여성문화유산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고충이 서울 여성의 역사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여성사 편찬 작업을 포함하여 서울 여성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는 기초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하여 사학적인 자료가 구비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81) 『서울여성』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자체 소식지와 홈페이지,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게시판, 일간신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1.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 SWOT 분석	167
2.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 모색	170
3. 정책제언	174

이 장에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여성문화유산의 자원적·생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창출을 유도하는 의미있는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시말해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 SWOT 분석

현실적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성문화유산이 지역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가용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하는 첫단계는, 말할 것도 없이 해당 지역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겠다. 이는 곧 특정의 지역마다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단지 ‘문화유산’ 일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문화’ 및 ‘여성’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의 측면이라든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의 문제 등이 모두포함된다. 정책환경의 분석여하에 따라, 지역에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도출이라든가 정책적 우선순위 등이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SWOT 분석은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분석의 틀이다. 따라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SWOT 분석의 요소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크게 내부/외부 차원과 긍정/부정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 강점요인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우선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풍부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굴 가능한 잠재적인 문화유산 자원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수요와 문화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지방화, 전 지구화 시대에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차원의 여성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작업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내부적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 잠재적 자원 풍부 - 고유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지역인식 확산 - 지역여성 역사찾기 관심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유산정책 부족 - 정책결정자의 관심 부족 - 관련시설/프로그램의 물성적 운영 - 관련 재정의 취약성 - 취약한 문화산업 기반 - 여성문화유산전문가 부족 - 기초자료 부족
↓ 외부적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산업군/지식기반서비스산업 확대 - 문화산업 수요 증대 - 지방분권화 - 여성정책 역량 증대 -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강화 기대 	<p><위협: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침체 - 열악한 지역 재정 - 남성중심의 사회시스템과 운영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

← 긍정적 부정적 →

(그림 2) 지역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SWOT 분석

나. 약점요인

약점요소로는 가장 먼저 이제까지 문화정책에서나 여성정책 모두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다. 여성문화유산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그나마 마련된 정책도 재정의 취약성과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기존의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은 거의 몰성적(沒性的;gender-blind)인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재했던 것과도 관련 있겠으나 여성문화유산 전문가 풀이 부족하고 기초연구 및 통계 등 자료도 부족하여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기회요인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경제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정치와 군사력에 의해 움직이던 세계가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이제 문화와 경제에 의해 그 질서와 역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문화산업 활성화의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국내를 보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산업의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특히 관광의 경우 단순히 명소를 찾는 볼거리 위주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은 지역문화유산 발굴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문화유산 정책 자체는 미흡하지만 국내 여성정책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 또한 향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라. 위협요인

이상의 기회 요인과 달리 몇 가지의 위협요인도 존재하는데, 우선 최근 몇 년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에 관심은 있어도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조명을 위한 작업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현대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직 전반적인 사회 운영과 시스템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효와 같은 전통가치를 중시하면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미화하는 경우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자체도 유산의 정책적 활용에는 엄연한 위협요인이다. 이는 앞서의 남성중심적 사회시스템과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역사적·문화적 주체로서 여성의 모습을 외면하게 한 가리워진 역사, 왜곡된 역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SWOT 요소들을 점검하였다. 이들 중 약점이나 위협요인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강점이나 기회요인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흔히 관광의 비수기라고 하는 2, 3월에 시행되는 캐나다 퀘벡의 겨울축제는 얼음과 눈, 추위를 지역축제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의 겨울축제도 한겨울의 무서운 추위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얼음궁전 조각 등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2. 여성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 모색

앞서의 SWOT분석은 여성문화유산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겠거니와,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분석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의 정책방안들을 전략적 과제로서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36>은 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기초적 전략/방향전환 전략/다양한 전략/적극적 전략 등 제 측면에서 모색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본 것이다.

<표 36>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과제

외부환경	내부역량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 잠재적 자원 풍부 - 고유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지역 인식 확산 - 지역여성 역사찾기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유산 정책 부족 - 정책결정자의 관심 부족 - 관련시설/프로그램의 물성적 운영 - 관련제정의 취약성 - 취약한 문화산업 기반 - 여성문화유산 전문가 부족 - 기초자료 부족
Opportunity(기회요인)		SO전략(적극적 전략)	WO전략(방향전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산업군/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확대 - 문화산업 수요 증대 - 지방분권화 - 여성정책 역량 증대 -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강화 기대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관심 제고
Threat(위협요인)		ST전략(다양한 전략)	WT전략(기초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침체 - 열악한 지역재정 - 남성 중심의 사회시스템과 운영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기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

가. WT전략(기초적 전략)

내부역량도 취약하고 외부환경도 위협적인, 말하자면 가장 취약한 조건의 정책환경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바로 이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차원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성문화유산에 대

한 정책적 의지나 전문가도 또 여성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외적 취약성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핵심인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관계망을 형성해나가는 속에서, 위협적인 외부환경은 물론 내부적 약점까지 희석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나. WO전략(방향전환 전략)

외부적인 기회요인에 비추어 내부적 약점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기할 수 있는 전략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도 또 정책결정자의 관심도 부족한 조건이지만, 본격화되는 지방화 및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강화와 같은 외부흐름에 부응하여 지역 여성발전을 가져올 여성정책 역량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사실에 힘입어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모색할만한 전략과제라 하겠다. 이는 바로 중앙 및 지자체 등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 의지로 가시화하는 것을 뜻하는 바, 이로써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취약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기로, 방향전환 전략에 다름 아니다.

다. ST전략(다양한 전략)

내부적인 강점으로서 외부의 위협적 요인들을 돌파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리킨다. 지역여성의 역사찾기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남성중심적 사회시스템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을 알고/찾고/가꾸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검토될 필요가 커 보인다. 본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선 여성문화유산 알기로부터 출발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비롯한 경제적 활용 가치 등의 의미를 찾아 이

를 활용하고 후대への 계승을 위한 보존과 가꾸기 등이야말로 내부적 강점을 통해 외부의 위협요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측면에서 검토될 만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라. SO전략(적극적 전략)

내부역량으로 지니고 있는 강점을 외부환경 조건으로서 기회요인에 접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이다. 가령, 국내외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골목없는 청정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해가는 현실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확산과 함께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 위에 경제적 가치를 아우른 여성문화유산을 갖춘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독특한 문화산업자원으로서 활용 방안에 정책적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전략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대내외적인 호조건을 보다 극대화시키는 능동적인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해보았거니와, 그렇지만 이같은 과제가 반드시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 SWOT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바로 이점으로부터 전략적 과제가 일률적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는 강점이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이거나 위협요소일 수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전략적 과제의 내용을 전략의 제 측면에 따라 고정불변으로 조율되는 것인양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전술한 바와 같은 전략적 과제의 모색은, 모름지기 과제 도출을 위한 사고의 틀로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위에서 도출되어진 전략적 과제들이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들을 담아내는 범주로서 비교적

유용해보이는 만큼, 이를 정책제언의 틀로서 좀더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정책제언

이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정책환경 분석 및 전략적 과제 도출에 의해, 앞으로 여성문화유산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검토할 만한 사항들을 모아 정책제언으로서 구체화해기로 한다. 여기에는 본 연구과정 중 여성문화유산 활용 사례연구 결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었던 사항 및 다양한 개선 요망점들을 반영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가.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

1)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

■ 여성문화유산의 잠재력에 주목

현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유산이지만, 문화유산의 의미를 조명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많은 요소들은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 일반의 무관심과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및 매체 개발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높은 가치와 풍부한 의미를 홍보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각종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조류에 맞는 여성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매체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연대회를 통한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 여성문화유산 핵심집단 형성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체험지도사, 체험학습강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답사여행을 지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지원·제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면서부터 유적지에 우리의 역사문화를 소개할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유적지와 지역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확히 설명·이해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문화 체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퇴직교원, 향토사학자, 외국어 능통한자, 관련학과 대졸 주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박물관, 대학교, 문화원 등 유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총 40~217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지역관광 현황, 해설안내기법, 해설사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이수자들은 지역내의 사찰, 문화유적지, 박물관, 관광안내소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001년~2002년까지 약 130억원을 들여 전국에 약 1000명을 양성하였고, 2003년 현재 전국에서 약 990명의 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최선경, 2004).

이 과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설사 자신이나 해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모두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과정의 참가자들은 주로 고학력 주부와 퇴직 교사 등이라는 점에서 고학력 유휴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의 70~80%가 여성이다.

여성문화유산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문화유산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핵심집단을 중심으로 대중적 요구와 전문적 지식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관순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서도 유적지나 유물 등에 관해 재미있고도 자세하며 또한 쉬운 설명이나 안내 등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거니와, 특히 방문객들 간의 눈높이 차이가 큰 경우라면 방문객의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 나는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는 유관순 유적지를 예로 들자면, 소수가 배치되어 유적지경내를 동선별로 이동하면서 안내하기보다는 다수를 주요 코스별로 배치하여 안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선경(2004)은 문화유산해설 과정의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여행문화가 단순한 ‘보기’ 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습과 체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사람들의 문화욕구도 문화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들었다.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테마여행이나 교육적 역사문화답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유적을 관람하고 이해하

는 것이 필수 과제로 되면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을 받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여성들을 핵심 집단으로서 육성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일부 기관(서울의 경우, (재) 서울여성/동부여성발전센터/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되는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강좌를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 여성사 전시관(여성부), 민속박물관, 문화재청(문화관광부), 여성관련 연구소, 여성문화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여성역사인물과 유적지, 유물, 물질문화, 의례와 연행 등의 여성문화유산 유형별, 지역별로 분화되어 활동하면서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공인받지 못했던 유무형의 요소들이 발굴되어 여성문화유산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여성문화유산 유형별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여성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관심 제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의 어떤 것들은 그 자체가 정책의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제안들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과 집행에 관여하는 여성부 및 문화관광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1) 여성부

■ 여성문화유산 정책협의체 구성

여성문화유산 정책은 이제까지 여성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이다. 앞서 보았듯이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은 빈곤하기 이를 바 없고, 그나마 포함된 정책들도 당초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부와 문화관광부, 여성문화전문가 및 활동가 집단이 함께 하여 정책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문화유산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여성문화유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 하다.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대개의 정책자문위원회나 협의체가 그러하듯이 이 협의체를 중앙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지역에서 여성전문가나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관련 사업을 적게나마 시도해 오고 있으므로 이들 자원을 최대한 결집해야 할 것이다.

■ 여성문화유산 활용사업 모형 개발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기반 하여 제안한 내용들은 향후 여성문화유산 활용사업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충청남도에서 한산모시 활용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내용을 통합하여 사업을 개선한다면 지역의 경제와 문화,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훌륭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관순 기념사업 및 서울여성역사유적 탐방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 본 연구에서 소개한 권역별 여성문화유적 현황을 참조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가장 조건이 나은 곳을 선택하여 여성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모형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

■ 문화시설 관계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한편 정부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듯이,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여성문화유산에 가치를 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박물관,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의집 등 각종 문화기반 시설 운영자들이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 관계자들을 위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 중 ‘여성역사유적지탐방’에서도 나타났듯이 같은 유적지를 탐방하여도 누가 설명을 하는가에 따라 역사 속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일은 특히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에서 간과되고 왜곡된 것을 찾아서 재조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부가 문화시설 종사자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과정에 성관점 통합

아울러 기존의 문화해설사 교육과정에 ‘여성과 문화유산’ 과목을 통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급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들에게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하는 것도 초기에는 여성부가 시작할 일이다.

■ 여성사 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사 전시관은 상징적인 중요성이 크고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문화유산 해설사들조차 “여성사 전시관에 가도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용에서나 시설 면에서

나 부족함이 많다. 여성교육에 대한 전시에 대해서도 “내용 없는 전시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기왕에 근대여성의 삶에 중점을 두려면 여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나 불평등한 여성의 신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사아카이브 확충도 시급하고 여성-주부, 여학생 등에게 여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여성부는 앞으로 여성사전시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하여 전시관이 사회에서 증폭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2003년도부터 부처 내 임시조직으로 여성문화TF를 구성하면서부터 비로소 부처 정책과 여성을 관련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부처의 고유 정책에 여성문화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례로, 문화관광부의 중장기계획의 문화유산 부문에서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전혀 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자산 축적 지원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 지식 DB 구축,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및 박물관종합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개발,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확대 개발 및 콘텐츠관리 체계 도입 등 각각의 사업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자산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여성의 전통문화예술 복원 및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여성 인적 자원 발굴·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여성문화재 발굴 지원 등이 시급하다.

그런데 현재 지정문화재들을 보면 주로 남성에 의해 활용되는 것들(예: 술 종류)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예: 젓갈 등의 일반 음식)에는 지정조차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생활문화유산이 남성

편향적으로 발굴·지정되는 것도 역사문화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며,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재청의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능 정립

이제까지 문화재청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이 일반문화재로 접근해 왔으나 향후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문화재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청 내부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둔다면 문화재청의 ‘사이버문화재탐방의 테마여행’에도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서울여성의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이 제작한 ‘여성문화유산지도’와 같은 정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재 통계와 관련하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없다. 아직 학계에서도 여성문화유산의 범위와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여성문화유산관련 연구 및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여성부 및 여성사전시관, 지역의 유관기구, 관련 민간단체들 사이에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기회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여성문화자산 발굴·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본 보고서의 정책 현황에서 소개하였듯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업 자원화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에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 에너지를 가진 여성단체가 있고 이들은 이미 자치단체들이 지역여성사를 발간하거나 지역의 여성문화유적을 발굴하도록 적극 제안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지역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

어 지역 고유의 여성역사유산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지원 방안 마련

또한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한 바 있듯이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탁·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성된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여성정책부서와 문화유산 관계부서간의 협조

본 연구에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찾았을 때 여성정책부서와 문화유산부서가 전혀 서로 연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여성정책부서와 문화유산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의 여성단체와 전문가,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과 문화유산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이들은 혼적조차 찾기 어려운 지역의 여성문화유적을 발굴하여 표지 작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발굴된 유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일, 또 그와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여성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기’⁸²⁾

여성문화유산이 지역의 의미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알고, 찾고, 가꾸기’

82) 이는 원래 구 문화체육부(현재의 문화관광부)가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의 사업 실천에 있어 목표로 설정한 용어임. 곧, 구체적인 실천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주로 ‘가꾸기’에 치중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의식있는 알기, 찾기, 가꾸기’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음. 말하자면 여러해전에 이미 제시된 용어임.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여성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개념화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이 용어를 차용하였음.

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해서 활용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용어가 과거 '문화유산의 해'(1997)에 각종의 문화유산 관련 사업의 목표였다는 점이 이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자신들에 의한 알고, 찾고, 가꾸기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기로 한다. 말하자면 소모임 또는 개별적인 수준일지라도 여성문화유산을 알거나 찾거나 하는 노력, 나아가 이들 문화유산들에 대한 발전적 계승 등을 의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더욱 촉발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본 것이다.

1)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적 자산 축적과 DB화

■ 여성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의미 재조명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자원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특히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해당 요소의 문화적 기능과 역사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에 연관된 요소들을 발굴하는 한편 해당 문화유산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 변모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유지하고 있는 관련 요소들, 즉 도구나 놀이나 연행 등의 민속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 기록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모시를 비롯한 직조유산은 여성들의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표상이자 여성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로서 직조를 둘러싸고 움집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전통베틀 등의 도구를 사용해 작업을 하면서 여성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놀이와 노래를 즐기기도 했으며, 친잠례 등 여성이 주관하는 의례가 발달되기도 했다. 이처럼 직조와 관련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직조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민속자료, 구술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관련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여성문화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전반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

유관순유적지 활용의 예에서도, 동 유적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적지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단지 ‘유관순열사’에 한정되기보다는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및 근대시기를 헤쳐 나오는 선대 여성들의 역사 등 보다 큰 시야에서 재조명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로써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의미발굴과 그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자산을 축적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활용자원을 구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여성문화유산 DB구축

여성문화유산에 관련된 지적자산의 축적은 이를 DB화함으로써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이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각 분야별로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사 분야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 시스템을 통해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해보인다.

2) 지역여성사 탐구 소모임활동 활성화와 여성사 학습프로그램 개발

■ 지역여성의 역사찾기를 위한 자발적 소모임활동 지원

지난 몇 년 사이 지자체별로 지역여성사 발간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여성행정 관련부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는 해당 지역의 여성사라 칭하기에는 어색할 정도의 기술내용도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성들 또한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주체적인 자기인식의 폭을

한층 넓히고 있다. 지역여성의 뿌리찾기로서 해당 지역 선대 여성들이 거처 온 삶의 궤적을 돌아봄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이나 고유의 문화형성기반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지역여성의 역사찾기 붐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활발하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지역에 산재한 평생학습시설이나 여성 관련 거점센터 등에서 주로 자발적인 소모임 형태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여성역사를 찾는 활동들이 활발(伊藤康子, 1992)하며, 이제까지 발간되어온 지역여성사 가운데는 이 같은 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지역의 여성평생학습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사 학습프로그램 개발

사실 지역여성 역사찾기를 위한 여성사 학습이란, 바로 자신이 살아온 궤적을 전체시대 속에서 살핌으로써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가운데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의 각 지자체내 사회교육시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여성사 학습이 여성해방의 시각과 ‘인권, 자치, 평화’의 시각을 견지하고 그로부터 시민의식을 양성하는 자기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인식(高井正, 1995) 되는 것과 그 맥이 상통하거나와, 이로써 여성사 학습은 일견 우리의 여성관련시설 등에서 별 특징 없이 행해지는 여성의식교육의 지향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발적 소모임 형태에 의한 여성역사 찾기 활동은 곧 대안적 여성의식교육 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견지한 자발적 소모임 형태의 지역여성 역사찾기 활동들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여 바람직한 사례로서 적극 지원하는 외에도 지역의 공적 여성평생학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여성 역사찾기를 위한 이 같은 과정은 바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있는’ 알고, 찾고, 가꾸기로 이어지게 하는 첩경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큰 것이라 하겠다.

3)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탐방 코스 개발과 문화유산 관련사이트에 탑재

■ 테마별·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탐방 코스 개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지역마다 걸출한 여성위인 한둘 없는 지역이라곤 없고 나름의 특색 있는 솜씨라든가 먹거리, 놀거리들 또한 적지 않다. 지역마다 이들 여성문화유산을 놓고, 몇 가지 테마를 정해 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전국적 규모의 여성테마 체험문화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여성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기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예를 들어 3·1절에 여성부가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는 것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항일독립운동에의 여성참여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 결과가 보다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보다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발굴 노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남성중심으로 족적을 남길 방편이 거의 없던 사회에서 ‘정려각’이나 ‘열녀문’과 같은 형태로 여성의 존재성을 알리는 것도 어느 지역에서나 예외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존재로부터 오늘날도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쟁·폭력과 여성’과 같은 현안을 읽어 이를 해석해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어느 경우든 여성문화유산을 지나간 과거의 의미로서만 해석하지 않고, 현재의 시대상황에 결부하여 언제라도 우리에게 시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을 재인식하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재)서울여성에 위임하여 운영중인 ‘서울여성문화탐방코스’는 상당히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될 만 하다.

■ 개발된 여성테마코스의 체험학습자원으로의 활용

한편 이처럼 테마별로 개발한 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코스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체험학습이 물론 현재도 대부분 우리의 문화유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특별한 주제의식이라곤 없는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만큼, 체험학습의 의미를 찾아보기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여성테마 체험학습코스를 잘 개발하여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나 해당 지자체에게 모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경우 유관순 유적지 활용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역사·문화적 의미발굴 등에 유의함으로써, 진정한 여성문화유산 알고·찾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각종 문화유산 관련 사이트에 여성테마 탑재 요청

다양하게 개발된 여성관련 코스는 여성부는 물론 문화재청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부처에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문화재탐방을 보면 ‘테마여행’⁸³⁾이나 ‘탐방코스’⁸⁴⁾ 등의 코너가 있는데, 어느 경우도 ‘여성’에 주목하여 특별하게 코스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산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주제로 코스를 개발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적극 탑재할 수 있게 되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고 아울러 그 의미도 더욱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여성문화유산의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보존·관리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개방적 활용 유도

원칙적으로 여성문화유산의 보존·관리도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제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는 대조되는 두 측면,

83) ‘1. 한국의 세계유산을 찾아서’ 이하 ‘41. 한국의 공룡 탐구’ 등 총 41개의 테마 가운데, ‘여성’을 테마로 한 것은 없음(<http://visit.ocp.go.kr/visit/theme/frame.html>).

84) ‘1. 작은역사박물관(강원도)’ 이하 ‘21. 자연과 인간의 조화(옛집과 고찰)’ 등 모두 21개의 탐방코스 가운데, 특별히 ‘여성’에 착안한 코스는 없음.
(<http://visit.ocp.go.kr/visit/theme/frame.html>)

즉 닫힌 문화재행정이나 혹은 열린 문화재행정이나로 크게 구분되어 논란을 거듭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향은 문화재활용을 통해 ‘보기’ 위주의 단순한 문화체험으로부터 ‘알고 느끼는’ 문화체험으로, 방문객과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의 보존·관리가 지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굳게 걸린 빗장을 열어 경회루를 개방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방침⁸⁵⁾은 이를 뒷받침한다.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국가 및 시·도지정 형태를 비롯해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여성문화유산의 경우도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보존·관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 보존·관리는 특히 홍보와도 아주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 유관순 유적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3·1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정작 열사 생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관순 유적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홍보’를 주문하는 이가 많을 정도로, 방문객들이 느끼기에 유관순 유적지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여성문화유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알고, 찾게 하며 이 속에서 개방적인 보존·관리로써 더욱 의미 있는 활용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여성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자원적·생산적 가치에 착안하여 문화산업자원으로서 활용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의 문화산업적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만 최근 얼마 사이 문화산업

85) “경복궁 경회루에 발걸음 있어 더 빛나리”(중앙일보, 2004-10-20, 23면).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시대 목조누각인 국보 제224호 경회루 개방을 위해 누마루 바닥 깔이기기에 들어감.

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주로 경제적 의미에만 두어짐으로써 빛어졌던 왜곡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되, 문화적 의미의 주목이 바로 그것이다. 즉, 경제적 및 문화적 의미의 통합적 가치에 착안하는 산업적 활용이라야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문화유산의 진정성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경제·문화적 의미의 통합가치에 기반한 문화자원으로서 산업적 활용 잠재력 발굴

■ 여성문화유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의 문화자원화

한산모시를 비롯한 각종 여성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해 내려온 유산일 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자원으로서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문화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세계 각지에서 유적지나 수공예기술, 민속 문화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를 감안하면,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발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한산모시를 비롯한 일부 여성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상품이나 행사 등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자원으로서 잠재력 발굴이 취약한 데에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함께 문화자원으로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여성문화유산을 경제적 가치만을 지닌 일반 상품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주요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가운데 생산기술 등 문화유산의 일부 가시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반면, 그것을 생산해온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 등은 주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이다. 물론 전시나 축제 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화적 의미를 발굴하고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술 중심의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을 피상적으로 내보이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의하는 여성문화유산의 활용

결국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풍부한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채 해당 요소가 지니는 피상적인 가치와 빈약한 의미에 의존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품목 개발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해칠 위험까지 있다. 일례로 전통문화의 본산인 안동하회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고유한 양반문화가 피폐해지고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한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임재해 2000).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담지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꾸어가기 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상인으로 변해버릴 소지도 크다.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전통모시의 의미나 전통적인 생산 환경, 그 속에서 살아온 자신과 어머니들의 애환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경제적 수단으로서만 모시를 생각하는 생산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문화자원은 사회적 관심에 따라 증진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며, 그와 반대로 무관심 속에서 쇠퇴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여 경제적 가치만을 증진하는데 급급하다보면, 결국 문화유산이 지니는 의미는 피폐해지며 그에 따라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사라져버리게 된다. 몇몇 요소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물질적 지원을 통해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의 생산과 계승에 관련된 주체들, 즉 직접적 생산자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이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깨닫고 그 문화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경제적 가

치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해당 문화유산이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발굴하여 이를 기초로 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 의미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과 축제 개발 방향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적 장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적극적 주체였음을 보여주고 여성들의 삶의 향취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나 축제개발, 캐릭터 산업, 기념품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한산모시를 비롯한 일부 요소를 중심으로 축제나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문화유산의 핵심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있는 만큼, 상품이나 축제도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품이나 축제만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 내지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욕구를 지닌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다.

■ 여성문화유산의 의미에 충실한 상품과 축제 개발

현재 여성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나 상품은 이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개발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기 보다는 대중의 흥미위주로 흐르고 있으며 기껏해야 몇몇 요소를 파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문화유산의 면모에 충실한 상품과 축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소재만 모시로 된 머리핀이나 브로치 등의 현대적 장신구 보다는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소품과 모시소재를 접목시켜 전통을 담고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 역시 현대적 디자인의 패션쇼 보다는 전통사회에서 직조와 관련된 다양한 관습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닐을 치고 가습기를 틀어놓은 채 개량베틀로 시연을 하기 보다는 전통 농가 한편의 움집에서 전통베틀로 시연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보다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친잠례나 길쌈두레, 베틀노래 등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개발된 상품이나 축제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축제와는 차별적인 면모를 지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활용됨으로써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한층 넓어질 것이며, 기존에는 무시되었던 요소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생산자 중심의 개발

현재 여성문화유산, 특히 무형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개발된 상품과 축제는 해당 유산을 생산하면서 그것과 함께 해온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몇몇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기술이나 노래, 놀이, 의례 등 풍부한 문화적 요소를 기초로 생산자의 삶과 그 속에서 형성된 유산의 의미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상품과 축제가 개발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은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자긍심을 상실한 채 자신들을 단순한 기술자, 동원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생산자들을 당당한 문화유산의 생산자로 인정하고 그 경험과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상품과 축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연령층이 높은 생산자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성부와 문화관광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생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이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장기적으로는 의식과 능력을 지닌 후계자를 양성해 상품과 축제를 개발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소규모 대안적 개발

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은 단지 문화자원을 이용한 산업일 뿐 아니라, 문화적 욕구를 지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대중의 표준화된 소비를 염두에 둔 산업과는 달리 독특한 욕구를 지닌 제한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 고품질을 지향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역시 오락 중심의 대중관광과는 달리 교육과 교양에 목적을 둔 문화관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임재해 2000, Throsby,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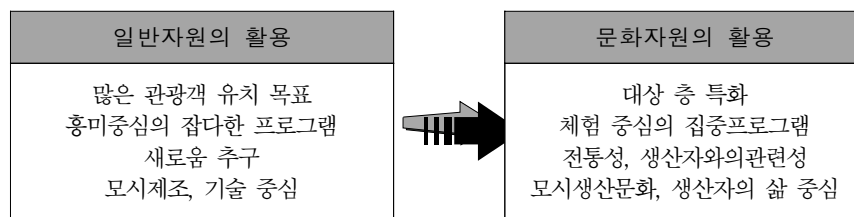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비슷한 상품, 오락위주의 축제는 별 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신 특수한 욕구에 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교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상품과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전통 실크 직조 워크숍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reighton 1995: 464-465). 즉, 현대 여성들이 전통의 환경 속에서 예전 여성들이 살던 그 방식대로 생활하면서 직조 기술도 배우고 각종 전통문화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가시적 측면을 파편적으로 보여주면서 조잡한 기념품을 판매하려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이러한 경험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실제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직조도 했던 공간을 재연해 소규모 워크숍 형태의 관광기회를 제공한다면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조를 비롯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달은 여성들은 전통직물이나 전통문양 등에 호감을 가지며 관련 상품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대상화되었던 여성생산자들

이 주도가 되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워크숍을 운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과 컨설팅 지원, 여성단체의 역량까지 합쳐진다면 새로운 여성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성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이나 축제 개발은 단순한 구경거리나 구매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를 형성, 공유하며 나아가 미래의 여성문화유산을 만들어가는 매개체를 생산하는 일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여성문화유산 활용 상품 및 축제의 개발 방향

참고문헌

- 강숙자(1986), “한국 전통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경,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여성의 역할과 지위”,
http://www.kokuryo.org/old_board/board.cgi.
- 강원도(2002)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3~2007)
- 경기도(2003)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2003~2007)
- 경기도(2004). [2003년 경기도 도정백서]
- 경상북도(1995) [여성발전장기계획](1995~2020)
- 국립민속박물관(1995),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 기전문화대학(2004), “문화유산, 열어줄 것인가 가둬둘 것인가?”, 『문화재관계자워크숍 자료집』, 경기문화재단
- 김미자(1990),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집),
- 김병철(1998). ‘지역활성화와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 [강원포럼] 24: 62-70. 1998. 9/10.
- 김성희(2001),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 김승옥(1999),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외국사례”,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김신웅(1985), “조선시대 수공업 연구: 경공장-외공장의 분해와 기업적 수공업의 대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1972),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대동문화연구원, 『19세기의 한국사회』.
- 김재인 · 양애경 · 허현란 · 유현옥(2000),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희(2004) ‘여성문화유산 활용방안 사례 발표: 유럽의 사례’. 서울여성네트워크 [역사 속 여성문화의 의미] (재)서울여성 제9회 여성주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7.5.
-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집)(1990),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뿌리깊은 나무.
- 김춘식(2001), “지역문화자원의 마케팅전략: 천안의 역사적 인물과 ‘유관순마케팅’을 중심으로”, 『공공행정연구』 4(2).

- 남궁승태,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6집, 1994.
- 문화관광부 [참여정부의 문화비전(2004~2008)]
-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2003),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문화예술교육기획동아리(2004) [문화유산해설 교육의 평생교육적 의미]
- 문화재청, “2004 주요업무계획”, 2004. 5.
- 박남수(1996),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 박미라(1991), “노동요에 나타나는 여성의 체험과 자기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0),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위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충훈(2002), “유관순과 3·1 운동”, 『유관순연구』,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회.
-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2004),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 제15회 한산모시문화제.
- 백현미(2000), “1950년대 여성국극의 성정치성”, 한국극예술연구 12.
- 서울시(2004), [비전서울2006]
- 서울시·서울여성(2003), 『2003 서울시 여성자원봉사학교: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
- 서성호(1997),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경모(1995), “지역축제·이벤트와 문화산업 연계방안-전라북도 축제·이벤트를 중심으로”, 『자치광장』132.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 여성부(200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3년도 시행실적 및 2004년도 시행계획]
- 오미숙(2004), “안으로 보내는 시선, 내나라 여행이 즐겁다”, 『문화도시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7
- 유승훈(2004), 『현장속의 문화재정책』, 민속원.
- 윤탈범(1998)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 [지방자치] 44: 98-105. 1998.3.
- 원용진, “‘참여정부’문화정책과 개혁과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7.2~3.
- 이금희(2004) ‘여성문화유산 활용방안 사례 발표: 허난설헌 축제’. 서울여성네트워크 “역사 속 여성문화의 의미” (재)서울여성 제9회 여성주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7.5.

- 이건무(1999), “호남지역 유형문화재의 실태와 보존방안”,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이남식 “전통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전략”,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9.
- 이능화(1990, 원전 1927), 『조선여속고』, 동문선.
- 이영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이용규(2003), “유관순 열사 체험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유관순연구』,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회..
- 이정은(2004), 『유관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이화여대(1972), 『한국여성사 I』.
- 임영진(1998), “삼베길쌈기술과 노동교환조직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석사학위논문.
- _____(1999), “국토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 이해준외 (1998),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장호수(2002),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 전호태(2004), 『살아있는 우리역사, 문화유산의 세계』, 울산대학교 출판부.
- 정세화 · 최숙경 · 이배용 · 장필화 외(1988),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고대에서 대한제국시대까지-”, 여성학논집 5: 7-113.
- 정요섭(1982),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 제주시(2000) [제주시여성정책 2000~2002]
- 조한혜정, “글로벌 · 지역화시대의 여성과 여행”,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8.
- 주강현(1996), “두레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수결(1989),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청년사.
- 천안시(2002),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천안대학교유관순연구소.
- _____, 『유관순열사사우』, 천안시사적관리소.

- 최선경(2004). [어머니 문화유산해설자원봉사자 교육과 운영: 효과적인 문화유산 해설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최성락(1999), “문화유산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충청북도(2002)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2002~2004)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2), 『문화유산의 가치인식과 활용』 세미나자료.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1992), 『한국여성사』, 풀빛.
- 한상익(1982), “한산모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태규, “깨끗함을 팝니다...무주의 청정자원브랜드화”,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7.
- 梶村秀樹(1983), “이조말기(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사계절.
- Andersen, Benedict(1991 윤형숙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상상의 공동체』, 나남.
- Creighton, Miller R.(1995), "Japanese Craft Tourism: Liberating the Crane W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2).
- Hutter, Michael & I. Rizzo(eds. 1997), *Economic Perspectives on Cultural Heritage*, St. Martin Pr.
- Hutter, Michael(1997), "Economic Perspectives on Cultural Heritage: An Introduction", Hutter, M. & I. Rizzo eds.
- Klamer, Arjo(1997),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Hutter, M. & I. Rizzo eds..
- Koboldt, Christian(1997), "Optimizing the Use of Cultural Heritage", Hutter, M. & I. Rizzo eds.
- Kocekl, Ullrich(2002), *Regional 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loitation in European Ethnology*, Ashgate,
- Throsby, David(1997), "Seven Questions in the Economics of Cultural Heritage", Hutter, M. & I. Rizzo eds.
- Throsby, David(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niv. Pr.
- 橋澤裕子(1989), 『朝鮮女性運動と日本』, 新幹社.

伊勝康子(1992), 『女性史入門』, ドメス出版.

高井 正(1995), “女性史講座-地域女性史の學習は市民意識を培う自己教育運動だ”,
『女性施設ジャーナル』, 創刊號, (財)よこはま女性協會(編), 學陽書房, pp.108-115.

國立婦人教育會館(1999), 『女性學教育/學習 ハンドブック』, 有斐閣.

宮田節子(1960), “3・1運動について”、『朝鮮近代史料 研究集成』第3号, 朝鮮史料
研究會

www.ocp.go.kr/images/cult/detail_01_pic.jpg.

www.ocp.go.kr/l_registration/index.html.

http://www.ocp.go.kr/statistics/1_1.html.

www.ocp.go.kr/index.jsp?mfl=7&mur=/l_excave/index1.html&nu

<http://visit.ocp.go.kr/visit/theme/frame.html>

문화일보: 2004-4-27;29.

조선일보: 2004-1-13.

중앙일보: 1997-3-30;24.

_____ : 2004-8-19;12.

_____ : 2004-10-20;23.

_____ ; 2004. 10-23;27.

한겨레신문: 2004-9-3;18.



부 록



『유관순열사 유적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은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여성부문에서도 역사적존재로서 여성의 위상과 삶의 방식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우리 원에서는, 사회·문화분야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산업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 활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연구를 위해 연구진에서는 사례연구대상의 하나로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선정하고, 이 유적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유적지를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연구는 문화관련의 여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설문결과는 연구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수련일정으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디 잠시 시간을 내서 설문
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진 : 양애경(연구책임자) 02-3156-7152
김양희(공동연구자) 02-3156-7151
김이선(공동연구자) 02-3156-7158

☞ 아래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거나 또는 응답하시는 분의 의견을 충분히 적어주십시오.

1. 성 별 : ____1) 남 ____2) 여
2. 학교급: ____1) 초 ____2) 중 ____3) 고

3. ‘유관순열사’하면 맨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4. 유관순열사를 맨처음 알게 된 계기는?

- ____1)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고나서 ____2)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____3) 부모 또는 주변 어른들이 알려주어서 ____4)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____5) 기타_____

5. 유관순열사 유적지에 포함된 다음의 사적 및 기념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 ____1) 유관순기념관 ____2) 추모각 ____3) 봉화터
____4) 생가 ____5) 매봉교회 ____6) 초혼묘

6. 유관순기념관의 구성내용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6-1.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6-2.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6-3. 구성내용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7.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본 후의 소감은?

8. 유관순 열사 유적지 관람 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

___1)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

___2)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

___3) 식당이나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부족

___4) 사적 및 기념물 등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음

___5)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림

___6) 기타 _____

9.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제작되었으면 하고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10.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___1) 있다

___2) 없다

11.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에 올라 있는 여러 역사적인물 가운데, 여성은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화폐가 제작될 경우, 유관순열사를 올리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___1) 유관순열사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함

___2)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나, 유관순열사로 하는 것은 반대함

___3) 화폐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함

___4) 기타 _____

12. 유관순열사 유적지가 학생들에게 더욱 인상적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건의할만 한 사항이 있다면?

『유관순열사 유적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일반)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은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여성부문에서도 역사적존재로서 여성의 위상과 삶의 방식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우리 원에서는, 사회·문화분야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산업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 활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연구를 위해 연구진에서는 사례연구대상의 하나로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선정하고, 동 유적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올 상반기(2월 ~ 6월)중 유적지를 방문하신 분들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연구는 문화관련의 여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설문결과는 연구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응답하신 분들도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모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디 잠시 시간을 내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진 : 양애경(연구책임자) 02-3156-7152
김양희(공동연구자) 02-3156-7151
김이선(공동연구자) 02-3156-7158

※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함께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에 담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거나 또는 응답하시는 분의 의견을 충분히 적어주십시오.

1. 성 별 : ____1) 남 ____2) 여
2. 연 령 : 만 ____세
3. 직 업 : _____

4. ‘유관순열사’하면 맨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5.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방문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6.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시, 이용한 교통편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____1) 대중교통 | ____2) 승용차 |
| ____3) 단체로 버스대절 | ____4) 기타_____ |

7. 유관순열사 유적지에 포함된 다음의 사적 및 기념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 ____1) 유관순기념관 | ____2) 추모각 | ____3) 봉화터 |
| ____4) 생가 | ____5) 매봉교회 | ____6) 초혼묘 |

8. 유관순기념관의 구성내용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8-1.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____1) 경성복심법원 재판과정(매직비전) |
| ____2)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군중(디오라마) |
| ____3) 고문(벽관체험) |
| ____4) 유관순열사 사진 |

- ___5) 영상관
- ___6) 태극기스탬프
- ___7) 타임캡슐
- ___8) 기타_____

8-2.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___1) 경성복심법원 재판과정(매직비전)
- ___2)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군중(디오라마)
- ___3) 고문(벽관체험)
- ___4) 유관순열사 사진
- ___5) 영상관
- ___6) 태극기스탬프
- ___7) 타임캡슐
- ___8) 기타_____

8-3. 구성내용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___1) 유관순열사의 생활모습 관련
- ___2) 열사가 직접 만든 태극기라든가 거사와 관련한 유품 발굴하여 전시
- ___3) 열사의 활동상을 더 자세하게
- ___4) 3·1운동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 ___5) 3·1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
- ___6) 각종 재연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 ___7) 체험공간의 확충
- ___8) 순국관련사항
- ___9) 기타 _____

9.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본 후의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10. 유관순 열사 유적지 관람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해당 되는 곳에 모두 표시)

- ___1) 사적 및 기념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안내자 부족
 ___2)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여 위축되었음
 ___3) 식당이나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부족
 ___4) 사적 및 기념물 등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음
 ___5)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림
 ___6) 기타_____

11.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제작되었으면 하고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12.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___1) 있다 ___2) 없다

13. 유관순열사 유적지 방문 외에,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물(영화, 오페라, 무용극 등)이라든가 또 다른 유적지(서울의 구서대문형무소나 이화여고의 유관순기념관 등) 등을 관람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___1) 있다 ___2) 없다

13-1. (또 다른 경험 있을 경우)어떤 경험입니까?

14.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에 올라 있는 여러 역사적인물 가운데, 여성은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화폐가 제작될 경우, 유관순열사를 올리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1) 유관순열사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함
- ___2)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나, 유관순열사로 하는 것은 반대함
- ___3) 화폐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함
- ___4) 기타 _____

15. 유관순열사 유적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인상적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건의할만 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부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I. 서울·경기권 여성문화유산	215
II. 충청권 여성문화유산	307
III. 경상권 여성문화유산	375
IV. 전라권 여성문화유산	441
V. 강원권 여성문화유산	489
VI. 제주권 여성문화유산	533

I



서울·경기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222
2. 무형문화유산	290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서노 : 몽촌토성 - 신사임당 묘, 집터 - 허난설헌 묘 - 강정일당 묘, 사당 - 태종비 원경왕후 헌릉 - 세조비 정희왕후 광릉 - 성종모 인수대비(소혜왕후) 경릉 - 성종비 윤씨 회묘 - 중종비 문정왕후 태릉 - 소현세자비 민회빈 강씨 영회원 - 숙종비 인현왕후 명릉 - 숙종비 장희빈 대빈묘 - 정조모 경의왕후(사도세자비 혜경궁 홍씨) 융릉 - 헌종모 조대비(신정왕후) 생가터, 쌍호정 터, 별장 터, 수릉 - 고종비 명성왕후 생가, 탄강구리비, 기념관, 경복궁, 건천궁, 녹산 터, 안국동 감고당 터, 홍릉 - 고종비 순헌귀비와 영회원 - 강완숙 묘 - 나혜석 최초 서양화 개인전 터 - 바우덕이(김암덕) 관련 - 최용신 묘, 기념비 - 사세 충렬문 - 문화 유씨 4정문 -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 - 서흥 김씨 삼강정문 - 남양 홍씨 열녀 정려문 - 나주 정씨 열녀 정려각 - 팔효문 - 회현리 충신, 열녀비 - 원주 원씨 가문 이씨 부인 열녀문 - 허씨 가문 며느리 효행비 	사적 제297호 경기도기념물 제14호 경기도기념물 제90호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사적 제194호 사적 제197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200호 사적 제201호 사적 제357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198호 사적 제206호 사적 제193호(수릉) 유형문화재 제46호 (생가) 사적 제361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8호 경기도 문화재자료 8호 화성시향토유적 제5호 경기도기념물 제77호 화성시향토유적 제27호 가평군 향토유적 제8호 연천군향토유적 제5호 양평군 향토유적 제3호 양평군향토유적 제9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사동 선사 유적지 - 경복궁 자경전 -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 경복궁 아미산 굴뚝 - 창덕궁 대조전 - 덕수궁 - 창경궁 - 운현궁 - 종묘 정전 - 칠궁 - 정업원 구기비 - 양주 백수현 가옥 - 진접 여경구 가옥 - 화성 정용채 가옥 - 남산 한옥마을 *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 해풍부원군 윤택영택 재실 *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 오위장 김춘영 가옥 * 도편수 이승엽 가옥 	사적 제267호 보물 제809호 보물 제810호 보물 제811호 보물 제816호 사적 제124호 사적 제123호 사적 제257호 국보 제227호 사적 제149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호 중요민속자료 제128호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중요민속자료 제124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잠단 터 - 잠실 - 잠원동 잠실리 뽕나무 - 용산전환국 터 - 경성방직공장 	사적 제83호 서울시 지방기념물 제1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명부인회 집회지 * 장충단 - 국채보상부인회 결성지 - 3. 1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 서대문 독립공원 * 수원 옛 자혜병원, 경찰서 터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성지 * 정신여학교 - 조선여자교육협회 * 야학터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교육·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화학원터 * 근화여학교터 -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 인사동 태화여자관 내 사무소 * 서대문 회관터 - 토산애용부인회 - 조선여성동우회 사무소 - 근우회 - 초대 여자유학생 환영회 행사장, 경희궁 - 여의사, 여성병원 관련 유적지 - 최초 개업 부인의원 - 승동교회 - 정동교회 - 여성교육관련 유적지 * 관립한성고등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 이화학당 * 배화여학교 * 진명여학교 * 정신여학교 * 태화여자관 * 이화여전 * 조선약학교, 조선약학전문학교 	<p>사적 제271호</p> <p>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 사적 제256호</p>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악재 입구 홍제원 개울터 - 숙정문 - 파주, 여주 지명 유래 - 낙화암 - 행주산성 -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전시관 - 송파동 도미나루터 - 아차산성 - 소요산 요석궁지 - 남한산성 청량당 - 동대문과 단종비 송씨이야기 - 청량리 옛 전차길 	<p>사적 제56호</p> <p>사적 제234호</p> <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p>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사능인보전후불탱화 - 감로탱화 - 지장사대웅전팔상도 - 진관사독성각독성도 - 갈항사지 삼층석탑 - 운적암 또는 운수암 - 칠장사 - 봉선사 - 봉은사, 승과평 - 절두산 천주교성지, 성녀 주리아 묘비 -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 - 삼막사 남녀근석 - 인왕산 선바위 - 엄미리 장승 - 안산 성곡동 잣머리 성황당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3호 보물 제1239호 유형문화재 제120호 문화재자료 제12호 국보 제99호 문화재자료 제25호 경기문화재자료 제24호 서울시민속자료 제3호 서울시민속자료 제4호 안산시향토유적 제1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민속 박물관 -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석주선 박물관 - 이대 박물관 - 숙대 박물관 - 단국대 박물관 - 세종대 박물관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제6~10 - 내훈(여훈) - 인목대비 친필 족자 - 인선왕후 한글편지 - 한중록 - 계축일기 - 인현왕후전 - 정일당유고 - 태교신기 - 규합총서 - 죽서시집 - 유한집 - 변안렬 묘표 - 여산송씨 족보 - 양천 허씨 분재기 - 울곡남매 분재기 	보물 제1144호 유형문화재 제34호 유형문화재 제139호 용산시 향토유적 제36호 보물 제477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예술 작품, 여성 대상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충도 - 단원풍속도첩 - 단원화첩 - 혜원전신첩 	보물 제527호 보물 제782호 국보 제135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장 - 매듭장 - 초고장 - 침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 궁중음식 - 계명주 - 삼해주 - 송절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8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현궁 고종 명성후 가례 - 종묘제례 - 종묘 제례악 - 궁중 다례 의식 - 송파 다리밟기 - 강령 탈춤 - 양주 별산대 놀이 - 쌍용 줄다리기 - 서울 새남굿(진오기) - 남이장군 사당제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7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0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민요 - 판소리 * 김소희 * 성창순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안숙선 * 이영희 - 승무 - 살풀이춤 -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행정구역으로 보아 현재의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들의 유적지이다. 여기에는 특정인물의 탄생설화가 있는 장소, 생가, 활동지역, 묘소, 역사적 사건이나 생애를 기리는 사당, 누각, 비(碑) 등이 포함된다.

1) 소서노와 몽촌토성(사적 제 297호)

백제 시조 온조의 건국 장소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 소서노는 동부여에서 졸본 부여로 이주해온 주몽(동명성왕)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절대적 도움을 준 고구려 건국 공신이다. 그러나 동부여에 있던 주몽의 첫 부인 예씨녀와의 사이에서 난 장자(유리왕)가 고구려에 온 후 자신과 아들 온조,비류의 입지가 좁아지자 함께 남하하여 온조의 건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

2) 신사임당 묘, 집터

- 서울 수진방 집터 : 현 청진동

- 이원수,신사임당 합장묘(경기도 기념물 제14호/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어머니이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예술가인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 1504~1551)의 유택이다. 봉분은 단분(單墳)이며 남편 이원수(李元秀)와의 합장묘이다. 외가인 강릉에서 진사(進仕) 신명화(申命和)의 무남5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세 때 이원수에게 출가하였는데 친정에 아들이 없어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친정에 머문 뒤, 시댁의 오랜 터전인 파주 율곡리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38세가 되어서야 서울 수진방 시댁

에서 시택살림을 주관하고 슬하에 4남3녀를 둔 다복한 생활을 하였다. 사임당은 당호(堂號)로서 그 뜻은 최고의 여성상인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는다라는 것이다.

3) 허난설현 묘(경기도 기념물 제90호/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산29-5)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류시인인 허난설현(1563~1589)을 모신 유택이다. 당초의 묘역은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여m 우측에 있었으나 중부고속도로의 개설로 1985년 현 위치로 이장되었다. 문인석을 제외한 묘비·장명등·상석·망주석·호석은 근래에 제작되었다. 묘비의 비문은 이숭녕(李崇寧)이 지은 것이며, 묘역 우측의 시비(詩碑)는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全國詩歌碑建立同好會)에서 1985년에 제작한 것으로 허난설현의 시 가운데 곡자(哭子)가 새겨져 있다.

허난설현의 이름은 초희, 호는 난설현, 본관 양주이며,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許筠)의 누이로서 시인 이달(李達)에게 시를 배워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휘했다. 15세에 김성립(金誠立)과 결혼하였으나 원만한 부부가 되지 못하였다. 남편은 급제한 뒤 관직에 나갔으나 가정의 즐거움보다는 풍류를 즐겼고, 시어머니의 학대와 질시 속에 살았다. 사랑하던 남매를 잃은 뒤 뱃속의 아이까지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친정집의 옥사(獄事)가 있었고, 동생 군마저 귀양가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1589년 27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녀는 고뇌를 시(詩)로 달랜 섬세한 필치로 여인 특유의 감상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작품 일부가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난설현집>으로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야(文台屋次郎)가 간행하여 애송되었다. 유고집에 <난설현집(蘭雪軒集)>이 있다.

4) 강정일당 묘(성남시 향토유적 1호/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5)

정일당(1772~1832)은 조선후기의 여류문인. 본관은 진주(晋州). 호는 정일

당(靜一堂). 제천출신. 강희맹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1791년(정조15) 20세의 나이로 윤광연(尹光演)에게 출가한 뒤 집이 가난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남편을 도와 함께 공부하였다.

경서에 두루 통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나 당시 문명(文名)이 높았다. 또 글씨에 능하여 홍의영·권복인·황운조(洪儀永·權復仁·黃運祚) 등의 필법을 이어 받았으며, 특히 해서를 잘 썼다. 사람들이 남편에게 글을 청하면 그녀가 대신 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직보(李直輔)가 그녀의 시 한 수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일체 작품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정일당 유고(靜一堂遺稿)』 1책과 시문집 1책, 신연활자본, 1836년(헌종 2)에 간행된 초간본과 1926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전한다. 규장각도서관에는 필사본이 있으나 간행본과 편차가 틀려 대본을 알 수 없다.

묘역은 금토동 청계산 기슭에 부군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 묘비 하나 없이 전해오던 것을 성남시에서 1986년 향토유적 1호로 지정하고 2000년 2월 파평 윤씨 문중의 협조로 사당(수정구 금토동 661)과 묘지를 재조성하여 정일당 강씨의 지극한 효성과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5) 태종비 원경왕후와 헌릉(사적 제 194호/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번지 1호 대모산 아래)

헌릉은 조선 제3대 태종(太宗)과 왕비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 閔氏)의 능이고, 이 능의 오른쪽에 있는 인릉은 23대 순조(純祖)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의 능이다. 흔히 헌릉과 인릉을 합쳐서 헌인릉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능은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 194호로 지정되었다. 헌인릉의 뒷산 대모산은 해발 290.8m로서 산모습이 할머니와 같다고 하여 할미산 또는 대고산(大姑山)으로 칭하여 오다가 태종의 헌릉이 자리잡자 어명으로 대모산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원경왕후 민씨는 송경(현 개성) 철동에서 여흥부원군 민제의 딸로 탄생하여 태조 즉위 후 정녕옹주에 봉해졌으며 정종 2년(1400) 정빈, 정비에 책봉되었다. 세종을 위시하여 4남4녀를 낳고 세종 2년(1420) 7월 10일 수강궁 별

전에서 승하함에 따라 능지로서 광주 서대모산이 선정되었으며, 태종은 국상에 법석은 물론 원찰도 금하였다.

6) 세조비 정희왕후와 광릉(사적 제197호/남양주시 부평리~포천시 소흘면 일원)

조선 제7대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와 왕비 정희(貞熹)왕후의 능이다. 정희왕후(1418~1483)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윤번의 딸로 태종 18년(1418) 11월 11일 홍천 관사(洪川 官舍)에서 태어나 세종 10년(1428) 가례를 올리고 낙랑부대부인(樂良府大夫人)에 봉해졌다가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소생으로 덕종(德宗)·예종(睿宗) 및 의숙공주(懿淑公主)를 두었다. 세조 14년(1468) 예종이 14세로 즉위하자 조선왕조 최초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으며 이듬해 예종이 승하하자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 세조의 맏아들인 덕종의 장남 월산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성종)을 즉위시켰으며 이후에도 7년 동안 섭정을 하였다. 1483년(성종 14) 온양행궁에서 춘추 66세로 승하하였다. 광릉은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능을 조성하는데 들던 인력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으며 이후의 왕릉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7) 성종모 소혜왕후 인수대비와 경릉

- 서오릉(西五陵)(사적 제 198호/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서오릉은 풍수적(風水的)인 길지(吉地)에 왕실의 족분(族墳)을 이룬 것인데, 경릉(敬陵)·창릉(昌陵)·익릉(翼陵)·명릉(明陵)·홍릉(弘陵)의 5능을 일컫는다. 이곳에는 5능 외에 명종(明宗)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최근 숙종(肅宗)의 후궁 장희빈(張禧嬪)의 대빈묘(大嬪墓)도 경내에 옮겨 놓았다.

경릉(敬陵) : 세조(世祖)의 세자 장(璋:德宗)과 그 비(妃) 소혜왕후 한씨(昭惠王后 韓氏)의 능이다. 소혜왕후 한씨는 서원부원군 한확의 딸로서 수양대

군의 장자와 결혼한다. 한확의 누이는 명의 요구로 보내진 공녀 중 한 명으로 성조 영락제의 후궁이 된 연고로, 한확은 명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지냈는데 여러 차례 모국과 왕래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원활히 하였다. 계유정난 때는 수양대군 쪽에 가담하였으며 1456년(세조 2)사은사로 연경에 들어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단종이 양위한 것으로 명나라를 설득시켰다. 소혜왕후는 세조 즉위년 수빈에 책봉되고 월산대군과 성종 형제를 두었으며 성종 2년 왕비로 진책되었다.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한국 삼자체의 불서와 부녀자의 예의범절을 가르친 <여훈>을 저술하였다. 아들교육에 매우 엄격하여 세조가 우스개 소리로 폭비라 하였다고 한다. 연산군 10년(1504) 춘추 68세로 승하였다. 소혜왕후 한씨가 지은 <내훈>은 조선 사대부 여성이 지켜야 할 유교적 부덕을 제시하고 있다.

8) 성종비 윤씨와 회묘(동대문구 회기동 터)

- 서삼릉(사적 제 200호/경기도 고양시)

현재는 천장산 아래 경희대학교가 위치하여 동서양방을 겸한 병원, 예술문화공연장인 평화의 전당 등을 건축하여 그 일대가 번창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묘가 있던 곳으로 ‘회묘리’라 불렸다.

후세에 ‘폐비 윤씨’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진 성종의 왕비 윤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갔으나 성종 5년에 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숙의였던 윤씨가 아들을 낳아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왕비로 책봉된 지 3년째가 되는 성종 10년에 폐서인으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성종 13년,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지 만 6년, 폐출 당한 지 3년 만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 때 성종 임금은 ‘폐비 윤씨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고 음험하며 또한 행실이 바르지 못해 왕실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지를 내렸다.

윤씨의 아들은 윤씨가 죽은 다음 해에 세자가 되고 19세에 성종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 2년에 죽은 생모를 그리며 효사묘(孝思廟)라는 사묘(私廟)을 짓고, 아울러 폐비 윤씨의 묘에 봉분을 수리하여 회묘(懷廟), 다시

말해 ‘슬픈 사연을 간직한 묘’라는 감회서린 묘 이름을 연산군이 손수 지어 받쳤다.

연산군 10년 이른바 갑자사화(甲子士禍)라 칭하는 복수사건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폐출, 죽음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사형과 유배형을 내렸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까지도 땅에서 파내어 형을 가하는 가혹한 복수가 이어졌다. 그 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를 ‘제헌왕후’라 추모하고 회묘를 ‘회릉’으로 고치고, 효사묘는 해안전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2년 뒤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뒤 회릉은 다시 회묘로 강봉되었다. 또한 해안전은 철폐되어 폐비 윤씨의 위패는 묘결에 묻혀 있었으나 1969년 10월 양주군 서삼릉으로 이전되고 이제는 옛날 회묘가 있었던 표석만이 남아있다.

9) 중종비 문정왕후와 태릉(사적 제201호/서울 노원구 공릉동 313-19)

태릉은 조선 제11대 중종의 두 번째 비인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1501~1565)의 무덤이다. 태릉에 모셔진 문정왕후 윤씨는 본관이 파평(坡平)으로 영돈녕부사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윤지임(尹之任)의 딸로서 연산군 7년(1501) 10월 22일 탄생하였다. 중종의 왕비인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가 중종 10년(1515) 3월 인종을 낳고 7일만에 승하하자 2년 후인 중종 12년(1517) 7월 춘추 17세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소생인 명종이 인종에 이어 즉위한 후 8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왕후는 불심이 깊어 반대를 무릅쓰고 승과(僧科)를 두었고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키는 등 불교진흥에 노력하였다. 명종 20년(1565) 4월 7일 창덕궁 소덕당(昭德堂)에서 승하하니 춘추 65세였고 소생은 명종과 4녀가 있었다. 이 해 시호를 문정이라 하고 무덤의 이름을 신정릉(新靖陵)이라 하였다가 곧 태릉으로 고치고, 7월에 양주 노원면 대방리(大邦里)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왕후는 원래 봉은사 주지승(住持僧) 보우(普雨)와 의논하여 성종의 선릉 동쪽 언덕이 길지로 여겨 경기도 고양군의 중종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와 같은 언덕에 있던 중종의 무덤인 정릉(靖陵)을 후일 자신의 무덤과 함께 하고자 명종 17년(1562) 9월에 옮겼

다. 그러나 여름철의 홍수 때에는 무덤 주변까지 침수되어, 왕후의 무덤은 양주 노원에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0) 소현세자비 민회빈 강씨와 영회원(사적 제357호/광명시 노온사동 산141-1)

인조의 맏아들이며 효종의 형인 소현(昭顯)세자의 빈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묘이다. 빈은 고려조의 공신 강감찬의 18대 손이며 영의정을 지낸 문정공 강석기(姜碩期)의 딸로 인조 5년(1627) 세자빈이 되었고, 병자호란이후 인질로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머무르다 귀국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민회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조의 후궁 조씨 등이 민회빈이 소현세자를 독살하였고 왕실을 계속 저주한다고 거짓을 꾸며대는 바람에 인조 23년(1645)에 폐빈되어 그 다음해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고 아들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 뒤 숙종 44년(1718)에 세자빈 강씨의 결백함이 밝혀져 민회빈으로 복위되었고 고종 7년(1903)에는 이묘를 영회원(永懷園)이라 이름지었다.

11) 숙종비 인현왕후와 명릉

- 서오릉(사적 제198호/경기도 고양시 신도동)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두번째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의 능이다. 서오릉(西五陵) 가운데 하나이다. 숙종 및 인현왕후의 쌍릉과 그 오른쪽 언덕에 있는 인원왕후의 단릉이 동원이강(同原異岡)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능석물(陵石物)을 간소화하라는 숙종의 교령에 따라, 석물의 크기가 실물 크기로 작게 제작되었으며, 무덤 속에 넣는 부장명기(副葬明器)도 크게 줄였다.

12) 숙종비 장희빈과 대빈묘

- 대빈묘 : 1970년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서 서오릉 경내로 이장.

- 서오릉(사적 제198호/경기도 고양시 신도동)

장희빈은 중인 역관 가문 출신으로 어머니는 노비였다. 궁녀로 시작해 8살 아래였던 숙종의 총애를 받아 아들 경종을 낳고 후궁 최고 자리인 희빈에까지 오르고 마침내 정비 인현왕후의 폐위와 함께 왕후가 되었으나 몇 년 뒤 인현왕후의 복위와 함께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숙종대 남인, 서인, 숙종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 신분적 한계, 숙종의 애증 속에서 부침하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는다. 이후 서인, 노론 정권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아있는 모든 기록 속에서 악녀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조선시대 엄격한 처첩제 굴레를 잠시 벗은 듯 했으나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13) 정조모 경의왕후(혜경궁 홍씨)와 용릉(사적 제206호/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산1-1)

사도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의 능인 용릉과 정조와 왕비 효의 왕후의 능인 건릉이 있어 용릉·건릉이라 부르며 능역은 213,460평에 달한다.

경의왕후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로서 1744년 세자빈에 책봉되고 세자가 죽은 뒤 1762년 혜빈(惠嬪)의 호를 받았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혜경(惠慶)의 호로 올랐고 1815년 80세로 창경궁에서 죽은 뒤 1899년 경의왕후로 추존되었다. 능은 원래 경기 양주군의 배봉산(拜峰山)에 조성되어 영우원(永佑園)이라 하였으며 이를 지금의 화산(花山) 기슭으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이라 하였다. 능 주위에 돌레돌[護石]을 돌리고 덮개돌[床石]과 8각의 장명등(長明燈)과 문석(文石)을 세웠으며 뒤에는 곡원(曲垣)을 올렸다. 정조는 불행한 삶을 산 아버지의 묘소를 조성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같은 격의 어느 원(園)보다도 훌륭히 상설(象設)을 하였으며, 이후의 능묘석물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중록>을 저술함.

14) 헌종모 신정왕후 조대비와 수릉(사적 제193호/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신정왕후 [神貞王后, 1808~1890], 조선 익종(翼宗: 追尊王)의 비. 본관 풍

양(豐壤). 성 조씨(趙氏).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만영(萬永)의 딸. 1819년(순조 19) 세자빈에 책봉되고, 1834년 아들 현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대왕대비로 진봉되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아들(고종)을 즉위하게 하여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고, 안동 김씨 세도정치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흥선대원군에게 정책결정권을 주어 대원군의 집정을 이루게 하였다. 1873년(고종 10)까지 효유(孝裕)·헌성(獻聖)·선경(宣敬)·정인(正仁)의 존호와 대왕대비에 진호되어 자혜(慈惠)·홍덕(弘德)·순화(純化)·문광(文光)·원성(元成)·숙렬(肅烈)·명수(明粹)·협천(協天) 등의 존호를 받았다.

- 생가 터, 쌍호정 터

쌍호정은 옥수동 295번지에 있었으며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구택지이다. 순조 8년(1808)12월 6일 조대비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하던 날 밤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정자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쌍호정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조대비 생가의 규모는 굉장하여 대비가 어릴때 글을 읽던 독서당이 북쪽 뒤 높은 곳에 1958년까지 남아 있어서 대지의 넓이를 짐작케 하며, 생가 동쪽에 울창한 노송들이 있었고 그 옆에 있었던 조그마한 정자가 쌍호정이다

- 별장 터

도봉1동 401번지에 있는 광륵사(현재) 절은 원래 조대비의 별장터로 조대비는 조만영의 딸로서 순조 세자빈(익종의 비)으로 책봉되었다. 후에 현종을 낳았고, 현종이 조선 제24대 왕위에 오르자 대비 존호를 받았으며, 수렴청정으로 한때 조정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조대비는 풍원부원군 조만영이 죽자 선산과 인접하고 산수가 수려한 도봉동에 별장을 지어 만년을 보냈고, 그 후 고종때 흥선대원군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국정을 보기도 한곳이다.

- 수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순조의 원자 익종(翼宗:효명세자)과 그 비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의 능이다. 처음에는 의릉(懿陵)의 왼쪽 언덕에 안장하였으며 추존 후에 수릉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풍수지리상으로 불길하

다 하여 1846년(헌종 12) 양주 용마봉 밑으로 이장하였다가 55년(철종 6) 지금의 자리로 옮겼으며, 90년 신정왕후가 죽자 합장하였다.

15) 고종비 명성왕후

- 명성황후탄강구리비(明成皇后誕降舊里碑; 유형문화재 제41호/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2)

조선 제26대왕 고종의 비(妃) 명성황후 민씨(1851~1895)의 출생지에 세운 비. 명성황후는 1851년 여주에서 태어나 1866년 왕비로 책봉된 뒤 조선말의 격동기를 보내다가 1895년 일본자객에 의해 시해되었다. 1897년 명성황후로 추봉되고 1904년 여주의 생가에 이 비가 세워졌다. 비 앞면에는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명성황후탄강구리) 이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광무 8년 갑진 오월 어느날 었드려 눈물을 머금고 공경히 쓰다(光武八年甲辰五月日拜手飲涕敬書) 라고 새겨져 있다. 필자미상

- 명성황후 생가(유형문화재 제46호/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2)

조선 제26대 고종 황제의 황후로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으로 자주성을 지키면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을미사변으로 일본인에 의해 시해당하여 일생을 마쳤던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지 살던 집이다. 1687년(숙종 13년) 왕의 장인 민유중의 묘막(墓幕) 으로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로서 남아있는 것은 안채 뿐이었으나, 1995년에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복원됨으로써 면모가 일신되었으며, 명성 황후가 어렸을 때 공부했다는 방이 있었던 자리에 그녀의 탄생을 기념해 세운 “명성황후 탄강구리(明成皇后 誕降舊里)”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이라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생가 앞에 기념관이 건립되어 각종자료·유품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161석 규모의 공연장(문예관)이 있어 명성황후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 서울 안국동 감고당 터 : 왕후의 서울 거주지
- 경복궁 건천궁 터, 국립민속박물관 옆 녹산 터 기념비 : 시해, 화장지

- 홍릉(사적 제207호/남양주시 금곡동 141-1)

고종과 왕비 명성황후의 합장능. 명성황후(1851~1895)는 1866년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흥성대원군과 대립하며 고종의 친정정치를 도모했는데 고종의 친정 이후에는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권을 행사하였다.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청을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려다 1895(고종 32) 일본 공사 미우라가 보낸 낭인들에 의해 45세의 나이로 시해되었다. 동구릉의 승릉 옆에 묻혀 숙릉이란 능호를 받았으며, 1897년 대한 제국 선포 후 명성황후로 추봉되어 청량리의 홍릉으로 이장하였다가 고종이 승하하자 현재 금곡동 홍릉으로 옮겨왔다.

16) 고종비 순헌귀비와 영휘원(永徽園;사적 제361호/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조선시대 고종의 계비(繼妃)인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嚴氏)의 묘소. 청량리2동으로 편입된 홍릉 일대는 원래 조선왕조 왕가 소유 국유림이었다. 지금은 도로가 나고 구획정리가 되어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지만 홍릉 일대는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 줄기가 뻗어내려 오다가 천장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야산지대로서 주로 왕가의 능터로 사용했던 곳이다. 천장산 동쪽 끝은 조선 조 20대 임금인 경종의 무덤(의릉)이 있고, 구한말에 명성황후의 무덤(洪陵)을 이곳에 씌으로써 홍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어 이곳에 묻힌 지 10년 후 고종의 후궁이며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이었던 순헌귀비 엄씨 또한 명성황후의 무덤과 이웃 한 이곳에 묻히었으니 현재 세종대왕기념관 건물 옆에 붙어 있는 영휘원이 곧 엄귀비의 무덤이다.

엄귀비는 평민출신인 영월 엄(嚴)씨 엄진삼(嚴鎭三)의 딸로서 5세 때 아기나인(內人)으로 대궐에 들어왔다. 후에 왕후인 민비의 총애를 받아 민비의 시위상궁으로 발탁되었는데 시위상궁이라 함은 사가로 말하면 몸종이나 다름 없었다. 그런 처지에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고종임금과 동침을 했다. 그녀는 인물이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또한 임금과 동침을 해서 승은을

입었을 때는 당시 국민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던 시절 그녀의 나이는 32세였다. 민비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엄상궁은 그 길로 대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10년 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후 5일만에 엄상궁은 대궐에 다시 들어와 고종의 수발을 들게 되었다. ‘아관파천’은 엄상궁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가마 속에 고종을 태우고 정동에 위치한 러시아공사관으로 갔던 사건이다.

그로부터 만 1년 동안 고종은 엄상궁과 함께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며 러시아공사관에서 정무를 보게 되었고 엄상궁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곧 영친왕(英親王)이라 불려졌던 영왕(英王)이다. 고종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는 4명, 즉 민비 소생으로 마지막 임금인 순종, 궁녀 장씨 소생 의친왕, 엄귀비 소생인 영왕, 그리고 나중에 양비에게서 낳은 덕혜옹주 뿐이었다.

순종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불구자였기 때문에 후계자인 왕세자를 책봉하게 되었을 때 10살이나 손위가 되는 의친왕을 제치고 엄귀비의 뜻대로 2살 먹은 어린 영왕이 황태자로 책봉됐다. 그러나 엄귀비의 아들 영친왕은 조선 총독 이토오 히로부미에 의해 일본에 볼모로 유학을 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엄비는 자기 아들이 겪기 힘든 고된 훈련을 받는 도중에 점심으로 주먹밥을 먹는 광경을 고종과 함께 대궐에서 활동사진(영화)으로 보다가 입에 물고 있던 떡에 급체하여 이틀 후 1911년 58세로 세상을 떠났다.

엄귀비는 생전에 모은 재산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신교육을 위해 진명여학교와 명신(후에 숙명으로 개명함)여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양정의숙(현재 양정중고교)이 재정난에 허덕이자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200만 평의 땅을 기증하기도 했다.

17) 강완숙(姜完淑) 묘(경기도 이천 어농리 성지)

1760(영조 36)~1801(순조 1). 초기 천주교회의 순교자이며 최초의 여성회장이자. 세례명 골롬바. 충청남도 내포지방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덕산에

사는 홍지영(洪芝榮)에게 후처로 시집갔으나, 천주교가 충청도지방까지 전해지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남편과 헤어져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 필주(弼周)와 함께 서울로 이사해 살았다.

서울에 올라온 뒤 교우들과 접촉하면서 전교에 힘쓰는 한편, 지황(池璜) 등을 도와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영입하는 데 큰 소임을 하였다. 주문모가 1794년(정조 18)12월 밀입국하여 서울 최인길(崔仁吉)의 집에 숨어서 전교활동을 하던 중, 1795년 6월 배교자 한영익(韓永益)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지자, 강완숙은 그를 자기집 나뭇광에 숨겨주었으며, 그뒤 6년간 주문모의 전교활동을 여러 모로 도왔다. 주문모는 그녀에게 영세를 주고 여회장으로 삼아 여자들에 대한 전교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교회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녀는 당대의 남인학자들과도 교유하여 교리에 대한 토론도 하였으며, 구변과 수완이 좋아 많은 부녀자들을 감화시켜 입교시켰는데, 특히 왕실의 은언군(恩彦君)의 처 송씨와 그의 며느리 신씨(申氏)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문모에게 직접 영세를 받게까지 하였다.

이와같은 그녀의 다방면에 걸친 활동으로 교세는 크게 늘어났지만,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같은해 2월 28일 체포되어 갖은 고문으로 주문모의 행방을 추궁당하면서도 끝내 함구하여, 7월 2일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18) 나혜석

- 최초 서양화 개인전. 현 서울시청, 옛 경성일보사 내 내청각 터

나혜석은 서양화가이며 작가이고, 그리고 사상가로서 뚜렷하게 자기 세계를 구축한 여성이다. 그러나 남편이 아닌 남자와 연애를 하고 이혼했다는 사생활로 그의 업적은 가리워졌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근대사에 오르내리는 술한 남성 인물들의 그런 경력은 오히려 그의 ‘남성다움’으로 은근히 추켜세워지기까지 하는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지향하는 일부 신여성들에게 민족주의의 현모양처론은 그러한 생각의 표현을 억누르는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다. 나혜석

이 구미여행과 자신의 이혼 경험으로부터 1930년대에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이었다.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내세운다든지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신여성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나혜석의 후배 세대, 1930년대의 여성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현모양처의 외관을 갖추면서 내면적인 반란의 꿈꾸기는 했어도 드러내어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않았다. 현모양처의 규범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나혜석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관보를 통해 나혜석의 사망이 전해졌을 즈음 나혜석의 행복과 불행에 원인을 제공했던 남자들, 김우영, 최린, 이광수는 모두 반민 특위의 범정에 서 있었다.

한 개인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넘어서기 힘들다. 나혜석 역시 근대 사회로 변환하는 길목에서 조선 사회의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시대적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 피투성이의 싸움을 치렀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 새로운 여성의 역사는 그를 치욕과 풍문 속에서 불러내어 억압에 맞섰던 당당한 선구자로 세우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 해방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혜석이 시대를 앞서 이를 선회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제 나혜석은 화가로서, 작가로서,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여성해방론자로서 다양한 조명을 요구하고 또한 그 모든 측면에서의 연구를 감당하는 한국근대사의 한 봉우리로 우리 앞에 서 있다.

19) 바우덕이

- 안성 청룡사 부근 불당골 돌무덤
- 안성남사당풍물놀이(무형문화재 제21호/보개면 복평리 34-13번지외)

안성에 바우덕이라는 여성 남사당이 있었다. 최고인 꼭두쇠 바우덕이(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암덕(岩德)이기 때문에 岩을 바위로 풀어 바우덕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는 남사당패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자 꼭두쇠. 안성 서운면 청룡리 불당골에서 염불, 소고춤, 풍물, 줄타기 등 온갖 남사당 기예를 익혔으며, 뛰어난 기량으로 세상에 나가 판놀음을 걸판지게 펼쳐 그 이름을 모

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였다.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미색을 겸비한 총기로 남사당패의 꼭두쇠로 추앙받았고 꼭두쇠로 활동하며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여 남사당패의 전성기를 이루어냈다.

남사당패는 맨 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 뜯쇠, 가열, 빠리, 저승패, 동짐꾼 등으로 구성되어 놀이를 행하였다. 안성 남사당의 맥은 조선조 말기의 바우덕이로부터 시작해 김복만 - 원육덕 - 이원보 - 김기복으로 이어졌고 해체와 결성을 거듭하면서 끈질긴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20) 최용신의 묘(안산시 향토유적 제18호/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4)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 채영신은 일생을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최용신(崔容信)으로 농촌의 문맹퇴치를 위해 야학에 온힘을 기울였던 실재 인물이다. 심훈이 『상록수』에서 ‘청석골’이라 부른 마을이 바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샘골마을이다.

최용신은 서기 1909년 8월 함경남도 원산읍 두남리에서 최창희(崔昌熙)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그의 어린시절은 대단히 곤궁한 생활속에서 살았지만 신앙심이 깊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며, 루씨(樓氏) 여자보통학교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 농촌과 졸업을 1년 앞둔 1931년 10월 최용신은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운동에 전념할 것을결심, YWCA 농촌지도교사로 경기도 화성군 샘골마을에 파견되어 왔다. 조그만 예배당 샘골교회를 빌어, 지원생은 많고 장소는 협소하여 오전, 오후, 저녁 3부제로 밤늦도록 가르쳤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냉대도 많이 받았으나 차츰 동네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최용신은 이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농촌계몽운동을 실천에 옮긴 선구자였다. 그 후 1934년 일본 고베신학교 유학중에 얻은 병과 과로가 겹쳐 1935년 나이 26세에 사망하였다.

21) 사세 충렬문(四世忠烈門;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호/안산시 와동 151)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김여물(金汝物)의 애국충정과 병자호란에서 청군에

게 패하자 순절로써 열녀정신을 지킨 4대 고부(姑婦)의 열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하사한 정문(旌門)이다. 광덕산 자락 김여몰의 묘역 아래 자리잡은 이 건물에는 김여몰의 충신정문과 열녀정문을 모셨다.

4대에 걸친 열녀는 정의공 김여몰의 후실인 평산신씨(平山申氏), 김여몰의 아들인 김류의 처 진주유씨(晉州柳氏), 김여몰의 손자 김정징(金慶徵)의 처 고령박씨(高靈朴氏), 김여몰의 증손자 김진표(金震標)의 처 진주정씨(晉州鄭氏)이다. 이들은 병자호란 때 적군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강화도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22) 문화 유씨 4정문(경기도 안산시 와리)

신동아 아파트 자리에 홍문앞자리라고 불리는 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선 중기의 명신 충숙공 유관(柳灌: 1484~1545)의 4정문이 있었다. 이는 충·효·열녀·충비의 정문으로 충신은 본인, 효자는 유관의 아들 유광찬, 열녀는 유광찬의 부인 신씨, 충비는 유관의 여종 갑이 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문이었다.

유관은 종종때 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인조 때 우의정·좌의정이 되었다가 명종이 즉위 하면서 윤원형·이기 등 소윤(小尹)의 모함으로 일어난 을사사화에 서 윤임·유인숙 등과 함께 삼흉(三兇)으로 몰려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도유배형에 처해져서 천으로 귀양갔지만 온양에 이르러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에 아들 광찬이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오다 천안서 죽자 그 부인 신씨는 이들 두 시체를 천신만고 끝에 천안에서 한양으로 모시고 와 장사지냈다. 또한 여종 갑이는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관을 무고했던 우의정 정순봉 집안의 노비로 들어가 전염병을 퍼뜨려 원수의 가족 들을 몰살시켰다. 즉 갑이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의 뼈를 구해다가 정순봉의 베개 속에 넣어 병을 전염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영조 때 세워진 4정문은 1973년 경기도 안산시 와리로 이전되었다.

23)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향토유적 제5호/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198-2)

조선 선조 때의 충신 한명윤과 열녀 박행장 부인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신·열녀문이다. 한명윤의 자는 매숙, 본관은 청주이며 선조 1년(1568) 시마시에 합격, 태학의 천거로 연은전 참봉이 되었다. 선조 23년(1590) 영동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던중,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활약, 그 이듬해 상주목사 겸 방어사로 왜적과 싸우다가 이 해 10월 전사하였다. 이후 이조참판에 추증되어 고향인 이곳에 충신문이 세워졌다.

한명윤이 출전하는 길에 박행장 부인에게 멀리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씨부인은 결연히 함께 죽음을 택하기를 원하면서 극구 피신하지 않았다. 얼마 후 왜적이 침입하자 가솔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내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겠느냐” 하면서 비수로써 자결했다. 선조는 이를 가상히 여겨 이곳에 열녀문을 내렸다.

24) 서흥 김씨 삼강정문(瑞興金氏三綱旌門;기념물 제77호/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산84-2)

서흥김씨 일문에서 배출된 충신 한 분과 효자 한 분, 열부 두 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다. 김충수(金忠守)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 죽산에서 접전하다 적에게 붙잡혔는데 아들 함(涵)이 부친을 구하고자 적진에 쳐들어가 함께 전사하였다.

함의 손부 온양 정씨(溫陽 鄭氏)는 병자호란 때 적병에 쫓기게 되자 못에 투신하였고 청주한씨(淸州韓氏)는 부군이 별세하자 슬하에 자식이 없어 부도(婦道)를 못지켰다하여 따라 순절하였다.

1606년(선조 39)에는 김함에게 효자 정문(旌門)이 내려졌고 1700년(숙종 26)에는 김충수에게 충신 정문이 내려졌으며 1737년(영조 13)과 1740년에는 두 부인에게 각각 열부 정문이 내려졌다.

삼강정문은 월향리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원래는 고삼저수지 쪽에 있었으나 후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25) 남양 홍씨 열녀 정려문(향토유적 제27호/화성시 송림동 산125번지)

조선영조 때 승정원 승지를 역임하였던 삭녕인 최태형의 처 열녀 남양 홍씨 부인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남양 홍씨는 최태형의 부인으로 조선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경현공 홍섬의 오대 손인 선릉참봉 홍신상의 딸이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병이 위독하자 주야 간병하고 단지주혈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으나 돌아가시자 따라죽기를 결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다가 47세때 자결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이를 가사히 여겨 정조 11년(1787)에 열녀정려의 명정이 내려져 이듬해 묘 아해에 정려가 건립 되었다.

27) 팔효문(八孝門;향토유적 제5호/연천군 증면 횡산리 168)

민간인 통제선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정려문(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그 동네에 세우던 문)으로 남양 홍씨 문중의 1효부와 7효자인 홍여공(洪汝恭)의 아내인 효부 동래 정씨(東來鄭氏), 효자 홍한경(洪漢卿), 홍림(洪霖), 홍범(洪範), 홍삼준(洪三俊), 홍삼석(洪三錫), 홍하적(洪夏績), 홍종옥(洪宗沃)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효부 동래 정씨는 시아버지가 등창이 걸려 치료할 방법이 없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종기를 빨아 3일만에 소생시킨 공으로 정려를 받았고 다른 7명의 효자들도 모두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으로 감동적인 일화를 남겨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한국 전쟁중 전체 건물이 소실되어 기단만 남아 있던 것을 1988년 남양 홍씨 연천 문중의 발의로 복원되었다.

28) 원주 원씨 가문 이씨 부인 열녀문(서울 양천구 신월2동 606-3)

열녀문의 주인공인 부인 이씨는 원주 원씨 가문에 출가해서 남편을 하늘과 같이 섬기며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동기간의 화목이 돈독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중병으로 눕게 되자 부인 이씨는 동분서주하며 널리 약을 구하고 밤을 세워 간호하였고 남편이 죽을 때는 손가락에 피를 내어 남편에게 먹이는

정성을 다했으나 천명은 어쩔 수 없어 남편은 결국 죽고 말았다. 사별한 남편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등 1주일 간을 단식하여 이십대 후반에 죽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조정에서는 1729(영조5년)에 전의이씨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열녀문을 하사하였다.

29) 회현리 충신, 열녀문(향토유적 제3호/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66)

회현리(會賢里) 가소(可巢)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문화류씨 가문(文化柳氏家門)의 정문(旌門)이다. 충신(忠臣) 류희진(柳希津)선생은 문화류씨 18대손으로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당시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재임하던 중 왜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당시 선조(宣祖)는 의주(義州)로 피난하여 명나라에 원병(援兵)을 청하던 시기였는데, 왜적은 포로가 된 류공(柳公)에게 국왕의 거처를 알릴 것을 재촉하면서 갖은 고문을 다 가하였다. 그러나 류공은 끝내 굽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혀를 깨물고 자결(自決)함으로써 애국충절(愛國忠節)의 표상(表象)이 되었다. 인조 5년(1627) 나라에서는 류공의 순절(殉節)을 기려 충신정각(忠臣旌閣)을 세우고 현판을 내려 표창하였다. 이 건물내 상단에 걸린 현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문화류씨 24대손인 류성중(柳聖中)의 부인 선산김씨(善山金氏)의 정절(貞節) 또한 후대에 길이 모범이 될 만하다고하여 정조 13년(1789) 열녀정려(烈女旌閭)를 내려 표창하였다. 이 건물 하단에 걸린 []이란 현판이 바로 그 열녀문이다. 현재 정문(旌門)이 새로 보수(補修)되어 있다.

30) 허씨 가문 며느리 효행비(향토유적 제9호/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29)

옥천국민학교 정문(正門) 좌측 약 100m 지점 마을 도로변, 연대미상. 옛날 허씨가문(許氏家門)의 며느리에 대한 효행비(孝行碑)로 구전(口傳)되어 오고 있다.

마을의 전설(傳說)에 의하면 신라 때 허씨가(許氏家)의 며느리가 홀로 된 시부(媼

父)를 모시고 곤궁한 살림을 하던 중 어느 날 양식(糧食)이 떨어져 크게 고민했다. 그녀는 겨우 개가 먹고 토한 보리쌀을 구해 시부의 밥상을 겨우 차릴 수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뇌성(雷聲)과 함께 비가 쏟아지자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비가 그친 뒤 눈 앞을 보니 금은 보화(金銀寶貨)가 쌓여 있었다는 것이며, 이후 가세(家勢)가 융성해지고 효성(孝誠)으로 시부를 모셔 마을 주민들이 효행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 비(碑)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의 조성(造成) 형태나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대략 조선 전기(朝鮮 前期)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여성생활 유적지

1) 암사동 선사유적지(사적 제267호/서울 강동구 암사동)

2) 경복궁 자경전(景福宮 慈慶殿;보물 제809호/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복궁 자경전은 왕비의 정침인 경복궁 교태전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왕이 승하하면 교태전에 있던 왕비는 대비(大妃)로 승격되어 정침인 교태전을 새로 중전이 된 왕비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 때 대비가 주로 사용하던 곳이 자경전이다. 현재의 자경전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고종 2년(1865)에 자미당(紫微堂) 터에 조대비(趙大妃, 神貞翼皇后)를 위해 지은 것이다. 준공 후 고종 10년(1873) 12월 화재로 인해 고종 13년 다시 세웠으나, 또 불에 탄 것을 고종 25년(1888)에 재건하였다. 현존하는 침전 가운데 옛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이다.

자경전 서북쪽에 설비된 침방(寢房)인 육실을 둔 복안당(福安堂)은 겨울을 위한 공간이고, 중앙부에 있는 자경전은 낮시간에 거처하던 공간이고, 동남부의 다락집 청연루(淸燕樓)는 누마루가 돌출되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며, 동쪽의 협경당(協慶堂)은 시녀들이 기거하던 곳이다.

자경전 후원(後園) 북쪽 담과 이어진 굴뚝에는 왕족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

하는 십장생(十長生) 무늬가 배풀어졌고, 서쪽 벽돌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상문자가 액자처럼 구성되어 있다.

3)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보물 제810호/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은 자경전 뒤꼇담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해 · 바위 · 거북 등 십장생은 장수(長壽), 포도는 자손의 번성, 박쥐는 부귀(富貴), 나티 · 불가사리 등은 악귀(惡鬼)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다. 십장생을 이와 같이 장식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로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 문방구류 · 배개모 · 자수 · 회사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원단에 궁궐에서 십장생도(十長生圖)를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

4)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보물 제811호/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은 왕비의 침전(寢殿)이었던 교태전(交泰殿)의 구들과 연결되었던 굴뚝이다. 교태전은 왕비의 중궁전(中宮殿)으로, 원래의 교태전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창덕궁으로 옮겨 현재의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이 되었고, 현재의 교태전은 최근에 복원한 것이지만, 굴뚝은 고종 당시 경복궁을 재건할 때의 것이다.

아미산은 교태전 일곽 뒤뜰에 경회루의 연못을 판 흙을 쌓아 만든 작은 가산(假山)이다.

5) 창덕궁 대조전(昌德宮 大造殿;보물 제816호/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대조전은 창덕궁 내전(內殿) 중 가장 으뜸가는 건물이다. 순조 33년(1833) 소실되었다가 이듬해 재건되었으며, 다시 1917년에 불에 탄 것을 경복궁에 있던 교태전(交泰殿)을 헐어 가져와 1920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 침실 측면과 후면에는 작은방을 두어 시종드는 사람들의 처소로 삼았다.

조선조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최고의 건물이며, 특히 서양식 가구를 갖춘 한말 궁궐의 내실 모습을 남겨두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6) 덕수궁(사적 제124호/서울 중구 정동 1-23)

덕수궁은 원래 성종(成宗)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1454~1488)의 집이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왕궁이 모두 불타서 1593년 행궁(行宮)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光海君)은 1608년 이곳 행궁에서 즉위한 후 1611년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이라 고쳐 부르고 7년동안 왕궁으로 사용하다가 1615년에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면서 이곳에는 선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만을 거처케 하였다. 1618년에는 인목대비의 존호를 폐지하고, 경운궁을 서궁(西宮)이라 낮추어 부르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廢位)되고, 인조(仁祖)가 이곳 즉조당(卽祚堂)에서 즉위하고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긴 이후 270년 동안은 별궁(別宮)으로 사용되었다. 1897년 고종 황제(高宗 皇帝)가 러시아 왕관에 있다가 환궁(還宮)하면서 이곳을 다시 왕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경운궁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규모도 다시 넓혔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1907년 순종(純宗)에게 양위(讓位)한 후, 왕궁이 창덕궁으로 옮겨진 후에도 이곳에 거처하였는데 이때부터 고종 황제의 장수(長壽)를 비는 뜻에서 덕수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이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돌아가셨다.

7) 창경궁(昌慶宮;사적 제123호/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은 성종 14년(1483)에 대왕대비인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 성종의 생모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 예종의 계비(繼妃)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를 모시기 위한 별궁으로 창건되었다. 창경궁 자리는 1418년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上王)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수강궁(壽康宮)이 있던 곳이다.

창경궁이 위치한 곳은 서쪽으로 창덕궁과 붙어 있고 남쪽으로 종묘(宗廟)

와 통하였다. 이 궁은 조선시대 왕궁 중에 유일하게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성 내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이라고도 불렸다.

정조는 1777년 통명전 북쪽 언덕 위에 왕의 생모인 홍씨(洪氏)가 거처할 자경전(慈慶殿)을 건립하고 그 옆에 환취정(環翠亭)을 다시 지었다.

숙종은 장희빈(張禧嬪)을 총애하다가 희빈을 처형하고 그녀의 일가를 숙청하였는데 당시 희빈은 주로 궁내의 취선당(就善堂)에 거처하였다.

낙선재(樂善齋) 지역은 원래 창경궁에 소속되었었으나 지금은 창덕궁 경내에 있다.

8) 운현궁(사적 제257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98-50)

운현궁은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생부(生父)인 흥선군(興善君)이하응(李昰應)의 저택으로서, 고종이 탄생하여 즉위하기전 12살까지 살았던 잠저(潛邸)이기도 하다. 원래 조선시대 일반 상류주택이었던 이 건물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영역이 크게 넓혀지고 건물들도 새로 더 들어서며 흥선대원군이 10여년간 집정하며 정치를 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운현궁’ 이름은 서운관(書雲觀, 관상감의 별칭)이 있는 앞의 고개라 하여 ‘운현(雲峴)’이라 불렸다.

원래 운현궁은 현재의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관(洋館), 일본문화원, 중앙문화센터, 운현초등학교 일대까지 포함된 넓은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1996년 새로 중수하여 개방한 노안당(老安堂), 노락당(老樂堂), 이로당(二老堂)의 세 건물과 부속 행랑채를 운현궁이라고 부른다.

세 건물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원군의 사랑채였던 노안당, 안채인 노락당, 그리고 별당인 이로당(二老堂) 순서로 자리잡고 있다.

노락당은 운현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노락당 남쪽의 남행각은 노락당과 함께 안마당을 형성하였다. 이곳은 명성황후 민씨가 삼간택을 마친 후 왕비수업을 받았던 곳이고, 고종 3년 고종과 명성황후 민

씨의 가례가 있었던 곳이다.

별당인 이로당은 바깥으로 출입문을 내지 않은 지극히 폐쇄적인 口자형 건물이다. 노각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오로지 안채에서만 드나들 수 있었던 비밀스럽고 은밀한 건물이었다. 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가 거처하던 곳이다.

9) 종묘 정전(宗廟正殿;국보 제227호/서울 종로구 훈정동 5-1)

종묘 정전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왕실의 사당건축이다.

10) 칠궁(사적 제149호/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칠궁은 후궁 7인의 묘우(廟宇)로서 원래 이 자리에는 육상궁(毓祥宮)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융희 2년(1908)에 저경궁(儲慶宮)·대빈궁(大嬪宮)·연우궁(延祐宮)·선희궁(宣禧宮)·경우궁(景祐宮)이 육상궁의 경내에 합사(合祀)됨으로써 육궁(六宮)이 되었고, 1929년에 덕안궁(德安宮)이 또한 이 곳으로 옮겨짐으로써 칠궁이 되었다.

육상궁(毓祥宮)은 영조의 생모 숙빈(淑嬪) 최씨를 제사하는 묘우로서 영조 원년(1725)에 세워 동왕(同王) 20년에 육상묘(毓祥廟)라 하였다가 동왕 29년에 육상궁이라 고쳤다.

저경궁(儲慶宮)은 원종(元宗, 인조의 부, 추존)의 생모 인빈(仁嬪) 김씨의 묘우로서 영조 31년(1755)에 세워 남부 회현방 송현(지금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었다.

대빈궁(大嬪宮)은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를 제사한 사당으로서 경종 2년(1722)에 세워 중부 경행방(慶幸坊, 지금 종로구 낙원동 24번지)에 있었다. 희빈 장씨는 경종 2년에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으로 추존된 바 있다.

연우궁(延祐宮)은 진종(眞宗, 정조의 부, 추존)의 생모 정빈(靖嬪) 이씨를 제사한 사당으로서 정조 2년(1778)에 세워 북부 순화방에 있었다.

선희궁(宣禧宮)은 장헌(莊獻,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映嬪) 이씨를 제사한 사당으로서 영조 40년(1764)에 세워 의열묘(義烈廟)라 하였다가 정조 12년에 선희궁으로 고쳤으며, 북부 순화방(지금 종로구 신교동 1번지)에 있었다.

경우궁(景祐宮)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綏嬪) 박씨를 제사한 사당으로서 순조 23년(1823)에 창덕궁 안에 세워 현사전(顯思殿)이라 하였다가 그 이듬해 북부 양덕방(陽德坊, 지금 종로구 계동, 구 휘문고등학교지) 용호영(龍虎營) 자리에 사당을 새로 짓고 그를 경우궁이라 하였다.

덕안궁(德安宮)은 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의 생모인 귀비(貴妃) 엄씨의 사당으로서 먼저는 경운궁 안에 있었다가 1913년 지금 태평로 1가 61번지에 새로 세웠었다.

11) 정업원 구기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3)

숭인동 17번지, 그 터가 남아 있다는 정업원은 왕실과 관계가 깊었던 여승이 있던 절이다. 정업원은 원래 고려시대에 개성에 있었던 것을 조선 건국초에 한양으로 옮겨 세운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공민왕의 왕비가 정업원의 주지로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 11년경에는 정종비의 동생이 주지로 있었고, 세종 때에도 역시 왕족의 한 사람이 정업원의 주지로 있었는데, 이 절의 여승 역시 모두 사대부의 집안에서 나왔고, 그 수가 수십 명에 달했다. 이 정업원은 여승의 절로 왕실의 비호를 받아 세종 30년까지 존속하다가 조정의 배불정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정업원이 다시 세워진 것은 세조 3년의 일이다. 세조는 정업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단종비인 정순왕후가 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차례에 걸쳐 많은 노비를 지급한 일도 있다.

그러나, 성종 때 도성 안팎의 여승의 풍기가 문란해지자 정업원도 혁파해야 한다는 중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다가 결국 연산군 때 혁파되고 말았다.

연산군 때 문을 닫은 여승의 절, 중종 때 정업원을 다시 세우자는 여론이 일자, 명종 때 다시 문을 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업원이라 하지 않고, 인수

궁이라 해서 후궁들의 여생을 보내는 곳으로 했다. 처음엔 인수궁이라 부르다가 다시 옛이름대로 정업원이라 했는데, 이 곳 정업원에는 ‘구기비’가 세워져 있다. 이 정업원 ‘구기비’는 영조가 이 곳에 와서 보고, 단종비의 옛일을 되새기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실제로 단종왕비 재세시의 정업원은 창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내에 있었다. 후세에 와서 정업원이 성 밖인 동대문 밖에 있었다는 전설에 의하여 영조가 단종비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현위치에 비를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정업원터 동쪽에 솟아 있는 동망봉(東望峰)은 정순왕후 송씨가 정업원에 거처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곳에 올라가 멀리 동쪽의 영월을 바라보면서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해서 동망봉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영조 47년, 영조임금이 이 곳을 돌아보며 정업원 터에 비를 세우고, 이 봉우리의 바위에도 친필로 동망봉이란 세 글자를 새기게 했다. 그런데, 그 후, 이 동망봉은 채석장으로 변해서 허물어지고, 영조의 친필로 된 ‘동망봉’의 글씨는 흔적도 없어지고 말았다.

정업원 터 옆에는 비구승들이 거처하는 청통사가 있다. 이 절은 고려 의종 때 희종법사가 창건했다고 하며, 이 절 동북쪽 고개 너머에 보문사가 설립된 후 43년 만에 창건됐다고 해서, 이 절을 ‘새 절승방’이라 한다고 한다. 송인 2동의 동묘 맞은 편 지역에는 예전에 싸전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싸전골’ 또는 ‘미전동’이라 했다. 여주-이천의 좋은 쌀은 배에 실려 이 곳에 왔다가 수레에 실려 성루 장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싸전이 있던 부근 마을에는 장터가 있던 까닭에, ‘장거리’라 했다. 그런데, 이 장거리에는 단종비 정순왕후에 얽힌 옛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 곳에는 여인들만이 모이는 채소시장이 컸다고 한다. 원래는 동대문 밖이 채소가 많이 나는 동네지만, 여자들만이 모여서 채소를 파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옛날 유교적인 관습에 젖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녀자들이 외출조차도 맘대로 못했는데, 부녀자들이 한곳에 모여 장을 서게 한 데는 그 까닭이 있다. 그러니까 단종비 정순왕후가 시녀 세 사람만 데리고 정업원에서 하도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 근방에 사는 부인네들이 정업원 앞에서 장을 서게

해, 은밀히 송비에게 채소를 갖다 바쳤다는 것이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고, 단종의 왕비인 송비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정에서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푸성귀조차 마음대로 갖다 바치지 못하자 장을 핑계삼아 푸성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12) 양주 백수현 가옥(楊州白壽鉉家屋;중요민속자료 제128호/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

이 집은 조선 말기에 명성왕후 민씨의 피난처로 지었다고 전하는 집이다. 본래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별당채와 행랑채를 두루 갖춘 전형적인 사대부 집이었으나 현재는 중문칸과 안채 그리고 행랑채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기단석과 초석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구한말의 건축기법을 따르고 있으나 석재의 크기나 가공수법 그리고 기둥 등 목재의 크기나 치목수법 등에서 궁궐건축에 나타나는 수법이 보여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다는 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3) 진접 여경구 가옥(榛接呂卿九家屋;중요민속자료 제129호/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

이 집은 마을에서는 연안 이씨(延安李氏) 동관택이라고 부르며 여경구의 장인인 이덕승의 8대조가 약 250여년 전에 지었다고 전해오는데, 명당의 터에 집을 지어서 자손대대로 큰 복을 누려왔다고 한다. 이 집에는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이 비교적 옛모습을 잘 지니고 있는 편이다.

안채에 들어서려면 곳간채 모서리에 설치된 중문을 통해야 하는데 안채가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출입의 방향을 교묘하게 유도했다. 이는 남녀유별의 의식이 있었던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구성기법이라 할 수 있다. 안방의 뒤쪽으로는 골방과 뒷방, 그리고 광이 있어 부엌과 함께 뒷마당을 이루게 된다.

14) 화성 정용채 가옥(華城鄭用采家屋;중요민속자료 제124호/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조선 말기에 지어진 살림집으로 안채, 사랑채, 대문채, 행랑채 등이 모두 갖춰진 50여칸 규모의 대가이며, 통칭 月자형이라 부르는 배치를 보여주는 집이다.

대문칸은 상량문에 의하면 1887년에 세워졌으며, 안채는 이보다 앞선 19세기 초엽에 세워진 것으로 전한다. 사랑채와 안채가 남북으로 길게 놓이고 북측의 대문채와 연결된 행랑채가 동쪽을 길게 가로막아 대문으로부터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이 차례로 놓였다.

사랑채의 남쪽 2칸은 방으로 꾸몄는데, 뒤쪽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복도를 두어 안채 대청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외건상 내외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안채와 행랑채가 맞닿는 부분에는 각각 중문을 두어 폐쇄성이 매우 높다. 안마당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꾸며짐으로써 대부분의 안살림 기능은 뒷마당 쪽으로 배치되었다. 채마밭과 우물, 장독대 등이 있는 뒷마당에서 대부분의 안살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5) 남산 한옥마을(서울시 중구 필동 일대)

-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조선조 제27대 순종의 황비인 순정효황후 윤씨가 열세살(1906) 나이로 동궁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윤씨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건축양식으로 보아 1907년 순종의 즉위로 윤씨가 황후가 된 이후인 1910년대 부원군의 궁 집으로 새롭게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은 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에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 옮기질 못하고 건축양식 그대로를 본떠 이곳에 복원하였다.

-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서울시 민족자료 제24호)

조선조 제27대 순종의 장인 해풍부원군 윤택영이 그의 딸 윤황후가 동궁계

비에 책봉되어 창덕궁에 들어갈 때 지은 집으로 전한다. 동대문구 제기동 224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전 복원하였다.

-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서울 팔대가중의 하나로 전해지는 이 가옥은 조선조 제25대 철종의 후궁 숙의 범씨 소생인 영혜옹주의 부군 박영효가 살던 집이다. 종로구 관훈동 30-1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에 이전 복원하였다.

- 오위장 김춘영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조선조 말기 오위장을 지낸 김춘영이 1890년대 지은 집이다. 종로구 삼청동 125-1번지에 있던 것을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전복원하였다.

- 도편수 이승업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조선조 말기 홍선대원군에 의하여 경복궁이 중건될 때 도편수(목수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업이 1860년대 지은 집으로 중구 삼각동 36-2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전복원하였다.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다.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1) 선잠단 터(사적 제83호)

선잠단은 잠신(蠶神)으로 전해 오는 서릉씨(西陵氏)의 제단으로 지금 동소문 밖 성북동에 있었다. 그리고 제사는 3월로서 길한 사일(巳日)을 택하여 거행되었다. 융희 2년(1908)에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으로 옮기어 배향하게 됨으로써 선잠단은 폐지되었고, 그 터는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잠실

태종은 양잠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잠실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태종 16년 2월 우선 지방에 시범 잠실도회를 설치하니 이것이 잠실도회의 효시이다. 그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양잠법을 견문시키고 이를 본받아 양잠 기술을 익히도록 함에 있었다. 서울지역에 잠

실을 설치한 시기는 세종때로 추정된다. 조선전기에는 서울에 3개의 잠실이 설치되었다. 즉 연희궁의 서잠실과 아차산 아래 동잠실(현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잠원동 지역의 신잠실이 있었다.

신잠실의 정확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용재총화』 권10 제4조에 『요사이 또 설치한 신잠실은 한강 아래쪽 원단동에 있다』라고 한 외에 『원단은 한강 서쪽 동네에 있는데 세조가 일찍이 하늘에 제사하기 위해 거동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곳이 현 잠원동지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잠실의 설치연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용재총화』가 성조~연산군 재위 때에 저술 되었으므로 적어도 신잠실은 이 기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잠실은 동·서잠실과 함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 초까지 잠원동에는 뽕나무 묘목을 재배하고 잠종을 보급하였으며 잠업강습소가 세워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잠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양잠을 통해 견사를 생산하여 호조에 공납하며, 둘째 잠종을 보급하며, 셋째 상묘를 길러 관사와 민가에 배포하고, 넷째 백성들에게 양잠기술을 습득시키는 일 등을 맡았다.

1963년 서울에 편입될 때 이미 현 송파구 (당시는 강동구)에 잠실동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해 잠실리의 『잠』자와 신동면 신원리 『원』자를 따서 잠원동이라 칭한 것이다. 실제로 이곳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였다.

3) 잠원동 잠실리 뽕나무(서울특별시 지방기념물 제1호/서울서초구 잠원동 1-54)

신동초등학교 북서쪽 잠원로변(한신아파트 119동 앞). 당초 원줄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자랐으나 지금은 가지 중간부분이 잘린 고사목(枯死木)으로, 이 나무가 잠실리 뽕나무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시대 이 일대가 뽕나무 밭으로 여기에 신잠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인데 잠실은 견사(絹絲)를 만들기 위해 잠종(蠶種)을 받아서 뽕잎을 먹이고 누에를 치는 곳을 말한다.

잠실을 관장하는 잠실도회(蠶室都會)는 당초 중국의 예에 따라 궁중(宮中)에 잠실을 설치하여 중전과 세자빈이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치는 일의 공들임

을 익힘으로써 백성(百姓)들에게 길쌈시범을 보이려고 한 것으로 이곳은 뽕나무 묘목재배, 잠종보급 및 잠업강습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대한잠사회에서 주변에 뽕나무 3주를 심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4) 전환국 터

설립 당시에는 종로구 원서동 소재의 대가(大家)를 전환국 건물로 사용했다고 전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1885년 전환국 건물을 현재의 남대문초등학교의 북쪽으로 생각되는 당시의 선혜청(宣惠廳) 별창(別倉) 자리에 신축했는데, 이것이 경성전환국이다. 1892년 전환국을 서울에서 지금의 인천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옮겼다가, 1900년 다시 용산의 군자감(軍資監) 창고(지금의 용산구 원효로 근처)로 옮겼다

전환국 : 1883년(고종20) 8월 7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폐기관.

개항 이후 고종은 종래에 통용되어오던 상평통보로 대표되는 동전 이외에 금전·은전과 지폐를 동시에 유통시킴으로써 근대적 본위화폐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면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1883년 악화인 당오전을 발행하게 되었다. 당오전 주조시 처음에는 종래와 같이 여러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주출(鑄出)되었으나 이러한 임시적 주전소만으로는 계속 다량의 주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의 국(局)을 설치했다.

그러나 경성전환국은 대체로 시주화를 주조하는 데 그치고 신식기계를 이용한 다량의 당오전을 주조하지는 않았다. 1891년 은본위제를 표방하는 ‘신식화폐조례’가 반포되면서 이에 필요한 화폐주조를 위해 1892년 인천전환국이 설립되어 5냥 은화 1만 9,923원을 비롯하여 1냥 은화,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 등을 소량 시주했다.

1894년 일본과 동일한 은본위제를 표방한 ‘신식화폐발행장정’이 선포되면서 본위화폐인 5냥 은화의 주조가 사라지고 주조이익이 큰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1900년 용산구 원효로에 용산전환국이 설립되었으며, 내부 시설로 화폐주조시설 외에 우표인쇄를 위해 설치된 농상공부 인쇄소를 흡수

함으로써 지폐 제조에 필요한 제지고와 인쇄소가 설치되었다. 사실상 전환국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여 실제의 유통화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백동화를 대량으로 주조·발행한 용산전환국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시주화의 제조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산전환국에서 여성노동자를 모집하여 썼다.

5) 경성 방직공장(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면사, 가공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는 면방업체. 1919년 김성수에 의해 설립됨. 일제시기 여성공장노동자의 생활 터전이었다.

라. 여성교육·운동 유적지

1) 진명부인회 집회지

- 1907년 6월 15일 장충단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지고 하란사 등 남녀 연사들이 여성교육의 필요성 역설. 양규의숙 여학생들이 개회식이 제창.
- 장충단[獎忠壇]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獎忠洞)에 있는 초혼단(招魂壇). 1900년(광무 4) 고종은 원수부(元帥府)에 명하여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 이하 여러 장병을 제사지내는 단(壇)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원수부는 전에 남소영(南小營)이 있던 현 위치에 단을 설치하였고, 고종이 장충단이라 명명하는 한편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매년 춘추로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러자 이듬해 육군법원장 백성기(白性基)가 상소하기를 “임오군란에 희생된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판서 김보현(金輔鉉)·민겸호(閔謙鎬), 참판 민창식(閔昌植)과 갑신정변의 희생자 찬성(贊成) 민태호(閔台鎬), 판서 조영하(趙寧夏)·민영직(閔泳稷), 참판 윤태준(尹泰駿)·이조연(李祖淵), 중관(中官) 유재현(柳載鉉) 및 을미사변에 희생된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 등도 전사한 장병 못지 않은 순국 충렬의 인사이니 마땅히 제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자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함께 장충단에 제향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같은 항일·배일(排日)의 인물들을 장충단에 제향한 일은 장병들을 크게 감격 고무시켰으며 일제의 횡포가 극심함에 따라 일반의 장충단에 대한 경모심도 더욱 커졌다.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하여 애창된 《한양가(漢陽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 그러한 일면을 말하여 준다. “남산 밑에 지은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바친 신령 뵈시네/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장한 그분네.” 장충단 건너편 동쪽 길목에는 장충단비(獎忠壇碑:지방 유형문화재 1)가 있다. 이 비는 고종 임금의 친필로 된 ‘獎忠壇’의 3자와, 뒷면에는 민영환(閔泳煥)이 지은 글이 새겨져 있다.

2) 국채보상부인회 결성 유적지

- 서울 옛 대안동 김부인댁 터

3) 3·1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 서대문독립공원
- 수원 옛 자혜병원, 경찰서 터

4)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성 유적지

- 정신여학교(옛 종로구 연지동 터)

엘레스가 정동(貞洞) 제증원 사택에 설립했던 사립여학교. 1887년 6월, 미국 북장로교의 여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레스(A.J. Ellers)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동(貞洞)의 제증원 사택에 정동여학당(貞洞女學堂)이란 이름으로 설립한 사립여학교이다. 처음에는 5세의 여아 1명으로 시작하였고 초대 학당장은 엘레스, 성경과 산술 두 과목만을 가르쳤다. 첫 5년 동안에 52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생활관습과 예절은 한국식을 존중하여 하루에도 10여 차례의 꿇어 앉는 평절을 시켰다고 한다. 1895년 연지동으로 이전하면서 사립연동학교(私立蓮洞學校)로 교명을 바꾸었는데, 이때의 총학생수가 10명,

10월 20일에 첫수업을 시작하여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 되었다.

당시의 교과목으로는 성경·한문·역사·지리·산술·도화·습자·체조·가사·침공·위생 등을 가르쳤고, 수업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소학교 과정을 마치면 여학교 과정으로 올라 졸업해 나갔다. 학교 옆의 연동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보았는데, 일요일의 합동예배 때에는 전교생이 쓰개치마를 쓰고 구리개교회(동현교회: 명동 소재)까지 떼지어 걸어가는 모양이 장안의 화제였었다.

1907년에 제1회 졸업생 11명을 배출하였고, 1909년 정신여자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1912년에 사범과와 보수과를 병설하였다가 1915년에 폐지하였다. 1911년, 학제변경으로 여자중등교육기관이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편되었으나 일제 학무국은 정신여자중학교를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지정하여 주지 않고 탄압하였는데, 동창들이 운동을 벌여, 1928년에 선교부의 지정학교로 지정받았다.

당시 지하조직을 통해 3·1운동에 동참했던 ‘대한민국애국부인회’회장에 4회 졸업생인 김마리아가 선출되어 그 본부를 정신여학교에 두었던 관계로 이 학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극심했다. 또 1919년 1월 고종황제 국상 때에는 복상하고 항거하였고, 1926년 6·10만세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신여자중학교에서 30여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1939년 일제의 국어말살정책과 신사참배(神社參拜)에 대한 거부로 교장이 해직되고 학교 설립재단이 해체되기에 이르렀으며, 친일 한인의 손에 학교의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1945년 3월에는 풍문학원(豊文學園)에 합병되어 정신여학교는 실질적으로 폐교되었다. 8·15광복 후 1947년 5월 김필례(金弼禮)가 교장에 취임하면서 복교하였고, ‘교육법’에 따라 1950년 6월 정신여자중학교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어 두 학교로 개편되었다. 1978년 12월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송파구 잠실동의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여 교세를 확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조선여자교육협회

- 1920년 4월에 차미리사(車美理士)에 의해 조직된 여성계몽 교육단체.
- 야학 터 : 당시 염정동 교회. 현 새문안교회 지하실
- 근화학원 터 : 청진동 옛 터
- 근화여학교 터 : 현 덕성여중 자리

차미리사는 기독교 신자로써 중국, 미국 등지에서 10여년간 유학을 하고 귀국한 뒤 배화여학교(培花女學校) 사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문맹여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소박데기 여성들에게 신생활방법과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1919년 종교예배당 종각을 빌려 여자야학을 시작하였으며, 부녀대중교육을 확대. 진흥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조선여자교육협회를 조직하였다.

또 이 협회는 야학운동에 열성적이었던 신봉조(辛鳳祚)의 제의에 따라 전국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1921년 6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만 4개월간에 걸쳐 전국 13도의 7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몽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순회강연회는 우리나라 부인계몽운동의 첫 횃불이 되었으며 이후의 여성계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이에 참여한 단원은 김선(金善), 이은(李銀), 백옥복(白玉福), 허정숙(許貞淑), 김순복(金順福), 김은수 등이었다. 그리고 이 강연회는 지방여성의 각성은 물론 사회 전반을 계몽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내외(內外) 질서를 위하여 여자가 쓰던 쓰개치마와 샷갓을 벗게 하였고 소박맞은 신세의 지방 여성들이 비탄을 딛고 학문에 정진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서울 유학을 하기도 하였다. 이 협회의 여성계몽운동은 학령초과 소녀, 미혼여성 및 기혼부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줄 여학교의 설립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그결과 1921년 10월에는 근화학원(槿花學園)으로 발전, 개편되었다.

6)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 인사동 태화여자관 내 사무소
- 서대문 회관 터

7) 토산애용부인회

- 사무소: 서대문 일정목 민우회관 터, 관훈동 물산장려회관 터
물산장려운동의 하나로 조직된 여성단체.

8) 조선여성동우회 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터

1924년 5월 4일 발기하여 5월 10일에 창립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이념 여성단체다. 발기인은 고원섭(高遠涉), 김필애(金弼愛), 김현제(金賢濟), 김성삼(金聖三), 박원희(朴元熙), 오수덕(吳壽德), 우봉운(禹鳳雲), 정칠성(丁七星), 주세죽(朱世竹), 허정숙(許貞淑), 정칠성(丁七星), 이춘수(李春壽) 등이다.

기존의 계몽적 여성교육론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주장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여자는 가정과 임금과 성의 노예가 될 뿐이요, 생활에 필요한 각 방면의 일을 힘껏 하여 사회에 공헌하였으나 횡포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보수는 교육을 거절하고 모성을 파괴할 뿐이다. 더욱이 조선여성은 그 위에 동양적 도덕의 질곡에서 울고 있다. 비인간적 생활에서 분기하여 굳세게 굳세게 결속하자”고 하였다.

사회진화 법칙에 따라 신사회 건설과 신여성운동의 일꾼을 훈련·교육하는 것과 여성이 단결하여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령으로 정하였다. 창립 2년 만에 회원이 7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무산계급 의식을 고취하는 강연회를 통하여 활동범위를 넓히려 하였으나 1925년 사회주의 계열의 파벌분쟁과 연관되어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로 나누어졌다.

1926년 동경 유학생 황신덕(黃信德)·이현경(李賢卿)·정칠성이 귀국하면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통합하여 1927년 여성단일단체인 근우회(槿友會)를 조직, 이에 합류하여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9) 근우회

- 창립대회 : 종로 기독교청년회관

1927년에 창립하고 1931년에 해산된 여성 항일구국운동 및 여성 지위향상 운동 단체이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된 직후, 자매단체의 성격을 띠고 그 해 5월 민족주의 여성운동계의 김활란(金活蘭)·유영준(劉英俊)·유각경(兪珏卿)·최은희(崔恩喜)·현신덕(玄信德) 등과 사회주의 여성운동계의 박원민(朴元玟)·정종명(鄭鍾鳴)·주세죽(朱世竹) 등이 주동이 되어 한국 여성의 대동단결을 꾀하고 모든 운동을 효율화하여 새로운 여성운동을 전개하려는 취지로 창립하였다.

강령은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향상이었으며, 운동 목표는 봉건적 굴레와 일제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였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각지와 일본 및 만주에 지부를 두었다. 본부에는 재무부, 서무부, 선전조직부, 교양부, 정치연구부, 조사부를 두었다.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2명 이상의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으며, 회비를 내어야 했다.

1929~1930년에는 지회의 수가 70여 개로 크게 늘었으며, 회원도 1929년 5월 2,900여 명이었다. 도쿄[東京]·간도(間島)·창춘[長春] 등 국외에까지 조직을 확장하였다.

주요 활동은 여성문제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야학 실시, 문맹 퇴치, 여공 파업의 진상 조사, 광주학생운동 및 각종 항일학생운동 지도와 지원 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자들인 정종명·정칠성(丁七星)·이현경(李賢卿) 등이 점차 그들의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함으로써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자들과 사상적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1931년 신간회의 해체를 전후하여 해산되었다.

10) 초대 여자유학생 환영회 행사장

- 경희궁(사적 제271호)

경희궁은 서울의 우백호인 인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경희궁은 원래 조선 태조 이성계의 집이 있어 새문안대궐 또는 서궐이라 불렸었다. 그후 왕족의 사저로 사용되어 오다가 광해군 8년(1616)에 이 새문안대궐 자리에 왕기(王氣)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광해군이 이를 눌러 없애기 위해 이 자리에

별궁을 짓고 경덕궁이라 하였으며, 영조36년(1760)에 궁의 이름을 경희궁이라 개칭하였다.

11) 여의사, 여성 병원 관련 유적지

- 보구여관(保救女館)

서울시 중구 정동 이화여고 구내 터, 동대문 이화여대부속병원 전신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1887년(고종 23) 선교사 W.B.스크랜턴의 제안으로 미국 감리교 여성의사인 M.D.하위드가 서울 정동(貞洞) 이화학당에 세운 전문 여성병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이다. 병원 이름은 명성황후가 하사하였고, 하위드가 2년 만에 귀국한 뒤에는 스크랜턴에 이어 M.D. 셔우드가 부임, 최초로 여성 의학교육을 실시해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김점동)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1892년에는 미국 볼드윈 여사가 한국 여성운동과 의료사업을 위해 기부한 자금으로 동대문 분원인 볼드윈 시약소(Baldwin Dispensary)를 설치, 여성 의료사업의 폭을 넓혔다. 1903년 간호사 M.J.에드먼드가 보구여관에 간호양성소를 설립한 뒤 1906년 세브란스 병원 간호양성소와 합쳤고, 1912년 동대문에 현대식 건물을 준공해 해리스기념병원(The 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이라 부르다 1930년 동대문부인병원을 거쳐 1945년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하였다. 한국 여성 의료사업의 길을 열었고, 많은 간호사와 의료진을 배출하는 등 초창기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2) 최초 개업 부인의원

- 유영준의 서대문 영혜의원 터

13) 승동교회(勝洞教會;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0호/서울 종로구 인사동 137)

승동교회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교회로 출발하였다. 승동교회는 경기도 내 장로교회의 모교회적(母教會的)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교

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먼저 헤론(John W. Heron)이 1894년 동현(銅峴)에 홍문동교회(弘文洞教會)를 세웠다. 이 교인 중에는 독립협회계(獨立協會系)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선교사를 구타하여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일로 교인들은 분파되어 각기 교회를 세웠다. 독립협회계 교인들은 1904년 승동교회를 세웠고, 나머지 교인들은 남대문교회로 발전했다. 남대문교회는 북장로교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20일 이 교회 지하에서는 당시 경성의 각 전문학교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 교회에서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가 창립되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봉사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승동교회는 일제 때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14) 정동교회(사적 제256호/서울 중구 정동 34-3)

정동교회는 한국 개신교회의 최초 교회며 한국 신문화의 요람지며, 3·1운동의 한 발원지였다. 이 건물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구 용산지방 소속 교회 건물이다. 정동교회의 전신은 베델예배당(Bethel Chapel)으로서 고종24년(1887) 10월 미국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Appenzeller, H. G.)에 의해 세워졌다. 베델예배당은 소규모 기와집으로서 교인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식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껴 고종 32년(1895) 9월에 착공, 이듬해 12월 26일 헌당식(獻堂式)을 가졌다. 붉은 벽돌로 된 새로운 예배당은 최초의 현대식 개신교(改新敎)교회건물이며, 현재 교회 구내에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신관을 증축함으로써 신·구건물이 병존하고 있다.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서, 신문화의 요람지며 3·1운동의 발원지였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이 교회 신도들은 독립협회운동·여성해방운동·인권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공헌하였다. 정동교회는 처음부터 배재·이화학당과 한몫을 이뤄 출발, 서재필·윤치호·이승만·김규식·신흥우·조병옥·유관순·김활란 등 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조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도왔다.

15) 여성교육 관련 유적지

- 관립 한성고등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 종로구 도림동 터, 재동 터
- 이화학당 : 중구 정동 이화여고 구내 터
- 배화여학교 : 종로구 내자동 터, 누하동 배화여고 과학관, 필운동 배화여고 본관
- 진명여학교 : 종로구 창선동 터
- 정신여학교 : 정동교회 구내 터, 종로구 연지동 터
- 태화여자관 여자야학부 : 종로구 인사동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이화여전 : 최초 여성전문학교, 신촌 이화여대
- 조선약학교, 조선약학전문학교 : 을지로6가 터

마.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1) 무악재 입구 홍제원[弘濟院] 개울 터

- 무악재 : 서울 종로구 현저동(峴底洞)과 서대문구 홍제동(弘濟洞) 사이를 잇는 고개. 인왕산(仁旺山)과 안산(鞍山:母岳) 사이의 안부(鞍部)를 넘는 고개로, 그 명칭은 조선시대 초기에 한양(漢陽)을 도읍으로 정하는 데 공이 컸던 무학대사(無學大師)의 ‘무학’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악재는 한양의 북서쪽 경계이자 서도(西道:황해도·평안도의 통칭)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왔고, 특히 명(明)·청(淸) 나라의 사절들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관문 구실을 하여, 고개 밑(현재의 독립문 자리)에 사절을 맞는 모화관(慕華館)·영은문(迎恩門) 등이 세워져 있었다.
- 홍제원 : 조선시대 국영(國營) 여관. 서울~의주가로(義州街路)에 설치했던 것으로, 원명은 홍제원(洪濟院)이라고 했으며,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었다. 이 여관은 중국의 사신들이 서울 성안에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묵던 공관(公館)으로서 1895년(고종 32)까지 건물이 남아 있었다. 병자호란이후 청군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귀향하기 시작하자 그들

에 대한 실절 문제로 논의가 분분했다. 나라에서는 이 환향녀들이 청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목인 무악재 홍제원 개울에서 몸을 씻게 한 후 그로써 모든 치욕은 씻긴 것이니 이후 이 여성들의 정절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 행실이 나쁜 여자를 지칭하는 화냥년은 이 환향녀에서 유래된 것이다.

2) 숙정문

성북동 계곡 막바지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북문이라 부르는 숙정문이 나타난다. 숙정문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숙청문이라 했다. 나아갈 숙(肅)자와 맑을 청(淸)자를 써서 숙청문이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편안할 정(靖)자를 써서 숙정문이 됐다.

창의문(자하문)과 숙정문은 한양 4대문 4소문의 하나로 민간에서는 그냥 북문이라 불러왔다. 경복궁의 주산인 백악, 그러니까 북악산의 동쪽과 서쪽 마루턱에 위치하고 있는 도성의 북문인 숙정문과 창의문은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마찬가지로 태조 5년에 창건됐다.

태종 13년 풍수지리의 연구학생으로 있던 최양선이란 사람이 “북한산의 동쪽 능선과 서쪽 능선은 경복궁의 양팔과 같은 것인데 동쪽 능선에 있는 숙청문과 서쪽 능선의 창의문을 사람들이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지맥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건의, 이 숙청문은 폐쇄되고, 그 일대에 소나무를 심어서 통행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 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이 높고 험해서 통행이 어려워 폐쇄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옛날에는 가뭄이 심하면 숙청문과 창의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가뭄이 계속되면 먼저 종묘와 사직, 명산과 큰내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숭례문을 닫고, 숙청문과 창의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것은 북쪽은 음이고 남쪽은 양이기 때문에 양을 억누르고 음을 부추겨야 비가 온다는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옛날에는 시장을 옮겨 비를 빌기도 했다. 왕조실록에 보면, 몹시 날이 가물면 남대문을 폐쇄하고 북문을 개방하고, 동시에 종로에 있는 저자를 구리개

나 남대문 안으로 옮기길 수없이 하고 있다. 시장을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임금이 관장하는 조정은 양이요, 왕후가 관장하는 저자는 음이기 때문에 남쪽의 왕성한 양기를 시장의 음기로 중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다.

숙정문을 폐쇄하게 된 데에는 경복궁의 양팔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풍수 지리설에 의한 이유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다. 이 성문을 열어 두면 장안의 여인들이 풍기가 문란해진다고 해서 이 숙정문을 굳게 닫아 버렸다고 한다.

순조때 실학자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은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纂散稿)’에 ‘숙정문은 음의 자리에 있어 열어도 서울 장안의 여인네들이 바람난다’고 쓰고 있다. 이는 정월 보름 이전에 숙정문을 세 번 오가면 액운이 없어진다고 해서 부녀자들의 나들이가 많아지자 남정네들도 모여들어 풍기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설이 퍼진 것이라 한다.

3) 파주, 여주 지명 유래

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1417~1468)은 세종의 2남 문종의 아우. 어머니는 소헌왕후 청송심씨이고 할머니는 원경왕후 여흥 민씨이며 비(妃)는 파평 윤씨 윤번의 딸 정희왕후이다. 1428년(세종 10) 수양대군에 봉해지고 단종이 어린나이로 즉위하자, 한명회와 권람의 모의로 세조는 왕위를 빼앗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단종의 충신이었던 황보인과 김종서 등을 죽이고, 왕위 경쟁자로 지목된 아우 안평대군 부자를 강화도에 유배 군국대권을 장악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 육종영(六宗英) 육절신(六節臣)등 수많은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 영월에 유배사사 하는 등 계유정난을 일으켜 1455년(단종2년) 왕위에 즉위하였다.

1459년(세조4) 시국이 안정됨에 따라 정변으로 즉위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세조비 파평 윤씨, 정희왕후의 고향을 승격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를 목(牧)으로 승격하는데 있어 파평 윤씨의 파(坡)자와 주(州)자를 따서 파주(坡州)로 개칭하였다고 유래되었으며 또한 할머니 태종비 역시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여 여흥(驪興)민씨에 고향인 여흥(驪興)도 또한 여주(驪州)로 동시 승격하였다고 한다.

4) 낙화암(落花岩;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쌍령리 입구)

병자호란때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남한산성밖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 근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보호를 요청하므로 부녀자들만을 군사들이 호위하게 되었다. 노도처럼 밀려온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살육과 노략질과 부녀자들에 대한 겁탈에 혈안이 되었던 때라 부녀자들만을 한곳에 모아 보호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적군은 대병력을 몰아 쳐들어 왔다. 좌우병사는 전군에 명을 내려 양군은 서로 어울려서 한참 격전을 벌였다.

우병사 민영이 부하들에게 소리를 쳤다. 『아녀자들은 산성 안으로 피신시켜라』 『안됩니다.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뒷산 제일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 처음에는 어느 쪽이 우세한지 분간을 할 수 없었는데 차츰 야군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광경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던 여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간간히 비명만을 지르고 있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산 아래까지 도달한 적병들은 산 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제각기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한 여자가 나서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싸움은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녀자들은 이대로 오랑캐 놈들에게 붙잡혀서 더러운 굴욕을 당하느니 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온 몸이 오랑캐 놈들의 손과 발에 더럽혀지다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백제시대의 삼천 궁녀들처럼 깨끗하게 죽음을 택합시다. 말을 마치고는 산 뒤쪽에 있는 벼랑으로 가서 몸을 던져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른 여자들은 잠시 멍하고 있었으나 곧 이어서 모두 뛰어가 몸을 던졌으니 천추의 원한을 품은 채 장렬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가면 쌍령리라는 곳에 부녀자들이 몸을 던진 바위가 있는데 그곳엔 이러한 내력이 서려 있는 것이다. 후에 나라에서 사당(祠堂)을 짓고 원혼을 제사지냈다고 한다.

5) 행주산성(幸州山城;사적 제56호/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2)

임진왜란 때에는 권율(權慄, 1537~1599)장군이 3만명의 왜군을 맞이하여 군·관·민 2천여명의 힘을 합쳐 싸운 끝에 큰 승리를 거둔 곳으로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 때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날라 싸움을 도와서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6)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시관

-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관련

7) 송파동 도미나루 터

송파동에는 백제초에 금슬 좋은 부부인 도미와 아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부터 약 1800년전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제4대 개루왕(128~165) 때 백제의 서울 위례성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신혼의 도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 도미는 목수로서 비록 지체는 보잘 것 없지만 사람됨이 준수하고 의리를 알았으며 아내 아랑은 용모가 아름답고 언행에 품위가 있으니 두 사람은 의좋은 부부로 품행있는 젊은 남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행복한 그들 부부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쳐왔다. 아랑의 뛰어난 미모가 백제 온 나라 안에 퍼져 모르는 이가 없게 되니 이 소문이 여색을 좋아하는 개루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개루왕은 아랑을 보고자 그녀를 부르게 했다. 그러나 아랑은 왕이 보낸 사자에게 벼루에 먹을 갈아 왕에게 올리는 글을 썼다. 『왕은 백성의 부모라 어찌 부르시는 명을 거역하오리까마는 소첩은 남편이 있는 몸이라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부르시는 왕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개루왕은 아랑의 편지를 읽고 더욱 그녀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을 군사를 시켜 잡아오라고 하기에는 왕의 위신이 있는데다가 또 백성들의 웃음을 사기 쉬우므로 개루왕은 고심했다. 개루왕은 궁리 끝에 궁궐을 짓고 있는 아랑의 남편 도미를 불러들이기로

했다. 개루왕은 도미를 불러 놓고 『네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미인이라지』하는 이 말에 도미의 가슴은 섬뜩했다. 『잘못 전해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범절이 바르고 지조가 굳다지.』 『...』 『여인은 정절이 으뜸가는 것이 미덕이지만 나는 절개가 굳은 여자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 더우기 미인일수록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인이 없으니 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고 개루왕은 빙글빙글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 보았다.

젊은 도미는 왕의 모욕적인 말에 당황하고 흥분했다. 아랑에 대해 애매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 분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소인의 아내같은 사람은 죽어도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도미가 평소 아내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있게 말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도미의 아내에 대한 자신있는 말은 도리어 왕의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청결한지를 실제로 시험해 보고 싶었다.

도미에게는 궁중의 일을 맡겨 머물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도미의 집에 왕이 거동한다고 알리고 군신을 시켜 왕의 용표를 입게하여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아랑의 정조를 시험하게 하였다. 드디어 왕의 위의를 갖춘 가짜 왕이 밤에 도미의 집에 도착하여 그 아내를 불러 『내가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 듣고 그리워한지 오래 되었다. 오늘 내가 도미와 내기장기를 두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일 너를 궁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여자이니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하면서 동침을 강요하였다.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의외의 일에 당황했으나 곧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임금님께서는 거짓말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소서. 제가 의복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하면서 가짜왕을 방안으로 안내한 다음 한 여종에게 옷을 단장하여 입혀 들여보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였다. 슬기있는 아랑은 기지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개루왕은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죄를 씌워 그 벌로 두 눈을 빼고 송파강으로 끌고 나가 작은 배에 실어 띄어 보냈

다. 한편 아랑은 여종을 방에 들여보낸 후 바로 집을 나와 남의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날이 밝자 궁궐을 짓고 있던 도편수에게 남편의 안부를 알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궁중에 들어갔다 나온 도편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려 주었다. 아랑은 이 말을 듣고 실신했다. 다시 정신이 들자 아랑은 도미를 찾아 송파나루로 쫓아갔다. 그러나 도미의 소식을 묻는 바람에 아랑은 개루왕이 배치해 놓은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끌려온 아랑을 보고 개루왕은 『네가 네 죄를 알겠느냐?』 언성을 높이면서 도미가 중죄로 처벌된 사실을 알리고 아랑에게 궁중에 들어와서 궁인이 될 것을 명했다.

아랑은 개루왕에게 『왕명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주인 잃은 몸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찌 혼자 살아가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염려하지 마소서. 다만 지금은 몸이 깨끗하지 못한 때이니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몸단장하여 들어오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왕은 의심없이 내보냈다. 아랑은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송파강가로 나가 호천통곡하였다. 이때 배 한 척이 상류에서 떠 내려와 그녀가 서 있는 언덕아래 머물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랑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배위에 올라탔다.

아랑이 배에 오르자 배는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갔다. 배가 닿은 것은 천성도라는 섬이었다. 지친 몸으로 섬에 발을 딛었을 때 푸른 언덕위에 남편 도미가 있었다. 서로 알아본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다.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서 고구려 땅 산산(蒜山)아래 이르러 여생을 단란하게 보냈다.

8) 아차산성(사적 제234호/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 16-46, 구의동 산 1-2)

이곳은 삼국시대의 매우 중요한 요새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390년에 한강 남쪽에 자리한 백제의 도읍을 함락시킨 이래 신라 무열왕이 675년에 한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260여년 동안 이곳과 강 건너 풍납성을 중심으로 한 넓은 산과 들은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서로 확보하려고 싸움을 벌이던 무대였다.

서울과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3백m 밖에 되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로 특히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전

해져 온다. 학문적 고증과는 상관없이 이 지역 주민들은 온달장군이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차산에는 ‘온달샘’이라 불리는 약수터와 온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전설이 서린 지름 3m의 거대한 공기 돌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온달 장군이 한강 유역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곳이 아차산이며, 그 자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시신은 평강공주가 와서야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와, 영토 수복을 하지 못한 한과 백년해로하지 못한 부부의 애절한 정이 어려 있는 곳이다.

9) 소요산 요석궁지(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번지)

원효대사는 신라의 서울(경주)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수허물가부. 아작지천주”라고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태종무열왕은 누가 귀부인을 원효대사와 맺어주면 국가에 큰 일을 할 사람을 낳겠다는 의미라고 간파하였다. 마침 문무왕의 딸인 요석공주가 백제와의 싸움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후라 원효대사를 그녀와 맺어줄 것을 결심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요석공주 또한 이미 원효대사의 명성을 들어왔던 터라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원효대사가 경주에 있는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지난다는 것을 미리 조사한 궁리들이 이 사실을 요석공주에게 알리자 그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궁내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졸들은 문천교 밑에 숨어 있다가 원효대사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길을 막은 후 요석궁으로 갈 것을 청하였다. 원효대사가 껄껄 웃으며 못 가겠다고 하자 나졸 중의 대표 한 사람 이 자신과 무술을 겨루어 대사가 지면 요석궁으로 가고 반대로 이기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말에 대사는 죽히 승낙을 하고 무술을 겨루었는데 출가하기 전 낭도로서 무예가 특출했던 원효대사와 나졸은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석궁으로 꼭 모시고 오라는 지엄한 명을 받은 나졸들이 이번에는 일제히 원효대사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졸들이 덤비는대로 원효대사는 가볍게 들어 문천교 밑으로 떨어뜨리니

다리 밑에는 허위적거리는 나졸들이 점점 늘게 되었다. 마지막 나졸 한 명과 함께 원효대사가 문천교 밑으로 일부러 빠지니 나졸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자연스럽게 요석궁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다. 젖은 옷을 말려드린다는 구실을 삼아 요석궁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이 때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게 된 것이다.

그 후부터 원효대사는 파계하였다고 속복으로 바뀌어 입고 소성거사라고 자칭하면서, 촌락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략 30~40세정도 되었을 때 소요산에 머무르며 지금의 원효대에서 공부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에 요석공주도 설총을 데리고 소요산에 들어와 조그마한 별궁을 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원효대사가 공부하는 원효대를 향하여 삼배를 드렸다고 전 해오고 있으며, 그 때의 별궁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 요석궁지라 불리고 있다.

10) 남한산성 청량당(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중부면 산성리 815-2)

청량당은 남한산성내 일장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의 서편에 위치한 당우(堂宇)로서 이회장군을 모시는 사당이다. 인조 2~4년 사이에 산성의 동남편 축조공역의 책임자로 있던 이회가 간사한 무리들의 참언때문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남한산성을 축조할 당시 총책임자는 이서이고 동남성 축조는 이회, 서북성(西北城)축조는 벽암대사의 승병들이 맡았는데 동남성 축조는 지세의 험악으로 기일내에 완성되지 못하자 이회의 명성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동남성 축조공사가 부진하고 취약한 것은 이회가 공사경비를 주색에 탕진한 때문이라고 참언 상소하였기 때문에 즉결 처분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회의 죄상을 재검토하게 되어 축성공사의 자취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주색에 탐닉했다 함은 전연 낭설로서 공사가 매우 치밀 견고한 것이어서 무고하였음이 밝혀졌다. 이회는 난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처첩을 삼남지방에 보내 축성비용을 모금 전달케 하였을 만큼 갖은 성의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회의 충성과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을 위안하기 위하여 당우를 짓고 사시로 제향을 드리며 청량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회의 사랑하는 처첩들은 남편의 맡은 일을 돕기 위하여 삼남지방에 가서 축성자금을 마련하여, 광주에 돌아오는 길에 송파강두에서 남편의 원보(怨報)를 듣고 슬퍼한 나머지 몸을 강물에 던져 순사(殉死)하였다.

청량당에는 옛부터 구정 초 2일을 제일로 정하고 산성일대의 부녀자들이 소원성취의 치성을 올리는 풍습이 전해 오고 있다.

11) 동대문과 단종비 송씨 이야기

동대문에 얽힌 옛 이야기: 동대문이 기울면 나라에 큰 일이 온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대문은 조선후기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 개축을 하고 보수를 하여 튼튼하지만 조선초기의 동대문은 토성 위에 둘러싸여 있는 나무대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동대문이 기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이 강원도 영월땅 청령포로 귀양을 떠난 후였다. 그때 단종의 왕비였던 송씨는 단종을 따라서 함께 가지 못하고 궁궐에서 쫓겨난 후 동대문 밖에 있는 정업원 암자에 홀로 남아 아침저녁으로 멀리 강원도 영월땅에 있는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다.

어느 날 상궁으로부터 동대문이 동남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을 듣고, 예전부터 동대문이 기울면 나라에 큰 일이 온다는 말을 자주 들은 바 있었는데, 혹시나 단종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단종은 사약을 받고 말았다.

12) 청량리 옛 전차길

전차가 처음 다녔던 길, 청량리.

지금은 서울시내 곳곳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약 100년 전만 해도 서울거리에는 사람이 끌거나 밀어서 움직이는 인력거가 가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국왕이나 고관대작 등이 행차를

할 때는 주로 연이나 가마를 탔으며 자동차가 대궐에 들어온 것도 그 후의 일이다.

“국왕께서 명성황후의 능(홍릉)에 참배를 가실 때 능행길에 동원되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전차를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일 먼저 고종임금에게 건의를 한 사람은 미국 상인 콜브란이었다.

전기를 이용해서 차 바퀴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조정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고 선각자들 또한 문물이 크게 발달한 서양이나 일본에서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사실이었다.

고종임금은 백성들에게 국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식문물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자 이를 허락하여 1898년 2월, 황실과 콜브란, 보스트위크가 공동 출자하기로 합의하여 최초로 전차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약 8km의 거리에 전차궤도와 전선을 가설하는 공사였다.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 위에 궤도를 깔고 전선을 세우는 공사였으므로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해인 1899년 12월 25일에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전차를 움직일 동력인 발전시설이 끝나지 않아 1899년 5월 17일(음력 4월초파일)에 가서야 정식으로 운행이 개시되는 개통식을 가졌다.

전차를 부설할 때만 해도 고종의 능 행차가 너무 번거롭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땀별에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전차 개통을 진언했던 것인데 막상 전차가 개통되니 고종임금이나 순종이 그 전차를 타는 것을 매우 꺼려하여 겨우 2회만 전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초기에 도입된 미국 전차의 모습이 마치 상여를 닮은 모양이라 임금이 타기를 꺼려했다.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1) 지장사능인보전후불탱화(地藏寺能仁寶殿後佛幀畫;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3호/동작구 동작동 305 지장사)

지장사능인보전후불탱화는 여래좌상을 중심으로 협시보살과 청중들이 군도(群圖) 형식으로 그려진 설법도이다. 광무 10년(1906)에 조성된 이 그림은 주지 계향(戒香)이 화주가 되어 상궁(尙宮) 김씨(金氏)와 유씨(柳氏)의 시주로 제작되고 있어, 당시 지장사가 궁중여인들의 경제적 후원을 입고 있음을 알려주는 불화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2) 감로탱화(甘露幀畫;보물 제1239호/우학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3-1 청취빌딩 1302호)

감로탱화는 지옥에 빠진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해주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영가천도(靈駕遷度)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불화이다.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아귀도(餓鬼道)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은 어머니를 구제한다고 하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의 내용을 도해한 그림이라 하여 우란분경변상도(盂蘭盆經變相圖)라 하기도 한다.

우란분경을 바탕으로 설행되어지는 우란분재(盂蘭盆齋)는 고려 예종 1년(1106)에 이미 개최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 고려시대에 감로탱화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오늘날 전하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우란분재의 성행과 감로탱화의 제작은 우리나라의 강한 조상숭배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불화의 삼단(三壇) 구성 가운데 하단을 담당하는 영단탱화(靈壇幀畫)의 주요 도상으로 자리함으로써, 민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불화이다. 이는 조선시대 중종 이후 상류계층에 배불(排佛)의 풍조가 대두되면서, 민중들 사이에 성행하기 시작한 시식(施食), 존시식(尊施食) 등의 제사문화(祭祀文化)에 영향을 받은 불교신앙의례(佛教信仰儀禮)와 결부되어 전개되는 민중적 불교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로탱화는 숙종 7년(1681)에 제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3단으로 구성되어 많은 군상들이 포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산수화풍의 배경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우수한 불화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하단부에는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시주자들과 제작에 참여한 화승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송절이(宋節伊)·박노정(朴路貞) 등 상궁(尙宮)들의 이름이 보여 궁중의 지원으로 제작된 불화로서, 조선후기 감로탱화의 연구는 물론 당시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지장사대웅전팔상도(地藏寺大雄殿八相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0호/
서울 동작구 동작동 305 지장사)

지장사대웅전팔상도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8면의 화면에 압축하여 그려 넣은 불화로 대웅전 내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의 좌측 단 위에 봉안되어있다. 고종 40년(1890)에 조성된 지장사의 팔상도는 경운당(慶雲堂) 계향(戒香)이 화주가 되고, 상궁(尙宮) 김씨와 박씨의 시주로 화승 한국당(漢谷堂) 돈법(頓法)이 제작하였다.

4) 진관사독성각독성도(津寬寺獨聖閣獨聖圖;문화재자료 제12호/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진관사)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은 절로서, 조선시대에는 수록재의 근본 도량이었다.

이 독성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민화풍의 산수를 배경으로 독성과 시자, 동자 등을 그린가로 약 2.2m, 세로 약 75cm 크기의 대작이다. 왼쪽 하단의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경기도 일원에서 활약하던 화승 경선당(慶選堂) 응석(應釋)이 그린 것으로 홍순모(洪淳謨)와 상궁 이씨(李氏)의 시주에 의해 1907년에 제작되었다.

5) 갈항사지 삼층석탑(葛項寺三層石塔; 국보 제99호/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복궁 경내)

갈항사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부에 3층의 탑신부를 가지면서 쌍탑의 양식을 띤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원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금오산 서쪽 기슭의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1916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원래의 위치대로 동·서로 배치되지 않고 남·북으로 세워졌다. 즉 동탑과 서탑 사이에는 민속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어 서탑은 남쪽인 경복궁 경내에, 동탑은 북쪽인 민속박물관 입구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탑의 경우에는 상층 기단부 오른쪽 우주와 탕주 사이에 명문이 이두문으로 음각되어 있어 탑의 조성유래와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명문에 따르면 천보 17년(天寶十七年)에 영묘사(靈妙寺) 언적법사(言寂法師)라 불리는 오라비와 조문황태후군(昭文皇太后君)과 경신태왕(敬信太王)이라 불리는 자매에 의해 이 탑이 조성되어졌다고 전해진다. 천보는 중국의 연호로서 우리나라로 바꾸어보면 바로 경덕왕 17년(758)에 해당한다.

6) 운적암(雲寂庵) 또는 운수암(雲水庵)(문화재자료 제25호/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85 운수암)

백운산에 있는 무양산성(無陽山城, 無限城)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암자이다. 1750년(영조 26)에 장씨(張氏) 부인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청상과부가 부처님을 모시려고 무한성 밖에 터를 닦았는데 꿈에 노승(老僧)이 나타나 성 안에 절을 지으라고 계시하여 그 자리에 가서 쓰러진 풀과 나무를 치우고 보니 절터로 적합하여 이 암자를 지었다고 전한다. 1870년(고종 7)에 대원군의 시주로 중건되었고 ‘운수암’이라 쓴 친필 현판이 하사되었으며 1986년에는 대웅전이 중건되었다.

7) 칠장사(경기문화재자료 제24호/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창건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0세기 경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1014년(현종 5) 혜소국사가 왕명으로 중건했다는 설이 있다. 사찰의 이름은 혜소국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일곱 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고려시대 1383년(우왕 9)에 충주 개천사에 있던 고려 역대실록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389년(공양왕 1)에 왜구의 침입으로 전소된 것을 조선시대 1506년(중종 1)에 홍정이 중건했다. 1623(인종 1)에 인목대비가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원찰로 삼아 크게 중창했다.

8) 봉선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다. 원래 봉선사 자리에는 고려 광종 20년(969년) 법인국사가 창건한 운악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며 폐허가 된 것을, 조선 예종 1년(1469)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조의 능침인 광릉(光陵) 인근에 당사를 창건하여 선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삼고 ‘선왕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奉護先王之陵)’는 뜻의 ‘봉선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봉선사는 창건 이래 조선왕실의 원찰(願刹)로서 승유억불정책 속에서도 왕실의 외호를 받으며 법등을 이어왔었는데, 그러한 봉선사가 교종 본찰(敎宗本刹)로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명종(明宗)때의 일이다. 당시 어린 명종을 대신해 섭정하던 문정왕후는 불교부흥책의 일환으로 보우스님을 도와 승과(僧科)를 부활시켰는데, 선종(禪宗)의 봉은사(奉恩寺)와 함께 봉선사를 교종의 수사찰(首寺刹)로 삼아 교종시(敎宗試)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9) 봉은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연산군일기에 보면, 봉은사의 전신은 당시 성종의 무덤이던 선릉의 봉릉사

원이던 견성사(見性寺)로 나와 있다. 현재 견성사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1498~1499년 성종비 정현왕후가 선릉 근처에 있던 견성사를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릉 자리로 옮겨 중창하면서 전각을 크게 조영하여 ‘성종의 은혜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의 봉은사로 개칭한 것으로, 절의 실질적인 역사는 그 이후부터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선릉 옆 봉은사는 수도산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60여년 동안 선릉과 정릉을 수호하고 제례를 담당하는 봉릉사원일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에서 후기 선종 불교의 중심 사찰이기도 했다.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봉은사를 선종 수사찰로 지정하여 조선시대 선종 불교를 총괄하게 했고, 주지에 보우스님을 임명해 불교 중흥을 꾀했다.

봉은사가 현재의 위치로 자리한 것은 1562년 (명종 17년)이다.

- 승과평(僧科坪)

삼성동 봉은사 앞 지금의 한국종합전시장 부근은 승과평(僧科坪) 또는 ‘중의 별’이라 불리던 별판이었다. 이 곳은 조선시대 승과고시가 열리던 시험장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세워 놓은 표지석만이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과고시와 관련된 일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명종 7년(1555), 당시 봉은사 주지로 있던 보우선사와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지되었던 승과고시를 부활시키고 그 해 8월 봉은사에서 승과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응시한 승려가 수천 명이 되어 경내 밖의 이 별을 과장으로 하게 되었다. 선교양종의 이 승과는 이후 10여년간 지속되다가 문정왕후와 보우 사후에 폐지되고 만다.

경국대전에 보면 선교양종이 3년마다 시험을 실시하되 각각 30인을 뽑는다는 규정이 있어, 시험의 횟수나 합격자 수를 축소시켰으나 불교 자체의 존립만은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던 유생과 배불론자들에 의해 승과제도는 규칙적 시행이 무시되다가 차츰 그 효력을 잃어갔고, 중종 2년(1507)에 이르러서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때문에 50여년만의 승과고시 부활은 국가차원에서 불교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

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불교가 번성해지는데 결과를 낳았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진행되었지만, 인재의 배출 경로가 차단되어 있던 기간을 지나 다시 문을 연 이때의 승과고시를 통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의 고승들이 배출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10) 절두산 천주교성지, 성녀 주리아 묘비(합정동 96-1번지 천주교절두산 순교기념관)

지금의 절두산 성당으로 부르는 곳은 마치 누에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어서 잠두봉(蠶頭峰)이라했다. 그러나 이 잠두봉 아래 모래밭은 조선후기 천주교인의 대량 처형장소가 되어 후일 절두산천주교성지로 불리고 있다.

주리아라고 알려진 여성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기독교 집안에서 양육되어 기독교인으로 자란 조선 여성으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했다.

11)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8)

로제타 홀 여의사, 아펜젤러 여사 등 여성교육에 헌신한 여선교사들의 묘가 포함되어 있다.

1880년대초 구미열강제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굳게 닫혔던 쇄국의 문이 열리자 1884년 미국의 의료선교사 알렌(H.N. Allen, 1858~1932)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해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뒤따르는 등 미국의 선교사들이 잇달아 내한, 의료와 교육사업을 통해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1890년 7월 26일 미국 북장로교회의 의료선교사로서 고종의 시의(侍醫)이 기도 했던 헤론(John W. Heron, 1850~1890)이 급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법에 따라 성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민간에서도 묘터를 팔려는 사람이 없어 묘지 마련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조선땅에서 사망하는 외국인은 1883년 제물포항 해안 언덕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외인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여름 염천에 거기까지 시신을 운구할 길이 없었으며 법을 어기기도 성안에 매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노릇이었다. 알렌이 어려운 교

섬 끝에 양화진 언덕을 사용토록 허가받아 이곳에 헤론을 처음 문음으로써
오늘의 외국인묘지공원의 터를 잡게 되었다.

12)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男女根石;민속자료 제3호/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41-54)

삼막사(三幕寺)는 1300여년전 신라 문무왕(文武王) 17년(677)에 원효, 의
상, 윤필 등 세 성인이 암자를 지어 정진한 것이 삼막사의 근본이며 삼성산
(三聖山)이라는 이름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삼막사 칠성각 서북편에 있는 2개의 자연암석인데 그 모양이 남자와 여자
의 성기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남녀근석이라 부른다. 옛부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바위를 숭배했다고 하는데, 성기신앙(性器信仰)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기숭배 사상은 수렵·채집의 풍작과 풍농, 풍어,
다산과 무병장수를 목적으로 하여 선사시대부터 행해져 왔으며, 고려·조선
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무속·풍수신앙·동제·미륵신앙 속에 어우러져 이
어지고 있다. 성기신앙은 성기 모양을 닮은 바위나 기암괴석 등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나무나 돌 등으로 성기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거나,
은유해서 만든 석장승, 돌하르방 등을 기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삼막사의 남녀근석은 677년(신라 문무왕 17)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했다고 하며, 이 바위를 없애지 않고 그 옆
으로 칠성각을 둔 것은 불교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이 바위를 만짐으로써
다산과 출산에 효험이 있다고 믿어 4월 초파일, 칠월 칠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기원을 한다. 그 기원의 방법으로 동전을 바위에 문질러 붙이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크기는 남근석이 높이 1.5m, 여근석이 높이 1.1m 정도다.

13) 인왕산 선바위(禪岩;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4호/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3-4)

선바위는 마치 중이 장삼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禪’자를 따서 이름
하였다. 사람들은 석불님·관세음보살님, 또 이 두 개의 바위를 양주(兩主)라

고 부르기도 한다. 임신을 원하는 부인들이 이 바위에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정성을 드리는데 작은 돌을 붙이면 효험이 크다고 하여 돌을 문질러서 붙인 자국이 남아있다. 이를 붙임바위라고 한다.

선바위는 높이가 7~8m, 가로 11m 내외, 앞뒤의 폭이 3m 내외로 두 개의 큰 바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상이다. 바위 아래에는 가로 약 10m, 높이 70~80cm의 제단이 시멘트로 단장되어 있다.

이 바위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상이라는 전설과 이성계 부부의 상이라는 전설이 있다. 또 무학대사가 태조의 명을 받고 천도할 곳을 찾다가 현재의 서울을 찾아냈으나 국운이 500년밖에 유지 못 할 것을 알게 되자 이 선바위에서 천일기도를 하였다고 하며 그 뒤부터 이 바위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태조가 도성을 쌓을 때 왕사(王師)인 무학대사와 문신인 정도전(鄭道傳)이 이 바위를 성 안으로 하느냐 성밖으로 하느냐로 크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태조는 결정을 미루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4월인데도 눈이 쌓이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낮에 회의하던 곳이 보이고 안쪽으로 들여쌓은 쪽의 눈이 녹아 버렸다. 태조는 이것이 하늘의 계시임을 알고 정도전의 주장대로 선바위를 성밖으로 두게하자 무학대사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중들은 선비 책보따리나 짊어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양도성(서울성곽)을 설성(雪城)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선바위는 암석숭배(岩石崇拜)의 일종으로 이것이 전설화되고 또 불교와 무속신앙(巫俗信仰)이 밀착되면서 무속신앙의 중요지가 되어 있다.

14) 엄미리 장승(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나무를 베어 장승을 깎은 다음 마을 수호신을 세우는 오래된 마을풍속으로 제를 지내는 풍속. 엄미리 장승제는 그 역사가 3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자란 당시 호군들이 남한산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점령지 주민을 괴롭히고, 전란이 끝난 직후부터 전염병이 창궐하여, 부락의 안녕과 전염병 침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락민이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부락 어구에 장승을 세워 수호토록 한데서 유래된다.

사모관대를 하고, 쉰 장승의 모자뿔은 장승제가 끝나기 무섭게 도둑을 맞는데 그것은 그 뿔이 남자의 성기와 같다는 인식으로 임신부가 그것을 씹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원래 장승을 세울 때 사모의 뿔을 그대로 놓아둔 곳은 한군데서도 찾을 수가 없다.

15) 안산 성곡동 잣머리 성황당(안산시 향토유적 제1호/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76)

고려 제6대 성종(982~997) 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기전 장도(壯途)를 비는 제를 지내기 위하여 세웠고 그후도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일반적인 성황당이 한마을 단위만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신당(神堂)으로 발생한데 반해 잣머리 성황당은 발생설화가 독특하다. 고려 제6대 성종(982~997)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어 잣머리 해안(현재 당집이 있는 아래)에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가 폭풍우가 몰아쳐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희가 장도(壯途)를 비는 제를 지내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소복을 한 두 여인이 나타나 “우리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김부대왕)의 비 홍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인데 경순왕과 결혼 후 나라가 망하고 비명에 죽은 것이 한이 되어 모녀 혼령이 안주치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니 저희 거처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서희는 그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서희는 이튿날 그곳에 작은 성을 쌓고 사당을 지은 후 화공을 불러 꿈에 본 영정을 그려 모신 이후 위령제를 지냈다. 그러자 신기하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서희는 아무 탈없이 송나라에 다녀와 막중한 외교 임무를 수행했다.

왕비의 원한을 달랜 역사적 의미를 담은 성황당이다. 그후부터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은 물론 이곳 백성들도 이 사당에 제물을 차려 놓고 극진히 정을 드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지금도 당집이 있는 산에는 서희가 쌓은 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매년 잣머리 성황제를 지내고 있다.

○ 유물

가. 여성 복식

- 1) 국립 민속박물관
- 2)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3) 석주선 박물관
- 4) 이대 박물관
- 5) 숙대 박물관
- 6) 단국대 박물관
- 7) 세종대 박물관

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 1)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제6~10(禮念彌陀道場懺法卷第六~十;보물 제1144호/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2 목아불교박물관)

1474년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貞禧大王大妃)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 韓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목판본이며 5권 1책이다. 이 책은 공혜왕후가 돌아가시자, 세종·소헌왕후·세조·의경대왕·예종 등을 추앙하면서 함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새긴 것이다.

이 때 왕실(王室)에서 인수대비(仁粹大妃), 인혜대비(仁惠大妃)를 비롯하여 공주·숙의·상궁 등과 당시 고승인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과 왕실의 종친들인 월산대군(月山大君), 제안대군(齊安大君)등 대거 참여하였다.

또한 당시 일류 화가와 각수(刻手)들인 백종린(白終麟)·이장손(李長孫)·장막동(張莫同)·이영산(李永山) 등이 총동원되어 판각한 것으로 조선시대 전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목판본이다.

2) 내훈 또는 여훈

성종의 모, 연산군의 할머니, 세조와 정희왕후 윤비의 며느리. 소혜왕후이자 인수대비인 한씨가 열녀전, 소학, 여교, 명감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해 유교적 부덕과 여성의 행실에 규범이 될 내용을 간추려 모아 국역해 놓은 책.

3) 인목대비 친필족자(仁穆大妃親筆簇子; 유형문화재 제34호/안성시 이죽면 칠장리 764 칠장사)

이 족자는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가 쓴 것으로서 족자에 적힌 칠언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늙은 소는 힘을 쓴 지 이미 여러 해/ 목이 찢기고 가죽이 뚫려 다만 부처의 자비스러운 눈 뿐이로구나/ 쟁기질과 씨레질이 이미 끝나고 봄물은 넉넉한데 / 주인은 어찌 심하게 또 채찍질인가? 칠언시 아랫부분에는 족자의 내력을 적은 배길기(裴吉基)의 글이 있다.

인목대비가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영창대군을 위하여 칠장사를 원당으로 삼아 사찰을 중건하여 친히 김광명(金光明)에게 최승경(最勝經) 10권과 친필족자 1령을 하사한 것인데, 현재는 친필 족자 1령만 보존되고 있다

4) 인선왕후 한글 편지

왕후의 70건의 한글편지가 남아 있다.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일반생활의 안부이지만, 무대가 궁중과 사대부가의 사연이므로 궁중풍속, 정치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글편지 뿐만 아니라 국문학관계, 특히 중국소설 언해(諺解)를 다독한 흔적이 있어 중국소설의 언해 시기, 독자상황, 부녀자와 국문소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며, 그녀의 필적을 통해서 한글 서체(書體)를 감안할 때 효빈체(效嚙體)에서 궁체(宮體)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나 궁체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 조선 중기 여인들의 언간(諺簡)과 더불어 황후의 언간의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

5) 한중록

《한중만록(閑中漫錄)》이라고도 한다. 필사본. 6권 6책. 저자가 회갑을 맞던 해인 1795년(정조 19)에 친정 조카 홍수영(洪守榮)의 소청으로 이 글을 쓴다 하였고, 그 후 67세, 68세, 71세 등 네 번에 걸쳐 쓴 네 편의 글이 있다. 이 중 회갑 때 쓴 첫째 것이 비교적 한가로운 심정에서 붓을 든 것이고, 나머지 3편은 모두 아들인 정조가 승하한 직후부터 붓을 일으켜 어린 왕 순조에게 보이기 위하여 쓴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라 하겠다.

내용은 혜경궁 홍씨가 지난날 몸소 겪었던 것으로 부군(夫君) 사도세자가 부왕(父王)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참변을 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연루(連累)와 국가 종사(宗社)에 관한 당쟁의 복잡미묘한 문제 등 여러 무서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칼날을 밟으며 살아온 것 같은 일생사를 순 한글의 유려한 문장으로 묘사한 파란만장한 일대기(一代記)이다. 그 문체가 우아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선명하게 그려져, 강렬한 박진감으로 하여 한국 산문문학(散文文學)의 정수(精髓)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조선 여성의 이면사(裏面史)를 엿볼 수 있다는 점과 당시의 정치풍토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풍부한 작품으로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함께 궁중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필사본 14종과 이 책을 한문으로 엮은 《읍혈록(泣血錄)》도 있으며 1947년에는 이병기(李秉岐)의 주해본(註解本)이 나왔고, 61년에는 이병기·김동욱(金東旭) 교주(校注)의 《한동록》을 한국고전문학 대계의 한 책으로 수록하여 민중서관에서 발간하였다. 그 밖에 김동욱의 《한중만록(閑中漫錄) 주해》 등 여러 종류의 한문본·한글본이 있다.

6) 계축일기

필사본. 1책. 《서궁록(西宮錄)》이라고도 한다. 1613년(광해군 5)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일어난 궁중비사를 기록한 글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 대비의 측근 나인이 썼다고 한다. 그러

나 문체와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인목대비 자신이 쓴 것이라는 설도 있다. 《계축일기》는 공빈김씨(恭嬪金氏)의 소생인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소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둘러싼 당쟁을 중후한 궁중어으로써 사실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묘사보다는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시의 치열한 당쟁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보조 자료가 된다.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을 추대하여 모반하려 한다는 무고로 김제남 부자와 영창대군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인목대비는 서궁인 덕수궁으로 쫓겨나 폐비가 되며, 그 뒤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11년 만에 인조반정으로 복위되었다는 이른바 궁중비사이다.

《한중록》 《인현왕후전》과 함께 3대 궁중문학으로서 소설문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중기의 궁중에서 전개되는 풍속·인정 및 생활상을 잘 보여준 점, 한문고사를 피하고 순우리말을 구사한 점, 중후하고 전아한 궁중어와 문체를 남긴 점 등은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7) 인현왕후전

원제는 《인현성후덕행록(仁顯聖后德行錄)》이다. 숙종의 민비폐비(閔妃廢妃)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서, 작자에 대해서는 당시 인현왕후를 모신 궁인(宮人)일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궁중 인물이 아닌 남성 작가가 썼으리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저작 연대 또한 영·정조(英正祖) 연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내용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간악한 장희빈(張禧嬪)을 왕후로 세웠다가 다시 폐위시킨 뒤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때까지의 궁중 비극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다룬 것으로, 당시 궁중의 음모가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얽히고 설킨 당쟁에 관련된 사건이어서 내용 자체의 사료적 신빙성은 희박한 편이다. 조선시대의 우아한 궁중어를 사용하여 과장이나 생략이 없이 이야기를 전개시킨 수작(秀作)으로, 《계축일기(癸丑日記)》 《한중록(恨中錄)》과 아울러 3대 궁중수필로 일컬어진다.

8) 정일당유고

1772년(영조 48)~1832년(순조 32), 조선후기의 여류문인, 본관은 진주, 호는 정일당, 제천출신, 아버지는 재수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서옹의 딸이다. 윤광연의 부인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20세에 출가 한뒤 집이 가난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남편을 도와 함께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정일당유고> 1책이 있고 또한 시문집 1책, 신연활자본, 1836(헌종 2)에 간행된 초간본과 1926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있다. 규장각도서관에는 필사본이 있으나 간행본과 편차가 틀려 대본을 알 수 없다.

시 38수, 명 5편, 서 10편, 기 3편, 설 1편, 제발 2편, 묘지명, 행장, 제문 각3편, 잡저 1편, 부록으로 행장, 묘지명, 제문, 뇌문, 만장, 이시발, 필첩발, 추만소발, 전, 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는 대개 학문 또는 수신에 관한 것이 많다. <원운>은 늙어가는 자신을 생각하며 인생의 원리를 읊은 것이며 <제석감음>에서도 51세가 되는 감회와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신념을 말하고 있다. <성경음>에서는 수신의 도리를 표현하였고, <청추선>에서는 초가을 매미소리를 들으며 심란한 여심을 읊고있다. 시의 대부분이 문사의 수식보다는 고상한 심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서는 남편과 주고받는 서찰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남편을 위한 대작으로 송치규에게 보낸 별지가 있다. 별지에서는 심의, 제주, 초반등에 관한 예설을 묻고있다. 잡서<사기록>은 11대 시할아버지로부터 시아버지까지 좋아하였던 음식을 적은 것들이다. 특히 정일당은 시어머니 지일당 전씨와 시로써 대화를 주고 받은 일화로도 유명하며 저서에 '정일당 유고'가 전해온다.

9) 태교신기(胎敎新記: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1800년(정조 24) 문장가 사주당 이씨(師朱堂李氏:1739~1821)가 태교에 관하여 쓴 책.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 태교의 이치를, 제2장에서는 태교의 효험을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옛 사람들이 태교를 잘

하여 자식이 어질었다 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장에서는 태교의 구체적 방법을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옛사람들이 행한 일이나 관계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마지막 장은 남편에게도 태교의 책임이 있으므로 부인에게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이 책은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구비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체계화한 데에 의의가 있다.

10) 규합총서(閩閩叢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09년(순종 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부녀자를 위하여 엮은 일종의 여성생활백과.

현재 목판본 1책(가람문고본), 필사본(2권 1책)으로 된 부인필지(1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및 개인소장본(필사본 6권) 등이 전해지고 있다. 본래 작자·제작연대 등이 미상이었으나, 1939년 《빙허각전서(憑虛閣全書)》가 발견되면서 이 책의 1부작으로 확인되었고, 작자도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 서유구(徐有)의 형수임이 알려졌다. 여성들에게 교양지식이 될 만한 주사의(酒食議)·재의(裁衣)·직조(織造)·수선(修繕)·염색(染色)·문방(文房)·기용(器用)·양잠(養蠶) 등에 관한 것이 한글로 수록되었다. 지금은 잘 알 수 없는 각종 비결과 문자가 많아 당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11) 죽서시집(竹西詩集;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조선 후기의 여류시인 죽서 박씨(竹西 朴氏)의 시집. 목활자본. 1851년 남편 서기보(徐箕輔)의 재종 돈보(惇輔)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돈보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작자의 친구인 여류시인 금원(錦園)의 발문이 있다. 오언절구 1수, 칠언절구 40수, 칠언율시 125수, 모두 166수의 시가 실려 있다. 맨 앞의 10세에 지은 오언절구 《십세작(十歲作)》은 작자의 천부적인 시재(詩才)를 보여 준다. 임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기정(寄呈)》 《술회(述懷)》,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며 여자로서 늙어가는 슬픔을 나타낸 《우음

(偶吟》 《제석(除夕)》 등이 있다. 《추일기금원(秋日寄錦園)》 《연견금원서(連見錦園書)》 등 금원과 창화(唱和)한 시도 몇 수 있다.

12) 유한집(幽閒集;규장각에 1책의 필사본 소장)

조선 후기의 여류문인 유한당 홍원주(洪原周)의 시집. 목활자본. 1권 1책. 저자는 홍석주(洪奭周)의 누이동생으로 심의석(沈宜奭)의 아내이다. 양자인 심성택(沈誠澤)이 유고를 모아 편집하여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으나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다. 일명 《공인홍씨시집(恭人洪氏詩集)》이라고 한다. 책머리에는 1854년 사위인李大愚가 쓴 서문이 있다. 총 187수의 시가 있는데 특히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에 붙여진 운을 빌려 지은 시들이 많다. 내용적으로는 규방에서 필요한 교훈적인 이야기, 홍석주·홍현주(洪顯周) 등 형제들과 나눈 수옹시, 자연을 노래한 서정시, 기행시편 등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꿈속에서조차 고향을 그리는 심정을 그린 <기몽(記夢)> 등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여성적인 심상을 노래한 시들이 많다. 그외에 장량(張良)·굴평(屈平) 등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편들도 있어 주목된다.

13) 변안렬 묘표(진건면 진건읍 용정리 산 704-1)

고려 말의 무신 변안렬(1334~1390)묘역의 묘와 묘표이다. 변안렬은 호는 대은, 본관은 원주이며 심양후 양의 아들로, 원래 황해도 청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부 순이 1268년 원나라에 들어가 심양후에 봉해졌으며 아버지지도 이를 이어 받았다. 그는 중국 심양에서 태어나 1351년 위의 무과에 장원급제를 하고 형부상서에 올랐다. 1352년 노국공주를 따라 고려로 들어왔다. 이에 공민왕은 추밀원사 원의의 딸과 혼인케 하였고 본관으로 하사받아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1361년 아우를 따라 홍건적을 물리쳐 이등공신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개성을 지켜 일등공신이 되었다. 예의판서가 되어 추성보조공신의 호를 받았고, 최영과 더불어 제주를 정벌한 뒤 지문하부사, 문

하평리를 역임하였다. 우왕 때 문하찬성사로 승진하였으며 이어 도순찰사 이성계와 함께 운봉과 황산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정방제조가 되었다. 단양과 안동의 왜구를 몰아낸 뒤 원천부원군에 봉해지고 판삼사사, 영삼사사가 되었다. 그러나 1389년 이성계 제거와 우왕의 복위를 모의한 일이 발각되어 한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묘역아래 있는 묘표는 1571년(선조 4)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6대 외손 황해도 관찰사 박승임이 짓고, 7대 외손 여성군 송인이 썼다. 특히 묘표의 이수에는 전통적 믿음과 관련되는 운문일원도가 새겨져 있는데 앞 면에는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을, 뒷면의 태양 안에는 삼족오가 새겨져 있다.

14) 여산 송씨 족보(礪山宋氏族譜; 유형문화재 제139호/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산66)

여산송씨족보는 1606년에 송언신(宋言愼, 1542-1612)이 처음으로 편찬하여 1610년에 송일(宋駟)이 청주에서 1책으로 간행하였고, 그 뒤에 이를 송희업이 보완, 상하(上下) 2책, 226장으로 편찬하여 1653년(효정4)에 간행한 것이다.

현존하는 족보 중 17세기 이전 족보가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1600년대에 간행된 이 족보는 희귀본으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시조 송유익(宋惟翊) 이하 19세까지 기록하고 있고, 본편 외에 추록(追錄) 2권이 추가되어 있다. 한 면을 세로로 6칸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고, 적서(嫡庶)는 구분하지만 남녀는 구분하지 않은 채 출생순서에 의해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성씨의 경우(딸의 후손) 4대까지 기록하고 있다. 14세까지는 양자 입양 사실이 거의 보이지 않고 14세 이후에야 양자 입양이 기록되고 있다.

출생순서에 의한 기록은 조선 초기 족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17세기 중엽까지도 장자상속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딸의 후손을 4대까지 기록하는 것 역시 18세기 이후의 족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덜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 17세기 이후에야 양자제도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 있다.

15) 양천 허씨 분재기(향토유적 제36호/용인시 원삼면 맹리 양천허씨(陽川許氏) 종중)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숙종 7년(1681) 부터 정조 8년(1784)까지 103년간 내려오면서 양천허씨 문중의 3남 5녀에게 노비(奴婢)를 나누어 주면서 문서화한 일종의 노비문건(奴婢文件)이다. 1녀서로부터 삼남(三男) 허환(許煥)에 이르기까지 8남매에게 출생서열대로 노비를 분급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의 공증을 위해서 관부의 제사(題辭)를 받아 보관해 온 것이다.

이 분재기는 출가외인이라 하여 출가한 딸에게 재산을 분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통념적 관행을 깨는 자료의 일례로서, 당시 실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16) 율곡 남매 분재기(보물 제477호/서울 광진구 모진동 93 건국대학교박물관)

이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유산을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 분재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 첫머리에는 (嘉靖四十五年丙寅五月二十日同腹和會立議)라고 쓰여 있어, 동복들이 1566년(명종21)에 모여 작성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원수의 자녀들이 유산을 분배하는데, 그 기준은(경국 대전)의 규정에 정하였다. 각종 제사와 수묘를 위한 토지와 노비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4남3녀와 서모인 권씨에게 배당한 토지, 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 끝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수결을 표시하였다. 이때 필집은 만형 준이 하고 여자는 수결을 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다. 여성의 예술 작품, 여성대상 예술작품

1) 초충도(국립박물관 소장)

- 신사임당 작품

2) 단원풍속도첩(보물 제527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의 화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그린 풍속화 첩자(帖子).

3) 단원화첩(檀園畵帖;보물 제782호/호암미술관 소장)

조선 후기의 화가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화첩.

4)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국보 135호/서울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후기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 작품.

2. 무형문화유산

○ 물질문화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1) 자수장(刺繡匠;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기능보유자 한상수)

자수는 염색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착색되지 않은 천, 또는 무늬를 넣어 제작할 줄 몰랐던 무늬 없는 천의 단조로움을 덜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발달되었다. 또, 자수는 옷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기 위한 장식적 목적에 의한 것이며, 실용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오래 된 유물 중에는 능(綾)·나(羅)·평견(平絹)·평사(平絲)·합사(合絲)·연사(撚絲)가 사용되었고, 수법도 대별하여 평수·사슬수·자련수 등의 기법이 보이며, 색사(色絲)도 민족에 따라 다르나 황(黃)·담황(淡黃)·농황(濃黃)·다(茶)·홍(紅)·담홍(淡紅)·연지·녹(綠)·담록(淡綠)·감(紺)·담표(淡)·농표(濃)·자(紫)·흑 등의 색을 들수 있다.

한국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夫餘)와 마한(馬韓) 시대 때 이미 비단옷에 수를 놓아 입었다. 삼국시대의 수법은 고분벽화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

하여 고도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 신상순(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구리시 아천동 369)

1931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난 신상순(辛相順)은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51년 경남 마산여고를 졸업하였으며, 재학 당시 마산의 자수장 김난초 선생에게 자수기술을 사사 받으면서 전통자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0년부터 자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을 수집하고 또한 그것을 재현하는 데 힘썼으며, 1978년에는 외무부와 문교부의 후원으로 아시아 각국의 자수계를 돌아보며 한국자수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한 강연과 전시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작품으로는 『화조도 병풍』, 『십장생 병풍』, 『백동자도 병풍』 등이 있으며 1971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자수원 ‘화린공방’을 설립한 이후 현재 까지 제자양성과 연구에 몰두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 힐튼호텔에 상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2) 매듭장(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기능보유자 정연수, 최은순, 김희진)

기술습득의 순서는 실을 풀어서 오색물감으로 염색하고 부속을 만드는 일에 능숙해진 다음에 다양한 매듭 맺는 기법을 배운다. 또 이러한 매듭들은 한 올의 끈목을 반분하여 그 중심을 잡고 두 가닥으로 조리있게 엮어놓고 끝이 날카롭지 않은 대송곳으로 질서있게 죄어서 쓰임새에 따라 오색 영롱하게 엮는 것이다. 매듭의 공정으로는 굵은 끈목을 치는 일, 두 가닥의 끈으로 잇대어 맺어가는 일, 적절한 술을 만들어 치렁하게 늘어뜨리는 일 등으로 구분된다.

매듭의 종류로는 도래매듭·외벌도래매듭·귀도래매듭·단추매듭·연봉매듭·매화매듭·동심결매듭·나비매듭·별매듭·잠자리매듭·생쪽매듭·방석매듭·전복술매듭·장구매듭·파리매듭 등 33종에 이르며, 그 명칭은 궁중·서울·대구·남원 등의 지방에 따라 다르다. 또 기법으로는 ㄱ자감개·십자감개를 비롯하여 ㄷ자·ㄹ자·곶샘·개와집·당초·정자 감개 등

다양하다. 그리고 매듭의 끝에 다는 술에는 봉술·딸기술·실술·방울술·낙지발술·전복술·금전지술 등이 있다. 매듭하는 데 쓰이는 기구로는 물레·술틀·술짐뿔·얼레, 술감는 바탕 등이 있다. 매듭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는 도포끈·허리띠·노리개 같은 복식용, 발걸이·족자술·방장과 모기장 유소·자방산 등 궁중용 등이 있다.

3) 초고장(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6호/보유자 한순자/서울 양천구 목동 904)

초고장은 왕골을 이용하여 꽃 등 무늬를 놓아 짠 돛자리(화문석)를 만드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초고는 일명 꽃돛자리라고도 한다.

고려 초에 요(遼)나라에 보내는 특산품 중 용수초지석(龍鬚草地席)이 있었으며, 송(宋)나라 사람들도 고려의 화문석을 매우 귀중하게 소장하는 등 중국 등지에서 각광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해동역사(海東繹史)》·《통문관지(通文館志)》 등 문헌에 중국·일본 등에 보내는 화문석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당시 꽃자리 이외에 다른 화문석을 생산한 지방은 영남의 예안·안동으로, 주로 왕골을 짜서 거래하였다. 취급기관은 장흥고(長興庫)로서 각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거두어 들였다.

4) 침선장(針線匠;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기능보유자 정정완/서울 강북구 우이동)

- 박광훈(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1호/서울 종로구 연건동 301-2)

침선장이란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침선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침선은 재봉(裁縫)이라고도 한다. 침선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복식전반을 만드는 일이다. 즉, 바늘에 실을 꿰어 바느질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복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옷을 말라서 바느질하는 봉제, 옷에 어울리는 무늬를 수놓는 자수, 옷에 곁들여 장식하기 위하여 만드는 장신구공예 등이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역시 옷을 말라서 바느질하는 일이다.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기초가 되는 것은, 감침질·홈질·박음질·상침뜨기·휘갑치기·사뜨기·시침질·공그르기·술기하는 법 등이다. 옷에 따라, 또는 옷의

분위기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썼으며, 같은 옷이라도 겨울옷과 여름옷에 따라 홀바느질·겹바느질·숨두는바느질 등 알맞은 바느질법을 사용하였다. 바느질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료는 옷감과 실이며, 바느질 도구는 자·가위·바늘·바늘집·골무·인두·인두판·다리미·누비밀대·실패·실고리·실첩·반진고리 등이다. 한국에서는 여인이면 누구나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만 하였으므로, 시집가기 전에 규수는 바느질법을 배우고 익혀야만 하였다.

우리 나라의 침선은 삼국시대 고분벽화를 통하여 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에는 10명의 침선장이 공조(工曹)에 소속되었고, 외공장(外工匠)은 2개소에 64명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궁중에서도 왕실 복식을 전담하던 상의원(尙衣院)에 경공장 가운데 8명을 분속시켜 각종 궁중복식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부족한 일손은 기녀(妓女)의 신분인 침선비(針線婢)가 거들도록 하였다.

나. 음식문화유산

1) 조선왕조 궁중음식(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기능보유자 황혜성)

- 조선조 주방상궁 한희순에게 궁중음식 전수받음

2) 계명주(鷄鳴酒;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최옥근/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279)

계명주는 술을 담근 다음날 닭이 우는 새벽녘에 벌써 다 익어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급하게 술을 빚을 필요가 있을 때 만들었던 속성주로 일일주(一日酒), 삼일주(三日酒), 계명주 등이 이에 속하고, 일명 엿탁주라고도 한다. 원래 탁주는 고두밥에 누룩을 섞어 버무린 후 오지그릇 위에 정(井)자 모양의 나무 걸치개를 걸고 체로 걸러 뿌옇고 텁텁하게 만든 술인데, 엿탁주는 쌀로 지은 고두밥이 아니라 옥수수과 수수, 엿질금으로 죽을 찼고 여기에 누룩과 술잎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계명주는 농림수산부 지정 전통식품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삼해주(三亥酒;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8호/기능보유자 이동복/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23)

삼해주란 찹쌀을 발효시켜 두 번 덧술하여 빚는 약주(藥酒)를 말한다. 정월 첫 해일(亥日, 돼지날)에 시작하여 매월 해일마다 세 번에 걸쳐 빚는다고 해서 삼해주라고 하며, 정월 첫 해일에 담가 버들가지가 날릴 때쯤 먹는다고 해서 유서주(柳絮酒)라고도 한다.

삼해주는 고려 때부터 제조한 술로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태평한화(太平閑話)》《주방문(酒方文)》《역주방문(曆酒方文)》《규곤시의방(閨是議方)》《산림경제(山林經濟)》《민천집설(民天集說)》《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조선세시기(朝鮮歲時記)》 등 많은 문헌에 그 만드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추관지(秋官志)》에 당시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삼해주가 애음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조 9년(1733) 형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이 “서울로 들어오는 쌀이 삼해주 만드는 데로 쏘려 들어가니 미곡정책상 이를 금함이 옳다”고 진언한 기록으로 보아서도 조선시대 널리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울에서는 일반인들의 삼해주 수요가 많아지자 정월에 빚어야 하는 계절적인 제한으로 그 수요가 한정되자 마포 공덕(孔德) 웅막이(甕幕)를 삼해주의 대량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웅기를 굽지 않은 가마를 이용하여 음력 정월에 대량의 삼해주를 빚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에는 소주의 술덧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일성록(日省錄)》에는 정월에만 빚던 삼해주가 아무 해일에나 빚는 술이 되었고, 또 청주보다 소주의 원료로 쓰게 되어 근래에는 삼해주라 하면 소주의 밑술 이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해주 보유자 이동복(李東福)은 충남 한산에서 출생, 보령 김영옥(金永玉)에게 출가하여 그의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술빚기를 배웠다 한다. 그의 시조부인 김윤환은 구한말 호조참판으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벼슬을 버리고 서울에서 보령 남포로 낙향하여 터를 잡았으며, 이 때 삼해수도 정부인(貞夫人) 이씨를 통해 보령으로 내려왔으리라 추측된다. 이 삼해주는 한국전쟁 전까지 빚어왔으나 그 뒤로는 가양주(家釀酒)로서 1년에 한 번씩 전통적으로

김씨 가문에서 빚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송절주(松節酒;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호/기능보유자 이성자)

서울 송절주란 송절(松節, 싱싱한 소나무 가지의 마디)·진득찰·당귀·진달래꽃(봄, 가을에는 국화)·솔잎 등을 넣어 빚은 술을 말한다. 송절주의 주질(周質)은 황갈색을 띠며 강한 약재 향기를 풍기며 진득찰·당귀 등의 첨가로 치담·치풍·신경통 등에 좋다고 한다. 저장은 옛날에는 땅속에 독을 파 묻어 저장하였으나 현재는 저온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도가 적당하면 수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서울 송절주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고증은 없으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규합총서(閨合叢書)》 등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중엽 16세기 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선조 때 충경공 이정란(李廷鸞, 본관 전의) 장군의 14대손 필승의 처 허성산(許城山, 1892~1967)이 송절주를 빚었으며, 그 자부인 박아지(朴阿只)에게 전수되었고, 현재는 이성자가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 의례 및 연행

가. 놀이와 연행

1) 윤현궁 고종명성후 가례

가례란 왕의 성혼(成婚)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왕세손·황태자·황세손의 성혼 및 책봉(冊封) 의식을 말한다. 국가적인 중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초례(醮禮)·친영(親迎)·전안(奠雁)·동뢰(同牢)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왕비의 경우에도 거의 같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는 1866년(고종 3) 3월에 행해졌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례를 치르기 전인 같은 해 1월 1일 전국에 있는 12~17살의 규수

에게 금혼령이 내려졌다. 금혼령이란, 국혼준비령이 내리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처녀의 혼인을 금하는 법령으로, 초간택(初揀擇)이 끝난 뒤 해제된다. 이어 초간택에서 5명, 2월 29일 재간택에서 3명이 간택되었고, 3월 6일 삼간택에서 민치록(閔致祿)의 딸 민자영(閔紫英)이 왕비로 간택되었다. 이에 따라 3월 7일 민자영을 조선 26대 왕비로 맞이한다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가례는 이후에 행해진 의식으로, 3월 9일 납채의(納采儀)가 창덕궁(昌德宮)에서, 수납채의(受納采儀)가 별궁인 운현궁(雲峴宮)에서 행해진 것을 시작으로 11일 납정의·수납정의, 17일 고기의·수고기의, 20일 책비의(冊妃儀)·비수책의(妃受冊儀)가 행해졌다. 이어 21일 진시(辰時)에 운현궁에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친영의를 행한 뒤, 정시(丁時)에 창덕궁에서 왕비와 서로 절을 한 뒤 술과 찬을 나누고 첫날밤을 치르는 의식인 동뢰연(同牢宴)을 치름으로써 왕비를 맞는 의식인 가례는 끝이 난다.

가례는 원래 친정집에서 치러야 하는데, 별궁인 운현궁에서 치른 것은 국가적인 큰 의식인지라 사가(私家)에서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위해 별궁제도를 두고, 별궁을 가례 장소로 이용하였다. 운현궁에서는 지금도 1년에 두세 번씩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를 육례에 따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2) 종묘 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되어 세계 무형유산 지정. 신위는 종묘 정전(正殿)과 조묘(伯廟)인 영녕전(永寧殿)에 나뉘어 봉안(奉安)되어 있다. 정전의 19실(室)에는 태조~순종의 48위의 신주를, 영녕전의 15실에는 태조의 5대조 목조(穆祖)~장조(莊祖)의,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각각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제향은 왕이 친림(親臨)하는 대사(大祀)로서 사직(社稷)과 함께 길례(吉禮)였다. 제사는 사가(私家)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祭官), 문무백관, 무·아악사(舞雅樂士) 등 700여 명이 참가하였다.

3)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조선 역대 군왕(君王)의 신위(神位)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의 제향(祭享)에 쓰이는 음악. 종묘제례에는 음악과 무용이 따르는데, 음악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이 연주되고, 무용은 팔일무(八佾舞:64명이 춤추는 文舞와 武舞)가 연행된다. 음악과 무용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악사와 무인들이 대행한다.

4) 궁중 다례 의식(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기능보유자 김의정)

다례란 사람 또는 신불(神佛)에게 차를 달여 바치는 예의범절로서, 궁중다례·유가(儒家)·불가(佛家)·도가(道家)의 다례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차는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있었다. (茶自善德女王時有之)라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7세기에는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또 흥덕왕(828) 때는 중국종의 차나무씨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어 늘어나는 수요에 충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661년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가야의 종묘에 시절제사인 다례(茶禮)를 지내는 음식으로서 떡·과일 등과 함께 차가 놓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기호음료로 마셨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 다례는 태후(太后)나 왕태자의 책봉, 원자(元子)의 탄생 축하 태자의 생일축하 의례시에 차를 올렸으며, 공주가 시집갈 때도 차를 베푼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조선시대 조정과 왕실의 다례에는 회강다례(會講茶禮), 사신 맞이다례, 왕실의 다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보유자 김의정의 전승계보를 보면 김명길 상궁(1894~1983)·성옥염 상궁 - 김미희(1920~1981) - 김의정(김미희 딸)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송파 다리밟기(시도무형문화재 3호/서울 송파구 잠실동 47)

다리밟기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로 자기 나이만큼 개울가 다리를 밟으면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복도 불러들인다

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는 관념이 강한 것은 다리(脚)와 다리(橋)의 발음이 같은데서 생긴 민간신앙이며, 언어의 유희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답교 또는 답교놀이라고도 하며, 강릉지방에서는 다리빼앗기라고도 한다.

다리밟기놀이는 양반에서부터 서민까지 구분없이 즐겼으며, 다리밟기를 할 때에는 사대문도 닫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장안에 있던 다리는 몇 개 되지 않아 몰려든 사람들로 혼잡해지자 양반층에서는 서민과 어울리기를 꺼려 하루 전날 14일 저녁에 다리를 밟아 양반다리밟기라 하였고, 부녀자들은 16일 저녁에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무리를 지어 다리밟기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어 혼잡한 가운데 여흥으로 기분을 돋우던 것이 점차 그 성격이 변하여 놀이패가 따로 조직되면서 연희성을 띠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송파다리밟기는 뛰어난 가무가 특색이다.

다리밟기놀이는 고려 때부터 행하여졌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며 우리민족의 생활감정이 담겨 있는 민속놀이이다.

- 6) 강령 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강령탈춤보존회, 김실자(金實子), 김정순(金正順), 전승지 서울시)

대표적인 서민문화의 하나로 그 내용에는 처첩제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 7) 양주 별산대놀이(楊洲別山臺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양주시 주내면 유양리 262,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경기 중심의 애오개·녹번·사직골 등에서 연희되었던 본산대(本山臺)놀이의 한 분파로서 전승되고 있다.

- 8) 쌍용 줄다리기

성남시 판교지역에서 정월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하나로 지역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회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매년 개최되던 민속놀이였다.

쌍용 줄다리기는 쌍줄을 이용하여 암줄과 숫줄로 편을 나누어 풍물과 함께 한 바탕 놀이를 하고 줄다리가 행해진다. 황룡줄(암줄)은 아낙네와 미혼남녀가 편을 이룬다. 암줄과 숫줄은 각각 용두라고 부르는 줄머리 부분을 커다란 원형고리 형태로 만들어 숫줄의 용두 부분을 암줄의 용두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비너처럼 생긴 커다란 비너목을 쫓아 암줄과 숫줄을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줄다리를 실시한다. 줄다리는 세 번을 겨루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암줄이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

9) 서울 새남굿(진오기)(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기능보유자 김유감 외 8명)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해 베풀어지던 망자 천도굿으로, 지노귀굿이라고도 한다. 새남굿은 불교의 저승신앙 내용이나 망자에 대한 유교적 예(禮)를 포함하고 있어, 무교(巫敎)·불교·유교의 관념과 의례가 적절하게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또 화려한 복식과 우아한 춤사위, 각종 정교한 의례용구를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궁중문화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당사경맞이와 새남굿으로 구성되며, 안당사경맞이는 새남굿의 전날 저녁 8시경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까지 계속된다. 안당사경맞이의 거리순서는 주당물림, 부정, 가망청배, 진적, 불사거리, 도당거리, 초가망거리, 본향거리, 조상거리, 상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전거리 등 16거리이다.

이튿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남굿은 새남부정, 가망청배, 중디밧산, 사재삼성거리, 말미, 도령(밖도령), 영실, 도령(안도령), 상식, 뒷영실, 베째(베가르기), 시왕군웅거리, 뒷전의 13제차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새남굿은 거리수가 많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신 5명이 참여하고, 잼이 6명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인 장구, 북, 대금, 해금, 피리 1쌍을 잡는다. 기능보유자는 서울 최고의 만신으로 알려진 김유감이며, 이상순·강운권·한부전은 만신으로서, 김정길·허용엽·김정치는 악사로서 기능을 이수

하고 있다.

- 10) 남이 장군 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보유자
이명옥/전승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4-3)

남이장군사당제는 용산구 용문동 106번지에 있는 남이 장군 사당에서 열리는 제의(祭儀)를 말한다. 10여년 전부터 서울시 대표축제의 하나로서 해마다 사당을 중심으로 일년에 한번씩 대제(大祭)를 올리고 있다. 결립(乞粒)은 용문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제(堂祭)·당굿·사례제는 사당 경내에서 실시한다.

당은 대지 89평에 건평 10평 크기의 3칸 한와(韓瓦)이며 당 입구 전면에 사당이 있다. 당의 유래는 남이장군이 이곳 용산에서 모병을 해서 훈련시켰고 또 한강변 새남터에서 장군이 참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당을 세운 것이라 한다. 원래 당은 원효로2가 당고개라는 거제산에 있었는데, 약 백 여년 전에 장군이 현몽해서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당 내부에는 남이장군상을 비롯해서 부군대감내외상·최영장군상·정추정씨와 부인상·산신령내외분·토지관장(土地官長)님·천신대감상(天神大監像)·맹인내외상(盲人內外像) 등 각종 무속화가 걸려 있다.

나. 행위예술

- 1) 경기민요(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기능보유자 안비취, 목계월, 이은주)

2) 판소리

- 김소희(金素姬, 1917.1.14~1995.4.17)

호 만정(晩汀). 본명 순옥(順玉). 전라북도 고창(高敞)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당대 여류명창 이화중선(李花仲仙)의 소리를 듣고 소리꾼이 되기로 결심, 동편제의 대가 송만갑(宋萬甲) 문하에 들어가 《심청가》 《홍보가》 등을 전수받고, 다시 정정렬(丁貞烈)에게 《춘향가》 《수궁가》를 배웠다. 이

후 22세 때에는 박동실(朴東實)에게 《수궁가》와 《적벽가》를 배우고 그 밖의 명창·연주자들에게 가곡·거문고·가야금 등을 차례로 익혔다.

미모와 맑은 음색으로 인기가 높았으며, 빅타레코드사에서 정정렬·임방울·이화중선 등과 전편 취입한 《춘향전》에서는 춘향역을 맡아 대성공을 거두었다. 1937년 창극좌에 입단하였고, 1945년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여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창설하였다. 1970~1993년 국악예고 재단이사, 1993년 국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악발전을 위하여 힘썼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 성창순(무형문화재5호)

3) 가야금 산조 및 병창(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 이영희

1938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김윤덕, 신쾌통 등에게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을 배웠다.

- 안숙선[安淑善, 1949.9.15~]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이며 판소리 명창이다. 1949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대금 산조 인간문화재인 강백천이 어머니의 사촌이며, 외삼촌이 동편제 판소리 인간문화재 강도근, 이모는 가야금 명인인 강순영이다.

국악인 집안에서 자란 안숙선은 아홉살 때부터 명인 주광덕으로부터 소리의 기초를 배우고 강도근에게서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등 동편소리를 익혔으며, 강순영에게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배웠다. 이 때부터 전국의 각종 학생명창대회를 휩쓸었고 여러 공연에 참가해 남원에서 는 제주 많은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다.

남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상경해 김소희에게 판소리 〈홍보가〉와 〈춘향가〉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판소리 수업을 받았고, 이어 박봉술

에게서 〈적벽가〉를, 정광수에게서 〈수궁가〉를, 성우향에게 〈강산제 심청가〉를 배우는 등 명창들로부터 판소리 다섯마당을 배워나갔다. 이후 1986년 판소리 완창발표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오정숙, 박동진만이 해낸 판소리 다섯마당을 이때부터 차례로 소화해 냈다. 또한 박귀희로부터 가야금 병창을 익혀 1989년 가야금 병창 준인간문화재가 되었고, 1997년 8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면서 타고난 좋은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일약 창극 명인으로 자리잡은 그는 1997~2000년 국립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1998년 용인대학교 국악과 대우교수가 되었고, 2000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및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성악과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쳤다.

4)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 한영숙(韓英淑, 작고), 이해주(李愛珠), 정재만, 이매방

승무는 승려들이 추는 속칭 ‘중춤’이라 하지만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이 아니고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매고 흰 고깔을 쓰고 추는 민속춤이다.

승무는 1900년대 초 협률사(協律社)에서 연희되기 시작하여 광무대(光武臺)·단성사(團成社)를 거쳐서 1908년 원각사(圓覺社)에서 한성준(韓成俊)이 이 춤을 지도했다고 한다. 그 뒤 1934년 한성준이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개소하고 무용지도를 본격화하면서 정리했으며, 1936년 한성준의 제1회 무용발표회를 계기로 이 춤이 예술무용으로 승화된 것이다. 한성준의 직계 후손인 한영숙(韓英淑)이 이 춤을 계승하였으며, 그녀가 작고한 뒤 이해주 등으로 이어졌다. 이매방의 춤은 호남 지역에서 추어온 이대조 계의 승무(‘호남승무’ 중요무형문화재)이다. 한 때 불교의 존엄성과 위신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승무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승무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이 있다. 민속무용 유래설로는 황진이가 지족

선사를 유혹하기 위하여 장삼·고깔·붉은가사를 매고 요염한 자세로 춤을 추었다는 황진이초연설(黃眞伊初演說), 상좌중이 평소 스승이 하던 기거범절(起居凡節)이나 독경설법(讀經說法)의 모습을 희롱조로 흉내내면서 춘 것이 승무라는 동자기무설(童子技舞說)이 있으며, 또 육관대사(六觀大師)의 제자 성진(性眞)이 탁발수도에 나섰다가 계속에서 8선녀를 만나 미색에 현혹되어 번민하다가 불도의 참을 깨달아 해탈의 과정을 무용화한 것이라는 구운몽인용설(九雲夢引用說), 파계로 환속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번민하는 모습을 무용화했다는 파계승번뇌표현설(破戒僧煩惱表現說), 산대가면극 중 노장춤이 승무의 원초적 기원이라는 노장춤유래설(老長舞由來說) 등이 있다. 불교의식무용설로는 세존(世尊)이 영취산에서 설법할 때 가섭이 그 뜻을 알고 춤을 추었다는 교리적 측면에서 유래설과 또 악신(樂神) 건달바(乾達婆)가 영산회상(靈山會相)의 장엄한 광경을 춤으로 묘사했다는 설, 위(魏)의 조자건(曹子建)이 천태산에 올랐다가 범천(梵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기떼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춤으로 옮긴 것이라는 등의 불교문화사적 기원 설까지 나오고 있다. 또 탁발승이 포교과정에서 군중을 모으기 위해 법무(法舞)를 속화시켜 향간에 번지게 되었다는 불교무용유래설도 있어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추측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법고와 당악(서울곳에서 쓰이는 것)가락이 삽입된 것에서 불교의식무용에 비중을 두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5)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기능보유자 이매방, 김숙자)

남도(南道) 무무(巫舞) 계통의 춤으로 살, 즉 액(厄)을 쫓다(제거한다)는 뜻을 가진 민속무용.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춤사위로 구성된다. 살풀이에 있어서 수건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서무(序舞)에서 짐짓 느리게 거닐다가 이따금 수건을 오른팔·왼팔로 옮기고, 때로는 던져서 떨어뜨린 다음 몸을 굽히고 엎드려 두 손

으로 공손히 들어올리기도 한다. 떨어뜨리는 동작은 불운의 살이라 할 수 있고 다시 주워 드는 동작은 기쁨과 행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살풀이굿처럼 삼엄한 귀기(鬼氣)가 감도는 차거운 분위기와 고도의 세련됨이 조화된 춤이다.

- 정경파(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123~57)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경파는 원래 충북 옥천 태생이지만 그의 선친을 따라 진주에서 살았고,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남도창을 배웠다. 처음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4세이며 16세 때에는 유명한 춤꾼이었던 한성준(韓成俊, 1874~1941)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갔고, 또 박성준(작고)선생에게서 사사를 받았다고 한다. 승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살풀이 춤은 무속음악 가운데 살풀이라는 남도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원래 무당들이 신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던 춤인데, 후에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발전하였다.

6) 태평무(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보유자 강춘자(예명 강선영)/서울 종로구 연건동 301-2)

왕과 왕비, 그리고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추는 춤. 장단이 복잡하므로 가락을 알지 못하고는 춤을 만들 수도, 또 출 수도 없다.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다. 특히, 발디딤이 다양하고 발을 구르는 동작은 이 춤만이 지닌 멋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라 할 수 있고, 방안춤으로서 일부 살풀이춤과 더불어 정중동(靜中動)의 미를 지닌 춤이다.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쇠를 기원하는 뜻에서 추어진 춤으로 명무 한성준(韓成俊)이 추어온 공연 춤의 하나이다. 어느 때부터 전승되어 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약 백년 전부터 추어온 춤이라 한다. 태평무의 반주음악이 경기도 무속(巫俗) 음악인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터벌림·도살풀이 등의 가락으로 되어 있고 또 춤도 경기 무당춤의 동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도당굿에서 행해진 무악(巫樂)과 무무(巫舞)를 재구성한 춤이다.

한성준(1875~1941)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7·8세부터 음악을 하였고, 박순조(朴順祚)에게 고법(鼓法)을 배웠으며, 외조부인 백운채(白雲彩)에게 춤과 북·가락을 배웠고, 서학상(徐學相)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웠다.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정정렬(丁貞烈)의 북을 도맡아 쳤으며 당시 홍선대원군과 고종 앞에서 춤을 추어 참봉(參奉) 직위까지 받았다. 또 1933년에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한 민속무용의 대가로 그 동안 흩어져 있던 무용을 체계화하여 승무(僧舞)·학무(鶴舞)·태평무(太平舞) 등을 무대화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음악은 물론 춤을 예술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다. 음악에 재주가 있고 박자에 능했기 때문에 경기 도당굿의 왕거리에서 나오는 춤을 공연춤으로서의 태평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준은 손녀 한영숙과 강선영에게 태평무를 영구적으로 보존을 부탁할 정도로 애정을 가졌다고 하며, 작고할 때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수의 대신 태평무 의상을 입혀달라.”고 말하듯이 태평무를 사랑하였다.

태평무의 무복(舞服)은 남성무용수인 경우 남복(男服)을 입혔으며, 여성무용수인 경우 궁중여복을 입고 추었다 한다. 강선영이 입고 추던 무복은 내의는 당의, 외의는 원삼을 바탕으로 하여 손에는 한삼, 머리는 큰 머리로 장식한 것이다.

참고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서울시와 각 구별 홈페이지
- 경기도와 각시군별 홈페이지
- 네이버 백과사전

Ⅱ



충청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312
2. 무형문화유산	357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정순왕후 생가 - 호연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덕 동춘당 * 회덕 동춘선생고택 - 강완숙 관련 - 김일엽과 수덕사 - 유관순열사 관련 - 임영신 관련 - 무령왕릉 - 관동묘려 - 혜빈 양씨 사당 - 정녕군부인 김씨 묘소 - 은진송씨정려각 - 충비삼월의비 - 덕수이씨 6세 8호 정문 - 연안이씨 열녀각 - 경주김씨 효열각 	충청남도 기념물 제168호 보물 제209호 유형문화재 제3호 사적 제230호 충청북도지정기념물 제99호 유형문화재 제24호 문화재자료 제14호 충청북도기념물 제109호 충청북도지정기념물 충청북도지정기념물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윤증 고택 - 금성 중전리 고가 - 김세균고가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 지방유형문화재 제88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및 문화관 - 제천 점말 동굴유적 - 단양 금굴 구석기유적 - 단양 구낭굴 구석기유적 - 단양 수양개유적지 -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사적 제334호 지방기념물 제116호 충청북도지정기념물 제102호 충청북도지정기념물 제103호 사적 제398호 충청북도기념물 제126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우내 삼일운동 사적지 - 대전 호수돈 여학교 	충청남도기념물 제58호(천안시)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낙화암 - 부여 공남지 - 부여 유왕산 - 온달산성 - 온달동굴 - 의림지 - 박달재 	사적 제135호 사적 제264호 천연기념물 제261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군 신천리 남근석비 - 서산 여섯골 순교성지 - 황새바위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본당 - 법주사 선희궁 원당 - 죽령 산신당 - 칠성암 - 연풍성지 - 배티성지 - 감곡성당 	공주시향토문화유적기념물 제11호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33호 충청북도지정 민속자료 제3호 충청북도지정유형문화재 188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제관식 - 금제수식부이식 - 금제경식 - 은제팔찌 - 청주출토 순천김씨 의복 - 청원 구례손씨 묘 출토 유물 	국보 제155호 국보 제157호 국보 제158호 국보 제160호 중요민속자료 제109호 중요민속자료 제116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평조씨 <병자일기> - 호연재 유고 - 권준의 호구단자 - 윤돈 등의 동북 화회입의 - 남양전씨 중증문서 - 무령왕비 지석 - 청주출토 순천김씨 간찰 - 언해태산집요 	유형문화재 제153호 보물 제727호 국보 제163호 중요민속자료 제109호 보물 제1088호
		여성의 예술 작품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생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보부상 유품 - 홍성 보부상 유품 	중요민속자료 제30호 중요민속자료 제30호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춘포짜기 - 한산세모시짜기 - 지승제조 - 홍성 땡땡이장 	무형문화재 제25호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호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2호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31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소곡주 - 계룡 백일주 - 금산 인삼 백주 - 당진 면천 두견주 - 청양 구기자주 - 아산 연엽주 - 송순주 - 연안이씨가 각색편 - 보은 송로주 - 증원 청명주 - 청원 신선주 	무형문화재 제3호 무형문화재 제7호 무형문화재 제19호 무형문화재 제86호 무형문화재 제30호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1호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9호 무형문화재 제10호 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4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 남산놀이 - 금산 디딜방아 뱅이놀이 - 증원 마수리 농요 - 대전 앓은 곳 - 충남 보령 원산도 산신제 - 충남 보령 장고도 용왕제 - 충남 금산 농바우끄시기 -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 서산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 보령시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충청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5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창가곡 - 복혜숙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충남 출신의 여성, 혹은 충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주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유적지이다. 생가와 시가, 활동 지역 및 건물, 묘소와 사당 등이 포함된다.

충북지역은 내륙에 위치하여 육로나 해로를 통한 외래문물의 전파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때문에 근대문물의 수용이 늦었고, 보수성도 강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활동이나 공동체 문화, 역사적 업적을 남긴 여성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충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충청북도 홈페이지 인물난에 오른 인물이 정조의 효의왕후인데, 그녀의 유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효의왕후는 조선 정조의 왕비로서 본관은 청풍이며 좌참찬 김시묵의 딸이다. 1762년(영조 38) 10세로 세손빈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고 성품이 온후하고 공손하여 궁중에 칭송이 자자했다. 일생을 검소하게 지냈고, 여러차례 존호가 올려졌으나 모두 거절했다. 휘호는 예경자수이고, 능은 수원에 있는 건릉이다.

1) 서산 정순왕후(貞純王后) 생가

조선시대 왕비의 생가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정순왕후(1745:영조 21~1805:순조 5)의 생가는 현존하는 왕비 생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정순왕후는 어떤 인물인가? 그녀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이다. 영조의 정비 정성황후 서씨(貞聖王后徐氏)가 죽자 1759년(영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1772년에는 예순(睿順) 성철(聖哲)·명선(明宣)·용인(隆仁) 등의 존호를 받았다. 소생은 없지만 사도세자와의 사이에 틈이 생겨 참소가 심하더니, 아버

지 한구의 사주를 받아, 나언경이 사도세자의 부도덕과 비행을 상소하자 서인으로 폐위시켜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그 뒤 당쟁에서 세자를 동정하는 시파(時派)를 미워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벽파(僻派)를 항상 옹호하였으며,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벽파인 공서파(攻西派) 등과 결탁, 정치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시파 등의 신서파(信西派)를 모함하여 천주교에 대한 일대 금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옥사 당하고 귀양 갔다. 한편으로는, 그의 과단성 있는 정치수행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찾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시호는 정순(貞純)이며, 능호는 원릉(元陵)이다.

정순왕후의 생애를 보면 몇 가지 점에서 언급할만한 특징을 지닌다. 우선 그녀는 15세에 66세의 영조 계비로 들어가 왕비는 어떤 경우에도 금혼령을 내려 10대의 소녀 중에서 간택하던 당시 왕실의 혼인 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조모 자격으로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 수렴청정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당시 여성이 권력의 최고 핵심에 오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한 조선시대 몇 안 되는 왕비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수렴청정 시 천주교 박해에 앞장 서는 등 보수적인 정치로 후대에 논란을 제공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순왕후 생가는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있고, 충청남도기념물 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은 정순왕후가 출생한 곳으로 왕비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이 집의 유래를 보면 조선 효종 때 승지와 예조참의 등을 지낸 학주 김홍욱이 효종과 친분이 있었는데, 왕은 그가 노부를 모시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인 김적에게 집을 하사했다. 이 집은 효종 시절인 1649~1659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은 ㅁ자형 평면을 갖춘 집으로,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 건물 좌우에 각각 3칸씩 덧달아 ㄷ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에는 앞면 5칸·옆면 1칸의 별채를 배치하였는데 ㅁ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가옥의 후원과 안채를 둘러싼 담장은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대문은 평문이다.

정순왕후의 생가는 우리로 하여금 조선 후기 지방 양반의 생활공간을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왕비의 존재 및 왕실 풍속, 여성의 정치권력 등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2) 호연재 관련

호연재(1681~1722)는 조선 후기의 여류시인으로 군수를 지낸 안동 김씨 김성달의 딸이다. 19세에 회덕의 명망있는 사족 동춘의 증손인 소대헌 송요화와 결혼하여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그녀의 저작물 때문이며, 둘째 그녀와 남편의 삶 자체 때문이다.

그녀의 시적재능은 집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선조인 김상용과 김상헌은 물론 아버지와 서모도 모두 유고를 남기고 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여성이 지닌 절제된 감정과 사유를 시문에 담게 되는데, 이는 3책으로 필사되어 가전되었다. 1책은 『오두추치(鰲頭追致)』라고 표지에 쓴 시집이고, 1책은 『호연재유고(浩然齋遺稿)』라 표제한 것이며, 1책은 『자경편(自警篇)』이라고 한 것이다. 이 3책은 후손 송용억에 의해 원문 영인과 더불어 『호연재유고』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녀가 남긴 『호연재유고』는 조선 후기 여류문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후기가 되면 전기 이래 문풍의 진작, 실학의 학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의 저작활동도 활발해진다. 김삼의당, 강정일당 등 여류문인이 시문집을 남기고 있으며, 이사주당, 이빙허각, 임윤지당 등 여성 실학자들에 의해 실학서적들이 저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이들은 18,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호연재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뒤를 이어 여류 문학사의 공백기를 채워주고 있다.

또한 그녀와 남편의 가문은 당대를 대표하는 명문가이다. 그들의 삶을 통해 17-18세기 양반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다. 최근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사대부 소대헌 호연재 부부의 한평생』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들의 결혼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송용억 가옥은 대전시 민속자료 제2호로 송촌동 198-4에 위치한다.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안채, 가묘로 구성된 목조가옥으로 17세기 중엽에 지어졌

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의 둘째 손자 송병하(宋炳夏, 1646 ? 1697)가 분가(分家)하여 거주한 건물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에는 가장(家長)이 독서나 손님맞이 할 때 사용하였던 큰 사랑채가 있고, 오른편에는 부모나 장성한 자녀의 거처(居處)로 사용하였던 작은 사랑채가 나란히 있다. 작은사랑채 왼쪽의 중문(中門)을 들어서면, 안주인의 생활 공간인 ㄱ자 모양의 안채가 있고, 안채 뒷뜰에는 “송씨가묘(宋氏家廟)”라고 쓴 사당이 있다. 안채와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사당 등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고택이다. 송용억 가옥에는 대전이 자랑하는 조선중기의 여성시인 호연재 김씨의 시집과 서간문 뿐 아니라 송씨 문중 부녀자들의 살림살이 백과사전이라할 수 있는 [주식시의(酒食是儀)] 등의 책이 전해져오고 있다. 또한 집안 유품으로 발간된 각종 책자와 생활용품들을 선비박물관을 사재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호연재 집안의 여성들이 대대로 읽기 위해 필사된 책들이 많이 남아있다. 7책으로 나누어진 [유효공전], 17책으로 만들어진 [유씨삼대록]이 200년넘게 전해져왔고, 상 하권으로 필사된 [수매청심록]은 1920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집은 조선 중기 여성의 생활을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라 하겠다.

<참고 유적>

- 회덕 동춘당(懷德 同春堂); 보물 제 209 호. 주 소: 대덕구 송촌동 192
- 회덕 동춘선생고택(懷德 同春先生古宅); 유형문화재 제 3 호. 주소: 대덕구 송촌동 192

3) 강완숙 관련

강완숙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천주교도로서 세례명은 골롬바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온 천주교는 조선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주 앞에 만민평등’이라는 교리는 봉건적인 신분제, 남존여비 사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남녀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들이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내외법에서의 탈피와 조직 활동도 경험할 수 있

게 하였다. 조선후기 많은 여성들이 천주교신자가 되어 순교한 것은 여성들의 탈봉건 및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교인 중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강완숙이다. 강완숙은 충청남도 덕산에서 출가해 가톨릭교에 입교하였다.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서울로 이주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95년부터 6년간 주문모 신부의 전도를 도왔다. 최초의 가톨릭교 여성회장으로 왕실의 은언군(恩彦君)의 처 송씨와 그의 며느리 신씨(申氏) 등 여성을 상대로 전도하였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강완숙은 조선후기 여성 천주교 신자의 상징적 인물로서 우리 여성의식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이라 하겠다.

강완숙은 경기도 이천 어농리 성지에 주문모 신부 및 10여명의 순교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는데, 충청남도나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 생각된다.

4) 김일엽과 수덕사

김일엽은 시인이며 · 수필가이고 여승(女僧)으로 본명은 원주(元周)이다. 평안남도 용강에서 출생해 진남포의 삼숭여학교(三崇女學校), 서울의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일본에 유학하였다. 신문학운동과 여성운동을 하였으며 기독교신자였으나 불교로 개종,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에 입산하여 수도하는 불제자로 일생을 마쳤다. 문학활동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4월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 《신여자(新女子)》를 창간하는 한편 같은 해에 창간된 《폐허》의 동인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동아일보 문예부 기자, 《불교》지의 문화부장으로 활약하면서 여성의 자유와 개방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썼다. 그의 문학세계는 작품의 예술성보다도 주제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는 소설 《계시》 《자각》 《순애의 죽음》 《사랑》 등이 있고, 시 《추회(秋懷)》 《이별》 《동생의 죽음》 등이 있으며, 수상록 《청춘을 불사르고》 등이 있다.

김일엽은 나혜석, 윤심덕 등과 함께 신여성 1세대를 대표한다. 신여성 1세

대는 외국유학을 통해 봉건적 의식에서 벗어나 여성해방을 지향했으며 삶 속에서도 이를 실천하려 했다. 이들의 생애와 사상, 작품들은 그대로 우리 여성운동사의 한 시기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나 예산군에서 수덕사 관계자와 함께 협의, 김일엽 관련 자취를 수덕사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유관순열사 관련

유관순(柳寬順:1902~1920) 열사는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존재이다. 그녀의 3·1운동에서의 활약과 옥중 투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3·1운동에는 여학생 및 교회 전도부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여성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여학교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여성들의 봉건적 의식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항기 들어온 기독교 역시 포교방식으로 교육 의료사업과 신앙활동의 병존을 내세워 많은 여학교를 만들었다. 때문에 당시 여학교와 교회는 봉건적 의식을 깨우는 중요한 장이었다. 여성들의 만세운동은 구한말 국채보상운동과 의병운동의 맥을 잇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3·1운동이 끝난 뒤에도 여성들은 애국부인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봉건적 남녀차별의식에서 벗어나 남자와 똑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유적은 우리의 여성해방운동이 독립운동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녀의 본관은 고흥(高興), 충청남도 천안출신이다. 아버지는 중권(重權),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며, 5남매 중 둘째 딸이다. 1916년 기독교감리교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梨花學堂)의 교비생으로 입학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학교 고등과 1년생으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 뒤 일제가 이화학당을 휴교시키자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와 청신학교(靑新學校)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곳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조인원(趙仁元)·김구

응(金球應) 등의 마을지도자를 규합하여 연기·청주·진천 등지의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 이해 음력 3월 1일 아오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날 수천명의 군중을 모아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 전개에서 잔인한 일본헌병의 총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살당하고 자신은 아오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잡혀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 항의하고, 일제법률에 의하여 일제법관에게 재판받음이 부당함을 역설하다가 법정모욕죄까지 가산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있으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악형을 받았다. 불굴의 투혼으로 계속 옥중항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끝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유관순이 참살된 지 이틀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푸라이와 월터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체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거부하였다. 유관순의 학살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제는 할 수 없이 시체를 인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유관순 열사의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생가 및 봉화지는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어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 일본관헌들이 가옥과 헛간을 불태워 유품 한 점도 없이 모두 전소되어 빈터만 남아 있는 것을 1991년 12월 30일 대지 714㎡ 에 본채 및 부속사 등을 복원하였다. 생가 옆에는 기념비가 서 있고 열사가 다니던 매봉교회에는 소규모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6) 임영신 관련

임영신(1899-1977)은 교육가, 정치가로 호는 승당(承堂), 충남 금산 출생이다. 전주 기전여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미국유학을 가던 중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이 우리 민족을 대량 학살한 현장사진과 사망자 명단을 입수, 이를 국

제여론에 호소하려고 이승만 박사에게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독립운동에 적극협력하게 되었다. 1930년 미국 남캘리포니아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32년 중앙보육학원을 설립하여 교장이 되었고, 이듬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총무를 지냈으며, 41년 경성중앙유치원을 설립하였다. 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이듬해 대학으로 승격시켰으며, 48년 중앙대학으로 개편하여 학장이 되었고, 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총장에 취임, 61년까지 재직하였다.

한편 정계에도 진출하여, 45년 여자국민당 당수, 48년 상공부장관, 제헌국회의원, 제 2 대 민의원 의원 등을 지냈으며, 5·16 이후에는 대한여자청년단 단장, 한국부인회장, 중앙대학교 총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민주공화당 고문 등을 지냈다. 문화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으며, 저서로 《My Forty Year Fight for Korea》가 있다

7) 무령왕릉(공주 송산리 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 제25대 무령왕(501 ~ 523)과 왕비의 무덤이다.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송산리 제5, 6호 고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공사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은 전축분(塼築墳)으로 무덤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인 연도(羨道)를 지나, 왕과 왕비 관이 있는 커다란 방인 묘실(墓室)이 있고, 물이 빠지는 배수구(排水口)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의 네 벽 가운데 남북벽은 아래에서 천장부까지 수직으로 올라갔고, 동서벽은 벽면의 상부에 이르러 차츰 안쪽으로 기울어 아치형 천장을 구성하였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이며, 이중 국보가 12건에 이른다.

유물에는 지석, 석수, 왕과 왕비가 착용하였던 장신구류와 몇 점의 부장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무령왕릉은 처녀분으로 발굴되어 3,000여점에 이르는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백제의 역사와 문화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무덤의 주인공과 연대가 뚜렷하게 새겨진 왕과 왕비의 지석(誌石)이 출토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바로 왕과 왕비 지석의 기록에서 숨겨져 있었던 백제 역사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다. 더구나 그 기록들이 『삼국사기』의 기록들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삼국사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무령왕릉은 자료가 부족하여 늘 미완성의 상태였던 백제사의 복원에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나무조각 하나하나까지 다른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과 비교하여 그 역사성을 연구하는데 결정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은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있는데, 금동그릇이나 수저, 중국 수입도자기 등을 통해 당시의 화려한 왕실 문화와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알 수 있다. 또 왕비의 관장식,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여러 장신구가 나왔으며, 금과 은으로 장식된 큰 칼도 보인다. 이것은 왕의 것인 용과 봉황을 장식한 큰 칼에 비해 화려함이 떨어지나 여성의 유물로 큰 칼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신라의 무덤에서도 남녀 간 유물차이보다는 신분 간 유물차이가 더 컸다는 점을 상기할 때 고대사회 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무령왕릉이 위치한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웅진 도읍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 군집된 곳으로 공주시에서 서북방으로 약 1km지점인 금성동 웅진동에 인접한 송산리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7기의 고분이 있다.

8) 관동묘려

대전시 동구 마산동의 문화재 자료. 열녀로 정려된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楡, 1389~1446)의 어머니 류씨부인의 묘 아래에 제향을 지내기 위해 지어 놓은 재실(齋室)이다. 양쪽 옆으로 2칸씩의 방과 공간이 달린 솟을대문 안에 ㄱ자형 평면으로 지어진 관동묘려는 안방과 건넌방, 대청, 부엌 등을 드린 민가 형태의 재실이다. 재실 대청에 “관동묘려(寬洞墓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재실 동쪽편에 류씨부인의 묘소가 있다. 좀처럼 드문 현존하는 여성 재실이라는 점, 그리고 조선시대 어머니의 위상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유적지라 할 수 있다.

9) 혜빈 양씨 사당

혜빈 양씨는 단종을 기른 세종의 후궁으로서, 단종과 함께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인물이다. 그녀 뿐 아니라 그녀의 세 아들 모두 화를 당했다.

혜빈 양씨는 현감 양경의 딸로 본관은 청주이다. 세종 때에 선발되어 후궁으로 들어가 혜빈에 봉해졌다. 한남군 어, 수춘군 현, 영풍군 전 등 3남매를 낳았다. 1414년(세종 23)에 현덕왕후가 동궁 단종을 낳고 9일만에 돌아가시니 세종은 여러 빈 중에서 가장 어린 양씨를 택하여 어린 단종을 보양케 하였다. 양씨는 정성을 다하여 음식과 기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하였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어리므로 기회를 노리는 종친이 있어 정국이 위태로웠다. 양씨는 임기응변으로 단종을 보위하였다. 1455년(단종 3)에 세조가 위를 찬탈하고 전국의 옥새를 거두려고 하였으나 양씨는 이치에 따라 혼유하여 말하기를 “옥새는 국왕의 중보이다. 선왕의 훈이 있기를 세자와 세손이 아니고는 전할 바가 아니라 하였기에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놓지 못하리라” 하니 즉일로 죽임을 당했다. 영풍군 이전도 운검을 갖고 입시하여 동시에 죽임을 당했다. 한남군 이어는 경남 함양에 유배되었다가 1457년(세조 3) 금성군과 더불어 단종을 복위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화를 입어 적소에서 병사했다. 1713년(숙종 39)에 혜빈의 묘를 봉하러 하였으나 그 곳을 잃어버려 정하지 못하고 불조묘를 명하였다. 1791년(정조 15)에 민정이라 시호 하였으며, 사당은 충주시 용관동에 있다.

그녀의 충절은 결코 사육신에 못지않으며, 만일 그녀가 남성 관리였다면, <<삼강행실도>> 충신전에 이름이 올라 대대로 기림을 받았을 것이다. 혜빈은 단순히 정치의 희생양이라기보다 여성의 기개를 드러낸, 전근대 여성 인물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유적은 전혀 향토사적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이, 충북지역의 보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10) 경녕군부인 김씨 묘소(도지정 기념물 제99호/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 15-1)

경녕군부인 김씨묘는 묘역이 200여평이며 사각형의 봉분에 호석을 두르고 있으며, 화강암의 상석과 장명등 문관석이 있다. 묘비는 <조선국 왕자 경령군 제절공 처 첨절부인 김씨지묘>라 하였다.

11) 은진송씨 정려각(유형문화재 제 24호/대덕구 법동 205-5)

송씨부인(1575~1659)은 송담 송남수(松潭 宋南壽)의 딸로, 시집간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 남편이 죽은 후 친정 부모에 의지하여 아들인 김정여(金慶餘, 1596~1653)를 훌륭하게 키웠다. 또한 송씨부인은 효성이 매우 지극하여, 친정 아버지(송남수)가 노환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고, 손가락 뼈를 가루내어 먹임으로써 소생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영조 때 정려(旌閭)되었다.

<참고: 열녀사적>

- 공주시 효부성씨비(향토문화유적 제9호/신기동 647)
 - 열녀 권씨 정려(향토문화유적 제14호/우성면 내산리 381)
 - 광주김씨 열녀 정려(향토문화유적 제15호/의당면 월곡리 166-2)
 - 열녀 김씨 정려(향토문화유적 제19호/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93)
 - 성주이씨 열녀문(향토문화유적 제23호/이인면 오룡리 253)
 - 열녀오씨 정려(향토문화유적 제31호/우성면 단지리 산35-7)
 - 향지리 열녀비(향토문화유적 제32호/계룡면 향지리 산299-2)
- 보령시 정씨 열녀문(청라면 의평리)
 - 이씨 정려(청라면 장산리)
 - 언양 김씨 열녀문(청라면 장산리)
 - 오씨 열녀문(주산면 금암리)
 - 백씨(白氏) 열녀문(주산면 동오리)

고씨(高氏) 정문(주산면 삼곡리)
 신씨(申氏) 열녀문(주산면 화평리 약현)
 신씨(申氏) 열녀문(주산면 황률리)
 임은모(任殷模) 정려(주산면 황률리)
 조씨 정려(주산면 황률리)
 장씨(張氏) 열녀문(미산면 내평리)

- 연기군 전주이씨 정려
 - 언양김씨 정려
 - 광신김씨 정려
 - 한양조씨 정려
 - 밀양손씨, 창녕 성씨 정려
 - 경주최씨 정려
 - 부인임씨 정려
 - 의성김씨 정려
 - 성씨, 장씨 쌍정려
 - 남양홍씨 정려
 - 김해김씨 정려
 - 조수빈 삼쌍효열문 정려
 - 나주나씨 정려
 - 기계유씨 정려
- 영동군 남원양씨 행적비각(향토유적56호)
 - 하동정씨 열녀비각(향토유적59호)
 - 하동정씨 정문(비지정 이하 동일)
 - 충주박씨 열녀문
 - 인천채씨 열녀문
 - 원주 김씨 효열문
 - 은진임씨 효열문
 - 밀양박씨 열녀문

선산임씨 효열문

- 음성군 순흥안씨 열녀문 향토자료
 - 성주이씨 열녀문
 - 청주이씨 열녀문
 - 장수황씨 열녀문
 - 평택임씨 열녀문
 - 진주정씨 열녀문
- 예산시 화순옹주 홍문(도지정 유형문화재제45호/신암면 용궁리799-2)
- 대전시 고흥유씨정려각 및 비(유형문화재제25호/대덕구 중리동 산2-1)

12) 충비(忠婢) 삼월의 비(문화재자료 제14호/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오창면 양지리쪽에서 목령산을 오르는 산중턱에 김윤의 묘소가 있고 묘역좌측에 노비 삼월의 비가 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이 비는 작지만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돌이끼가 끼어 고색이 창연하다. 비의 앞면은 『충비삼월지비』라 쓰여있고 뒷면에는 삼월의 공적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 의하면 삼월은 청풍김씨 집안의 여종으로 성종 20년에 주인집의 장자인 김윤이 태어난지 3일만에 여주인이 죽자 삼월이 젖을 먹이며 키웠다. 김윤이 18세가 되어 결혼을 했으나 또한 불행히도 유복자를 남긴채 김윤마저 죽게 되어 삼월이 정성으로 유복자를 잘 보살피 키우니 후에 벼슬이 우후에 이르는 인물이 되는 등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는데, 그 공이 모두 삼월에 있다고 하였다. 이 비는 김윤의 후손들이 삼월의 사후 약 150년이 지난 정조 20년에 세웠으며 글은 정조때 좌의정을 지낸 김종수가 짓고 글씨는 김치희가 썼다.

13) 덕수 이씨 6세 8호 정문(충청북도 기념물 제109호/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424-1)

이 정문(旌門)은 조선 선조대부터 조선 영조대까지 덕수이씨(德水李氏)가문(家門)에 6인의 효자(孝子)와 2인의 효부(孝婦)에 대한 효행을 기리기 위

해 나라에서 정려되는 영조 40년(1764년) 건립되었다. 효자(孝子)는 학수(鶴壽), 탕(撐), 정철(廷喆), 복초(復初), 만춘(萬春), 채(埰)이며, 효부(孝婦)는 종윤(宗胤)의 처 관성전씨(管城全氏)와 복초(復初)의 처 구례장씨(求禮張氏)이다. 정면 5칸 측면 1칸의 정려각이 있고 자연석 덩벙 주초에 원형기둥으로 홍살을 설치했으며, 내부에 정려 현판이 걸려있다. 건물구조는 홑처마 한식 목조기와 맞배집으로 건물의 좌향은 북향이다.

14) 연안이씨 열녀각(도지정기념물/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광석)

이 정려각(旌閭閣)은 열녀 석천순(石川棼)의 처 연안이씨의 정려로 조선 인조(仁祖) 15년(1637)에 세운 것이다. 연안이씨는 병자호란(丙子胡難)을 당하여 남편이 청병에 잡혀가 죽고 또 이씨를 난행하려하자 자결하였다. 그 후 그의 원혼이 연풍현감의 꿈에 나타나자 현감이 이 사실을 알고 이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라 전한다. 한편 연풍 구읍지의 기록에는 석천순의 처가 병자호란 때 청병에 화를 입어 자살한 사실을 임금께서 알아 정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열녀각 안에는 1927년 이범식(李範植)이 개각(改刻)한 편액이 있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보호철책을 둘렀다

15) 경주김씨 효열각(도지정기념물/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이 정문(旌門)에는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유근(李裕根)의 처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의 것으로 광무 8년(1905)에 세운 것이다. 경주김씨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의 9대 손부(孫婦)인데, 본관은 경주이며 순창(淳昌)의 딸이다. 경주김씨는 시어머니의 병환이 매우 위독하게 되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고 변의 냄새와 맛을 보고 탕약을 썼으며, 급기야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더니 수십일 동안 생명이 더 연장되었다. 그의 남편이 50세의 초로에 중풍에 걸려 병세가 위독하게 되자 뒤뜰에 단을 모아 지성을 다하던 중 하늘의 도움으로 병을 고쳤다. 남편이 8순이 되

어 노환이 깊어 걱정하니 꿈에 신의 계시로 약을 구하였다. 광무 8년 남편이 죽자 장례후 3일만에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다. 효열각 안에는 嘉義大夫行同知寧府事李裕根妻貞夫人慶州金氏孝烈之閣(가의대부행동지령부사이유근처 정부인경주김씨효열지각)라 쓴 편액이 있다.

나. 여성생활유적지

여성의 생활공간은 시대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신석기 움집에서부터 남녀의 공간분리가 보인다. 남녀의 공간분리는 조선시대 양반주택에서 극대화된다. 남녀의 거주는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고 사이에는 담을 쳤다. 이는 남녀유별 이데올로기를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주택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민들의 주택은 남녀공간분리가 심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에 따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생산노동을 위해 집이 지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생활공간을 통해 시대별, 계층별 여성의 삶과 위상을 알 수 있다.

충북지역에 궁궐은 없으며,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은 여럿 남아있다.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은 내외법을 실행하는 실제적 장소로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명한 분리를 시대적 특징으로 한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비의 공간은 궁궐 내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왕비는 말 그대로 중궁전의 주인인 중전마마였던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 우주관인 태극도설에 기인하며, 왕비의 침전은 우주의 근원인 태극으로 간주되었다. 백제시대의 궁궐은 불타고 없으나 이후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복원하게 된다면 시대별 왕비의 존재형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논산 윤증 고택(중요민속자료 제190호/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조선시대 학자 윤증(1929~1724)의 목조 가옥. 조선 숙종 때 윤증이 지었다고 전해지나, 현재 건물은 19세기 중반의 건축 양식을 나타낸다. 윤증의 본관은 파평, 자는 자인, 호는 명재, 유봉, 시호는 문성이다. 유계, 송준길, 송시열

의 3대 사문에 들어가 성리학을 기본으로 당대의 정통 유학을 수학하였다.

가옥은 상류 양반 가정의 표본이 되는 목조단층 건물로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공간을 잘 말해준다. 안채와 사랑채로 되어있는데, 안채는 ㄷ자형이며, 중앙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대청이 있다. 대청 뒤편 좌우에 고방이 있고, 서쪽에는 정면 2칸과 측면1칸의 안방과 정면1칸, 측면1칸의 옷방이 있다. 남쪽에는 부엌이 넓게 꾸며졌고, 부엌 위에 다락이 있다. 동쪽에는 건넌방이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2칸 규모이다. 대청과 누마루가 있고, 가운데 정면2칸, 측면2칸의 온돌방이 있으며, 그 뒤에 또 다른 방이 이어졌다. ‘ㄷ’자형의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연결되어 있어 ‘ㄱ’자형 구조를 갖추었으며, 대청 등의 배치가 품위 있게 되었다. 지붕이 특이하게 조성되었는데, 그 형태가 창경궁의 연경당과 같다. 구조적인 면과 배치 형태, 창호의 처리 등에서 기능성과 다양성을 볼 수 있다. 노성면 병사리에는 윤증의 영정을 모시고 춘추로 제향하는 유봉영당(충청남도문화재자료280)이 있는데, 1744년 문화에 있던 유생들이 건립하였다.

<참고: 조선시대의 양반가옥>

- 아산 성준경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4호/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외암리 참판댁(중요민속자료 제195호/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윤보선 전대통령생가(중요민속자료 제196호/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
건재 고택(중요민속자료 제233호/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6)
- 서산 김기현 가옥(중요민속자료 제 199호/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 부여 민칠식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2호/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37-4)
정계채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3호/군수리)
- 홍성 조응식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8호/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엄찬 고택(중요민속자료 제231호/홍북면 노은리 29)
- 서천 이하복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7호/기산면 신산리 120)
- 예산 정동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1호/고덕면 오추리 568)
추사고택(도지정 유형문화재43호/신암면 용궁리 799-2)

- 천안 민익현 가옥(문화재자료290/직산읍 군서리108)
- 제천 수산 지곡리 고가(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9호/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20)
박도수고가(국가민속자료 137호/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
정원대 고가(중요민속자료 제148호/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한수 명오리 고가(도지정 민속자료 제5호/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23-1)
- 청풍 도하리 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3호/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황석리 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4호/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후산리 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5호/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 충주 최함월 고가(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7호/충북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28-1)
윤민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35호/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최함월 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7호/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28-1)
- 청원 이항희가옥(중요민속자료133호)
윤계화가옥(중요민속자료138호)
신형호고가(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48호)
과필현고가(충북민속자료8호)
- 보은 선병국가옥(중요민속자료134호)
최태하가옥(중요민속자료139호)
- 영동 송재문가옥(중요민속자료132호)
송재휘가옥(중요민속자료140호)
김선조가옥(중요민속자료142호)
성위제가옥(중요민속자료144호)
선병우고가(충북문화재자료5호)
- 진천 신헌고택(문화재자료1호)
- 괴산 김기웅가옥(중요민속자료)
- 음성 김주태가옥(중요민속자료141호)
- 단양 조자형가옥(중요민속자료145호)

2) 금성 중전리 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45)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의 고가로 '81. 5. 1 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었다. 이 집의 건축연대는 조선말로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로 튼 ㄹ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양반가의 전형적인 가옥구조로 규모가 크다. 안채는 2칸 대청 좌측에 건너방과 툇마루를, 우측으로는 ㄱ자로 꺾으면서 2칸 크기의 안방과 부엌이 있고 사랑채는 대문간 우측으로 안방, 옷방, 사랑방을 두었으며, 좌측으로는 외양간을 두었고 여기서 꺾어 한곳에 부엌칸, 아랫방, 옷방과 툇마루를 두었다. 대문간에는 내외담을 설치하여 밖에서 안마당이 직접 보이지는 않으면서 꺾어 돌아가도록 설계한 바, 이는 우리나라 주택의 한 특징이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대문을 통해서만 연결되도록 사랑방 옆에 담장을 둘러 구분하였고, 편의를 위해 쪽문을 설치했으며 주위 담장을 따라 은행나무, 괴목 등을 식재하였고, 안마당 중앙에는 화단을 꾸몄다. 안채는 기단을 자연석으로 3층으로 포개어 쌓았다. 주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로 되어 있고 기둥은 각주로 세웠으며 지붕가구는 몸채와 익랑채에 모두 3량가로 구성되어있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구성하였다. 안채는 우진각지붕의 기와집이고, 사랑채는 본래부터 초가였으며 양반가의 전형적인 가옥구조로 규모가 크고 잘 보존되어 있다.

3) 김세균고가(지방유형문화재 제88호/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23-3)

한말 이조판서를 지낸 김세균의 소실이 살던 집으로 1981. 5. 1 지방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었고, 한수면 북노리에 있던 것을 충주댐건설로 안채는 충주시 살미면 구룡리로, 사랑채는 송계2리로 이건하였다. 이 집은 ㄱ자집으로 남향이고 남측 좌에서부터 마루방, 옷방, 안방이 배치되었고, 안방 앞측으로 부엌이 있으며, 북으로 꺾어 옷방, 건너방이 배치되었으며 안방, 옷방, 마루방 전면은 퇴를 달아 마루를 깔았으며, 부엌의 상부는 다락을 설치하였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몸체의 좌측에 익랑 2칸반을 달아낸 ㄱ자 집이며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옥은 별로

크지 않은 규모로 되어 있으나 반듯한 치목숨씨와 간결한 구조로 짜여 있으며 빛바랜 고색을 띠고 있어서 단아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다. 여성생산활동 유적지

충북지역은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 특히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구석기 유적지가 많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약 70만년 즉, 오래 전 여성의 생활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구석기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을 주로하면서 각기 남자와 여자의 일로 분업화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냥해 온 짐승의 가죽을 벗겨 의생활 자료로 쓰고, 고기를 가지고 요리했다. 이 때 여성들이 쓴 도구가 긁개이다. 충북지역의 구석기유적은 전기에서 후기까지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신석기나 청동기시대 유적지까지 함께 나와 선사시대 여성생활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및 문화관(사적 제334호/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이 유적을 통해 당시 생활상 및 남녀 분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차에 걸쳐 연세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층은 27개의 층위로 형성되어 있고 유물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층도 11개 층위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14개의 문화층은 아래층으로부터 돌감(石材)과 석기 만드는 수법이 발달되어온 과정을 보여준다. 석기의 특징으로 볼 때 전기의 곧선사람들은 차돌과 편마암을 거칠게 떼어 내어 외날찍개·안팎날찍개의 무거운 석기를 만들었고, 중기의 슬기사람들은 이 밖에 반암도 떼어 좀더 발달한 긁개·찌르개·자르개·흙날·툽날석기를 몸돌과 격지석기로 만들고 돌려떼기 수법도 쓰게 되었다. 후기의 슬기슬기 사람들은 아주 발달한 간접떼기-돌날떼기 수법을 썼으며, 돌날자르개·돌날긁개·돌날밀개·돌날새기개 등을 만들어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돌감도 흑요석과 수정을 멀리서 가져다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구석기인들은 집을 짓고 불을 피우며 살았는데, 여름철에는 화덕을 집 밖에, 겨울철에는 집안에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터 안에서 나온 머리털을 분석한 결과 지금 인간의 머리카락과 같았음을 알게 되었고, 땅바닥과 벽에 흠을 파서 새겨놓은 고래상과 돌을 떼어 내어 아가미·눈·비늘들을 새겨 만든 물고기상이 나왔다. 이들은 둥글납작한 자갈돌에 새기게 끝으로 선을 그어 그림을 그린 것을 통하여 슬기슬기 사람들의 예술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래돌을 여러 차례 문지르고 그어서 불을 피우는 데 썼던 돌도 나왔다. 이 위층에 중석기 시대의 얇은 층이 덮여 있는데, 세석인·세석인핵·잔새기개·잔꺾개들이 출토되어 중석기시대의 문화가 발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통해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구석기 유적 및 중석기 유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곳에서 나온 대표적 도구인 찌개와 꺾개를 통해 당시 사회의 남녀 성별 분업을 알 수 있다. 찌개는 보통 삼각형에 가까운 생김새로 그 한쪽 끝이 뾰족한 석기인데, 짐승의 고기와 가죽 혹은 나무 같은 것을 베기 위한 칼이나 나무에 비끌어매어 창끝처럼 쓰였다. 꺾개는 짐승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고 나무를 다듬는 일에 쓰였다. 따라서 찌개는 남성, 꺾개는 여성으로 각기 사냥과 채집에 종사했음을 보여준다.

2) 제천 점말 동굴유적(지방기념물 제116호/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산68-1)

제천점말동굴은 전기구석기에서 후기구석기까지 유적층이 퇴적되어 있다. 1973년에 발견된 12개의 문화층중 아래 6층은 제 3간빙기 즉 중기 구석기 전기로부터 전기 구석기 시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위 6층은 제 4빙하기 즉 중기 구석기 후기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로 해당된다. 이 동굴에서는 멸종된 하이에나를 비롯한 다량의 동물화석과 골각기 석기가 채집되었으며 여기서 밝혀진 화분상과 함께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자연환경과 역사연구에 큰 자료를 제공하였다.

점말동굴은 남한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이며, 조선계 석회암지대에 발달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으로 용두산(해발871m) 동남향 사면 중간쯤의 병풍바위 끝부분(해발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을 중

심으로 근처에 6개의 가지굴이 발달되어 있다.

1973~1980년까지 8차에 걸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중기·후기 구석기시대의 뚜렷한 3개의 문화층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과학적인 연대측정 방법과 출토유물, 층위퇴적 양상 등으로 볼 때 전기 구석기와 중기 구석기(66,000년), 후기 구석기(18,660년)으로 밝혀져 구석기시대 전시기에 걸친 문화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이다.

동굴의 규모는 입구 너비 2~3m이고 굴 안쪽이 막혀 있어 전체길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확인된 길이는 12~13m이며, 동굴 입구가 동남향을으로 뚫려 있어 선사인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동굴유적에는 털코뿔이, 동굴곰, 짧은꼬리 원숭이 등의 동물화석 20종과 석기, 뼈연모, 예술품 및 식물화석 등 풍부한 고고학적 유물이 발달되어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 생활상, 기술발달과정 등을 밝히는 중요한 유적이 된다.

점말동굴은 자연현상으로 쌓인 토양, 석회암 낙반석, 구름자갈돌, 석회마루 등은 퇴적층위의 구분과 기후환경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며, 사람이 밖에서 들여온 사냥감, 뼈연모, 석기 등 고고학 자료는 유적의 시대편년과 선사시대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3) 단양 금굴 구석기유적(도지정 기념물 제102호/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18)

길이 80m, 너비 6m, 높이 9m의 굴이다. 구석기시대 전·중·후기,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들이 덧쌓여있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만들어 썼던 석기·뼈연모·토기 조가비연모 등과, 사냥했던 짐승뼈 화석과 조가비 및 토기조각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먹거리와 삶 및 자연환경을 살필 수 있다.

약 70만년 전부터 제일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은 흰 안팍날주먹도끼·찍개·긱개 등을 만들어 썼으며, 짐승을 사냥하면서 생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뒤 홍수가 지나가고 간빙기(間氷期)의 따뜻한 기후에서 쌍코뿔소·불곰·젓소·꽃사슴·말을 사냥하며 살았다. 이들은 팔매돌을 많이 만들었고, 주먹

도끼·찍개·자르개·찌르개를 만들어 사냥하였다. 이어 심한 추위가 찾아왔고, 동굴 천장이 얼부풀어서 무너지는, 한동안 사람이 살지 못했던 시기가 찾아왔다.

오랜 뒤에 다시 간빙기가 찾아와서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자 전보다 높아진 동굴바닥 위에서 살게 되었다. 짧은꼬리원숭이·쌍코뿔소가 흔해지고, 다시 서늘한 기후에서 살던 불곰·사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냥기술도 늘어났고, 흙날·자르개·격지주먹도끼·찌르개 등의 석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많은 짐승을 사냥하며 살았으므로 짐승화석과 석기가 많이 나왔다. 석기를 만든 수법도 더욱 발달하여 돌려떼기 수법으로 만든 것이 늘어났고, 또 격지주먹도끼·흙날·격지자르개·툽날·긱개 등을 만들어 쓴 것으로 보아 슬기슬기사람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슬기슬기사람들이 발달된 대고떼기 수법으로 작지만 더 날카로운 돌날[石刃]문화를 이룩하였고 돌날격지로 만든 긱개·밀개·찌르개·새기개 등의 석기도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모루망치떼기로 둥글고 얇으며 작은 판자 모양의 돌을 떼어서 금굴 특유의 초생달격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돌날떼기수법(대고떼기)에 의한 돌날격지·돌날긱개·돌날자르개 등은 슬기슬기사람들의 창조품이지만, 슬기사람들의 석기기술을 좀더 발전시킨 것이며, 그들은 금굴의 그 다음 얇은 층에서 짧은 기간 동안 후기 구석기시대를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슬기슬기사람들의 석기는 작고 가벼우나 날카로웠다.

그 다음 중석기시대의 문화층은 더욱 얇으며, 줌석기[細石器]가 주로 나왔다. 그들은 줌석기로 강가에서 물고기와 조개·자라 등을 먹거리로 하였다. 다음에 이어지는 신석기시대에는 무늬토기를 만들었고, 조가비에 물고기상을 새기며, 조가비팔찌를 만들어 끼었다. 그들이 사용한 화덕자리에서는 토기조각·고동·자라뼈들이 섞여 나오고 있으며, 빗살무늬를 새긴 것은 한강 하류의 암사동 것과 이어지고 있다.

맨 위층의 토기에는 무늬가 없는 토기조각에 구멍을 뚫어 가락바퀴를 만들어 실을 뽑아 천을 짜고 옷을 만들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갈아 만든 돌끝은 나무를 베고 끝파기를 하여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굴유적에서는 여성의 사냥도구인 굽개, 여성의 발명품 토기, 직조관련 유물 등이 나오고 있다. 구석기에서 청동기까지 여성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4) 단양 구낭굴 구석기유적(도지정 기념물 제103호/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32)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1986~1988년 2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굴의 총길이는 140m로 발굴 당시의 상황은 파괴되거나 교란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였다. 한정된 범위만 발굴한 결과 3개의 퇴적층과 5개의 석회마루층 등 모두 8개 층위로 구성되었다(바닥층 미확인). 꽃가루 분석과 숯자료 분석을 통하여 1층은 따뜻하나 습기가 많았던 것으로 가늠되며, 3층은 늘푸른바늘잎나무와 지는넓은잎나무가 무성했던 기후에서 차츰 서늘한 기후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비날개비늘과 짧은꼬리원숭이 화석이 출토로 당시의 기후가 따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개의 석회마루층은 여러 차례의 덥고 다습한 기후변화를 보여준다. 뼈화석과 석기·뼈연모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문화층은 3층(제2 퇴적층)으로, 구낭굴의 주된 문화층을 형성하고 있다. 석기는 석회암을 감으로 하여 떨어진 낙반석과 종유석을 간단한 폐기수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들을 쓰임새에 따라 주먹찌르개·자르개·굽개·격지로 나눌 수 있다. 뼈연모는 긴 대롱뼈에서 떼어낸 격지에 밑잔손질을 베풀어 연모를 만들었으며, 쓰는 과정에서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간 작은 격지자국이 관찰된다. 동물화석의 종적(種的) 구성은 짧은꼬리원숭이 1개체, 꽃사슴 64마리, 곰 5마리, 호랑이 2마리, 스라소니 2마리, 오소리 6마리, 담비 1마리, 새 1마리, 박쥐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구낭굴에서 살던 옛사람의 주된 사냥감으로 사슴잡이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뼈로는 발목뼈·발등뼈·발가락뼈가 나왔는데, 형태와 특징으로 볼 때 성인 남자의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된 발굴로 아직까지 구낭굴에 대한 절대 연대 값을 얻지 못하였으나, 동물의 종적 구성과 퇴적양상은 주된 문화층

인 3층이 후기 홍적세의 따뜻한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단양 수양개유적지(사적 제398호)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의 남한강가 단구에 위치한 이 유적은 충주댐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1983~1985, 1995~1996년까지 7차에 걸쳐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1,250m²가 발굴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유적조사에서 가장 넓게 발굴된 곳으로 중기 구석기부터 청동기 문화층까지 층위를 이루고 있다. 중기 구석기층에서는 자갈돌을 주된 재질로하여 모루·망치떼기 등 직접떼기로 만든 찌개·굽개·찌르개등이 발굴되었다.

수양개유적의 문화성격을 대표하고 있는 후기 구석기 문화층에서는 돌날 수법·눌러떼기수법등이 시기의 대표적인 간접떼기로 만든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주먹도끼와 찌개를 비롯하여 수양개 유적을 대표하는 줍돌날 몸돌과 스페찌르개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유적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유물은 50여 곳의 석기제작소에서 만들어졌음이 연구결과 알려졌다. 그 가운데 스페찌르개와 줍돌날 몸돌을 분석한 결과 공주 석장리, 중국,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당시의 문화전파 관계를 밝히게 되었다. 이 밖에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바램과 주술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젓소의 정강이 뼈에 새긴 『물고기』모양 예술품이 발굴된 것을 비롯하여 씨앗·숯·꽃가루도 찾아져 당시의 생활·자연환경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이 유적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석기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유적의 범위도 넓어 한반도의 후기 구석기는 물론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으로 꼽히고 있다.

6)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충청북도 기념물 제126호/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68-2 일원)

남한강변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선사시대 대규모 마을유적으로 신석기·청

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잘 보존된 곳이다.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많이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민무늬토기 외에 집터, 불뎌자리, 움, 도랑 등의 다양한 생활유적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며 생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로는 각종 토기류와 화살촉, 돌도끼, 대패날, 그물추, 가락바퀴 등의 석기류가 나왔고 쌀, 보리, 밀 등의 곡물과 복숭아 씨앗, 도토리 등이 나와 당시의 식생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적지로서 충주지역의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라. 여성교육·운동 유적지

19세기말 제국주의 침탈과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교는 서울과 평양 등 대도시에서 세워졌고, 또 종교와 관련시키자면 포교방식을 교육 및 의료사업과 병행한 기독교가 여학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기독교보다는 천주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다. 기독교는 주로 육로를 통해 서북지역으로부터 들어온 반면 천주교는 해안을 따라 포교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충남지역은 19세기말에 세워진 여학교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1910년 공주 경천리에 광명학교 임원들에 의해 여학교가 설립되며, 논산에도 영화여학교가 진광 남학교와 병설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몇 년 지속하지 못한 것 같으며, 1920년대말, 30년대에 공주여고나 대전여고 등이 설립된다. 한편 서울에 유학한 유관순에 의해 천안지역에서 기념비적인 3·1운동이 벌어진다.

한편 충북지역의 경우 내륙에 위치하여 신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지역적 보수성으로 여학교 설립이 늦었다. 1905년 충북 옥천에 진명여학교가 설치되었으나 1년남짓 존속했던 것 같고, 1909년 제천에 여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역시 오래 지속하지 못한 듯하다.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지역 선각자들에 의해 의욕적으로 설립되나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제

시대에는 사립학교가 민족정신을 일으키는 요람이라는 점에서 <학교령> 등을 만들어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폐교시켜 버렸다. 충북지역의 여성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하겠다.

1) 아우내 삼일운동 독립사적지(도기념물 제58호/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가 1946년 병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구미산에 기미독립만세기념비를 세워 그의 행적을 새겼다. 4각의 기단석위에 계단을 만들고 위로 올라 갈수록 좁혀 가다가 오석으로 받침을 만들었다. 그 위에 사다리꼴의 비를 세웠는데 일중 김충원이 글을 썼다. 이 지역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를 불렀던 지역이다.

2) 대전 호수돈 여학교

1899. 12. 19미국인 갈월 선교사가 개성에 주일 학교(Sunday-School)로 시작하여 그후 개성 여학당이라 칭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했다. 1938. 4. 1. 교육령 개정으로 호수돈 고등여학교라 칭했다. 1953. 2. 14, 6. 25동란으로 대전에서 개교했으며, 1954. 4. 26 문교부 장관 인가를 얻어 호수돈 여자 중학교, 호수돈 여자 고등학교로 개칭했다. 초창기 여학교는 주로 서울과 경기,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호수돈 여학교는 비록 개성에서 개교했으나 대전지역으로 이주, 그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만한 학교라 하겠다.

마.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1) 부여 낙화암

2)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부여읍(扶餘邑) 동남리(東南里)에 있는 백제시대 별궁(別宮)의 연못. 마래못·마래방죽이라고도 한다. 현재 연못 주변에는 별

궁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과 몇 개의 초석이 남아 있고, 연못 안에는 정자와 목조다리가 있으나 초라하고 퇴락하여 옛 모습을 잃었다. 연못 동쪽에는 대리석으로 바닥으로부터 팔각형으로 쌓아올린 우물이 남아 있고, 그 주위에는 많은 기와조각이 산재해 있다. 이 자리는 백제의 사비정궁남쪽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이궁(離宮)터로 짐작되는 것으로 미루어 궁남지는 이궁의 궁원지(宮苑池)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궁원지로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의 <무왕조>에는 <물을 20여 리나 되는 긴 수로로 끌어들이 주위 물가에는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물속에 섬을 쌓아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방장선산은 고대 중국사람들이 동해 한가운데에 신선이 사는 봉래(蓬萊)·방장·영주(瀛州)의 삼신산(三神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원의 연못 속에 3개의 섬을 꾸며 불로장수를 희망했다고 하는 데서 본뜬 것이다.

또 이 못에 얹혀 있는 백제 무왕(武王)의 출생설화인즉 무왕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부여 남지변(南池邊)에 살던 중 그 못에 사는 용과 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 서동(薯童)이라 하였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백제의 조경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사적으로 《일본서기》에 <궁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부여 유왕산

양화면 암수리 금강변에 유왕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다. 660년 8월17일 의자왕을 비롯한 1만2천8백명의 백제유민이 당나라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을 한 장소라 알려져 있다. 이후로 해마다 음력 8월17일이 되면 이 일대 사방 백리에 흩어져 사는 부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갖는 유습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4) 온달산성(사적 제264호/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7)

규모: 길이 682m 면적 7,972평. 충북지역은 한반도의 가운데에 위치해 삼

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격전지였다. 온달은 고구려와 신라 간의 치열한 싸움을 대변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유달리 온달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온달의 부인은 유명한 평강공주이다. 그녀는 고대 사회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한 흔치않은 여성이다. 그녀와 온달과의 사랑은 아름다운 부부애를 보여주고 있다.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의 무용담이 이 지방에 전해 오면서 붙여진 산성의 이름으로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와 고구려의 영토확장의 전초기지로서 온달장군이 신라군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며, 조선초기 이미 고적화된 기록이 있다. 성의 길이는 682m로 남한강이 굽어 보이는 요새지에 내외협축의 석축을 한 소규모 산성이지만, 성안에서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한다. 온달산성의 주변의 자연부락 명칭이 모두 전쟁 용어인 온달성, 장군목, 대진목, 방터, 성재고개, 말등, 군관 등이 성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특히, 남서쪽 문터의 형식과 동문지의 웅성적 돌출부등은 우리나라 고대성곽에서 드물게 보이는 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온달동굴은 남굴이라고도 불리며 성산아래에 위치해 있어 일명성산굴이라고 명명되었고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다. 동굴의 생성연대는 약4억5천만년 동안 생성된 석회암 자연동굴로서 현재 관람이 개방된 길이는760m 입구높이5~10m 폭5m 관람소요시간은 약30분정도이다. 또한 이 동굴은 온달장군이 수도하였던 장소로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6. 25사변시에는 피난처로 이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하수가 풍부하여 다른 동굴과는 달리 담회백색 석순과 종류석이 잘 발달되었고 동굴내부의 온도는 여름철 14도 겨울철16도 수온12도로 피서지로서 적합하다. 특히, 동굴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는 동굴 끝부분에는 다양한 종류석, 석순 케비티등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다.

6) 의림지

옛날 의림지가 생기기 전에 이곳에 부자집이 있었다. 하루는 이집에 스님

이 찾아와 시주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이집 주인은 탐욕스러울 뿐 아니라 심술도 또한 사나웠다. 한동안 아무 대꾸도 없으면 스님이 가버리려니 했는데 탁발스님은 가지 않고 묵탁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심술이 난 집주인은 거름 두엄에 가서 거름을 한 삽 퍼다가 스님에게 주었다. 스님은 그것을 바랑에 받아 넣고 머리를 한 번 조아리더니 밭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집안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는 얼른 쌀독에 가서 쌀을 한바가지 퍼다가 스님을 뒤쫓아가 스님에게 주며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었다. 스님은 그것을 받더니 며느리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조금 있으면 천둥과 비바람이 칠 터이니 그러면 빨리 산속으로 피하되 절대로 뒤 돌아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집주인이 하인을 불러 놓고 쌀독의 쌀이 축이 났으니 누구의 소행인지 대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스님이 하도 딱해 퍼다 주었다고 아뢰었다. 시아버지는 크게 노하여 며느리를 뒷방에 가두더니 문에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 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울리고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광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더 요란하게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더니 잠겼던 광문이 덜컥 열리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탁발승의 말이 생각나 얼른 광속을 빠져 나와 동북쪽 산골짜기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쯤 달려가던 며느리는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뒤 돌아보지 말라던 스님의 말을 잊고 집이 있는 쪽을 뒤 돌아 보았다. 그 순간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며느리의 몸은 돌로 변해갔으며 집이 있던 자리는 땅속으로 꺼져내려 온통 물이 괴고 말았다. 물이 고인 집터가 의림지이며 며느리가 변해서 돌이 된 바위는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제비바위(연자암)근처 어디엔가 서 있다는 것이었다.

7) 박달재(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백운면 평동리)

조선조 중엽 경상도의 젊은 선비 박달(朴達)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 백운면 평동리에 이르렀다. 마침 해가 저물어 박달은 어떤 농가에

찾아 들어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금봉이라는 과년한 딸이 있었다. 사립문을 들어서면 박달과 눈길이 마주쳤다. 박달은 금봉의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금봉은 금봉대로 선비 박달의 초초함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그날밤 삼경이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 밖에 나가 서성이던 박달도 역시 잠을 못이뤄 밖에 나온 금봉을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선녀와 같았다. 박달은 스스로의 눈을 몇 번이고 의심하였다. 박달과 금봉은 금새 가까워졌다. 이튿날이면 곧 떠나려던 박달은 더 묵었다. 밤마다 두사람은 만났다. 그러면서 박달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함께 살기를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박달은 고갯길을 오르며 한양으로 떠났다. 금봉은 박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싸리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에 온 박달은 자나깨나 금봉의 생각으로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금봉을 만나고 싶은 시(詩)만을 지었다. 과장(科場)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지었던 박달은 결국 낙방을 하고 말았다. 박달은 금봉을 볼 날이 없어 평동에 가지 않았다.

금봉은 박달을 떠나보내고는 날마다 박달의 장원급제를 서낭에서 빌었다. 그러나 박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금봉은 그래도 서낭에게 빌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박달이 떠나간 고갯길을 박달을 부르며 오르내리던 금봉은 상사병으로 한을 품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금봉의 장례를 치르고 난 사흘 후에 낙방거사 박달은 풀이 죽어 평동에 돌아와 고개 아래서 금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박달은 땅을 치며 목놓아 울었다. 울다 얼핏 고갯길을 쳐다본 박달은 금봉이 고갯마루를 향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박달은 벌떡 일어나 금봉의 뒤를 쫓아 금봉의 이름을 부르며 뛰었다. 고갯마루에서 겨우 금봉은 잡을 수 있었다. 와락 금봉을 끌어안았으나 박달은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사람들은 박달의 죽은 고개를 박달재라 부르게 되었다.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지모신으로 추앙되기도 하고, 여사제로서 종교의례를 주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고대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공사 영역의 분리, 남녀의 역할분화가 심화되면서 여성은 종교 면에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국가의 공식적인 승직 체계에서 여성은 배제되어갔다. 여성은 사회적 성취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여성의 신앙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가정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일상적으로 종교행위를 했다. 가신신앙, 기복적인 무속에 매달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에 의해 배척되었던 불교의 명맥을 유지시켰던 것도 여성들이다. 여성신앙의 흔적은 도처에서, 현재까지도 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신앙들은 남성중심의 성리학 체제에서 여성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조선후기가 되면 천주교가 들어오고, 이는 여성들이 봉건적인 의식을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천주교에 귀의했다. 이는 여성들의 새 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연기군 신천리 남근석 비

조선시대에 여성이 가정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일이었다. 아들에게로 제사가 계승되고, 아들의 봉양을 받으며, 남자에게만 사회적 성취가 허락되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가문이 유지되고, 노후 걱정이 없으며, 또 아들 덕에 봉작을 받는 등 영예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아들 낳기를 열망했다. 남편과의 합방도 아들 낳기 좋은 날을 택해 했고, 평소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노리개를 지니며, 태교도 아들을 낳기 위한 것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 전국 도처에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신앙 대상물과 민속행위들이 존재한다.

금남면 신천리 아랫마을에서 윗마을 산동네의 비탈을 올라가면 중간지점 바위 위에 남근석 두 개와 남근정이 서 있다. 이 남근석과 남근정은 수백년 전부터 이 곳에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여기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아이를 갖게 되거나 아들이 없는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한다. 최근 도굴로 남근석이 없어지고, 남근정도 상수도 시설 공사로 제 모습을 잃었으나 여전히 이 곳을 찾는 여성들이 있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 서산 여숫골 순교성지(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1866년부터 1882년 사이 천주교 박해 때 1천여 명의 신자를 생매장한 곳으로 천주교인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는 순교성지이다.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형하기 힘들자 해미천에 큰 구덩이를 파고 모두 생매장 한 곳이다. 해미천 옆에는 박해당시 생매장 당한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16m 높이의 순교탑이 있으며 생매장시 천주교도의 죽음에 앞서 예수마리아를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를 예수머리로 알아들은 주민들이 이를 ‘여숫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 남성보다 여성 신도 수가 많았음을 상기할 때 수많은 여성천주교도들이 이 곳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순교성지라 하겠다.

3) 황새바위(향토문화유적 기념물 제11호/공주시 금성동 산 6-1외 2필지)

공주시 교동 옛 교도소 뒷산에 오르면 순교성지인 황새바위가 있다. 예전에는 족쇄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황새바위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신유사옥 이후 공주감영이 순교자들의 공개 처형 장소로 사용한 곳이다. 이 황새바위에서 순교한 사람은 ‘내포의 사도’로 존경받는 이단원과 손자선, 이성삼 등 확인된 순교자만 229명이며, 미 확인자까지 합하면 거의 일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본당

1919년 천주교 대전 본당이 만들어진 후 1921년에 지은 대전 최초의 성당이다. 전체 외형은 단순하게 처리된 중세 고딕양식을 적용하였고, 정면 중앙부의 종탑과 3량으로 구성된 장방형 평면 등은 성당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내부구조는 기둥들에 의한 수직적 분리와 목재 리브의 수평적 연속성이 조화

를 이루어 카톨릭 성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제단부에는 세 개의 아치를 두어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위계성과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현관 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에서, 내부 벽면의 ‘십자가의 길’ 부조와 침탑의 십자가는 독일에서 각각 수입한 것으로, 모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전지역 최초의 성당이며 6. 25당시 선교사와 양민 수백 명이 학살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건물이다.

5) 법주사 선희궁 원당(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33호/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법주사 내)

본 전각은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씨의 위패를 봉안하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선희궁 원당으로 조성되었다가 후에 법주사와 관련있는 큰스님의 초상을 모셔둔 조사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비워두고 있다. 전각의 구조는 담장과 솟을 삼문형식을 취한 유교식 건축양식으로 사당건축의 외형과 유사하며, 영쌍창형식의 창문을 통해 건축시기를 알 수 있다. 법주사내 다른 건축물과 달리 특이한 형태의 담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점토구이와 둥근돌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길상무늬와 별무늬를 담장에 장식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민화풍 양식의 담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6) 죽령 산신당(도지정 민속자료 제3호/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49-9)

죽령은 삼국이래로 나라에서 춘추로 국행제를 지내던 곳이며 조선조에는 죽령사를 세우고 산신치제 하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단양, 영춘, 풍기, 청풍, 제천군수가 한데모여 제사를 지내 국사당 이라고도 불렀으며 한말이후에도 단양, 영춘, 풍기의 3군수가 제주가되어 관행제를 지냈다. 근원 설화로 인하여 <다자구 할미당>이라고도 불리며 그제신이 여성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산신당은 옛 죽령사의 자리에 목조로 세웠으며 그 안에는 단이 있어 <죽령산신지원>이라는 신비를 모시고 매년 정월제를 지내고 있다.

7) 칠성암(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대흥사 절터에서 원통골을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원통암이 있고 암자 서쪽에 하늘을 찌르는 바위가 있으니 대석이 30척이며 이 위에 깎아 세운듯한 70척의 바위 일곱개가 솟아있어 칠성암이라 불리운다. 옛부터 이 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해뜨기 전 새벽바람에 정한수 한사발을 떠 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옛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련히 연상되는 곳이다.

8) 연풍성지(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87-2)

천주교 연풍성지는 조선 정조 15년(1791) 신해교난 이후 연풍땅에 은거하여 신앙을 지켜가던 교인 추순옥(秋順玉), 이윤일(李尹一), 김병숙, 김말당, 김마루 등이 순조 1년(1801) 신유교난 때 처형당한 자리에 1974년부터 천주교회에서 성역화한 곳이다. 성지 내에는 연풍향청 건물과 높이 8.5m의 십자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순조 13년(1813) 연풍현 병방(兵房)골에서 태어난 교인으로 고종 3년(1866)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갈매곶에서 순교한 한국천주교 103聖人の 한사람인 루까 황석두(黃錫斗)의 입상과 묘가 있다. 왼쪽에는 순교현양비(殉敎顯揚碑)를 세웠으며 문앞에는 처형석(處刑石)을 유물로 전시하고 있다. 성지에 있는 연풍향청은 향청 이 후 헌병주재소, 경찰지서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었으나 천주교회에서 구입하여 연풍공소의 예배소로 사용하고 있다.

9) 배티성지(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471)

배티성지는 최양업(崔良業:도마,1821-1861)신부가 머물며 천주교를 전도하던 곳으로 교도들은 용기를 구워 생업을 삼으면서 장사길에 전도 활동을 하다가 고종3년(1866년) 병인 박해로모두 순교한 곳이다. 배티성지는 많은 순교자의 전교정신을 기리고 기도하는 장소와 피정의 지로 활용되었었으나 십자가와 목주만이 남아 천주교 박해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 동네어귀에 도래

나무가 많은 배나무 고개라서 이치란 말이 생겨났고 이것이 순수한 우리말로 배티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조선 영조때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을 때 백곡을 지나다 이 마을 노인 이순곤이 이끄는 주민에게 패한 뒤 다시 안성쪽으로 향하다 오명황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 패전하였다는데서 패치라 불리우다 바뀌었다는 설이있다.

1870년부터 다시 신앙이 싹터 1884년에는 선교사들이 진천에 배티, 삼박골, 용진골, 새울, 굴티등 5곳에 공소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1890년에는 배티 공소에 “교리학교”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신자들이 하나, 둘 떠나 현재 이곳 배티에는 신자들이 생업을 영위하던 웅기점과 십자가만이 남아있다. 한편, 배티성지에서는 배티성지 개발 후원회를 조직, 교회사연구소와 피정의 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에서 진천을 거쳐 백곡 저수지를 지나 8km정도가면 양백리가 나타나는데 배티마을을 지나쳐 고개를 오르다가 (무명의 숨은 꽃)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이름없는 순교자9인의 묘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묘지는 배티지역에서 생활하던 신자들이 포졸들에게 잡혀 고개를 넘어가던 중 집단 순교해 묻혀 있는 곳으로 현재는 십자가와 묵주만이 걸려 있을 뿐이다. 병인박해(1866년) 이후 배티와 소학동 일대의 신자촌은 많은 순교자를 내고 일시적으로 와해됐고 신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여러 골짜기의 신촌은 없어지고 백곡 공소와 함께 배티성지 너머 잣넙골에서 순교한 밀양 박씨 발라바와 시누이 남원 윤씨의 묘가 안장돼 있다.

10) 감곡성당(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88호/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 29)

감곡천주교회는 1896년 프랑스 신부인 임가밀로 신부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전국에서 18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며 충북도내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성당이다. 임가밀로 신부는 1914년 최초로 성체거동행사를 개최하였고 문맹퇴치를 위하여 매곡학교를 설립하여 일본 식민지 하에서 억압받는 청년과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말을 가르쳐 민족의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였다. 임가밀로 신부는 79세의 나이인 1947년 10월25일 선종하였다.

○ 유물

1. 여성의 복식

남성의 복식, 특히 관복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음에 비해 여성의 복식은 어느 시대에도 고유성, 토착성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기본 복식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가 기본이었다. 귀족층 여성은 바지 위에 치마를 둘러 입었다. 이는 여성도 말을 타는 등 활동성이 요구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외법이 강조되면서 여성 복식은 치마 저고리로 고정되고, 하후상박의 미적 감성, 정절 이데올로기 등이 복합되어 속옷문화가 크게 발달했다.

복식에는 옷 뿐 아니라 장신구도 포함된다. 삼국시대 무덤에서는 왕비뿐 아니라 왕의 무덤에서도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가 나와 장신구에 대한 의식이 후대와 달랐음을 말해준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의 존재가 중요해지면서 여성의 장신구 디자인에도 나비나 박쥐, 고추, 도끼 등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상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 복식은 시대적 특성 및 각 시대 여성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1) 금제관식(국보 제155호/공주박물관 소재)

(冠 전면) 총높이 22.6Cm(莖部절손 현재길이 2.1Cm), 폭 13.4Cm.

(冠 후면) 총높이 22.82Cm(莖長 9.5Cm 포함), 폭 13.6Cm.

백제 제25대 임금인 무령왕(武寧王) 왕비의 관에 부착된 금제장식으로 한 쌍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왕관과 같은 형태이나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이면서도 좌우대칭으로 정돈되고 금제영락(金製瓔珞)이 없어 매우 정연한 느낌을 준다. 문양의 세부를 보면 중심부에 불단같은 복연대좌(伏蓮臺座) 위에 놓인 병(瓶)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인동당초(忍冬唐草)를 배치하고 병(瓶)의 윗 부분에는 활짝 핀 꽃 한송이가 있다. 병의 대좌는 7판(瓣)의 단판복연 위에 주위에 투창(透窓)이 뚫린 또 하나의 대(臺)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방형의 방

석같은 것이 깔려 있다. 그 위에 병이 놓였으며 병구(瓶口)는 사각형 이다. 이와 비슷한 복연대좌(伏蓮臺座) 위의 화병(花瓶)은 중간 불상대좌(佛像臺座)앞 조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 (佛)에 대한 공양화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왕비 관모 (冠帽)의 형식은 왕관모(王冠帽)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였다고 생각되며 관식은 두께 0.7mm 금판을 오려내어 만든 것이다.

2) 금제수식부이식(국보 제157호/공주 박물관 소재)

전체 길이 11.8Cm 및 8.8Cm.

백제 제25대 무령왕비(武寧王妃)의 이식(耳飾)으로 2쌍이 출토 되었다. 주환(主環)에 다시 작은 고리를 걸고 짧은 두줄기의 드림장식을 매단 것이다. 짧은 줄기는 맨 끝에 열매의 씨모양 장식이 매달렸고 그 위에는 금사슬에 4개의 심엽형 영락이 달린 세마디의 장식이 있다. 맨 위 마디에는 투작(透作)된 금 모(金帽)를 씌운 유리구슬을 달았다. 열매모양의 끝장식에는 입체적으로 각 면에서 볼 수 있도록 4개의 하트형 영락이 첨가되었고 바깥 가장자리를 모두 루금(鍍金)으로 장식하였다. 또 긴줄기에는 아래에 탄환형 장식이 달리고 역시 4개씩의 원형영락(圓形瓔珞)을 8마디로 매단 것인데 제일 아래 영락은 6개로 되어 있다. 열매씨 모양은 신라, 가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탄환형 장식은 새로 나온 의장이며 왕의 것과 같이 굵은 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신라 귀걸이와 다르다. 다른 한 쌍은 위의 귀걸이에서 탄환형 수식을 떼어낸 열매씨 모양의 내림장식과 같은 형식, 크기의 것이다.

3) 금제경식(국보 제158호/공주박물관 소재)

9마디 : 각 마디의 길이 5.6 ~ 6Cm, 전체 지름 약 16Cm.

7마디 : 각 마디의 길이 5.2 ~ 7Cm, 전체 지름 약 14Cm.

백제 제25대 무령왕(武寧王)과 왕비(王妃)의 목걸이로 두 개가 출토되었다.

- 1) 7절(節) 경식(頸飾) : 아홉마디 목걸이 밑에서 겹쳐 나왔다. 아홉마디 목걸이와 같이 6모 방망이 형태의 금실 끝을 마주꼬아 연결한 것인데

3개는 짧고 다른 4개 는 길다. 대 양끝의 감긴 꼬리는 예외없이 한쪽은 10회, 다른 한 쪽은 11회로 감았다.

- 2) 9절(節) 경식(頸飾) : 가운데 배가 부르고 양끝이 가늘어진 단면 6각의 육모방망이 형태이다. 금봉(金棒)의 양끝을 그 대로 끈처럼 늘어 고리를 만들어 감아 올리고 다른 고리 도 역시 6~8회 정도 감은 것을 연결한 것이며 아홉 마디 를 연결해서 만들었다. 목에 걸게 하기 위해 한군데를 터서 조그만 고리를 끼웠다. 현대적인 감각을 담은 의장이다

4) 은제 팔찌(국보 제160호/공주박물관 소재)

바깥 지름 8Cm, 안 지름 6Cm ,고리 아래 폭 1Cm.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왕비가 왼쪽 팔목에 끼었던 한쌍의 팔 찌로, 팔목에 닿는 안쪽 측륜(側緣)에는 치각점렬(齒刻點列)을 돌리고 둥근 외면에는 혀를 길게 내밀고 발이 셋 달린 두마리의 용(龍)을 부각하고 있다. 용의 조각은 정세(精細)하지 않으나 각풍(刻風)에 힘이 있어 묵직한 팔찌와 잘 어울리고 있다. 내면에는 한개의 팔찌에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州 主耳』라는 음각명이 있다. 경자년은 왕비의 연령으로 보아서 520년 즉 이것은 왕비가 죽기 6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제작자인 다리(多利)는 일본의 법용사(法隆寺) 삼존불의 작가인 도리와도 통하는 이름처럼 보이며 도리가 원래 OO공(OO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리는 이 다리(多利)가 속했던 백제의 공장(工匠) 집안에서 파출한 후손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리고 ‘이백주주이(二百州主耳)’는 무계를 말하는 것이다. 제작한 연대(520년)와 작가의 이름과 사용자 (왕비)가 새겨진 팔찌로서는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다.

5) 청주출토 순천김씨 의복(중요민속자료 제109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박물관)

1977년 4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김천 석병산에 있는 채무역(蔡

無易:1530~1594)의 묘를 이장할 때 출토된 유물이다. 북일면에 비행장이 들어서게 되어 이장하였다. 합장된 채무역의 후실 순천김씨의 문헌 자리에서 몸과 얼굴 모습이 깨끗한 미라와 함께 의복 및 간찰이 내관 안에서 나왔다. 입관 후 관안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의복과 당시 문중에서 오간 한글 서간을 여러 뭉치로 뭉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채씨세보》에 의하면 채무역은 자를 중전(仲田), 호를 신촌(新村)이라 하였고, 명종(明宗) 10년(1555)에 급제하여 세자익위사대직(世子翊尉司待直)을 지냈다 한다. 64세의 수를 누리고 선조 27년(1594)에 세상을 떠났다. 순천김씨는 채씨세보에 나타나지 않으나, 간찰 내용으로 보면 흥덕골 김채방의 딸로서 선조 원년에 아들을 낳았다. 12cm 두께의 내외관에다 회를 두껍게 해서 후장한 묘제나, 미라로 남은 모습이 젊고 아름다워 40대로 보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남편인 채무역보다 앞서 죽은 듯하므로, 의복·간찰은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온 의복류로는 겹누비천릭·겹누비바지·겹희장저고리·직령(直領) 겹두루마기·모시치마·베적삼·모시천릭(天翼)·토시 등 11점이 있고, 이 밖에 만장(輓章) 3점과 은장도·돛자리·목관·표주박 각 1점, 간찰 185점 등 총 203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품을 통해 천릭의 원형이 밝혀지고, 그것을 여자도 입었다는 사실과 함께 직령의 제도가 밝혀졌으며, 신라와 고려 때의 저고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6) 청원 구례손씨 묘 출토 유물(중요민속자료 제116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박물관)

이 유물은 1979년 3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 우산리에 사는 변중 화씨의 11대 조부인 변유인(卞惟寅, 1566~1641)의 측실 구례손씨 묘에서 미이라화 된 시신과 함께 나온 것으로, 임란 전후 시기의 의복으로 추정된다. 남명주 솜저고리·소색면 단속곳·적삼·겹솜바지·겹솜치마·겹삼희장저고리·누비 창의·겹유직령포 등 의복류 8점, 이불 1점, 염수 1점, 감투 4점 등 총 15점이 출토 되었다. 특히 저고리는 길이가 길고 소매 끝에 넓은 삼수가 대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조선시대 한글의 창제는 여성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국가에서 한글을 만든 이유는 여성들에게 성리학적 교훈서적을 읽히려는 교화사업의 목적이 컸지만 이는 한편으로 여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했다. 이로써 여성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한글을 이용해 많은 저작물을 남길 수 있었으며, 일기나 서간문 등 일상의 자료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여성의 저작물은 당시 여성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어 생활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당시 여성의 의식 및 존재형태, 문학 및 학문 활동 등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여성관련 금석문이나 고문서는 『실록』 같은 남성 중심의 국가 공식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의 권리나 지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재산 분배기록이나 당시의 가족구조, 가족 내 여성의 위상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 남평조씨 <<병자일기>>(유형문화재 제153호/공주군 반포면 성강 201)

남평조씨 병자일기는 조선 인조(1595~1649)때 좌의정을 지낸 남이웅 선생의 부인이 쓴 일기로서 인조 14년(1636) 12월 5일부터 피난길에 오르면서 인조 18년(1640) 8월 9일까지의 한글일기로 필사본이며 4년여 동안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72매의 필사본이며 '91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부부 합장묘 공주군 반포면 성강부락에 있음.

2) <<호연재 유고>>

동춘당 송준길의 증손 소대현의 처 호연재 김씨(1681-1722)의 저작. 1책은 『오두추치(鰲頭追致)』라고 표지에 쓴 시집이고, 1책은 『호연재유고(浩然齋遺稿)』라 표제한 것이며, 1책은 『자경편(自警篇)』이라고 한 것이다. 이 3책은 후손 송용억에 의해 원문 영인과 더불어 『호연재유고』로 번역 출간되었다.

『호연재유고』는 조선 후기 여류문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 권준의 호구단자

조선 세종 26년(1444) 4월 18일 한성부 북부 양덕방(漢城府 北部 陽德坊)에 살던, 권준(陽村 權近의 셋째 아들)이 받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선생이 조봉대부(朝奉大夫) 군기감부정(軍器監副正)의 관직에 있을 때이며, 부인은 해주 정씨이다. 또한 선생의 큰 아들의 이름은 혜(惠)이고,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응(應)이고 13세 때이다. 이 호구단자는 조선 초기 양반집의 호적 및 그를 통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4) 윤돈 등의 동복 화회입의

윤돈(尹墩)이 처가인 문화 류씨 댁에서 토지와 노비 등 많은 재산을 나누어 받은 증서(分財記)이다. 분재기의 주요 내용은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으로, 당시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5) 남양전씨 종중문서(보물 제727호)

수 량 : 왕지·교지23매, 유서1매

년 대 : 조선 태종 16년~명종20년

이 문서는 남양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내려진 왕지(王旨) 및 교지(教旨), 유서(遺書), 호적단자(戶籍單子) 등 총 27매이다. 교지는 전홍에게 조선 태종 16년(1416)에 내려진 왕지와 세종 16년(1434)에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세조 9년(1463)에 전가생, 연산군 11년(1505)에 전지, 중종 10년(1515)에 전우평, 광해군 4년(1612)부터 현종 9년(1668)까지의 사이에 전석규, 전해, 전유성, 전경업에게 각각 내려진 것이다. 유서는 명종 20년(1565)에 전화가 큰아들인 전경업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준 논밭과 노비를 나누어준 기록이다. 그리고 호적단자는 숙종 28년(1702)에 작성된 전유성을

포함한 영조 20년(1744)의 전신택, 영조 23년(1747)의 전탁의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로부터의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온 점은 기록 자료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재산 상속과 관련된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상속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성동면 우곤리에 살고 있는 남양전씨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다.

6) 무령왕비 지석(국보 제163호/공주박물관 소재)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비의 지석.

묘지석은 능(陵)의 피장자 신분 및 축조연대 등을 기록하고 있어 금석문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지석의 발견은 왕릉에서 발견된 초유의 금석문으로 삼국시대의 왕릉중 피장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되었으며, 내용이 소략하지만 『삼국사기』에 누락된 사실을 보충할 수 있었다. 특히 매지권(買地券)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인들의 사상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왕비의 지석은 왕의 것과 크기가 비슷한 세로 35cm, 가로 41.5cm, 두께 4.7cm이며, 세로 폭 2.5~2.8cm 간격으로 15행간을 음각하고 둘째문에서부터 4행에 걸쳐 쓰고 나머지는 여백이다. 전면 4행 41자, 후면 6행 58자로 여기에 실려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大妃壽 병오년십이월백제국왕대비수
終居喪在西地己酉年二月癸 종거상재유지기유년이월계
未朔十二日甲午改葬還大墓立 미삭십이일갑오개장환대묘립
志如左 지여좌

【병오년(526) 12월 백제국의 왕대비가 천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서쪽(西地)의 땅에서 삼년상을 지내고 기유년(529) 2월 12일 다시 대묘에 옮겨서 장사 지내고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 매지권(買地券) 왕비지석 후면기록 내용
錢一萬文右一件 전일만문우일건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 을사년팔월십이일영동대장군
百濟斯麻王以前件錢訟土王 백제사마왕이전건전송토왕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토백토부모상하중관이천석
買申地爲墓故立券爲明 매신지위묘고입권위명
不從律令 부종율령

【돈 1만매, 이상 1건. 을사년(525)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와 상하 지방관의 지신들에게 보고하고 서서남의 토지를 매입하여 무덤을 쓴다. 이를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삼으니 모든 율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원래의 매지권은 사마왕을 장사지낼 때 만든 것인데 왕비를 함장했을 때 이 매지권의 뒷면을 이용하여 왕비의 묘지문(墓地文)을 만든 것이다.

7) 청주출토 순천김씨 간찰(중요민속자료 제109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박물관)

1977년 4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김천 석병산에 있는 채무역(蔡無易:1530~1594)의 묘를 이장할 때 출토된 유물이다. 의복과 함께 간찰이 나왔다. 간찰은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편지 내용으로 보아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120여 년 간의 정음사용의 보급실정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의 국어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서간문의 모습과 여류 수필문학을 평가하고, 16세기 명종과 선조대의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현상을 살피는 데 살아 있는 자료이며, 문헌에서 볼 수 없는 여러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들 자료는 종손 채홍복씨가 보관하다가 충북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임진왜란 전의 생활복식 연구와 16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데 중요 자료이다.

8)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보물 제1088호/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37
한독의약사료관)

보물 제1088호로서 선조 41년(1608)어의 허준이 왕명으로 편찬, 한글로 번역하여 내의원에서 간행한 산부인과 계통의 책으로 1권1책이다. 내용은 먼저 아들 얻는 법, 남녀의 정력을 강하게 하는 약방문, 임신 예비약물, 출산시의 방위, 출산을 피하는 일들에 대해 기술하고 부록으로 간난아기의 구급법을 붙였다. 첫장에 ‘선사지기’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내가본임을 알 수 있다.

다. 여성의 예술작품

라. 여성의 생산도구

여성의 생산도구는 구석기시대 찧개를 시작으로 이후 호미 같은 농경도구, 어촌의 굴캐는 도구나 바구니, 길쌈을 위한 방추차, 베틀, 바느질도구 나아가서는 부엌 살림 도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충남지역은 농경과 어로가 병존했던 지역이며, 유적도 구석기 이래 근대까지 전시기를 통괄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생산도구 역시 다양하고, 숫적으로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주나 부여 등 박물관에서 일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상업 역시 발달해 여상인(보부상 포함)의 존재도 보인다. 이 지역 보부상 유품에서도 비녀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여자 보부상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1) 부여 보부상 유품(중요민속자료 제30호/부여박물관)

보부상은 조선초 건국과 임진왜란, 병자호란등에 양곡조달에 협조하고 고종때에는 조식을 갖추기도 하였으나 보부상 조직이 근대화예 밀려 쇠퇴해졌으나 홍산에서는 상무사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그들이 대대로 전해받은 영위인(領位印)등 유품을 놓고 매년3월에 공문제(公文祭)라는 총회를 열어 전통을 지켜왔다. 이보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남아 있는 유형, 무형

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그들이 전수해온 유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상 영위인 1개.
2. 보부상 반수인 1개
3. 보수상 장무인 2개
4. 보수상 축작대
5. 보수상 신표2매(보부상증명서)
6. 보수상 비변사완문 1권 (당시 관청에서 발급하던 관공문서)
7. 비녀 1개

2) 홍성 보부상 유품(중요민속자료 제30호/홍성군 광천읍 웅암리508-4)

조선시대 보부상이 사용하던 유물이다. 이들이 사용하던 유물은 현재 3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괄 유물로서, 첫 번째 유품은 1973년에 지정된 ‘저산 8구상무좌사’의 유품이다. ‘저산8구(荳産八區)’란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 홍산 남포 비인 한산 서천 임천 정산을 말하는데, 주로 이들 지역에서 나는 모시 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등짐장수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 조직을 보면 최고 고문격인 영위가 있고 다음 직책으로 반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이 있었다. 유품으로는 이들 각각이 사용하던 도장 3개와 보부상의 증명서인 신표 2매가 있다. 또한 물미장과 패랭이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상단(商團)의 상징이었다.

물미장은 등짐장수의 지계를 버티는 끝에 축(물미)을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왕조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떠서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하여 용장이라고 한다. 패랭이는 평소에 보부상이 쓰고 다니는 모자이다. 이밖에 총회때 사용되던 청사초롱과 전적류가 약간 있다. 이 좌사의 유품들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사단법인 상무사가 보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품은 1976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예산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상무지사의 도장 1개,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 2개, 영위의 직인, 반수의 직인, 장무원의 직인 등 모두 6개의 도

장과 도장을 넣어둔 상자 1개 등이 있다. 또한 도장이 든 상자를 특별히 쓴 붉은 보자기 1장과 건 3개, 청사초롱 2개 등이 있다. 이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있으며, 이 유물은 예덕 상무사의 소유로 덕산면 위편에 있는 유물보호각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유품은 1980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저산8구상무우사’의 유품이다. ‘상무우사’란 붓집장수 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유품으로는 우사조직의 영위·반수·장무원의 각종 도장과 도장을 넣어둔 상자가 있고 상단의 깃발 2매가 있다.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좌상·회원·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 25건이 있으며,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43건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 등이 있는데,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8종 남아있다.

현재까지 상무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위에 적은 충남의 세 곳 외에 아산과 강원도의 속초가 있으며 전라도지방에도 그 유품이 남아있다고 하며, 이러한 유물과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 데 귀중한 민속자료이다.

2. 무형문화유산

○ 물질문화

전근대시대 여성들에게는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족의 의식주를 위한 노동이 주 임무였고, 피지배층의 경우에는 생산을 위한 노동에도 종사해야 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열정, 재능, 감성을 생산노동 및 가사노동에 쏟아 부었고, 이에 뛰어난 공예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여성노동이었던 직조 부문에서의 기능은 물론 음식이나 바느질 등에서도 훌륭한 예술

품을 남겼다. 이는 당시 여성들의 자기 표현이며, 생활의 일부였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생활과 감성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1) 청양춘포(靑陽 春布)짜기(무형문화재 제 25호/기능 보유자 백순기/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701)

- 시대 : 조선말기

춘포는 명주(明紬)실을 날실로 모시(苧)를 씨실로 짜서 치자물을 들인 배(布)로서, 봄에 주로 입기 때문에 춘포라고 한다. 누에 고치에서 직접 명주실을 뽑아 치자물을 먹여 옷감을 짠다. 청양은 모시로 유명한 저산팔읍(苧産八邑)의 한 곳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장곡사(長谷 寺)의 불상 내부에서도 백저포(白苧袍)가 발견된 바 있다. 1940년경 청양 춘포시장은 전국 적으로 유명했었고, 운곡면에서는 집집마다 춘포짜기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할 정도였다. 현재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나, 다만 양이석 노인(1999년 작고)이후 며느리 백순기씨 와 손자 며느리 김희순씨를 통해 춘포짜기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양이석 노인은 운곡 태생으로 19세에 시집와서 시할머니 김영희씨와 시어머니 송기숙씨로부터 기능을 이어받았다

2) 한산세모시짜기(시도 무형문화재 제 1호/기능보유자 나상덕/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458)

모시는 오랜 기간동안 이용되어 온 직물로서 일명 저포·저치라고 하며, 모시풀 줄기를 꺾어 그 껍질을 벗긴 것을 재료로 한다. 통일신라 경문왕(재위 861~875) 때 중국 당나라에 보낸 기록으로 보아 외국과의 교역품으로도 이용되었다.

한산세모시는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로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제작과정은 재배와 수확, 태모시만

들기, 모시짜기, 모시삼기, 모시굿만들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모시표백의 9과정으로 나뉜다. 우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다. 태모시는 껍질을 벗겨 인피섬유를 만드는 것인데 모시짜기는 태모시를 쪼개는 과정이다. 모시삼기·모시굿만들기는 쪼개진 인피섬유를 이어 실을 만드는 과정이며, 모시날기는 실의 굵기에 의해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모시매기인 풀먹이기 과정을 거친 후 베틀을 이용해 모시를 짠다. 마지막으로 모시표백은 물에 적신 다음 햇빛에 여러 번 말려 백저포, 곧 흰모시로 만드는 과정이다.

모시는 습도가 모자라면 끊어지기 쉬우므로 더위에도 통풍이 안되는 움집에서 짜야 했고 바람이 불거나 비오는 날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요즘은 개량베틀을 개발하고 외기를 차단한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으로 모시를 짤 수 있는 조건을 맞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산세모시는 우리나라의 미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여름 전통 옷감으로, 제작기술을 보호하고 전승하고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살고있는 기능보유자 나상덕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3) 지승제조(紙繩製造; 충남 지정문화재 제2호/기능보유자 최영준/홍성읍 오관리 신촌아파트 다동 608호)

지승공예는 종이를 꼬아 엮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일명 '노워개'라고도 한다. 발생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종으로 된 그릇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만드는 방법은 한지를 잘라 새끼를 꼬듯이 물에 적셔서 켜다. 켜 종이를 반으로 접어 한 올씩 엮어간다. 무늬나 형태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형태를 갖춘 종이그릇에 본드를 칠한다. 마지막으로 페인트의 일종인 캐슈로 윤을 내면 완성된다. 지승(종이끈)으로 바구니, 쟁반, 땔빵, 신발(미투리) 등을 만든다.

지승제조는 전통공예기술로서 기술을 전승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한동안 단절되었던 것을 충청남도 홍성군에 살고있는 기능보

유자 최영준씨에 의해 그 맥이 유지되고 있다.

4) 홍성 땡땡이장(충남 지정문화재 제31호/기능보유자 백길자/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46-2)

땡땡이 덩굴은 한자로 용린(龍鱗)·상춘등(常春藤)·목방기(木防己)등으로 불리며 지방에 따라 경남지방에서는 장태미 또는 장드레미, 제주지방에서는 정당·정등·정동 등으로 불린다. 땡땡이 덩굴의 줄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탄력성이 매우 좋으며 축축한 상태에서는 잘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으며 풀공예 재료중 장점이 가장 많은 재료이다. 또 줄기의 직경이 2mm미만이므로 공예품을 만들면 그 짜임새가 섬세하고 고운 질감을 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은 땡땡이덩굴로 삼태기·수저집·바구니·채반 등 생활기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속에 모든 전통 수공예품이 그러했듯이 땡땡이덩굴 공예도 점차 그 기능이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짚·풀공예 조사에서 땡땡이덩굴을 소재로 공예품을 만드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도와 홍성(백길자)뿐이었다. 백길자씨는 싸리·보리짚·밀대 등 풀공예 전반에 걸쳐 솜씨가 뛰어난 재주꾼으로 특히 땡땡이덩굴 공예로 만든 생활공예는 국내 유일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나. 음식문화유산

1) 한산소곡주(무형문화재 제3호/기능보유자 유희열/충남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한산소곡주는 한산지방의 이름난 술로서 빛깔은 청주와 같다. 백제 때의 궁중술로서 백제 유민들이 나라를 잃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 가장 많이 알려진 술로 『동국세시기』·『경도잡지』·『시의전서』·『규합총서』 등에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다. 소곡주를 만드는 방법은 찹쌀을 빚어 100일 동안 익힌다. 이때 며느리가 술맛을 보느라고 젓가

락으로 찍어 먹다보면 저도 모르게 취하여 일어서지도 못하고 앓은뱅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닌다고 하여 ‘앓은뱅이술’이라고도 한다. 한산소곡주는 술맛이 독특한 뛰어난 민속주로 기능보유자 우희열씨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2) 계룡 백일주(무형문화재 제7호/공주시 봉정동 339)

공주에 전해오는 민속주로서 찹쌀과 밀가루, 진달래꽃 및 가을의 황국화 꽃잎, 오미자, 솔잎 등을 섞어 전통적 기법으로 빚어 100일이 지난 후 창호지로 걸러내어 만드는 술이다. 어느 시대부터 내려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창호지로 걸러내므로 색이 맑고, 향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특색으로 한다. 만드는 방법은 끓인 물을 식혀 밀가루를 혼합하여 누룩을 만든 다음, 솔잎과 찹쌀을 섞어 찌내어 누룩을 섞고 끓여 식힌 물을 적당히 붓는다. 잘 말린 진달래꽃과 오미자, 황국을 옅은 천에 싸서 독에 담가두는데 향아리는 땅 속 깊이 묻었다고 거르게 된다. 기능보유자인 지복남(1926년생)은 연안 이씨 이귀<李貴>의 14대손인 이횡<李鑢>의 부인으로 대대로 이어온 전통적인 수법으로 술을 빚어왔다. 유래는 조선 인조 때의 정사공신<靖社功臣> 연평부원군 이귀<李貴>(1557~1633)의 부인인 인동 장씨가 왕실에서 양조비법을 배워와서 이씨덕에서 술을 빚어 왕실에 진상했던 술이라 하는데 이때부터 연안 이씨가문에서 대대로 비법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3) 금산 인삼 백주(무형문화재 제19호/기능보유자 금녕김씨문중/금성군 파초리 260)

백제인삼을 대표하는 금산인삼을 원료로 빚은 금산 인삼백주는 삼남지방에 널리 알려진 명주로, 주질에 있어서 어느 민속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 술은 백제시대 때부터 제조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기록에는 1399년 도승지와 이조판서를 지낸 김문기(金文起)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왔다고 한다. 인삼 특유의 알싸한 청향(清香)이 담장을 타고 넘는 인삼주라 하면 인삼을 소주에 담가 우려낸 침출주(浸出酒)로 알려져 있

는데 전통인삼주는 한국 최고의 특산품 인삼과 풍요의 상징인 쌀에 인삼의 향을 돋우기 위해 조화성이 뛰어난 술잎 및 약쭉을 넣어 청정지역 금산의 맑고 깨끗한 물탕골 샘물로 전통의 술 빚는 방법으로 인삼을 저온 발효시킨 양조주(釀造酒)이다. 주조법에 대한 문헌으로는 김씨 문중에 내려오는 수문록이나 잡록에 전해온다.

양조방법은 물을 끓여 식혀 준비하고 잘게 부순 통밀(1.35kg)과 인삼 0.15kg을 섞어 배합하여 3개월을 누룩용 물(5ℓ)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8~9일, 9ℓ) 여기에 다시 양조용 물(6ℓ)에 약쭉(0.01kg), 술잎(0.05kg), 인삼(0.4kg), 고두밥(6kg)을 섞어 술을 담는데 40~60일간 숙성시켰다가 압착기를 이용하여 거르고 이것을 증류하면 11ℓ의 술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장하였다가 제품으로 완성시킨다. 쌀과 통밀, 술잎, 쭉과 인삼을 사용하여 16%의 청주를 만들고 다시 이 술을 증류하고 고리를 써서 43%의 백주를 만든다. 금산 인삼주는 적당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사람의 기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이제 생활의 활력주로 우리들 곁에 소중히 다가올 것이다. 금산 금녕김씨 문중에 전해오고 있는 전통양조법 기능에 대한 지정으로 기능보유자 김창수는 김문기의 18대손으로, 어려서부터 술빚는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술과 인연을 맺었고 조모와 모친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아 계승해오고 있다.

4) 당진 면천 두견주(무형문화제 제86호/면천면 성산리 693-1)

면천 두견주는 천여년전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이 백약이 무효인 병을 앓고 있을 때 효성스런 그의 17살난 딸 영랑이 백일기도 끝에 터득한 비법에 따라 찹쌀, 아미산(면천 소재)의 진달래, 안샘물로 빚은 두견주를 마심으로 백약이 무효인 질병을 고쳤다는 신비의 전설과 함께 전해오는 전통 민속주이다. 두견주는 산림경제, 임원, 동국세기 등에도 언급되었으며, 향기가 좋고 마시기 좋은 우리 전통곡주 중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가양주로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온다. 또한 진달래꽃에서 추출된 약효 성분으로 가래를 삭혀주는 진해효소와 신경통, 부인냉증, 요통등에 효험있는 약용주로 동의보감에도 기술되어 있다.

5) 청양구기자주(무형문화재 제30호/기능보유자 임영순/충남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321)

불로장생의 전설이 있는 구기자를 재료로 운곡면 광암리 하동정씨 종가에
서 150여년 전부터 전통가용주로 제조해 오고 있는 구기자는 그윽한 향과 부
드러우면서 상큼한 맛이 일품으로 애주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기자는 정력증강, 성인병치료, 시력보호, 피부미용, 정신집중력 향상 등 그
효능이 인정되어 한방의 필수 약제일 뿐만 아니라 음주자들이 복용할 경우
지방간 형성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기능보유자 임영순씨가 종
가의 종부로써 40여년을 전통기법 그대로 제조해 오고 있는데 생산량이 적어
주문 판매만 하고 있다.

6) 아산 연엽주(충남 무형문화재 제11호/기능보유자 최황규/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외암리 마을에 살고 있는 예안 이씨 가문에서 익혀 내려온 양조기술로 제
조된 술이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예안 이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득선의 고조인 이원집
(1829~1879)이 쓴 『치농(治農)』이라는 필사본에 연엽주의 제조방법이 기록
되어 있고 이 집안의 후손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양조기술을 익혀왔다. 종
부(宗婦)사이에 제조기술이 전수되어 손님접대나 제주(祭酒)를 위해 술을 빚
었다. 이 양조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7) 송순주(충남 무형문화재 제9호/기능보유자 윤자덕/대덕구 송촌동 198-4)

송순주의 제조과정을 보면, 먼저 맵쌀가루로 흰무리를 찢 다음 누룩가루와
물을 넣어 되직하게 반죽하여 항아리에 담근 후 20~25℃의 방에서 10일간
숙성시켜 밀술을 만든다. 본술은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식힌 후 숙성된 밀술
을 물을 넣고 버무려 반죽하여 만든다. 다음 송화가 피지 않은 송순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뺀 다음 항아리 밑에 깔고 본술을 넣어 20~25℃의

방에서 15일간 숙성하면 송순주가 완성된다. 기능보유자인 윤자덕은 25세에 송준길의 둘째손자 송병하(1642~1697)의 12대 종손가로 시집온 이후 대전에 거주해왔고 시어머니에게서 종가의 제례 등 대소사에 소용된 각종 음식기능을 전수 받았다. 집안에 전해오는 『주식시의(酒食是儀)』와 『우음제방(禹飮諸方)』이란 필사본 요리서에는 송순주(松荀酒)를 비롯한 각종 가양주의 제조법이 실려 있다.

8) 연안이씨가 각색편(무형문화재 제10호/기능보유자 이만희/대전시 중구 유천동 178-17)

연안이씨인 이만희의 선조는 왕의 검식관인 지다방사(知茶房事)를 지내는 등 가문이 왕실과 인연이 깊었다. 그는 친정어머니로부터 혼인 전까지 떡 등 집안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전통음식의 제조 비법을 전수받았다. 결혼 후 40여년간 대전에 거주하며 떡을 비롯한 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혼례음식 문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의 음식제조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백편, 꿀편, 승검초편 등 각색편은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백설기(白雪只), 밀설기(蜜雪只), 승검초말밀설기(辛甘草末蜜雪只)라 부르던 맵쌀을 주재료로 한 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떡의 하나였다. 『조선왕조궁중의궤(朝鮮王朝宮中儀軌)』에 의하면, 맵쌀, 찹쌀을 주재료로 백편은 석이버섯, 잣, 밤, 대추가, 꿀편은 대추, 밤, 잣, 꿀이, 승검초편은 승검초가루, 대추, 밤, 잣, 꿀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재료를 참기름 먹인 한지를 깔고 곱게 정성을 다하여 대추, 밤, 잣으로 장식하여 찌는데, 이만희의 각색편은 조선왕실의 떡 제조방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9) 보은 송로주(松露酒; 도지정무형문화재 제3호/기능보유자 신형철/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구병리 518)

소나무의 마디를 생굴처럼 깎아 맵쌀과 누룩을 섞어 술을 빚어 맑게 걸르면 송절주가 되는데 이것에 다시 소주를 내리면 송로주가 된다. 옛부터 송로주를 마시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으며 동의보감 음식법엔 관절신경통에 좋

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로주의 기능보유자인 신형철씨는 1926년 1월 19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평상신씨인 신현태씨와 이순심씨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송로주의 양조방법이 실린 고조리서 두권이 친정어머니 이순심씨에게 전해 내려왔다고 하며 그 어머니 이순심씨 역시 친정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1권은 책명이 “음식법”이라고 되어 있으며 1880년경에 신형철씨의 외조모되는 이한수씨의 부인인 정금씨씨가 지었고 또 한권은 16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본이 있다.

10) 증원 청명주(淸明酒;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기능보유자 김영기/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243)

증원 청명주는 1년 24절기 중 청명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술을 담그었다하여 청명주라 불리며 조선조 궁중의 진상주로 선택되기도 하였고 사대부 집안에서 귀한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되었던 명주이다. 청명주가 빚어지기 시작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이전부터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향전록이라는 문헌에 청명주와 민간 약방문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제조 용수는 강물을 사용하였으나 조정지댐 건설로 인하여 샘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재료는 재래종 찹쌀과 통밀을 곱게 갈아서 만든 누룩만을 상요하여 특수한 양조방식으로 빚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충주에서 청명주를 마시고 가노라면 문경새재에 이르러서야 취기가 가신다고 전하며 순찹쌀로 빚어서 끈기가 있고 후유증이 없다고 한다. 전과정에 소용되는 시간은 주발효 기간 15일, 후발효 기간 35일, 후숙 기간 50일 정도로 총 100일 정도가 소요되며 오래 둘수록 향미가 좋아져 주질이 향상된다.

11) 청원 신선주(神仙酒;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기능보유자 박남희/충북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435)

청원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통민속주로 지정되어 있는 술이다. 미원의 함양박씨 집안에서 18대째 약 400여 년 동안 전승되고 있는 가양주(家釀酒)로

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충청도도사 박송상이 이 마을로 낙향한 후 이 술을 빚는 비법이 전해졌다고 한다. 신선주라 부르는 것은 일찍이 신라 말에 최치원이 이 마을 앞의 신선봉에 정자를 짓고 이 술을 즐겨 마신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신선주의 제조는 예부터 물이 좋기로 이름난 미원지역의 물을 이용하여 보신강장용 생약제를 찹쌀·누룩 등과 함께 발효시켜 청주 또는 증류주로 만드는 것이다. 복용하면 변비를 없애고, 머리를 검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여 수명을 늘린다고 한다. 독특한 향이 있고 후유증이 없다. 또한 마신 후에 숙취가 되지 않고 머리가 맑아져 마시기에 매우 좋다.

○ 의례 및 연행

가. 놀이와 의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과 놀이는 늘 함께 한다. 우리의 명절, 세시풍속은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들은 설과 대보름, 단오, 추석 등 명절을 즐겼을 뿐 아니라 길쌈이나 해산물 채취 등 평상시의 노동을 보다 즐겁게 하려 했다. 이에 부녀자들은 마을 단위로 함께 노동하며, 민요를 부르거나 대회를 열어 경연을 하고 즐기기도 했다. 또한 여기에는 종교적 기원과 행위도 항상 따랐다. 마을 부녀자들이 함께 모여 풍어제를 지내거나 기우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었다. 즉 전근대시대의 생산 활동과 놀이, 종교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여성들의 삶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충남지역은 바다에 면한 지역으로서 여신을 모신 당집이 많으며, 육지와 달리 풍어제, 해산물 채취 경연 등 지역적 특징이 엿보인다. 이를 통해 전근대 여성의 생산 활동과 놀이문화, 종교적 특성 등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충북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서 보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여성만의 의례나 축제 등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전승되는 것도 거의 없다.

1) 충남 서천 남산놀이

남산놀이는 백제 때부터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아낙네와 처녀들의 민속놀

이다. 매년 음력 8월17일에는 1백여리 안쪽의 부인과 처녀들이 떡, 밥, 과일 등을 싸가지고 남산으로 모인다. 백제 멸망 후 당나라의 포로가 된 의자왕이 그 아들과 좌평들 93명, 백성 1만 2천 87명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갈 때 임금을 잃고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된 아낙네들 또는 아버지와 오빠를 잃게 된 부녀자들이 그 배가 금강을 흘러 내려와 서해바다로 사라질 때 이 산에서 통곡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그 후 매년 8월 17일이 되면 아낙네들이 산에 올라와 서쪽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다.

2) 금산 디딜방아 뱅이놀이

디딜방아 뱅이놀이는 전염병이 돌거나 날이 가물면 금산의 아낙들이 벌이는 금산의 전통민속예술의 하나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정초에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서 한 해의 무사태평을 비는 의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대보름에 여인들이 남의 방아를 훔쳐와 달거리한 여인의 고쟁이를 방아다리에 입히고 거꾸로 세워놓는다. 디딜방아를 가져올 때는 상여소리와 곡을 하면서 마을 삼거리에서 거꾸로 세우기, 오곡밥·나물·주과포·술을 준비하여 지내는 거리제, 소지올리기, 디딜방아 주변에 음식을 뿌려 잡귀에 풀어먹이기, 뒤풀이로 되어 있다.

3) 중원 마수리 농요(도지정무형문화재 제5호/보유자 지남기/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08 번지)

중원 마수리 농요는 충주지방에서 옛날부터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던 노래로 일제 말기부터 그 자체가 차차 잊혀져 가던 것을 1970년대에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에서 재연 보존되고 있다. 모찌기 노래, 모심기노래, 긴방, 중거리방아, 자진방아, 어화굼실 대허리야 등이 있다.

4) 대전 앓은 곳

설경(說經)은 대전.충청지역의 곳에 쓰이는 중요한 무의식구(巫儀式具)이다. 설경은 무신(巫神)의 형상이나 무신이 영험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식

물, 동물, 무구(巫具) 등을 문양화한 것으로써 경읽기(독경)와 함께 이 지역 무속의 큰 특징이다. 설경은 무신들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들의 질서와 기능을 나타내며,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악연(惡緣)을 끊는 장벽의 상징을 지닌다. 좁은 의미의 설경은, 경문을 큰 부적처럼 오래 각방위의 요소에 붙이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굿을 하기 위해 신당에 배치되는 전반적인 무의식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송선자는 전 보유자 황하청(98년 사망)으로부터 설경을 비롯한 앓은굿을 전수받았다.

5) 충남 보령 원산도 산신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선촌에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다. 원산도 선촌마을 서북방쪽으로 숲속에 목조와가가 있는데 이 당집이 이 곳에서는 산신당, 당산할머니, 각시신당이라고 부르는 당집이다. 주민들은 이 곳 산신이 여신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신을 모시고 당집에 옷을 바친다거나 화장품을 바치기도 한다. 원산도에 어획고가 오르고 풍어인 세월이 한참일 때는 육지로부터 10여명씩 단골무당과 광대들을 불러 하룻밤 이틀 동안 무당의 열두거리 굿을 비롯하여 광대들의 땅재주 줄타기 꽃나비서기 등 각종 굿과 기예가 베풀어져 내륙지방에까지 유명한 당제로 소문났었다.

6) 충남 보령 장고도 용왕제(長古島 龍王祭)

용왕제는 항해의 안전을 용왕께 의탁하는 일종의 개인신앙이며, 부녀자들에 의해 거행되는 의식이다. 음력 2월의 첫 번째 진일(용날)이 되면 부정이 없는 부인이 정성껏 목욕을 한 후 새옷을 갈아 입고 시루떡 밥, 과일, 나물등 제물을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면 부인은 만조(滿潮)를 기다려 그 제물을 정결한 해변으로 나가 그곳에 켜이나 흰종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陳設)한 다음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각각 재배를하고 용왕국을 향하여 요왕(용왕)할머니를 수없이 부르며 계속 절을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용왕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 용왕을 향하여 『죽은 나무 가로타고 다니면서 무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고사(告

辭)를 반복하여 수없는 절이 끝나면 진설했던 제물을 섞어 백지에 세뭉치를 만들어 찐다. 익사자의 수에 따라 뭉치를 증가시켜 싸기도 한다. 제물 뭉치를 던지면서 『진더이 받아 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 제물을 섞어 만든 뭉치를 『요왕짐』이라 한다. 그때 요왕짐이 가라앉아야만 요왕의 음(陰)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 부인은 요왕짐이 가라앉기를 기구하게 된다. 반면 요왕짐이 물위에 뜨게 되면 용왕의 음우를 받을 수 없고 불길하다 하여 부인은 다시 목욕하고 재차 요왕제를 거행하여야 하며 그래도 물위에 뜰 경우엔 제일을 연기하여 요왕제를 지내게 된다. 즉 2월에 첫 진일이 두 번이나 요왕짐을 받지 않을 경우엔 3월의 첫 진일 만조시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왕제를 거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요왕제가 무사히 끝날 때 까지 늘 요왕짐을 잘 받아 주기를 기원하게 되고 이 의식이 끝나면 마지막 절차로서 제물을 한데 뒤섞어 여기저기 해변에 골고루 던지는 의식으로서 요왕제는 끝나게 된다.

7) 충남 금산 농바우끄시기

한여름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 부녀자들이 부리면 어재리 농박골에 있는 농바위로 가 용줄이라 부르는 동아줄을 매고 줄을 당긴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바위가 구르면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하여 하늘님이 소원을 들어 주어 비를 내려준다고 한다. 농바우를 끄시는 날이면 모두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산제, 소리를 하며 줄을 당기는 농바우끄시기, 알몸으로 날קות, 풍장곳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내면 비가 온다.

8)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 저산팔읍 길쌈놀이는 모시짜기로 유명한 한산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베짜기에 관한 민속놀이로 주로 부녀자들의 가내수공업이었다. 신라 유리왕(재위 24~57)이 두 왕녀로 하여금 부내의 여자들을 나누어 길쌈을 하게 하고, 추석날에 결과를 심사하여 진 편에서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모시길쌈이 있었으며, 나라에

서도 이를 장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쌈놀이는 모시를 베어다 모시베끼기, 모시삼기, 모시꾸리감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노래와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노래는 민요풍으로 여인네의 애환과 체념, 그리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산팔읍을 예찬하는 노래에 맞추어 흥겹게 춤추면서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이웃과 화합을 꾀하며 협동을 다진다. 발표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장원을 한 마을을 축하해준다.

서천 저산팔읍 길쌈놀이의 전통은 근래까지 전승되어 농촌 부녀자들이 7월에서 8월까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길쌈을 하였으며, ‘두레길쌈’이라고 하여 서로 겨루기보다는 함께 돕는 품앗이 같은 두레의 성격이 짙다.

오늘날 한산(韓山)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잇고 있으면서 매 5일마다 모시시장이 형성되어 전국 각처에 모시를 공급하고 있다. 한산 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함은 물론 민속놀이를 보존·계승코자 모시길쌈놀이를 체계적인 고증과 구성 연출을 통하여 『저산팔읍(苧産八邑)길쌈놀이』를 발굴하여 1922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그후 '86년에도 도대표로 출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다. 매년 모시문화제 행사시 시연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9) 서산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굴부르기제 『굴부르기군왕제』가 치러지는 곳은 조선왕조의 도읍을 서울로 정한 무학대사가 고려말 암자를 처음짓고 정진하던 중 공민왕3년(1353년) 깨달음을 얻어 『간월암』이라 지었다는 암자로서 밀물때에는 물이 차 섬이 되었다가 썰물때에는 물이 빠져 작은 자갈길로 육지와 연결된다. 간월암 법당에는 무학대사등 이 곳에서 수도한 우리나라 고승들의 인물화가 걸려 있으며 2백년 가량된 사철나무 팽나무 느티나무등이 암자의 운치를 더해준다.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는 음력 대보름 서산 어리굴젓 주생산 단지인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서 행해지는 해양 민속이다. 굴부르기 군왕제는 서해바다 굴을 다 모여라 하는 풍어제이다. 음력 정월 보름날 마을 고사를 지낸 후 부

녀자들이 모여 시행한다.

서산 어리굴젓은 조선시대 무학 대사가 이 곳 간월암에서 수도할 때 태조대왕께 한번 맛보라고 올린 후 계속 진상품이 된 지역 특산물이다. 특히 이 지역 어리굴젓이 궁중 진상품이 될 정도로 맛을 인정 받은 것은 이곳의 굴이 다른 지방의 굴에 비해 색깔이 가쁘스름하고 알이 잘고 물 날개(굴에 나있는 명털)가 잔잔하고 수가 많아 고추 가루 등이 속살까지 배여 들기 때문이다. 굴부르기제는 이같이 이 곳에서 생산되는 어리굴젓이 유명 특산물로 부상되면서 어리굴젓 담글 굴이 많이 모이라고 기원하는 부녀자들 사이에 이어진 토속 민속이다.

굴부르기제는 가장 정결하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은 아낙네를 제주로 선정, 굴 풍년을 기원하는 제로 시작된다. 이 때 마을 남정네는 물론 임신 또는 생리 중인 여자는 일체 참석치 못한다. 돼지 머리와 청과물을 올려놓고 해안가에서 제주가 제를 올리면 소복을 입은 아낙네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힌다. 굴부르기제가 모두 끝나면 부녀자들이 어우러져 풍물을 두드리며 신명나는 한 마당놀이로 끝을 맺는다.

10) 보령시 장고도(長古島)의 등바루놀이

등바루놀이는 서해안 섬지역에 2백여년 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초경을 지낸 섬처녀들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등불을 밝히고 굴부르기 놀이를 하며, 4월초 8일을 전후해 해당화 피는 바닷가에서 굴캐기 경연으로 큰아씨를 뽑고 부모님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흥겨운 놀이를 한다. ‘등바루’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등불을 밝힌다’는 말과 ‘등불을 켜들고 마중나온다’는 말이 변형되어 준 말이라고 한다.

이 민속놀이는 1980년 충청남도와 보령군에서 오천면 장고도를 중심으로 발굴해 그 해 전국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출품했고, 대천여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계승해 오다 1987년부터는 대천여상고에서 계승해 오고 있다.

나. 행위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여성들의 예술 활동을 말한다.

1) 여창가곡(보유자 한자이/대전/지정일: 2002. 12. 30)

조선시대 상류사회에서 애창된 시조 및 가사와 함께 정가(正歌)에 드는 성악곡으로서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한다. 시조의 시를 5장 형식에 얹어서 부르는 가곡은 피리, 젓대, 가야금, 거문고, 해금의 관현 반주에 맞추어 불리며, 그 예술성은 시조와 가사에 비하여 아주 뛰어나다. 전통가곡은 16박 또는 10박의 장구장단 반주에 의하여 연주되고,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로 짜여졌으며, 24곡으로 한 바탕을 이루고 사람의 구분에 따라서 남창가곡, 여창가곡, 남녀창가곡 등으로 나뉜다.

가곡의 기원은 조선 전기이며, 현재의 가곡은 말기에 형성된 것이다. 조선 후기 만대엽과 중대엽이 차차 쇠퇴함에 따라서 삭대엽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는데 17세기말부터 삭대엽은 1, 2, 3의 변주 형태로 성장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이수대엽(二數大葉)에서 다시 중거(中擧), 평거(平擧), 두거(頭擧)가 파생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오늘의 가곡과 같이 거대한 성악곡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자이는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여창가곡 보유자 월하 김덕순에게 입문하여 예능을 전수받았다. 그후 1992년부터는 남창가곡의 보유자인 김경배에게서 남창가곡을 사사받고, 내포제 시조의 명창인 소동규, 김규열, 박기옥에게서는 향제시조를 배워 시조창과 가사창 분야를 섭렵하였다. 1992년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특부 금상과 1993년 전주대사습놀이 시조부 장원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 복혜숙

- 영화배우.

본명은 마리(馬利). 충청남도 대천 출생. 1919년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일본에 건너가 수예선생이 되려고 요코하마기예학교[横濱技藝學校]에 들어갔다. 귀국 후 강원도의 금화여학교(金華女學校)에서 교직생활을 했으나, 배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20년 신극좌(新劇座)에 입단하였다. 신극좌의 《오! 천명(天命)》으로 처음 무대에 서게 되면서 이월화(李月華)와 함께 한국 최초의 여배우로서 활동하게 된다. 22년 극단 토월회(土月會)에 입단하였으며, 그 후 조선극우회·중앙무대로 옮겨 다녔다. 만년에는 배우극장(俳優劇場)에 입단하여 연기를 계속하였다. 최초로 출연한 영화는 이규설(李圭畵)감독의 《농중조(籠中鳥, 1926)》이며, 그 뒤 이구영(李龜永)감독의 《낙화유수(1927)》, 신경균(申敬均) 감독의 《감격시대(1943)》 등에 출연하였다.

참고자료

- 충청남도 편, <<충청남도 개도 백년사:1896-1996>>, 충청남도, 1997
-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해설집>>, 충청남도,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 충남대학교 박물관 편, <<부여의 문화유산>>, 충남대학교 박물관, 2002
- 대전시지 편찬위원회 편, <<대전시지>>, 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84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충청북도지>>, 청주문화원, 1975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충청북도의 고서>>, 충청북도, 1999
- 충주시, <<충주시지>>, 충주시, 2002
- 차용걸 외, <<청주시 문화유적>>, 1993
-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편, <<청주시지>>,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청주시지부, 1976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전국문화유적총람>>,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6
- 문화재청 편,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2004
-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박석분 박은봉 공저, <<인물여성사>>, 새날, 1994

-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상 하,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삼일여성동지회 문화부,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운동 60주년 기념>>, 중앙출판, 1980
- 정석기, <<한국기독교 여성인물사>>, 쿤란, 2001
- <http://www.provin.chungnam.kr>
- <http://www.provin.chungbuk.kr>

Ⅲ



경상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380
2. 무형문화유산	416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장씨와석계고택 - 남자현지사 생가지 - 최송설당 관련 - 백신애와 문학비 - 신라오릉 - 수로왕비릉 - 망산도.유주암.유주 비각 - 경주황남리고분군 - 양산북정리고분군 -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 이수 및 귀부 - 박제상유적 - 경모당 - 아랑각 - 몽화각 - 어사옥비 - 진주의암사적비 - 송공단 - 열효신씨지려비석 - 쌍절려 - 김천신리영천이씨정려비 - 이씨삼강묘비 - 봉곡동효열비각 - 선산삼강정려 - 무실정려각 - 열녀학생임술증처유인밀양 박씨지려 	<p>경상북도민속자료 제91호</p> <p>사적 제172호</p> <p>사적 제74호</p> <p>진해시기념물 제89호</p> <p>사적 제40호</p> <p>사적 제93호</p> <p>보물 제125호</p> <p>울산시기념물 제1호</p> <p>문화재자료 제70호</p> <p>문화재자료 제26호</p> <p>문화재자료 제155호</p> <p>문화재자료 제166호</p> <p>진주시유형문화재 제353호</p> <p>부산시기념물 제11호</p> <p>문화재자료 제183호</p> <p>문화재자료 제386호</p> <p>문화재자료 제387호</p> <p>경주시유형문화재 제223호</p> <p>문화재자료 제391호</p> <p>문화재자료 제333호</p> <p>안동시민속자료 제48호</p> <p>문화재자료 제240호</p>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이씨 재사 - 오덕동 애은당고택 - 안동의 춘동 초가도토마리집 	<p>유형문화재 제23호</p> <p>포항시민속자료 제80호</p> <p>안동시민속자료 제6호</p>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 범방동패총	부산시기념물 제44호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 김탁과 독립운동 - 정칠성과 노동운동 - 강경옥과 소작운동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 영일일월지 - 파사석탑 - 김해신천망월석탑 - 하성	포항시기념물 제120호 문화재자료 제227호 문화재자료 제262호 문화재자료 제92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 경주석장동암각화 - 건들바위(대구입암)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24호 경주시기념물 제98호 대구시기념물 제2호
	유물	여성의 복식	- 경식<천마총> - 청동제초두<천마총> - 상감유리옥부경식 <미추왕릉> - 금제경식 <98호남분> - 광해군내외 및 상궁옷 - 김흠조부부묘 출토유물 - 진주하씨묘 출토유물 - 학성이천기일가묘 출토복식	보물 제619호 보물 제622호 보물 제634호 국보 제194호 중요민속자료 제3호 중요민속자료 제242호 중요민속자료 제229호 중요민속자료 제37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 서애선생모부인곤문기 - 장말손종손가소장고문서 - 충재권벌종손가소장고문서 - 탁영종택문적 - 손소선생분재기 - 점필재문적유품및종가문서	보물 제460-2호 보물 제1005호 보물 제901호 대구시유형문화재 제27호 경주시유형문화재 제14호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09호
		여성 관련 예술 작품	-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병 - 헌종가례도병	보물 제732호 보물 제733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 관련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의정하연부부영정 - 양산지산리부부상 	문화재자료 제278호 문화재자료 제294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포짜기 - 무명짜기 - 청도 삼베짜기 - 명주짜기 - 누비장 	무형문화재 제1호 무형문화재 제16호 무형문화재 제24호 무형문화재 제87호 무형문화재 제107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소주 - 문경 호산춘 - 안동 송화주 - 경주 교동법주 	무형문화재 제12호 무형문화재 제18호 무형문화재 제20호 무형문화재 제86-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늑다리밟기 - 남해선구줄끗기 - 송선전제례 - 동해안 별신굿 - 영해 별신굿놀이 - 한장군놀이 - 충렬사제향 - 예천통명농요 - 수영농청놀이 - 영산줄다리기 - 의령큰줄대기기 - 거창삼베일소리 	무형문화재 제7호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 김해시무형문화재 제1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2-1 무형문화재 제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의령시무형문화재 제20호 거창시무형문화재 제17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명창-김록주 - 판소리명창-김초량 - 가야금병창-장순애(월중선) - 판소리(홍보가)-박록주 - 가야금 병창-박귀희 - 진주포구락 - 진주교방굿거리춤 - 동래고무 - 진주검무 - 승전무 	무형문화재 제19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진주시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시무형문화재 제21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유적지이다. 여기에는 특정인물의 탄생설화가 있는 장소, 생가, 활동지역, 묘소, 역사적 사건이나 생애를 기리는 사당, 누각, 비(碑) 등이 포함된다.

1) 안동장씨와 석계고택(石溪古宅; 시도민속자료 제91호/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308)

정부인 장씨(貞夫人 張氏 : 1598~1680)는 선조 31년 경북 안동 금계리(金溪里)에서 태어나서 숙종 6년에 83세를 일기로 경북 영양 석보촌(石保村)에서 타계하였다. 만년에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이 대학자이자 국가적 지도자에게만 부여하는 산림(山林)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의 품계가 내려졌다. 이 때부터 ‘정부인장씨’라 불리게 되었다. 석계고택(石溪古宅) 조선(朝鮮)인조(仁祖), 현종년간(顯宗年間)의 학자인 남편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1590~1674) 선생이 인조 18년(1640)에 세운 고택이다. 선생은 석계 위에 집을 짓고 호(號)를 석계라 하고 이곳에서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정부인(夫人)장씨(張氏)도 선생의 학명(學名) 못지않게 효행(孝行)과 부덕(婦德)·학문(學問)·예술(藝術) 등을 겸비한 학자로 세인(世人)이 신사임당(申師任堂)과 동등한 인물로 칭송하고 있다. 이 집은 일자형(一字型) 사랑채와 안채가 이자형(二字型)으로 배치하여 토담을 막아 허실감(虛實感)을 매운 뜰집과 같은 느낌을 들도록 되어있다. 선생은 안동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정부인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부인의 글은 시 9편, 서간 1편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공경함, 맑은 심성, 참된 선

비라는 성리학적 인간됨을 말하는 내용이다. 결국 정부인 장씨는 만년에 이를수록 숨겨둔 재주와 덕행이 드러나서 칭송을 받았다. 안동장씨의 행적을 담은 자료로 그녀의 둘째아들 이현일(1627~1704)이 남긴 <선비증정부인장씨행실기(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가 있다.

2) 남자현지사 생가지(南慈賢志士生家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인 남자현지사는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1873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에서 통정대부 정한공의 셋째 딸로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성장, 1891년 석보면 담곡리에 거주하는 의성김씨 김영주와 결혼하였다. 부군이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1896년 청송진 보지역전투에서 전사하자 민족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유복자인 김성삼을 데리고 만주로 들어가 여성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으며 만주에서 재만조선여자교육회를 설립하여 여성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 1927년에는 길림의 안창호 연설장에서 47명의 독립지사가 체포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그때 중국 당국과 교섭하여 전원 석방되도록 함으로써 지사의 명성은 중국사회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 국제연맹조사단이 만주에 오자 자기의 왼손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1일 일제가 중국 동북지역을 강점하고 괴뢰정권만주국을 세운 1주년 기념행사날 일제 만주국 전권대사를 암살하려다 하얼빈에서 체포되어 경찰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출옥한 직후 하얼빈 조선여관에서 순국(당시61세)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사의 독립정신을 기려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영양군에서는 지사가 출생한 자리에 1999년 11월 30일 대지 4,919㎡에 본채 및 부속사를 복원하였다.

3) 최송설당 관련

1855(철종 6년)에 태어나 1939년에 타계한 최송설당은 육영사업가로서 본

관은 화순(和順), 본명은 미상이며 송설당(松雪堂)은 호이다. 경상북도 금릉출생으로 외가 쪽이 홍경래(洪景來)의 난에 연루되어 증조부와 조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가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누명을 벗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 1886년(고종 23) 아버지가 죽고 이어 남편과도 사별하자, 39세 때 불교에 귀의하여 정진하였다. 그 뒤 서울에 올라와 권문세가의 부인들과 교제하던 중 입궐하게 되어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으며, 귀비(貴妃)에 봉하여지고 고종으로부터 송설당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이후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한편 금릉학원(金陵學園)에 기부금을 내는 등 사회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1931년 2월 전재산 30만 2100만원을 회사하여 재단법인 송설학원(松雪學園)을 설립, 김천고등보통학교를 개교하여 오늘날의 김천중고등학교로 발전되었다. 시문에 능하여 200여수의 한시와 60여수의 국문시가를 남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송설당집》 3권이 있다. 무덤은 김천중고등학교 뒷산의 송정(松亭) 옆에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정에 송설당의 동상을 세워 설립자의 뜻을 기리고 있다.

4) 백신애와 문학비

백신애(1908~1939)는 여류소설가로 본명은 무잠(武岑)이고 경상북도 영천(永川)출생이다. 어려서는 한문과 여학교 강의록으로 공부하였고, 뒤에 대구 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하였다.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원에 이어 자인공립보통학교(慈仁公立普通學校)교원으로 근무하다 사임하고,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정칠성이 활동한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여자청년동맹(女子靑年同盟) 등에 가입하여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다. 1929년 《조선일보》에 박계화(朴啓華)라는 필명으로 〈나의 어머니〉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듬해에 독일, 니혼대학(日本大學) 예술과에 적을 두었다. 1932년에 귀국한 뒤 결혼했으나 이내 이혼하였으며, 1933년경부터 창작에 전념하여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러시아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꺼레이〉(1933)와, 가난하기 그지없는 두 며느리, 특히 맏며느리의 출산을 위해 동분

서주하는 ‘매춘택 늙은이’의 애환을 그린 〈적빈 赤貧〉(1934)이 여성 리얼리즘을 확보한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 1938년 중국 상해(上海)로 여행가기도 했으나 이듬해에 위장병의 악화로 요절하였다. 현재 경북 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조양각(유형문화재 제144호) 경내와 영천문화원 입구마당에는 백신애 문학비가 건립되어있다.

5) 신라오릉(新羅五陵;사적 제172호/경북 경주시 탑동 67)

경주시내 평지 서남쪽에 위치한 4기의 봉토무덤과 1기의 원형무덤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등 신라 초기 4명의 박씨 임금과 혁거세의 왕후인 알영왕비 등 5명의 무덤이라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혁거세왕이 임금자리에 있는 지 62년 만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후에 몸이 흩어져 땅에 떨어지자 왕비도 따라 죽으니, 사람들이 같이 묻으려고 했으나 큰 뱀이 방해해서 몸의 다섯 부분을 각각 묻었는데, 그것을 오릉(五陵) 또는 사릉(蛇陵)이라 했다고 한다. 내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무덤의 겉모습은 경주시내에 있는 다른 삼국시대 신라무덤과 같이 둥글게 흙을 쌓아올린 원형 봉토무덤으로, 1호 무덤이 높이 10m로 가장 크며, 2호 무덤은 표주박형으로 봉분이 두 개인 2인용 무덤이다.

6)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사적 제74호/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무덤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왕비는 성이 허, 이름은 황옥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인도 아유타의 공주로 16세에 배를 타고 와서 수로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9명의 왕자를 낳았는데, 그 중 2명에게 왕비의 성인 허씨 성을 주어 지금도 그 후손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높이 5m 정도의 원형 봉토무덤으로서, 무덤의 밑 부분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무덤 주위에는 얇은 돌담을 4각형으로 둘러 무덤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 쪽에는 긴 돌을 사용하여 축대를 쌓았다. 중앙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가락국수로왕비 보주태후허씨지릉(駕洛國首露王妃 普州太后許氏之陵)’이라는 글이 2줄로 새겨져 있다. 무덤에 딸린 부속건물로는 숭보

제 · 외삼문 · 내삼문 · 홍살문이 있으며, 보통 평지에 있는 무덤과는 다르게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 앞에는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하는 파사석탁의 석재가 남아 있다. 세종 28년(1446)에 수로왕릉과 함께 보호구역이 넓혀졌으며, 임진왜란 때 도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비석과 상석 등은 인조 25년(1641)에 다시 정비하면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7) 망산도 · 유주암 · 유주비각(望山島 · 維舟岩 · 維舟碑閣; 시도기념물

제89호/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 222,223,197)

용원동 앞 바다에 잡목으로 뒤덮인 섬을 망산도, 이 섬의 동남쪽 70m 해상의 바위섬을 유주암이라 부르는데 모두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태후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도움을 정한 지 7년 만에 신하들이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얘기하자 ‘짐이 이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며, 왕비 또한 하늘이 주실 것’이라 하였다. 신하들에게 바닷가에 나가 기다릴 것을 명령하여 기다리니, 서남쪽 해상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배 한 척이 다가왔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태후 일행으로 이들이 처음 내린 곳이 망산도이며, 허태후 일행이 타고 온 배가 뒤집혀 유주암이 되었다고 한다. 유주암과 망산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허태후의 전설을 전하고 있는 유주비각이 있다.

8) 경주황남리고분군(慶州皇南里古墳群; 사적 제40호/경북 경주시 황남동 6-1)

경주시내 평지 무덤들 가운데 서남쪽에 있는 신라의 무덤들로서 크고 작은 무덤 20여 기가 남아 있는데, 1973년 ‘대릉원’이란 고분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안에는 천마총 · 황남대총 · 김총 등과 미추왕릉이라고 전하는 무덤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구조는 대부분 신라 특유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관분)으로 보인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직사각형의 구덩이를 판 뒤 덧널(곽)을 설치하고 자갈과 냇돌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 중 천마총은 금관 · 금제허리띠(금제과대)등을 비롯하여 장신구 등 각종 호화로운 유물이 나왔으며, 색이 칠해진 천마도가 나와 신라시대 그림 연구에 중요한 자료

가 되고 있다. 높이 23m, 남북 길이 120m, 동서 직경 80m로 경주에서 가장 큰 황남대총은 표주박 모양으로 연결된 두 개의 무덤으로, 남자와 여자의 무덤임이 밝혀졌다.

9) 양산북정리고분군(梁山北亭里古墳群; 사적 제93호/경남 양산시 북정동 697)

오봉산의 중심이 되는 산등성이 일대에 있는 무덤들이다. 대형무덤은 산의 윗부분에 퍼져 있고 소형무덤은 비탈진 곳이나 산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덤의 위치는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무덤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덤들 가운데 부부총과 금조총은 1920년에 조사되었고, 1990년에 내부구조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지역의 무덤들은 모두 관을 보관하는 돌방 석실의 앞면이 트인 앞트기식 굴방무덤(횡구식석실분)임이 밝혀졌다. 부부총과 금조총은 앞트기식굴방무덤인데, 부부총은 산 위쪽에 자리잡은 대형무덤으로 돌방내부의 벽면과 천장을 흰색으로 칠하여 장식하였다. 반면 금조총은 산의 비탈진 곳에 자리잡은 소형무덤인데, 무덤들이 자리잡은 위치와 형태가 다른 것은 무덤 주인들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 금제장식품을 비롯한 화려한 유물은 경주지방의 대형무덤에서 나오는 유물과 비슷하다. 부부총의 경우는 추가장으로 남편이 5세기 중반 이후에 먼저 사망하여 무덤을 만들고, 5세기 후반에 부인이 사망하여 함께 묻힌 것으로 보인다. 금조총의 주인은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전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 볼 때,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의 중앙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인물로 추측된다.

10)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 이수 및 귀부(무藏寺阿彌陀佛造像事蹟碑耳首 및龜趺; 보물 제125호/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

신라 제 39대 소성왕(재위 799~800)의 왕비인 계화부인(桂花夫人)이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을 만들면서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비이다. 1915년 주변에서 발견된 세 조각의 비석 파편에 새겨진 글을

통해 ‘무장사아미타조상사적비’임이 밝혀져 이곳에 무장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장사는 신라 제 38대 원성왕의 부친인 효양이 그의 숙부를 추모하여 창건하였다고 한다.

비는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비몸돌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고, 현재 절터에는 부서진 비받침과 비의 머릿돌만이 떨어진 채로 남아 있다. 비받침은 얼굴형상을 알 수 없으나 2좌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등 중앙에 마련된 잘려진 비좌(碑座)는 비몸을 직접 끼워두는 곳으로 사각형이며, 네 면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하였다. 잘려진 머릿돌에는 용이 구름속에서 앞발로 여의주를 잡고 있는 조각이 있고, 왼쪽 면에는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의 조사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석비는 통일신라 전기에 만들어진 신라태종무열왕릉비(국보 제25호)를 제외하고 그 이후 머릿돌이 남아 있는 예가 드문 상황에서 당시 머릿돌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11) 박제상유적(朴堤上遺蹟; 시도기념물 1호/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30-2, 범서면 척과리 산152)

신라의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사당터이다. 박제상은 고구려와 왜국에 볼모로 잡혀있던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에서 왕자 복호를 구하여 귀국시킨 후, 왜국으로 건너가 왕자 미사흔을 구출했다. 그러나 자신은 잡혀 심한 고문 끝에 불에 타 숨졌다. 박제상의 부인 김씨는 두 딸을 데리고 치슬령에 올라, 왜국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이 되었는데, 부인의 영혼이 새가 되어 날아가 숨은 곳을 ‘은을암’이라고 한다. 그 후 왕은 박제상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삼고 박제상에게는 대아찬의 벼슬을 내렸다. 이곳에 사당을 세워 박제상과 그 부인의 충절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립연대나 규모는 알 수 없다.

12) 경모당(敬慕堂; 문화재자료 제70호/경남 창원군 유어면 진창리 235)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공주를 모셨던 청주 양씨 시조, 양기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이 지방에는 관청을 제외하고는 둥근기둥을 사용하지 않았는

데, 사당에 등근기둥을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며, 약 200 여년 전에 세운 건물로 보인다.

13) 아랑각(阿娘閣;문화재자료 제26호/경남 밀양시 내일동 39)

아랑각은 조선 명종(재위 1545~1567) 때 미모가 뛰어난 밀양부사의 외동딸 윤동옥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윤동옥은 유모의 꺾임에 빠져 영남루에 달구경을 갔다가 통인 주기에게 정조를 강요당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켰다고 한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아랑의 넋을 위로하고 그 정절을 기리고자 해마다 4월 16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14) 몽화각(夢花閣;문화재자료 제155호/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63)

몽화각은 송과 박전과 그의 부인 신안 주씨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세운 정자이다. 박전(1514~1558)은 조선 명종 1년(1546)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정랑, 북평사를 역임하였고 명종 13년(1558)에 죽는다. 그 뒤 부인 주씨는 3년 상을 치른 후 어린 아들과 함께 친정인 울진으로 가서 순흥땅 화천리로 이사한다. 거기서 아들 박선장을 남삼송에게 가르침을 받게 해 문과에 급제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주씨 부인의 행적을 추모하여 정자를 세웠다. 몽화각(夢花閣)'이라는 이름은 박전이 돌아가신 후 그의 부인이 꿈에서 계시를 받아 꽃 '화(花)'자가 든 화천리를 택하여 그의 아들이 급제하고 크게 번성했다는 설화에 따라 지은 것이라고 한다. 건물의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15) 어사옥비(御賜玉碑;문화재자료 제166호/경남 창원시 북면 대한리 459)

북면 지개리의 창녕 조씨재실인 모선재(慕先齋) 경내의 비각에 있는 어사옥비는 조선 중종대의 문관 조치우(曹致虞)선생의 부인에게 내려진 것이다. 조선 초기 일반 묘비형으로 가침석과 비신을 한 돌로 만들었으며, 높이 118cm, 너비 47cm, 두께 19cm이다. 조치우는 대구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청렴결

백하고 치적이 뛰어나 청백리에 올라 부인과 함께 옥비를 하사받게 되었는데, 그의 비는 경북 영천군에 있다.

16) 진주의암사적비(晉州義巖事蹟碑; 시도유형문화재 제353호/경남 진주시
본성동 500-8)

의암사적비는 선조 26년(1593) 6월 29일,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고, 7만 민관군이 순절하자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논개의 사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진주의 사민(士民)들은 명암 정식(明庵 鄭拭 : 1683~1746)이 지은 비문으로 경종 2년(1722)에 세웠다. 영조 16년(1740) 병사 남덕하(南德夏 : 1688~1742)는 의기정포(義妓旌褒)를 제청하여 의기사를 창건하였고, 『의암사적비』에는 비각을 건립하여 의기는 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라는 현판을 게시하였다. 이 비는 아래의 의암(義巖, 경상남도 기념물 제 235호)과 마주하고 있어 의기 논개의 순국정신을 한층 더 흠모케 하고 있다. 이 비의 비문에는 “그 바위 홀로 섰고, 그 여인 우뚝 섰네. 여인은 이 바위가 아닌들 어찌 죽을 곳을 찾았고, 바위는 이 여인이 아닌들 어찌 의로운 소리 들으랴. 남강의 높은 바위, 꽃다운 그 이름 만고에 전해 지리”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17) 송공단(宋公壇; 시도기념물 제11호/부산 동래구 복천동 229-78)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적과 장렬히 싸우다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과 여러 군민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는 제단이다. 동·서·남·북의 4단으로 되어있는 이곳에는 북쪽은 송상현·조영규·노개방, 동쪽은 유생 문덕겸·비장 송봉수·김희수·신여로, 서쪽은 노개방의 부인, 송상현의 첩 금성, 정발의 첩 애향, 남쪽은 향리 송백·부민 김상·두촌녀 및 이름 없는 여러 사람들의 단이 마련되어 있다.

조선 영조 18년(1742) 동래부사 김석일이 설치한 것으로, 원래는 그 전에 동래읍성의 남문 밖 농주산(지금의 동래경찰서 자리)에 임진왜란 때 순절한

이들의 제단을 세워 동래부사 송상현·부산첨사 정발·양산부사 조영규·동래교수 노개방 등을 모셨는데, 이 단이 마련되면서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다가 이후 동래성에서 순절하지 않은 분들의 제사는 모시지 않게 되어, 부산에서 순절한 분들은 정공단, 다대포에서 순절한 분들은 윤공단으로 옮겨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일제시대 이후부터는 음력 4월 14일로 날짜를 옮기어 제사를 올리고 있다.

18) 열효신씨지려비석(烈孝辛氏之間碑石;문화재자료 제183호/경남 창원군

도천면 도천리 산133)

고려 후기 공민왕 때의 문신이었던 신사천(? ~1382) 선생과 그 두 딸의 충효와 절의를 기리고자 세워놓은 2기의 비이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봉익대부전공판서를 지내던 신사천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머물던 중, 왜적이 여러 차례 침략하자 이에 맞서 싸워 큰 공을 세우고, 우왕 8년(1382)에 순절하였다. 그의 큰딸은 랑장 김우현의 처가 되어 남편과 함께 왜적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으며, 작은딸 역시 16세 처녀의 몸으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다. 전법판서 조준이 경상도 체복사로 왔다가 이 사연을 듣고 왕에게 상소하였는데, 왕은 비를 세우도록 하고 포상을 내리었으며, 그 사연을 『삼강행실록』에 기록하였다. 한 채의 비각 안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이 비들은 낮은 사각받침 위로, 비 몸을 세운 간결한 모습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세운 것이다. 1994년에 비각과 사당을 새로이 지어 그 안에 모셔두었다.

19) 쌍절려(雙節閼;문화재자료 제386호/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585)

본 건물은 임진왜란 당시 용궁전투에 전사한 배인길(裵寅吉)과 이 소식을 듣고 자결한 그의 부인(월성이씨)의 충(忠)과 · 열(烈)을 기리기 위해 순조 17년(1817)에 국가에서 하사한 쌍절려(雙節閼)이다. 배인길(선조 4년, 1571-선조 25년, 1592)은 자(字)는 경보(敬甫), 본관은 흥해(興海)로, 어릴 때 백부의 가르침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혔으며, 22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예안현감인 신지제(申之悌)의 막하에 나아가 용궁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다. 18세기 이후 충효열(忠孝烈)에 대한 국가적인 표창사업이 전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순조 17년(1817)에 배인길과 그의 부인의 충렬(忠烈)이 인정되어 국가에서 쌍절려(雙節閼)를 하사하였다. 현재 여각내에는 쌍절교지(雙節敎旨)(충신학생(忠臣學生) 흥해(興海) 배인길지여(裴寅吉之閼), 『열녀신배인길 부유인월성이씨지여(烈女忠臣裴寅吉妻孺人月城李氏之閼)』)와 상량문(1817년 3월 26일, 전참판(前參判) 김희주고(金熙周稿) 및 정려기(旌閼記)(양범휴술(仰範休述))이 걸려있다.

20) 김천신리영천이씨정려비(金泉信里永川李氏旌閼碑;문화재자료 제387호/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리 525)

영천이씨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남편이 의병으로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울 때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가사를 도맡고 있었는데, 왜적들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희롱당할 위기에 처하자 품속에 있던 은장도로 가슴을 찔러 자결하였던 인물이다. 영천이씨가 자결한 지 36년 후에 비를 세우고, 절부'라는 칭호를 내리어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려비 앞에 우물을 파서 아낙네들에게 이씨부인을 본받도록 하였는데, 그 우물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는 비는 네모반듯한 받침돌 위로 윗모서리 양 끝을 둥글게 처리한 비몸을 세운 모습이다. 각 표면은 불규칙한 자연돌을 거칠게 다듬어 다소 울퉁불퉁하다. 앞면에는 '절부정유한처유인'이라는 글씨와 함께 3줄의 비문을 깊고 선명하게 새겼다. 비의 제작연대는 인조 11년(1633)이며, 고종 29년(1892) 12월 조정에서 정유한에게 통정대부 이조참의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영천이씨는 숙부인에 봉하였다.

21) 이씨삼강묘비(李氏三綱廟碑;시도유형문화재 제223호/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산58-1)

다산리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비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이희룡 장군과 그

의 아들 이문진 및 며느리 김씨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이희룡은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위하였으며, 영남의 적을 정찰하라는 왕명을 받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충주에서 적을 만나 전사하였다. 아들 문진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려다 신령에서 적과 대치하다 죽었다. 며느리 김씨가 이 소식을 듣고 손수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공을 기리어 조선 숙종 36년(1710)에 벼슬을 올려주고 정려각을 하사하였다. 비는 거북받침 위로 비 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려놓은 모습으로, 비교적 큰 규모이나 별다른 무늬는 두지 않았다. 영조 42년(1766)에 비를 세웠으며, 대제학 남유용이 비문을 짓고, 경주부윤을 지내던 홍재가 글씨를 썼다.

22) 봉곡동효열비각(蓬谷洞孝烈碑閣;문화재자료 제391호/경북 구미시 봉곡동 446-2)

한 채의 비각에 걸쳐있는 3기의 현판과 그 안에 서 있는 2기의 비로, 한 집 안내의 한 효자와 두 열녀의 언행과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진환(1605~1650)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평소에도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상주지역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이내 달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간호한 보람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옮기어 묘소를 마련하였으며, 3년간 곁을 지킨 후 몸이 약해져 46세로 생을 마쳤다.

숙종 7년(1681)에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한 현판을 내리고, 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이후 ‘통훈대부사헌부집의’에 올리었다가 다시 ‘통정대부이조참의’까지 벼슬을 올려 주었다. 숙종 때 세워놓았던 비는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땅에 묻혔다가 그 윗부분만이 발견되어 비각 안에 세워두었고, 1974년에 새로이 비를 세워 그 옆에 함께 모셔놓았다. 박진환의 셋째 아들의 손주 며느리인 양주조씨(1696~1724)는 그 남편의 천성이 똑바르고, 재주가 뛰어나나, 몸이 약하고 폐질환이 심해 항상 병에 시달렸다. 부인이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남편이 34세에 세상을 떠나자 이튿날 부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따랐다.

영조 5년(1729)에 현판을 내리어 그 정신을 기리게 하였다. 박진환의 둘째 아들의 7세손 박내은의 처인 함중어씨(1778~1811)는 남편 박내은이 총명하고 늠름하며 건강하였는데, 순조 11년(1811)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되자 부인도 뒷뜰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남편을 뒤따랐다. 조정에서는 이듬해인 순조 12년(1812)에 현판을 내리어 주위에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23) 선산삼강정려(善山三綱旌閭;문화재자료 제333호/경북 구미시 고아면 봉한리 915-3)

봉한리 마을에서 난 충신, 효자, 열녀를 기리기 위해 정조 19년(1795)에 세운 것이다. 삼강은 유교적 실천윤리인 충(忠)·효(孝)·열(烈)을 말하는 것이며, 정려는 이러한 것을 잘 지킨 이들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우는 징표이다. 이곳의 충신·효자·열녀는 각각 야은 길재, 배숙기, 약가인데 길재(1353~1419)는 고려말과 조선초의 학자로 1374년 벼슬길에 올랐으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제자를 키우는데 전념하였다. 이색·정몽주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불린다. 조선 성종 때 사람 배숙기는 부모를 정성으로 모셨으며, 약가는 조을생의 아내로 남편이 왜구에게 잡혀간 이후 8년을 하루같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로 전한다.

24) 무실정려각(務實旌閭閣;시도민속자료 제48호/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470-43)

이 정려각은 전주 유씨 유성의 처인 의성 김씨의 정절을 기리고 있다. 의성 김씨는 청계 김진의 딸이면서 학봉 김성일의 누이로, 24세에 남편상을 당하자 손수 삭발을 하고 남편무덤을 3년간 지킨 후, 단식 끝에 자살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의성김씨의 열행(烈行)을 높이 평가하여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조선 인조 13년(1635)에 건립되었고, 1988년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의 터로 옮겨 세웠다.

25) 열녀학생임술증처유인밀양박씨지려(烈女學生林述曾妻孺人密陽朴氏之閭;

문화재자료 제240호/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11-69)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안의 현감으로 있을 때, 중인 신분에도 열부로 서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진 임술증의 처 밀양 박씨에 대한 내용을 한문소설화한 정려비이다. 정려비 비문은 정여창 선생의 7대손인 청하 현감 정덕제가 지었다. 이 정려각은 두 번 옮긴 기록이 있는데, 처음 박지원이 『박열부전』을 지은 1793년보다 4년 뒤인 정조 21년(1797)에 세웠으며 1932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겼다. 위 작품은 연암의 12편 한문소설 중 실화를 소설로 쓴 것 중에 남겨진 유일한 작품이다. 이 외에도 박씨에 대한 소설로 윤광석, · 이면제, · 이학전, · 응운 스님의 『박열부전』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동시대의 상황을 유학자의 시각과 행정관리의 시각, 불교의 시각에서 평한 글들로서, 국문학적으로 크게 평가 받고 있다.

나. 여성생활유적지

여성의 생활공간은 각 시대마다 달라진 주거형태 및 가옥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거형태는 각 시기의 사회적 체제에 따라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경우, 엄격한 신분제와 남녀유별의 유교적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남 지역은 강력한 유교 문화권을 형성하였는데, 안동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양반 세거지역에는 고택의 원형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다. 주로 집안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노동을 했던 여성들에게 있어 주거형태는 계층에 따른 당대 여성들의 습속이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궁궐에는 왕비의 공간이 존재해왔다. 경상권에서는 경주 지역이 신라왕조의 수도로서 많은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궁궐의 원형은 소실되고 궁궐터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당대의 지배층 여성의 주거형태나 존재양태는 이후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 조사를 통

해서 추정,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성이씨 재사(固城李氏 齋舍; 유형문화재 제23호/경북 안동시 정상동 488-2)

이 건물은 고성이씨로 영산현감을 지내고 이조참판에 증직된 이증(李增)과 정부인(貞夫人) 경주이씨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1600년경에 건립되었으며, 당호는 수다재(水多齋)이다. 정면 5칸, 측면 6칸의 ‘口’자형 기와집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부엌과 광, 그리고 뒤주를 만들어 재실로서 기능하게 한 납도리집이다.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4년 월곡면 미질동에서 예안면 기사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0년 현위치로 옮겼다. 몸채는 길이 5칸, 너비 2칸인 양통의 긴 一자 집인데 안방과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었다. 각 기둥 칸사리는 대체로 8척이므로, 안방이 아래 위로 2칸통을 차지하였고,中间的 넓은 대청은 6칸이나 된다. 건넌방 역시 2칸 방인데, 6칸 대청은 이 지방의 큰 집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규모이다. 몸채를 앞한 기단은 한층 높게 돋구어져 있고, 그 양편과 맞은편으로는 나직한 토단 위에 각기 부엌, 광채, 사랑채, 문칸채가 口자로 귀를 맞대어 짜여져 있는데 이는 당시 양반 가정 내의 여성 활동 공간을 짐작케 한다.

2) 오덕동애은당고택(吾德洞愛隱堂故宅; 시도 민속자료 제80호/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6)

북평사 전주부윤 전주진병마절제사(北評事 全州府尹 全州鎭兵馬節制使)를 지낸 바 있고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농포 정문부(1565~1624)가 가족들의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다. 전쟁 후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면서 손녀사위인 사위당 이강에게 주었는데, 현 소유주의 5대조가 사들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북 모양의 땅 위에 거북 모양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거북의 앞발에 해당하는 곳에 별당과 방앗간을 두었고, 특히 머리 부분에 속하는 앞면에는 여성의 노동공간인 누에를 치던 잠실을 두고 있다. 꼬리 부분에는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참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선시대 양반가옥들>

- 안동하회마을(安東河回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양진당(養眞堂)(보물 제306호), 충효당(忠孝堂)(보물 제414호), 북촌택(北村宅)(중요민속자료 제84호), 원지정사(遠志精舍)(중요민속자료 제85호), 빈연정사(賓淵精舍)(중요민속자료 제86호), 유시주(柳時柱) 가옥(중요민속자료 제87호), 옥연정사(玉淵精舍)(중요민속자료 제88호), 겸암정사(謙菴精舍)(중요민속자료 제89호), 남촌택(南村宅)(중요민속자료 제90호), 주일재(周一齋)(중요민속자료 제91호), 하동고택(河東古宅)(중요민속자료 제177호)
- 월성양동마을(月城良洞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9호/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손동만씨가옥(孫東滿氏家屋)(서백당(書百堂) 또는 송침, 중요민속자료 제23호), 낙선당(樂善堂)(손영호씨가옥(孫潐鎬氏家屋), 중요민속자료 제73호), 무침당(無침堂)(여강이씨 대종가(驪江李氏 大宗家), 이인식(李仁植), 보물 제411호), 관가정(觀稼亭)(손씨대종중(孫氏大宗中), 보물 제442호), 향단(香壇)(향단파종가(香壇派宗家), 보물 제412호), 심수정(心水亭)(향단파(香壇派), 중요민속자료 제81호), 수운정(水雲亭)(손승익(孫承翼), 중요민속자료 제80호), 수졸당(守拙堂)(이종환(李宗煥), 중요민속자료 제78호), 이향정(二香亭)(이석천(李錫千), 중요민속자료 제79호), 이원용가옥(李源鏞家屋)(중요민속자료 제75호), 이희태가옥(李熙太家屋)(중요민속자료 제77호), 안락정(安樂亭)(손씨종중서당(孫氏宗中書堂), 중요민속자료 제82호), 이동기가옥(李東琦家屋)(중요민속자료 제76호), 이원봉가옥(李源鳳家屋)(중요민속자료 제74호), 강학당(講學堂)(이씨종중서당(李氏宗中書堂), 중요민속자료 제83호)
- 광산김씨궁구당고택(光山金氏肯構堂古宅;시도유형문화재 제316호/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228)
- 정재종택(定齋宗宅;문화재자료 제52호/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1037-3)
- 영천정재영씨가옥 및 산수정(永川鄭在永氏家屋 및 山水亭;중요민속자료 제24호/경북 영천군 임고면 삼매동1020)

- 영천정용준씨가옥(永川鄭容俊氏家屋;중요민속자료 제107호/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
- 의성김동주씨가옥(義城 金東周氏 家屋;중요민속자료, 제25호/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동 158)
- 경주최식씨가옥(慶州崔植氏家屋;중요민속자료 제27호/경북 경주시 교동 69)
- 경주탑동김헌용고가옥(慶州塔洞金憲容古家屋;중요민속자료 제34호/경북 경주시 탑동 633)
- 묘동박엽씨가옥(妙洞朴煥氏家屋;중요민속자료 제104호/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동 800)
- 청도운강고택 및 만화정(淸道雲岡古宅 및 萬和亭;중요민속자료 제 106호/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69, 182-1)
- 해평최상학씨가옥(海平崔相鶴氏家屋;중요민속자료 제105호/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
- 봉화김갑동가옥(奉化金甲東家屋;문화재자료 제353호/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654)
- 영덕괴시리사곡택(盈德槐市里沙谷宅;문화재자료 제425호/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0)
- 합천팔심리 윤씨고가(陝川 八尋里 尹氏古家;중요민속자료 제18호/소재지: 경남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46)
- 합천 묘산묵와고가(陝川 妙山 默窩古家;중요민속자료 제206호/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5)
- 함양 정병호가옥(咸陽鄭炳鎬家屋;중요민속자료 제186호/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창녕하병수씨가옥(昌寧河丙洙氏家屋;중요민속자료 제10호/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9)
- 의령덕교리강씨고가(宜寧德橋里姜氏古家;시도 민속자료 제11호/경남 의령 덕교리 9-5)
- 단계박씨고가(丹溪朴氏古家;시도 민속자료 제4호/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 고성봉동리배씨고가(固城鳳東里裴氏古家;시도 민속자료 제16호/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354)
- 정은선생가옥(鄭蘊先生家屋;중요민속자료 제205호/경남 거창군 위천면 감천리 50-1)
- 거창갈계리임씨고가(居昌葛溪里林氏古家;시도 민속자료 제9호/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67)
- 고성청광리박진사고가(固城淸光里朴進士古家;문화재자료 제292호/경남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292-2)
- 산청사월리최씨고가(山淸沙月里崔氏古家;문화재자료 제117호/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85)

3) 안동의 촌동초가 도토마리집(安東宜村洞草家 도토마리집;시도민속자료 제6호/경북 안동시 성곡동 산225-1)

안동 의촌동에 있던 농가로 초가 도토마리집이다.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안동댐 건설 공사로 인하여 1976년 지금 자리로 옮겨 지었다. 일반적인 농가는 외양간·부엌·안방·옷방으로 一자형을 이루는 것과 달리, 이집은 옷방이 ‘중방’으로 부엌 한쪽에 붙어 있다. 마치 벼들의 도토마리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도토마리집’이라 불리고 있다. 도토마리집은 까치구멍집·봉당집 등과 함께 이 지방 민가의 독특한 형태이다.

다. 여성 생산활동 유적지

1) 범방동패총(凡方洞貝塚;시도기념물 제44호/부산 강서구 범방동 195-1일원)

범방패총은 신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에 해당되는 3개의 문화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적으로 녹산동 죽곡에서 범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다. 범방패총에서 확인된 유구(遺構)는 원형 노지(爐地) 및 집석유구(集石遺構), 토광묘(土鑿墓)등이고 출토된 인골(人骨)의 상태는 불량하나 두개골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은 10세 전후로 추정되며 여성이다. 원형유구와

원형집석 유구는 직경 40~60cm정도이며 배치상태나 주변 상황으로 보아 어패류나 동물을 요리하기 위한 야외 시설물로 추정된다. 범방동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전기·중기·후기에 해당하는 3개의 문화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적으로 범방동 입구에 있다. 이 패총에서 조사된 유구는 둥근 화덕자리와 둥근 돌무지유구, 그리고 널무덤을 비롯한 7기이다. 널무덤에서 출토된 사람의 뼈는 10세 전후의 여자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며, 뼈의 상태는 불량하나 두개골은 비교적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둥근 화덕자리와 둥근돌무지유구는 배치상태나 주변 환경으로 보아 어패류나 동물을 요리하기 위한 야외 시설물로 보인다. 이 밖에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친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신석기시대 전기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범방동 패총은 신석기시대의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전 시기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생활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써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라. 여성교육·운동유적지

경상도 지역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왜적에 항거하여 목숨을 잃은 관기(官妓)의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남 진주의 의기(義妓) 전통은 이후 식민지 시대 3.1 운동 때에 진주 기생들의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이어진다. 한말·일제치하 경북지역에서는 1920년대 초기에는 계몽주의적 여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중기 이후는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으로, 말기에는 일반 여성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경북은 유교적인 토양 아래 유난히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강한 특성을 지닌 곳이지만 여성농민에 의한 소작운동도 강렬하게 펼쳐졌고, 문화운동으로 식민통치에 저항한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안방 모임을 통해 여성 운동이나 공식적인 모임체를 결성한 여성단체운동 또한 왕성하게 펼쳐졌다.

1) 김락과 독립운동

김락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내앞 마을)에서 부친 김진린(金鎭麟)과 모친

박주(朴周) 사이에서 1862년 12월 2일 태어나 1929년 2월 타계했고, 2001년 8월 15일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김락은 만 18세에 안동시 도산면 하계마을 진성 이씨 문중의 이중엽(당시 양산군수인 향산 이만도의 아들)과 결혼했다. 김락이 시집온 지 16년만인 1896년 시아버지 향산이 만 54세로 예안 의병을 맡으면서 그의 삶은 일상적인 여성의 삶과는 다른 궤적을 형성하게 된다. 김락은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3. 1 운동 때 만 57세의 할머니로 안동지역 항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고문으로 두 눈을 잃게 되는 참극을 당한다.

김락의 친인척 가운데 독립장, 애족장, 건국 포장 등 위훈을 추서 받은 독립지사는 무려 25명이나 된다. 시아버지인 향산 이만도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후 영남지방 의병장으로 추대돼 활동해오다 1910년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단식에 들어가 24일 만에 순절했다. 남편인 기암 이중엽은 안동지역 3·1운동과 파리만국평화회의에 보내는 독립청원서 운동을 주도했으며, 중국 정부와 중요인물에게 독립청원서와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58세로 객사했다. 맏아들 동흙, 차남 중흙 형제도 독립군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돼 두 차례나 투옥됐다. 김씨의 친정 오빠는 경술국치 당시 만주 땅으로 망명한 독립지사 김대락이며, 형부 집안과 사위 집안에서도 독립지사가 여러 명 배출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86년 이만도 집안을 ‘독립유공가문’으로 지정했고, 광복절 56주년을 맞아 시아버지, 남편, 아들 3대에 걸친 항일운동을 뒷바라지했고, 본인 역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불고문으로 실명한 김락을 독립지사로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김락은 안동에서는 유일하게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여성이 됐다.

2) 정칠성과 노동운동

혁명여전사 정칠성(근우회 창립 멤버)과 동명이인인 정칠성(鄭七星1908~)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했다. 1927년 왜관청년회에서 활동했고, 그 해 7월 신간회 칠곡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집행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2년 7월 신간회 칠곡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32년 1월 적색농민조합 건설준비협의회 건립에 참여했다. 1933년 4월 서울에서 조선일보 배달부로 일했다. 5월 변흥대로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6월 이재유와 만났다. 9월 변흥대, 이현상과 함께 종연방직, 경성제사 공장의 파업을 지도하기 위해 스트라이크위원회를 조직했다. 1934년 1월 ‘이재유그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5년 12월에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1937년 6월 출옥 후 왜관으로 돌아가서, 1938년 2월까지 독서회를 조직하여 농민운동 방침과 반전반제운동 방침에 대해 토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3) 강경옥과 소작운동

안동출신으로 1850년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강경옥은 1867년 17세 되던 해에 출가하여 31세 되던 1881년에 남편과 사별했다. 강경옥은 남의 소작으로 자활은 하였으나 항상 소작 관행에서 지주의 무리와 제도가 불합리한 데 대해서 분개하였는데, 1923년 봄에 공산당사건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에 있었던 반촌의 중소지주 출신 李準泰, 權五高 등과 ‘풍산소작인회’를 창립해서 소작운동에 헌신하였다. 안동지방의 사회운동은 지식인, 유산자 층이 중심이 된 계몽적 교육, 문화운동에서 풍산소작인회가 조직·결성되어짐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게 되었다

마. 여성관련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경상권 지역은 신라, 가야권 문화의 발상지로서 여성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적 일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대 문화 속의 여성의 입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영일일월지(迎日日月池; 시도기념물 120호/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이 곳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세오녀 전설이 있는 곳이다. 신라 제8

대 아달라왕 4년(157)에 신라 동쪽 일월동 바닷가에 어부인 연오랑과 베를 짜던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연오랑이 고기를 잡고 바위에 앉아 해초를 따던 중 갑자기 바위가 움직여 동쪽으로 흘러가 일본의 섬나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를 신비하게 여겨 왕으로 모셨다. 한편 세오녀는 연오랑을 찾아 헤매다가 그의 신발을 발견하고 바위에 서니 바위가 다시 움직여 연오랑이 있는 섬에 도착하여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라에는 해와 달이 없어져 천지가 어두워졌는데, 아달라왕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연오랑과 세오녀가 바다를 건너가고 없어 빛을 잃었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연오랑과 세오녀에게 신라에 돌아오도록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뜻으로 이곳에 와서 왕과 왕비가 되었으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세오녀가 짠 비단을 주며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 하였다. 이에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다시 환하게 빛이 났다고 한다. 이때부터 제사를 지내던 곳을 일월지라고 부르며 지금도 이곳을 일월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2) 파사석탑(婆娑石塔;문화재자료 제227호/경남 김해시 구산동 119-3)

호계사의 옛 터에 있던 석탑으로, 절이 없어진 후 부사 정현석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탑의 부재는 5층까지만 남아있는데 조각이 기이하고, 붉은 빛이 도는 희미한 무늬 같은 것이 보인다. 『삼국유사』 등의 옛 문헌에 의하면, 신라의 수로왕비 허황옥이 수로왕 7년(서기48년) 서역 아유타국에서 떠나면 바다를 건너올 때 파신(波神:파도의 신)의 노여움(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함께 신고 온 탑이라 전한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3) 김해신천망월석탑(金海新泉望月石塔;문화재자료 제262호/경남 김해시 한림읍 신천리 471)

망천마을 남쪽의 탑골 암자터에 있던 것을 1982년 흥덕사 경내로 옮겨 세운 석탑으로, 수로왕비의 고향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한다. 원래 3층탑

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2층의 탑신(塔身)만이 있을 뿐, 머리장식과 기단부(基壇部)는 사라지고 없다. 남아 있는 탑 부재들의 조각양식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4) 하성(霞城;문화재자료 제92호/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이 산성은 산의 정상부를 성내(城內)로 하는 포곡성 형태를 취하고 있고 성벽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협축수법으로 만들었다. 산성의 축조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때 백제가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처음 쌓았다고 하며, 후일 임진왜란때 왜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수축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이일(李鑑) 장군이 가등청정(加藤清正)의 군사와 이곳에서 싸웠으나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고 한다. 성의 주변 곳곳에 돌을 쌓아 놓은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것은 남매가 성을 쌓다 남은 돌이라 하고 누이동생이 돌을 치마에 담아 운반하였으므로 이 성을 여성(女城) 또는 치마성이라고도 한다. 성의 길이는 1.5km, 높이는 2m 정도이며 성안은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다산의 상징인 지모신의 지위 속에 추앙되었으며, 또 여사제로서 종교의례를 주관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이 경상권 원시 종교 관련 유적을 통해 발견되고 있다.

1)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居昌農山里立石陰刻仙人像;시도유형문화재

제324호/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753-3)

입석은 고인돌과 함께 큰돌 문화의 일종으로, 선돌이라고도 한다. 선사시대에는 고인돌 주변에 마련되어 묘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역사시대에 와서는 마을 입구에 세워 귀신을 막거나 경계를 나타내고, 토착신앙과 합쳐져 장수를 비는 칠성바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경사회의 풍요로

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이나 인간과 가축의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이 입석은 커다란 바위를 길쭉하게 다듬은 후 신선의 모습을 움푹 들어가게 새겨놓았다. 왼쪽 아랫면에는 알구멍<성혈(性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를 여성 생식기의 상징으로 보아 농경사회 당시 선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의식으로 보기도 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제사의례와 관계있는 주술적인 의미로 보기도 한다. 알구멍 흔적은 한반도 남쪽에서는 주로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 입석은 선사시대의 것으로 보이며, 표면에 있는 신선 조각은 이후 조선시대 전기 때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2) 경주석장동암각화(慶州錫杖洞岩刻畵; 시도기념물 제98호/경북 경주시 석장동 산38-1)

암각화란 바위나 동굴의 벽면에 기호나 물건의 모양을 새겨 놓은 그림을 이른다. 이 암각화는 경주 평야를 가로지르는 두 하천이 만나는 곳의 북쪽 바위벽에 그려진 것이다.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이 그림은 강물에서 약 15m 높이의 수직 절벽 윗부분에 가로 약 2m, 세로 약 9m되는 범위에 새겨져,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모두 27점이 확인되었는데, 기하문 8점과 검과 창 의 요소를 갖춘 그림 11점, 발자국 4점, 여성의 성기(性器) 3점, 배 1점, 그 외 동물모습과 해석이 어려운 그림 등이 있다. 서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은 방패 모양과 도토리 모양, 꽃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도토리 모양과 꽃 모양의 그림은 다른 지역의 바위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이다. 특히 검과 결합된 여성 성기의 그림 등은 칠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건들바위(대구입암)(大邱笠巖; 시도 기념물 제2호/대구 중구 대봉2동 735-28)

건들바위라는 이름의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그 모양이 갯 쓴 노인 같다고 해서 삿갓바위라고도 불리었다. 200년 전에는 이 바위 앞으로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많은 시인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경치 좋은 명소의 하나였으며, 서거정 선생이 노래한 대구 10경 중 입암조어(笠巖釣魚)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정조 때 시가지 일대의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만들고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더이상 이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몰려와 치성을 드렸는데, 특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러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현재는 바위 앞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당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물이 흐르던 옛 모습을 재현해 두어 옛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유물

가. 여성의 복식(의복, 장신구 등)

신라 왕실 문화의 절정을 가늠케 하는 경주의 유적, 유물 속에는 당대 상층부 여성들이 사용했던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장신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양반관료의 가족묘에서 출토된 여성 복식과 장신구는 당대 양반층 부녀자들의 복식 문화와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1) 경식<천마총>(頸飾<天馬塚>;보물 제619호/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천마총은 경주 황남동고분 제155호 무덤으로 1973년 발굴하여 금관, 팔찌 등 많은 귀중한 유품들과 함께 천마 그림이 발견되어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다. 천마총 안의 널<관(棺)>에서 발견된 것으로, 가슴 윗 부분에서 있던 것으로 보아 목걸이로 쓰였던 장신구이다. 금, 은, 비취,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했는데, 원래의 줄 외에 가슴 부근에서 좌우로 늘어지는 짧은 가닥이 달려

있다. 청색 유리옥과 금·은 제품이 여섯 줄로 이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좌우에는 큰 굵은 옥이 매달려 있다. 이 경식은 목에 걸었을 때 전체가 V자형이 된다.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에 비해 매우 화려한 작품으로 신라 왕실의 생활문화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경주 금령총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걸이가 출토된 일이 있는데, 천마총에서 출토된 목걸이는 이것 보다는 훨씬 작다.

2) 청동제초두 <천마총>(靑銅製 초두<天馬塚>;보물 제622호/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천마총은 경주 황남동고분 제155호 무덤으로 1973년 발굴하여 금관, 팔찌 등 많은 귀중한 유품들과 함께 천마 그림이 발견되어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다. 초두는 술, 음식, 약들을 끓이거나 데우는데 사용하던 그릇으로, 대부분 왕릉을 비롯한 큰 무덤에서만 출토된다. 이 청동 초두는 높이 20.5cm, 몸통 지름 18cm, 손잡이 길이 13cm의 크기이다. 전체 형태는 납작한 구형의 몸통에 뚜껑을 덮은 형식으로, 밑에는 3개의 동물 모양 다리가 달렸다. 몸통에는 가로로 한 줄이 돌려 있고 이 위에 휘어진 뿔이 달린 양머리 모양의 액체를 따르는 주구가 달려 있다. 이와 직각되는 위치에 손잡이가 달렸는데, 모가 나 있고 속이 비어 있을 뿐 아니라, 끝에 못 구멍이 있는 점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나무 손잡이를 더 꽂아 사용했던 것 같다. 뚜껑 위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고, 손잡이 위에서 경첩으로 몸통에 연결하여 여닫게 만들었다. 몸통 크기, 다리 높이, 손잡이 길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양머리 모양의 주구 형식은 사실적이다.

3) 상감유리옥부경식<미추왕릉>(象嵌琉璃玉附頸飾<味鄒王陵>;보물 제634호/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황남동에 있는 신라 미추왕릉에서 발견된 길이 24cm, 상감 유리옥 지름 1.8cm의 옥 목걸이이다. 대체로 8가지 옥을 연결하여 만든 목걸이로, 대부

분의 옥이 삼국시대 신라 무덤에서 자주 출토되는 편이지만 상감유리 환옥은 처음 출토되었다. 작고 둥그런 유리 옥에는 녹색 물풀이 떠 있는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오리 16마리와 두 사람의 얼굴이 지름 1.8cm의 작은 표면에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세밀하게 상감되어 있다. 유리 옥의 제작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얼굴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과 차이가 난다. 수공 기술이 높고 색조의 조화가 아름다운 걸작이다

4) 금제경식<98호남분>(金製頸飾<九十八號南墳>;국보 제194호/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황남동 미추왕릉 지구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 무덤인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길이 33.2cm의 금 목걸이이다. 황남대총은 남북으로 2개의 봉분이 표주박 형태로 붙어 있는데, 남쪽 무덤에서 사람의 목에 걸린 채로 널(관) 안에서 발견되었다. 금실을 꼬아서 만든 금 사슬 4줄과 속이 빈 금 구슬 3개를 교대로 연결하고, 늘어지는 곳에는 금으로 만든 굵은 옥을 달았다. 경주지역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목걸이가 푸른빛의 옥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전체를 금으로 만든 특이한 목걸이이다. 금 사슬, 금 구슬, 굵은 옥의 비례와 전체적인 크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아하고 세련된 멋을 풍기고 있다.

5) 광해군내외 및 상궁궐(光海君內外 및 尙宮궐;중요민속자료 제3호/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 총 4착

담청색직령(중요민속자료 3-1)

백삼(중요민속자료 3-2)

홍삼(중요민속자료 3-3)

자주저고리(중요민속자료 3-4)

조선시대 광해군(재위 1608~1623)과 그의 비(妃) 유씨, 그리고 궁중의 정5품 상궁이 입었던 의복 4점이다. 1965년 해인사 장경판고(藏經板庫)를 수리

할 때 남쪽 지붕 아래 구멍에서 건물 완공에 대한 기록과 상공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이 의복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발견된 의류는 담청색 직령 1점, 백삼 1점, 홍삼 1점, 자주저고리 1점 등 4점이다. 이 의복들은 재봉질 못지않은 정교한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세련되었던 바느질법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조선 중기의 의복 습관을 잘 나타내고 있어 남녀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6) 김흠조부부묘 출토 유물(金欽祖夫婦墓出土遺物; 중요민속자료 제242호/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소수서원유물관)

조선 중기 때의 문인인 김흠조(1461~1528)의 무덤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이다. 김흠조의 자는 경숙(敬叔), 호는 악금당(樂琴堂)이며 의성 김씨 17대손이다. 연산군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주·상주·제주목사 등 지방 수령직과 중종 때 장예원 판결사를 역임한 인물로 숙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다. 이들 유물들은 1997년 3월 영주~평은간 국도공사를 위한 분묘 이장 중에 발견되었는데, 3종 134점의 일괄 유물로 복식류 7종 66점, 문서류 2종 38점, 기타유물 4종 30점이다. 복식류는 옷깃이 둥근형태의 옷인 단령 7점, 옷깃이 곧은 형태의 옷인 직령 2점, 직령과 비슷하나 소매가 짧은 형태의 옷인 답호 11점, 옷옷에 치마가 연결된 형태의 옷인 철릭 12점, 바지류 8점, 상의류 6점, 염습구 20점이다. 문서류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인 만사(輓詞) 19점, 제문 19점이다. 내용은 주로 김흠조의 이력과 학덕, 선행 등에 대한 칭송과 친분관계를 표현하고, 글을 지은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적었다. 기타유물은 분청사기인화문항아리·백자병·백자소형단지·백자뚜껑·백자완 등 사기류와 동경·철제가위와 같은 금속제품, 유리제 장신구, 목관, 마제자리 등이다. 출토유물 중 복식류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조선시대 복식사와 상·장례 풍속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문서류는 당시의 장례제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기타류 30점은 조선시대 지방 관료의 부장품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7) 진주하씨묘출토유물(晉州河氏墓出土遺物;중요민속자료 제229호/대구 중구
대봉2동 733-4 건들바우박물관)

- 총 (249점)

복식(중요민속자료 229-1)

장의(중요민속자료 229-1-1)

창의(중요민속자료 229-1-2)

저고리(중요민속자료 229-1-3)

치마(중요민속자료 229-1-4)

버선(중요민속자료 229-1-5)

속곳류(중요민속자료 229-1-6)

바지(중요민속자료 229-1-7)

요(중요민속자료 229-1-8)

이불(중요민속자료 229-1-9)

베개(중요민속자료 229-1-10)

떡목(중요민속자료 229-1-11)

모자(중요민속자료 229-1-12)

덧자리(중요민속자료 229-1-13)

빚접(중요민속자료 229-1-14)

옷감(중요민속자료 229-1-15)

파손된 옷(중요민속자료 229-1-16)

서간문(중요민속자료 229-2)

곽주서(중요민속자료 229-2-1)

치부기록(중요민속자료 229-2-2)

곽주모친, 내사돈, 장남서(중요민속자료 229-2-3)

이남서(중요민속자료 229-2-4)

삼남사남서(중요민속자료 229-2-5)

출가녀서(중요민속자료 229-2-6)

미상(중요민속자료 229-2-7)

1989년 현풍곽씨(郭氏)의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인 진주하씨(河氏)의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들이다. 묘 주인인 하씨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유명한 곽재우의 종질(사촌형제의 아들)인 곽주의 둘째 부인으로 족보에는 그녀의 생사(生死)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출토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1646년경인 조선 인조 때의 여인임을 알 수 있다.

출토된 유물에는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머리에 써서 몸을 가리던 장옷을 비롯하여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창의, 저고리 등 의복류와 이불, 베개, 돛자리 등 침구류, 머리빗는 도구를 담아두던 빗첩 등 81점이 있고 또한 그의 남편인 곽주와 그의 시어머니 등이 쓴 편지와 금전출납을 기록한 것 등 서간문 168점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은 17세기 초의 복식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부녀자의 주변 생활을 한글로 쓴 서간문을 통해 당시 경기도 현풍지방의 풍속이나 민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8) 학성 이천기일가묘 출토 복식(鶴城李天機一家墓出土服飾;중요민속자료

37호/울산 남구 신정동 1412-13 국립경주박물관 위탁·관리)

- 총 10점

광다회대(중요민속자료 37-1)

면포솜소모자, 명주솜소모자(중요민속자료 37-2)

난봉화문단겹장옷(중요민속자료 37-3)

면포솜장옷(중요민속자료 37-4)

옷감(중요민속자료 37-5)

명주솜누비치마(중요민속자료 37-6)

면포솜버선(중요민속자료 37-7)

면포홀치마(중요민속자료 37-8)

학생 이천기 일가 묘 출토복식은 이천기(李天機, 1610~1666) 묘와 그의 부인 홍려 박씨의 묘, 그리고 이천기의 셋째 아들인 이지영(李之英)과 그의 부인 평해 황씨의 부부 합장묘에서 1969년에 출토된 유물이다. 유물 중 이천기의 묘 출토복식(2종 3점)은 광다회대 1점, 면포 솜소모자·명주 솜소모자 2점이다. 이천기의 부인 홍려 박씨의 묘 출토복식(3종 3점)은 면포 솜장옷 1점, 옷감 1점, 면포 홀치마 1점이다. 이천기의 셋째 아들인 이지영과 그의 부인 평해 황씨의 부부 합장묘 출토복식(3종 4점)은 난봉화문단 겹장옷 1점, 명주 솜누비치마 1점, 면포 솜버선 1쌍이다.

※ 2004년 6월 18일 중요민속자료 제37호 울산 이휴정 소장 출토복식에서 학생 이천기 일가 묘 출토복식으로 명칭변경됨.(2004년 2월 관계전문가의 정밀조사 실시 결과 지정명칭 변경과 세부 유물명칭을 정정하고 면포홀치마 1점을 추가지정함)

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경상권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전해오는 많은 고문서에는 당대 여성의 가족 내의 지위나 권리, 사회적 위치 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재산분배기록인 분재기 문서를 통해서 조선시대 각 시기마다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조정에서 부인들에게 내린 교지, 여성이 남긴 언간 서찰 자료 등은 사대부 계층 여성들의 다양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서애선생모부인 곤문기(西厓先生母夫人昆文記;보물 제460-2호/경북 안동시)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1542~1607) 선생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유물들 가운데 유성룡 선생 어머니의 곤문기로, 크기는 가로 362cm, 세로 67.2cm이다.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김성일과 동문수학하였다. 명종 21년(1566)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예문관검열, 공조좌랑, 이조좌랑 등의 벼슬을 거쳐 삼정승을 모두 지냈다.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장군인 권율

과 이순신을 중용하도록 추천하였고, 화포 등 각종 무기의 제조, 성곽을 세울 것을 건의하고 군비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도학·문장·글씨 등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가 죽은 후 문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안동의 병산서원 등에 모셔졌다. 한지에 행서체로 쓰였는데, 여러 곳이 벌레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 문서는 선생 어머니의 분재기로 매우 희귀한 것인데, 분재기란 재산과 노비를 자식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2) 장말 손종손가 소장 고문서(張末孫宗孫家所藏古文書;보물 제1005호/경북 영주시)

조선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의 문신인 장말손(1431~1486)의 종손가에 보관되어 전해오는 고문서들로 5종 18점이다. 이들 고문서에는 고려 우왕 11년(1385) 장말손의 증조(曾祖)인 장전(張전)의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장전의 논밭·노비소유관계 문서와 도망간 노비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다. 『장정처신씨자매화회문기』는 장전의 처 신씨의 세 자매가 상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서이며, 『장안량별급기』는 장말손에게 가사를 내린 문서이다. 이들 9건의 문서를 묶어 1첩의 문서로 펴냈으며, 이외에도 명종 16년(1561) 장말손에게 발급된 교지와 효종 12년(1655)에 예조의 허가문서인 예조입안 등이 있다. 고문서들의 크기는 모두가 각기 다르다. 당시의 사회, 경제, 제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소지, 여성관련 분재기 등의 문서양식을 살피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3) 충재권벌종손가소장고문서(沖齋權撥宗孫家所藏古文書;보물

제901호(15종274점)/경북 봉화군

조선 중종 때 명신이며, 학자인 권벌(1478~1548)의 종손가에 소장되어온 고문서와 일괄 유물들이다. 권벌은 연산군 2년(1496)에 진사가 되고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간, 정원과 각 조의 판서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인종 1년(1545)에 우찬성과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을사사화 때 소윤일파에

의하여 삭주로 유배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선조 때 억울함이 풀어져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안동의 삼계서원에 모셔졌다.

태종 14년(1414)에 황보인의 과거 합격자명단인 문과방목을 비롯하여, 성종대 권벌의 어머니 윤씨 남매의 재사분배기록인 재산분배기가 있다. 또한 중종 때 권벌 선생에게 내려진 교서와 임금의 명령서인 교지,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때 이를 확인해 인정해주는 문서인 입안, 개인이 관청에 어떤 사실을 청원할 때 쓰는 진정서인 소지, 명문 등 570년간에 걸쳐 내려온 고문서가 수십종 1,000여점이 되나, 그중 15종 274점이 선별 조사되었다. 이러한 각종 고문서와 유물들은 각각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와 재사 및 재산 분배, 정치,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각각 중요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4) 탁영 종택 문적(濯纓宗宅文籍; 시도유형문화재 제27호/대구 남구

봉덕3동1329-2 대덕맨션101동901호)

이 문적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희생된 탁영 김일손(1464~1498) 선생과 부인에게 내린 교지 5종과 자계서원에서 의식이 있을 때 그 순서를 적은 글인 홀기 및 둔전답 등본이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문인이며, 1486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낸 후 고향에 내려와 학문에 몰두하다가, 그 후 다시 벼슬길에 올라 이조정랑 등을 지냈다. 그러나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조의제문을 사초(史草)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중종반정이 있는 후 신원되어 홍문관 직제학을 추증 받았으며, 이후 현종 때 도승지, 순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 문적은 그가 죽은 후 도승지, 이조판서에 추증한다는 내용의 교지와 나라에서 시호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교지 및 그의 두 부인을 정부인에 올린다는 교지 등이다. 한 개인의 가계사 뿐만 아니라 정부인으로 추증되는 사대부 여성 관련 자료로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5) 손소선생 분재기(孫昭先生分財記; 시도유형문화재 제14호/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조선 중종 5년(1510)에 손소 선생이 아들 손중돈을 비롯한 자녀 5남 2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재산 상속문서이다. 내용은 전답, 노비, 기타 재산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균등히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재산상속은 부모가 죽고 난 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에서 점차적으로 장남을 우대하고 여타 자녀에게 불균등한 상속으로 바뀌어 오는데 이 문서는 자녀가 고루 균등히 재산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상속문서이다. 분재기 끝에는 이언적을 비롯한 입회인이 직접 손으로 쓴 수결(지급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상속문서는 전형적인 재산 균형분배의 문서기록으로 가족 및 친족제 도사, 혼인사,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분재기와 함께 손씨 가문에는 16세기 분재기 2점을 비롯한 많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6)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점畢齋文籍遺品 및 宗家文書; 시도유형문화재 제209호/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84)

영남 사림파의 종장인 점필재 김종직의 수필 『당후일기』, 교지, 첩지, 수택 유품 상아홀, 성종 하사의 필용옥우, 옥연, · 매화연 등을 비롯하여 김종직 모 부인의 서찰, 후부인 문씨의 분재문기와 호구단자, 전답매매명문, 아들 김승년, 손자 김유, 증손 김몽령 등 성종조부터 19세까지 세대별로 전적과 유품이 종가에 보관되어 있다.

다. 여성 관련 예술작품

경상권 문화 유산 중에서 여성이 직접 남긴 예술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조선시대 영정 그림이나 병풍, 민화 등을 통해 여성이 작품의 대상이 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회화사적으로 소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왕실 여성들의 궁중풍속, 사대부여성의 복식 문화 등을 제시하는 역사적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1)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병(趙大妃四旬稱慶陣賀圖屏;보물 제732호/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헌종의 어머니인 조대비(1808~1890)의 40세 생신을 축하하는 잔치모습을 그린 병풍이다. 조대비는 순조 19년(1819)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어 왕비는 되지 못하고, 후에 그의 아들인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후에 왕대비가 되었다. 가로 458cm, 세로 169cm의 8폭으로 된 병풍으로 7폭은 전각, 나무, 산수를 채색하여 그렸고 마지막 1폭은 도총관 조기영 등 9명의 관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헌종 13년(1847) 정월 초하루 창덕궁 인정전 앞뜰에서 거행된 잔치에는 400여명이 참석했는데, 관직에 따라 서로 다른 관복을 입은 문무백관과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 그리고 창검을 들고 도열해 있는 군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당시 궁중의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화려한 색깔의 당채를 사용하여 그린 전각, 나무, 산수 등과 인물들의 섬세한 표현에서 도화서의 일류급 화원들이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회화사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복식연구와 130년 전의 궁중풍속을 볼 수 있는 기록화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헌종 가례도병(憲宗嘉禮圖屏;보물 제733호/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 동아대학교박물관)

헌종(재위 1834~1849)이 효정왕후와 혼인할 때의 모습을 그린 병풍으로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51cm이며 비단에 채색되었다. 헌종의 첫 왕비인 효현왕후 김씨가 헌종 9년(1843)에 죽고 이듬해 10월 효정왕후와 가례를 올렸는데 이 때 그려진 것으로 모두 8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폭은 예식을 맡아보던 예문제장 조병구가 쓴 축하의 글이 실려 있고 제8폭에는 선전관청에 있는 사람들의 관등·성명·본관 등을 기록한 글이 있다. 그리고 제3~7폭까

지는 혼례를 치르는 장면과 함께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한 궁궐내의 모습이 질서정연하면서도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140여년 전 궁중혼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회화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역사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3) 영의정 하연부부 영정(領議政河演夫婦影貞) 2점(문화재자료 제278호/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103-1)

하연(1376~1453) 선생과 그 부인 성산 이씨의 영정이다. 조선 세종 때 문신으로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선생의 아들 하우명이 선생의 묘소 옆 영당에 영정을 모셔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전한다. 그 후 선조 41년(1608)에 신천서원 안 사당으로 옮겼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지금의 장소에 사당을 옮겨 지으면서 영정도 함께 옮겨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정은 나름대로 영정의 기본을 갖추고 있고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부인의 모습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 기법이나 재료의 질감으로 보아 다시 그려진 것 같으며 그 조성 시기는 130~180여 년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은 선생의 아들 하우명의 영정도 함께 보관되어 있다.

4) 양산 지산리부부상(梁山芝山里夫婦像;문화재자료 제294호/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07-2)

종이에 채색하여 그린 민화풍의 무인부부(武人夫婦) 그림이다. 양산 부부묘 근처 사당에 있던 이 그림은 1958년 태풍으로 인해 사당이 훼손되었을 때 어느 무속인이 수습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후 1970년 경에 이곳 취선재에 보관하게 되었다. 병풍, 반진고리, 경대 등을 배경으로 부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인의 모습은 쪽진 머리를 하고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아주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저고리와 치마 사이의 겨드랑이 밑을 가리개용 허리띠로 조여 매고 있어 매우 독특한 모습이다. 남편은 천에 금속제의 두정(頭頂)을 붙인 붉은 색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모습이다. 두 그림은 부부가 입고 있는 옷의 특징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 후기 회화사 및 여성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다.

2. 무형문화유산

○ 물질문화

전근대시대 여성들은 ‘봉제사 접빈객’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 내 많은 노동에 참여하였다. 기본적인 가사일 외에, 길쌈이나 바느질, 자수 등은 가산을 축적하는 주된 일거리였는데, 그러한 일상적 노동 현장 속에서 당대 사회 여성들은 점차 전문적 기능인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1) 안동포짜기(무형문화재 제1호/기능보유자 배분령/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63)

안동포는 안동지방에서 직조한 울이 고운 삼베(大麻布)이다. 전승에 의하면 안동지방은 고려 중엽에는 명주 산지로 이름났었고, 그 후 말엽에 포(布)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오늘날의 안동포는 삼베개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1920년대 이후에 유명해진 것이다. 대체로 낙동강, 반변천 등 하천을 낀 지역에서 왕성하게 삼베를 생산했는데, 이들 지역은 사질 양토로서 대마생산이 용이하였고, 남부지역에 비해 대마 성숙기에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는 기후적 특징도 작용한 것이다. 이름난 마을은 이미 안동댐에 수몰되었으나, 월곡면 일대를 비롯하여 임하면 금소리, 고곡리, 신덕리, 오대리, 북후면 웅천리, 서후면 저전리, 서미리, 대두서리, 강남동, 송천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개가 동성마을이며 애초에 가족의 의복충당을 위하여 베를 짰던 것이 마침내 가내 공업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길쌈은 여성들의 일로서, 여럿이 모여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삼베 길쌈은 여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삼겹질 벗기기, 삼짜기, 삼삼기, 베날기, 베매기에 이어서 베짜기로 공정이 진행되는데, 안동에서는 둘레삼(두레삼)이라 하여 여성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임한다. 기능보유자 배분령은 임하면 금소리에서 태어나서 모친으로부터 길쌈을 배워 13세 때부터 삼삼기를 하였으며 15세때부터 베틀에 올라 베를 짰다. 16세 때에 같은 마을의 임성섭에게 출가하여 지금까지 길쌈을 하며 살아왔다. 안동포의 특징은 울이 곱고 색깔이 아름다우며 통풍이 잘되고 땀이 나도 몸에 감기지 않는다. 내구성이 강하며 수명도 길어 하절기의 최고급 옷감으로 손꼽힌다.

2) 무명짜기(무형문화재 제16호/기능보유자 백문기/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749-1)

무명은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씨앗을 가져옴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 토속 직물로써 실용적인 춘하추동의 의복재료 및 침구, 기타 생활용품 자료로 가장 많이 이용된 직물이다. 무명의 품질은 승수(升數, 새)로 가늠하는데 보통 일곱새 정도가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서 많이 이용되었다. 열두새, 보름새는 섬세직에 들고, 오늘날에는 열두새가 극상이다. 1필의 길이는 20m(40자), 너비는 32-36cm 정도이다.

보유자 백문기는 칠곡군 약목면 봉산리에서 아버지 백남도(白南島)와 어머니 인동 장씨의 유복녀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7세 때 이 마을 권병운(權丙運)과 결혼하였다. 보통 바느질은 다했으나 마침 다섯 동서가 있어 특히 시모와 큰 동서 조옥이(趙玉伊)에게서 길쌈을 전수받았다. 손재주가 있고 취미가 있어 혼자 몰래 베틀에 앉아 짜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무명, 삼베도 짰는데 명주도 누에치고 짜기가 수월해 시간을 내어 자주 짰 결과 20세경에는 완전히 전수를 마쳤다. 보통 하루에 7자 정도는 짜는데, 작품은 특히 승복, 개량한복용으로 많이 나가고, 한복 치마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무명은 질박하고 무기교하며 소박하고, 또 물레로 실을 뽑으므로 불규칙한 굵기 등에 의하여 표면에 변화가 있어 그 질감과 미감, 미적 특성이 우리 민족의 감각에 합당하여 오랫동안 기계직의 값싼 면포를 압도하고 많이 짜여져

서 사용되었던 옷감이다.

3) 청도 삼베짜기(무형문화재 제24호/보유자 장무주/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628)

삼베짜기가 전승되는 정상리(亭上里)는 청도군의 동쪽에 위치한 구룡산 아래 산간오지 마을이다. 경주 최씨 동성마을로 밭농사와 논농사가 반반이 순수 농촌이다. 이 마을은 예부터 삼베의 명산지로 알려져 왔고, 1960년대만 하더라도 70여 호 중에 30여 호가 길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히 줄어들어 10 여 가구가 겨우 남았으며 현재 삼베짜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며 50대가 극소수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초 삼을 수확하면 마을의 공동삼곳에서 삼을 짜는 것으로부터 삼베일은 시작된다. 이어서 삼겹질 벗기기, 다음에 삼짜기, 삼삼기, 베날기, 베매기, 베틀에서 베짜기의 순서로 과정이 이루어진다.

기능보유자 장무주는 운문면 마일리(雲門面 馬日里)에서 부친 장도식, 모친 김씨의 3남 2녀 중 2녀로 태어나서 이미 14세 때에 명주를 베틀에 얹아 짜기도 했다. 조모와 모친이 베를 짜는 것을 어려서부터 유심히 보고, 또 배우기도 하며 자라서 어른들이 타고났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현재 삼베 6새나 6새 두모를 짜고 베상구(가공)도 직접하며 염색도 하고, 유건이나 도포를 직접 재단하여 만들기도 한다. 젊을 때는 4일 만에 무명 한필을 쉽게 짚으나 현재는 6새 두모 삼베를 짜는데 하루에 7자 정도를 짜고 있다.

4) 명주짜기(무형문화재 제87호/보유자 조옥이/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746)

우리나라의 명주짜기는 이미 삼한시대에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가내수공업으로서 전국의 농촌에서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쳤었다.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속칭 두리실)의 명주짜기는 15세기 중엽 이곳에 터를 잡은 권유검(權有儉)의 부인 여흥민씨가 가족의 의류를 조달할 목적으로 명주를 손수 짚으로써 시작된 것이 역대의 며느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5대에 걸쳐 명주짜기 기예를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조옥이는 용암면

운산리(雲山里)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길쌈은 이미 친정 모친 김씨에게서 다 배운 후 19세에 이곳 권병욱에게 출가하여 왔으므로 시가에서 전수받을 필요가 없었다. 무명일은 삼베가 끝나는 겨울 1, 2, 3월에, 명주일은 4, 5월 누에고치가 나올 때부터 살림사는 틈틈이 길쌈을 해왔다. 처음에는 가족의 의류확보를 위하여 베틀에 앉았으나 사러오는 사람에게는 가용을 위하여 팔기도 하고, 6. 25전에는 직접 짠 무명, 삼베, 명주를 성주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명주짜기는 실이 매끄러워서 실이 잘 끊어지는 무명짜기보다는 수월하다. 농경방법이 발달한 후에는 농약을 피해 집마당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먹여서 고치를 마련하고 있다. 명주 한필은 40자인데 현재는 대체로 하루에 5-6자(尺)를 짠다.

보유자 조옥이는 6. 25전까지는 삼베, 무명, 명주를 다 짰으나, 후로는 50년간 명주만 짜고 있어 국내에서 전통식 방법으로 명주를 짜는 희귀한 존재가 되었다. 명주짜기의 방법은 명주실 잣기, 실뽑기, 베매기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사람 이상 협동하여야 하며 짜기는 실이 가늘고 매끄럽기 때문에 숙련된 기법과 차분한 정성이 필요하다.

5) 누비장(무형문화재 제107호/보유자 김해자/경주시 탑동 637-1)

일반적으로 누비는 옷감의 보강과 보온을 위해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닥종이 등을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팎을 줄지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홈질하여 맞붙인 바느질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누비는 면화 재배 이후 유례 없이 활성화되었는데 기록으로는 상고시대에도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조선시대의 다양한 실물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승려들이 일상복으로 입는 납의(衲衣)는 해진 옷을 수십년 동안 기워입은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점차 누비기법으로 발전하여 일반인 사이에서도 방한과 내구성, 실용성 등의 이점을 따라 전래되어왔다.

보유자 김해자는 경북 김천시 개령면에서 아버지 김상규, 어머니 이정자 사이의 2녀로 출생하여 어려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웠다. 개령중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을 따라 서울 공릉동에 정착하면서 어머니와 함

께 샅바느질을 시작하였고, 이어 복장학원에서 수학교 하였다. 그 후 바느질 명인을 찾아 부산에서도 잠시 살았으며 서울 인사동의 전통한복집 황신엽에게도 사사하였다. 윤황후를 모시던 침방나인 성옥염 할머니, 고종황제의 침방나인이었던 선복스님, 또 조상정 스님 등 솜씨가 뛰어난 분을 찾아다니며 전수를 받고, 곳곳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손누비 공부를 깊이 하였다. 원래 뜻이 있어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 거주하였으나 2001년에 경북 경주시 탑동으로 이주하였다. 손누비 바느질에는 누비정신이 있다고 한다. 걸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깔고 일정한 곶, 일정한 바늘땀으로 비뚤어짐 없는 이 누비보다 수공과 정성이 더 든 옷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비질을 인고봉(忍苦縫), 곧 괴로움을 참는 바느질이라 하기도 한다.

나. 음식문화유산

1) 안동소주(무형문화재 제12호/보유자 조옥화/경북 안동시 신안동 276-6)

안동소주는 안동시 일대의 주민들이 예부터 고아 마시던 가양주(家釀酒)이다. 어느 한 가정에서만 독특하게 양조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웬만히 사는 집이면 다 고아 마시던 대중주(大衆酒)였다. 소주가 처음으로 전래되어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조 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소주라고 하면 개성, 안동, 제주도산이 대명사였는데 그 내력이 몽고족의 내침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것은 원나라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일본 정복을 계획하여 한반도에 진출한 13세기, 그 대본영이 개성이었고 병참기지가 안동이었으며 제주도가 전진기지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가양주로서 전승되어 오던 안동소주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상품화한 것은 1920년 권태연(權台淵)이 공장을 세우면서였다. 이때의 상표가 ‘제비원소주’이다. 그 후 몇사람의 경영으로 바뀌고, 1962년부터 순곡소주가 금지되자 잡곡류(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등)를 사용했는데 특히 서류(薯類, 주로 고구마)로만 양조하기도 하였다. 안동소주는 누룩과 멥쌀이 재료인데, 반드시 목성산(木城山) 줄기에서 나는 물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고두밥

을 누룩가루와 배합하여 탁주를 빚고, 이 전술(酒膠)을 소주고리로 열을 가하면 증류수가 흘러나와 소주가 된다. 안동소주는 45도이다.

기능보유자 조옥화는 안동 서문밖 운안동(구 안동 마고동, 마을골)의 부농가 지주의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서 소주 양조법을 배우고, 출가 후에는 시아버지 봉양을 위하여 수시로 양조해왔다. 여름철에는 약용주로써 공급하고 손님 접대용으로 사철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문경호산춘(湖山春;무형문화재 제18호/보유자 권숙자/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5)

호산춘은 조선초기 방촌(龐村) 황희(黃喜)의 증손 정(琤)이 이곳에 낙남하여 집성촌을 이루며 살면서부터 장수(長水) 황씨 종택에서 전승하여 온 가정주(家釀酒)이다. 황씨들은 가세가 넉넉하여 호산춘을 빚어서 제주용(祭酒用)으로 혹은 접빈객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특히 역대의 중부에 의하여 전승되어왔다. 음력 2월 10일 방촌의 생신일에는 경향각지에서 모이는 자손들이 이 술로 제사를 지낸다. 또 10월 묘사에도 이 술로 제사를 지낸다.

중국에서는 당나라때부터 술이름에 춘(春)자가 쓰였다고 하며 우리문헌에도 한산춘(寒山春), 약산춘(藥山春) 등의 명칭이 보이거나 사라지고 없다. ‘춘’자가 붙은 술은 알콜 도수가 높고, 맛이 담백한 최고급술을 의미한다. 호산춘은 여러 문헌에 호산춘이라 기록되어 있고, 과거 전국 여러곳에 분포한 듯하다. 그러나 이 술은 거의 쇠퇴해버리고 오직 산북 황씨 종가에서만 전승되며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이 곳의 풍광에 어울리게 호산춘이라 하였다. 또 이 술은 신선이 좋아한다 하여 호선주(好仙酒), 술맛에 취해 임무를 잊고 돌아갔다 하여 망주(忘酒)라는 별명이 전한다.

원료는 12분도 일반미 상품의 멥쌀과 최상품의 찹쌀, 밀을 갈아 껍질을 제거한 곡자, 술잎 햇순의 속잎이나 송순(松筍), 그리고 종택의 샘과 옷샘의 물이다. 호산춘은 담황색을 띠며 술잎이 첨가되어 술향이 그윽하고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짜릿한 느낌을 주며, 주도는 18도로서 쌀 1되에 술 1되를 생산한다.

보유자 권숙자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출신으로 19세 때에 21대 증손 황

진하(黃震夏)와 결혼하여 시모 조매순(曹梅順)으로부터 가양주 호산춘 양조의 기법을 배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안동 송화주(松花酒;무형문화재 제20호/보유자 김영한/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1037)

이 술은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의 무실과 정재종택(定齋宗宅)에서 대대로 빚어온 가양주로서 오랜 세월동안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에 사용되어 왔다. 문중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정재 류치명(柳致明) 시대 무렵에는 제주(祭酒)로 써 왔다 하니 술의 역사가 2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송화주는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 정부인 안동장씨[1598-1680] 著)에는 ‘송화쥬’라 제목한 다음에 ‘송화를 따서 말리고 찹쌀 닛말을 백세하고 세말하여 송화 닛되를 물 세말에 많이 달여서 섞어 죽을 쑜워 차지거든 국말 일곱되를 섞어 넣었다가 닛세후에 백미 열말을 백세하여 익게 쪄 송화 한 말을 물 닛말에 많이 달여 섞여 차거든 누룩 서되 섞어 넣었다가 이칠일 후에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송화주는 송엽주(松葉酒)라고도 하는데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에 유전되는 수운잡방(需雲雜方, 김유[1481-1552] 著)에는 송엽주라 이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씌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주(淸酒)는 특히 상층계층에서 많이 소비하였고, 그 양조 방법은 대체로 찹쌀과 곡자로 주모를 만들고, 여기에 찹쌀과 맴쌀로 덧술을 만든다. 약주는 빚을 때나 또 맑은 청주에 초근목피, 과실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만드는데, 이것을 약양주(藥釀酒) 또는 향양주(香釀酒), 가향주(加香酒)라고 했다. 보유자는 애초에 종부인 이숙경(李淑京)이 인정되었는데 그의 사망으로 1999년 4월 차종부인 김영한(金永翰)이 승계하였다. 이숙경은 성주한계에서 출생하여 17세 때에 종손 류광준(柳光俊)에게 출가했다. 송화주는 시조모에게서 직접 양조법을 배우고, 생가 시모(봉화 해저)와 양가시모(안동 계남)를 섬기면서 1년 내내 송화주를 빚어 기제사 12회, 묘사 27회에 제주로 써 써 왔으며 손님맞이에는 필히 이 술을 내어야 했다.

4) 경주 교동법주(무형문화재 제86-3호/보유자 배영신/경주시 교동 69)

이 법주는 경주시 교동에 있는 경주 최씨 종택에서 누대에 걸쳐 빚어오는 가양주(家釀酒)이다. 이 종택은 흔히 최부자집이라고도 하는데 10대에 걸쳐 만석(萬石),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지낸 명문인 만큼 이 법주를 빚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주질을 갖는 청주인 법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술은 종택의 그 많은 제사에 제주로 사용되고 찾아오는 손님들 접대에 사용되었다. 이 법주의 유래는 현 기능보유자인 배영신의 9대조 최국선(崔國璿)이 조선조 숙종(肅宗) 시에 궁중 사옹원(司饔院) 참봉(參奉, 궁궐 안의 음식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으로 있을 때 궁중에서 즐겨마시는 술 양조법을 익혀 여기에 문헌을 참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가양주를 빚어 대대로 전승한 것이라 한다.

배영신은 현 종손인 최종(崔淙)에게 시집와서 시모에게서 이 법주 양조법을 전수받아 50여년 간 빚어왔으니 최국선 이래 대대로 부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이다. 양조용 물은 주택 안에 있는 우물물이며, 주요재료는 우리나라 전래의 토종 찹쌀과 재래종의 통밀로 만든 누룩이다. 일반적인 보통의 누룩은 밀기울만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법주에 사용하는 누룩은 통밀을 곱게 갈아서 채로 치고, 밀가루와 밀기울을 백미 흰죽으로 반죽하여 띄운 독특한 누룩이다. 찹쌀 고두밥과 이 누룩과 물을 배합하여 밑술(주모)을 빚고, 이 밑술에 찹쌀고두밥과 물을 또 배합하여 빚으면 10여일 지나면 발효는 완성된다.

법주빚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인데 온도조절이 가능한 장소이면 연중 계속 양조할 수 있다. 법주의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로운 냄새와 감미에 약간의 산미를 갖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알콜 함량은 대체로 16~18도이다.

○ 의례 및 연행

가. 놀이와 의례

전근대 시대에는 종교와 놀이, 노동과 놀이가 분화되지 않은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많은 부분 종교의례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당대 사회의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경상권 지역에서 여성들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갖가지 의례와 놀이 문화에 마을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고유한 놀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성(무녀)이 주관하는 굿과 같은 무속 의례에서 여성은 사제이자 주된 참여고객으로서 자리하면서 굿의 진행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1) 안동 뚝다리 밟기(무형문화재 제7호/경북 안동시 용상동 1109-4)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 안도시(구 안동읍)의 부녀자들이 각기 지정장소에 모여 허리를 굽혀 열을 짓고, 그 위를 한 소녀를 건너게 하면서 노래 부르며 뚝다리까지 즐기던 여성집단놀이이다. 동부의 부녀자는 마당이 넓은 초당집에 모이고, 서부의 부녀자는 역시 마당이 넓은 잣집에 모여서 논다. 처음에 ‘둥둥데미’가 시작되는데, 모두 합창을 하면서 원을 그리며 돈다. 다음에 실감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실감기노래’가 있다.

하나의 큰 원이 되면 모두 허리를 구부려 인다리를 짓는다. 나머지 부인들은 원밖에 서서 ‘뚝다리 노래’를 부른다. 선창하는 패가 “어느웁에 뚝다리로” 하면 맞은 편에 섰던 뒷소리패가 “청계산에 뚝다릴세”하며 문답창을 한다. 인다리 위를 소녀(공주)가 한두 바퀴 돌게 되면 뚝다리는 시내의 한 길로 나가게 된다. 이른바 줄뚝다리가 되는 것이다. 초당집에서 출발한 동부는 대로를 순유하여 목성교인 서문뚝 다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잣집에서 출발한 서부는 역시 줄뚝다리를 지어서 대로를 순유하고 서문뚝 다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줄뚝다리 행진 구성은 선두에 노래잘하는 선창자 노인 두 사람이 서

고, 후창자들은 공주 뒤쪽에서 시작하여 일렬로 늘어서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리하여 양 낫다리는 목성교에서 만나는데 만나면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하여 동리 큰 길들을 다 돌고, 잿집과 초당집에 되돌아가서 밤늦도록 놀게 된다.

이 놀이는 매년 제때에 반복된다. 이러한 낫다리밟기류의 놀이는 안동읍성 안에도 있었고,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의성읍, 군위군 의흥읍, 영양군 청기면 당리에도 있었으나 일찍이 쇠퇴해버렸다. 예능보유자는 애초에 김남행(金南行)이 인정되었으나 사망하여 김순님이 승계하였는데 그 또한 2000년에 작고하였다.

2) 남해 선구줄끗기(南海仙區줄끗기; 시도무형문화재 제26호/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마을)

선구마을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아랫마을을 남편으로 윗마을을 북편으로 나누어 시작되는 줄끗기는 세시풍속이며 이 지방의 민속놀이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기 며칠 전부터 각 집에서 고를 만들 짚을 모으고 어린이들은 다른 데서 훔쳐오기도 한다. 대보름날이 되면 아랫 당산에서 먼저 당산제를 지낸다. 이것은 반농 반어촌인 선구마을에 한 해 동안 풍농과 풍어를 빌며 해난사고의 방지,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선구줄끗기 역시 완전히 없어졌다. 하지만 선구줄끗기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 마을에 사는 향토문화연구가 김찬중씨의 노력으로 중단된 민속놀이가 재현되었고 현재에는 선구줄끗기보존회에서 계승하면서 벚꽃축제 때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도 한다. 선구 줄끗기는 당산제-어불림-필승고축-고싸움-줄끗기-달집태우기 순서로 진행된다. 선구줄끗기에 사용하는 줄은 1개의 고에 문어발처럼 된 네 가닥의 짚을 줄을 매달아 만든다. 줄끗기 전에 고싸움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기는 편이 숫고가 된다. 숫고가 되면 줄끗기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숫고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싸운다. 암고, 숫고가 결정되면 2개의 고를 빗장으로 연결하여 줄끗기를 시작한다.

이때 여자들은 자기편의 줄을 무겁게 하여 이기려고 바닷가에 있는 몽돌을 치마에 담아 가지고 와서 치마폭에 싣 돌을 줄과 함께 움켜잡고 줄긋기를 했다고 한다. 줄긋기에서 암고가 이기면 풍농, 풍어가 된다고 믿고 있다. 줄긋기가 끝나면 승부에 관계없이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화합을 다짐한다. 선구줄긋기는 제25회 경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1993.10.13)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연하기도 했다.

3) 송선전제례(崇善殿祭禮; 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경남 김해시 동상동 826)

김해에 위치한 송선전은 우리나라 여덟 궁궐의 하나로 가락국의 수로왕과 왕비 허씨의 신주를 안치하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송선전대제는 봄·가을 2회에 걸쳐 음력 3월 15일·9월 15일에 시행하고 있다. 대제는 15일 전부터 준비하며, 15일 전에 의식을 주관할 제관을 정하고, 10일 전에 제사에 쓰일 술을 담고 제복을 살핀다. 7일 전에 제물을 구입하되 값은 깎지 않고 돼지를 예약한다. 5일 전에는 제기를 닦고, 3일 전에 안팎을 청소하며, 하루 전에는 제물에 쓰일 돼지를 잡아 준비한다. 제례는 15일 아침 8시부터 송선전 입구에서 시작한다. 송선전대제는 김해 김씨와 허씨 후손들만의 제례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조상숭배사상과 경로사상 함양의 계기가 되고 있다.

4) 동해안 별신굿(東海岸 別神굿;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보유자

김석출(樂士)·김유선(巫女) 부부/동해안 전역)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의 풍요와 어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을굿으로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서 1년 또는 2~3년마다 열린다. 풍어제, 풍어굿, 골매기당제라고도 한다. 동해안 별신굿은 어느 특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마을 수호신을 모셔 놓은 당이 있어서 여러 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굿은 집안 대대로 굿을 해 온 세습무당이 하며, 부정굿·골매이청좌굿·당맞이굿·화해굿·각택성주굿·천왕굿·심청굿·손님굿·황제굿·부인곤반굿·용왕굿·꽃노래굿·대거리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굿을 하는 시기는

마을마다 다르나 대체로 3~5월, 9~10월 사이에 주로 거행되며 굿칭의 장식이 화려한데 비해 무당들이 입는 의상은 비교적 소박하다. 동해안 별신굿은 굿에서 추는 춤이 다양하고 익살스런 대화와 몸짓 등 오락성이 강하다.

5) 영해 별신(寧海 別神) 굿놀이(무형문화재 제3호/보유자 송동숙/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409)

영해 별신굿이란 영해읍에 사는 세습무당 송동숙이 그 일가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벌이는 별신굿의 가무오신적(歌舞娛神的) 제의(祭儀)를 가리킨다. 이 별신굿은 옛날 부족국가시대에도 있었던 것인데 오랫동안 전승되어 와서 오늘날 동해안 일대에 그 유속이 전하고 있고 일명 풍어제(豐漁祭)라고도 한다. 이 제의는 굿거리의 수가 많고, 장편의 서사가(敍事歌)와 풍부한 소학희(笑謔戲), 그리고 각종 민속가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가무 연희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안위와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별신굿은 자연촌락 단위로 3년 내지 10년 마다 한번씩 개최하는데 경상북도의 동해안은 대체로 예능보유자 송동숙이 일가무당들을 모아 제의 의뢰에 응한다. 제장은 마을에서 가까운 해변 모래사장에 천막을 쳐서 임시 제소(祭所)를 만들고, 무너는 제상 앞에서 강신(降神), 청배(請拜), 축원(祝願) 등을 한다. 굿의 순서는 1> 부정굿 2> 골매기청좌굿 3>당맞이 4> 화해굿 5> 세존굿 6> 조상굿 7> 성주굿 8> 장군굿 9> 천왕굿 10> 심청굿 11> 뉘동이굿 12> 손님굿 13> 계면굿 14> 용왕굿 15> 탈굿 16>거리굿 순으로 베풀어진 다. 보유자 송동숙은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서 굿과 함께 평생을 보내온 사람이다. 현재 그는 처, 딸, 사위 등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굿을 해오고 있다. 그의 특기는 징, 팽과리, 장고, 북 등 악기를 잘 다루는 명수이며 특히 장고솜씨는 신기에 가까울 만큼 훌륭하다. 그리고 거리굿의 각종 연희와 탈굿, 원님놀이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무 장식이나 도구도 없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웃기는 타고난 연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조화술(造花術)에도 매우 능하여 민속 조화의 전통을 소유하고 있다.

6) 한장군놀이(韓將軍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소재지: 경북전역)

한장군놀이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단오날에 행하던 단오굿을 말한다. 자인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이거나 고려 때 왜적이 침범하여 마을사람들을 괴롭히자 한장군이 피를 내어 여자로 변장하고 누이동생과 함께 화려한 꽃관을 쓰고 광대들의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 춤을 구경하려고 왜병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한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왜병을 급습하여 무찌르게 되었다. 그 후부터 한장군의 사당을 짓고 해마다 단오날이면 제사를 지내고 성대한 놀이가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한장군놀이는 제사와 가장행렬 여원무로 이어진다. 옛날에는 전쟁터까지 가서 여원무를 추고 사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시장의 넓은 광장에 모여 한장군 묘를 향해 행렬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가장행렬의 순서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뜻하는 오방기가 맨 앞에 서고 농기·여원화관·무부들·희광이·여장동남·군노·사령·까치사령·포군·영장·기생·중군·익공·통인·일산·도원수·수배 등이 열을 짓는다. 행렬은 묘소를 한 바퀴 돌아 광장으로 내려가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들은 제사를 지낸다.

한 장군 놀이는 여느 민속놀이와 달리 이색적인 가장행렬로 화관의 높이가 3m나 되고, 춤사위도 매우 독특해서 예술적인 가치가 높고,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주민들의 확고한 신앙이 놀이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7)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시도무형문화재 제5호/부산 동래구 안락동

838(충렬사))

충렬사의 제향은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최후를 마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공과 백성들의 영령·의백(儀魄)을 송공사(宋公祠)에 봉안하고 제향을 올린데서 비롯되었다.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봉행하는데 제향을 10여일 앞두고 역대 안락서원장으로 구성된 원회(院會)를 개최하여 제관을 선출한다. 제향 당시의 안락서원장이 초헌관(初獻官)이 되며, 제향의 절차는 『주례(周禮)』와 『예기(禮記)』 등의 예법에 따라 만든 홀기

(笏記 :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것)에 의해 진행된다.

충렬사에 봉안된 신위는 수위(首位)에 동래부사 송상현공, 부산진첨사 정발(鄭撥) 장군, 다대진첨사 윤흥신(尹興信) 장군의 3위가 있고, 배위(配位)에 16위, 종위(從位)에 68위, 그리고 의열각(義烈閣)에 4위 등 모두 91위의 신위가 있다. 나라를 지키다 순절한 영령·의백을 봉안함에 있어서 위로는 부사·군수·첨사를 비롯하여 아래로는 충복(忠僕)·애첩(愛妾)까지도 그 공을 기리어 모신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며, 제향 때 여성(女性) 제관이 참여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또한 1652년(효종 3) 충렬사를 현 위치로 옮긴 이래 동래 유림에서 340여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된 의식으로서, 변함없이 옛 법식대로 모셔지고 있는 것 또한 이 제향의 특징이다.

8) 예천통명농요(醴泉通明農謠;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경북전역)

예천 통명농요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의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를 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르는 농요이며 조선 중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심기할 때 부르는 <아부레이수나>와 모를 다 심고 논에서 나오면서 부르는 <도움소소리>, 논을 맴 때 부르는 <애벌매기소리>와 <상사되여>, 그리고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방애소리>·<에이용소리>, 또 논매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봉헤이>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부녀자들이 부르는 <삼삼기노래>·<베틀노래>·<도해따기> 등이 있다.

모심기소리나 논매기소리가 모두 느리고, 길게 빼는 음을 많이 쓰고, 노래를 메기고 받을 때에 앞소리의 끝과 뒷소리의 앞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불러 이중창적인 효과를 내는 점은 예천 통명농요의 특징이다. 예천 통명농요는 전원다운 맛과 소박한 멋이 있고 곡과 가사의 내용이 향토적인 농요이다.

9)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시도무형문화재 제2호/부산 수영구 수영동 229-1)

수영에서는 ‘농청’이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농민들의 기술향상과 협동심

을 높여 생산증진을 도모하였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농청의 풍습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농요도 사라지게 되자 농청원들이 농악을 치고 농요를 부르며 농사짓는 과정을 놀이화하였다.

수영농청놀이는 집합신호에 의해 모인 농청원들이 농기, 농악대, 소, 농부들, 부인들 순으로 정렬하면 남녀 두 사람이 차례로 풀노래를 부르고, 일동은 농악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일터로 상징되는 놀이마당으로 들어간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 맞추어 가래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 도리깨타작소리 순으로 모심기가 끝나면 남자 농청원들이 논매기를 한 뒤 동·서로 나누어 소싸움을 붙이고, 칭칭소리를 하며 한바탕 놀다가 퇴장한다. 도시화된 수영에서 농청원들이 부르던 농요를 중심으로 작업을 재현하여 연극화한 것은 부산지방의 민요를 계승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농청의 공동작업에 깃든 조상들의 합동, 단결, 근면 등의 정신적 유산을 전승한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10) 영산(靈山)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경남전역)

줄다리기는 마을을 동·서로 갈라 두패로 편을 짜서 노는 편싸움으로, 동서 양편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상징되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서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전한다. 줄다리기는 줄쌈이라고도 하며 영산지방에서는 ‘줄땡기기’ 또는 한자어로 ‘갈전(葛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산의 칩닝쿨보다 길게 줄을 만들어 당겼다는 옛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줄다리기는 주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중부 이남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농경의식의 하나로 보고 있다. 현재는 3·1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줄다리를 하고 있다. 줄의 길이는 40~50m이며 몸줄의 지름이 1m가 넘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줄을 타고 앉으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줄이 커서 손으로 잡아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중간 중간에 가늘게 만든 곁줄(벗줄)을 여러 개 매달아 잡아당기기 좋도록 만든다. 끝에는 쑥지줄이라 해서 가는 줄을 10개 정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도록 한다. 동·서 양편의 줄을 제각기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는 당일에 연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아당겨도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비너목이라 부르는 큰 나무토막을 꽂아둔다. 줄 위에 올라선 대장이 지휘를 하면 줄다리가 시작되고, 각 마을의 농악대는 빠른 장단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영산줄다리기는 현대에 이르러서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 용사(龍蛇:용과 뱀)신앙에 바탕을 둔 농경의례놀이로 암줄과 숫줄의 모의 성행위를 통해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민속놀이이며, 온 마을이 참여하는 향토축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

11) 의령큰줄댕기기(시도무형문화재 제20호/경남 의령군)

줄다리기는 줄쌈이라고도 하는 일종의 편싸움 놀이이다.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중부 이남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는데 농경의식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다.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두패로 편을 짜는데 동서 양편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상징되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으로 상징되는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생각한다. 의령 큰줄댕기기는 1800년경부터 시작하여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민속놀이로 온 마을이 참여하는 축제로 정착되었다. 의령 큰줄댕기기는 1800년경부터 시작하여 약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 타고장에서 보기 어려운 전통민속놀이로서 정착되어 1910년까지 연례행사로 음력 정월대보름날 전 군민이 참여하여 치러오다 일제강점기와 6.25때 일시 중단되었으나, 1972년부터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큰 줄로서 보존 전승가치가 매우 높은 민속놀이이다.

12) 거창삼베일소리(시도 무형문화재 제17호/기능보유자 이말주/경남 거창군 송정리 230)

삼발매는 일에서 베짜기까지의 거창지방 삼베 길쌈 일노래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예로부터 내려온 삼베의 고장으로 지금도 북상면 창선리와 갈계리, 가북면 용산리에서는 삼을 재배하여 삼베를 생산한다. 삼 씨앗을 뿌려 베를

짜기까지의 과정을 소리를 엮었다. 거창 삼베일소리는 ① 삼발매는 소리 ② 삼잎치는 소리 ③ 삼꽃소리(삼잎을 치고 나면 삼대를 베어다가 자갈삼꽃 또는 드럼통이나 가마솥으로 만든 개삼꽃에 넣고 삼대를 삶는다) ④ 삼삼는 소리 ⑤ 물레소리 ⑥ 베나르기 소리(삼실에 잣물을 먹인 다음, 다시 풀어 내어 날을 고르는 작업 때의 소리) ⑦ 베매는 소리(베틀의 날줄에 끼워 도투마리에 감아 올리는 일소리) ⑧ 베짜는 소리로 엮어진다.

1993년도 제34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요 부문 최고상을 획득하였다. 노래가사는 작업에 관한 것, 사랑·시집살이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1과 4는 경상도 모노래 곡풍이며 2와 5~8은 창부타령 곡풍이다. 3의 가사는 “임금아들 이도룡은 천령산 처녀보고 원질넘는 담을 넘다 자주고름 자천령을 한주름을 짜였구나. 범같은 우리 선생, 하늘같은 우리 부모, 무슨 영이 내릴란지. 도화꽃이 하도좋아 꽃을 꺾다 찢다 하소. 그리하여 아니되면 새벽날 밝은 날에 이내 방으로 찾아오면 무명지 당사실로 본살같이 새기주마. 새기기야 새길망정 본살같이 셋길소냐”인데, 어산영 곡풍이 들어 있다.

나. 행위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예술 활동을 말한다. 경상권 지역의 행위 예술에서 특히 경주 및 진주 지역의 음악 및 무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예부터 지방색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예술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교방(진주 관기)의 전통이 지금까지 전승되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 판소리 명창- 김록주

김록주(金綠珠) [1896년- 1923년]는 1896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서, 1900년대 초 여류 명창 배설향, 김추월, 이화중선과 더불어 활동하면서 기량 면에서 그들을 뛰어넘었던 명창이다. 김록주는 12세 때 김정문에게 소리공부를 하였으며, 1918년 송만갑 협률사가 김해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장판개 명창의 주선으로 협률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록주의 그때 나이 22세였고 지방

을 순회공연하면서, 대명창들의 창제와 더늠, 표현동작의 실재를 건문하여 날이 갈수록 김록주의 기량은 완숙하면서 그 인기는 대단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김록주는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대목이 특징이었고, 남도민요인 육자백이는 출중하게 잘 불렀다고 한다. 재물보다도 예도완성에 일생을 전념하였던 김록주는 신병으로 1923년 27세의 한창 시절에 요절하였다.

2) 판소리 명창- 김초향

김초향은 대구 출신으로서 1900년에 태어나 일제 시대 활동한 여류명창이다. 어려서 가선 박기홍을 사사하여 소리공부를 하였는데, 일찍 모친을 여원 불우한 환경 속에서 김초향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서울로 올라온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기회에 광무대 극장에서 일을 보게 되었고,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게 된다. 적은 월급 속에서도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그것이 목돈이 되면 대구 부친에게 송금하여 생활을 도왔다. 그러나 부친마저 병사하고 가장이 된 김초향은 소리에 타고난 재질을 열심히 연마하였으며, 송만갑, 정정열에게 판소리를 사사받는다. 결국 무대에서 주인공역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였는데, 20세에 대구에서 남녀명창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당시 여류 명창으로 일세를 풍미한 김록주와 같이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김초향이 여류 명창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동기가 된다. 당시, 이화중선과 더불어 여류 창악계의 쌍벽으로 평가되었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 일원으로 활약하였는데 김초향의 장기는 홍보가이며 그녀의 특징이 담긴 음반이 전하고 있다.

3) 가야금 병창(무형문화재 제19호/보유자 장순애(張順愛, 예명 月中仙)/경주시 인왕동 674-11)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타면서 거기에 맞추어 스스로 노래하는 곡목이다. 곡은 대개 판소리 중 한 대목을 따다가 가야금 반주에 얹어 부르는데 주로 석화제로 되어있다. 사람의 소리와 악기의 소리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조화

를 잘 이루어서 새로운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 온 것이 가야금병창이다. 예능 보유자 장순애(張順愛, 예명 月中仙)는 판소리 다섯마당을 휘젓는 여류명창으로 춤도 명무(名舞)로 알려진 명창, 명무, 명인이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에서 태어나 부친 장도순(張道淳)에게서 소리공부를 시작하였고, 7세때에 당대의 명창인 백부 장관개(張判介)에게서 단가 ‘전국명산’을 배웠으며, 홍보가, 춘향가, 김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을 배웠다. 그후 백모 배설향(裴雪香)에게서도 소리공부를 했으며 고모인 장수향(張秀香)에게서 가야금 병창과 거문고, 승무, 살풀이춤, 검무, 화무, 승전무, 태평무, 나비춤, 바라춤 등을 배웠다. 장순애는 전남 곡성에서 이러한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나서 광주, 순창에서 수업기를 보내고, 활동은 목포와 경주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며 공연활동을 해왔다. 판소리는 서편제인데 박유전제인 박동실을 이었고, 가야금산조는 김창조계인 김윤덕에게서 전수받았다. 가야금병창은 김창조 계통의 오탈석에게서 전수를 받았다.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나 가야금 산조를 전공하지 않고는 소리나 기교면을 연주할 수가 없는데 장순애는 판소리도 뛰어나게 잘하고 가야금산조도 잘하기 때문에 가야금병창을 원숙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창(唱)과 가야금 반주의 선율, 장단, 표현력 등 모든 기교가 훌륭하였으나 애석하게도 1998년 2월 작고하였다. 보유종목은 심청가 중 상여나가는 대목과 황성가는 대목, 죽장망해, 호남가, 운담풍경, 만고강산, 공도란이, 전국명산, 기타이다.

4) 판소리(홍보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보유자 박록주(1979년 5월 26일 사망해제))

경북 선산 출신 박록주(1905~1979)는 동편제 창법의 국보적인 존재로서 홍보가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여류 명창이다. 경상도 사투리를 고집한 동편제의 거목 박록주는 12세 되던 1916년, 소리에서 신선의 경지 즉 가신(歌神)으로 불린 대단한 명창 박기홍의 문하에 들어가 두 달 만에 춘향가 전 바탕과 심청가 일부를 익혔다. 14세 때 김창환으로부터 전수 받은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는 그가 가장 애창하던 대목이다. 아버지의 손에 끌려

달성공원 앞 달성 권번에 들어가 기생수업을 받은 박녹주는 행수기생 앵모(국채보상운동에서 거금을 낸 기생 앵무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치 않음)의 양딸로 들어가 소리, 춤, 시조에서 두각을 드러내, 대구의 김초향 다음가는 소녀명창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18세 되던 1922년 서울로 올라온 박녹주는 송만갑에게 단가‘진국명산’과 춘향가 중‘사랑가’에서‘십장가’까지 배웠고, 1928년에는 조선극장에서 열린 팔도명창대회가 끝나고 찾아온 전 부통령 김성수의 부친 김경중과 소설가 김유정 두 사람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김경중은 박녹주가 1929년 송만갑의 수제자인 김정문에게‘홍보가’의‘제비 후리러 나가는데’까지 배울 수 있도록 주선, 오늘날까지 동편제 홍보가가 온전히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녹주의 홍보가는 김소희를 통해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 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녹주는 1935년도의 춘향극 공연(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정정렬 연출)에서 이동백(운봉 영장 역), 송만갑(곡성 원님 역), 김창룡(변사또 역), 정남희(이도령 역), 오태석(방자 역)과 함께 춘향 역을 맡아 열연함으로써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소리로 전국을 누빈 박녹주는 40년대 후반에 국악계가 남창 위주로 운영되자 김소희, 박귀희 등을 이끌며 여성국악동호회를 창립하였으며, 여류 국창으로 군림했다. 국립국악원을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 가야금 병창(중요 무형 문화재 제23호/가야금 병창 기능보유자

박귀희(1921~1993년 7월 14일))

박귀희는 1921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하였고, 1993년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과 이별을 고할 때까지 우리 근현대 국악사에 빠지지 않는 국악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원래는 인동 장씨로 대구 지역의 대표 명문인 장택상 가문의 출신이기도 한 박귀희는 술도가를 운영했던 칠곡 지방의 갑부 장병관과 박금영 사이 서출로 태어나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유아기에는 장씨 가문이 상주 하던 칠곡에서 자라나,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했으며 대구로 옮겨온 박귀희는 봉산동의 외가에서 기숙하며 보통학교를 다녔다.

그녀의 국악 인생은 대구 보통학교 시절인 열네 살 때, 학교 부근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손광재의 눈에 들어 시작된다. 그녀가 보통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설적인 여류명창 이화중선이 이끄는 대동가극단이 대구 공연차 손광재의 국악 교습소를 방문했을 때 이화중선의 눈에 띄어 대구극장에서 데뷔 무대를 가지고 대동가극단에 합류하여 전국을 순회하게 된다. 가극단 생활을 일년 정도하고 난 다음해, 명창 조화진을 찾아가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웠고, 열아홉 살에는 선배인 김소희와 함께 월북한 전설적인 소리꾼 박동실을 찾아가 ‘홍보가’와 ‘심청가’를 배웠다.

그녀가 가야금과 인연을 맺은 것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인 열다섯 살 무렵이다.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명인인 강태홍에게 사사 받았고, 열아홉 살에 이르러 가야금 병창의 명인인 오태석을 만나 삼 년여 동안 가야금 병창을 배우게 되는데, 이후 가야금 병창으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다. 젊은 시절, 박귀희는 가야금 병창보다 소리꾼으로서 명성을 얻고 싶어 일제시대를 전후해서 여성 국극의 효시인 ‘여성 국악동우회’의 대표로 활동했다. 1945년 그녀는 절친했던 김소희 등 몇몇 국악인들과 함께 국악전문학원(오늘날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전신)을 세워 국악계의 요람으로 키웠다.

6) 진주 포구락(晉州 抛毬樂; 시도무형문화재 제12호/보유자 정금순/경남 진주시 이현동 28-42)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교방에서 추어지던 일종의 놀이춤이다. 채구(용알·공)를 구문의 풍류안(風流眼)에 던져 넣은 놀이를 음악과 무용으로 형상화한 궁중가무의 하나이다. 이 춤의 내력은 고종때 진주부사를 지낸 정현석(鄭顯奭)의 교방가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궁중문화가 지역화된 춤이다. 궁중가무가 지방교방으로 내려오면서 의상·도구·절차 등에서 변화한 것으로 점차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진주 지역의 특색 있는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이 춤의 구성과 내용은 중앙에 포구문을 중심으로 축의 편싸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에 따른 갖가지 모양의 춤을 즉 두편이 갈라서 추어지는데 좌·우 순서로 한쌍씩 차례로 마주서서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

며 춤을 추다가 오른손에 갖고 있는 채구를 던져서 풍류 안에다 넣으면 지화자를 부르고 명중시킨 사람이 나아가 앉으면 봉화(奉花)가 삼지화(三枝花)를 머리에 꽂아준다. 만약 넣지 못하면 봉필(奉筆)은 벌로 얼굴에다 먹점을 그린다. 차례대로 공을 던져 승부를 결정하고 나면 전원이 포구문을 돌면서 지화자를 부르고 자리로 되돌아간다. 창자(唱者)가 나와 선비가 부르면 무용수들은 춤을 추며 후렴을 받는다. 전원이 수장창(收場唱)을 부르며 퇴장한다.

장단은 주로 염불도드리, 타령에 의해 진행되고 악사는 7명(박 1, 대금 1, 피리 2, 해금 1, 북 1, 장고 1)과 창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춤의 예능보유자인 정금순(鄭今順), 후보 김행자(金幸子)의 봉필 박설자(朴雪子)의 창(唱)제씨가 중심이 되어 회원 60여 명과 함께 전승되어오고 있다.

7) 진주교방(晉州敎坊) 굿거리춤(시도무형문화재 제21호/보유자 김수악/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2차 207-207)

진주 지방의 교방에서 추어지던 춤으로, 다른 말로 기방굿거리, · 굿거리춤, · 수건춤, · 입춤으로 불리어진다. 이 춤은 주로 3분박 4박자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고려 문종 때 들어와 고려, 조선조를 통하여 1900년대 이후 승무와 더불어 여기들에 의해 교방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어져 왔다. 궁중의 각종 연회에서 중요한 레파토리로 가장 많이 상연되어져 왔으며 9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문화재적인 놀이춤의 하나이다.

춤의 발단은 조선조의 몰락으로 관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궁중 여기들이 기녀조합을 결성하여 그곳에서 가(歌)·무(舞)·악(樂)으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한편 무속의 금기령에 의해 무당이 사찰과 관기로 분화되면서 일부 무무(巫舞)가 기방으로 이입된 것이 발단의 시초이다.

이 춤의 보유자인 김수악(金壽岳)은 1930년대 전통무용으로 승화시킨 한성준과 1940년대 이 춤을 지도했던 고종시 궁중무희였던 최완자 그밖에도 김옥민·김녹주 등에 의해 사사받아 전승 보존되어져 오고 있다. 이 춤은 당대 명기들로 하여금 판소리와 함께 진행·연출하였으며 춤사위의 이름도 대삼, ·소삼, ·잉어걸이, ·완자걸이 등 음악의 창법이나 가락의 호칭과 혼합하

여 쓰고 있다. 이 굿거리춤은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추어 보여주는 춤으로 정립되어져 춤의 성격은 차분하면서 끈끈하여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대로서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8) 동래고무(東萊鼓舞; 시도무형문화재 제10호/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3-3)

동래고무는 부산시 동래구에 전승되는 북춤이다. 고려 전기 궁중악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의 기생들에 의해 추어졌으나, 조선시대 때 동래감영의 교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동래고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 때 귀양살이를 하던 이혼이라는 양반이 바다에 떠내려오는 뗏목으로 북을 만든 것이 북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동래고무는 중앙에 큰 북을 놓고 4명의 무용수가 영산회상곡인 잔영산, 염불도드리, 타령군악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 다른 4명의 무용수가 지화자를 노래하면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춤사위에는 머리사위·부림사위·맞춤사위·옆실이·평사위·팔수사위·상대무·북춤사위·팔자사위·인사태 등이 있다.

춤사위는 궁중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면서 단아한 편이고, 춤의 구성은 단조로우면서도 변화가 있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동래고무는 궁중의 정재(呈才)도 아니고 순수민속춤도 아닌 중간 장르의 춤으로서 교방무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현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9) 진주검무(晋州劍舞;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보유자 이윤례(예명 남전),

김수악(호명 순녀), 이음전(예명 녹주), 최예분(예명 유아), 성계옥/경남전역)

진주검무는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여성검무로서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며 대궐안 잔치 때 행하던 춤의 하나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었다는 설과 논개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기생들이 칼춤을 춘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진주검무는 도드리장단, 느린타령, 빠른타령에 맞추어 조선시대 무사복을 갖춘 8명의 무용수가 2줄로 마주보고 서서 양손에 색동천을 끼고 칼을 휘저으며 춘다. 춤사위의 종류로는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 도는 숙은사위, 앉아서 추는 앉은사위, 허리를 앞으로 옆챌다가 뒤로 제치며 빙빙 도는 연풍대가락, 맨손으로 팔을 펴는 손사위 등으로 다양하며 독특하다. 반주악기로는 피리, 저, 해금, 장구, 북 등이 쓰인다.

현재의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현재의 시청)에 속해 있던 교방청(敎坊廳:일종의 기생학교) 기녀들의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궁중 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검무는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열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10) 승전무(勝戰舞;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보유자 정순남(북춤), 박복률(피리), 이치조(대금), 이기숙(원양반)/경남전역)

승전무는 경남 통영(충무)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으로, 궁중에서는 ‘무고(북춤)’라 하여 기녀와 춤을 추는 사내아이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충무공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는 축하의 의미로 추게 하였다. 본래 통영지방의 잔치에서 행하던 무고, 검무(칼춤) 등의 모든 춤이 군대가 있던 곳에서 추던 것이라는 뜻으로 승전무라 하였는데, 이 가운데 1968년에 ‘무고’만이 승전무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에 검무를 추가하였다.

승전무는 활옷을 입고 양손에는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북을 울리며 창(唱)을 하고 춤을 춘다. 흠어졌다 모여드는 형태는 삼진삼퇴를 뜻하며 전체가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영산회상'가운데 삼현도드리와 타령을 반주음악으로 쓰며, 춤가락은 순박하면서 예스럽고 독특한 향토적 특색을 갖고 있다. 검무의 의상은 홍치마에 흰저고리, 흑쾌자, 전립, 홍띠, 색동한삼 등을 갖추며 무구로 1쌍의 칼을 든다.

참고자료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문화재> 4-1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7~.
- <문화재대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1998.
- <문화재대관>1-5, 경상북도, 2003.
-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 경상북도·경상남도 도청 및 각 군·시청 홈페이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IV



전라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445
2. 무형문화유산	470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비 - 박화성문학기념관 - 이난영의 노래비 - 윤형숙의사 묘 - 절열양정씨지려 - 팔열부정각 - 영광정려각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40호</p>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1호 전라남도기념물 제8호 전라남도기념물 제22호</p>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홍기웅가옥 - 영암 최성호가옥 외 	<p>중요민속자료 제151호 중요민속자료 제164호</p>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제사공장 - 종연방직 전남공장 	
		여성 교육 ·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비 - 백청단 은지환 사건 현장 수피아여학교 - 목포정명여중 구 선교사 사택 - 광주이일학교 터 - 광주 YWCA 	<p>광주시기념물 제26호</p> <p>등록문화재 제62호</p>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어머니 산성 - 삼별초 궁녀덤벙 - 진도 신비의 바닷길, 뽕할머니이야기 	<p>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70호 향토유형유산 제4호 국가지정명승 제9호</p>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정유재란열부순절지 - 나주 불회사 석장생 - 나주 운흥사 석장생 - 남원 서천리 당산 - 돌모산 당산 - 아차동 미륵할머니 보호각 	<p>전라남도기념물 제23호 중요민속자료 제11호 중요민속자료 제12호 중요민속자료 제20호 전라북도민속자료 제19호</p>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홍임씨 철릭 -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중요민속자료 제112호 중요민속자료 제115호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81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여성의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씨부인 권선문첩 	보물 제728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샛골나이 - 곡성 돌실나이 - 침선, 침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2호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의례음식장 - 진도홍주 - 해남 진양주 - 향토술 송순주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7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5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6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 나주 삼색유산놀이 - 진도 씻김굿 - 강진 선돌감기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영 부녀농요 - 고흥 한적들노래 - 장산도 들노래 - 남도 들노래 - 남도잡가 - 남도판소리 - 남도창 동편제 - 판소리 춘향가 외 - 소리춤꾼 안채봉 - 1인 창무극, 공옥진 - 가극 ‘열세집’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0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4호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호 광주시무형문화재 제9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1) 수열비(樹烈碑;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40호/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20)

전북 장수군 계남면 소재지에서 수열마을로 가다보면 마을 입구에 열녀 해주오씨를 기리는 비각이 서 있다. 정면, 측면 모두 한 칸으로 된 비각 안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전면에는 ‘수열평’, 후면에는 ‘세임진위양사순처해주오씨열행립’이라 음각되어 있다.

조선 선조 30년 정유재란(1597) 때 양사순(梁思舜)의 집에 왜병이 침입하여 방에서 베를 짜고 있는 양씨의 처 해주오씨를 희롱하며 가슴을 만지자 격분한 오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더러운 왜병들이 만진 자신의 가슴을 식칼로 잘라내어 왜병에게 던지면서 ‘더러운 놈들이 만진 이 유방을 가지고 가라’며 고함을 쳐 왜병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낸 뒤 자신은 자결했다고 한다.

오씨부인의 이 같은 행동은 마을에 열녀의 기상을 심었다 하여 마을 이름도 수열(樹烈)이라 고쳤으며 나라에서 비를 세워주었다. 비문은 조선 선조 임금의 손자인 낭선군(郎善君) 우가 쓴 것으로 전해져 오씨부인의 행적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심이나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 박화성 문학기념관(전남 목포시 대의동, 목포문화원 내)

소설가 박화성(1904~1988)의 생전 육필원고, 저작물, 고본과 생활용품 등이 박화성 문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소설가 개인 문예관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이며, 그것도 여성이라는 점에 더 의미가 실려진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관에 보관된 유물 1,802점은 박화성 생전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사적 제289호인 목포문화원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후세대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박

화성 문학기념관은 고인이 타계한 뒤 고향사람들과 문인들이 뜻을 모아 1991년 1월 목포향토문화관에 마련했었는데, 1995년 3월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

문학기념관 입구에서 박화성의 초상화가 우선 관람객을 반긴다.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던 그의 생활을 말해주듯 혼수상태로 자리에 눕기 직전까지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 놓은 생전의 일기장도 전시되어 있다. 문인들의 열띤 토론장으로 이용됐던 그의 서재 ‘세한루’를 재현해 놓은 것을 비롯해 친필원고, 손때 묻은 메모수첩도 있다.

박화성은 목포시 죽동에서 태어나 목포 정명여학교, 숙명여고보를 나와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를 수료한 뒤 귀국하여 1925년 공장 여공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추석전야’를 조선문단에 발표하여 등단했다. 여성의 눈으로 초기에는 주로 가난한 농민들의 고된 삶을 다룬 사회성 강한 소설을 썼으며 1940년경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이 노골화되자 절필하고 낙향하여 후배양성에 전념하기도 했다. 농민의 삶은 물론 민족애에 집착한 현실문제를 깊이있게 파헤친 작가로 평가받았던 박화성의 문학세계를 이 문학기념관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생전에 ‘○○○여사’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했다는 박화성은 아직 여성의 목소리가, 지위가 전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절인 1969년 펜클럽 세미나에서 ‘작가의 사회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여류작가론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도 여류라는 관사가 여성에게는 남성작가와 나란히 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⁸⁶⁾ 그 시대에 이미 양성평등사회론을 내세운 박화성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3) 이난영의 노래비(목포 유달산 공원, 전남 목포시 죽교동)

1969년 국내 처음으로 대중가요를 기리는 노래비가 목포 유달산에 세워졌다. 대중가수 이난영(1916~1965·본명李玉禮)은 갔지만, ‘목포의 눈물’이 우리 곁에 남아 가수 이난영의 눈물, 아니 목포 시민의 눈물로 흐르고 있다고

86) 전남일보(현재 광주일보) 1969년 3월16일자 5면 기사 참조.

할까.

일제시대를 살던 세대에게 민족의 슬픔을 달래주었던 유행가 ‘목포의 눈물’은 지금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방에서도,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시공(時空)을 넘어 민족의, 국민의 노래가 된 것이다. 한 세기를 바뀌어도 우리네 정서를 건드리는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은 이난영의 비음 섞인 애절한 음색이 아니었어도 대중을 자극했을까. 한많은 식민지 백성의 가슴을 적셔놓은 것은 그 만의 음색에 실린 엘레지 가락이었기에 목포의 눈물이 민족의 눈물로 바뀌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

가수 이난영의 목소리를 두고 ‘가난이 부여해준 선물’이라고 흔히 평한다. 1916년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태어난 그는 낄팍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 4년 중퇴로 학업을 중단한 것이 가수의 길로 성공한 계기가 된다.

일제치하에서 암울했던 현실이 암시적으로 표현된 가사의 맛, 목포출신 가수로 자신의 향수와 비애를 담아 불러낸 노래 맛이 어우러졌기에 성공한 가요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다. 그래서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은 우리에게 ‘하나’로 묶여져서 각인된다. 단숨에 전국을 휩쓸면서 오늘까지 겨레의 노래로 불리우고, 이난영은 18세의 나이에 노래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이제 이난영은 가고, ‘목포의 눈물’은 목포 유달산 중턱에 노래비로 남아있다. 1968년 6월 목포중앙극장에서 가수 이난영 노래부르기대회가 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매년 6월이면 목포에서는 난영가요제를 개최해 이난영의 노래를, 삶을 기리고 있다. 북한동포들도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는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난영의 소리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91년 7월27일 호남산 ‘통일쌀’ 5천톤이 처음으로 목포항을 떠나 북한 나진항으로 향할 때 항구에는 ‘목포의 눈물’이 이난영의 목소리에 실려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난영-목포의 눈물’이 맺어내는 독특한 생명력을 확인시켜준 장면이었고, 그 소리와 노래는 대중가요 그 이상의 의미로 오늘도 온 국민의 가슴 속을 파고든다.

4) 윤형숙 의사 묘(전남 여천군 소라면 관기리 산 80번지)

전남 여수지방에서는 윤형숙(1898~1950)을 애국의사라 칭한다. 윤형숙의 고향마을이 바라다보이는 전남 여천군 소라면 관기리에는 그의 묘소가 자리 잡고 그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있다.

1919년 서울에서 3·1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었다. 이때 윤형숙은 시위대열의 맨 앞에 있었다. 일본 군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군중의 맨 앞에 서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윤형숙의 왼팔을 일본 헌병이 군도(軍刀)로 내리쳤다. 그 자리에서 그는 쓰러졌지만 땅에 떨어져있는 태극기를 다시 오른팔로 잡고 일어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군중들은 비분강개하여 더 맹렬히 항일운동을 펼쳤고 광주만세운동이 호남의 전지역으로 확산되게 한 신호탄이 되었으며 일본 군경에 대한 여성의 절의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윤형숙은 1898년 여천군 화양면 창무리에서 윤치운의 3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나 순천 매산학교를 거쳐 광주수피아여고에 재학 중이던 시절 3·1만세사건을 만난 것이다.

당연히 일본 헌병에게 붙들려 간 그는 광주형무소에서 4년의 옥고를 치르는데 이때 심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하여 불구의 몸이 되어 석방됐다. 이후 원산 마루다신학교에 입학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 여수로 내려와 여수제일교회와 중앙교회 전도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여수를 점령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사란 이유로 내무서원에게 잡혀 투옥되었다가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1950년 9월28일 여수시 둔덕동 과수원(현재 정수장 자리)에서 인민군의 총칼에 맞아 순교했다. 가까운 친척과 기독교인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소라면 관기리에 묘소를 만들고 비를 세운 것이다. 여수지방 사람들은 윤형숙의 행적을 두고 ‘나라의 독립 염원을 몸으로 실천한 의사(義士) 중 의사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애국지사로 추앙하거나 받들어 모신 곳이 없음’을 아쉬워 한다.

5) 절열양정씨지려(節烈兩丁氏之間;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1호/전북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429)

조선 중기 문신 정황(丁煌 · 1512~1560)의 후손이었던 정씨부인 두 여성이 절개와 지조를 지켜 살았던 행적을 기려 세운 정려각이다. 한 사람은 정유재란(1597) 때 왜적에게 봉변을 당하고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고,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뒤를 따라간 지조를 지켰다고 한다. 당시 열녀, 열부로서 그러한 의식이나 행동은 당연한 삶이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한 가문 안에서 두 자매가 자신의 길을 깨끗하고 일관되게 정절을 지켜내며 살았던 모습에 다른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이 정려각은 조선 경종 3년(1723)에 세우고 순조 19년(1819)에 고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면과 측면이 각 한 칸씩으로 되어 있지만 정면이 더 넓은 편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조선 후기의 뛰어난 건축 솜씨가 담긴 건축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6) 팔열부정각(八烈婦旌閣; 전라남도기념물 제8호/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이 정각은 여덟명의 열부(烈婦)를 추모하여 배향한 곳이다. 여덟명의 열부는 정함일의 부인 이씨, 정경득의 부인 박씨, 정희득의 부인 이씨, 정함일의 딸 정씨, 정운길의 부인 오씨, 정주일의 부인 이씨, 정절의 부인 김씨, 정호인의 부인 이씨 등이다. 이들은 정유재란 때 부군들이 왜군의 흉탄에 맞아 영광 삼서(현재 장성 삼서)에서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영광 칠산 앞바다까지 피난하던 중 왜군의 추격을 받고 투신자살함으로써 정절을 지킨 아낙들이다.

이들 여덟 열녀들이 지고한 정절을 지켜 순절한 것을 기리기 위해 숙종 7년(1681)에 이곳 함평에 정각을 세웠고, 순절지인 묵방포에는 순절비가 세워져 있다.⁸⁷⁾

87) 순절비에 관한 자료는 뒤 절에 이어지는 ‘기타여성관련 유적지’편, 영광정유재란열부 순절지에 수록한다.

7) 영광정려각(전라남도기념물 제22호/전남 영광군 대아면 원흥리)

앞의 칠산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여인들은(팔열부정각) 원래 동래정씨, 진주정씨 문중의 모두 아홉명이었다. 그러나 숙종 7년에 이들이 정절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각을 건립할 때 후손들의 의견 차이로 여덟 부인만 함평에 세우고, 정등의 부인 밀양박씨는 친가인 영광군 염산면 축동리에 따로 정각을 건립하게 됐다. 그러다가 6·25동란 때 그 유적이 손실되어 다시 후손들이 1960년 현 위치에 석정(石旌)으로 중건했다.

<참고: 정려각>

이밖에도 열녀, 열부, 효부로서 여성들을 기리는 유적은 많지만 그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려각을 덧붙인다.

- 광산김씨 열부각(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작동 소재)
- 여산송씨 열녀각(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소재)
- 현풍곽씨 열녀각(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소재)
- 언양김씨 삼강정려(전북 정읍시 용계동 소재 ·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69호)

나. 여성생활유적지

■ 집터나 가옥 등에서의 여성 공간⁸⁸⁾

집터나 가옥 등에서 독립된 여성생활 유적지를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가옥 구조상 큰방, 작은방을 여성이, 즉 안주인이나 딸이 사용했던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여성생활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료에서 보면 큰방(內房)이란 조선시대 중류이상의 주택에서 안주인의 생활공간이었다. 내외관념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남자주인은 주로 사랑채나 별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외가 큰방에서 함

88) 전라권 지역에서 여성이 소유한, 점유한, 아니 여성에게 속해있는, 또는 여성이 따로 독립적으로 관리했거나 생활했던 흔적이나 공간과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는 가옥 등에서 여성이 생활한, 여성에게 주어진 활동 공간으로 추측되는 것들을 따로 간추려 보았다.

께 지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큰방에는 장·농 및 반닫이를 놓고, 평좌식생활(平坐式生活)을 한다. 작은방은 큰방 옆에 딸린 방으로 출가 전까지 딸들이 거처하던 공간이다. 방에는 비교적 소형가구와 함께 수틀이나 경대 같은 여자들의 생활용품을 두고 사용했다.⁸⁹⁾

1) 나주 홍기응가옥(洪起膺家屋;중요민속자료 제151호/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55)

풍산홍씨의 동성부락(同姓部落)인 도래마을의 종가로서 마을 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1900년 전후 남도 양반주택의 공간구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건물은 서향하여 직선축으로 배치되며 종선축 깊숙이 一자형 안채가 가로놓이고 안마당을 사이해서 ㄱ자형 사랑채가 배치되었는데 여기서는 안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一자형 6칸 전후 머릿뒀집 구조인 안채는 왼쪽으로부터 앞 간에 부엌방, 뒷 간에는 광, 다음은 상하2칸을 부엌으로, 다음부터는 전퇴를 제외하고서 큰방, 가운데 간은 앞에 대청, 뒷간은 안대청이 된다. 맨 끝 간은 복판이 작은방이며 뒷퇴는 아궁이가 시설된 작은 부엌이다. 큰방 앞에서부터 머릿퇴까지는 모두 툇마루가 놓였다. 덧달은 뒷퇴는 큰방과 안대청 뒤에 툇마루를 깔고 부엌 뒤는 봉당, 대청 뒤는 골방으로 이용했다. 안채 구조를 대략 살펴볼 때 주로 안주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겠다.

2) 영암 최성호가옥(崔成鎬家屋;중요민속자료 제164호/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

조선말기 전형적인 남도 부농가옥이다. 19세기 말에 지어지고 20세기 중반에 증수(增修)한 것으로 추정한다. 집은 안채, 사랑채, 헛간채, 문간채와 사랑마당까지를 고루 갖춰 짜임새있는 공간을 연출하면서 배치가 특이하다.

이중 안채는 一자 4칸 전후좌우퇴집으로서 전형적인 남도의 평면이다. 간

89)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자료 참조.

살이는 서쪽으로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을 차례로 배열하고 부엌을 제외한 앞퇴와 머릿퇴에 툇마루를 시설하고 작은방 뒷퇴는 토방으로서 아궁이가 시설되었다. 부엌은 앞뒷퇴를 모두 이용하는데 아랫퇴 뒷칸은 벽을 막고 문을 시설하여 고방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옥은 사랑채에도 여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엌의 확장공간이 있다. 서쪽으로부터 아랫방, 다음은 앞뒤를 나누어 앞은 부엌방, 뒤는 사랑부엌, 부엌 뒤는 부엌의 확장공간으로 추측되는데, 이 곳은 머슴들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여성들의 사용공간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이밖에 전라권역 내에 소재한 가옥들에서 여성의 생활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여지는 가옥들은 다음과 같다.

- 나주 홍기현가옥(중요민속자료 제165호/전남 나주시 다 도면 풍산리 40-1)
- 화순 양승수가옥(〃 제154호/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72-1)
- 낙안성 김대자가옥(〃 제95호/전남 승주군 낙안면 서내리 78-1)
- 낙안성 김소아가옥(〃 제99호/전남 승주군 낙안면 서내리 61)
- 장흥 위봉환가옥(전라남도민속자료 제39호/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장흥 위성가옥(〃 제7호/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
- 함평 이건풍가옥(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251호/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659-1)

다. 여성생산활동 유적지

■ 여성노동자

해방 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는 제사 및 방직업이 주도했다고 할 정도로 제사·방직공장이 산업의 근간이었다. 일제가 세운 도시제사(1927), 종연방직 광주공장(1930), 약림제사 광주공장(1930), 종연방직 전남공장(1935) 등이

그것이다. 비교적 큰 규모의 제사공장이 설립되어 나름대로 고용효과도 동반되었다.

그러나 노동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우는 매우 열악했다. 이들 제사·방직공장을 가동시킨 주역은 당연히 여성이었다. 종업원의 남녀비율이 4:6 정도로 여성노동력이 우세했지만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남녀차별은 그때도 여전했다. 노동자가 처한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일본인이나 감독들로부터 받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과 비인간적 대우 앞에 굴욕과 굴종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 작업중단은 물론 거리시위를 펼치는 등 과감히 투쟁에 나섰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훗날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운동을 주도한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지역 노동계에서도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방직업 여종업원들의 집단행동은 1970년대 들어서까지 그 회사들의 후신이었던 전남제사, 일신방직, 전남방직, 로케트전기 등 광주·전남지역 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1) 도시제사(道是製絲)공장(광주시 서구 양동, 현재 광주 양동 금호맨션 자리)

1927년에 가동을 시작한 도시제사공장은 임금수준이 열악한데다 아홉가지 벌칙까지 만들어 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1932년 11월 이에 불만을 품은 여공 500명이 대우개선, 임금인상, 작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워 파업을 단행했고, 주모자들은 퇴직 당하는 사례도 빚었는데 회사측은 임금인상을 제외한 여공들의 2가지 요구사항만 들어주고 파업은 철회됐다. 노동현장에서 단행된 전라권 최초의 여성노동자 집단투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제사공장은 해방 후 주인이 한국인으로 바뀌면서 전남도시제사로, 1954년 전남제사로 회사 이름도 변경됐다. 그 후 전남제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1970~80년대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운동을 주도해 간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종연방직 전남공장(광주시 북구 임동, 현재 일신방직(주) 광주공장)

종연방직 광주공장(제사), 전남공장(방직)도 마찬가지로 여공들은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했고 기숙사는 한방에 12~20명까지 수용, 후생복지시설이 라기보다는 감금시설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기숙사에서 외출은 거의 금지됐고 작업 중에 불량품이라도 내면 월급에서 터무니없이 공제하고 옷을 완전히 벗겨 알몸으로 기숙사를 돌리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은 쟁의에 나서 파업을 단행, 근로조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다.

종연방직 전남공장은 1945년 전남방직공사(현재 일신방직 광주공장)로 인수되면서 김형남이 이사장으로 취임, 한국인 주인을 맞고 1961년 4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회사를 분리했다.

라. 여성교육·여성운동 유적지

항일독립운동에서 보인 여성들의 활약은 조국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성해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정치적인 활동에 있어 남성들과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도 당당한 한 인격체로서 설 수 있음을 확인시킨 계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여학생들의 움직임은 지금 현대 여성들의 설 자리를 마련해 준 초석이었다고 할 정도로 일찍 깨인 여성의 사회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비(광주광역시기념물 제26호/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시 동구 장동·당시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인 지금 전남여자고등학교 정문을 막 들어서면 하얀 돌비석과 함께 세워진 안내판을 만난다. 광주광역시가 기념물 제26호⁹⁰⁾로 제정한 안내판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90) 광주광역시는 기념물 제26호를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1·2'로 나누어 지정했다. 발상지1은 광주제일고등보통학교(현재 광주제일고), 발상지2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재 전남여고)임을 밝혀둔다.

『이 곳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광주에서 광주제일고등보통학교 등 광주시내 고교생들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후 만주·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친 학생들의 가두시위, 동맹휴교운동이다. 이 운동은 민족차별교육에서 발단하여 독립만세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부지 일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우발적인 한·일 학생간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축적된 민족의식과 독립의지의 적극적인 표출이며 일제의 탄압과 착취, 차별교육에 대항한 민족운동이다. 광주에서 항일 시위를 전개한 것이 불씨가 되어 전국 194개 학교 54,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일제를 놀라게 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광주 학생들의 주장은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현재 전남여고 교정에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뒷받침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학교 교정이 기념물로 제정되기는 최근 일이지만 이 기념비는 단기4292년 11월3일에 세워진 것이라 의미가 또 다르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기념비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있다.⁹¹⁾

『배달여자의 전통적 덕행을 이어, 맨손으로 왜정의 총칼에 항거하여, 독립의 한길을 닦은 여학도의 절의는 곧 해의 거울이요, 잘 사람의 본이다. 4292년 십일월삼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설흔 돌날.』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거사한 지 30년 되던 해(1959), 바로 그 날에 맞추어

91) 이 기념비의 휘호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고, 비문은 한글학자 최현배선생이 만든 것이다.

제막식을 가진 이 기념비는 오늘도 지금으로부터 80년여 전 여학도들의 항일 정신⁹²⁾, 먼저 가신 선배들의 열과 녀을 이어받을 후배 여학도들의 가슴마다에 그때 그 정신을 똑똑하게 새겨주는 가르침, 바로 그것이다.

2) 백청단 은지환(銀指環) 사건 현장 수피아여학교(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광주시 남구 양림동)

여학생들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아무런 무늬도 없는 한 돈짜리 은반지가 끼어져 있었다. 1930년 2월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백청단(백의민족의 청년이라는 의미)을 결성하고 이 백청단 회원들이 모두 은반지를 끼고 등교한 것으로 발단이 된다.

백청단 발기인으로는 조아라, 김수진, 강인숙, 김나열, 최풍호, 최기례, 서복금 등 8명. 이들은 회원 확보에도 애국심, 가정환경, 성격들을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회원수는 1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학생들은 1929년 학생독립운동 참가계획이 무산되고 한달이 지난 이듬해에 복교하자마자 백청단의 결의를 행동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몸에 태극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동네 여인들을 모아 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 회원들 중 기숙사생들은 학교 우물가에서 콩나물을 길러 기금도 모았다.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선생과도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피아여학교 백청단의 조직을 알렸다. 회원들은 은반지로 동지임을 확인하고 연락도 점조직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은반지가 유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밀리에 백청단 조직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1932년 2월 단원 가운데 김수진의 가택수색으로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1933년 다수의 학생들이 검거되고 김수진과 조아라는 한달간의 옥고를 치렀다. 이 사건으로 수피아여학교는 무기 휴학에 들어가고 말았다.

92)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인 광주여고보 학생들의 항일의식은 1929년 나주통학차 사건, 1930년 백지동맹 사건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학생들은 투옥되어 정학을 당하고, 훗날 광복 이후 복교하여 명예졸업장을 받기도 했다.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의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투지는 계속되었고 1937년 9월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끝내 거부하여 폐교당하는 사태까지 맞았다. 1945년 동창회의 활동으로 복교하여 현재 수피아여중·고로 존속하고 있다.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 4월 미국인 선교사 배유지(Dr. Eugene Bell)가 여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 신교육 현장으로 100년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제시대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휴교, 폐교, 복교의 역사를 이어온 지금 수피아 교정에는 1995년에 제막한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비도 세워져있다.

3) 목포 정명여중 구 선교사 사택(등록문화재 제62호/전남 목포시 양동 86)

- 건립 : 1912년

문화재청은 이 곳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3·1운동 시위 등 민족혼이 깃든 신식교육장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에서, 광주에서, 3·1운동이 한창이던 즈음 목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19년 3월20일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지하실(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다. 정명 1회 졸업생인 이금전, 최자혜, 김진엽 등 학생들은 만들어진 태극기를 둘둘 말아 보자기에 싸서 어린이 이처럼 만들어 등에 업어 목포 양동교회와 교인의 집에 옮겨놓는 일을 도맡았다. 학생들은 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 위해 시골색시로 위장하고 광주에 나가 등사기를 구입해오기도 했다.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21년 11월 13일. 이들은 또 기숙사에 모여 종이와 대나무로 태극기 수십장을 제작했다. 그날 미국 워싱턴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각국 전권위원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조선대표단이 조선의 독립을 역설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조선대표단을 성원하기 위한 만세운동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학생들은 목포영흥학교 학생들과 합류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명이 체포, 구속됐다. 이렇게 해서 정명여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임시휴교에 들어가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비운도 맞았다.

4) 광주이일학교 터(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동 뒷동산 선교사촌 터)

광주이일학교는 지금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그 후신으로 현재 전북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그 뜻을 이어 후진을 양성,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일학교가 뿜어내는 정신적인 유산은 여성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이일학교의 태동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특성을 지닌다. 한국인이 아닌 독일여성 쉘핑 간호사가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첫 발을 디딘 것이 인연이다. 광주제중병원(현재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그는 1934년 광주에서 생을 마감하고 광주 땅에 묻혔다. 그것도 양림동 뒷동산에. 광주 유사 이래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도 치러졌다.

광주사람이나 다름없는 그가 간호사 권익 신장 뿐만 아니라 소외받은 가난한 여성을 위한 교육에 뜻을 두어 1922년 광주이일학교를 만든 것이다. 무식하다해서 소박맞은 과부, 창녀, 학령을 넘긴 처녀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쉘핑은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학교 설립을 결심했다.

처음 시작은 자신의 집에서 성경만을 가르치다가 그후 오웬기념각 옆 작은 방에서 과학을 가르쳤다. 15세 이상 40세의 불우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한 가르침이 배우고자 하는 여성이 늘면서 양림동 뒷동산 선교사촌에다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건축하고 비로소 교육이라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교사 건축에 기금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로이스 이일 · Miss Lois Neel)을 따서 학교 이름도 이일학교로 명명했다. 학교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50~60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왔고 졸업생들은 전도부인, 간호사, 교사, 여성활동가 등으로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자 정부로부터 쉘핑교장은 산업과 학

문교육 유공자로 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쉔펑교장은 1934년 타계하고 그 뒤 신사참배반대사건으로 1941년 9월 이일학교는 폐교당했다.

이후 광복이 되고 1948년 구애라 선교사가 교장이 되어 이일학교를 복교시켰지만 학교는 다시 몇 차례의 수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1961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가 전남과 전북에 각각 하나씩의 학교만 두기로 함에 따라 전남에는 남자성경학교(현재 호남신학교), 전북에 여자성경학교를 두는 방침을 정했다.⁹³⁾ 이에 따라 당초의 광주이일학교는 당시 전주에 있었던 한례정신학교(韓禮貞信學校)로 합병하여 전주한일여자신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전북 전주에 있는 4년제 한일장신대학교가 그 후신인데⁹⁴⁾, 1922년 광주의 교회 마루에서 여성의 문맹퇴치로 출발한 광주이일학교가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 수준) 체제로 갖추었다가 폐교를 거듭하면서도 이제 어엿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존립하고 있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설립 초기의 역사적인 의미도 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쉔펑교장의 내한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광주이일학교 교정에 세웠는데 지금은 그 기념비도 전주 한일장신대 교정으로 옮겨져 있다.

5) 여성사회운동의 요람, 광주YWCA

‘우리 믿는 여성들이 복음을 외쳐 무지한 여성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YWCA를 이 광주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을 찾는데 여성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1922년 여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 창설자 중 한사람인 김필례는 광주YWCA(이하 광주Y) 창설을 위해 광주군 양림리(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⁹⁵⁾ 그의 집에서 양응도, 김함라, 임자혜와 함께 이렇게 기

93) 백춘성(1996), “천국에서 만남시다”,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pp.56-60.

94) 한일장신대학교 홈페이지(www.hanil.ac.kr) 참조.

95) 그때 양림리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이다. 광주YWCA도 이곳에서 동지를 틀었듯이 앞서 언급한 광주이일학교, 광주수피아여고 등 당시 여성들의 개인 활동도 모두 이곳이 그 터전이었다. 양림동 뒷동산은 일제시대 선교사들의 봉사와 선교활동의 진원지로서 여성들의 의식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음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광주수피아여고를 제외하고는 당시 여성들의 활동 터로 남아

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자로 하여금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되도록 해 주라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 기도가 그로부터 80여년이 흐른 지금 2000년대까지도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음은 그동안 광주Y가 지나온 발자취들에서 읽어진다.

YWCA운동은 세계적인 여성사회운동에서 시작된 것과 같이 초창기 광주Y운동도 본격적인 활동은 농촌지역에 계몽활동과 교육사업으로부터 비롯됐다. 서울Y와 함께 지방Y로는 최초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 또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다. 광주Y 활동은 기독교 선교가 중심이었지만 1900년대 초기 일제 치하에서 전라도의 여성들에게 글을 깨우치면서 민족을,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등지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수피아여학교 등 학생Y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학생이 중심이 되어 야학과 하기학교를 개설, 한글을 못깨우친 농촌여성들에게 문맹퇴치에 큰 공을 세웠다. 이후 해방과 6·25동란을 맞아 전쟁고아들이 속출하자 이들을 수용하는 성빈여사(聖貧女舍)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계몽, 직업여성교육도 활발히 펼쳤다.

광주 양림동에서 기도로 출발한 광주YWCA는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한 교회 및 기독교단체 탄압과 맞물려 1938년 해산하게 되었고 해방과 함께 재건 총회를 갖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수난을 겪으면서 광주Y는 자체 회관 마련도 어려움에 부딪혀 양림동에서, 광산동 79번지(현재 광주 충장로 입구), 대인동 회관을 거쳐 북구 유동에 건물을 신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⁹⁶⁾ 그러나 광주Y의 도약, 성장기라 할 수 있는 시대를 지냈던 대인동 회관 건물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여성운동의 의미를 새기는 차원에서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있는 곳이 없어 이번 집필범위에서 빠진 곳도 많음이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이를 복원, 기록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96) 초창기 광주YWCA운동 유적지가 현존하지 않음이 다소 아쉽기도 하다. 물론 Y운동 자체가 성장하면서 기관도, 건물도 더불어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왕성한 활동기를 지냈던 옛터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때 (광주Y 뿐만 아니라) 지나는 흔적의 보존운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1) 홀어머니 산성(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70호/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55)

홀어머니 산성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군량을 비축해 두던 곳으로, 대모산성(大母山城) 또는 백산리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대모산성은 고려 말에 어떤 어머니가 아홉 아들과 함께 이 성을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영조 46년(1770)에 엮어진 ‘문헌備考(文獻備考)’에는 늙은 할머니가 아홉 아들을 거느리고 성을 쌓았다는 설화가 곁들여져 있다.

또 이 성에는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과부 양씨와 설씨 총각 사이의 사랑 이야기도 전해진다. 총각이 양씨를 너무도 사모하여 결혼하기를 원하자 부인은 “내가 이 산에 성을 쌓기 전에 그대가 나막신을 신고 서울에 갔다 온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성을 다 쌓기 전에 총각이 돌아오자 부인은 성벽 위에서 몸을 날려 자살함으로써 정절을 지켰다. 이 전설로 인하여 지금도 결혼을 앞둔 신부는 이 성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대모산성은 ‘교령산성’ ‘금성산성’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모산성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 관곡(官穀)을 저장한 관창 역할을 했으며 성곽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홀로 된 여인이 정절을 지키며 쌓은 성이 군량을 비축한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2) 삼별초 궁녀덤벙(향토유형유산 제4호/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029-11)

삼별초의 반란 사건이 전남 진도지방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특히 여인들의 절개를 지키려는 의지는 높이 살 만 하다.

진도는 곳곳이 삼별초 대몽항쟁의 유적지이다. 그러나 패전으로 기록된 삼별초 항쟁의 역사는 어이없는 죽음의 기록이기도 하다. 고려 왕실이 왕정복구를 위해 몽고의 힘을 빌려 무인정권을 축출하려 하자 삼별초는 투쟁 근거

지를 진도로 옮기고 백성들과 함께 대몽항쟁에 나섰다.

고려 원종 때 몽고 세력에 반대한 삼별초의 배중손 장군 등이 반란을 일으켜 승화후 온(王溫)을 왕으로 추대하여 버티다가 관군에 물리어 진도로 도망가는데 이때 왕온은 지금의 의신면 침계리에 있는 왕무덤재에서 붙잡혀 논수골(論首谷)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전투 중에 피난 가던 여기(女妓) 급창 등 궁녀들은 침략군들의 능욕을 피해 창포리에서 만길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만길재를 넘던 중 몽고군에게 붙잡혀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고 언덕을 따라 내려가 지금의 둥병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망할 당시 3천 궁녀가 부여 낙화암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던 사건과 흡사하기도 하다.

이런 사연을 간직한 둥병을 진도사람들은 ‘여기급창둥병’이라 불렀는데, 당시 이 둥병의 수심은 매우 깊어서 절굿대를 넣으면 우수영 또는 금강 앞바다로 나온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그 뒤 비가 오는 날이면 이곳 둥병에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슬피 들려와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는 이곳을 지나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삼별초와 함께 투쟁했던 진도 여인들의 절개를 확인시켜주는 삼별초 궁녀둥병은 관광자원으로는 물론 여성 정신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진도 신비의 바닷길, 뽕할머니 이야기(국가지정 명승 제9호/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의신면 모도리 해역 일원)

매년 음력 3월 중순이면 전남 진도에서는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는 영등축제가 열린다. 영등축제의 발원은 뽕할머니 전설에서 비롯된다.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 2.8km의 바다가 40m의 폭으로 갈라지면서 신비의 바닷길이 가장 뚜렷하게 열리는 것은 매년 음력 3월 중순께. 진도군은 음력 3월17일을 전후해 그 바닷길에서 영등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의 묘미는 바로 뽕할머니 전설을 재현하는 영등살놀이이다.

뽕할머니 전설은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초기 손동지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유배 중에 풍파를 만나 호동(지금의 진도 회동마을) 앞바다에 표류하다 이 마을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호랑이의 침입이 잦아 이때 회동마을 사람들이 건너편 모도라는 섬으로 피신하면서 뽕할머니 한 분만 남겨둔 채 떠나게 되었다. 뽕할머니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계속 올리자 용왕님이 그 기도를 들어 바닷길을 열어 모도의 사람들이 걸어서 회동마을에 남겨진 뽕할머니를 찾아가게 했다. 그러나 여러 날의 기도로 기진한 뽕할머니는 “내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이후 진도사람들은 뽕할머니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렸고, ‘영(靈)’이 등천(登天)했다하여 그 바닷길을 ‘영등살’이라 칭하면서 매년 회동과 모도사람들이 모여 뽕할머니를 기리는 제사와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영등제를 지내고 있다.

이 신비의 바닷길은 1975년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랑디가 진도 관광을 왔다가 이 현상을 목격하고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프랑스신문에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이 바닷가 사당에는 뽕할머니 영정이 모셔져 있고, 바닷길 입구에는 2000년 4월 뽕할머니 상징 조형물도 설치해, 뽕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매년 열리는 바닷길을 널리 기리고 있다.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1) 영광 정유재란 열부순절지(전라남도기념물 제23호/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정유재란 때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에 살던 동래정씨, 진주정씨 두 문중의 아홉 부인들이 왜적을 피해 백수읍 대신리 묵방포까지 피신했다가 왜군을 만나자 굴욕을 당하기보다는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함께 묵방포 앞 칠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곳이다.⁹⁷⁾

97) 이들 아홉 부인의 절의를 기려 모신 정려각이 맨 앞 절 ‘여성인물유적지’편, 정려각에서 서술한 팔열부정각, 영광정렬각 두 곳이다.

2) 나주 불회사 석장생(중요민속자료 제11호/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212)

불회사 석장생은 사찰 입구 300m 지점 오솔길 좌우에 2기가 있는데 우측이 남장생이고 좌측이 여장생이다. 이중 좌측 여장생(周將軍)은 하반신이 지면에 매몰되어 있는데 남장생에 비해 얼굴이 여성적으로 온화하며 웃는 인상이 부드럽고 평면적이다.

장생에는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장생, 이정표로서의 장생, 경계를 표시하는 장생이 있는데 세워진 장소는 주로 사찰 입구, 마을, 성문밖, 경계 길가 등이다.

불회사 석장생은 불회사 인근에 있는 운흥사 석장생(下元唐將軍)의 조각형태와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운흥사 석장생이 만들어진 강희 58년(1719)을 전후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장생 앞면에 새겨진 당(唐)자, 주(周)자 글씨는 길(道)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인데 당자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주자는 꼬불꼬불한 길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이 장승은 사찰입구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나주 운흥사 석장생(중요민속자료 제12호/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54)

운흥사는 덕룡산 기슭에 있는 고찰이었다. 1775년께 대웅전 침계루 등 380여간 규모를 갖춘 사찰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빈약한 사찰이다.

이곳 석장생은 사찰 입구 길가에 있는데 우측이 여장생, 좌측이 남장생으로 되어 있어 불회사 석장생과 비교해 위치와 글씨가 서로 뒤바뀌어져 있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인지 여장생은 하원당장군이라 음각된 얇고 넓은 돌 장승인데 불회사의 여장생처럼 온화한 맛이 없는 원시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 조각법과 원형의 눈동자 등 형태는 거의 흡사하고, 여상인 하원당장군의 뒷면에 강희 58년(1719)이라는 명문(銘文)이 있어서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민속자료이다. 한편 여인들이 치성을 드린 혼

적인 수혈이 많이 남아있는 바위가 있어 민간신앙의 단면도 보여주고 있다.

4) 남원 서천리 당산(南原 西川里 堂山;중요민속자료 제20호/전북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8-1)

당산이란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말한다. 서천리 당산에는 한쌍의 돌장승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벽수라고 칭한다. 외형상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예로부터 남쪽의 것은 남자, 북쪽의 것은 여자로 규정하면서 이 장승이 악한 기운을 막는다는 뜻으로 각각의 장승에 ‘방어대장군’, ‘진서대장군’이라는 이름도 새겼다.

두 장승 모두 병거지를 쓰고 수염이 달렸으며, 수수한 노인 모습을 한 여장승 진서대장군은 키가 작지만 실제 인간의 모습에 가까우며 얼굴 표정이 사실성이 강한 순수한 노인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여장승인 진서대장군의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목을 붙였다는 일화도 있는데 마을 서쪽 길가에 있으면서 진서(鎭西)·방어(防禦)라는 표기로 보아서 마을의 서쪽을 눌러 허전한 방향을 막아준다는 풍수신앙적 이유로 세워졌다는 설도 전해진다. 돌장승은 본래 마을 부호의 부수적인 신이지 주신(主神)은 아니다. 따라서 여장승에 ‘진서’라는 이름을 붙여 서쪽에서 불어오는 마을의 액막이, 마을 수호를 비는 제의도 올리는 민간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서천마을 부호 여성의 생활이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여장승은 마을을 수호한다는 신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서민의 소박한 표정을 조각한 민중예술이라는 점에서 민속예술 연구자료로 가치를 두고 있다.

5) 돌모산 당산(전라북도민속자료 제19호/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제마을 723-1)

이 당산은 당산할머니 또는 짐대할머니라고 불리는데 내요리 마을의 수호

신이다. 내요리의 지형이 배의 형국을 닮았는데 사람들은 이 당산이 풍수적으로 내요리에 안녕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배가 거친 풍랑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큰 기둥을 꽂아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이 같은 형상의 당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내요리 주민들은 이 당산에서 마을의 복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에 침입한 잡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줄다리기에 사용한 동아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돌면서 동아줄을 당산에 감는 ‘짐대할머니 옷입히기’ 등의 행사를 벌인다.

6) 아차동 미륵할머니 보호각(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에 아차동 마을이 있다. 미륵할머니는 이 마을과 논이 만나는 길가 가옥들 사이 보호각 안에 모셔져 있다. 보호각 상량문에 ‘계유년 7월’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현재 보호각은 개수된 것이지만 처음 지은 그 시기를 1873년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볼 때 보호각 안의 미륵할머니는 1873년 이전에 세운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미륵할머니상은 사람 키 크기의 큼직한 선돌을 세우고 돌의 윗부분에 먹선으로 눈, 코, 입을 그려 넣어 그 상징성을 부여한 조형물이다.

오랜 옛날 이 마을에 비라도 내리는 음산한 밤이면 대밭에서 소름끼치는 해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미륵같이 생긴 바위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울음은 마을 사람들 발길을 움찔도 못하게 묶어놓고 말았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미륵바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빌었더니 울음소리는 딱 그쳤고, 그날 밤 그 할아버지 꿈에 미륵할머니가 나타났다. “나는 너희 마을을 지키는 미륵할머니다. 너희는 나를 너무 푸대접했느니라. 나를 아늑한 자리에 집을 지어 안치해주면 너희 마을은 모든 재액이 없으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꿈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미륵할머니 바위를 대밭에서 옮겨 좋은 자리로 안치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미륵할머니를 기리는 마을 공동제사를 지금도 정성을 다

하여 모시고 있는데 그런 이후로는 마을에 아무런 재앙이 없다고 한다. 미륵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공동제사는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또 특이한 것은 미륵할머니의 얼굴은 항상 흰 종이로 만든 고깔을 씌워 덮어 놓고 있으며, 동제가 있을 때만 할머니의 얼굴을 드러낸다고 한다.

<참고>

- 석곡리 석불입상(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28호/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 나씨 삼강문(〃 제91호/전남 나주시 남문동)
- 금성나씨 삼강문(〃 제128호/전남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 옥과성황당목조신상(전라남도민속자료 제2호/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 고씨 삼강문(광주광역시기념물 제12호/광주시 남구 압촌동)
- 양씨 삼강문(〃 제11호/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 유물

가. 여성의 복식

1) 장흥임씨 철릭(長興任氏 天翼;중요민속자료 제112호/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65년 7월 광주시에 있는 김덕령장군 묘 옆에 있는 장군의 조카며느리인 장흥임씨 분묘를 이장하던 중에 의복이 여러 점 나왔다. 장흥임씨는 장군과 동시대 인물로 이 의복 또한 김장군과 같은 1590년대로 추정하는데 출토된 의복은 이 철릭 외에도 겹저고리 2점, 목면철릭 1점, 직령포 1점, 내친고(속바지) 2점, 버선 1점, 미투리 1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토된 의복들은 중요민속자료 112호를 비롯해 부속문화재로 112~1에서 112~6호까지 지정하고 있다.

철릭이란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들어온 포(袍)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장흥임씨 철릭은 무명으로 만든 홑옷으로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깃은 날카롭게 세운 칼깃이며 치마부분에는 풍성한 주름을 잡

았다. 특히 목면칠릭은 임진왜란 전까지 여성의 칠릭착용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고리에서 목판깃과 반달깃이 같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신분이 높아질수록 목판깃을 입었다고 믿어왔던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또한 속바지인 내친고도 2점 출토된 것이 특이하다. 내친고는 무명에 솜을 둔 여자바지로 앞·뒤·중앙에 맞주름을 잡은 것이 남자바지와 다르다. 이는 이형부인 동래정씨 묘소(뒤에 나움)에서 나온 2점도 아래가 터져있는 속바지로, 현존하지 않는 의복이라는 점이 색다르다.

여기서 장흥임씨는 광주, 동래정씨는 시흥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볼 때 이 옷은 당시 전국에 분포되어 입었던 옷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일부에서도 이름을 어렵듯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얼마전까지 유전(流轉)했던 옷으로 보는 학계의 해석도 있다.

2)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李洞夫人 東萊鄭氏 衣服;중요민속자료 제115호/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07-1)

동래정씨는 전주이씨 고림군의 후손인 이형의 부인으로, 증좌찬성동(贈左贊成洞)의 배위(配位)인 정경부인(貞敬夫人)이다. 그는 조선 선조 16년(1583)에 사망했는데 이 의복은 1941년 부인의 묘소를 옮길 때 경기도 시흥군 염불암에서 출토됐다.

의복의 종류는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와 치마 1점, 명세납의상 2점, 내친혜 1점이다. 직령포의 넓이가 4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시기의 포(袍) 중에서 동정이 가장 좁다. 이것은 정씨부인이 한양에 살고 있었고 왕족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의복에 비하면 변화의 유형이 다소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직령포는 누비포로 삼주(三紬)가 달려있으며, 광주의 장흥임씨 옷과 같이 내친혜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속치마의 일종인 내친혜는 앞이 통으로 되고 뒤의 엉덩이선 이하가 터져 있는 것으로, 2점 중에서 1점은 12cm를 파서 바지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옷들은 왕족 가문의 부인인 정씨가 임진왜란 이전에 입었던 것으로, 연

대가 명확하여 우리나라 의복제도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문효공(文孝公)과 정경부인 영정(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81호/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67)

하연(河演, 1376~1453) 부부의 초상화로 그들의 아들 하우명(河友明)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연은 본관이 진주로 조선 태조 5년(1396) 과거에 합격한 후 세종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다. 하연부부상은 경상도 합천군과 청원군에도 보관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곳 무주의 그림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경부인의 옷매무새가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조선시대 여성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나. 여성의 예술작품

1) 설씨부인 권선문첩(薛氏婦人 勸善文帖;보물 제728호/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조선 초기의 문신 신말주(申末舟)의 부인 설씨(1429~1508)가 지은 권선문과 사찰도를 병풍처럼 묶어 놓았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데 불만을 품고 낙향한 신말주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온 부인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허물어진 강천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권선문첩이다. 설씨부인은 직접 불신자(佛信者) 대중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권선문을 짓고 절의 설계도인 사찰도를 그려 이를 서화첩(書畵帖)으로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돌려보도록 했다.

붉은 종이를 이어 붙인 16쪽 가운데 14쪽이 권선문이고 나머지는 사찰의 채색도인 이 권선문첩의 맨 끝에는 설씨부인의 예인(藝印)이 찍혀있다. 문서 뒷면에는 권선문을 짓게 된 이유와 연대 등이 적혀있는데 이 문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작품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

2. 무형문화유산⁹⁸⁾

○ 물질문화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1) 나주 샛골나이(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기능보유자 노진남/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샛골나이는 다시면 샛골의 무명 짜는 직녀 또는 무명 짜는 일에 대한 통칭인데, 일반적으로 다시면 샛골에서 생산되는 무명베의 대명사로 통한다.

동당리 청림부락은 예로부터 길쌈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농토가 기름져 질 좋은 목화가 생산되었고 여기서 나온 무명베는 섬세하고 곱기로 유명한 극상품 세포(細布)로 궁중 진상품이었고 일제시대에는 만주로까지 팔려나갔다.

특히 무명베에 쪽물을 들인 것이 비싸게 팔렸는데 무명베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고행이어서 여성의 뒤통처럼 안겨진 무명 짜는 일을 도맡은 여성들이 집안 살림살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

나주 샛골나이는 흰색으로 인해 백의민족으로 일컬어지는 한민족의 옷을 풍요롭게 하며, 한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직물로 가치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최초 무형문화재 지정은 김만애여사가 받았는데 그는 18세에 이 마을 최씨 문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길쌈을 해왔다. 그는 무명베의 극상품 세포인 열두새베까지 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기능을 며느리 노진남에게 전수시키고 있다.

98)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비지정문화재가 되어 그 축에 끼이지 못한, 아쉬운 문화유산 유형도 더러 발견되어 일부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 지정된 인간문화재의 경우 사망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해제되어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문화유산으로 채집이 안 된 부분도 있음을 덧붙인다.

베짜는 순서를 보면 먼저 목화에 씨를 빼내는 작업인 ‘씨앗’을 하고, 이어서 홉을 가지고 솜을 탄다. 솜이 되면 이를 다시 고치로 말아 물레에서 실을 뽑는다. 다 뽑은 실은 10줄로 한데 모은 다음 합해진 실을 다시 마당에 베말을 박아놓고 베를 나른다. 다음에는 실이 질기도록 솜에 넣어 삶은 후 실을 하나하나 바디에 꿰어 날실을 만든다. 이 작업이 끝나면 뜰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날실에다 풀칠을 하면서 말려 도투마리에 감는 베를 매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여 일련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드디어 베틀에 올라 베를 짠다. 무명을 짜는 데는 습도의 공급이 중요하므로 때때로 젖일개로 날줄의 마른 부분을 적셔주는 것도 베 짜는 비결이다.

예전에는 개성의 송도목과 진주의 진주목이 명품으로 날렸으나 오늘날은 나주의 나주세목 또는 셋골목이 12층 무명으로, 한산모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2) 곡성 돌실나이(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기능보유자 김점순/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돌실’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을 가리키며,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길쌈)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곡성의 돌실나이는 돌실에서 나오는 삼베 이름으로,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여 그냥 삼베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옛날 농촌에서는 삼베와 무명베가 우리 옷감의 전부였다. 죽산리는 삼베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지금도 옛 솜씨 그대로 삼베를 짜고 있다. 삼은 초봄에 습기가 많은 텃밭에 씨를 뿌려 생산된 1년생 초로 소서(7월7~8일) 무렵에 삼베를 짠다. 삼베는 삼울의 굵기에 따라 새가 정해지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섬세한 포가 된다. 가장 거친 포가 상복용으로 쓰이는 4새이며, 최고 30새까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9새이면 제일 촘촘한 편이다.

삼베의 제작과정을 보면 수확한 삼 잎을 훑은 삼단을 삼곳에 넣고 찌서 겹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삼을 쪼개는 과정을 거친 후 실을 한올 한올 길게 잇는다. 그 후 베 한 필의 길이와 삼베에 따라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풀 먹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 베틀을 이용해 베를 짠다. 베를 짜는 동안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비법이다.

곡성 돌실나이는 그 베가 가늘고 간격이 고른 세포여서 값이 나가며, 잘 짜는 사람은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중까지 하루 1필(20자)을 짠다고 한다. 현재는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김점순이 기능보유자로 맥을 잇고 있다.

3) 침선, 침선장(針線, 針線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2호/기능보유자 최온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침선이란 옷을 말려서 바느질하는 봉제, 무늬를 수놓은 자수, 옷에 곁들여 장식하기 위해 만드는 장신구 등 옷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 모두를 뜻하나 총괄적으로 보아 옷감의 마름질, 바느질, 다림질 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침선장은 그 침선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침선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기능보유자 최온순이 그 맥을 잇고 있다. 전통복식도 기후나 풍토 등 자연조건과 지역성, 생활환경에 따라 토착문화를 형성하면서 차이를 보이는데 최온순의 작품에는 전라도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침선에 필요한 재료는 명주를 포함한 비단, 무명, 모시, 삼베가 주를 이루며 여름에는 홀으로, 봄·가을에는 겹으로, 겨울에는 옷감 안팎 사이에 솜을 두어 보온을 높이는 누비옷, 솜옷 등으로 사계절에 따라 옷감과 바느질법이 달라진다. 바느질 기법은 감침질, 홈질, 박음질, 상침뜨기, 휘감치기, 시침질, 공그르기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음새나 옷의 종류, 위치에 따라 이들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비법이다.

나. 음식문화유산

1) 남도의례음식장(南道儀禮飲食匠)⁹⁹⁾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기능보유자 최영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남도(호남지방) 고유의 전통음식 솜씨를 기려 남도의례음식의 장인을 꼽는 데 그 시초는 이연채(1916~1994·생존 당시 광주 북구 중흥동 거주) 장인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연채의 손끝에서 빚어내는 음식은 한마디로 예술의 극치였다. 그가 만든 음식은 실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었고 특히 육류, 생선류, 야채류, 과일류, 양념류 등 53가지 재료가 망라되는 신선로의 유일한 맥을 잇는 명인이었다. 폐백음식이 그의 대표적인 기능이었는데 배설하는 법도와 문어발을 오려 형상화한 어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상차림·이바지음식·폐백음식·찜·탕·건포류·부각·한과·약밥·떡·장아찌·장·젓갈·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음식이면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솜씨를 보여 주었는데 떡 및 다식 유과류의 솜씨가 특히 빼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최부진)로부터 최부자집 솜씨를 배웠고 외할머니(보성임씨)가 당시 궁중요리는 물론 전통음식 기능을 보유한 분으로, 이를 보고 자라면서 대대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출가 후에는 시댁에서 세동서가 10년간 한 집에 살면서 뛰어난 음식솜씨로 시집살이를 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광주 시내 잔치집이면 단골 조리사로 초빙되어 상차리는 일을 도맡은 것이 전통음식 기능 발전의 기회로 확대된 계기였는데, 그는 일을 맡을 때도 집의 가도의 예법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집에만 일을 준비해주는 고집도 유명

99) 남도의례음식장은 현재 최영자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연채(1994년 타계)가 최초의 남도의례음식장으로, 1989년 3월20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사망 후 기능보유 해제)로 인정받아 기능을 전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초 장인으로, 명인으로, 남도의례음식 기능을 선보이기 시작한 이연채의 삶 및 음식 기능에 초점을 둔다.

해 ‘무등산 빗고을 괴짜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한때 서울 궁중 요리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교수가 요리학원 강사로 초빙하는 권유도 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고향에서 향토음식기능 보유자로 활동하다 생을 마쳤다.

그의 생전 음식솜씨를 만날 수 있는 책도 ‘남도전통음식’(황기록 편저)으로 발간되었는데, 이 책 또한 저자가 이연채 명인의 솜씨에 반해 펴냈다고 한다.

2) 진도홍주(珍島紅酒;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기능보유자 허화자/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알콜 40도 이상 되는 진도홍주는 고도주(高度酒)임에도 붉은 빛깔이 특이한데다 맛도 좋고 뒤끝이 깨끗하여 애주가들로부터 민속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진도홍주에 대한 유래에는 설이 많다. 증류주인 진도홍주는 고려때 원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소주에서 근원을 찾는다. 학자들은 삼별초를 토벌하러 온 몽고인들이 홍주 내리는 비법을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하지만 재료로 쓰이는 지초(之草)가 황폐한 몽고 땅에서 재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약을 활용한 홍주를 전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일부에서는 허씨(許氏)가 입도(入島)하면서, 연산군때 이주(李冑)가 유배하면서 전래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능보유자로 허화자(1929년생)가 지정된 것을 보면 허씨 전래설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본디 소주는 조정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차츰 서민층으로 대중화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소주에 약제를 가미하는 지혜가 생겼고, 약소주 또는 한소주로 발전되어 지방마다 특색있는 명주를 낳는다. 진도홍주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토속명주로 발전된 것으로 본다. 해방전까지 홍주는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일반적으로 제조되던 것이 이후 주류 단속이 심하자 대가집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부녀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은밀히 제조하여 밀조주로 그 비법이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홍주는 쌀·보리로 빻은 순곡 증류주에 지초라는 약초 뿌리의 성분을 추출하여 숙성시킨 것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속주로 향이 독특하다. 외지의 지초가 굵고 길어도 홍주를 한 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전혀 색소

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진도 지초는 뿌리가 작아도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다른 지초와 다른 점이다.

1993년 기능보유단체로 진도전통홍주보존회가 창립되어 전통홍주를 보존 전승하고 고유의 명주 개발 등 홍주의 산업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허화자가 기능보유자로 그 기능을 전수하고 있다.

3) 해남 진양주(眞釀酒;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5호/기능보유자 최옥림/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해남 진양주는 본래 궁중의 양조술로 영암군 덕진면 광산김씨 집안에 후실로 들어간 최씨 성의 궁인(宮人)이 비법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기능보유자인 최옥림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구전이 뒷받침되는 대목도 있다.

이조좌랑과 사간 벼슬을 지낸 뒤 낙향한 광산김씨 집안의 김권은 정부인이 천안전씨였으나, 구전처럼 최씨 궁인을 후실로 거느렸다면 기능보유자인 최옥림에게 그 기능이 전수될 가능성이 있다. 최옥림의 남편은 장흥임씨인데, 그 증조모가 김권 집안에서 덕정리로 시집온 덕진 광산김씨이기 때문이다. 최옥림은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서 태어나 덕정리 임씨가로 시집온 뒤 시어머니로부터 진양주 제조비법을 배웠다.

진양주는 덕정리 외에도 인근 북창, 둔주포, 맹진 등에서도 양조되고 있으나 덕정리 물맛으로 빚어야 제 맛을 낸다고 한다. 경주법주보다 향기가 더 강하며 알콜농도는 13% 내외이다.

4) 향토술 송순주(전라북도무형문화재 6호/기능보유자 김복순/전북 김제시 요촌동)

송순주는 조선 선조(1567~1608)때 벼슬을 지낸 김탁(金鐸)의 가문에서 전승되어온 약주이다. 김탁이 병으로 고통을 겪자 그의 부인 완산이씨가 한 여승에게서 송순주 빚는 법을 배워 남편에게 그 술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한 결과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후부터 이 가문에 송순주 제조방법이 전승되었다

는 것이다.

이 술은 소나무순과 쌀밥, 밀가루반죽, 그리고 맑은 물을 재료로 숙성시킨 소주로, 알콜농도는 25% 내외이며 맑은 황갈색을 띤다.

기능보유자 김복순은 시어머니 배음숙으로부터 송순주 빚는 법을 전수받았는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술은 위장병과 신경통, 풍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의례 및 연행

역사 속에서 노동과 놀이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아니 그냥 여성이기에 떠안겨진 몫이었는지 모른다. 요새말로 하자면 정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는 남성만의 독무대였고 여성은 집안에 틀어박혀 살림하는 게 전부였다. 양반집에서는 남자는 모내기도 하지 않았는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노동 앞에서 여성들의 한과 애환이 말로, 소리로 뿜어져 나온 것이 농요가 되고 들노래로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놀이와 의례

1)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예능보유자 김길임, 최소심, 박용순/전남 해남군, 진도군 등 남해안 일대)

- 강강술래터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강강술래는 전남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전승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녀자 놀이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8월 한가위 세시풍속 놀이의 하나이다. 한가위 보름달 밝은 밤에 마을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새옷으로 단장하고 손과 손을 맞잡고 원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번갈아 가면서 밤이 지새도록 노는 모습은 전라도 특유의 풍류와 멋의 표상이다.

강강술래 놀이의 유래는 여러 설이 난무한다. 임란 때 충무공이 창안했다,

고대 마한 때부터 비롯되었다, 고대의 수확제의의 오신행사 놀이에서 연원한다는 설 등등.

이 중 충무공 창안설은 왜군에게 병력이 많음을 위장 과시하기 위해 인근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남장시켜 손과 손을 마주잡고 원무토록 했더니 왜군이 질겁해서 달아났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전략적 이용이지, 충무공이 창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고대 수확제의 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농경사회에서 재생력을 간직하면서 생산의 신으로 표상되는 여성들이 풍요와 재생을 의미하는 만월을 본따서 풍년을 구가하는 오신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에 타당성을 둔다. 그것은 강강술래 놀이가 달 밝은 한가윗날과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바탕에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깃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해남, 진도 등지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이 다수의 전수생들과 함께 그 전승에 힘쓰고 있다.

진도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대병력을 가장하기 위해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강강술래를 하게 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망금산 일대를 강강술래터로 명명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있다.

2) 나주 삼색유산(三色遊山)놀이(전남 나주시)

삼색유산은 나주 여인네들의 봄 산놀이이다. 삼색은 양반·평민·천민의 세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세 계급의 여인들이 농사철을 앞둔 음력 사월 열흘날이면 신분 차이를 떠나 산에서 모여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단결하고 협동심을 다진다는 것이 이 놀이의 목적이다.

이들은 우선 삼색유산계를 조직하여 계돈을 걷어 놀이를 준비한다. 놀이 시작전에 금성산신께 산신제를 지내며 고을의 안녕과 삼색유산놀이가 잘 끝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화전을 부치고 음주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놀다가 해질녘이 되면 자식이나 며느리들이 각자 등불을 들고 마중나와 함께 고을로 내려오면서 놀이는 끝난다.

이 놀이는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관계없

이 고을 사람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여인네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냈던 것으로,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계속 이어져왔다.

현재는 나주문화원이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매년 5월 8일 어버이 날에 남산공원에서 놀이를 재현하여 나주 고을 어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3) 진도 씻김굿(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예능보유자 김대례/전남 진도군)

진도 씻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어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곳이다.

보통 타지방에서 행해지는 곳은 무당이 무복을 입고 북 위나 작두 위에서 걸으면서 무당 자신이 망자의 말을 전하는데, 진도 씻김굿은 무당이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춤과 노래로 신에게 빌며 죽은 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와 접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지방과 다른 특징이다. 진도씻김굿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내림굿하고는 다르다. 전통적인 춤과 소리가 중심이 되어 예술적인 것이 도드라진다.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도 통하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초연한 자세를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다고 말하는 진도 씻김굿은 하룻밤 내내 걸려 행해지는데 길 닦는 대목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끊어질 듯 애절하게 이어지는 삼장개비 곡조는 모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한다.

기능보유자 김대례는 진도에서는 세습대무로 통한다. 세습무가에서 태어났고, 열일곱에 역시 세습무가로 시집가서 시부모를 따르며 무업에 종사한 것이 진도씻김굿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2) 강진 선돌감기(전남 강진군 작천면 교동마을)

강진군 작천면 교동마을 입구에 ‘선돌할머니’라고 불리는 입석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이 선돌할머니(높이 183cm, 폭 63cm, 두께 37cm, 둘레 170cm)에 줄을 감고 간략하게 당산제를 지낸다. 그러나 혹시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길 경우 2월 초

하루로 연기하고 다시 그날도 부정하면 따로 택일하여 연기한다. 이때 감는 줄도 가가호호 짚을 각출하여 만드는데 부정이 있는 집의 짚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의례를 치르는가 궁금하다. 줄을 감는 것은 할머니선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한번 감긴 줄은 1년간 보존된다. 새 줄을 감을 때 지난해에 감은 것을 풀어내어 태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만일 옷을 입히지 않으면 흉년이나 질병이 초래된다고 한다. 선돌할머니가 여자이므로 입석 윗부분에 여자머리처럼 줄을 감는다는 풀이도 있다.

선돌할머니는 기자의례(祈子儀禮)의 대상이기도 하다. 부녀자들이 음력정월 보름날 촛불을 켜고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비는 경우도 있다. 이 선돌감기 제례의식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선돌할머니 보존회를 조직하여 매년 제를 지내고 있다.

나. 행위예술

■ 민요/농요

농도로 알려진 전라지역은 일찍부터 농경생활이 정착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농사와 관련된 민요도 많고 일을 하면서 부르는 농요가 많다. 농요란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일하면서 노동의 피로를 덜고 노동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스로 창출해 낸 마음의 노래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속에 삶의 희로애락이 스며 깃들여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노동요이다.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하는 토속민요의 하나로 혼자서 또는 집단적으로 부르며 지방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1) 우수영 부녀농요(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예능보유자 이인자/전남 해남군)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는 부녀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다. 종류는 밭을 맬때 부르는 밭매기노래,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보리타작노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방아타령, 일을 하다가 쉴 때 부르는 등

덩이타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길꼬냉이, 하루 일을 끝내고 마을에 돌아와 놀면서 부르는 뒷풀이 등이다. 노랫가락, 노랫말 모두 흥겹고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어 힘든 노동을 노래로 풀고, 달래는 동안 어느새 하루 일을, 한해 일을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부녀자들의 일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기도 하다.

이농 현상으로 전남지방은 물론 농촌에서 농요도 그 맥이 끊어질 단계에 놓여있는데, 특히 부녀농요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데 해남 우수영만이 부녀농요가 옛가락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고흥 한적(閑笛) 들노래(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0호/예능보유자 박반심/전남 고흥군 도독면 용동리)

전남의 들노래는 음악적 특성과 가창법으로 보아 크게 세 개의 분포권으로 나뉘는데 고흥지방은 섬진강 유역에서 전남 동부지역 해안지대까지 이어지는 산아지타령권으로 분류된다. 이 지방에서는 모찌기와 모심기를 여성들이 전담했다.

한적 들노래는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논매기노래, 질가락 등 들노래의 구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전남 동남부지역 들노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들노래에는 설소리꾼이 등장하는데 가락과 사설을 매겨주면서 노래를 인도하고, 들 일의 흥도 돋우어 노동력을 배가 시킨다. 설소리꾼이 독창으로 매기고 일하는 농군들이 제창으로 받는 선후창형식으로 부른다. 모찌기와 모심기노래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데 들노래의 설소리는 박반심이 매긴다. 박반심은 모찌기노래와 모심기노래의 설소리꾼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서 태어나 1961년 한적으로 혼입해 온, 전통적인 농부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노래의 설소리를 익혀 한적 들노래의 설소리꾼으로 맥을 잇고 있다. 뒤의 논매기노래와 질가락은 남자들이 남자 설소리꾼과 함께 부르고 있어, 남녀로 나누어 들노래의 가락을 매기는 것도 고흥 한적 들노래가 갖는 특성 중의 하나다.

한적 들노래는 산아지타령이나 상사소리 등 육자배기 음계를 지닌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방아타령 등 육자배기조와 메나리조가 융합된 노래로, 음악학

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3) 장산도(張山島) 들노래(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1호/예능보유자 강부자/전남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장산도 들노래는 신안군 장산면에서 여자들이 들일을 하면서 부른 민요로 그 가락과 내용이 다른 지방과 좀 다르다. 구성은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논매기노래, 길꼬내기로 다른 지방과 비슷하지만 가락이 섬지방인 진도 들노래나 육지의 남도노동요(함평)와는 전혀 다른 것이 특이하다. 이 들노래는 섬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자들이 들일을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부녀자들의 고달픈 삶과 한이 서려 있는 가락이 여성스럽고 멋스러우면서 박진감이 있고 경쾌하다. 우리 민족의 삶이 담겨있는 민요로, 섬이다 보니 다른 지역 민요와 섞이지 않은 토속적인 가락과 내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4) 남도 들노래(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예능보유자 조공례/전남 진도군)

진도군 지산면 인지마을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들노래로, 진도들노래로 시작되었다. 모내기, 김매기 등 주로 논 일을 하면서 부르는 농요로, 가락이 다양하고 흥겨우며 뒷소리를 길게 빼면서 시종일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197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그후 ‘남도들노래’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기능보유자 조공례는 상여소리의 설소리꾼으로 더 알려진 진도 토박이로 일곱 살 때 동생을 업고 못자리에 나갔다가 처음 들노래, 즉 상사소리(논에 모를 심으며 부르는 노래)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소리꾼으로 살다 갔다. 그의 소리 스승은 아버지 조정오 옹으로 ‘방안에서 창호문을 통해’ 배운 소리로, 열네살 쯤 되어 들노래나 동맹이 타령의 설소리를 매길 수 있을 만큼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딸 박동매가 남도들노래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타고난 소리꾼 집안 내력도 무시할 수 없는가 보다.

조공례의 윗입술 양쪽에는 뿔판이 붙어있었다. 노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

편에게 입술까지 찢기기도 한 설화까지 지닌, 천부적인 소리꾼이었다. 칼칼 하면서도 맑은 그의 소리에는 잡념이 끼어들지 않았으며 혼신을 다한 열정과 영혼의 속삭임이 배어났다. 민중가수 정세현, 국악인 김용우 등이 그의 문하에서 소리공부를 했고, 그가 세상을 뜬 뒤 이영자(1943년생), 박동매(1960년생·조공례의 딸)가 예능보유자로 인정(2001. 11. 30.)받아 그 맥을 잇고 있다.

- 5) 남도잡가(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4호/예능보유자 강송대/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 판소리¹⁰⁰⁾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계보에 따라 전라도 동북지역의 동편제와 전라도 서남지역의 서편제,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고제로 나뉜다. 판소리는 본래 열두마당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마당이 남아있다. 판소리란 한 사람의 소리하는 사람(唱者)과 한 사람의 북치는 사람(鼓手), 그리고 판을 이루는 구경꾼(觀客)으로 이루어지는 무대예술로서 소리하는 사람은 소리와 대사(아니리), 몸짓(발림)을 하여, 고수는 소리자의 가락에 따라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며 신명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 1) 남도판소리(시도무형문화재 제1호/예능보유자 한애순/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남도판소리는 우리 민족에게 잘 어울리는 판소리로 서편제에 속한다. 기능보유자 한애순은 곡성군 옥과면 출신으로 12세때부터 담양군 창평의 박동실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임방울, 박녹주를 두루 사사했다. 한애순은 발성이 가볍고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며 정교하게 짜여있는 서편제의 정통적인 특징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

100) 한국 전통연회는 탈춤과 판소리가 쌍벽을 이룬다. 그 중 판소리는 전라권, 즉 호남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형태를 말한다.

2) 남도창 동편제(시도무형문화재 제9호/예능보유자 박화순/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동편제는 전라도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창법으로 송홍록이 시조이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오음의 하나인 우성(羽聲)의 곡조를 많이 쓰며 목소리를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는 굵고 웅장한 장식음으로 짜여져 있다.

동편제를 전수한 박화순은 임방울의 바디를 충실히 전수한 제자로 천부적으로 임방울의 성량 창법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출생하여 14세때 광주 남동의 권번(券番·기생수업학교)¹⁰¹⁾에 들어가 박동실에게 춘향가, 홍보가 등 임방울 바디체를 배우면서 국극단 활동을 했다. 임방울로부터 화선(花仙)이라는 예명을 지어 받은 그는 훗날 임방울 판소리체를 본격 재수업했고 1992년에는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가져 그의 예술세계를 확고히 다졌다. 50여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노력과로 발림과 연기력이 매우 풍부한 정통 국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3) 판소리 춘향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예능보유자 오정숙/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오정숙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마당을 완창해 한국판소리사에 서 명창으로 통한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판소리의 기초를 닦

101) 기생들에게 창과 악기를 훈련시키고 동시에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기생들의 조합인 예기(藝妓)조합이 1920년 광주 남동 21번지 초가에 동지를 틀었다. 비록 전국 각지의 예인, 기녀, 한량들이 머물며 생활했지만 뛰어난 춤솜씨를 자랑하는 기녀들이 모여 들면서 전통무용은 물론 여러 가지 춤놀이와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광주권번에서 춤을 지도받던 사람들로, 김매실 박흥매 박녹주 박봉선 김연주 이향 박묘란 박화선 안채봉 등이 바로 권번에서 소리와 춤을 배워 훗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키워진 것을 보면 광주권번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할 가치가 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궁중무용이나 전통무용이 전승된 것도 대부분 권번을 통해서였다. 광주권번은 태평양전쟁으로 1944년 3월에 폐쇄하였다가 해방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1951년에 광주국악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순수한 국악인양성소로 탈바꿈한 것도 그렇다. 이 국악원에서 수업받고 명창이 된 사람은 박초월 김소희 한애순 안채봉 박춘선 박화선 등이다.

있고 국악인 김연수 선생의 수제자로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를 모두 완창했다.

<참고>

이 밖에 전라권에서 판소리의 각 마당별로 현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여성 국악인들은 다음과 같다.

- 안채봉(강산제¹⁰², 시도무형문화재 6호/)
- 이임례(심청가 강산제, " 14호)
- 정춘실(춘향가, " 15호)
- 박정례(흥보가 동편제, " 29호)
- 방야순(춘향가 동초제¹⁰³, " 16호)
- 유영애(심청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 이옥희(심청가, " 2-2호)
- 성준숙(적벽가, " 2-10호)
- 정병옥(적벽가, " 2-8호)
- 김유앵(춘향가, " 2-6호)
- 조소녀(춘향가, " 2-9호)
- 최난수(춘향가, " 2-5호)
- 최채선(춘향가, " 2-7호)
- 강광례(흥보가, " 2-11호)
- 라모녀(부안농악 상쇠, " 7-1호)

102) 강산제는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 중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여 탄생된 소리로, 동편제의 특징을 많이 띠고 있으며 특히 계면소리가 많고, 소리의 격조도 순탄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조선후기 8명창의 하나인 박유전이 창제한 강산제 판소리는 전남 목포와 보성, 전북의 남원 등지에서 불리워 왔다.

103) 동초제 춘향가는 고(故) 동초 김연수선생이 새롭게 기존의 판소리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사설의 폭떨어짐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오늘날 판소리꾼에게 가장 선호되는 소리세계이다. 또한 동초제 춘향가는 김연수 명창에 의해 시작되어 오정숙이란 당대의 명창을 통해 꽃을 피우면서 광주에서는 방야순 명창이 유일하게 그 맥을 전승하고 있다.

3) 소리춤꾼 안채봉

남도판소리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춤꾼 안채봉(安彩鳳 · 1924~1999)은 우리나라 여류명창으로, 소리춤의 제1인자로 꼽힌다. 특히 그의 소고춤은 따라올 자 없다고 할 정도의 평가도 받았다.

전남 나주에서 대대로 가무악에 재주를 보이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흔히 들 광주권번에서 박동실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기(藝妓)로 양육되었다고 표현한다. 19세때 일본으로 건너가 이화중선(李花仲仙) 문하에 들어 소리를 더 발전시켰다. 판소리 다섯바탕을 모두 아는 명창으로 유명한 그는 판소리 외에도 가야금병창, 살풀이, 소고춤 등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서편제 뿐 아니라 동편제도 한다.

임방울, 정웅민 등 다양한 스승들의 기예를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경지를 확립한 안채봉의 소고춤은 흥겹다. 진양으로 느리게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로 빨라지다가 다시 진양으로 끝맺는 그의 소고춤에서 그는 수건을 들었을 때는 새침하고 얹전한 춤꾼이요, 소고를 들었을 때는 놀이의 흥겨움을 관객도 함께 즐기게 하는, 춤의 장단도 최대한 활용하여 재미를 가미하는 춤꾼으로 통했다.

4) 1인 창무극 일인자(一人者), 공옥진¹⁰⁴⁾

병신춤,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옥진(孔玉振 · 1931~)일 것이다. 고통스런 삶의 몸짓으로 관객과 함께 웃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쏟기도 하는 1인 창무극의 명인이라고 공옥진을 표현할 수 있겠다.

공옥진은 남도무형문화재 1호인 명창 공대일의 둘째딸로, 전남 승주군 송광면 추동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공창식 역시 협률사¹⁰⁵⁾ 단원을 지

104) 창무극이란 우리의 전통예술인 소리, 춤, 극이 하나로 엮어진 전통극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옥진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애매하기도 하다. 우리에게 공옥진은 병신춤의 대가, 또 최근에는 동물춤에 관심도 보여 주었지만 여기서는 창무극을 보다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연극으로 분류했다.

105) 조선후기 고종 황제 광무 6년(1902년 12월) 창악인들이 조직한 예술단체로 1906년 폐지되었다가, 1907년 광주로 낙향한 국악인들이 부활시켜 '광주협률사'로 다시 조

낸 남도명창이다. 공옥진을 흔히 동물춤이나 배꼽춤이나 추는 이로 허술하게 보는 것은 그의 진면목을 볼 줄 모르는 소치다. 춤도 하고, 소리도 하고, 재담과 연기도 하는 그의 알짜 모습은 본디 소리꾼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열 살 때 최승희로부터 무용을 배웠고, 심청가 홍보가는 아버지 공대일과 명창 김연수로부터, 수궁가는 임방울로부터 배웠다.

2002년에는 ‘문화방송 명예의 전당’에 무대예술인으로 헌액되기도 한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은 그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한 전남 영광에서 지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못한 것, 저 세상에서 마무리 짓자고 마음을 추스린다”는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가 선 무대에서의 몸짓은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밑바닥 삶을 몸소 체험했기에 그 한과 애환이 몸짓으로 품어나오고, 해학과 풍자로 어우러져 못 대중을 사로잡는 힘으로 전달된다. 진실하고 절실한 삶을 서러운 몸짓으로 이 세상 못난 것들을 껴안아 낸 그의 예술은, 아무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만이 연출해내는 독보적인 연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예술가, 예인을 넘어선, 이 시대 장인(匠人)으로 예우해야 마땅하다.

전남 영광군은 1995년부터 공옥진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인간문화재 지정에 창무극 분야가 없다’ ‘완창 기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여 거듭 부결했다. 공옥진은 또한 “문화재되려고 완창하기는 싫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5) 가극 ‘열세집’(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항일저항운동이 가극 ‘열세집’으로 표출됐다. 광주수피아여학교 이성은 선생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가극 ‘열세집’은 정확한 시기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1923년께 당시 수피아 여학생들이 반일(反日)사상을 드러내 놓고 표현할 수 없음을 암시적으로 연출, 공연함으로써 표면화됐다.¹⁰⁶⁾

열세집이란 13개의 도를 지칭한 것. 머리를 풀고 소복한 수피아여학교 학

직됐다.

106) 광주수피아여고, “수피아 90년사”(1998) 참조

생 13명이 13개 도의 명칭이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르고 각 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틀 속에 촛불을 켜서 손에 들고 잔잔한 음악에 맞추어 무대로 들어선다. 중앙에는 13도의 틀이 모여져서 하나로 완성될 금강산 대한민국 모형의 틀이 있고 이 틀은 단심줄로 연결되어 있다. 13명의 학생이 각 도의 모양으로 된 모형 틀을 가지고 서로 노래와 율동을 지속하다가 각 도의 특유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면 중앙에 있는 전체 대한민국 틀에 갖다 놓는다. 13개 도를 하나하나 노래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완성해간다. 마지막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가 완성되면 관중석의 불은 꺼지고 가운데 지도를 이룬 땅덩어리는 오색찬란한 촛불이 켜지고, 단심줄을 잡아당기면 서서히 공중에 솟아 올라 관중들의 감격과 애국심은 극에 달하게 된다.

‘열세집’은 항일투쟁극으로 민족의 얼과 울분이 담겨져 있다. 장면이 의도하는 상징성 때문에 나라 잃은 울분이 절정에 이르면 관객과 공연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덩더쿵 춤을 추는데 그 때 불렀던 노래로 ‘열세집’과 ‘단심줄’이 지금도 구전(口傳)된다.

일제시대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의 항일 투혼은(앞서 서술했던 백청단 은지환 사건 포함)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당시 여느 여학도들과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정신으로 기록되고, 그들의 활동 또한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광주수피아여고(1998), “수피아90년사”
- 광주시사편찬위원회(1993), “광주시사 1-3권”, 광주광역시
- 광주YWCA(1992), “광주YWCA 70년사”
- 광주일보사, 월간 “예향”
- 김석학 외(1975), “광복 30년”, 전남일보사
- 김진명(1995), “굴레 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 나승만·고혜경 공저(1995),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 남도민요기행”, 문예공론사
- 목포정명여고(2002), “정명100년사”
- 박석분·박은봉(1994), “인물여성사”, 새날
- 박선희(1994), “광주1백년 1·2·3”, 금호문화
- 박선희(2003), “무등산”, 다지리
- 백춘성(1996), “천국에서 만남시다”,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여성신문사편집부(2000), “이야기여성사 1·2”, 여성신문사
- 이배용 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 이태호(1998),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여성신문사
-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1998), “호남문화연구 제26집”
- 전남여자중고등학교(1957), “창립30년사”
- 전라남도(2003), “전남여성100년”
- 전라남도(1993), “전라남도지 1-10권”
-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1985), “한국개화 여성열전”, 정음사
- 한국여성연구소여성사연구실(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 한국역사연구회(2002),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 한국현대사료연구소(1992),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아카데미
- 인터넷 홈페이지-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전라북도청,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 전라남북도 관내 시·군청



강원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493
2. 무형문화유산	526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죽헌 - 이광노가옥 - 왕녀복란태실비 - 용산리 태실 - 숙정, 숙휘공주 태실 - 횡성 육절녀 - 영경묘 - 민충사 - 횡성 김순이 여사묘 	보물 제175호 강원도유형지정문화재 제50호 강원도유형지정문화재 제66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5호 강원도기념물 제43호 강원도문화재자료 제27호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장 안채 -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자료 - 삼척 대리이 너와집 - 양양 이두형가옥 	중요민속자료 제5호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1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 백전리 물레방아 	강원도지정민속자료 제6호
		여성 교육·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희순 의적비 및 묘소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 죽서루 - 경포대 - 청평사 3층석탑 - 태백 구문소 - 삼척 용바위 - 봉산서재 판관대 - 청심대와 기녀청심 	보물 제213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호 강원도문화재자료 제8호 천연기념물 제417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대산 중창권선문 - 감추사 - 삼척 해신당 	국보 제292호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내외분옷 -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유물 	중요민속자료 제219호 민속자료 제4호 보물 제1182호 보물 제793호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안공주관련유물 - 이씨분재기 - 허난설헌 목판초간본 - 신사임당 시문 - 죽서시집 - 김금원 호동서락기 - 김경춘의 호동서락기발문 - 윤희순 향일의병가등 시문 - 임윤지당 유고 	보물 제1220호 강원유형문화재 제9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24호
		여성의 예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 초충도병 - 매창매화도 및 옥산국화도첩 - 신사임당 초서병품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2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41호
		여성의 생산 도구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자수보자기 	
		음식 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선주-임용순 - 강릉 사천과줄(갈골산자)-최봉석 	전통식품명인 제24호 전통식품명인 제2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 - 영등놀이 - 속초 영등할머니 신앙 - 정선지계춤 물박장단놀이 	무형문화재 제13호
		행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강원도내 가장 대표적인 여성인물 유적지로는 사임당의 생가인 오죽헌과 허난설헌의 생가인 이광노 가옥이 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여성예술가로서 그 삶과 기록들이 비교적 많은 여성인물이다. 조선시대 공주의 태실을 통해 왕실의 통과 의례 단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임진왜란시 진주목사였던 서예원의 부인 이씨 등 일가족이 남편을 따라 순절한 황성 육절려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황성의 김순이 묘 등이 있다.

1) 오죽헌(보물 제175호/강릉시 죽헌동201)

- 신사임당 생가

오죽헌(烏竹軒)은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 태어난 곳이며 또한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글을 익히고 바느질과 자수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으며 특히 시문과 그림이 뛰어나 전해지는 작품들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매년 실시하는 사임당상이¹⁰⁷⁾ 있으며 역대 사임당 수상자 모임인 모현회, 강릉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사임당 21등의 단체가 있다.

사임당에 대한 인물평가는 봉건사회가 최고의 덕목으로 평가하는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부각되어 있는 한편 여성예술가로서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사임당에 대해 보다 전인간적인 평가와 예술가로서의 삶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107) 강원도에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는 별도로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사임당상을 제정, 2004년 현재 30회 수상자를 선발했다.

오죽헌은 강릉 유현(儒賢)인 최치운(崔致雲)(1390~1440)이 지었으며 아들 응현(應賢)이 사위 이사온(李思溫)에게 물려주고 이사온은 다시 그의 사위 신명화(申命和)(사임당의 부친)에게, 신명화는 그의 사위 권화(權和)에게 물려 주면서 그 후손(後孫)들이 관리하여 왔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별당 사랑채로 우리나라 주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익공(翼工)양식의 건축물로 굽직한 장대석 기단에 자연석 초석을 두고 각 기둥 위에 둥근 도리(보와 직각 방향으로 걸어 서까래를 받치는 수평재)를 얹었고 지붕은 겹처마이다. 정면에서 왼쪽 2칸은 대청이며 오른쪽 1칸은 뒤쪽 반간에 툇마루가 있는 온돌방이다.

1975년 오죽헌 정화사업(淨化事業)으로 문성사(文成祠), 기념관 등이 건립되어 현재와 같은 면모를 갖추고 있다.

2) 이광노 가옥(강원도지정 문화재자료 제59호/ 강릉시 초당동)

- 허난설헌 생가 추정

이 가옥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시인인 허난설헌(1563-1589)이 태어난 집터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사실과 건립 연대는 미상이다. 안채와 사랑채, 꽃간채가 口자 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를 둘러싼 담이 있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여 남자들은 솥을 대문으로, 여자들은 우물간과 방앗간 옆의 헐문으로 출입하였다. 또한 사랑채 옆에는 사랑마당과 구분하는 내외 담을 쌓아서 출입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사랑채는 넓은 대청과 방들로 구성되며 전면에 툇간 마루가 놓여 있다. 팔작기와 지붕의 높은 처마를 갖춘 장여(도리를 받친 모가진 나무)에 소로 받침이 있는 구조로 전면 기둥은 둥글게 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집으로 넓은 부엌과 방, 대청마루가 있다. 사랑마당, 행랑마당, 뒷마당을 담으로 넓게 나누어 놓아 한국의 아름다운 조경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주변의 소나무 숲은 전통적인 한옥의 멋을 더해 주고 있다. 매년 허균 난설헌 선양사업회(이사장 박양자)가 이 곳에서 허균 허난설헌 문화제를 열고 있다.

3) 왕녀 복란 태실비(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66호/원주시 태장동)

이 비는 조선 선종 17년(1486)에 세운 공주 복란의 태실비이다. 조선시대에는 공주나 왕자를 낳게 되면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명산을 찾아 자리를 잡고 그곳에 태를 묻고 태가 묻힌 곳을 태봉이라 불렀다. 이 비는 비대, 비신, 비두가 일석으로 되어 있고 비두는 연엽 1개를 썬 것처럼 조각되어 있다. 이 마을은 태가 묻혀 있다 하여 태장으로 불리다가 1955년 태장동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내에는 이밖에도 춘천의 용산리 태실과 원주의 숙정 숙휘공주 태실등이 있다.

4) 용산리 태실(비지정 문화재/ 춘천시 신북읍)

태실 터는 민묘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명문은 용정 11년인 영조 9년(1733년) 3월 7일에 태어 난 용주의 태를 그 해 5월 24일에 묻었다고 새겨 놓았다.

태실의 주인공은 화협옹주로 추측되는데 선원록에는 영조의 왕녀가 12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출생년도와 아기 이름을 알 수 없고 태봉등록에도 용주의 아기 이름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중록에 “화협옹주는 계축생인데...”라 하여 용산리 태실은 영조의 7녀로 1733년생인 화협옹주로 추측된다.

5) 숙정, 숙휘공주 태실(비지정문화재/원주시 흥업면)

운산태실로 알려진 이 태실은 흥업면 대안 3리에서 노루재로 넘어가는 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오뚝한 작은 봉우리에 있다. 이 소봉은 오봉산(598m)에서 이어지는 산맥의 하나인 554고지에서 이어지는 곳으로 봉우리 정상에 2기의 태실비가 있다. 태실비의 비문으로 보아 이 태실의 주인은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1642년(인조 20)출생한 것으로 봐 이 태실비는 출생 당시가 아닌 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숙정공주 태실비 후면의 기록으로 볼 때 함풍5년인 철종 6년(1855)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6) 횡성 육절려(六節閭;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65호/횡성군 공근면)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산11번지에 있는 육절려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진주목사 서예원(徐禮元)과 그의 일가족 등 여섯 사람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려각이다. 1981년 6월 30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되었다. 서예원의 본관은 이천으로, 무과(武科)에 등과(登科)하여 나주판관을 거쳐 보성, 광산, 김해, 진주의 목사와 부사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전사하였다. 풍신수길의 이끄는 왜적이 진주성에 이르자, 서예원 목사가 이끄는 관군과 성민들은 진주성을 굳게 잡고 왜적과 대항하여 싸웠으나 부족한 군사와 장비로는 많은 적들을 대항할 수 없었다. 성을 사수하려던 서예원 목사는 전사하였고, 남편의 죽음을 본 부인 이씨(李氏)도 맨손으로 왜적에 대항하다 순국하였다. 뒤를 이어 장남 서계성(徐繼聖)과 며느리 노씨(盧氏) 등 일가족과 노비 김성길(金聖吉) 등 6명이 죽음을 택하였다. 이같은 충정어린 순절은 일본에 불모로 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알려졌다.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에 여섯 사람의 충의(忠義)를 기리는 여섯개의 위패(位牌)가 모셔진 육절려가 세워져 서예원 목사의 충절과 열녀(烈女)인 부인 등 고결한 일가의 유덕과 노비였던 김씨 등의 충성심을 기리게 되었다. 육절려에는 모두 5개의 정려각판(旌閭刻板)이 걸려 있다. 이 정려각은 1983년에 재건한 건물이다.

임진왜란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전란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여성들은 더욱 혹독한 삶일 수 밖에 없었다. 가장을 잃거나 전장에 낸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성 착취의 대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지아비 없는 세상을 견뎌내기 힘들었고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삶을 종결 지었고 서예원의 가족처럼 일가족이 함께 죽음을 택함으로써 닥쳐올 고난의 삶을 비껴 갔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 여성들이 전쟁에서 겪는 참혹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봉건사회에서 여성들은 효부, 열녀가 여성의 큰 덕목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희생적 삶을 살아간 여성들의 기록은 무수히 많다. 도내에 있는

효부 열녀 기록은 별첨자료와 같다.

<참고>

- 강원지역의 정려유적 (1945년 이전)

지역	유적	소재지	건립년도
춘천	파평윤씨 열녀문	춘천시 서면 현암리	조선시대 1797
	함평이씨 열녀문	춘천시 남면 발산2리	조선시대 1763
	강릉최씨 열녀문	춘천시 신동면 중3리	조선시대
	김해김씨 효부문	춘천시 남산면 창촌2리	조선시대 1832
	고령신씨 열녀문	춘천시 남면 후동1리	조선시대 1854
원주	열녀 목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조선시대 1887
	정선전씨 열녀비	원주시 신림면 구학1리	1920
	청송심씨 정려지	원주시 호저면 무장2리	조선시대
강릉	김해김씨 효부지려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조선시대
	밀성박씨 삼강포정지각	강릉시 월호평동	조선시대
	안동권씨 수정각	강릉시 대전동	조선시대(선조)
	안동김씨 삼세삼효이열지려	강릉시 교2동	조선시대 1807
	열녀 삼척김씨의 비	강릉시 교동	조선시대
	열녀 평택임씨 지려	강릉시 사천면 진2리	조선시대
	영산신씨 이효일열지각	강릉시 대전동	조선시대
	유인 수원백씨 효열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조선시대
	장진문의 처 김씨 지려	강릉시 저동	조선시대 1544
	강릉김씨 정려각	강릉시 대전동	조선시대 1517
	정선전씨 효열지려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조선시대
	효부 강릉최씨지려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조선시대
	효자 권은상, 열부 김씨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944
	영해이씨 이세육효지려	강릉시 교동	조선시대
동해	남양홍씨 열녀각	동해시 채운동	조선시대 1876
	삼척김씨 열녀각	동해시 달방동	조선시대
	삼척김씨 열녀문	동해시 심곡동	조선시대 1854
	연일정씨 열녀각	동해시 채운동	조선시대 선조
	옥천이씨 열녀각	동해시 천곡동	조선시대 1891
	울진장씨 열녀각	동해시 미로동	조선시대 1931
	열녀 최씨지비	동해시 송정동	조선시대 선조
	풍기진씨 효열각	동해시 채운동	조선시대 1890
	삼척심씨 열녀문	동해시 북삼동	조선시대 1891
	남양홍씨 열녀각	동해시 북삼동	조선시대 1900
	남양홍씨 열녀문	동해시 대구동	조선시대 1839

(계 속)

동해	삼척김씨 열녀각	동해시 부곡동	1933
	옥천이씨 열녀각	동해시 천곡동	조선시대 1891
삼척	최봉래 효열각	삼척시 근덕면 옥계리	조선시대 1887
	삼척김씨 효부각	삼척시 원덕읍 이천2리	조선시대 1629
	삼척김씨 열녀각	삼척시 근덕면 옥계리	조선시대 1854
	죽산박씨 효열각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조선시대 고종
	양세 효열각	삼척시 근덕면 옥계리	조선시대 1877
	삼척심씨 열녀각	삼척시 근덕면 옥계리	조선시대 1855
	경주김씨 열녀각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조선시대 1867
태백	남양홍씨 열녀각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조선시대 1926
	열녀 정씨	동해시 화전동	
고성	열녀김씨 지려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조선시대
	영월엄씨지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조선시대 1928
양구	옥천전씨 효부비	양구군 남면 용하리	1930
양양	제주고씨 열녀각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조선시대 순조
	황성진씨 열녀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조선시대 고종
	평산신씨 열녀각	양양군 서면장승리	조선시대
	정선전씨 열녀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1932
영월	연안김씨 열녀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조선시대
	온양방씨 열녀각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조선시대 1873
	평창이씨 열녀각	영월군 영월읍 삼옥2리	조선시대 1871
	의성김씨 효부각	영월군 북면 공기2리	조선시대 1728
	경주이씨 효부각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조선시대 1867
	연일정씨 효부각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조선시대
	창녕김씨 효부각	영월군 중동면 연상1리	1940
	남원양씨 효부각	영월군 상동읍 내덕2리	1929
인제	삼척김씨 효부각	영월군 남면 창원리	1943
	효행 이영순 정려각	인제군 기린면 현5리	조선시대 1829
	열녀 진주유씨 정려각	인제군 남면 정자리	1925
	열녀 영일정씨 정려각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1925
	파평윤씨 정려각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1926
	열녀 이홍열 정려각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930
	양천허씨 정려각	인제군 남면 원대리	조선시대
	열녀 평창이씨 효열비	인제군 기린면 북3리	1943
인제	열녀 전주이씨 정려각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1900
	열녀 김해김씨 정려각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1920
	효열부 강릉김씨 정려각	인제군 상남면 미산3리	1908
	효열부 순천김씨 정려각	인제군 기린면 북3리	1932
	열녀 삼척김씨 정려각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1638
인제	열녀 전주김씨 정려각	인제읍 귀둔1리	1931

(계 속)

평창	정씨 효열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1리	1925
	김씨 열녀비	평창군 대화면 대화5리	조선시대
정선	남양홍씨 정려각	정선군 동면 석곡리	조선시대
	밀양박씨 정려각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조선시대
	전주이씨 정려각	정선군 남면 유평리	조선시대
	강릉김씨 정려각	정선군 북면 남평리	조선시대
	정선전씨 효열부 행장비	정선군 북면 남평리	조선시대
	안동김씨 열녀각	정선군 임계면 용산1리	1884
	정재선 삼효각	정선군 동면 석곡2리	1938
	밀양박씨 정려각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1907
	효열부 정선전씨 포창문	정선군 남면 유평리	
횡성	경주이씨 정려각	횡성군 서원면 창촌2리	1929
	경주김씨 효부정문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	1814
	강릉김씨 정려문	횡성군 갑천면 포동1리	1832
	원주이씨 효부비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원주원씨 열녀문지	횡성군 횡성읍 가담2리	조선시대 순조
	원주원씨 열녀정려문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813
	열녀 김복이 정문(二美門)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1938
홍천	박씨 열녀각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완산이씨 열녀각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2리	조선시대 인조
	전주이씨 열녀각	홍천군 내면 광원2리	1941년
	전주유씨 열녀각	홍천군 노천2리 웃노재 마을	

7) 영경묘(永慶墓;강원도기념물 제43호/삼척시 미로면)

이 곳은 조선 태조의 5대 조모이며 이양무의 부인이고 목조(穆祖)의 어머니가 되는 이씨(李氏) 묘소이다. 1899년(고종36년)에 묘수를 수축하고 제각(祭閣)과 비각(碑閣)을 건축하였다. 이씨 부인은 부군과 함께 전라도 전주에 거주하였으나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별세하였다. 아들인 목조가 다시 함경도로 이사감으로써 수 백년 동안 실묘(失墓)됐었다. 5대손인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후 태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실묘된 이양무의 묘와 이씨의 묘소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여 이양무의 묘와 함께 이씨 묘를 찾았으나 그 진위가 확실치 않아 고심하다가 고종 때에 이르러 이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곳은 이양무의 묘인 준경묘와 함 명당으로

이 명당에 묘를 써서 5대손인 태조가 탄생하여 임금 되었다는 조선의 건국 설화 한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다.

8) 민충사(愍忠祠;강원도 문화재자료27호/영월군 영월읍)

이 사당은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1457년(세조3년)에 죽음을 당하자, 단종을 따라 강물에 투신하여 죽은 종인(從人)과 시녀(侍女)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이를 슬프게 여겨 이 곳을 낙화암이라 부르고 단(壇)을 설치하여 그 넋을 위로하였다. 그 후 1742년(영조18) 이 곳에 민충사를 건립하여 단종의 시녀와 종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1749년(영조25)에 부사 김응복이 사당을 개수하고 이름을 민충사라 불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중건과 보수가 있었다.

현재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크게 파괴된 것을 1956년 중수하여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다. 매년 한식과 음력 10월24일 단종의 기신제(忌辰祭)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단종이 시해됨에 따라 그를 따라죽은 종인과 시녀를 기념하는 이 유적은 단종묘와 함께 단종 애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뿐 특별히 부각되는 유적지는 아니다. 부여 낙화암을 연상시키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왕과 운명을 함께한 왕의 시녀의 삶의 단면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9) 횡성 김순이 여사묘(비지정문화재/횡성군 갑천면)

도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 가운데 드물게 그 묘소가 남아 있는 김순이 여사묘는 그 활동이 활발히 조명되고 일선양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윤희순과 함께 도내 여성 항일활동을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여성인물 유적이다. 김순이의 적극적인 항일활동은 도내 여성 인물사에서 그다지 부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좀더 선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서민층 여성들의 항일 활동 기록의 보완과 강원지역 여성의 기질 가운데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묘는 실묘될 지경에 이른 묘를 지역주민들이 1990년 새로 안장한 것으로 비문에 김순이의 행적과 묘를 새로 조성한 동기가 담겨있다.

‘김순이여사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 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에서 박영화 씨와 결혼하여 황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로 생활하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 많은 삶을 마치셨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일명 황소아주머니)께서는 뜻한바 있어 당시 천대받던 주막을 경영하면서 푼푼이 벌은 돈으로 애국지사이신 갑천면 화전리 최양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자금 모금에도 협력하셨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3·1운동 때에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 장소로 제공하여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의사가 순국하시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황성 장날 독립만세사건 때에는 일경에 쫓겨 장터 술집에 숨어 든 동지를 규합, 군중을 진두지휘하다 투옥됨으로서 황성 3·1독립만세운동을 성취시킨 전설적인 여인이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챙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던 바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군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안장하고 여사의 드높은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1990년 4월 27일 황성군민 일동>

나. 여성생활유적지

강원도는 산림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산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삼척 신리와 대이리 너와집은 산간지역 대표적 주택문화로써 그 곳에서 생활을 유지해온 산간지역 여성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 기록자료가 많지 않은 서민 여성들의 삶을 생활 공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 강원도 지역 여성들의 삶을 기록해나가는 자료와 교

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반가의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강릉 선교장이 있다. 강릉 선교장은 도내 대표적인 종가 문화가 전승되고 일반인들에게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선교장 안채(중요민속자료 5호/강릉시 운정동)

이 가옥은 조선(朝鮮) 후기(後期)의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代孫)인 무향(茂鄉) 이내번(李乃蕃)이 18세기 초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건축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동별당(東別堂), 정자(亭子)를 갖추고 있다. ‘선교장(船橋莊)’이란 이름은 이 마을의 옛이름이 배다리마을 ‘선교리(船橋里)’이어서 이를 따라 지은 것이라 한다. 안채는 ㄷ자형으로 배치(配置)되어 동별당과 연결되었다. 사랑채는 사랑마당 북쪽에 있으며 순조(純祖) 15년(1815) 무향(茂鄉)의 손(孫)인 오은처사(鰲隱處事) 이후가 건립하였는데 ‘열화당(悅話堂)’이란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중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情話)”에서 따왔다고 한다. 서별당(西別堂)과 행랑채의 일부는 없어졌다.

이곳은 바깥마당 남쪽에 넓은 연못이 있고 그곳에 정자가 일품이다. 활래정(活來亭)이라 이름한 ㄱ자형 평면의 정자는 순조 16년(1816) 이후에 건립하였고 이후의 증손(曾孫)인 이근우(李根宇)가 중건(重建)하였다. 활래정은 다도를 즐겼던 장소로 정자안에 차실이 있고 다구들이 전해져 조선말 차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야트막한 산기슭을 배경으로 독립된 건물들을 적당히 배치하고 각 건물의 구조도 허식이 없이 소박하게 처리했다. 연당에 건립된 활래정과 어울려 조선시대 양반가의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가옥이다.

선교장은 전주 이씨 종가로서 도내 대표적인 종가의 생활문화를 살펴볼수 있는 곳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선교장의 8대 종부인 성기희씨는¹⁰⁸⁾ 시어머

108) 2001년 작고. 관동대 가정교육과 교수 역임.

니께서 아들의 백일에 수십가마의 쌀로 만든 백설기를 거리에서 백사람에게 나누어주었던 기억 등 종가의 생활문화를 증언하고 있다 (이연자 著 ‘종가이야기’ 2001년, 켄처라인) 이 가옥은 강릉지역 반가의 의식주 문화를 계승·보급해왔으며 현재 후손들이 생활하며 종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 관람과 함께 민속체험 한옥숙박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자료(중요민속자료 제33호/삼척시 도계읍)

3) 삼척 대이리 너와집(중요민속자료 제221호/삼척시 도계읍)

태백산맥(太白山脈)에는 목재(木材)를 중요자재로 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집들이 있다. 귀틀집도 그 중의 하나이며 지붕에 굴피를 잇거나 너와를 이은 것들도 그 중의 한 유형이 된다. 신리(新里)에는 1970년대초만 하여도 이런 여러 유형의 집들이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개조(改造)되고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된 집만이 예스러운 모습을 지닌 채로 남아있다. 이중 국가에서 매입한 가옥(家屋) 2동(棟)은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너와집이라 통칭되는 것으로 귀틀집과 다르다. 조립형태로 곧은 적송(赤松)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 적절히 사용하였다.

두 집은 그 평면구성이 거의 비슷한데 안동지방(安東地方)에서 까치구멍집이라 속칭되는 유형의 평면과 흡사하다. 이러한 유형은 이 지역이 거의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에 해당하여서 더 북쪽에서는 크게 눈에 띄이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

까치구멍집 평면은 정면이 3간(間)이고 측면이 세줄박이가 보통이다. 대문(大門)은 가운데 외벽(外壁)에 있다. 문을 들어서면 1간(間)넓이의 봉당이 있고, 그 우측엔 부엌이 있는데 반간(半間)쯤 앞쪽으로 확대하여서 바깥에서 보면 그만큼이 돌출되어 있다. 좌측엔 외양간이 있다. 또 작은방에 불뿔 아궁이가 있는데 여기에 가마솥을 걸고 소죽을 끓인다. 외양간과 봉당과의 사이는 여물 주는 구유통이 있어 소가 나올 수 없게 막았다. 소는 바깥벽의 판벽(板

壁)에 빈지들인 문을 열고 나다닌다. 봉당 다음이 마루이다. 마루는 이간통(二間通)에 계속되기도 한다. 우측에 안방이, 좌측에 사랑방이 있다. 세줄박이째의 우측은 옷방이거나 도장방이 되고 좌측은 고방이 되어 세간살이들을 보존한다. 신리의 집도 이 원칙에 따랐으나 중앙의 마루를 한칸만 하고 다음에 방이 들어앉았다. 이 방의 좌우에는 원책에 따라 방이 있다. 신리의 큰집에서는 좌측방 아래에도 작은 마루가 있고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서쪽으로 나가는 문을 내었다. 이 합각아래로 출입하게 된 문을 두었다는 데에 학술적인 큰 의미가 있다. 또 이 집의 소유였다고 하는 통방아가 개울가에 있다.

이들 집에는 여러가지 생활도구들이 있어 산간지역 생활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루막, 방우리, 중태, 채독, 김치독, 작두, 베틀, 가마니틀, 설피, 창, 낫, 도끼 등이 있다. 채독은 네모진 바닥에 향아리처럼 배부르게 짜리로 엮고 멩게흙을 바른 것이며, 김치독은 지름 70~80cm 크기의 피나무를 속을 파서 만들고 밑을 받쳐준 구조이다. 산골짜기에서, 오지독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독한 추위에 얼어서 터질 염려가 있어 이 나무김치독이 애용되었다. 설피는 눈이 쌓인 위로 다니기 편리한 것으로 이것을 신고 창으로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대이리 너와집도 조선중기 이후 산촌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이리 너와집은 이종옥씨의 11대 선조가 350여년전 병자호란(1636년)때 경기도 포천에서 이 곳으로 피난해 와 현재 너와집을 지은 것이다. 창건연대가 거의 확실해 현존하는 너와집 중 가장 오래됐다. 보존 상태도 양호. 집 구성은 사랑방과 안방의 중간에 마루와 도장을 두고, 안방 앞에 부엌을 두었다. 마루와 부엌 앞쪽에는 흙바닥으로 된 통로가 있다. 대문간 옆으로 외양간채를 붙여 돌출시켰다.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 안마당이 되고 부엌문 오른쪽에 큰 '널뒤주'가, 왼쪽 벽에 장독대가 있다. 이 안마당은 '한데 부엌'으로 솔이 하나 있고 마당 동쪽에는 낮은 울을 만들었다. 구조와 내부시설을 보면 낮은 토단(土壇)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이 위에 방주(方柱)를 세워 도리와보를 받치고 있다. 기둥 위에는 단면이 방형(方形)인 보를 얹고 그 위에 동자 기둥과 종보 대공으로 지붕틀을 짰다. 벽체는 토벽이나 남쪽벽은 판자벽이다. 내부

지붕 속은 그대로 개방하여 집안에서 나는 연기들을 양측 까치구멍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안방과 사랑방 구석엔느 ‘코클’이 하나씩 있고, 최근까지 부엌 부뚜막과 마루 사이에 ‘화티’와 ‘두두울’이 있었으나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뚜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코클’, ‘시렁’, ‘뒤주’등 예전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설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지붕은 너와로 이었으나 꼬질간 지붕은 굴피로 이었다.

이들 가옥은 강원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산간지역의 여성생활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가옥이므로 강원여성생활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양양 이두형가옥 부엌(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1호/양양군 서면)

지는 지 200년 정도 되었으며, 현재 경주 이씨 종가의 후손이 살고 있다. 강원도의 전형적인 온돌 중심의 겹집 민가형에 마루를 도입한 형태이며, 평면구조는 정(丁)자형이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자연석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서까래는 방사 배열이고 홀처마 위에 3량 구조이다.

본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에 겹도리 팔작지붕이며 겹집이다. 왼쪽 3칸에 방을, 오른쪽 1칸에 부엌을 배치했다. 본채의 오른쪽 앞쪽으로는 우사 1칸, 뒤쪽으로는 방 1칸과 창고 1칸을 두었다. 본채와 부엌을 연결하는 우사의 상부는 수장공간으로 만들었다. 부엌에서는 부엌과 연결된 방으로는 출입할 수 없고 외부에서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 공간은 가옥의 배치형태와 답에 의해 전면, 후면, 측면으로 나뉘는데, 측면으로의 출입을 위하여 외양간 지붕마루 높이와 같게 연결된 맞배지붕의 일각 대문을 설치하였다. 이 대문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였고 남자들은 안채 정면으로 출입하였다.

다. 여성생산활동 유적지

1)정선 백전리 물레방아(강원도지정 민속자료 제6호/정선군 동면)

백전리는 동면 소재지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부락으로

주변은 잣나무가 주 군락을 이루고 소하천을 사이로 정선군과 삼척군 하장면이 한 지역이다. 물레방아는 동면사무소 기점 동남방 약 12km 지점 우측 하천변에 건립되어 있다. 물레방아(방아실) 규모는 약 3평 정도의 목조(木造)로 지붕은 저릅(대마(大麻)의 속대공)을 사용 전형적인 산간 마을 가옥형체를 보존하고 있다. 문헌 등의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지역 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조선 시대말(1890년) 농경 생활을 영위하던 토착민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만들었다하며 현재까지 정선군 동면 백전리와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곳 물레방아에는 약 600여년 전부터 이 고장에 불러 지기 시작한 정선아리랑 노랫말 속에 물레방아와 비유한 인간 삶의 애환을 노래한 구절이 많이 담겨 있다. 물레방아는 우리들의 식생활 문화(食生活 文化)에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생활용구(生活用具)로서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 중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민속학적(民俗學的) 가치와 함께 전통방식의 도정(搗精) 문화를 교육 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이 지역에는 이것을 포함하여 모두 6기 (통물방아 1기 포함)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방아뿐이다 처음에는 백전리와 한소리 주민 20여명이 방아계(契)를 만들어 공동으로 세웠으며 현재도 계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콩(메주)·고추·옥수수 정도를 빻는데 사용되고 있다. 정선군 동면 백전리와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는 화전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척박한 땅에서 쌀한말을 먹어보지 못하고 시집을 간다는 산간 지역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성노동의 현장이다.

라. 여성교육·운동 유적지

1) 윤희순 의적비 및 묘소(비지정문화재/춘천시 남면)

윤희순(尹熙順 1850-1935)은 독립운동가 유홍석의 아들 유제원의 처이다. 위정척사와 의병봉기에 앞장을 섰던 고향 유씨의 며느리로 을미의병과 정미의병 및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하는 남자들을 돕는 한편 의병가를 지어 그

들의 활동을 고취시키고 지역 여성들의 지원을 이끌었다.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상 수상. 충청북도 중원 출생. 1895년 시아버지 유홍석이 춘천과 가평일대에서 의병작전을 전개할 때 ‘안사랑 의병가’, ‘의병군가’, ‘병정가’ 등을 작사, 작곡하여 부르게 해 의병의 사기를 높이고 춘천의병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07~1908년의 의병운동 때에는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 여우천 골짜기에서 여자의병 30여명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아 의병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11년 4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돕다가, 1935년 봉천성 해성현 묘관둔에서 서거하였다. 198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의적비(義蹟碑) 전면에는 ‘안사람 의병가’가, 측면과 후면에 윤희순 여사의 행적을 새겨, 1982년 이상주가 세웠다.

관련유적으로는 묘지와 사적비가 춘천시 남면 관천리에, 윤희순 여사 동상이 춘천시 남면 삼천동 시립도서관에, 기념비가 중국 해성시 묘관촌 북산의 옛 묘자리에 있다.

윤희순은 강원도가 여성 열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중국에서 유해를 봉환해 왔으며 학술 세미나, 추모헌다레, 기념집 발간 등의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에는 중국의 윤희순여사가 만주 요녕성에서 항일학교인 노학당을 설립, 운영한 행적이 밝혀져 이 터에 기념비를 건립했으며 2004년에는 도내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윤희순여사 항일 유적지 탐방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강원도의 여성상이 대부분 소극적이고 순응형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희순은 고난이 닥쳤을 때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 가는 새로운 강원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여성의 열 선양 사업의 하나로 기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윤희순 기념사업회가 여성단체를¹⁰⁹⁾ 중심으로 설립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109) 윤희순 기념사업은 한국여성예림회가 1987년 윤희순을 소재로한 연극작품의 계 공연을 시작으로 동상 건립, 학술대회, 헌다레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3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했다.

마.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역사유적지는 설화를 담고 있는 곳이 많다. 이 설화는 어떻게 발전하고 해석되는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적관점에서 설화가 만들어지고 확대되어 왔을 것이다. 이것을 여성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했던 공간이지만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보조적으로만 남아있는 정자문화나 종교적 공간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의 의미 등이 새롭게 강조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유적들이 많다. 정자와 누각의 여성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 바다의 고요와 풍어를 비는 남녀 합일과 평화의 의식인 해신당 제례가 남근숭배문화로 인식되며 현대에 와서 남근축제로 변질되어가는 설화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삼척 죽서루(보물 213호/삼척시 성내동)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원년(元年)(1275) 학자인 이승휴(李承休)(1224~1300) 선생(先生)이 벼슬에 뜻이 없어 두타산(頭陀山) 아래에 은거(隱居)할 때 창건하였고, 조선(朝鮮) 태종(太宗) 3년(1403) 삼척부사(三陟府使) 김효손(金孝孫)이 중건하였다.

죽서루라는 이름이 생긴 유래는 두가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하나는 죽서루 동쪽에 대나무밭이 있었고 그 대밭 속에 죽장사라는 절이 있어 죽장사 서편에 있는 누각이라 하여 죽서루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죽서루 동편에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라 불렀다는 것이다. 관동의 경승지인 삼척 땅을 찾아온 많은 시인묵객과 관리들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청순했던 죽죽선녀를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 그녀의 곶은 정조는 대나무와 같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선녀 같았기에 세속의 이름마저 죽죽선녀로 바뀌었다는 것. 고려시대의 지식인이라 자처하던 선비와 관리들이 즐겨 죽죽선녀의 유희소로 모였고, 그들은 죽죽선녀의 집 서쪽 오십천 절벽 위에 절묘하게 세워진 누대를 죽서루라 불렀다고 한다.. 죽죽선녀는 기녀로서는 강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최초의 여성이라고 한다.

정자 누각 등은 선비들이 시문을 지으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절경이 있는 곳이면 정자와 누각이 세워져 있다. 이 죽서루의 명칭 유래도 이러한 선비들의 공간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시와 음악을 즐겼을 기생과 연관지어 명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경포대(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강릉시 저동)

1326년(충숙왕 13)에 안무사(按撫使) 박숙정(朴淑貞)이 현 방해정(放海亭) 북쪽에 세웠으며, 1508년(중종 3)에 부사(府使) 한급(韓汲)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고려말, 박신(朴信)이 강원도 안렴사로 갔을 때 강릉 명기 홍장을 사랑하여 아주 깊이 정이 들었는데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갈 때 강릉부윤(江陵府尹)으로 있던 조운홀(趙云伾)이 ‘홍장은 이미 죽었다’고 하고, 그녀를 마치 신선처럼 꾸민 뒤 박신을 한송정(寒松亭)으로 유인하여 놀려 주었다는 일화가 <동인시화(東人詩話)>에 전하고 있다. 조선 효종때, 성리학자 이익(李瀾)의 제자 신후담(愼後聃)이 홍장과 박신의 이와 같은 애정 고사를 소설화하여 <홍장전>을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태준(金台俊)의 <조선 소설사>에서도 그의 <속열선전(續列仙傳)>등 여러 소설 작품들과 함께 거론된 바 있다. 경포대 호숫가에는 방해정(放海亭)이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앞에 있는 바위를 <홍장암(紅粧岩)>이라고 부른다. 홍 장이 경포대에 놀러 오기만 하면 반드시 그 바위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 바위를 <홍장암>이라고 불렀다 한다.

경포대는 죽서루와 함께 여성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던 시대에 새로운 영역의 여성들이었던 기녀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정자와 누각이 남성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창작공간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녀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적지이다.

3) 청평사 3층석탑(강원도지정 문화재자료 제8호/춘천시 북산면)

구성폭포 건너편 언덕 예전의 청평사의 길목이었던 환희령(歡喜嶺) 바위 위에 서 있는 높이 3m의 석탑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은 사찰의 중심건물인 금당(대웅전) 마당에 세우는데 이 탑은 사찰 길목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홀로서 있다. 전국에 이렇게 사찰마당을 벗어나 세운 탑은 많지 않으며 이를 원탑 또는 공양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라양식을 취한 석탑이나 청평사가 고려 때 창건된 것으로 보아 석탑도 고려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청평사에 전해오는 ‘상사뱀과 공주’의 전설로 일명 ‘공주탑’이란 애칭으로도 불리운다.

옛날 중국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평민인 어느 젊은이가 그 공주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혼인할 수 없음을 알고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죽은 뒤 뱀으로 다시 태어났고, 자기가 사랑한 공주의 몸을 칭칭 감고 떨어질 줄 몰랐다. 뱀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공주마저 목숨을 잃을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그 뱀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공주는 나날이 몸이 쇠약해졌고, 나라 안에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여러 신하들이 창피한 일이니 공주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며 임금에게 공주를 죽이라고 했다. 임금은 제 딸을 차마 죽일 수 없어 부처의 힘을 빌려 뱀을 떼어내려고 이름난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도록 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공주는 마침내 고려 땅까지 오게 됐고, 어느 날 지금의 청평사 자리를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하도 맑아 목욕을 하려고 물가에 서자 뱀이 갑자기 꼬아리를 풀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뱀에게서 풀려났다는 것이다. 뱀이 물 속에 비친 공주의 그림자를 보고 실제 공주의 몸인 줄 잘못 아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공주가 뱀이 된 청년의 녀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짝사랑을 소재로한 설화로서 여성문화적인 의미는 약하나 기도와 석탑건축으로 청년의 녀을 위로한 공주의 포용적 자세를 재해석 해볼만하다고 여겨지며 고찰인 청평사를 더욱 유명하게 하는 사랑이야기로 그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4) 태백 구문소(천연기념물 제417호/태백시 동점동)

태백 구문소(求門沼)는 석회동굴이 땅위에 드러난 구멍으로 철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황지천 하구의 물길 가운데 있다. 구문(求問)은 구멍·굴의 옛말이며 ‘굴이 있는 늪’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구문소에는 효도왕자와 월선의 전설이 내려온다.

신라 선덕여왕의 아들 효도 왕자가 경북 봉화(재산)에 유람 왔다가 백정의 딸 월선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왕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금비녀를 정표로 주고는 급히 궁궐로 돌아갔다. 이듬해 봄 구문소에서 왕자와 다시 만나기로 한 월선이 춘양에 있는 비녀소에서 잠시 쉬다가 재회의 기쁨에 들떠 그만 금비녀를 물 속에 빠트리게 된다. 정표를 잃어버렸다는 고백을 들은 왕자는 말없이 돌아서 가자 월선은 구문소에 뛰어들고 만다. 그런데 비녀소에서 잃어버린 비녀가 바로 그곳에 있어 왕자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정표로 상징되는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 설화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킨 점을 부각하고 있으나 왕자와 천민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부각시킨다면 전통사회의 관습을 깨고 사랑을 이룬 공간으로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처에 있는 남성적 관점의 설화를 재평가하는 작업과 함께 여성문화적의미가 더해질 수 있는 유적이다.

5) 삼척 용바위(비지정/삼척시 성내동)

죽서루 동쪽 옛 연근당 자리 가까이에 있는 바위문이다. 행초서로 용문(龍門)이라 새긴 음각글씨가 남아 있으며, 바위상부에 성혈유적이 있다. 성혈은 풍요와 생산을 의미하는 선사시대의 상징물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민간신앙으로 정착되어 득남의 기원처로 변모하게 되었다. 즉, 칠월 칠석날 자정에 부녀자들이 성혈터를 찾아가서 일곱 구멍에 좁쌀을 담고 치성을 드린 후 좁쌀을 치마폭에 감추어 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 민간신앙이다. 용문바위의 성혈은 크기가 직경 3~4cm 정도의 크기인데 10개가 만들어져 있다.

여성의 몸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문화유적, 민속예술등에 표현되어있다.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득남의 기원처로만 인식돼 있는 유적지를 종교적 개념의 유적지로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봉산서재 판관대(비지정/평창군 봉평면)

봉평면 평촌리 봉산서재에는 율곡선생과 華西 李直老선생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율곡선생의 신주를 이곳에 모시게 된 유래는 바로 봉평이 율곡선생의 잉태지가 되기 때문이다. 율곡의 탄생 설화가 있는 곳이지만 신사임당이 행적이 있는 곳이므로 사임당 유적지로 연계, 문화답사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진다.

율곡선생의 아버지인 李元秀공이 인천지방 수운관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산수가 아름다운 봉평에 4년간을 살았었다. 인천에 있던 율곡선생의 아버지가 여가를 틔타 본가로 오던 중 평창군 대화면 반정(상안미)에 있는 주막집에 여장을 풀었다. 그날 밤 일찍이 홀로된 주모의 꿈에 용이 가슴 가득히 안겨 오므로 잉태할 꿈이며 비범한 인물을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주모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니 혼자 몸이요, 그날 밤 대상이 될 사람은 주막에 묵고 있는 원수공 뿐이라 “손님 아무 말씀 마시고 하루밤만 정을 맺게 해 주십시오.”하고 애걸 하였으나 원수공이 완강히 뿌리쳐 주모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무렵 율곡선생의 어머니 師任堂 申氏는 강릉 오죽헌 언니집에 머물러 있었다. 역시 하루밤 꿈에 용이 가슴 가득히 안겨 오는 꿈을 꾸고 나서 즉시 140리 길을 걸어서 집에 돌아와 있던 중 마침 원수공이 도착했다 그날 밤 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율곡선생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후 9개월만에 강릉 오죽헌으로 이사하여 율곡선생을 낳았다 한다. 봉산서재와 함께 있는판관대는 율곡 이이가 잉태된 곳으로 조선 중종 때 수운관관을 지낸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의 직책에서 연유됐다.

율곡의 탄생 설화이지만 주막 여성과 사임당의 임신을 둘러싼 열망을 읽을

수 있는 설화이다.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도 보인다.

7) 청심대와 기녀청심(비지정/평창군 진부면)

옛날 강릉부사로 부임했던 박대(朴大)라는 사람이 가족을 떠나 혼자 있으면서 인물 곱고 마음 착한 청심이란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청심은 행실이 단정하고 부사를 섬기는 정성이 지극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임기가 되어 박부사가 내직으로 올라가게 되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박부사는 “내 부득이 너를 떠나 서울로 돌아 가나 기회를 보아 너를 부르겠노라”하고 달랬다. 청심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헤어지기 서운하니 대관령 너머까지만 전송케 하여 주십시오.”하니 부사도 마다할 수 없어 서울로 가는 행차에 중간까지 동행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일행이 강릉을 출발하여 진부면 마평리에 이르러 여장을 풀고 쉬기 위하여 물 좋고 공기 좋은 암석 위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오랜 시간 서로 주고 받고 얘기하다가 전송객 모두와 작별을 하고 청심에게도 작별을 고하니 “제가 이미 사또께 몸을 바친 이상 이제 더 살아서 누굴 맞으리오.”하며 순식간에 바위벼랑 밑 물속으로 뛰어 내렸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박부사는 눈물을 흘리며 청심을 목메게 부르다가 돌아갔다 한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이곳 사람들이 기생 청심의 송죽 같은 절개와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청심대를 세웠다. 청심대 옆 에는 큰 바위가 하나 이 바위를 안고 돌면서 치성을 드리면 애기 못 낳는 여자가 잉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심의 절개와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1928년 8월, 바위 위에 청심대를 세우고 매년 9월 28일이면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청심의 슬픈 님을 달래주는 한풀이 ‘청심제’를 지내오고 있다.

기녀의 순절이야기는 설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성의 절개를 중시하는 봉건사회 속에서 조강지처가 아닌 여성들의 사랑이 한시적이고 기혼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여성들의 정려각에 얹힌 서화와 함께 봉건사회 여성의 모습의 하나로 읽혀지

는 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 기타 관련 유적
- 영월기생 고경춘(高瓊春)순절비(영월 동강)
- 춘천기생 전계심(全桂心)순절비(춘천 봉의산)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1) 오대산 중창권선문(국보 제292호/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은 상원사를 중창하는 일에 지원을 해 주게 된 취지와 왕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쓴 문서이다. 중창권선문은 1464년(세조 10) 12월, 세조의 왕사인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등이 왕의 장수와 복을 빌기 위해 상원사를 중창한다는 말을 듣고, 세조가 안료, 쌀, 무명, 베, 철재 등을 보내면서 그 취지를 쓴 글 1권과 왕의 하사품을 받고 신미 등이 쓴 글 1권 등 모두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권은 한문으로만 되어 있으며 한 권은 한문으로 된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세조를 비롯하여 왕세자, 왕비, 세자빈, 공주 및 외명부, 효령대군, 신미, 학열, 학조 등의 서명이나 인기(印記)기명(記名)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 문서는 조선초기 왕실이 어떻게 불교계에 대해 지원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현전하는 문서 중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활자가 아니라 직접 한글로 글을 써서 남긴 가장 오래된 문서이므로 한글 서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수결이 남아 있어서 15세기 수결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초기 한글의 발전을 연구하는 국어학 관련 자료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감추사(비지정/동해시 용정동)

신라 51대 진성여왕의 셋째딸인 선화 공주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명법사

의 지시로 감추에 찾아와서 석굴 두칸을 마련하여 불상을 모셔두고 매일 낙산 용소에 목욕 재계하고 불경과 기도 드리기를 3년, 병이 완치되자 공주는 부처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절을 지었다고 하나 선화공주가 기도 드린 석굴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현재의 사찰은 1902년 창건되었다. 기도와 치유의 설화는 여성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사찰건립에 왕실과 공주가 연관되어 있어 여성들의 종교활동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3) 삼척 해신당(비지정/삼척시 원덕읍)

해신당과 해신당제례는 남근숭배사상의 전형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속이다. 또한 현대에 와서 대대적인 남근조각공원조성 및 남근깎기 대회 등이 열리고 있어 지역 여성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해신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신당은 당집으로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총각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해초를 뜯기 위해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내리고, 총각은 다시 태우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변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처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처녀가 죽은 후 이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민들 사이에는 애를 쓰다 죽은 처녀때문이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처녀의 원혼을 달래고자 나무로 실물모양의 남근을 여러 개 만들어 제사를 지내자, 신기하게도 고기가 많이 잡혔다. 지금도 정월대보름에 남근을 매어 달고 제사를 지낸다.

이 같은 설화는 여성의 죽음과 바다의 여성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해 풍어를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제물이 되고 있는 남근에만 초점을 맞춰 남근중심의 문화행사를 새롭게 각색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설화의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여성적 관점의 해석과 그를 활용한 여성주의적 문화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여성을 위한 종교행사로 가꾸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지역문화행사로써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물

가. 여성의 복식

여성과 의복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실짚기와 천짜기에서부터 시작해 옷을 만드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고 침선 솜씨는 여성의 미덕으로 꼽혀왔다. 여성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감각을 발휘하는 방편으로도 활용돼 복식에 다양한 수놓기 등의 공예가 발휘되기도 했다.

한편 의복은 신분과 용도에 따라 예를 갖추는 방편으로도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복식문화연구는 역사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는 보물 1182호인 백담사 아미타불 복장유물, 상원사 동자상 복장유물로 발견된 세조대 백초회장저고리등이 궁중 복식을 연구하는 중요자료로 꼽히며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내외의 중치막 대례복 등 관복과 상류층 여성의 의생활을 보여주는 복식들이 국가지정 유물로 남아있다.

1)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중요민속자료219호/평창군 진부면)

이 저고리는 197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자상(童子像)을 개금(改金)하다가 복장품 속에서 발견됐다. 동자상은 조선시대 세조가 1466년 수차례 상원사에 행차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저고리의 착용연대는 1460년대로 추정된다. 저고리의 명칭은 백초 곁막음 저고리, 호수(胡袖) 호수소오자(胡袖小奧子), 청단소대(靑段小對)라고도 부를 수 있으나 저고리의 동(胴)이 백초로 되어 있고, 깃, 끝동, 쇄, 옷고름 등에 짙은 배색을 한 회장저고리(回裝赤古里)라는 점에서 백초회장저고리라 하였다. 저고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품이 매우 넓어서 소매길리와 저고리 길이가 짧게 보일 정도로 너그럽게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 깃이 네모나게 각진 목판 깃이며 직선형태의 소매, 짧고도 좁은 옷고

름, 무와 밑바대가 있는 등 조선초기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저고리의 전체적인 구성도 세부와 세부간의 균형이 잘 맞도록 구성되어 있고 색채적으로도 전통적인 쪽물을 들인 염색이 5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 옅은 색과 짙은 색의 동색배열로 의복의 배색효과를 잘 살렸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의 의생활이 백색이나 원색을 입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특색있는 의복이다.

저고리 뒷 중심선 오른쪽에 장씨소대(長氏小對)란 목서가 있어서 착용자를 알 수 있는데, 소대(小對)는 왕족과 그에 상응하는 신분의 여성이 입었던 옷으로 세조의 후궁중 장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의 옷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저고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저고리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복식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으며 궁중 여성의 옷차림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내외분 옷(민속자료4호/정선군 임계면)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의 옷으로 이단하(李端夏)는 조선 인조(仁祖) 27년(1649)에 탄생(誕生)하여 현종(顯宗) 3년(1662)에 문과(文科)에 등과(登科)하고 숙종조(肅宗朝)에 와서는 대제학(大提學)에까지 이르렀다. 숙종 12년(1688)에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까지 하고 숙종 15년(1689)에 돌아가신 후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런데 정선군(旌善郡) 임계면(臨溪面) 봉산리(蓬山里)에는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가 좌의정(左議政) 당시(當時) 착용(着用)하였던 중치막(中致莫) 1착(着,) 그 부인(夫人)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입었던 대례복(大禮服)[원삼(圓衫)] 1착, 누비저고리 1착, 봉대(鳳帶) 1구(具), 큰머리에 쓰던 다래 1개(個), 도투락댕기 1매(枚), 용잠(龍簪) 1구(具) 모두 7점(點)이 남아 있다.

3)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보물 제1182호/인제군 북면)

18세기 전반기의 불상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되는 이 목불상은 복장품(腹藏品)을 갖추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복장유물(腹藏遺物)인 만자소화(卍字

小花)무늬의 노란색단 삼회장저고리는 1748년(영조 24년) 저고리로서 상태가 매우 아름답고 색상이 선명하며 바느질상태가 고르다.

만자문(卍字紋)은 길상만복(吉祥萬福)이 모두 모인다는 뜻이다. 이 만자(卍字)는 사단(四端)에서 횡으로 선을 연장하여 만자(卍字)를 서로 연결한 장각만자문(長脚卍字紋)으로 도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저고리의 만자문(卍字紋)도 장각만자문(長脚卍字紋)이다. 저고리 주인공은 깃과 결마기의 만자운용문(卍字雲龍紋)자단색으로 보아 궁중의 왕족이거나 왕실과 관계된 신분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저고리는 당대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기타 복장물은 유리와 수정 등의 파편 수백점을 보자기에 쓴 것으로 복장물로 대체한 것이다.

4) 상원사 목조문수동 자좌상 복장유물(보물 제793호/평창군 진부면)

이 복장유물(腹藏遺物)은 동자상(童子像)의 유래(由來)와 조성년대(造成年代)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1984년 7월 19일에 복장(腹藏)을 개봉(開封)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성화년간(成化年間)의 발원문(發願文)과 만력년간(萬曆年間)의 발원문(發願文)이 나와 조성(造成) 및 중수(重修)의 연대를 살필 수 있었다. 발원자(發願者) 정현조(鄭顯祖)는 정인지(鄭麟趾)의 아들로 세조(世祖)의 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결혼한 하남위(河南尉)이다. 하남위(河南尉) 부부는 세조(世祖)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발원(發源)하기 위하여 문수동자상(文殊童子像)을 조성(造成)했는데 부스럼병(病)으로 고생했다는 세조(世祖)의 치병(治病)과 관련된 전설(傳說)을 뒷받침해 준다. 발원문과 함께 무공수정주(無孔水晶珠) 1개(個) 지름2cm 남짓한 수정구(水晶球)가 있다. 비단 상의(上衣) 2착(着) 1착(着)이 있는데 누런 비단 상의이며 여러 곳에 다라니(陀羅尼)를 새겼고, 노씨부인(魯氏夫人)이라는 발원자(發願者) 이름을 남기고 있다. 다른 1착(着)은 흰 비단이며 다라니(陀羅尼)도 새기지 않고 보존상태도 나쁘다. 복장의례(復藏儀軌)에 옷을 넣는 일은 없고 비단 천의 다라니(陀羅尼)를 새겨 넣도록 되어 있는데 노씨부인(魯氏夫人)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비단 대신 옷을 넣어 개인적인 공덕(功德)을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1) 명안공주 관련 유물(보물 제1220호/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이 유물은 고문서와 유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 3건에 36점에 달한다. 고문서류로는 현종(顯宗)과 명성왕후(明聖王后), 숙종(肅宗)의 한글편지, 숙종의 한글 글씨를 모은 어필첩(御筆帖), 현종의 부마(駙馬)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와 그 후손들의 글씨를 모은 수양전세유묵첩(首陽傳世遺墨帖), 영조(英祖)의 수연(壽宴)을 맞아 만수무강을 기원한 계사진연갱운록(癸巳進宴坑韻錄), 명안궁의 유물로 보이는 육필(肉筆) 천자문, 명안궁노(明安宮奴) 복노미(福老未)의 이름으로 영의정과 관찰사에 올린 진정서, 숙종년간에 명안공주에게 지급한 물품을 기록한 물종단자(物種單子), 명안궁에서 광포도민(廣浦島民)에게 사패지(賜牌地)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폐지(牌旨)가 있다. 유물로는 숙종이 누이인 명안공주에게 하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완초화문석(莞草花文席), 운보문(雲寶文) 겹보자기 등이 있다.

2) 이씨 분재기(李氏分財記)(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호/강릉시 죽헌동 개인소장)

이씨분재기는 현재는 강릉시 죽헌동 229번지 권인구家에 소장되어 있다.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어머니이며, 율곡의 외조모가 되는 이씨부인은 강릉 향현사에 봉안되어 있는 12향현 가운데 부자가 함께 향현으로 숭앙받는 조은 최치운과 수현 최응현의 외증손녀와 외손녀가 된다. 부인은 아버지 생원 이사온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 태어난 무남독녀이다. 이 분재기는 이씨 부인이 5명의 딸에게 재산을 상속한 기록으로 이두(吏讀)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문서는 한지 두루마기로 세로 28cm, 가로 240cm이다.

3) 허난설헌 목판초간본(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4호/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이 시문집(詩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시인 허난설헌(1563-1589)이 남긴 작품을 동생 허균이 편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시문집으로서 중국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의 ‘소인’(小引)과 양유년(梁有年)의 ‘제사’(題辭)를 비롯, 허난설현의 시문 210여수가 실려있다. 이 책은 선조 22년(1589) 허난설현이 죽자 허균이 누이의 유고(遺稿)를 수습하여 《난설현고》(蘭雪軒稿)를 편집하고 이를 목판에 새긴 것이며, 현재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뒷표지가 떨어져 나갔으며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히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허균의 발문(跋文)이 ‘만력기원지삼십육재’(萬曆紀元之三十六載)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선조 11년(1608)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난설현은 성리학자인 허엽(許曄)의 딸로 어려서부터 이달(李達)에게 시를 배워 천재적인 시재(詩才)를 발휘했으며 1577년(선조10년) 김성립(金誠立)과 결혼했으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잇따라 자식을 잃는 등 여성으로서 삶이 불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예술적 재능이 오히려 가정에서 억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시작(시작)으로 달래며 여성의 독특한 감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등 애상적 시풍의 시세계를 이루었다.

난설현에 대한 행사로는 고향인 강릉시 초당에 시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강릉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매년 헌다례를 올리는 추모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선양사업회가 구성돼 허균·허난설현 문화제가 개최되는 한편 강릉 여성의 전화에서 2003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다.

허난설현을 소재로 한 소설 김신명숙의 ‘불꽃의 자유혼’(1998, 도서출판 금토) 내용에 문중이 반발을 보이는 등 허난설현의 삶을 조명하는 시각에서 전통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상충되는 점이 많아 향후 지역 여성문화제로 부각 시키는데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기도 한다.

3) 신사임당 시문(비지정/조선시대강원여성시문집 1998, 강원도)¹¹⁰⁾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은 안견의 화풍에 여성의 섬세함을 화풍으

110) 조선시대 강원여성시문(1998, 강원도)에서 발췌.

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화가라는 평을 듣는다. 산수(山水), 초충(草蟲), 화조(花鳥) 등이 그림에 뛰어났다. 남아있는 시는 몇 수 되지 않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는 뛰어난 표현과 따뜻한 정감이 배어있어 솜씨가 대단했음을 말해준다.

시문으로는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보다’(踰大關嶺望親庭), 낙구 한 조각(落句), 어머니를 생각하며(思親), 선비행장(先비行莊) 등 4수가 전한다.

4) 죽서시집(竹西詩集)(비지정/조선시대강원여성시문집 1998, 강원도)

5) 김금원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비지정/조선시대강원여성시문집 1998, 강원도)

6) 김경춘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발문(비지정)¹¹¹⁾

강원도가 발간한 강원여성시문집(1998.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김금원 박죽서 김경춘은 같은 소실이라는 신분과 문학적 공감대를 이루며 우정을 나눈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三湖亭)이라는 정자에서 여러명의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 시문을 주고 받는 등 동시대 여성들의 문화활동 기록을 부각하여 여성문학사, 강원여성의 문학적 재능 등을 부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죽서(朴竹西 1817이후 1851경)는 원주 출생으로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박은의 후예로 박종언의 서녀(庶女)이며, 호는 죽서식거(竹西識居), 반아당(半啞堂)이다. 송호(松湖) 서기보의 소실로 들어간 이후 길지 않은 생애를 병으로 고생하면서 한시를 평생의 낙으로 삼았다. 죽서가 죽은 뒤 그의 시 166편을 수습하여 남편의 친척인 서도본가 서문을 붙인 죽서시집을 간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의 세계를 애상적 정조로 노래하는 시풍을 보인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111) 조선시대 강원여성시문(1998. 강원도)에서 발췌.

깊은 감동을 준다.

김금원(金錦원 187경-1847이후)은 원주출생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4세 때 남장을 하고 금강산을 여행하고 기행시문을 남긴 바 있다. 박죽서와 같은 고장 출신으로 친하게 지냈으며, 나이는 조금 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규당학사(奎堂學士) 김덕희의 소실이 된 후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三湖亭)에서 박죽서, 김운초, 김경춘, 경산 등산과 함께 시문을 주고 받으면서 지냈다.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를 남겼다.

김경춘(金鏡春 생몰연대 미상)은 김금원의 아우. 주천(酒泉) 홍태수의 소실이다. 김금원은 경춘을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숙할 뿐만 아니라 널리 경사(經史)에 통달했다는 평을 한 바 있다. 김금원의 거소였던 삼호정(三湖亭)에서 모여 시문을 주고 받을 때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상당한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것은 현재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발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평론을 한 솜씨가 대단하다.

7) 윤희순 항일의병가 등 시문(비지정/강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의 본관은 해주이며 한양에서 출생했다. 16세 되던 해에 외당(畏堂) 유흥석의 외아들인 항재(恒齋) 유제원에게 출가함으로써 춘천으로 오게 된다. 1895년 춘천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향리의 부녀자들과 함께 군자금을 모아 의병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편, ‘안사람 의병가’, ‘방어장’, ‘왜놈 대장 보거라’ 등의 글을 지어 높은 기개를 보인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외당이 전 가족을 이끌고 요동으로 가 1935년 만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안사람 의병가 외에 ‘방어장’ ‘왜놈대장 보거라’ ‘번정노래’등 의병활동을 권유하는 글과 자신의 일생을 담은 해주윤씨 일생록이 있다.

한일합방이후 항일운동을 하다 중국으로 이주하며 그곳에서 독립군 지원

활동을 했던 행적과 자손들에게 시대에 따라 옳은 도리를 당부하는 훈육등 윤희순의 기개와 정신이 글에 잘 담겨있다.

8) 임윤지당 유고(비지정)

임윤지당(任允摯堂 · 1721-1793) 은 함흥 판관을 지낸 임적(任適)과 어머니 파평윤씨의 딸로 조선후기 대성리학자인 임성주, 임정주와 남매이다. 그녀의 나이 여덟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자 둘째 오빠 임성주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임성주는 그녀에게 여성의 금기사항이었던 학문을 가르쳐주고 윤지당이라는 호도 지어주었다. 윤지당은 중국 고대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과 문왕의 부인 태사의 친정을 뜻하는 주희의 윤신지(允莘摯)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5남2녀의 형제들과 경전과 사서를 읽으며 학문을 수련한 윤지당은 열아홉에 원주 선비 신광유(申光裕)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8년만인 1747년 신광유가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난산끝에 낳은 아이마저 태어나지 얼마 안돼 죽었다. 남편과 자신이 없는 가운데 시집살이를 하며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다가 73세로 원주에서 별세했다. 그녀가 죽은 뒤 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우가 그녀의 유고 40편을 모아 ‘임윤지당 유고’를 펴냈다.

임윤지당은 그 존재에 대해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1998년 이영춘(李迎春)박사(국사편찬위원회 편서 연구관)가 ‘임윤지당’을 출간하면서 그의 사상과 생애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윤지당 유고’에는 많은 성리학적 논문들과 역사비평이 수록돼있다.

도내에서 선양사업은 원주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문적 접근이라는 한계와 생활근거지와 묘소 등이 추정만 되고 있어 선양사업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다.

임윤지당은 남존여비 사상이 보편화 되어있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구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를 수 있다’ 는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은 인간 최종의 목표인 성인을 지향해 남녀 차별적인 성리학의 남녀관을 극복하려 했으며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 ‘인심도심사단칠정설’ (人心道

心四端七情說), '극기복례위인설'(克己復禮爲人說) 등 성리학의 근본 이론에 관한 논문과 대학과 중용에 대한 해설 등 자신의 학설이 당대 최고 수준이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문에 접근할수 없던 전통유고시대에 유학자로서 자신의 세계를 다진 임윤지당의 삶과 학문적 깊이는 한국여성인물사에서 그 가치가 더욱 깊이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여성의 예술작품

1) 신사임당 초충도병풍(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호/강릉시 울곡기념관)

사임당이 그린 8폭의 유색(有色) 병풍으로 각 폭마다 각기 다른 초화(草花)와 벌레를 그렸기에 초충도(草蟲圖)라 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11호로 1971년 지정되었다. 이 병풍은 울곡을 배향하고 있는 송담서원(松潭書院)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순조 4년(1804) 큰 산불이 나서 서원도 타버렸는데 이 때 이 병풍도 타버린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 후 강릉의 민가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울곡의 후손(後孫)인 이장희(李璋熹)씨가 입수하였다가 울곡기념관을 건립하고 사임당과 울곡의 유품을 수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65년에 강릉시에 양여한 것이다.

2) 매창매화도 및 옥산국화도첩(梅窓梅花圖 및 玉山菊花圖帖)(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강릉시 울곡기념관)

매창(梅窓)은 사임당의 맏딸이고 玉山은 막내 아들이다. 둘은 다같이 어머니 사임당의 예재를 받아 예능에 뛰어난 솜씨를 가졌다. 매창 이부인(李夫人)의 매화도는 굵은 고목에서 힘차게 뻗어 올린 가는 가지에 꽃을 그리고, 태점(苔點)으로 표현한 꽃눈은 조화를 이루어 매화의 그윽한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16세기 어몽룡(魚夢龍), 조숙(趙粟), 조지운(趙之耘) 등을 거쳐 조선시대 후기에 완성된 양식으로 보인다. 이 도첩은 후손 이장희씨가 보전하던 것을 울곡기념관에 기증하였다. 매창의 매화도는 세로 30cm, 가로 26.5cm의 종이에 그린 묵화이고 옥산의 국화도는 세로 35cm, 가로 25cm로

종이에 그린 묵화이다

3) 신사임당 초서병풍(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 강릉시 율곡기념관)

1973년 지방유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된 이 병풍은 당시(唐詩) 오언절구(五言絶句)를 초서로 쓴 것으로 강릉시 두산동 최돈길(崔燾吉)家에서 대대로 보존되어 오던 것을 1971년에 강릉시가 인수하여 율곡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 병풍이 최씨문중에 있게 된 것은 사임당의 이종손녀(權處均의 딸로 崔大海의 妻)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것이라 한다.영조때 이 글씨가 이웃 고을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당시 부사 이형규(李亨逵)가 되찾아 주고 병풍으로 꾸며 보관하게 하였다.고종 6년(1869)때 최씨집에서 불이 나서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시 주인 최전의 妻 江陵 金氏 부인이 80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제일 먼저 이 병풍을 끌어내고 숨졌다 한다. 이러한 일이 있던 후에 부사 윤종의(尹宗儀)가 이러한 일이 다시 있을까 우려하여 판각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오죽헌에 보관되어 있다.

2. 무형문화유산

○ 물질문화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강원도내에서 전승되는 공예문화로는 강릉보자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수보자기가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에서 많이 나왔다.¹¹²⁾ 수보의 제작 시기는 주로 구한말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릉 시립박물관 및 개인 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릉여성회관 등에서 전통자수를 계승하고 응용하는 작업을 벌여 수를 이용한 옷판 등을 상품화하고 있다.

112) 허동화(1997),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문.

나. 음식문화유산

음식문화유산으로는 강릉 사천한과가 한과 생산단지를 구성,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에서 많이 나는 재료인 메밀, 감자, 옥수수 등을 이용한 식품인 막국수, 감자부침, 감자송편, 옥수수술 등이 영서지역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한편 영동지역에서는 바다에 인접해 있어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바닷물을 간수로 하는 초당순두부가 지역 식품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거친 전통식품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

1) 옥선주 - 임용순(전통식품명인 24호-농림부지정/홍천군 서석면 어른리)

홍천군 서석면의 효자의 덕행이 알려져 고종 38년 효자포장과 전3품 벼슬에 봉직돼 임금께 가양주를 올렸다는 구전과 함께 전해지는 옥수수로 만들 술로 1994년 故 이한영씨가 전통식품 명인(3호)으로 지정되었다가 사망하자 부인인 임용순씨가 뒤를 이어 2001년 명인(24호)으로 지정되었다.

2) 강릉 사천과줄(갈골산자)-최봉석(전통식품 명인23호/강릉시 사천면 노동중리)

강릉시 사천면 갈골의 한과마을은 1998년 정부가 전통식품 보존마을로 지정 육성한 곳으로 이곳에 집안을 이루고 사는 강릉최씨 노동파 집안의 손내림 음식. 이원섭 최창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손내림에 이어 현재는 3대 최봉석씨가 2000년 전통식품 명인23호로 지정되었으며 4대인 김영순씨가 전수자로 가업을 이으며 8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전통한과마을로 명절이면 한과 빚기로 마을 전체가 분주한 진풍경을 이룬다. 정보화 마을 등으로 관광마을로서 발전하고 있는 이곳은 전통한과 및 다른 여성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가미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검토해 볼만하다.

마을에 정선전씨 효열비, 권은상 김씨부부 효열비 등도 있어 전통 문화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 의례 및 연행

가. 놀이와 의례

1) 강릉단오제(무형문화재 제13호/강릉시)

강릉단오제는 동해안에서 가장 큰 향토신제(鄉土神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축제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일을 맞아 대관령 서낭당에서 서낭신을 모셔다가 강릉 시내에서 제사를 지낸다. 대관령 서낭신은 김유신장군이었으나 근래에는 강릉 태생의 범일국사가 죽어 서낭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강릉 정씨집 딸이 서낭신의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서낭이라 한다. 단오가 되면 대관령 서낭당에 있는 서낭을 모셔다가 시내에 있는 여서낭당에 합방한 다음 서낭 내외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 단오제 본제는 음력 5월 5일 거행되지만 준비는 3월부터 시작하다. 3월 20일에 제주(祭酒)를 담그고 4월 1일은 초단오(初端午)라고해서 현주하고 무악(巫樂)을 연다. 4월 8일은 재단오(再端午)로 역시 현주와 무악을 올린다. 4월 14일 시민들이 서낭신을 모시러 대관령에 오른다. 4월 15일 삼단오(三端午)로 대관령 서낭신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서낭당으로 서낭신을 모셔온다. 4월 27일은 사단오(四端午)로 무악을 열고 5월 1일은 오단오(五端午)로 본격적인 곳이 벌어지고 관노가면희(官奴假面戲)가 시작되다. 5월 4일은 육단오(六端午)로 관노가면희와 무악이 있고, 5월 5일은 칠단오(七端午)로 본제(本祭)를 지낸다. 5월 6일은 팔단오(八端午)로 소제(燒祭)를 지내고, 서낭신을 대관령까지 모셔가는 봉송(奉送)의식을 한다.

2000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선정 목록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선정을 추진중이다. 강릉단오제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주신(主神)인 국사서낭과 국사여서낭의 합사(合舍)와 두 서낭을 함께 제례로 봉안한다는 데 있다. 전설에 의하면 대관령 서낭신이 경박택 정씨 처녀를 데리고 오려고 정씨의 꿈에 나타나 청혼을 했으나 사람이 아닌 신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호랑이를 시켜 야밤에 처녀를 대관령으로 데리고 가 영혼결혼식을 했다고

하다. 사람들이 처녀를 찾아 대관령으로 갔더니 처녀의 영혼은 간데 없고 신체는 서낭과 함께 비석처럼 서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우니, 소녀의 몸이 비로소 떨어졌다고 한다. 호랑이를 시켜 처녀를 데려다 혼배한 날이 음력 4월 15일이어서 그 날에 대관령 국사서낭신을 모셔다 여서낭사에서 합사하게 되었다는 것. 무녀 빈순애씨가 강릉단오굿 부문 예능 보유자로 전승하고 있다.

강릉단오는 이 지역의 민간신앙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어 구이 열릴 때면 이 지역 여성노인들이 굿당에 몰려 가족의 안녕등을 기원하는 모습 이 장관을 이룬다. 단오의 각종 민속과 굿판이라는 놀이마당을 통해 여성들의 카타르시스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강릉 단오는 중장년층 중심의 문화로서 젊은 층에게도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여성문화 프로그램도 필요가 있다.

2) 영등놀이(비지정/동해시)

3) 속초 영등할머니 신앙(비지정/속초시)

영등은 동해안 지방 어민들의 1년중 가장 큰 명절이었다. 음력 2월 1일을 영등이라 하며,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20일에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는데,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몰고 온다하여 풍신 또는 풍신할머니라고도 한다.

영등행사는 그집 주부 주관으로 부엌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영신제를 올리고 미리 마련한 초우에 입신시키고 초우를 부뚜막이나 골방에 모셔 두었다가 해가지면 제사음식, 색등보화, 엽전, 실 등을 매달아 바다에 나가 퇴송하는데, 밤에 식별이 잘 되도록 광술을 점화하여 초우가 바다 멀리 떠내려 가면 퇴송이 잘 되었다고 함성이 오르고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속초지방은 ‘영등할머니’라고도 부르고 ‘영등할머니’라고도 한다. 영등할머

니는 2월 초 하룻날 내려왔다가 15일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날 수부신도 올라간다고 한다. 청호동, 대포동, 영랑동 등의 어촌에 속한 집에서는 물론이고 도문, 노학동의 농가에서도 믿고 있다.

보통 장독대에서 비린내 안나는 명태같은 생선에 무를 찢어넣는 무찌개를 끓여 놓거나 큰 그릇에 밥을 해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쫓고서 빈다. 밥에 무를 넣고 ‘무와찌기’라 하여 끓여 놓고 빌기도 하고 팔밥을 해놓기도 하는데 나물과 주과포를 놓기도 한다. 보통 주부가 제를 지내는데 어촌에서는 정초에 바다에 나가서 잡은 생선을 모아 두었다가 이 날에 쓴다.

영등할머니의 유래는 2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며느리와 함께 오고 바람이 불면 딸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여 ‘바람영등’ ‘비영등’이라 한다. 비가 오면 풍년이 되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된다고 하는데 며느리와 올 때 비가 와서 옷을 젖게 하고 딸과 올 때는 바람이 불어 색동옷이 잘 나부끼게 한다고 말한다. 영등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무색옷을 입는다고 한다. 풍신으로서 영등할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신이므로 잘 모셔야 농사도 잘되고 바다에서 고기도 잘 잡힌다고 한다.

대부분의 제례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주관자가 여성이며 여성의 활동공간이 부엌 등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주목해 이를 활용한 여성축제 및 공연 작품으로 활용할만하다.

4) 정선 지게춤 물박장단 놀이(비지정/정선군)

중심으로 작은 농경지를 경작하며, 산간 화전을 일구어 사는 화전민 부락을 이루어 왔다. 이 마을의 남정네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서 노동의 지친 몸에서 다시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를 때 지팡이로 지게다리를 치면서 ‘정선아라리’를 불렀다. 또 아낙네들은 밤새워 길쌈하던 삶의 피로를 한적한 우물가에 모여 물바가지 장단을 치며 아라리 가락으로 삭였던 것으로 시작하는 놀이이다. 민속놀이는 점차 마을의 두레나 호미시세(호미씻이) 같은 마을의 모임에서 남녀가 어울려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놀이 과정은 전 4마당으로, 지게춤과 물박장단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산간지역 여성 놀이 문화로 간단한 생활용구를 악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내에서는 국악인들이 국악공연에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정선아리랑학교에서 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나. 행위예술

1) 정선아리랑(강원도지정 무형문화제 제1호/ 정선군)

우리나라 영서·영동지방에 널리 퍼져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정선(旌善) 아리랑은 일명 아라리라고도 한다. 정선아리랑이 널리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약 600여년 전인 조선조 초기라고 전한다. 당시 고려 왕조를 섬기던 선비들 가운데 조선조 창건을 따르지 않고 송도(松都)에서 은신 하던 부류가 있었는데, 정선 (지금의 남면 거칠현동 居七賢洞)으로 은거지를 옮기어 일생 동안 산 나물을 뜯어 먹고 생활하면서 고려에 충절을 맹세하며 보냈다. 이들 거칠현(居七賢)은 고려에 대한 회상과 가족,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심정을 한시로 읊었는데, 현재 정선 아리랑 가사의 원조라 한다.

은거 선비들이 비통한 심정을 한시로 지어 율창(律唱)으로 부르던 것을 지방의 선비들이 듣고 한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풀이하여 알려 주면서 지방에 구전됐는데, 토착요에 감정을 살려 부른 것이 오늘에 전하여지고 있는 아리랑 가락이다. 그 후 사화(士禍)로 낙향한 선비들과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애창하였고 전란과 폭정에 고달픈 민성(民聲)을 푸념하며 내려오다가 ‘아리랑, 아리랑’하는 음율(후렴구)을 붙여 부르게 된 것은 조선조 후기 (또는 경복궁 중수시)라고 한다.한일 합방 후부터 일제 말엽까지에는 나라 없는 민족(民族)의 서러움과 울분을 애절한 가락에 실었다. 일제를 거치는 동안 사상(思想)이 담긴 노래는 탄압(彈壓)됨에 따라 애정과 남·여 관계의 정한(情恨)을 소재로 한 새로운 노래가 많이 불리어 졌다. 예로부터 전하여 지는 노래와 함께 오늘날 우리 나라의 독특한 가락을 지닌 민요(民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로 유영란씨(정선군 정선읍)가, 전수교육 보조자로 김길자씨가, 전수장학생으로 배귀연, 김순덕씨가, 일반 전수자로는 이순옥씨가 있다.

참고자료

- 강이수 외(2002), ‘강원여성백서’ 강원도.
- 김영기 외(1996). ‘강원도여성사’. 강원도.
- 이구용 외(1999), ‘춘천항일독립운동사’ 춘천문화원.
- 허동화(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문화’ 현암사.
- 최상익 외(1998), ‘조선시대 강원여성시문집’, 강원도.

* 강원도내 지정문화재 현황은 강원도청이 제공한 문화재현황자료를, 시군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시군 홈페이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VI



제주권 여성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537
2. 무형문화유산	590



문화유산유형		여성 문화유산 유형	여성문화유산	비 고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선과 운주당터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관련유적 - 의녀(義女) 홍윤애 관련 유적 - 조선조의 여성거상 김만덕과 모충사 - 열녀 김천덕 관련 유적 - 고소락의 정려비 및 사당 - 애국여성 강평국의 묘 -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가 김시숙의 묘 - 열녀 오씨지문 - 김씨효부정려 	
		여성 생활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입구·바위그늘 집자리유적 - 온평리 혼인지와 동굴입구 집자리 - 제주의 전통가옥, 초가 - 괘지패총 	제주도기념물 제17호 중요민속자료 제68호 제주도기념물 제41호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밭 - 모래소금밭 - 돌소금밭 - 해녀작업장, 불턱 - 빨래터(산짓내,공새미, 자구리새미, 열운이갯물외 각 마을 빨래터) - 제주해녀 	
		여성 교육· 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여학교터인 제주향청(향사) - 제주해녀항일항쟁의 산실인 하도야학의 본산, 하도초등학교 교정 및 각 마을 야학소터 -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비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적지	여성 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척지:함드리 - 버둑할망 돛박수월 - 설문대가 토목공사로 조성된 표선리 당개 일대 - 김상헌의 『남사록』에 나타난 진성과 여정 - 수산진성 - 장성 	제주도기념물 제39호
		여성 들의 종교 및 신앙 관련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라도 아기엽개 할망당 - 송당리 본향당 - 칠머리당 - 정난주의 묘역: 천주교순교성지 - 안봉려관스님이 세운 제주관음사와 범화사 - 산방덕이 눈물이 흐르는 산방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유물	여성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옷 - 제주해녀의 전통작업복 - 호상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 되는 구전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시 두 편 - 분재기 - 탐라순력도/남환박물 - 남사록 	
		여성의 예술 작품		
		여성의 생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의 물질도구:해녀배 - 제주해녀작업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와 * 망사리 * 종기호미 * 골개기, 호맹이 * 빗창 * 소살 	

(계 속)

유형 문화유산	유물	여성의 생산 도구	* 밀 * 눈, 큰눈, 족은눈 * 본, 본조갱이	
무형 문화유산	물질 문화	여성 공예 문화 유산	- 정동벌립 및 땡땡이덩굴 공예 - 갓일 - 망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8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음식 문화 유산	- 고소리술 - 오메기술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3호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 영감놀이 - 칠머리당굿 - 제주의 불교의식 - 해녀노래 - 땡(땡치)후리는 소리	제주도무형문화재 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0호
		행위 예술	- 제주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1. 유형문화유산

○ 유적지

가. 여성인물유적지

제주도는 오랜 세월동안 여성주도형으로 삶이 꾸려져 왔다. 따라서 여성생활사와 관련된 유적지는 매우 다양하게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그러나 생가나 시가, 활동과 관련된 건물 혹은 가옥 등 개인 여성인물 유적 및 유적지가 보전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그 터와 묘소와 비 등 그 행적은 남아있는 편이다.

제주여성의 유적지 중에 생가 및 시가 혹은 활동관련 유적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변형되어버린 생가 및 시가, 활동유적 등 여성관련 유적지는 여기에 수록할 만한 대상이 매우 드물다.

1) 고수선과 운주당터(제주시 동문시장 남쪽)

운주당은 조선조 시절 제주도내의 군수품과 문서의 창고였다.

고수선은 1895년 5월 4일, 개화기에 태어난 제주여성의 선각자로 호는 우인(又認)이다. 대정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1916년 1월 29일 권업(勸業) 모범장 여자잠업(蠶業)강습소 1년 과정을 제 6기로 졸업하고 같은해 4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에 입학하였다. 고수선은 3.1운동과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에도 참여하는 등 항일활동을 하게 된다. 1919년 최정숙, 강평국 등과 사범과를 나온 그녀는 졸업 후 충남 논산군 논산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지냈다.

그녀는 1922년 독립자금 모금에 연루되어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모친 고문을 당한다. 그 후 교토의 요시오카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는데, 얼마 후 경성의전으로 전입한다. 1926년 졸업하여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귀향한다.

1925년 강평국, 최정숙, 김시숙, 이재량 등과 함께 제주여자청년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이 된다. 그 후 경기도 개성에 있는 남성의원 소아과 의사로 근무했는데, 1927년 제주시내 개업의로 제주 의사 1호였던 김태민과 결혼하면서 고향에 돌아왔다.

1933년 1월부터는 ‘서문통’에 공익상회를 개설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1944년에 일제에 의해 충남 논산군 강경읍으로 옮겨가게 된다. 조국광복이 되자 대한여자국민당 논산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51년에 고향 제주로 돌아와 지금의 제주시 동문시장 남쪽 운주당터에 살면서 건국운동, 사회운동에 앞장섰고, 제1대 도의회, 제3대 민의원에 출마하였고 부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제주 여성의 자존과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또한 사회사업에 눈을 돌려 제주모자원과 홍익보육원을 개설 운영했다. 또 대한부인회 제주도지회장, 한국예총 제주지부장, 여성저축생활 제주지부장,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부장, 사회사업연합회 제주도지회장, 대한적십자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등 큼직한 직함을 맡았으며 만년에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덕새마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1978년에 용신봉사상, 1980년 제1회 만덕봉사상, 1981년에 5·16민족상을 받는 등 수

많은 상을 받았다.

1989년 8월 11일(음력 7월 10일) 밤 제주시의 자택에서 92세의 나이로 고요히 영면하였다. 사후에는 고인의 공훈이 재조명되면서 정부에서는 1990년 12월 16일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의 여러 사회사업을 활발하게 벌였던 운주당터에는 안내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공터로 남아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의 다양한 제주사회의 기여도를 참작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운주당터가 여성의 활동터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관련유적; 운주당터, 제주향사

참고자료;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인용자료; 고시홍(1988), 『고수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관련유적(제주시 삼도동 화교학교

인근 및 중앙성당, 황사평 제주천주교 묘역 등)

지금의 제주시 삼도동 화교학교 옆 제주향청은 제주최초의 여학교였던 ‘신성여학교’자리이며 그 맞은 편 개인주택 인근에는 최정숙이 자선의료사업을 했던 병원터 ‘정화의원’자리가 있다. 또한 제주시 근교 황사평 제주천주교 묘역에는 최정숙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최정숙은 1902년 제주목 삼도리에서, 초대 제주지법 법원장을 지낸 최원순(崔元淳)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천주교에 귀의하여, 남을 위해 봉사하는 성직자의 자세로 살아간다. 1909년 신성여학교에 입학하고 1914년 강평국 등과 함께 1회로 졸업한 후 민족의식이 투철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진명여학교에 입학한다. 1918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최정숙은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입학했다. 절대 다수의 일본 학생들 속에서 차별을 받은 최정숙은 항일 감정이 자연스레 싹트게 되었고, 졸업 후 1919년 3월 1일에는 소년결사대를 이끌고 미국영사관 주위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학생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출옥 후 강평국과 함께 제주에서 여수원을 개원하여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 선다. 1931년 김양홍 신부의 권유로 전주의 사립 해성학교로 옮겨 재임하던 중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 등 민족혼을 일깨우는 노래를 지도했다고 하여 일경에 잡혀가기도 하였다.

1937년 5월, 나라가 튼튼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한다는 신념으로 나이 마흔이 다되어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 1942년 졸업 후 의사면허증을 받고 1944년 제주 삼도리 향청 안에 소아과 정화위원을 개업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등 인술을 펼쳤다.

최정숙은 광복 후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서 고수선과 함께 대한부인회를 조직하였다. 신성여학원을 재건하여 1949년 신성여자중학교로 인가를 받고, 1954년에는 사립 신성여자고등학교를 개설하여 초대 교장이 되어 무보수로 재임한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지사장, 제주도 중등교육회장,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1964년 초대 제주도교육감에 선출되어 4년 동안 재임하였다. 교육감 재임기간 학교시설과 학급증설은 물론 학교도서관의 육성, 학급자료실확충, 연구시범학교육성, 실업과학교육의 강화에 힘을 써왔으며, 청사건축을 비롯하여, 시내에 실업(實業)여고를 신설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겨냈다.

3·1운동 때부터 나라의 독립과 교육 종교 사회 문화운동에 한 몸을 바쳐온 최정숙은 『로마』교황(敎皇)의 십자(十字)훈장을 비롯 적십자(赤十字)사공로상, 문화상(대통령), 5·16민족상 등 수많은 표창과 상을 받았다. 그리고 5·16민족상 때 받은 상금으로 정화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주지역을 위해 헌신한 최정숙은 1977년 2월 22일 오전 9시에 76세로 타계한다.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3년 3·1절에 독립유공 대통령표창을 주었다. 최정숙의 유품은 지난 1997년 6월 제주교육박물관에 기증되었는데 생활품들이 너무 낡은 것들이었다. 오로지 자신을 버린 봉사의 일생을 엿보게 하는 유품이다.

관련유적; 제주향사(청), 제주신성여자중고등학교터인 제주시의 중앙성당
관내

참고자료; 김찬흡(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한림화(1988), 『작은 불씨 한톨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 『제주여
인상』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인용자료;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3) 의녀(義女) 홍윤애 관련 유적(제주시 삼도 1동 전농로 및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제주시의 옛 제주농고 터를 관통하는 전농로에는 홍랑로(洪郎路)라고 명명
된 길이 있다. 전농로는 제주도가 벚나무 주산지답게 아름답리 벚꽃길이 조
성되었는데 바로 홍랑로의 벚나무 한 그루터기에 홍윤애(洪允愛)의 무덤터
표지비가 서 있다. ‘홍랑로’라는 거리 이름은 홍윤애의 무덤이 있던 데서 비
롯된 것이다. 홍윤애는 조선조 시절 제주에 귀양정배 당했던 남성과 열애를
하고 정절을 지켰던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 무덤이 1970년대 말 제주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애월읍 유수암리 주유소 인근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장된
‘홍의녀의 묘(洪義女の墓)’에는 조정철의 헌시가 새겨져 있다.

조정철(趙貞喆)은 1777년 정조시해 음모와 관련되어 제주도로 유배돼 여기
저기 옮겨다니다가 1805년 나주로 옮겨지고, 1810년 풀려나기까지 기나긴 33
년의 유배 생활을 한다. 그의 할아버지 조승빈은 1723년 신임옥사로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고, 그의 동생 조관빈은 1731년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다
가 역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된다. 조정철의 아버지 조영순도 1754년 탕평
책에 연루돼 제주목에 유배됐으니 한 가족 네 명이 불과 50년 동안에 제주에
서 귀양을 살아 유배와 인연이 깊었다.

조정철은 제주 유배 중에 자기 호를 따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을 정도로 문필가로도 이름이 드높았다. 이 책에는 귀

양객의 심중을 읊은 시와 제주의 기후, 풍속 등을 기록하고 있다.

조정철은 제주로 유배된 후 얼마 후 그가 귀양살이하는 동안 머물고 있던 주인집의 규수인 홍윤애와 사랑에 빠져버린다. 그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1781년 조정철의 집안과는 조상대대로 견원지간이던 소론파 김시구(金蓍耆)가 제주 목사로 부임한다. 김시구는 마땅히 근신해야하는 죄인 조정철의 적거소에서 홍윤애가 출입하는 것을 염탐하여 붙잡아 들였다. 그렇잖아도 조정철을 어떻게든 옹아매려던 그로서는 적절한 시비거리를 발견한 셈이었다. 김시구는 홍윤애를 모질게 문초하여 조정철과의 관계를 실토하게 하려했으나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분이 치민 김시구는 대장 70대를 치게 하였고 홍윤애는 매질에 그만 고문틀 위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홍윤애의 비에 새겨진 조정철의 시, “어제 미친 바람이 고을을 휩쓸더니/ 남아있던 연약한 꽃잎을 산산이 흩날려버렸네” 라고 한 것은 그때의 정황을 표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시구는 고문 중에 홍윤애가 죽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제주도 귀양객들이 역모를 꾸민다고 조정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보고를 받고 삼읍(三邑)의 수령을 교체하는 한편 어사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으나 조정철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1809년에 조정철은 유배가 풀리고 관직에 재등용되자 1811년에 제주목사를 자원, 파견되었다. 그가 다시 제주를 찾은 것은 자기 때문에 죽은 홍윤애에 대한 애절한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이었다고 전해진다. 조정철은 홍윤애의 무덤에 비를 세웠는데 다음과 같이 비문을 새겨 사랑을 지키려다 불의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넋을 위로하고 행적을 높이 기렸다.

옥 같던 그대 얼굴 묻힌 지 몇 해인가./ 누가 장차 그대의 원한을
하늘에 호소할 수 있으랴 / 황천길은 멀고먼데 누구를 의지하여
돌아갔을까 / 충직함을 깊이 간직하니 죽음 또한 인연일까 / 꽃다
운 이름 천고에 아욱처럼 맵게 기리리

홍윤애의 조정철을 지극히 사랑하여 목숨을 아까와하지 않은 순애보를 두고 후세들은 참으로 기록하다고 칭송한다.

참고자료; 오성찬(2004), 제주투데이

제주도.(사)제주민예총(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4) 조선조의 여성 거상 김만덕과 모충사(제주시 사라봉 기슭)

김만덕(金萬德)은 조선조 영조 15년(1739)에 제주성내, 지금의 제주시에서 김응열(金應悅)의 3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나 순조 12년(1812)에 세상을 떠난 제주여성으로 조선시대의 거상인 동시에 자선인이다.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열두 살 무렵에 부모를 잃고 기녀(妓女)에게 입양되어 기생이 되었다. 스무 살을 넘기면서는 재색을 겸비한 명기로 이름을 날리면서 행수(行首) 기생이 되었다. 스물네 살에는 자신이 본의 아니게 기생이 되었음을 관가에 탄원하여 기적에서 삭제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양가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기생으로 있을 당시 모은 얼마간의 재원으로 밭과 마소를 마련하고 부모 사별 후 흩어졌던 형제들을 찾아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 동시에 객주집을 겸한 주막을 열었다. 기녀시절에 익힌 대인관계와 세상물정 보는 눈이 있어 객주집을 잘 운영하여 날로 번창하였다. 이에 육지와 제주섬을 오가는 쌀과 생필품 등을 유통하는 물자 알선과 위탁 사업에 뛰어들어 탁월한 경영으로 이미 마흔 살 즈음에는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었고 쉰 살을 넘어서자 호남부호들과 견줄만한 대부호가 되었다.

제주는 예로부터 해마다 지리적, 지형적 여건 때문에 한재(旱災), 수재(水災), 풍재(風災)가 겹쳐서 흉년을 불렀다. 따라서 예전에는 삼재도(三災島)라고도 불렀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 시대에는 이러한 삼재가 겹쳐 흉년이 들었다하면 보통 2천 여명이 죽었다고 쓰여있다. 조선 현종11년(1670) 흉년에 아사자가 2, 260명이나 되었으며, 또 숙종 40년(1714년) 봄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5천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섬을 통틀어 10

만명이 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대단한 인명손실이었다.

정조 18년(1794) 8월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당시 제주를 돌아본 심낙수(沈樂洙) 어사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은 “온 섬을 비로 쓸어버린 것 같아서 어디가 어딘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이듬해, 1795년 봄에 기근이 들자 같은 해 2월 제주 목사는 조정에 알리고 구호곡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호곡을 싣고 오던 배 다섯 척이 풍랑을 만나 침몰했으므로 그야말로 제주 사람들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목에서는 다시 1만1천 석의 구호곡을 급하게 요청했다.

이 때가 김만덕이 원일곱 살 되던 해이다. 천금(千金)을 내어 육지로부터 쌀을 사들였다. 사들인 곡식의 열에 하나는 친족과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보내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게 했다. 전해오는 말로는 지금의 제주시 중심인 관덕정 앞에 가마를 걸고 죽을 썬서 나눠줬다고도 한다. 구휼이 끝나자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으며, 정조임금은 회유(回諭)하기를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되 쉽거나 어렵거나 들어 주라”고 했다. 목사가 만덕을 불러 소원을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다른 소원은 없고,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신 궁궐을 우리러보고,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고 했다.

이 무렵 제주 여자는 국법으로 육지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으나 임금은 관에서 편이를 봐주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다. 김만덕이 소원대로 상경한 것은 구휼을 한 이듬해 1796년 가을이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따뜻하게 맞았다. 조선시대 대동미(大同米)와 포(布), 전(錢)의 출납을 맡아보던 선혜청(宣惠廳)에서 숙식을 돌봐주도록 했다. 며칠 후에 내의원(內醫院)의 반수(班首)라는 직함이 내려졌는데 이는 임금을 배알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임금이 그녀를 만나보고 “너는 여자의 몸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아사자를 구했으니 기특한 일이다”고 치하하였다. 만덕은 그해 겨울을 서울에서 보내고, 이듬해 3월 금강산에 들어가 명승지를 두루 탐방했다. 원여덟 살 때의 일이다.

그녀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채제공은 실로 장한 일을 한 그의 행적을

기리남기고자 <만덕전(萬德傳)>을 썼다. 채제공의 문집 번암집(樊巖集)에 ‘만덕전’이 실려있어 후세가 그 행적을 알아보게 되었다. 만덕은 혼인하지 않았으며 순조 12년(1812) 10월12일 74세에 죽었다. 그녀의 무덤과 비는 사라봉 앞 ‘고우니마루’에 있었으나 길을 확장하면서 옮겨, 1977년 1월 사라봉 모충사에 모셔졌다.

이 공원 동남 편에는 또 추사 김정희가 그녀의 사후에 귀양와서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준 것이 새겨져 있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채제공, 『번암집』

한림화(1999,2004), 『북제주 여성의 삶 의 기록』

『사례로 본 제주역사에 나타나는 여성』

오성찬(2004), 제주투데이

5) 열녀 김천덕 관련 유적(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은 조선조 선조 때의 열녀로, 애월읍 곽지리의 사노(私奴) 연근(連斤)의 아내였다. 남편이 혼인하고 20년을 함께 살다가 죽었다. 천덕은 재색을 겸비한 정숙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거절하고 수절하였다. 그런데도 제주에 귀양정배 당한 이가 탐내어 수절을 꺾으려 하자 기지를 발휘하여 모면한 적도 있다. 또한 부친이 본인도 모르게 은밀히 혼인을 약조한 적도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목을 매어 죽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손수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자르고 미친 척하니 부친도 더 이상 재혼을 강요하지 못하였다.

그 후 천덕은 평생 수절하였고 부친에 대한 효심도 지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행실이 제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 제주목사 임진(林晉)의 아들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부친을 뵈러 제주에 왔다가 판관 조인후의 그녀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김천덕전』을 짓자 목사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1577년(선조10년) 선조 임금이 그 가룩한 뜻을 기려 가문에 정려(旌閭)를

내렸다. 『김천덕전』은 임제가 제주도에서의 기행을 기록한 『남명소승(南溟小乘)』에도 수록되어 있다.

임제는 『남명소승』에서 “천덕은 거친 남쪽 땅의 하녀일 뿐이다. 처음부터 규문지범이 없을 것이요. 어찌 여훈지규를 익혔겠는가! 허나 일심으로 남편을 섬기고 절조가 두드러졌다. 이 어찌 천부된 자질이 순정(純情)하여 성선설은 더욱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 남자라는 자는 형제간에 다투고 친구간에 배신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자도 있고 아버이를 저버리는 자도 있었다. 천덕에게 죄인이 되지 않은 자가 적으리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고 하였다.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에 묘소가 남아있다. 여성이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리는 힘은 그 신분이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정절을 지킨 것만으로 김천덕과 같은 여성을 평한다면 이는 버리고픈 구습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윤치부(2001),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임제, 『남명소승』(박용후역), 제주문화원

김찬흡(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6) 고소락의 정려비 및 사당(제주시 오등동 및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고소락은 머리가 부스스하고 위로 말려 올라간 곱슬머리를 일컫는 제주지역어 고슬락의 한자표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고소락은 조선시대 숙종 때 제주목 엄장리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제주시 아라동에 속한 오등동 사람 박계곤(朴繼崑)의 차녀인 박씨부인의 사비(私婢)로 자원하여 들어갔다 한다. 왜냐하면 박씨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가는 그 정절과 절개 고품에 감탄하였기 때문이다. 박씨부인 곁에서 스스로 ‘물종년’ 즉 물을

길어나르는 종이 되어 육십 평생을 오로지 섬김에 충실하였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밖에 없어 먼길을 오가며 물을 길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박씨부인에 대한 우정을 보였던 것이다.

고소락은 정조 18년(1794년)에 효자 박계곤, 열녀 박씨부인과 함께 충비로 정려(국가로부터의 표창을 받음)되었다. 조정은 이들에게 박씨 삼정문(朴氏三旌門)을 내렸던 것이다.

고소락이 평생을 모신 박씨의 부친인 박계곤은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몸가짐은 신중하였다. 효도와 우애가 남달라 몸을 아끼지 않고 아버이를 공양하여 자식된 직분을 다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이나 상관을 바르게 섬기니,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박계곤의 딸로, 고소락이 모셨던 박씨부인은 이항춘(李恒春)과 혼인했으나, 남편과 일찍 사별한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에도 정절을 지켜 평생 수절하며 살아간다. 이에 사람들은 그녀를 정절부인(貞節夫人)이라 칭하였다 한다.

효자 박계곤과 열녀 박씨부인, 충비 고소락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은 애월읍 신엄리 박진종의 사당에 있으며, 지금도 그의 후손 박씨 문중에서 명절 때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고소락의 비는 제주시 아라동(오등동) 박씨부인의 열녀비 옆에 세워져 있다. 비문 앞면에는 ‘충비고소락지려(忠婢高所樂之間)’라 새겨 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속수삼강록』에 기록되어 있다.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어 지극한 자매애(sister-hood)를 보인 고소락은 이 시대에도 되살리고픈 유의미한 인물이다.

참고자료; 북제주군(1982), 『내고장 전통문화』

제주교육박물관(2001), 『탐라의 효자·열녀전』

한림화(1999), 『북제주 여성의 삶의 기록』

7) 애국여성 강평국의 묘(제주시 화북동 황사평 제주천주교회 묘역)

강평국의 본명은 강연국(姜年國)으로 1900년 6월 17일 태어났다. 부모가 제주도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신자여서 일찍이 영세를 받아 ‘아가

다'라고도 불렸다. 그녀의 소녀기에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었다.

제주도에 신축교안을 불러온 초창기 천주교 신부 중의 한 분인 프랑스 사 람 구마슬이 세운 신식여학교인 '신성여학교'에 1909년에 입학하여 1915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이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 사범과에 진 학하였다. 그리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노라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을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다. 신성여학교에서부터 함께 공부한 제주도 초 대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崔貞淑)과 가장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1919년 졸업과 동시에 전남 진도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고향에 돌아와 1921년에는 최정숙과 함께 여수원을 개설하여 여성의 문맹 퇴치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1922년에 여수원은 사립 명신학교와 통합되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4년, 일제의 부당한 간섭으로 제주공립보통학교(현 제북교)에 흡수 통합된다. 1925년에는 제주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최정숙, 김시숙, 이재량 등과 함께 제주여자청 년회를 조직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 강평국은 의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26년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로 유학한다. 제주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유학자였다. 의학공부를 하게된 동기가 민족에의 봉사였는데 항상 그 뜻을 잊지 않았다.

일본에서 1927년 1월 16일 창립한 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이 되어 두 가지 일을 추진한다. 첫째는, 1927년 1월 16일 창립된 조선노동조합 유일한 여성으로서 집행위원회 부인부의 책임을 맡았고, 둘째는 1928년 1월 22일 근우회 토요지회의 결성때 박화성(목포)과 함께 의장단으로 당선된다.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여 조국을 되찾는 것이라는 신념 으로 공부에 전념하던 그는 동경여의전 3학년 때 늑막염으로 몸이 극히 쇠약 해 귀향한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1933년 1월 12일에, 예전 광주에서의 여 성 비밀결사가 탄로되어 광주로 구인되어 갔는데 이런 일로 병이 더욱 악화 되어 그 해 11월 10일 병사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제주시 인근 황사평 천 주교 묘역에 안장되었다.

1981년 11월 10일 고인의 업적을 기리어 한여택, 고수선, 김소아, 김계숙, 박

은표, 양병효, 고해영, 김서옥, 김창제, 문연실, 고인식, 오매실, 강어영, 강순자 등 동료·제자 14명에 의해 ‘아가다 강평국 추모비’가 묘소 앞에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 자신을 투신하여 조국애로 앞서 살았던 여성선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다시 조명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인물이다.

참고자료;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허영선(1988),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8)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가 김시숙의 묘(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조천공동묘지)

김시숙(金時淑)은 1880년 음력 2월 24일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며, 여성운동가이다. 스스로 깨우쳐 세상을 바꾼 제주여성이기도 하다.

두 번의 결혼 생활을 접고, 숙부인 김문주(金汶株)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간다. 책 속에 세계가 있고 글 속에 개화 문명이 있다는 숙부의 말을 듣고 나이 마흔에 서슴없이 공부를 시작하였다. 마침 1919년 3월 조천만세운동 당시 스무 살이 갓 지난 친척 동생과 조카가 만세운동을 이끄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김시숙은 매우 빠르게 학문을 익혀나갔다. 책읽기에 매진하는 한편 신식 여성들과 깊은 교류를 맺어 나갔다. 1925년 최정숙, 강평국, 이재량 등과 함께 여성계몽운동을 하였고, 조천리에 여성야학을 개설하였다. 이때 야학에서 항일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하여 검거되었는데 풀려난 후에도 항상 감시를 받아야했다. 이로 인해 독지가들의 자금조달이 끊어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김시숙은 1927년에 여성운동과 야학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제주출신들이 많이 진출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오사카에 도착해 보니, 많은 동포여성들이 일제에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재일 여공보호회를 조직하여 한국출신 여공 보호의 기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

소비조합의 회장이 되어 여공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친일 행위를 일삼던 반민족단체인 ‘상애회(相愛會)’에 대항하여 죽암(竹岩) 고순흙(조천)이 창립한 ‘신진회(新進會)’의 여성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피로가 누적되어 몸져눕기 시작하더니, 1933년 7월 15일 오사카의 적십자병원에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뜻있는 이들이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각 여성 김시숙 호상부인회’를 조직하여 고유제를 지내고, 제주도 조천 공동묘지로 옮겨와 안장하였다. 그녀의 비는 죽암 고순흙이 직접 비문을 짓고 글을 썼다.

한국의 여성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현대에 와서 시작되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사료이기도 하여 앞으로 연구해볼만한 사례이다.

참고자료 ;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김찬흠(1988), 『여걸 김시숙의 생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인용자료 ;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9) 열녀오씨지문(烈女吳氏之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137-1번지)

열녀 오씨는 제주 화순사람으로 신평리 박성림(朴成林)의 처이다. 시집간 후 얼마되지 않아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 했지만, 시부모가 살아계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시부모 섬기는 효성이 지극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완문, 찰리사의 완문이 내려졌다. 1900년(광무 4)에는 쌀과 고기를 하사받는 은전을 입었다. 뒤에 자손들이 그 뜻을 기리고자 1941년 4월 10일에 이 비석을 세웠다.

비문은 전면에, 烈女吳氏之門, 뒷면 왼쪽에, 昭和十六年辛巳四月十日 이라 음각되어져 있다. 비의 높이 81cm. 너비 39cm이다.

10) 김씨효부정려(金氏孝婦旌閭;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정의현성 동문밖)

효부 김씨는 조명윤(趙命允)의 처이다. 김씨는 본래 천성이 어질고 온화했

으며 행실도 고결하였다. 결혼한 후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남편을 존경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하였다. 불행히도 남편이 일찍 죽자, 그녀도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연로하여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므로 마음을 고쳐 어려운 살림인데도 정성껏 봉양하였다.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대변을 맛보며 치료하고 하늘에 빌었다. 이런 사실이 온 마을에 알려져 온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였으며 조정에서는 1891년(고종28)에 그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려문과 함께 비를 세웠다.

비문의 내용은, 嘉善大夫戶曹參判趙命允妻孝婦眞夫人金氏之旌閭라 각인되었다.

이 비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정의현성 동문쪽에서 동쪽으로 100m 지점 도로 오른쪽 돌담 사이에 세워져 있다.

나. 여성생활 유적지

제주도에는 탐라국이 발상하였다고 하나 궁궐터 등 구체적인 공간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지금 제주시 관덕정 옆에 조선조시대의 건물이 복원되고 그 터가 탐라국궁궐터라는 설명은 있지만,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게다가 여성관련 공간 등이 전혀 복원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1) 동굴입구·바위그늘 집자리 유적

제주도에 정착하여 섬생활을 시작한 인류는 여성주도형 생활공동체를 추구하였다고 유추되고 있다. 그 관련 유적으로 동굴입구 및 바위그늘 집자리 유적과 신화 등을 예로 든다.

제주도는 야외정착주거지 외에 화산지형으로 만들어낸 소위 ‘엉덕’과 동굴이 당대 주민의 주거지로 이용되었다. 동굴주거지(Tunnel-Dwelling site)와 바위그늘주거지(Rock-Shelter)는 제주도 전역, 특히 바닷가와 하천변에 산재하여 지금까지 수많이 남아있다. 더구나 제주도의 동굴주거지와 바위그늘주거지는 장기적인 주거용으로 이용되었으리라는 것이 학계의 추론이다.

1060년경 중국 송나라 때 구양수가 지은 『新唐書 東夷傳 擔羅國條』의 기록을 보면, 용삭(龍朔)초에 담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 유리도라(孺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서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의 무주(武州) 남쪽 섬에 있고,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는다. 집은 여름에는 풀로 지붕을 인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산다. 고 되어 있다. 이 기록 등으로 미뤄 제주도에서는 동굴과 바위그늘 집자리가 계절적으로 사용되던 주거지라는 고고학적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2) 온평리 혼인지와 동굴입구 집자리(제주도기념물 17호/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725-2번지)

이 동굴유적은 관광지로 유명한 온평리 혼인지 동편 50m 지점에 있다. 주변은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해안에서 직선거리 1.5km, 해발 60m의 위치에 있다. 이 유적은 동암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입구가 형성되었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은거지가 생겼다. 동쪽으로 트인 굴입구로 들어가면 세 방향으로 나지막한 굴이 있다. 유적은 맨 오른쪽 굴 가운데 홀에서 적은 양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 유적은 신화상 탐라국의 생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탐라국 개국신화(開國神話)에 의하면, 제주섬에 본격적이고도 조직적인 인간의 사회생활이 도래한 첫 장은 벽랑국 세공주가 등장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진다.

한라산 북쪽 기슭의 울창한 밀림 속 양지뜸 땅을 헤집고 고(高)·양(梁)·부(夫)을나 세 신인(神人)이 솟아났다. 이들은 풍채가 당당하고 도량이 넓어 인간세상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인물들이었다. 세 신인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여 육식(肉食)을 하면서 제주섬을 섭렵해 나갔으나 마땅한 배필이 없어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라산에서 백록을 쫓다가 무심코 멀리 동쪽을 바라보니,

하늘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데다 자주빛 함이 바다물결을 타고 두둥실 떠오르는게 보였다. 세 신인은 함이 물결에 실려와 머문 곳인 온평 바닷가 황날로 달려 내려갔다. 함을 여니 새알 모양을 한 옥함(玉函)과 함께 자주빛 관복을 입은 사자(使者)가 들어있었다. 그 사자가 세 신인에게 두 번 절하고 엎드려 아뢰었다.

“나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자소각에 올라 서쪽바다의 기상을 살피더니 상서로운 기운이 이에 서리는걸 목격하고는 그 뜻을 알아봤습니다. 세 신인께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는 고이 키운 세공주를 나에게 데려다 드리라 하였습니다. 부디 맘에 맞는 분을 서로 택하시어 짝짓는 예를 올리고 대업을 이룩하십시오” 옥함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열대여섯은 되었을 성실은 아리따운 세 공주가 들어있다가 세 신인을 반갑게 맞았다. 세공주는 오곡씨 앳과 더불어 마소를 가져왔다.

지금도 황날 바닷가에는 그 때 세공주가 가져온 마소가 물으로 나오면서 맑은 바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세공주를 무사히 세 신인에게 인도한 사자는 구름을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세 신인과 세공주는 서로 맘에 드는 짝을 골라 온평리 혼인지(婚姻池)에서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혼인하였다. 그들은 혼인한 후 혼인지 바로 옆에 있는 바위동굴에 신방을 차렸다 한다.

이 신화 말미에 나타나는 바위동굴이 온평리 혼인지에 잇댄 동쪽의 동굴입구 집자리로 유추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아직도 선사생활유적에 해당되는 바위그늘 및 동굴입구 집자리가 산재되어 있다. 더구나 여성이 주도하여 생활했음을 알아볼만한 관련 신화도 부지기수이다.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조사 및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련유적;

순번	유적지	소재지	시대
1,2	안덕계곡 바위그늘집자리 1.2	안덕면 감사리 안덕계곡	탐라시대 후기
3,4	창고내 바위그늘집자리 1.2	안덕면 화순리 창고천하류	탐라시대 전기
5,6	하례리 바위그늘집자리 1.2	남원읍 하례리 403, 404번지	탐라시대 전기
7	신례리 바위그늘집자리	남원읍 신례2리 신례천하류	탐라시대 후기
8	한남리 바위그늘집자리	남원읍 한남리 504번지	탐라시대 후기
9	신천리 동굴입구집자리	성산읍 신천리 해안목장 안	탐라시대 전기
10	온평리 동굴입구집자리	성산읍 온평리 1725-2번지	탐라시대 전기

참고자료: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한림화(1998), 『제주섬 남녘뜨락에 인류 역사를 꽃피운 손길』

3) 제주의 전통가옥, 초가(중요민속자료 제68호/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일대)

제주의 전통가옥인 초가는 ‘일하는 여성’이 집 안팎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적합하도록 구조와 동선이 짜여져 있다. 제주도는 마을단위, 동네단위로 지역사회자체를 열어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문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집으로 접근하는 통로에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는 긴 출입구인 ‘올래’를 두고 있다. 출입구인 ‘올래를 들어서면 넓다란 마당이 펼쳐진다. 제주전통가옥에서 마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마당은 철따라 타작마당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넓은 땅바닥을 테니스코트처럼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짚을 가지런히 깔아 바람 많은 제주환경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장치한다.

또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데 마당가에는 곡식 혹은 빨감을 갈무리하는 가리인 ‘눌’을 설치한다. 여기에 한일(一)자 겹집을 기본으로 삼아 분할식 평면구성을 해나간다. 예를 들어, 안거리(안채), 밖거리, 목거리 등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또는 ㄱ자 형태를 이룬다.

안거리는 4칸집이든 3칸집이든 기본구조는 다, 방, 상방이라고 하는 마루, 정지라고 부르는 부엌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방 뒤편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고방을 앞히고 정지 옆에 찬방을 조성하기도 하고 아랫방을 꾸미기도 한다.

모든 분할된 공간은 마당을 향해 문을 내고 또 안뒤(안튀)라는 후원을 향하여 부엌과 마루에는 뒷문을 단다. 안뒤에는 동백나무 등 밑둥이 단단하고 깨끗한 나무를 심어 그 앞에 커다란 항아리를 얹혀 나무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장치한다. 부엌 문밖에는 물을 길어나르는 ‘허벅’을 지고 내리기 좋게 그 집 성인여성의 허리께에 맞춘 고인돌 형태의 ‘물팡돌’을 둔다. 방은 비교적 좁아 자리 두 닢을 나란히 깔아놓을 수 있는 넓이인데 비하면 마루와 부엌은 넓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전통가옥이 단 한 채로 구성되었으면 ‘외거리’, 두 채로 구성되었으면 ‘두거리’, 세 채로 구성되었으면 ‘세거리’, 네 채로 구성되었으면 ‘네거리’집이라고 부른다.

제주의 전통가옥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성읍리에는 1979년 1월에 중요민속자료 제68호로 지정된 조일훈의 가옥 초가 5동을 포함, 마을 자체가 민속촌을 이루고 있다.

4) 괘지패총(제주도기념물 41호)

<참고>

- 패총, 바닷가마을의 생활유적

순번	유적명	소재지	시대
1,2	상모리 패총1,2지구	대정읍 상모리 71-4, 71-3번지	청동기 시대
3	가파도 패총	대정읍 가파리 340번지	탐라시대 전기
4	화순리 패총	안덕면 화순리 해안	탐라시대 전기
5	신양리 패총1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내	탐라시대 전기
6	신양리 패총2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내	신석기시대 후기
7	신양리 패총3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내	탐라시대 전기

패총은 어로행위와 해산물 채취를 통하여 식량을 획득했던 상고대의 유적이다. 이 유적 주변은 주로 넓은 대지를 이루고 있어 농경지로서 충분히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소라, 고둥, 전복 껍질들이 출토되고, 동기와 갈판 등 농경지 개간과 곡물 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렵용 화살촉 등도 들어 있다.

제주의 바닷가 곳곳에 널려있는 이러한 패총 유적은 제주여성, 즉 좀더 적

극적으로 해석하면 제주해녀의 상고대부터 비롯되었을 생활주도형 해상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가 된다. 단순한 상고대의 유적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주여성생활역사에 근거한 유적으로 정립시킬 때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다. 여성생산활동 유적지

제주섬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립된 작은 섬이다. 제주사회는 여성주도형 생활방식을 오랜 세월 영위하였기 때문에 섬 자체가 제주여성생산활동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억척스런 노동력에 의지하여 살기 좋은 낙원으로 건설된 본보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의 생활사를 전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제주여성의 일하기는 매우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여러 제주여성문화가 향유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여성이 일하던 흔적을 ‘일놀래’ 한 꼭지만 들어봐도 자세히 더듬어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어느 마을 여성들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노동요한 편에서 제주사회의 경제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품목을 더듬어 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사료인가.

큰애기타령

득리 손당 큰애기들은 피방애 지기로 다 나간다.
죽성 ㄱ다시 큰애기들은 틀드래 타기로 다 나간다.
짐녕 골막 큰애기들은 태와 장시로 다 나간다.
함덕 근방 큰애기들은 신각 부비기로 다 나간다.
조천 근방 큰애기들은 망건청으로 다 나간다.
신촌 근방 큰애기들은 양태 틀기로 다 나간다.
설개 감을개 큰애기들은 감외청으로 다 나간다.
벨도 근방 큰애기들은 탕건 틀기로 다 나간다.

칠성골 근방 큰애기들은 돛배설 훑기로 다 나간다.
 도두 근방 큰애기들은 모즈 틀기로 다 나간다.
 고내 애월 큰애기들은 구물 틀기로 다 나간다.
 어도 근방 큰애기들은 푸낭긔 장시로 다 나간다.
 청수 당멸 큰애기들은 삼동 타기로 다 나간다.
 조수 낙천 큰애기들은 지름 장시로 다 나간다.
 차귀 근방 큰애기들은 해천영업으로 다 나간다.
 대정 근방 큰애기들은 자리짜기로 다 나간다.
 성읍 근방 큰애기들은 찌름질 흥기로 다 나간다.
 정이 산 앞 큰애기들은 질삼짜기로 다 나간다.
 종달 근방 큰애기들은 소금 장시로 다 나간다.
 <교래리 송당리 큰애기들은 피방아 쥘기로 다 나간다.
 죽성 영평 큰애기들은 산딸기 다래 따기로 다 나간다.
 김녕리 동복리 큰애기들은 태와 장수로 다 나간다.
 함덕리 근방 큰애기들은 미투리 날 꼬기로 다 나간다.
 조천리 근방 큰애기들은 망건청으로 다 나간다.
 신촌리 근방 큰애기들은 갓양태 짜기로 다 나간다.
 삼양동 큰애기들은 가마청으로 다 나간다.
 화북동 근방 큰애기들은 탕건 짜기로 다 나간다.
 칠성로 근방 큰애기들은 돼지창자 훑기로 다 나간다.
 도두동 근방 큰애기들은 모자 짜기로 다 나간다.
 고내리 애월리 큰애기들은 그물짜기로 다 나간다.
 어도리 근방 큰애기들은 푸나무 장수로 다 나간다.
 청수리 저지리 큰애기들은 삼동 따기로 다 나간다.
 조수리 낙천리 큰애기들은 기름장수로 다 나간다.
 고산리 근방 큰애기들은 출가물질로 다 나간다.
 대정골 근방 큰애기들은 자리 짜기로 다 나간다.
 성읍리 근방 큰애기들은 초석날 찌르는 일로 다 나간다.
 한라산 앞 정의 큰애기들은 길쌈 짜기로 다 나간다.
 종달리 근방 큰 애기들은 소금장수로 다 나간다.

명쾌하고도 간결한 사설로 엮어진 이 ‘놀래’로 하여 제주도 각 마을의 주생 산품목이 뭐였는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제주여성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생산의 주체가 되어 섬경제를 영위했음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근거 또한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지금 여성 생산활동의 근거로 남아있는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유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생산현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금을 생산하던 소금밭과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거점인 ‘불턱’ 등은 사라져 가는 실정이다. ‘불턱’은 일종의 노천탈의장과 휴게소로 제주해녀의 일터로서 포스트 역할을 하던 장소이다. 지금은 현대화된 탈의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불턱’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사라져가는 소금밭과 불턱만을 다루기로 한다.

1) 소금밭

제주도의 전통 염전인 소금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닷가 모래밭에 조성된 모래 소금밭과 다른 하나는 갯가의 암반 위에 조성된 돌 소금밭이다.

2) 모래 소금밭

- 일파리 소금밭. 종달리 소금밭(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일파리 장수원과 큰늘 위쪽,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해안도로변 북쪽 논)

조수의 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바닷물이 밀려들지만 평상시에는 모래빨이 드러나는 공유수면에 조성되었다. 공유수면임으로 소금밭을 조성하는 주민들은 자기 구역을 설정하고 경계에 돌 등으로 표시를 하였다. 미처 모래밭에 소금밭을 조성하지 못한 지역주민은 이미 조성된 소금밭을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생산된 소금 반을 값으로 지불하는 반작(半作)제를 이용하곤 하였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제염을 하였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조금 기간에 주로 작업을 하였다. 간수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모래빨을 고르고 허벅으로 바닷물을 저 날라 모래 위에 뿌리고 말리고를 열다섯 번 정도 반복하여

써레로 긁으면서 건조하였다. 대부분 모래밭 한 평당 바닷물 한 허벅을 뿌렸다. 모래밭에 하얗게 간이 서리면 모래를 긁어모아 간을 빼는 ‘덕’으로 옮겨 간수가 흘러내리게 한다. 이렇게 뺀 간수를 큰 가마솥에 넣고 ‘남죽’이라고 하는 나무 막대로 휘저으며 끓이면 소금이 제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제소금이 아닌 물소금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종달리 소금밭은 조선조 말에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채구석 등에 의하여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오늘에 이른다. 종달리 소금밭에서 제조된 소금은 질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 종달리 여성들은 극성스럽게 제염에 매달려, ‘사흘만 날 좋으면 종달리 비바리들 남죽 들고 춤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종달리 여성들은 생산한 소금을 등에 지고 제주전역을 돌면서 물물교환하는 등 소금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도맡았다고 한다.

관련유적; 동일리 소금밭.

태흥2리 소금밭.

하천리 셋모살밭

조천리 알개소금밭

신창리 펄낭모살밭

용수리 산앞의 소금밭

시흥리 소금밭 등

인용자료; 남제주군, 제주대학교박물관(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3) 돌소금밭

바닷가의 편편한 암반층에 우묵우묵 들어간 작은 물웅덩이를 이용하여 제염을 하였다. 암반층의 물웅덩이에는 바닷물이 들고 나지를 앓아 한 번 들어오면 그대로 고여 햇볕에 증발됨으로 비교적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고여있게 마련이다. 혹은 납작한 암반에다 바닷물을 뿌려 넣기를 반복적으로 한 다음 하얗게 소금간이 내비치면 빗자루 등으로 쓸어 웅덩이로 모아 가마솥에서 끓여 정제 소금을 제염하거나 짙은 간수 상태로 사용하였다.

또 바닷가 암반지대의 울퉁불퉁한 물웅덩이의 염도 높은 바닷물에 배추 등 야채를 절여 김치를 담곤 하였다.

관련유적; 하례2리 황개 소금밭

위미1리 소룡곶 소금밭

사계리 설کم 물빌레 소금밭

구엄리 소금빌레

애월리 배무숭이 소금밭 등

인용자료; 남제주군, 제주대학교박물관(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4) 해녀작업장, 불턱(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섬지코지 및 제주도 바닷가 마을 제주해녀 작업장 일대)

불턱은 제주해녀사회가 가시화 되는 현장이다. <불턱>은 제주해녀가 물질을 하는 바다의 갯가 양지뜸에 놓인 노천탈의장(露天脫衣場)을 일컫는다. 그 본뜻은 화톳불자리를 말한다. 바닷속에서 장시간 물질을 해야하는 작업환경의 특성상 작업장 가까이에 물질로 언 몸을 녹이는 화톳불을 피우는 불자리 즉 ‘턱’의 설치의 필수적이었던 것 같다. 사실 엄연한 의미의 제주해녀 공동체 혹은 제주해녀의 세계는 바로 화톳불자리인 <불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진다. 따라서 <불턱>은 제주해녀 공동체의 집합장소(集合場所)일 뿐더러 이 공동체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실질적인 제주해녀 공동체가 형성되며 좁은 의미에서는 후대 제주해녀에 대한 학습(學習)이 이뤄지고 직업(職業)이 전승(傳承)되어 왔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불턱>의 상징적 기능은 공동체 안의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엄수(嚴守)되는 시발점이며 종착점이 가시화(可視化)된 장소라는 점이다.

<불턱>이 지금은 식당과 목욕탕과 휴식시설을 고루 갖춘 <탈의장>으로 바뀌었어도 기존의 <불턱>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제주해녀 세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불턱> 혹은 <탈의장>에서부터 잠수 개개인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며 연령별 혹은 물질 기량에 따른 작업능력

과 현황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제주전통해녀집단이 가시화되던 현장을 유적으로 지정, 보호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소멸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5) 빨래터(산짓내, 공새미, 자구리새미, 열운이갯물 외 각 마을 빨래터)

- ① 산짓내(산지천)(제주시 산지포구 위쪽 동문시장 북쪽 시내)
- ② 공새미(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3리 공천포 바닷가)
- ③ 자구리새미(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포구)
- ④ 열운이갯물(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중동네 포구 옆)

① 옛날 제주도는 물이 귀하였다고는 하지만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마을마다 용천수가 몇 군데씩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제주시 구시가지 한복판을 흐르는 산지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부드러워 빨래터로 유명하였다. 평상시에는 바짝 마른 건천이다가 비가 내려야만 물이 흐르는 특성이 제주의 시내라면 산지천의 빨래터는 한라산에서 발원한 시내가 늘 맑게 흘렀다. 그것도 시가지 복판을 흘러내려 바다까지 닿았음으로 그 하류에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성안 즉 지금의 제주시내 동쪽 주민들은 다 이 산짓내에서 빨래를 하였다. 일제강점초기부터는 빨래터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빨래도 삶고 염색도 하였다. 한동안 매립되었다가 얼마전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다시 수량이 풍부한 시내를 이뤘지만 빨래터는 되살리지 못하였다.

② 공새미는 바다에 단물이 폭포처럼 솟구쳐 쏟아지는 빨래터인 동시에 물맞이터로 오래전서부터 제주여성의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구나 공새미에는 화산재로 이뤄진 까만 흑요석모래로 이뤄져 있어 예전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햇볕 좋은 날이면 빨래를 하얗게 널어놓은 게 검은 화산모래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고 한다. 이 공새미 빨래터는 그 검은 화산모래가 찼질하기에 알맞아 밭일이며 물질로 삭신이 아픈 제주여성들의 백중절 모래뜸으로 인기가 높았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농한기인 백중절이면 여성

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이뤄 먹을거리며 빨래걸이를 한 짐씩 지고 공새미에 모여들어 며칠씩 시원한 물줄기에 물맞이하고 검은모래찜질하는 틈틈이 빨래를 하여 새하얗게 바래면서 폭 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즈음 그 옛날 정취가 되살아나 공새미의 여름은 발디딜틈 없이 물맞이와 모래찜질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③ 자구리새미는 서귀포시 자구리포구 입구에 자리잡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고 시원 풍광수려한 빨래터이다. 예전에는 ‘금남의 샘’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날이 맑으면 서귀포 구시가지 여성들이 한 아름씩 빨래를 가지고 샘에 몰려든다. 바로 옆에 정방폭포 등 절경이 있어 빨래를 하면서 그 풍광에 젖어들곤 한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빨래터 중에서 가장 공새미와 더불어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다.

그 주변 풍광과 바다에 잇대어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스쿠버다이버들이 노천탈의장으로 더 활용하고 있어 빨래를 하는 여성들은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처럼 서귀포 여성들의 빨래터 겸 떡 감는 샘으로 환원되었으면 한다. 바로 옆에 ‘관청할망당’이 있어 더욱더 여성유적으로 존재가치가 높은 곳이다.

④ 열운이갯물은 탐라국 개국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 세공주가 들어온 바닷가 옆에 있어 여성유적지로는 제격이다. 이 갯물은 빨래 뿐 아니라 채소를 씻는 샘으로도 널리 애용되어 왔다. 그만큼 샘의 규모가 크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들어차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가장 윗물은 식용으로, 중간은 채소 씻는 곳으로, 가장 아래쪽인 ‘깍’에서는 빨래를 하는 곳인데 빨래를 할 때도 고운 옷을 빠는 이가 물 흘러내리는 순서대로 맨 위쪽에서 빨고 걸레 등 굵은 빨래를 하는 이는 가장 아래에서 빠는 등 나름대로 불문율이 있었던 샘이다.

이 갯물은 긴 성과 같은 돌담으로 나누어져 북쪽이 남성전용, 남쪽이 여성전용이었다. 지금은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거의 묻혀버렸다.

관련유적; 제주도 각 마을의 빨래터

6) 제주해녀

- 잠수장 제도 운영(제주도의 바닷가 마을 전역)

개개인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주해녀 공동체는 구성원의 서열이랄 수 있는 <하군/하좁수>와 <중군/중좁수>, <상군/상좁수> 등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한다.

<하군>은 물질을 막 시작한 이들 혹은 물질기량이 변변하지 못한 속칭 <톨파리>라고 불리우는 그룹과, 어린 사람들로 구성된 <애기좁수/애기해녀>를 일컫는다. <중군>은 <하군>과 <상군>의 중간 그룹이다. 제주해녀사회에는 이 그룹 구성원이 숫적으로 가장 많다. <상군>은 물질을 아주 잘 하는 이, 물질 기량이 뛰어날뿐더러 나이도 많은 그룹으로 제주해녀사회의 리더그룹이기도 하다. 또한 <상군>그룹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으며 물질 연륜이 지긋한 이 가운데 제주해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최고참>이라 하고 <웃어른>으로 지칭하여 제주해녀사회의 리더로 '웃주운다'(모셔 받든다).

이런 질서의 서열화 및 준수는 제주해녀의 공동체가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직업이 고도의 훈련을 요구한다 점과 직결된다. 제주해녀 공동체는 <불턱>을 중심으로 미숙련자를 숙련자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제주해녀의 어로행위 즉 물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중(水中)경제활동이다. 따라서 견물생심(見物生心)에 기인한 개인의 욕심과 자만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에 교육을 통하여 작업 중의 사고를 줄이고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공동체의 결속을 지키고 물질작업과정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지는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제주해녀사회에 <불턱>이 없었다면 위에 예로 든 조건들이 충족될 수 없음으로 제주해녀는 개체로서만 존재할 뿐 대대로 대물림되는 제주해녀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통적인 제주해녀 공동체의 의결기구인 <잠수회(潛嫂會)>(일부 지역에서는 <해녀회>라고도 한다)였고 의결방법은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었다. 의견차이가 심하여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는 대개 최종결정권은 그 지

역의 최고참자인 <웃어른>이 내리는 결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였다. (<잠수회(潛嫂會)>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웃어른>에게 부여된 그 절대적 권한의 이면에는 제주해녀 공동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도 남을만한 해녀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고귀한 삶을 살았기에 누구나에게 귀감이 되는 까닭에서였다.

지금 제주바닷가 제주해녀 공동체는 노천탈의장인 <불턱> 대신에 쉼터와 냉온급수시설(冷·溫 給水施設)과 조리실 및 간이 휴게시설을 갖춘 현대식 잠수전용탈의장(潛嫂專用脫衣場)으로 거의 다 대체(代替)되었다.

제주해녀 공동체는 <불턱>에서 <탈의장>으로 옮기는 동안 공동체는 급격하게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기존의 룰(rule)과 롤(role)은 외형적으로 기본틀만이 유지되고 있고 내용은 개인적인 능력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제주도 및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잠수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 잠수장 1호는 고이화(90세, 2004년)로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서 아직까지도 물질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라. 여성교육·운동 유적지

1) 신성여학교터인 제주향청(향사:제주시 삼도1동 중앙성당 뒤)

제주도에 신축교안을 불러온 초창기 천주교 신부 중의 한 분인 프랑스 사람 구마슬이 1909년에 세운 신식여학교인 ‘신성여학교’는 제주도 최초의 제주여성을 위한 현대교육시설이었다.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식민정부에 의하여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문을 닫기까지 신여성을 다수 배출하여 이들이 서울과 일본 등지로 유학, 제주사회의 지식인 여성집단을 구축하여 제주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숭한 일들을 하였고 업적을 남겼다.

최정숙 대한민국 초유의 교육감은 바로 이 학교 1회 졸업생으로 해방이후에 학교를 복원, 재설립하여 지금의 신성여학원인 신성여중·고등학교 및 신성유치원에서 비롯한 카리타스유치원이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주여성

교육의 산실인 제주향청에 대한 사적 지정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관련유적 ; 재설립한 신성여중·고등학교 터 중앙성당

2) 제주해녀항일항쟁의 산실인 하도야학의 본산, 하도초등학교 교정 및 각 마을 야학소 터(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하도초등학교 및 제주의 각 마을 야학소터)

일제강점기에 제주의 각 마을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소가 대개 서너개씩 있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현대사 과정에서 유일한 제주여성의 교육수여 장소였던 야학소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조사,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술증언자료(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p.63, 2003) 등에 의하면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주도 전역에서 마치 지금의 학교개학일이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야학은 구월 1일 밤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야학소가 제주도에 번창하였던 동기 등은 연구된 바 없다. 다만 제주해녀들의 생산품이 환금 가능한 것이었음으로 이들의 남편 혹은 형제들을 많이 유학보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유학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시대사조 또한 세계의 변화를 접하게 되어 고향에 돌아와 민족의식고취 차원에서 야학을 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제주여성들은 이들 신지식을 습득한 남성들과 가족관계에 있었음으로 이들로 전해들은 바깥세상의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야학소 개설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개입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1930년대 초기에 당시 하도중앙소학교 교사들은 교장을 위시하여 다 야학소의 교사도 겸하였다. 더구나 야학소 교사들의 막후의 이론적이고 조직적인 도움에 힘입어 제주해녀의 항일항쟁은 2년 여 넘게 계속될 수 있었다.

3)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비(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일주도로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서 하도리로 넘어가는 모래둔덕에는 아름다우나 매우 힘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부터 2년 여에 걸쳐 제주해녀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자취를 기려 세워진 기념비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신학문을 일본 등지에서 배운 청년들이 들어와 마을마다 서너 군데씩 야학을 열고 있었다. 제주해녀들은 야학에서 열심히 신학문을 익혀 새세상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저울눈 보는 법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야학에서는 강도 높게 한민족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당연히 일제침략의 부당성 등을 성토했기도 했다.

이 무렵 성산포에 들어서 있던 소라 등 해산물 통조림공장을 운영하는 일본인들이 해녀조합장인 도사(島司)를 등에 업고 해녀들에게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에 성산포 잠수회(潛嫂會)원들은 당시 하도중앙소학교 교장인 현재성 선생을 대동하고 도사를 면담하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탄원서를 여러 번에 걸쳐 접수하였다. 이 소식은 하도야학 선생들에 의하여 해녀사회에 퍼져 나갔다.

1929년 하도리에는 여성 단체로 부인회, 소녀회 등이 조직되고 있었는데, 부인회 회장은 부춘화, 소녀회 회장은 김옥련이 맡고 있었다. 당시 일제의 수탈이 정점에 달하자 김옥련 등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931년에서 1932년에 걸쳐 제주해녀들은 생존권보장과 조국 독립을 부르짖으며 항일운동을 벌였다. 이 제주해녀항일항쟁에 참가한 숫자만 연인원 1만7000명을 웃돌았다.

부춘화를 위시한 해녀 대표들(김옥련, 부덕량 등)은 당시 제주도사였던 다구치 데이키(田口楨熹)에게 야학선생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9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해녀들에 대한 조합측의 부당성을 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제주해녀항일항쟁은 투쟁의 주체가 제주여성인 제주해녀집단이었고, 한국 최대규모의 어민투쟁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에서 발발한 조천 만세운동과 무오년 법정사항일운동(法井寺抗日運動)과 더불어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항쟁의 주역으로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김옥련에게 2003년 8월 15일, 정부는 독립유공자로 선정,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했다. 이는 제주해녀항일항쟁이 독립투쟁이었음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관련유적; 세화리 장터, 조천항일유적관 등

참고자료; 김찬흡(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김영돈(1988), 『옹골찬 제주해녀들의 삶』,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한림화(1986),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마.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1) 개척지: 함덕리(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 입구 동쪽)

공식적인 기록도 사적인 기록도 아닌 지명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제주여성들이 있다.

함덕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동쪽 옛 ‘국민학교’로 이어지는 습지에 ‘함덕리’ 혹은 ‘석교’라고 하는 돌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돌덩이를 척척 습지에 낙박았는데 무려 110 보에 이르렀다. 함덕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함씨 할머니가 설촌한 마을이어서 ‘함덕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를 추적해보면 함덕리 설촌은 1200년 경이고 강릉 함(咸)씨 함유천(咸裕千)이 제주섬에 유배온 연대는 1576년, 조선조 선조 9년이므로 시기적으로 다소 맞지 않는다.

‘함씨할망’은 사람들이 뒷개(水村수촌=지금의 현사동)쪽으로 드나드는데 습지가 매우 불편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오명 혼 덩어리, 가명 혼 덩어리(오면서 한 덩어리, 가면서 한 덩어리)’ 돌을 날라다가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또 어느 해엔가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니 돌 한 덩이씩 들고 오라고 하였다. 길가에 큰 가마솥을 걸어 죽을 쑤워 놓고 작은 돌맹이라도 손에 쥐고 온 사람은 다 구휼하였다. 아무리 굶주린 사람도 자존심과

체면은 있는 것, 일한 대가로 죽 한 사발을 주는 거라고 하였으니 굶주린 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행위였다. 그녀의 마음 씀씀이는 습지에 다리도 놓고,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함덕리 사람 자존심하면 첫 손 꼽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 후, 이 ‘함덕리’는 함덕리 습지를 매립하여 땅을 만드는 일에 한 표석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함씨할망의 흔적인 개척자적 유적지 함덕리 습지에 놓은 돌다리 하나에 불과한 ‘함덕리’. 지금은 거의 매립되어 ‘갯물’터에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그곳은 함씨할망의 현저로운 흔적을 기리는 ‘함덕리’이다.

함씨할망은 제주여성이 지닌 불굴의 개척자 정신의 소유자로서 표상이 될 뿐 아니라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여성의 징표이기도 하다.

2) 버duc할망 돛박수월(제주도 기념물 39호/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약 160여년 전 제주 고씨 시조 고을라 70대손 복성 삼읍유림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三邑儒林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와 진원(振遠) 향공 진사 도훈장(鄉貢進士都訓長)부자가 서귀 서흥리에 살았는데 아들 진원이 정의현청 교수관으로 재직할 당시 서흥리와 성읍리 중간쯤 되는 냇가 마을에 현씨 집성촌이 있어 종종 그곳에서 밤을 지내곤 한 인연으로 그곳의 한 규수와 혼인을 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어느날 갑자기 진원이 세상을 떠나니 현씨부인은 친가에 의탁하고 살아가던 중 한 지관이 이르길, 한남리 아무 터가 백년대계할 집터라고 일러줬다. 한 동안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집안에 잤은 우환이 있어 가세가 기우니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다. 와보니 사람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 있느니 버duc 즉 암반만 질편할 뿐,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암반 틈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동백나무 밑동에 짚을 둘러 ‘춌’을 만들어 그 물을 받아 마시며 개척하여 나가면서 주변에 동백나무 울타리를 조성하였다. 아들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쳤다. 이에 이들이 장성하여 후손을 보니 별족하게 되었고 유림촌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현씨부인에게는 별명이 불

었는데 그게 바로 ‘버독할망’이다.

지금도 버독할망이 후대를 생각하여 손수 심은 동백숲은 제주 제일로 올창하다. 그 숲에서 나오는 동백씨로 동백기름을 내어 이제도 천식 등 민간요법으로, 나무가구에 길을 내는 윤활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단지 아쉬운 점은 버독할망의 숭고한 개척정신과 후대를 위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성을 기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 나무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숲은 1982년 제주지방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버독할망의 본명은 현맹춘이다.

일을 하되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당장 눈앞의 생활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일은 말같이 쉽지 않다. 하지만 예전의 제주여성들은 그렇게 살았으며 그러한 삶의 흔적은 말과 글과 심지어 지명에 깊이 아로새겨 전해지고 있다.

3) 설문대가 토목공사로 조성된 표선리 당개 일대(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표선백사장 및 민속촌 일대)

설문대는 신화상 제주도를 창조한 여신으로 묘사된다. 그 신화를 보면, 설문대는 어느 날 망망대해 가운데 제주섬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치마폭으로 흙을 퍼 날랐다. 찢어진 치마구멍 사이로는 끊임없이 흙부스러기가 떨어져 오름이 생성되었다. 제주섬을 완성하고나서 한라산(漢拏山)도 만들었다. 산봉우리가 너무 높이 솟은 게 맘에 들지 않아 봉우리만 살짝 들어내어 남쪽바닷가로 던졌더니 안덕(安德) 근방 사계리로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

설문대는 참으로 거구(巨軀)였다. 섬의 동쪽 머리 성산(城山)일출봉에서 오줌을 싸니 육지가 오줌줄기에 깊숙이 패이면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통에 땅덩이 한 조각이 툭 떨어져 나가 섬 중의 섬인 소섬이 되고 말았다.

제주섬을 다 만들고 나니 입은 단 벌 치마가 거덜나 섬주민들이 소원해 마지않은 연육교(連陸橋)를 완성해 줄 도리가 없었다. 제주사람들이 고쟁이를 지어주려고 피륙을 열심히 모았으나 100통(동)에서 단 한 통이 모자라 고쟁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만다. 이에 고쟁이를 입지 못한 설문대가 가랭이를 다

보이며 일하는 모습을 민망하게 여긴 제주주민 때문에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신 설문대가 어느날 홀연히 나타난 ‘하르방’을 만나 살림을 차린다. 일용할 양식이 모자라자 하르방을 재촉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출봉 옆 신양(新陽)리 쉼지코지 앞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하여 먹고 산다. 하르방이 물속 바위틈을 휘저어 고기며 전복이며 소라를 몰아주면 설문대는 자신의 거대한 육신을 그물삼아 포획하였다. 낮에는 하르방과 더불어 사냥이며 물질로 생업을 일삼다가 밤이면 성산 일출봉 중턱에 등촉(燈燭)을 밝혀놓고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 옷도 꿰매곤 했다.

끝내는 장성한 아들 오백 명을 먹일 죽을 쑤다가 죽술에 빠져 죽고만다. 죽은 신 설문대는 영혼으로 표선리에서 살고 있었다. 표선(表善)리 사람들은 마을 앞의 바다가 너무 수심이 깊고 거칠어서 늘 걱정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면 영락없이 파도가 마을을 덮쳐 모든 걸 쓸바람으로 만들기 일쑤였던 것이다. 주민들이 설문대 영혼에게 마을 앞 바다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빌었다. 설문대 영혼은 마을사람들 애원을 듣고는 역사(役事)하기로 작정한다. 일할 날짜를 잡은 그날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마을 숲인 남추곶(岾)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자르고 흙을 퍼날라 표선리 앞바다를 매워나갔다. 표선리 앞바다는 어느새 곱고 넓다란 흰모래 벌판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집집마다 매어났던 소들은 모두 고된 등짐을 지어나른 뒤끝처럼 등이 벗겨졌고 외양간 기둥에 꽂아놔 둔 도끼들은 하나같이 날이 다 망가졌다고 한다.

설문대 영혼은 하룻밤 사이 온 마을의 소와 도끼를 동원하여 깊은 바다를 매워 모래밭을 만든 것이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그 모래밭 끝머리 포구근처에 설문대를 위해 할망당(堂)을 설립해 대를 이어 그의 공적을 기린다고 한다.

설문대 이야기는 제주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옛말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흔 하디흔한 신화이다. 그가 제주섬을 창조하는 초입부분 표선리에서 벌인 토목공사 부분을 제외한 행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 배경은 흥미롭게도 거의 가 다 일상적인 에피소드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평범한 인물과 구분되지 않는 여성, 특히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문대는 역사이

전에 신화(神話)로 존재하는 ‘상징적 의미의 최초의 제주여성’이다.

설문대는 제주섬을 만든 일종의 창조(創造)의 신(神)이다. 그 성격을 보건대 다른 신화에 나타나는 창조의 신들에서 보여지는 절대적인 권위나 권력 따위를 지니지 않았다. 신화상으로는 여성성이 풍부한 인물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통하여 ‘제주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여성’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에게서 ‘일하는 여성’인 제주여성과 ‘능동적인 생활인’인 제주여성을 만나게 된다. 설문대는 일을 통하여서 여신으로 자리매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섬과 같은 고립되고 비좁은 삶터에서의 생활영위행위를 E.보즈럽(Boserup)은 ‘여성주도형 농경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제주섬의 생활이 굳이 전통적인 ‘남성가장모델(the male breadwinner)’을 요구하기 보다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생산성에 적합하도록 ‘여성주도(가장)모델(the female breadwinner)’로 어느 시기까지는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여기에서는 성(gender)의 주체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생활의 주도 혹은 주체에 대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대 신화에서는 성의 이데올로기가 화소가 아니라 삶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설문대 신화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미 제주여성의 전형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섬을 만드는 그 노동의 강도는 후대의 제주여성의 노동력과 그 질량에 맥이 닿는다. 또한 단 벌 치마로 살아야했다는 물질적 궁핍함을 설명하는 화소설정은 실제로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예전의 제주생활의 한 양상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속살을 가릴 고쟁이 한 벌만 있으면 이번에는 이 섬을 육지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겠노라는 조건부의 창조행위이며 강도 높은 노동행위의 연속성을 갖는 화소(話素)는 그리 특별한 모티브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설문대가 요구한 고쟁이 한 점은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가성 요구라기 보다 일할 최소한의 신체적 조건을 갖추려는 의도 이상으로 후대에 성(sex)에 대한 상대적인 윤리문제와 좌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섬살이의 단면이 보태어진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아직 농경사회가 제주에 정착되기 이전,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계중심(母系中心)으로 꾸려지던 제주인류사회의 일면이 설문대 신화에 기호화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었을 행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설문대라는 거인여성영웅에 상징을 부여하여 ‘거대하고 뛰어난 생산력을 지닌 여성성으로부터 제주와 제주사람들은 탄생했다.’는 제주인류사의 구호와도 같은 의식의 확정성이다.

관련유적; 성산일출봉

한라산

우도 등

4) 김상헌의 『남사록』에 나타난 진성과 여정(女丁;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경내)

제주지역의 성은 크게 읍성, 진성, 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어로는 ‘갯’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바다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섬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만, 베트남 및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바닷길에 놓여있다. 따라서 일찍이 외부에 노출되어 특히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다. 이에 방어군사시설인 성과 연대 및 봉수대 등의 시설물이 제주도민에 의하여 축조되었다. 이러한 방어군사시설에 1600년대인 조선조에 제주여성들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청음(淸陰)김상헌(金尙憲)이 편저(編著)한 <남사록(南槎錄)>은 말로만 전해들던 조선조 시대의 제주섬에 존재했던 지역방위 여군(女軍) 즉 여정(女丁)을 문헌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김상헌은 정확히 1601년에 선조(宣祖)임금으로부터 어사의 직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관헌으로 전직이 성균관 전적이었다. 그는 전적(典籍)답게 제주로 오는 과정의 기행이며 제주에서의 견문을 꼼꼼하게 자신의 글과 남의 글 등을 차입하여 기록함으로써 후에 한권의 책으로 엮어진다. 그 책이 바로 남사록이다.

그 기록에,

… 本州城中 男丁五百 女丁八百 女丁者 濟州之語也

본주의 성 안에 남정은 5백 (명)이고 여정은 8백 (명)이 (있다). 여정이란 말은 제주지역어이다.

뒤이어 여정이 담당하는 지역방위임무가 어떠한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다. “대개 남정은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살받이터 어귀에 세워 여정이라고 칭하는데 삼읍이 한가지이다” 라고 덧붙였다.

본주관 지금의 제주시를 일컫는다. 일찍이 제주여성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다시 말해 공적인 사회조직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사례는 제주여성이 오래 전부터 매우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였음을 더듬어 볼 귀중한 사료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남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국방의 임무를 여성도 똑같이 치뤘음이, 숫적으로는 (일시적이었지만) 오히려 남성지역방위군보다 우세하였다.

여정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록자의 신분과 시대적인 배경에 있다. 송유사상이 막 강화되기 시작하는 조선조 중기 초엽의 중앙관료에 의해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진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 제주여성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도 남는다고 하지 않겠는가.

관련유적; 명월진, 별방진 등 진성

참고자료;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한림화(1999), 『북제주여성의 삶의 기록』

5) 수산진성(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579-1,580번지)

수산진성은 1439년(세종21)경에 축성되었다. 이 성의 일부는 현재 수산초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돌담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의 둘레는 1,164척, 높이 16척에 이르렀다. 동서에 각각 문이 있었고, 성 안에는 하나의 우물과 객사 및 군기고(軍器庫)가 있었다. 이 성을 쌓은 목적은 우도 부근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수산진성에는 ‘진안 할망’당이 있는데 이 성의 축조에 얽힌 슬픈 사연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수산진성을 축성할 당시 성을 쌓으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려 건설에 진전이 없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때 한 중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쌓을 방안이 있다고 예언하였다. 열세살 짜리 어린 소녀를 제물로 묻고 그 위에 성을 쌓으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열세살 짜리 여자 아이를 가진 마을 주민들이 제비뽑기로 제물이 될 아이를 정하였다. 제비뽑힌 그 여자 아이를 묻고 성을 쌓으니 정말로 무너지는 일 없이 잘 쌓게 되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희생제물로 죽어간 그 어린 여자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려고 진 안에 당을 만들었다. 제주도는 군사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였던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濟州兵制烽臺總錄』, 정조년간. 『旌義郡邑誌』, 1899.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66

6) 장성:지혜로운 애기어께와 항몽유적지인 향파두리 성(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남이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해도 먼저 진산에 가 닿는다고 옛어른들은 말하였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애기어께 말도 들어보라’라는 속담은 바로 남의 충고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 흔히 일컬어지는 말이다. ‘애기어께’란 제주 지역어로 ‘아기를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속담에 나타난 충고자 혹은 조언자의 신분이 ‘애기어께’인 까닭은 좋은 말이나 지혜는 신분이나 지위와 전혀 무관함을 은근히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제주사람이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위 속담은 매우 근거 있는 한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조 말기에 여몽연합군이 북제주 지역인 지금의 고성리 즉, 향파두리에서 항거하는 삼별초 잔당의 거두 김통정 장군을 칠 때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그 이야기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와, 토성(土城)과 석성(石城)으로 이중의 성을 고성

리 근방 향파두리에 쌓고 보루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성안에 모두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다. 무쇠통문을 닫아걸고 저항하는 김통정을 여몽연합군은 도무지 토벌할 길이 없었다. 지장이란 지장은 다 나서 지혜를 모으고 용장이란 용장은 다 나서 힘을 썼으나 향파두리성의 무쇠통문을 열 재간이 없어 여몽연합군의 사기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던 참이었다. 내로라하는 장수들이 끔끔대는 걸 보다못한 예닐곱 살 난 애기어째가, 『아이고 우습다! 관솔을 무쇠통문에 쌓아놓고 왕강하게 불을 피워 두이레 열나흘만 달구면 쇠가 별절게 익어 살랑 열릴 문을 저렇게 못열어 젓먹은 힘을 다 쓰는구나』라며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김방경 장군은, 『웁다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걸 여태 몰랐다니!』 무릎을 탁 쳤다. 여몽연합군 병사들은 무쇠통문에다 관솔을 쌓아놓고 풀무질을 하니 애기어째 말 그대로 열나흘이 되는 날 쇠문이 녹아 저절로 열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 어떠한 지혜라도 빌어써야만 하는 사람에게 하찮은 남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충고할 입장이면 서슴참고 격언처럼 쓰여져 대물림하였다.

덕분에 후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선대의 한 여성이 살다간 자취를 더듬어 교훈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칫 이 땅에서 아무 쓰잘 데 없는 여성 즉 ‘비바리’로나 치부되었을 사회적으로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한 여성이 발휘한 지혜의 소산이 두고두고 세기를 잊은채 인구에 회자되고 있음은 그 여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인해 제주의 역사가 쓰여진 때문이다. 역사가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들, 소위 민중은 그의 지혜로운 재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오늘에 전하는 바, 그 역사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

관련유적 ; 북제주군 고성리 향몽유적지내 토성, 석성, 샘 등

바.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1) 마라도 아기업개 할망당(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리)

- 민속관련 유적, 당

제주도에는 민간신앙터인 당이 많은 편이다. 1701년에 제주목사로 왔던 이 형상은 그의 행적을 『탐라순력도』 및 『남환박물』 등의 기록물로 남겼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송유사상을 제주민에게 심어주고자 수많은 절과 당을 불살랐다. 그런대도 제주도 속담에 ‘당 오백 절 오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송유사상을 내세워 나라를 다스린 조선조 오백 년, 일제 36년과 새마을 운동기간 동안 제주도의 당들은 탄압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각 마을마다 네다섯 군데씩 남아있다.

이러한 여파로 송당리의 본향당과 와흘리의 논흘당 등 몇 군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당에는 여성들만이 다닌다. 제주도의 당은 ‘인간의 땅에 건설한 신의 집’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다. 그만큼 제주 사람들은 가까이 신을 두고 있다. 당이 있는 장소 주변에는 마을이 설촌되어 있다. 따라서 당은 하나의 성소(聖所)로서 주민의 삶을 지탱하고 지속하게 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치병 및 육아, 무사안녕을 도모하는 할망당이 있어 제주여성의 지난한 삶을 이끌었다. 또 제주도에서는 여성이 애꿎게 죽으면 신으로 모셔 그 영혼을 위로하여오고 있다. 따라서 간혹 어떤 마을에는 왜구등 무지막지한 남성에 의하여 강간당하고 죽임당한 처녀의 영혼을 모신 당도 있다.

마라도 아기업개당은 마라도 북쪽 바닷가의 높은 언덕에 자리잡아 바다와 제주본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당은 마라도 본향당이기도 하며 신의 성씨가 허씨로 알려져 있다. 이 당이 설립된 지는 약 1백년 가량 되었다. 마라도는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약 1백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제주해녀들이 임시로 드나들며 물질을 하던 작업장이었다. 모슬포 해녀들이 아기와 아기를 보는 계집애를 대동하고 마라도에 물질을 하러 갔는데 파도가 사나와 물질을 하지 못하였다. 며칠을 기다려도 바다는 잠잠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잠수 즉 해녀의 우두머리의 꿈에, 아기업개를 섬에 두고 떠나야 무사히 귀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기업개를 희생제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해녀들은 배에 다 탄 다음 아기업개에게 빨리 배에서 내려서 아기기저귀 떨어뜨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아기업개가 내리자 배를 띄웠다. 아기업개

는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도 발만 동동 굴렀다. 언제나 배가 오려나 언덕 위에서 기다리다 지친 아기엽개는 굶주림에 지쳐 죽고 말았다. 그 이듬해 해녀들이 왔을 때는 빼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이에 그 자리에 당을 설립하여 일년에 한 번 아기엽개의 영혼을 위로하는 당제를 지낸다. 당 신명 중에 나타난 ‘할망’은 늙은 여성을 지칭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극존칭으로 쓰여지는 제주지역어이다.

관련유적; 마라도

제주도 전역의 할망당

2) 송당리 본향당(송당리 마을제;제주도지정문화재 5호/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당오름)

송당리 본향당은 정방형으로 돌담을 둘러 조성되어 있다. 당 신위를 모시는 작은 집형태의 단이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 옷감과 신발, 비녀 등이 들어 있다. 이 당의 신위는 금백주와 세명주 그리고 그들의 남편인 소로소천국 등 세 신위이다. 이 당은 송당리 주민을 수호하는데 주민들은 음력 정월 열사흘 날 대제하고 하여 신과세제를 올리고 이월 열사흘 날에는 영등손맛이를, 칠월 열사흘 날에는 마불림제, 시월 열사흘 날에는 시만국대제를 올린다. 이 당의 신앙민 중 광산 김씨가 상단골이다.

이 당의 신위 중 하나인 세명주는 설문대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당은 제주의 생활문화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 제주선주민이 농경사회로 안착하는 과정이 신화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유적; 제주도 각 마을의 본향당

3) 칠머리당(칠머리당굿;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제주시 사라봉 동쪽 기슭)

이 당은 제주시를 아우르는 어부와 해녀의 수호신인 용왕을 모신 일종의 영

등당이다. 해마다 음력 이월 초하룻날 영등맞이 굿을 하고 열사흘 날에는 영등배송큰굿을 한다.

제주시는 일찍이 제주도의 주요도시로 발전하였으나 주민의 생업은 크게 바다에 의지한 해상활동이었다. 남성이 주로 어부로, 혹은 조공품을 실어나르는 사공으로 종사하고 여성은 대부분 물질을 하였다. 지금도 시내 한복판인 제주시 탑동에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칠머리당은 도심 한복판에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제주시 주민의 수호신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관련유적;제주도 각 마을의 개당 및 영등당

4) 정난주의 묘역;천주교 순교 성지(제주도 남제주구군 대정읍 동일리 9번지)

조선 순조, 헌종 때 제주 대정에 유배된 **정난주**는 아명이 정명련(丁命連), 세례명은 마리아이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조카딸이다. 어려서 둘째 아버지인 정약전(丁若銓)에게 서학을 배우고, 장성한 뒤 고모부인 베드로 이승훈(李承薰)에게 세례를 받는다. 외숙인 이벽(李蘊)에 의해 천주교에 대한 신앙심이 더욱 다져졌다.

정난주는 큰아버지 정약중(丁若鍾)에게 학문을 배우던 황사영(黃嗣永)과 혼인하게 된다. 황사영은 17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인재로 정약중에게 의해 천주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서울에서 시모(媼母)를 모시고 정약중에게 교리를 배우며 착실한 천주교신자로 살게 된다. 황사영은 1795년 주문모 신부에게 알렉산델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정난주는 남편 뒷바라지에 열정을 바쳤다. 그리고 아들 황경헌은 주신부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1799년 정조가 승하하고 정순황후의 섭정이 시작되자 천주교에 대한 탄압 정책이 시작된다. 1801년(순조1년) 1월 7일 ‘사학금지포고령’이 내려지고 정난주와 그 가족은 마재로 피신한다. 남편 황사영은 이들과 헤어져 충북 제천의 배론 골짜기에 은신하는데, 조선 천주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백서를 써서

북경의 주교에게 보낸다. 그러나 발송 직전에 발각되어 모반 등의 죄로 순교한다. 이 일로 정난주는 두 살인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귀양정배를 당하게 된다. 유배도중 중 호송선이 하추자도 예초리 서남쪽 물세울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정난주는 아들 황경헌을 살리기 위해 ‘황새바위’갈대밭에 내려두고 유배의 길로 떠났다. 지금 황경헌의 6대손 황이정씨가 예초리에 생존해 있다.

정난주는 대정현에 관노로 귀양가서 김석구의 아들 김상집(8세) 형제를 양자처럼 기르며 생활하다가 1838년 음력 2월 1일 66세를 일기로 죽으니 모두 ‘한양 할머니’가 죽었다고 슬퍼하였다.

지금 대정읍 동일리 9번지의 정난주 묘역은 제주교구 선교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천주교 성지로 개발되어 순교자 정난주 마리아의 고향을 기리고 있다.

관련유적 ; 서귀포시 하논성당 및 제주시의 주교좌성당인 중앙성당

참고자료 ; 김찬흡(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제주도.(사)제주민예총(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인용자료 ;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5) 안봉려관스님이 세운 제주관음사와 법화사(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 서귀포시 하원동)

안봉려관 스님은 1865년 6월 14일 제주시 화북리에서 순흥 안씨 치복과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에서 차녀로 태어났다. 속명은 안여관(安廬觀)이다. 1882년에 속세에 있으면서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1889년 우연히 고승을 만난 게 인연이 되어 1907년에 전남 해남군 대흥사의 유장스님을 은사로 청봉화상을 계사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법명은 봉려관이라 하였다.

제주지역은 조선 숙종 28년 이형상 제주목사에 의해 큰 사찰들이 모두 소실되어 당시의 제주 사람들은 불교를 접하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봉려관 스님은 이런 제주도에 불교를 널리 알렸다는 것이다.

봉려관 스님의 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들을 볼 수 있다.

1901년 봄, 비양도로 들어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된다. 이때 일심으로 관세

음보살을 불렀더니 별탈 없이 섬에 도착하였다. 또한 1908년 음력 4월에 불상을 모시고 불공을 드리려고 할 무렵이었다. 제주도민 500여 명이 작당하여 그 대로 두면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들이 유혹 당할 처지라고 하여 집과 불상을 태우는 바람에 한라산으로 들어갔다. 일주일을 굶고 죽을 결심으로 깊은 골짜기로 뛰어들었는데 어디선가 시꺼멓게 까마귀떼가 나타나 그녀의 옷을 물고 일제히 날아올라 안전한 곳으로 살짝 내려놔다. 그렇게 살아난 봉려관 스님이 한 노인의 말을 듣고 산천단으로 가니 ‘운대사’라는 훌륭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운대사’ 스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며 가사 한 벌을 내려주었다.

그 후 봉려관스님은 불교의 중흥을 위해 1909년 한라산 북쪽에 관음사를 창건하고, 법화사(法華寺)를 중창(重創) 하는 등 불교 포교에 일생을 바쳤다. 또 제주불교협회 창립주역으로 제주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제주불교계에서는 관음사 창건이 절이 지어진 1909년이 아니라 스님이 관음사 해월굴에서 수행 정진하는 1908년으로 보고 있다.

봉려관 스님은 1938년 음력 5월 28일 입적하였다. 1943년 당시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의 부탁으로 회명선사가 봉려관의 비문을 지어주어 동년 7월 5일에 비를 세웠다. 입적하기 전 봉려관 스님은 오이화 스님에게 자신을 화장시킬 때 연기가 곧장 솟아오르면 관음사가 계속 번창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화장 때 연기가 곧장 오르다가 갑자기 회오리쳐 주지스님은 근심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관음사는 1940년 5월 29일에 화재가 나 재건하였고, 1948년 4·3사건으로 다시 전소되기도 했다.

지금 제주관음사는 제주조개중의 본산으로 제주불교를 아우르고 있다.

안봉려관 스님이 1924년 1월 봉안한 관음사의 관음보살좌상은 지난 1999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관음보살 좌상은 1698년(숙종 24) 전라남도 영암군 성도암에서 제작 도금하여 해남 대흥사 남암에 봉안하였던 것을 안봉려관스님이 관음사로 옮겨 봉안한 것이다.

관련유적; 관음사의 관음보살좌상

참고자료; 오영호(1988), 『안봉려관 스님』,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제주불교사연구회(2002),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인용자료; 사이버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6) 산방덕이 눈물이 흐르는 산방굴사(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마루턱)

산방산 남쪽 중턱에 천연동굴(天然洞窟)안에 산방굴사가 자리잡고 있다. 그 동굴에 들어서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바위는 오래 전에 그 굴속에서 죽은 산방덕이 화신(化身)이라고 한다. 산방덕이 바위가 된 내력은 이러하다.

아주 오랜 옛날 그 굴에서 한 계집아이가 태어났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자 미모와 마음씨가 아름다웠다. 산방덕은 원래 동굴의 여신이 사람으로 화한 존재였다. 한 마을에 사는 고승(高僧)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고을의 벼슬아치가 수청들기를 강요하였다. 남편은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 벼슬아치의 손을 피하여 원래 자신이 인간으로 화한 산방산의 동굴로 들어가 바위 덩어리로 굳어버렸다. 그 이후 산방덕이 바위로 변하여 흘리는 눈물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전설이 있다.

그 굴속에 굴사가 창건되었는데 이름을 산방굴사라고 한다.

관련유적;산방산

참고자료;제주도(1982),제주도문화유산

○ 유물

가. 여성의 복식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을 비롯한 화산섬지대, 기후 등 자연환경은 삼재(三災)의 섬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제주섬 사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검과 절약, 그리고 부지런

한 삶이 생활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생활태도는 고스란히 복식문화에 반영되었다.

1) 갈옷(제주도일원)

제주도 노동복은 갈옷과 잠수복, 목자복이 대표적이다. 갈옷은 감물을 들인 옷을 말하며 노동복이면서 평상복이기도 하였다. 원래 노동복은 상의는 적삼이고 하의는 굴중이에 대님을 매어 입었다. 그 후 차츰 통이 좁고 바지단에 겹띠를 달고 허리에는 각각 앞뒤로 두 개씩 끈을 달아서 입었다.

일제강점기 때에 몸빠라는 여성용 평상복이 들어오면서 입고 벗기가 편하고 옷감도 적게 들어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갈옷은 이러저러한 노동복에 고름/감죽으로 염색한 것이다. 이를 감물 들인다 고 하여 집집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졌다. 음력 칠월칠석을 전후하여 고름 등 풋감을 따서 절구통이나 나무도구리에 넣고 땡아 삼베보자기에 싸서 즙을 내고 그 즙으로 옷감이나 옷에 잘 스며들도록 주물러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을 적셨다가 말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색깔이 곱게 착색되도록 염색을 하였다.

갈옷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최상의 조건을 구비한 옷이다. 일 할 때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시원하고 땀도 차지 않으면서도 통풍도 잘된다. 그리고 땀에 젖은 옷을 두어도 쉽게 썩거나 상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더러움도 털 탈 뿐더러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더러워진 것도 빨면 때가 잘 빠져서 물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최상의 노동복이다. 또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고 질기고 방습 및 방충 효과도 있어 매우 경제적인 옷이다. 갈옷을 입고 밭이라고 갈 때면 이 갈옷의 빛깔과 진한 황토빛 흙, 게다가 소의 누런 빛깔까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밭을 가는 사람도 갈옷을 입음으로써 그 황토빛 흙과 자연에 동화되는 듯 하였다.

2) 제주해녀의 전통작업복(제주도바닷가마을 해녀사회)

농업위주인 중산간 마을을 양촌, 어업위주인 해안가 마을을 포촌 혹은 개촌이라 하였는데 양촌이 포촌/개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양

촌에서는 제주해녀인 잠수(潛嫂)가 입는 소중이를 물질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부터는 차츰 소중이가 속옷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잠수복은 바닷물 속에서 해산물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잠수[海女(해녀)]의 옷으로 이들이 물질을 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잠수는 완전히 어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다가 물때가 되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한다. 잠수복을 물옷이라고 하는데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이 한 벌이다. 이러한 물옷을 잠수가 언제부터 입기 시작하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다만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의 명에 의해 그린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그림 중에 물소중이로 보이는 물옷을 입고 물질을 하는 잠수가 그려진 그림이 있다.

물소중이는 색깔이 흰 무명으로 만들었다. 이후 검정 염료가 흔해지면서는 흰물소중이에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물소중이의 형태가 상체는 몸의 체형에 맞게 하고 하체는 밑 바대가 바이어스로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또한 옆으로 트임이 되어 있어 입고 벗을때도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도 착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듭단추와 끈으로 되어 있어서 신체가 증감되어도 조절이 가능했다.

물적삼은 1950년대부터 직물공장이 들어서면서 광목이 풍부해지자 생겨났다. 물소중이가 잠수복의 필수품이면 물적삼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물수건은 물속에서 머리가 흠어져 너홀거리는 것을 막으면서 보온을 위해서 썼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까부리라는 모자가 보급되었다. 눈은 수경을 말하는데 크게 족쇠눈/족은눈과 왕눈/큰눈으로 나누어지며 안경알이 두 개로 된 족쇠눈을 쓰다가 고굴과 같은 형태의 왕눈/큰눈으로 바뀌었다.

성산포 잠수들은 주로 한동리에서 생산되던 족쇠눈/족은눈을 사용하였는데 생산지 이름을 따 패눈이라고도 하였다.

3) 호상의(護喪依;제주도 일원)

제주도 사람들은 살아서는 갈중이나 입지만 죽어서는 수의인 고운 장옷을

입는다. 또한 죽어서 입을 옷을 미리 손수 마련하여 둔다는 점이 특이하다.

수의(壽衣) 또는 저승옷이라 하여 망자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입는 옷과 상주가 장례 동안 입는 굴건제복도 넓은 의미에서 이에 해당한다.

망자가 입는 호상의 즉 수의 재료는 명주를 최고로 여겼다. 보통 혼인 때 입었던 옷을 환갑 때 입고 죽으면 호상옷으로 입었다. 만일 혼인 때 장옷 등을 남에게서 빌어 입은 이라면 환갑 때나 윤달에 미리 만들어 두었다. 윤달은 공(空)달이라 하여 입을 사람의 평안을 축복하는 뜻에서 택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이 옷을 만들어 두면 오히려 수명이 길어지고, 또 시름시름 앓는 사람도 이 옷을 만들어 두면 오래 산다는 덕담이 전해진다. 바느질을 할 때는 매듭을 매거나 뒷바느질은 삼갔다. 이는 이 세상에서 맺힌 한을 풀고 가라는 염원과 뒤돌아보지 말고 잘 가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치수나 폭수도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하였는데 짝수로 하면 저승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짝을 찾아서 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수의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남자 호상옷은 비교적 단순하다. 겹옷은 도포와 두루마기를 입는데 도포가 차츰 두루마기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속옷으로는 적삼과 저고리, 소중이와 바지이다. 바지와 저고리에는 반드시 명주숨을 넣거나 창호지를 넣기도 한다.

여성의 수의는 혼인 때 입었던 것과 같다. 겹옷은 장옷이며 간혹 원삼을 준비하는 이도 있다. 장옷 속에는 한삼(汗衫)달린 적삼을, 그 위에 솜저고리를 입는다. 하의는 소중이를 입고 고장중이(고쟁이), 바지, 굴중이, 치마 2벌을 입는 것이 격식이다. 사신의 몸에 입히는 것 외에 머리에 쓰는 것, 배를 싸는 것, 손을 싸는 것, 신는 것 등이 있는데 검은 호상·엄뒤저고리·손싸개·오낭·버선과 신발 등이 그것이다.

장례 때 상주가 입는 옷은 재료가 삼베이다. 이는 망자를 앞세운 이의 속죄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1) 해녀시 두 편(발굴자;남제주신평리 오문복)

조선시대 제주에서 시를 짓던 해녀들의 주옥같은 시편들이 한학자 오문복에 의하여 발굴되어 최근 펴낸 편저서 『瀛洲風雅』(증보판)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시를 지은 송씨는 한경면 옹포리 어느 집안의 잠수 즉 해녀라고만 전할 뿐 행적이 자세치 않으며 현손이 현재 칠십 세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대개 백이십 년 전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송씨가 썼다는 시의 내용은 적침을 막으려고 봉화불을 지키는 남편을 기다리다 물질을 나서야 하는 심정을 담담히 읊고 있다.

작야봉연기(昨夜烽烟起)

수랑불귀가(戍郎不歸家)

삼월정칠수(三月正七水)

소부향저사(少婦向渚沙)

지난 밤 봉화불 모이더니

수자리 지키러 간 낭군 돌아오지 않았지만

삼월 보름 일곱물이라

새댁은 바닷가로 물질하러 갈 수 밖에

또 한명의 시인 홍씨도 당시 행적이 자세치 않으며 단지 심돌(현 성산읍 시흥리) 부씨 집안 며느리로만 기록돼 있다.

그녀도 일생을 물질하며 살아야 하는 여성의 삶을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읊었다.

소학잠영험부차(少學潛泳驗浮)

이팔저우격군가(二八歸于格軍家)

해국도시오정제(海國都是吾庭際)

동전위업각생애(同田爲業各生涯)

어려서부터 자맥질과 떼배 띄움을 익혀
열 여섯 되던 해에 격군에게 시집왔네
바다는 매양 우리 집 뜰과 같으나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며 따로따로 살아야 하네

고된 노동과 생활꾸리기에 짊이 없었을 법한 옛날 제주해녀들이 남긴 시에서 단아하고 절제된 여성상을 보게된다. 비록 단 두 편에 불과하나 서민여성 특히 제주해녀에 의하여 쓰여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증과 그에 따라 의미 부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관련자료; 오문복(2004), 『영주풍아』(증보판)
인용자료; 현순실(2004.5.17), 제민일보

2) 분재기(제주도 일원)

제주도 일원에서 재산소유와 관련한 관습법적인 불문율에 ‘제월전’이라는 것이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분제기를 ‘제월전’이라고 부른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밑천으로서의 밭’을 의미하는 말이다. 제주도의 여성사회에서는 예로부터 그 여성의 소득에 의하여, 혹은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소유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 밭은 혼인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다. 또한 혼인이후에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여 얻어진 소득의 일부를 가족의 양해 아래 밭을 사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제월전은 여성에서 여성으로 상속된다. 그러나 자신의 제사를 지내기로 내정된 아들에게도 상속한다.

3) 탐라순력도/남환박물(소유자;제주시청)

1701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대대적인 중앙집권적 정치력을 행사한 이형상에 의하여 제작된 통치문건이다. 그림은 화공 김남식이 그렸고 글은 이

형상이 손수 써넣은 것이다. 탐라순력도에는 제주해녀가 물질하는 풍경을 채색화 한쪽에 담아내고 있고, 남환박물관에는 제주여성의 생활상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 당대를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되어주고 있다.

4) 남사록

제주도에서 ‘길운절’이 장두로 민란이 일어나자 조정은 어사를 파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위무하였는데 그 때 파견된 이가 청음 김상헌이다. 김상헌은 제주도를 살살이 훑어보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그 기록에 ‘제주여정’ 즉 여성군인의 복무현황 등을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다. 제주방어에 차출된 여군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그 숫자는 얼마인 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어에 드센 여성을 일컫는 ‘여청’은 여군 ‘여정’이 음가가 변한 것이다.

다. 여성의 예술작품

라. 여성의 생산도구

1) 제주해녀의 물질도구: 해녀배

제주해녀의 물질 방법은 작업환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① 갯물질=갯바위에서 직접 바다로 자맥질해 들어가는 방법
- ② 뱃물질=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배를 타고 접근하여 작업하는 방법

뱃물질에 사용한 배의 종류와 변천과정을 보면 테우→덕판배→돛단배→발동선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배의 일종인 테우는 돛단배가 등장한 이후에도 해조류 채취 등에 이용되었다.

뱃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들은 상군에 속한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잠수배삿 즉 ‘배선개’를 낼 정도가 되는 제주해녀 중에서 상잠수들이 뱃물질을 하였다.

잠수배 한 척에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가 탔다. 뱃물질을 하는 해녀 바다는 깊은 편으로 열두 발 정도나 된다.

해녀배는 물질 뿐 만 아니라 육지와 외국 등지로 물질을 떠나는 출가물질에도 이용되었다. 돛단배 즉 풍선은 가장 오래 그리고 최근까지도 애용되었던 제주해녀의 작업배였다. 이를 보통 풍선(風船) 또는 범선(帆船) 이라고 하며 <단대받이>, <단대선>은 돛을 하나만 다는 작은 배이고, <이대받이>, <두대걸이>, <이대선>은 쌍돛배를 말함이고, <삼대받이>, <삼대선>은 돛셋을 올리는 배를 말한다.

물질에는 주로 <단대선>과 <이대선>이 쓰이고 <삼대선>의 경우는 출가물질을 오갈 때, 혹은 한 구역에서 많은 해녀가 한꺼번에 조업할 경우 등에 이용했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점시절 풍선을 타고 육지로 물질을 떠날 때의 풍경이라고 하는데, 배가 마을 포구를 벗어나 한바다로 접어들어 한라산이 시야에서 가물가물 사라질 즈음이면 배에 탄 모든 해녀가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 불러 외지로 향하는 걸음에 신명을 붙였다고 한다.

풍선이라고 노상 돛을 달지는 않는다. 대개는 해녀들이 노를 저어 해녀바다를 오간다. 이 과정에서 노를 저으며 소리(노래)를 하여 힘을 돋우곤 했다. 풍선에는 간혹 작은 운반선이 딸려 있어서 이를 <전마선> 혹은 <뎡마>라고 하며, 물때가 맞지 않거나 포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배를 댈 수 없을 때 이용했다.

이 돛단배는 원동기를 단 동력선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주로 발동선이라는 동력선은 풍선이 대체된 동력선으로서 통통배, 발동기, 동력선, 엔진배 등으로도 불렸다. 동력선은 그 모양이며 형태도 풍선과 다르지 않다. 다만 동력기를 부착했고 돛대와 노 등이 없어진 것 뿐이다. 예전 풍선 시절에는 뱃장에 화톳불을 피울 불턱을 놓곤 했지만 발동선이 등장함과 동시에 잠수복도 개량되어 더 이상 물질조업 중에 불을 쬐지 않는다. 발동선은 그 선체가 풍선과 거의 같으나 동력기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구조물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리고 통상 발동선에는 두 개의 샷대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지만 해녀배

에는 하나만을 쓸 경우도 있다.

2) 제주해녀작업도구

작업도구는 채취하는 대상물에 따라 다소 다르다.

- **태왁**; 해녀가 작업 도중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도 하고 채취한 물건을 담는 그물주머니인 망사리를 달아놓는 일종의 부의이다. 예전 박을 사용할 때는 ‘꼭태왁’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스티로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롱태왁’이라고 한다.

- **망사리**; 태왁 밑에 달아매어 채취한 물건을 담는 그물 주머니로 입구에 둥그런 에움을 둘러 반원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물의 재료에 따라 역사 어린순으로 노를 꼬아 만든 것은 ‘미망사리’, 칩으로 노를 꼬아 만든 것은 ‘꼭망사리’, 신서란 노로 만들면 ‘신사라 망사리’, 나일론 그물로 만든 것은 ‘나이롱 망사리’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 미역채취 때 쓰는 것은 ‘메역망사리’, 거름용 해조류를 채취할 때 쓰는 것은 ‘고지기 망사리’라고 하고,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할 때 쓰는 촘촘하게 엮은 망사리는 ‘헛물에 망사리’라고 부른다. 또한 태왁에 매달지 않고 소중이를 입은 옆구리에 차는 아주 촘촘한 그물로 만든 작은 망사리를 ‘조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분자기’나 고동종류인 ‘보말’ 등을 채취할 때 사용한다.

- **종기호미**; 종개호미라고도 하는데 낮처럼 생겼으나 손잡이가 잘 미끄러지지 않게 끝에 살짝 새을자처럼 옆으로 빠치어 들리게 제작한다. 이 도구는 미역과 해조류를 채취하는 데 쓰인다.

- **골개기·호멩이**; 밭의 김을 매는 호미처럼 생긴 것이다. 오분자기나 소라, 성게 등을 채취할 때 사용된다.

- **빚창**; 전복을 따는 도구로 쇠붙이로 제작되며 길고 쉼이 좀 넓게 되어 있어 전복따기에 알맞다.

- **소살**; 고기를 잡는 작살이다.

- **밀**; 밀랍 혹은 껌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는 것이다.

- **눈 · 큰눈 · 작은눈**; 수경이다. 통고굴 형태의 것을 큰눈, 수영용 고굴형태의 것을 작은눈이라고 한다.
- **본 · 본쪼갱이**; 보고도 미쳐 따지 못한 전복이나 문어 등이 있는 곳을 물 밑에서 표시하는 도구이다. 재료는 작은 전복껍질이나 골개기 자루에 하얀 천을 묶은 것이 사용된다.

2. 무형문화유산

○ 물질문화

가. 여성공예문화유산

- 1) 정동벌립 및 땡땡이덩굴 공예(제주도 무형문화재 제8호/기능보유자 홍달표, 전수자: 홍양숙/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517)

정동벌립은 농부들이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제주도 고유의 것이다. 비옷도 우산도 없었던 시절, 햇벌을 가리고 방수도 되면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정동벌립은 제주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모자였다. 정동벌립은 ‘정동’ 곧 땡땡이덩굴줄기를 재료로 하여 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제주인들이 만들어 쓰던 모자로서 비를 피하거나 또는 햇빛을 막기 위하여 써왔었다.

이 정동벌립의 제작은 예전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성로동에서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동벌립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어찌하여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에서 이 작업이 집중적으로 전승되어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8호 기능보유자 고 홍만년 씨의 경우 그의 증조부터 자부까지 5대째 그 기능이 전승되고 있어 그 연원을 최소한 15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듯하다.

오늘날 정동벌립과 정동모자 결는 일은 귀덕1리 성로동인데 총 60여 가구 중 55가구에서 100명 이상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동네 · 알동네 일부

로 번져가고 있다.

일제강점시대만 하더라도 성로동 안에 벌립청이 여러 군데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이 시절에는 남성들만이 모여서 정동벌립을 켜다. 벌립청이란 주민들 여럿이 모여서 “정동벌립을 결는 곳”이란 뜻으로 1930년대만 하더라도 성로동 안에 일곱군데나 있었다고 고 홍만년씨는 회고한 바 있다. 일제강점시대에는 거의 가가호호마다 정동벌립을 결었었는데 공출이 심해지면서 일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다. 그 빈 틈새를 여성들이 메웠다. 틈틈이 정동벌립이며 바구니 등 생필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정동벌립 작업은 크게 절벤 · 망 · 천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지는데, 이 외에도 맨 처음 시작되는 가마귀방석 및 절벤과 망사이, 망과 천 사이의 사갑바위 등이 있다. 정동벌립을 결는 순서에 따라 그 부분명칭은 다음과 같다.

- ① 가마귀방석 : 정동벌립을 결을 때 첫 공정으로서 절벤의 중심부분이다. 옛날에는 네 가닥으로 엮었으나 오늘날은 그 두 배인 여덟 가닥으로 엮는다.
- ② 절벤 : 가마귀방석을 결은 다음은 연결되는 모자 위쪽 평평한 부분이다. 그 다음 사갑바위를 경계로 하여 망에 연결된다. 절벤이라는 명칭은 송편 · 절편할 때의 절편에서 따온 말이라고 홍만오씨는 말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절벤의 날수는 보통 80개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날로 결었으나, 지금은 두 개의 날로 결고 있으며, 하나일 때마다 빨리 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다.
- ③ 사갑바위 : 절벤을 결을 때 세곱으로 하는데, 절벤과 망, 망과 천의 경계 부분은 네곱으로 결는다. 이를 사갑바위라 한다.
- ④ 망 : 사갑바위를 경계로 절벤 다음에 이어진 부분이며, 그 다음에는 역시 사갑바위를 경계로 천이 이어진다. 그 대략의 망의 날수는 절벤 날수의 두 배 정도로, $80\text{개} + 80\text{개} = 160\text{개}$ 정도이다.
- ⑤ 천 : 사갑바위를 경계로 망 다음에 이어진 절벤과 같이 평평한 부분이다. 대략의 천의 날수는 망의날수의 두 배 정도로, $160\text{개} + 160\text{개} = 320\text{개}$ 정도이다.

⑥ 바위돌림 : 천의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정동벌립을 걷는 공정을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과정은 가마귀방석에서 절벚을 만드는 과정이고, 제 2과정은 절벚에서 망을 만드는 과정이며, 제 3과정은 망에서 천을 만드는 과정이다.

제1과정이라 함은 맨처음 절벚이 중심이 되는 가마귀방석을 걷고 세 공급으로 평평한 절벚을 만든다. 절벚의 마무리 부분은 망과 연결되는 사갑바위로 이 때 네공으로 걷는다. 이 때 날의 수는 80개 정도이다.

제2과정에 들어서면 절벚과 사갑바위의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망이다. 망의 마무리 부분은 역시 네공으로 된 사갑바위로 이 사갑바위를 경계로 다시 평평한 천에 연결된다. 망의 날수는 대략 절벚 날수의 두배로, $80\text{개} + 80\text{개} = 160\text{개}$ 정도이다.

제2과정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제3과정으로 넘어간다. 망과 사갑바위의 공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평평한 천이 이어지는데, 천의 공정이 끝나면 그 끝은 바위돌림을 하여 마무리작업을 한다. 천의 날수는 대략 망의 날수의 두배로 $160\text{개} + 160\text{개} = 320\text{개}$ 정도이다.

이렇게 하여 걷는 일이 마무리되는데, 정동벌립 하나를 걷는 데는 보통 4, 5일(양질의 정동벌립은 6일, 정동모자는 3일에 2개)이 소요된다.

재료는 제주도 일원에서 흔히 자생하는 정동(땡땡이덩굴)을 쓴다.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귀덕리나 안덕면 동광리 등의 한라산 서쪽 지경에서는 ‘정동’이라고 하며, 동쪽 지경에서는 ‘정당’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동은 안덕면 동광리와 표선면 표선리에서 나는 것이 특히 양질이다. 서쪽에서 나는 정동은 보통 마디 사이가 길며, 동쪽의 것은 마디가 짧다. 이 마디 차이는 토질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마디 사이가 길어야 부드럽고 재료로서 더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꼴밭이나 ‘자왈’, 곧 돌더미에 많이 자라는 정동은 2, 3년생의 다년생일수록 좋으나, 요새는 채취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1년생 미만의 정동을 재료로 쓰고 있다. 그런데 다년생일수록 마디를 훑어내 손질하기가 어렵다. 정동에는 ‘참정동’과 ‘꺾정동’의 두 종류가 있는데, 재료로서 쓰이는 것은 참정동이다.

정동을 재료로서 쓰기 위해서는 지붕 위나 마당에서 25일 이상 햇볕에 말린다. 이 때 비를 맞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붕이나 마당에서 정동을 말릴 때 비가 내리면 밭에 나가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정동을 걷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온다. 그러나 햇볕에 말리는 정동이 비를 맞게 해서는 안되지만 이슬은 맞혀야 햇볕과 수분을 골고루 배합하면서 정동이 알맞게 마른다. 이렇게 해서 25일 이상 말린 정동은 다시 물에 담갔다가 마디를 훑어내서 재료로써 사용한다.

정동벌립의 종류는 양태나 탕건처럼 뚜렷한 구분이 없으며, 단지 도리수의 차이에 따라 상질 · 중질 · 하질로 나누어진다. 도리수의 수효가 많은 것일수록 질이 좋으며, 수효가 적은 것일수록 질이 얇다. 정동의 굵기가 가늘어 100도리가 되어야 좋은 제품이 되는 것이다.

관련자료; 대패랭이

밀짚패랭이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2) 갓일(중요무형문화재 제 4호/기능보유자 ①(총모자)김인/제주시 도두 1동

1979번지, ②(양 태)장순자/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247번지)

갓일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에서 주로 전승되어 왔다. 남해안 지방의 경우 거의 남성들에 따른 작업이었음에도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온통 여성들이 감당해 온다. 갓일은 제주도 부녀자들의 맵시 고운 솜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공예로서 〈갓, 양태〉을 일컫는다. 〈양태〉는 갓의 밑둘레 밖으로 넓게 바닥이 된 부분이고, 〈양태〉 위의 부분은 〈갓모자〉인데 양태는 대오리로, 모자는 말총으로 만든다.

갓은 가볍고 사뿐한데다가 양반으로서, 사내로서의 품위를 유연하게 드러내 준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예전에 정장을 하려면 우선 머리에 망건을 두르고 탕건을 쓴 다음에 갓을 썼다. 따라서 갓일이라 하면 망건 · 탕건 · 갓을 걷는 일 모두를 일컫는다.

갓은 갓양태와 갓모자로 나누어진다. 갓 밑 둘레 바깥으로 넓게 바닥이 된 부분을 갓양태라 하는데, 이를 줄여서 양태·갓양이라고도 하며 제주에서는 ‘양태’라 부르기도 한다. 갓양태 위의 머리에 씌워지는 부분이 갓모자인데 ‘총모자’라고도 하며 이를 줄여서 ‘모자’라 이르기도 한다. 갓 양태의 재료는 대오리이고, 갓모자의 재료는 말총이다. 우리나라의 갓은 제주도와 통영·거제도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 오고 있다. 통영이나 거제도에서는 남성들이 갓양태나 갓모자 짜기를 주로 하는데 비하여 제주도에서는 전적으로 여성의 일감이었다.

1925년 당시 제주도내에서 갓양태 결기에 종사하던 호수만 해도 13,700호에 이르렀고, 1930년 한 해에만 갓양태 175,600개, 갓모자 83,770개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미뤄봐도 그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갓일은 갑오경장을 고비로 단발령이 내림으로써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더니 제주도에서도 1960년대말에 이르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갓일을 주로 했던 지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조천읍 일대로부터 서쪽으로는 애월읍 등지였다. 주로 조선시대의 육지를 잇는 포구인 朝天浦(조천포)·禾北浦(화북포)·山底浦(산저포, 산지포구)를 중심으로 갓일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갓양태를 짜는 대나무는 제주도산을 썼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부족하자, 광복 직후까지도 일부러 배를 동원해서 경상남도 하동과 진주 등지에서 분죽이란 대나무를 실어와서 수요자에게 나누곤 했다. 갓양태를 짜는데 쓰이는 연장중 대표적인 것은 ‘양태판이’다. ‘양태판이’는 뱃나무나 느티나무의 널빤지로 만들어진 직경 28cm쯤의 정단형인데 ‘텅에’위에 얹어 갓양태를 도리로 엮어간다. 갓양태의 제작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실처럼 가느다란 대오리를 만드는 일과 그 대오리로써 갓양태를 짜는 일이다.

제주도의 말총으로 갓모자가 만들어진다. 갓모자의 줄임말은 ‘모자’이며, 제주도에서는 모저·모재라고도 한다. 갓모자만이 아니라, 말총으로는 탕건·망건·전자관 등도 만들었다. 말총은 질기고 유연하며, 머리에 쓰면 감촉에 좋

다. 제주도민과 제주말은 인연이 깊다. 제주말은 예전에 소중한 진상품이었을 뿐더러, 버거운 농사일을 줄곧 도와왔고, 그 말총은 갓모자·탕건·망건·정자관 등을 결는 데도 소중한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갓모자는 그 품질의 우열에 따라서 진계량·중계량·장내기 등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가로 세로의 줄 수효가 많을수록 상품으로 친다. 또한 넓은 의미로 갓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삿갓 모양의 방갓형이요, 또 하나는 갓(흑립) 모양의 패랭이형이다. 방갓형으로는 삿갓·방갓·전모 등이 있고, 패랭이형으로는 초립·흑립·전립·주립·백립 등이 있다. 우리가 보통 갓이라고 하면 흑립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연하고도 가벼운 한국의 갓은 한국인다운 기품을 드러내며, 인류가 고안해낸 관모 가운데 가장 우아한 관모라고 자부할 만하다. 그 기품있고 우아한 관모가 제주여성의 손에 의하여 대대로 생산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를 현대화하여 그 손길의 맥을 잇도록 하는 배려도 생각해볼만 하다.

관련자료; 망건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3) 망건(중요무형문화재 제 66호/기능보유자 이수여/제주시 삼양동 2091번지)

망건은 갓을 쓸 때에 머리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마로부터 뒷머리쪽으로 둘러치는 띠인데, 너비 7cm 쯤의 너부죽한 머리띠 모양이다. 이마와 머리뒤로 두르고 꼬나폴로 졸라매게 되어 있다. 우선 망건을 두르고 나서 탕건과 갓을 쓴다. 따라서 망건은 관모라기보다 머리장식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망건의 재료는 말총이다. 다만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망건을 쓰는 제도가 명 태조 때에 비롯되었는데 명주실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지봉유설’에는 중국·한국·유구(琉球) 사람들만 망건을 쓴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 말총으로 만든 망건을 명나라의 사신에게 선물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점으로 보아 말총을 재료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창안되고 되레 중국으로 역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말총으로 만드는 망건은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추측하고 있다. 말총공예는 조선조를 통틀어 이 시기부터 매우 성행하였다고 보고 있다.

망건은 나무로 만든 망건골에 걸어서 작업하고 끓는 물에 삶아내어 제품이 습기에 헝크러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완성된 망건에는 사용하는 이에 따라 알맞은 관자(貫子)를 다는데, 그 관자는 신분을 표상했으므로 벼슬에 따라서 그 구분이 엄격했음도 주목된다.

망건 역시 갓양태·갓모자·탕건과 더불어 제주도 여인들의 소중한 소득원이었다. 19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만 712호에서 망건을 59,000개나 생산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 등 제주도 여성 몇 분에 의하여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질 좋은 말총등 재료 구하기의 어려움과 일의 치밀한 공정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 일을 배우려는 제주여성들도 거의 없다.

관련자료; 탕건 등 갓일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나. 음식문화유산

1) 고소리술(제주도무형문화재 제11호/기능보유자 김을정/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673번지)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탐라지)》에 ‘다용소주(多用燒酒)’라고 했다. 소주는 증류주(蒸溜酒)인데 바로 이 ‘고소리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소리술을 빚는 데는 우선 ‘오메기술’을 발효시킨 술밑으로 증류하는 것으로 조를 비롯한 잡곡을 재료로 삼았다.

술독에 묻어둔 술밑을 술에 넣어 ‘고소리’(소줏고리)로 증류해서 소주를 고아내는 것을 ‘술닭는다’라고 하고, 그 술을 두고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소주를 빚는 전통적인 용구로는 ‘소줏돌’과 ‘고소리’ 두 가지가

있었다. ‘소줏돌’은 술뚜껑처럼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인데, 한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 술에 술밑을 넣고 가열해가는 대로 그 증기가 소줏돌 가운데 박힌 대나무관을 통하여 술병으로 흘러 나온다. 대나무관 둘레에는 물 적신 수건을 둘러감는다. 그래야 뜨거운 증기가 대나무관을 지나는 대로 식혀지면서 물방울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

‘고소리’는 소주를 고아내리는 오지그릇이다. 찬물을 넣은 대야 비슷한 그릇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열을 가해가면 그 증기가 위에 놓인 물그릇에 닿는 대로 방울져 꼭지를 타고 떨어져 내린다. 양소주 4되쯤씩 술에 떠 놓아 여러 번 고소리에서 소주를 고아내릴 때 소주 1되반 정도의 고소리술이 나온다. 양조주가 될 경우에는 물을 조금 타 무르게 해서 술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그 위에 고소리를 얹어 떡가루를 익반죽하여 테를 둘러야 하는데, 형겅으로 튼튼히 누빈 띠를 둘러 묶어 헛김이 새어나지 않게 하는 수도 있다. 고소리 윗통에 찬물을 부어 넣는데, 한술을 고아내리는 동안에 2~3회 냉각수를 갈아준다.

2) 오메기술(제주도무형문화재 제3호/기능보유자 김을정/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673번지)

제주도는 논이 매우 귀한 섬이라 쌀로 술을 빚지 않는다. 술의 재료는 밭곡식인 조다. 제주도에서 전래하는 조는 10여 종에 이른다. 이런 많은 품종을 경작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제주도는 근래까지도 청주나 소주를 좁쌀로 빚는 것이 정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좁쌀로 술을 빚어 온 역사는 조의 경작사(耕作史)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좁쌀로 탁주와 청주 등을 빚어 일용주(日用酒)로 이용해왔다. 제주도에서는 탁주를 두고 ‘오메기술’이라고 한다. ‘오메기술’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오메기술’은 ‘오메기’라는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메기술’은 실로 제주적이라서 무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되었다. ‘오메기술’을 만드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보통 40되들이 술밑을 담는데

메좁쌀 12되와 누룩을 만들 밀과 보리 10되가 든다. 술은 언제라도 빚을 수 있지만 상강(霜降)지나 새 좁쌀로 빚어야 좋다.

○ 의례 및 연행

가. 놀이와 의례

제주도에도 ‘입춘굿놀이’, ‘납땡엿고아먹기’, ‘정월대보름운수떡저먹기’ 등 세시풍속이 다양하게 널렸으나 여성이 기능보유자가 된 무형문화유산은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 현장 연구조사를 하여 이를 목록화하여 보전 가능한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하며 여성주도형 생활형태하며 매우 특기 할만한 세시풍속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 아쉽다.

1) 영감놀이(제주도 무형문화재 제2호/예능보유자 이증춘, 이수자 문순실/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826번지)

영감놀이란 제주도의 무당굿 중 놀이굿의 하나로서 도깨비신에 대한 굿인 동시에 놀이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일반적인 무당굿의 형식과 연희적인 놀이의 형식이 혼합되어 짜여져 있다.

지금 예능보유자는 남성이나 이 굿은 영등굿과 잠수굿 등 일반적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놀이굿이며 이수자 또한 여성이다.

〈영감〉은 도깨비 즉 제주지역어 ‘도채비’를 인격화하여 높여 부르는 명칭이다. 도깨비인 영감신에 대해선 영감본풀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는 굿제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당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이 영감놀이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종합예술제라는 점에서 민중의식이 깃들여 있고, 또한 연극의 시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가면극이다. 제주도의 놀이굿 가운데서 영감놀이만이 도깨비탈(=종이탈)인 가면을 써 분장한다. 영감으로 차린 도깨비들이

제장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수선을 떨고, 영감상에 차려 놓은 제물들을 잘 대접받고, 제장을 떠나는 풍자적인 놀이굿이다.

‘영감놀이’는 현재 칠머릿당의 영등굿에서 ‘요왕맞이’가 끝난 뒤, 어부들을 위한 선왕굿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함덕리 멸치그물잡에서 멸치를 몰아다 주는 ‘말통이영감’이라는 영감신을 위한 ‘영감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감놀이’는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로서의 놀이굿이다. 또한 ‘도깨비’ 또는 ‘영감’을 조상으로 모신 집안에서 미친 환자가 생기거나 어부나 해녀가 아프면 치르는 ‘두린굿’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영감을 환자의 몸에서 떼어 내어 달라고 보내는 주술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은 이 영감놀이를 통하여 일에 지친 고단한 일상에서 얻은 병즉 스트레스를 풀어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영감놀이를 여성주의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하리라 본다.

2) 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기능보유자 김윤수, 이수자 이정자/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097)

제주칠머리당굿은 영등신에게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무속제 즉 영등굿으로서 제주특유의 해녀 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 있는 곳이다. 육지부에도 영등신앙은 있지만 마을제 형식인 지역 및 직업공동체 굿으로 행하는 곳은 제주뿐이다. 더구나 제주해녀의 생활공동체가 대대로 이어받아 치르는 제의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물질을 하여 해산물을 원활하게 채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제주해녀공동체에 바다와 땅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영등신은 고맙기 그지없는 존재였다고 보여진다.

이 굿은 매년 음력 이월 열나흘 날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공개행사가 열린다. 제주도는 음력 이월에 거의 바닷가마을마다 ‘영등굿’을 한다. ‘칠머리당굿’은 그 중 대표적인 영등굿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이월이 되면 제주도에 서북 계절풍이 불어온다. 영등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등 모두 일곱 神位

이다. 이 영등신위들은 제주도를 한 바퀴 일주하면서 ‘세경너른땅’ 즉 경작지에는 씨를 뿌려주고, 바다에는 해조류며 소라, 전복 등 씨를 골고루 뿌려준다. 영등굿은 일종의 세시풍속이며, 풍농굿이라 할 수 있다. 칠머리당굿인 영등굿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를 하고, 열나흘날 떠나보내는 ‘송별제’를 한다.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반드시 ‘영감놀이’가 ‘굿중놀이’로 삽입되어 있다.

영등굿의 특징은 바람의 신을 위한 농경의례이기도 하다. 이 굿제차 중의 ‘씨드림’은 파종의례로써 농경의 원리를 바다에 적용한 것이다. 바다맡에 씨를 뿌리는 ‘씨드림’ 재차가 진행될 때는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 갯가 바위에 서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떼배를 타고 나가 깊은 ‘여’에 씨를 뿌리는 등 의례와 놀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굿과 똑같은 재차의 굿이 ‘잠수굿’ 즉 해녀굿이 해녀공동체만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여성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여성들에 의하여 주관하는 ‘잠수굿’에 대한 연구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도 검토해볼 하다. 전형적인 ‘잠수굿’은 북제주군 동김녕리 및 남제주군 온평리 등지에서 치러지고 있다.

3) 제주도의 불교의식(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5호/예능보유자 문명구(법명 성천)/북군 애월읍 신엄리 1068)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공양과 재(齋)공양의 측면에서 육지부의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음성공양인 범음(梵音) 곧 범패(梵唄)는 불교의식 중에서 재를 올리기 위해 부처님께 바치는 음악으로, 인간의 염원을 부처님께 전달하는데 사용된 현재까지 전하는 의식요(儀式謠)이다.

불교적인 용어로 재(齋)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영혼 천도를 위해 올리거나, 복을 받기 위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무운(武運)을 위해 올리는 의식으로 불교적 예배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불교 의례중 주로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의 의식을 행하

면서 부르는 노래를 일반적으로 범패라고 하며, 행해지는 각 재는 그 규모나 성격상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다르다. 상주권공재는 죽은 자의 천도와 극락 왕생을 드리는 재로서 보통 하루가 걸리며 가장 규모가 작은 재이다. 49재, 혹은 소상, 대상에서 치러지고 있다. 시왕각배재는 저승을 관장하는 열 시왕에게 올리는 의례인데, 천도재나, 예수재, 영산재에서도 행해진다. 예수재는 윤년이 든 해에 치러지는 의식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수록재는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을 위무 공양하거나, 절에서 강이나 바다로 나가서 방생재(放生齋)를 하면서 드리는 재이다. 영산재는 국가 단위의 큰 조직체를 위해 혹은 군인들의 무운(武運)장구를 위해서 올리는 재로써 규모가 가장 크며, 보통은 3일간에 걸쳐서 치러진다. 이러한 재에 따라서 불려지는 노래들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산재에서 불려지는 음악이 각 재에서 불려지고, 영산재는 위의 네재에서 불려지는 음악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범패의 전래는 『삼국유사』월명사 조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불교가 전래되면서 의식을 진행하는 음악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불교의 전래와 같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도라악이 제주 불교음악이라고 하는 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례 중 범음과 재 공양의 측면은 제주도 문화 중 불교문화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많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고, 대(代)를 이어 구전되어 내려온 한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불교의식은 제주에 불교가 유입, 전승되면서 제주의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육지 지방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 제주불교 세시의례 중 칠성제와 산신제가 육지지방에 비해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의 무속의례 중 산신제와 칠성제가 불교의례와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지방에 비해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사자천도의례가 중시되어 더욱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고, 천도재인 49재시에도 육지지방에서 소멸된 시왕각배를 시왕각청으로 순당하고 있고, 생전예수재의 경우에도 육불(관불)의식이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식 음악인 안채비 소리는 태징, 목탁, 북을 치면서 엄불하는데, 육지지방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며, 제주지방의 토리를 가지고 있

다. 또한 화청(회심곡)도 불교의 회심곡을 변이시켜 육지지방에서 불려지는 소리와는 다른 제주적인 소리로 불리워지고 있다.

제주도가 섬이면서도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중흥했었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 이에 따른 여성관련 유·무형 문화지표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자료; 관음사 불교의식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4) 해녀노래(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1호/예능보유자 : 안도인(사망), 후계자

지정진행 중, 예능보유단체(행원리 민속보존회)/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852)

해녀노래는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해녀들은 해녀작업에 사용할 태왁, 빗창 등 따위로 장단을 치면서 부른다. 노래의 내용은 해녀작업의 고됨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바닷가 일 중에 부르는 소리로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민요는 바로 〈해녀노래〉이다. 이 민요는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바다로 나갈 때 노젓는 일은 해녀들 자신이 하기도 하지만, 남자 어부들이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민요는 해녀들이 여자들이 주로 부르지만, 남자인 어부들도 함께 부르는 민요이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인 어부가 선소리를 하고, 여자인 해녀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가창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민요를 무조건 제주도의 여성요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가는 일은 매우 힘든 노동이다.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서는 소위 물질을 하고, 다시 노를 저어 물으로 돌아오는 일이란 상당히 고되었을 것이다. 해녀들은 대개 여러명이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나간다. 이때 소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힘도 좋고 해녀작업도 잘하는 소위 ‘상군’ 중에서 노젓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노는 대개 혼자서 젓기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젖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해녀들은 배 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노를 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면서 강약의 대비가 분명하다. 이러한 성격은 바로 이 민요의 박절적 규칙성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해녀들은 해녀작업에 사용할 테왁, 망사리, 빗창 등을 가지고 배에 오르는데, 이 때 테왁이나 빗창 따위를 장단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바다와 제주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해녀의 물질은 해변을 접한 도전역에서 여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 민요는 바닷가마을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요를 〈해녀노래〉라고 일컫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녀들이 부르는 민요가 단지 여기서 말하는 〈해녀노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에 따라, 〈해녀 노젓는 소리〉 또는 〈잠수 노젓는 소리〉 등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다.

음악성격과 음보 등 이 민요의 가창 형식은 복잡하다.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교대로 선소리를 교창 또는 모방창으로 엮어 나가기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형태도 있다. 이 민요의 속도는 보통빠르기에서 아주 빠른 속도까지 자유롭게 연결된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노를 젓다가 노래의 흥이 나면 그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힘이 들면 다시 느려지기도 하는 등 그 속도는 노동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제주해녀의 ‘소리’를 단순히 〈해녀노래〉라고 규정짓지 말고 수백 가지에 이르는 곡과 그 가사를 새롭게 채취, 채록하고 전사하여 전문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자료; 제주해녀

제주해녀 도구

제주해녀항일항쟁비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5) 멜(멸치)후리는 소리(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0호/예능보유자 김경생/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1667-8)

멸치후리는 노래, 즉 멸치잡이 그물당기는 소리는 제주도의 바닷가마을에서 그물로 멸치를 잡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멸치후리기는 바닷가마을 중에서도 모래밭이 질펀히 깔린 마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민요는 지금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여성들에 의하여 잘 전승되고 있다.

해안에서 약 1km 쯤 떨어진 바다까지 거룻배들이 원을 둘러 가며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동원되는 배들은 그 기능에 따라 당선·망선·닷배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그물을 당기는 사람 중에서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소리를 하기도 하고, 선소리꾼이 별도로 있어 노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은 동작에 맞추어 후렴구를 힘차게 부른다.

이 ‘멸치 후리는 소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생업의 최일선에서 힘을 모아 일을 함께 도모하여 얻은 수확을 공정분배하는 과정까지 여성이 주도하는 곳이 제주도이다. 이제는 일의 종류와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처럼 역동적인 ‘멸치 후리는 소리’도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장연구 조사를 통하여 소리의 행위에 걸맞는 소리꾼들에 의한 보전이 이뤄지도록 빠른 배려가 요구된다.

관련자료; 서우젯소리, 제주민요

인용자료; 제주도, <http://www.jeju.go.kr>

나. 행위예술

1) 제주민요(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예능보유자 조을선(사망), 보유자 후보 이선옥)

제주도는 예로부터 민요의 보고(寶庫)로 잘 알려졌다. 제주도의 자연과 역

사·사회·문화·민속의 독특함이 그대로 집약되어 민요에 풍부하게 깃들여 있다. 민요는 대부분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노동요가 많다. 제주에서만 유달리 전해지는 노동요가 적지 않을뿐더러, 유별스레 여성 노동요의 사설이 풍부하여 그 문학적 가치가 두드러지다고 볼 수 있다.

‘제주민요’(보유자 후보 李善玉)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95호로 전승되는 곳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다. 이 마을은 약 5세기 동안(1423~1914), 제주도 행정구역이 삼분(三分)되었을 당시 정의현의 도읍지였다. 따라서 제주도의 평범한 산간마을이면서도 수백년 동안의 도읍지였다는 이중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민요가 불리워지는데 이는 관기 등에 의하여 육지부의 민요가 수입되고 변용된 데서 유래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188호로 지정된 이래 유형, 무형의 갖가지 문화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보수, 복원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속에는 〈오돌또기〉·〈봉지가〉·〈맷돌노래〉도 들어있다. 또 창민요(통속민요)는 육지부 경서도 지방에서 불리던 타령이 제주도로 흘러 들어와서 전승변이(傳承變異)된 민요들로 보고 있다.

오돌또기는 그 구성지고 은은한 가락이 제주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재효본(申在孝本)의 ‘홍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 오돌또기와 비슷한 사설이 드러난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산천초목’은 오늘날 제주도에서도 드물게 전승된다. 신재효본(申在孝本)의 홍부가나 가루지기타령의 첫머리를 보면 “산천초목이라 성림한디 귀경가기 질겁또다.”(山川草本이 成林한디 귀경가기 질겁또다)라고 부르는데 산천초목도 그렇게 부른다. 따라서 경서도 창이 제주도로 유입, 변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봉지가’는 매우 에로틱한 가사를 노래하는 민요이다. 이 또한 경서도에서 관기들에 의하여 제주도로 건너온 창으로 보고 있다.

‘맷돌노래’는 제주도 민요의 백미(白眉)라고 칠만 하다. 원래는 독요(獨謠)

로서 제주민의 삶을 사설로 풀어놓는다. 고 김영돈 박사는 “맷돌노래의 가사 전반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제주도의 전래적인 사회·생업·지리·민속·신앙·풍토·가정생활 등을 송두리째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을 정도이다.

제주의 민요는 제주여성에 의하여 대대로 전승된 역사쓰기와 같은 것으로, 참으로 그 문학성이 빼어난 것들도 흔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주도와 제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절실한 작품들이 수두룩히 깔렸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에 의하여 재정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련유적; 성읍민속마을. 1984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188호

인용자료; 김영돈의 『민요해설』

제주도, <http://www.jeju.go.kr>

제2부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기 권 기

권 순 형 (한경대학교 강사)

김 성 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박 남 순 (전 전남일보 기자, (사)대동문화 편집위원)

서 지 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유 현 옥 (문화커뮤니티 금토 대표)

한 립 화 (전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위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위원)

2004 연구보고서 250-2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2004년 12월 25일 인쇄
2004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15,000원>

ISBN 89-8491-110-0 93330